

# CRISIS OF CONSCIENCE

레이몬드 프랜즈 RAYMOND FRANZ 지음

## 양심의 위기

종교적 권위와 개인의 양심이 충돌할 때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도 베일에 싸여있는  
통치체(중앙장로회) 내부의 이야기

전 통치체 성원이었으며 4대 협회장(프레더릭 프랜즈)의 조카  
이기도 한 레이몬드 프랜즈의 양심의 위기

**성경의 인용:**

성경을 인용할 때 별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 「신세계역 성경」(*New World Translation of the Holy Scriptures*)에서 발췌했습니다. (한국어 신세계역은 2014년 개정판) 그 이외 다른 성경 번역판에서 인용했을 경우에는 각주에 표시했습니다.

**출판물의 인용:**

책의 지면이 한정된 관계로 영어 인용문은 번역문만 게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용된 출판물의 한국어판을 신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복사본도 게재 하였습니다.

「양심의 위기」 한국어판은 영문 최종판(2004년판)을 기초로 번역하였습니다.

# 양심의 위기

## Crisis of Conscience

레이몬드 프랜즈 Raymond Franz 지음

## 저자 서문



종교 조직의 역사를 살펴보면, 겉모습 뒤에 숨은 조직의 본질과 근본적인 동기를 깨닫게 되는 결정적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반대와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조직 특유의 권위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조직을 움직이는 추진력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실제로는 항상 존재했지만 수면아래 감춰져 있던 조직 핵심부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 조직이 그동안 강조하던 원칙들이 철저히 무시되는 모습을 통해 그동안 가졌던 조직에 대한 환상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조직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강력한 경고를 통해 반대 의견이나 의문을 효과적으로 봉쇄해 버린다면 일반 성원들은 조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 사고의 기회마저 박탈당할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대부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여호와와의 증인과 관련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용을 보시고 어디에서 발췌한 글인지 그리고 이 내용에 공감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많건 적건 권위를 갖고 있으며 특정한 목적을 가진 눈에 보이는 조직체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가 이미 빠져나온 그 다양한 조직들에 존중심을 나타내는 것

이 주의 부르심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비록 우리는 소수로서 각기 멀리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과 믿음 안에서 그리고 소망과 사랑 안에서 참으로 거룩하게 되어 밀접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명령에 따르면서 그분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견고한 군대로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서 숫자에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설명 참조)

… 우리는 우리의 머리(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를 거부하며, 그리스도의 영광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본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

“조직”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전혀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원칙은 성서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을 구속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양심을 구속하지도 못하게 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와 지식과 사랑 안에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

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면서,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어떤 울타리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성정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울타리를 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닐 자격이 부족한 것입니다.

\*\*\*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위에 나오는 표현들을 평가해 달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배교”적인 자료라고 규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이 자료는 초창기 「파수대」 기사의 일부입니다.<sup>1)</sup> 처음에는 교회 명부에 가입되는 일 없이도, 보이는 조직을 갖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변경을 한 뒤로는 자신들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했으며,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이름을 사용하면서 고도로 중앙 집중화된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초창기 출판물에서 채택한 원칙들을 부정하고 폐기한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이미 수 십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 놓은 방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력이 있으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사건과 상황들이 바로 이 책 「양심의 위기」에 나와 있

---

1) 「파수대」 영문 1883년 3월호, 1884년 2월호, 1885년 9월 15일호 참조. 해당 기사들의 실제 사진은 「그리스도인 자유를 찾아서」(*In Search of Christian Freedom*) 영문판 72-76면에 실려 있다.

습니다. 이 일들은 좀 더 최근에 일어난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에 인용한 것과 같은) 초창기 「파수대」 기사만큼이나 생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양심의 위기」 2004년 판에서 제시하는 설명은, 그 기간에 있었던 조직상의 발전과 변경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늘날 21세기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 시기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의미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으며, 제시된 내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책에는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실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시기를 배경으로 썼지만, 나는 이 책이 오늘날에도 당시와 똑같이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현실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일에서 위험을 당하거나 친구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속임을 당할 때, 그들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 불친절한 일입니까? 그들은 경고를 믿지 않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심지어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경고를 할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납니까?”

- 「파수대」 1974년 5월 15일호 233면.

인생은 불확실한 것이며 사람이 죽을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기억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감 때문에 쓴 것입니다. 나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썼으며, 상처를 주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선한 양심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읽을 때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쓰는 내 마음 역시 아팠습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추구한다고 해서 믿음이 파괴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최선을 다해 알고 노력하고 진실의 편에 설 때 참 믿음의 기초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알게 된 것들을 통해 어떻게 행동할지는, 물론 각자가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이 책을 통해 사실을 말했다는 면에서, 적어도 나는 도덕적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 Contents

- 저자 서문 ... 004
- | 제1장 | 양심의 가치 ... 013
- | 제2장 | 저자로서의 자격과 집필 이유 ... 027
- | 제3장 | 통치체 ... 091
- | 제4장 | 내부의 동요와 개혁 ... 151
- | 제5장 | 전통과 율법주의 ... 211
- | 제6장 | 이중 표준 ... 259
- | 제7장 | 예언과 독선 ... 311
- | 제8장 | 정당화와 헐박 ... 371

제9장	1975: 하느님께서 행동하시기에 적절한 때 ...	429
제10장	1914년과 “이 세대” ...	461
제11장	결정의 순간 ...	501
제12장	파장 ...	613
제13장	개혁의 전망 ...	677
	부록 ...	731
	용어 정리 ...	776





# 양심의 가치

C r i s i s   o f   C o n s c i e n c e



...

좋은 삶든, 양심 문제는 우리 각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는데, 이 일을 계속 피해갈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도 만들고 비참하게도 만들며, 우리가 아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의 본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런 문제를 맞닥뜨릴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택한다는 것이 좀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족이라는 보호막 속에 양심을 둘둘 감싸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세를 따라서 “묻어가는” 방법도 있고, 괜히 소란피우는 것 같아서 내 마음속 감정을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일이 터지더라도 나서기보다는 “나는 그냥 여기서 보고만 있을래.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거나 어쩌면 상처를 입더라도, 나는 괜찮으니까 된 거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은 도덕적인 면을 “무시”하면서 한 평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끝마치고 삶을 마감할 무렵에는 “적어도 난 어느 정도 행동하는 삶을 살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일에도 나서지 않고 방관하면서 산 사람보다는 훨씬 깊은 만족감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이 깊은 확신을 가지고 행한 일들이 결국 허무한 경주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가치 있게 읽었던 것들에 대해서 현재는 그 가치에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대가가 사소한 것일 때는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것이 많을수록, 또 그 대가가 비싸질수록 양심을 사용하여 도덕적 판단을 하면서 그 결과까지 감수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가 너무 클 경우에, 인생에서 진짜 위기가 찾아왔다는 사실과 자신이 도덕적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양심의 위기”에 대한 책이며, 사람들이 그 위기에 맞서고 있는 방법과 그것이 그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존 위클리프의 이단 재판처럼 드라마틱하지는 않으며, 윌리엄 틴들을 잡기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추적처럼 흥미롭거나 미카엘 세르베투스의 화형식처럼 끔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었던 투쟁과 고통은 앞서 언급한 사람들보다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비록 루터의 이야기처럼 감동적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적어도 루터가 70명의 재판관들 앞에서 보여준 다음과 같은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증언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내가 확신을 갖게 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이나 공의회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주 잘못을 범했고 모순적임을 스스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인용해 온 성경에 매여 있습니다. 또한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은 일입니다. 나는 내가 한 어떤 말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sup>1)</sup>

지금부터 19세기 전, 이들보다 오래 전에 살았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평생 믿었던 종교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로 구성된 사법 공의회 앞에서 본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다음과 같은 솔직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sup>2)</sup>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나와 매우 친한 사람들이며 ‘여호와의 증인’으로 알려진 종교 단체의 전현직 신자들입니다. 증거들이 보여주듯이 그들의 경험은 결코 그들만의 독특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

1) 1521년 4월, 독일 보름스 제국의회 곧 국회에서 루터가 변론할 때 발언한 마무리 발언.

2) 사도행전 4:19,20. 「쉬운성경」. 원문에서는 「개역 표준역」RSV를 사용.

나는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와 비슷한 양심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후 여러 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직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 역시 종교권력이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양심에 충실히 고착하기 위해 투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에게 이 일은 감정적인 면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 자신과 창조주 사이에 끼어든 인간의 권위를 배척하고, 종교적 독단주의와 율법주의 그리고 권위주의도 배척하며,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단체가 아니라 “모든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지만,<sup>3)</sup>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평생 친구를 잃게 되고 가족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것을 목격하며,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종교적 유산을 희생해야 하는 위협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한 갈림길에서 결정은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단순히 “찾잔속의 폭풍우”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은 종교집단에서 발생한 중요한 논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나는 이 책의 내용을 검토해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유익을 많이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수는 적지만, 제기된 쟁점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쟁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맞서왔던 ‘양심의 위기’와 동일합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독단적인 규제로 인한 방해 없이 영적 진리를 추

---

3) 고린도전서 11:3

구할 수 있는 자유와, 일부 인간 중재인들이 가진 성직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는 교묘한 방해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표면상으로는 이 책의 많은 내용이 여호와의 증인 조직의 독특한 면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근본적인 쟁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믿음의 사람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지도 않은 일”이라는 데 대한 확고한 믿음의 가치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해 온 바입니다. 일부는 증인 조직의 조치로 인해 가족 관계가 단절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부모와 자녀들과 친 형제자매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그들은 깊이 사랑했던 오랜 친구들과 더 이상 자유로운 교제를 즐길 수 없습니다. 그러한 교제는 증인 조직 내에서 그 친구들을 위협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생 쌓아온 좋은 명성에 금이 가게 되고, 그들이 알고 있던 사람들로 부터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조직 내에서 또 그들의 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그들이 잘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훌륭하고도 올바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수단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물질적인 손실이나 심지어 육체적인 학대가 이것보다는 견디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항상 그래왔듯이) 고집 센 자존심, 또는 물질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권이나 탁월함, 권력 혹은 단순히 육체의 만족을

얻기 위해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사람들이 그러한 이기적인 목적과는 정반대의 목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인간 본성에 대해 매우 독특한 면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양심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제명처분도 불사했던 사람들에게 더해, 그러한 제명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처분을 지지하여 가족 간의 유대를 허물고 오랜 우정을 끝나게 해버린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역시 대부분 진실하며, 종교적 의무로 규정된 규칙을 지키면서 여전히 슬퍼하고 있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체 어떤 믿음과 논리가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주목할 점은, 이 책에서 다루는 사건들에 연루된 사람들 모두가 여호와의 증인 조직 내에 20년, 30년, 40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 동안 몸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경계인”으로서가 아니라 증인 조직에서 매우 활동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뉴욕 브루클린의 증인 국제 본부 직원 중 탁월했던 성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여행하는 감독자와 장로들이었던 남자들, 오랫동안 선교인과 복음전파자로 일했던 여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증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믿음 때문에 이전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방인”과의 교제는 여호와의 증인 사이에서 좋지 않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된 후 그들의 유일한 친구들은 자신들의 종교 조직 안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직이 그들 앞에 세워놓은 목표에 따라 자신들의 전체 인생을 계획했습니다. 그 목표에 따라 그들은 얼마만큼의 세상 교육을 받아야 할지, 어

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결혼은 할 것인지, 아이는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산의 일부를 포함하는 이러한 그들의 “투자”는 커다란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 모든 것이 단 몇 시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일이, 양심의 자유를 수호한다고 하는 유명한 종교 단체들이 가장 가혹하게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참으로 기이한 현상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세 사람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종교 내에서 탁월한 교사였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같은 해에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10년 이상 자신의 종교 체계의 심장부를 공격하는 책을 집필하고 정기적으로 그러한 견해를 알리는 강연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1,000명 이상의 청중 앞에서, 그 종교 조직이 성서 예언의 성취와 관련이 있다고 가르치는 핵심연대와 그 의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종교 조직의 견해와는 다른 견해를 가까운 친구들과의 사적인 대화에서만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종교조직들이 내린 공식 조치는 그들이 저지른 행동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가장 가혹한 처벌은 가장 덜 심각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독일 튀빙겐 대학의 교수인 로마 가톨릭 사제 한스

킹Hans Küng입니다. 그가 교황과 주교 공의회에 대한 교리적 오류를 신랄하게 비판한 지 10년 후, 바티칸은 그 문제를 직접 나서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1980년, 바티칸은 가톨릭 신학자로서의 그의 공적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제로, 그리고 대학에서 초교파주의 연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남아있습니다. 사제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조차 그의 강의를 듣습니다. 그의 강의를 듣는 것은 교회의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sup>4)</sup>

두 번째 사람은 호주 태생의 제칠일안식일 교회 교수인 데스몬드 포드Desmond Ford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1000명 이상의 평신도에게 하는 연설에서, 그는 재림교회의 1844년에 관한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 일로 그는 교회 청문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를 위해 6개월간의 유급 휴가를 받았으며, 1980년에는 100명의 교회 대표자들 앞에 서서 50여 시간 동안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을 청취한 후 교회는 그의 교사 지위와 성직을 박탈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견해를 밝힌 책을 출판하고 그것에 관해 안식일교회 내에서 지속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그는 제명(파문)당하지 않았습니다.<sup>5)</sup>

세 번째 사람은 에드워드 던랩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내의 유일한 선교 학교인 워치타워 길르앗 성서 학교에서 여러 해 동안 교무 주

---

4) 그러나 학생들은 그 수업에서 학점을 인정받지는 못한다.

5) 그는 1982년, 테네시 주 채터누가에서 데스몬드 포드와 대화하면서, 그때까지 120명 이상의 제칠일 안식일 교회 성직자들이 그 종교의 특정 가르침이나 당시의 지침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임하거나 “해임”되었다고 말했다.

임으로 섬겼으며, 증인 조직에서 발행한 성서 사전(「성서 이해를 위한 보조서」책 - 현재는 「성경 통찰」책으로 이름이 변경됨)의 주요 편집자였으며, 조직의 유일한 성서 주해서인 「야고보서 주해」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조직의 특정 가르침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오랜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에서만 이야기했습니다. 1980년 봄, 다섯 명으로 구성된 사법위원회는(이들 중 조직의 통치체 구성원은 아무도 없었음) 비밀스럽게 몇 시간 동안 던랩을 만나 그의 견해를 심문했습니다. 그 결과 40년 이상 조직에 몸담았던 던랩은 자신의 직무에서 해임되고, 그의 집이었던 국제 본부를 떠나야 했으며, 조직으로부터 제명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극단적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군림한 적도 있는 한 종교조직은 내부 반대파 교수에게 최상의 관용을 보여주었던 반면, 그동안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투쟁해 왔다고 자부해온 또 하나의 종교조직은 정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호별 방문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증인들에 대해 아는 바는 몇 가지 특정 양심 문제에 관한 입장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본 것은 수혈 거부나, 국기 혹은 그와 비슷한 상징물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다는 것, 군복무를 거부하는 확고한 입장, 정치적 활동이나 참여를 거부한다는 것 정도입니다. 법적 사례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당한 반대와 박해를 받으면서도 전과할 권리를 위해서 쟁취한 50건의 승소 판결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헌법으로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는 그나마 아무 방해 없이 그들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극심한 박해와 체포, 투옥, 폭도의 공격, 구타 그리고 공식적인 금지령 등으로, 출판물 배부와 전도 활동이 금지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양심의 자유를 중시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한편으로는, 그들의 조직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다른 견해를 말하는 신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사법모임(종교재판)에 회부시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제명처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순된 입장을 어떻게 합리화할 것입니까? 또 다른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가한 가혹한 종교적 박해와 신체적 고문을 견뎌 낸 것은 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양심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리를 어길 경우에는 종교적으로 엄한 징계를 받기 때문에 단순히 조직의 가르침과 표준에 고착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런 문제가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직의 연합과 질서유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분열을 일으키며 악의에 찬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로부터 신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입니까? 권위에 대한 합당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문제는 어떠합니까?

물론 그러한 요소들을 무시하는 것은 극단적이고 맹목적이며 균형을 잃은 태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유가 오용되면 무책임, 무질서, 혼란, 심지어는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어느 누가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까? 그러한 경우에 인내와 관용은 우유부단과 방임 그리고 기준을 낮춘 것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랑으로 했다는 것조차도 단순한 감상주의에 빠져서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며, 이런 경우에는 누가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개인의 양심을 제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른바 영적인 “인도”가 정신을 지배하면서 영적인 폭력으로 변질되기까지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합과 질서라는 훌륭한 특성이, 제도화된 순종과 율법적인 획일성으로 통제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권위에 대한 합당한 존경심이 노예근성과 맹목적인 복종으로 전락하고, 하느님 앞에서 개인의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할 책임을 포기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앞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문제의 단면만을 보게 될 때 취하게 되는 특이한 입장과 행동이 인간관계를 얼마나 극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생생하게 묘사할 것입니다. 1980년대에 확연하게 드러난 이 조직의 특성과 정신은 1990년대까지 본질적으로 변한 것 없이 이어졌고, 2004년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면을 살펴봄으로써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 시대에 제기되었던 근본적인 쟁점들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히 분별하게 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가르침과 본으로부터 그토록 짧은 시간 내에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비극적인 일탈이 별다른 어려움도 없이 교묘하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도, 그리

고 여호와의 증인을 성급하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먼저 이 책에서 제기하는 쟁점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종교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다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진 입장과 행동이 바로 그러한 기본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기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 독특한 종교 조직의 구조와 그 조직의 교리적인 시스템 및 통치 시스템을 조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정책을 세우는지, 그리고 이 조직의 과거 역사와 기원에 대해서까지 어느 정도는 조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종교적 혼란의 근원을 밝혀낼 수 있고, 하느님의 아들을 진실로 따르기 원하는 사람이 평화와 형제 연합을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이 그러한 문제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제2장

# 저자로서의 자격과 집필 이유

C r i s i s o f C o n s c i e n c e



...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겨레를 위하는 일이면(“내 형제들, 곧 육체를 따라 된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신세),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로마서 9:1, 2, 「새번역」<sup>1)</sup>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이유는 앞 장의 내용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문제는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책을 써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나의 배경과 그 배경으로 인해 얻게 된 균형 잡힌 시각 때문입니다. 유아시절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나의 삶은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나와 같이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동안 내가 얻었던 독특한 경험은 결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독특한 경험 속에서 내가 알게 된 정보는 절대 다수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

---

1) (역자): 원문에는 「신 영어 성서」NEB에서 인용했다.

다. 그러한 정보들은 거의 대부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얻은 것입니다.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정보들을 얻게 되었고, 그 일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앞의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나의 양심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도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깊은 상처가 쌓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이 당사자에게 숨겨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하느님과 동료들 앞에서 어떤 의무감을 느껴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의문들이 내가 고심해왔던 것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파생되는 부수적인 면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내 자신의 '업적'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생략할 것입니다. 물론 현 상황에서는 그러한 내용까지 말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어떤 면에선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현대인), 저 '가장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뒤질 것이 없습니다.<sup>2)</sup>

---

2) 고린도후서 12:11의 한국어 번역은 「쉬운성경」에서, 괄호안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발췌. 원문은

내가 바울만큼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나의 업적을 다루지 않는 이유와 동기가 바울의 그것과 상응하는 것임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네 분의 조부모 중 세 분이) 여호와와의 증인이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1913년에 침례를 받으셨는데, 당시는 증인이 단순히 ‘성경 연구생’ 이라고 불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1938년 16살이 되기 전까지 활동적인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면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호별 방문 ‘증거’ 에 매달 20~30시간을 바치고 있었고, 길거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잡지를 전하고 전도지를 전했습니다. 길거리 전도를 할 때면, “성서에 의하면, 종교는 올무이다. 하느님과 왕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플래카드를 앞뒤로 걸치고 있었습다.<sup>3)</sup>

1938년에 나는 (우리 집에서 오하이오 강을 건너야 하는) 신시내티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대회에서 워치타워 협회장인 판사 조셉. F. 러더퍼드가 영국 런던에서 연설하는 내용을 무선전화를 통해 들었습니다. “사실을 보라”는 제목의 연설 서두에서 러더퍼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실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충격적인 일

---

「신 영어 성서」NEB에서 인용했으며 괄호 안은 「신 국제역」NIV에서 인용했다. 또한 3장1,2절; 5장12,13절; 6장4-10절; 11장21-29절과 비교.

3) (역자): 당시 플래카드에 가장 흔하게 사용된 두 문장은 “종교는 올무이며, 속임수다.” “하느님과 왕 그리스도를 섬기라”였다. 이것은 당시 증인들이 “종교”라는 단어에 대해 현재의 증인들과는 다른 정의를 가졌기 때문이었는데, 1993년에 발행된 「선포자」책 22장 447면에는 이런 설명이 나온다. “당시에 그들은 종교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위배되는 모든 숭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사실의 일부를 감추는 것을 변명하거나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복지가 관련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사실이 전해질 때, 그들은 침착하고 냉정하게 사실을 직시해야 하며, 그들 자신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이전에 가졌던 믿음이나 생각이 사실을 받아들이거나 고려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sup>4)</sup>

그의 연설은 내 인생의 길에서 가치 있는 원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는 이제 러더퍼드가 제시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해엔 아직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지 않았지만, 나치즘과 파시즘이 세력을 얻어가며 민주주의 나라들에 점점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워치타워 협회장은 몇 가지 주요점들을 강조했는데, 그중 일부는 이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열심히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진리를 명확히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며, 종교가 일종의 숭배 행위이기는 하지만 하느님의 능력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고 하느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며 ... 따라서 종교와 그리스도교는 서로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sup>5)</sup>

---

4) 「사실을 보라」(Face the Facts) 소책자 영문 3면. (원문에는 사진 복사본)

5) 「사실을 보라」영문 7,8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현재 “종교”라는 단어를 참 숭배에도 적용시켜 사용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예수께서는 세상이 끝났을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언하셨습니까? 세계 전쟁, 기근, 질병, 나라들의 고난,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예언하셨지만 무엇보다도 기이한 괴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의문의 여지없이 실제 일어난 사실들은 사탄의 세상이 끝났다는 것을 증명해주었으며, 이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sup>6)</sup>

독일은 현재 교황과 동맹관계에 있으며 대영제국도 동맹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때 민주주의의 보루였던 미합중국은 전체주의 통치를 확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지금 이 세상에 사탄의 독재라는 기이한 현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왕국에 도전하며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주의 연합이 영국과 미국을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안전은 주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sup>7)</sup>

당시 내 마음에 깊이 각인된 내용은 굵은 글씨로<sup>8)</sup> 표시했습니다. 그 연설은 나를 거의 흥분시킬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감정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증인들은 위의 내

6) 「사실을 보라」(Face the Facts) 영문 9면. (당시에는, 1914년에 사탄에게 권세를 허락한 기간이 끝났으며 그때 “세상 끝”이 이미 온 것으로 가르쳤다. 지금은 더 이상 협회 출판물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7) 「사실을 보라」(Face the Facts) 영문 16,17,27면. (잘 알려진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은 나치와 파시스트라는 “독재적 괴물”이 패배하는 것으로 끝났다. 연설과 소책자에서 예언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8) (역자): 원문에서는 “이탤릭체”로 표시했다. 이 책에서는 한글의 특성상 이탤릭체보다는 굵은 글씨(볼드체)로 강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용 중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러더퍼드는 1935년에 “땅을 가득 채우라”는 주제로 또 하나의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은 하느님의 소식에 관한 이전 견해를 발전시킨 내용이었는데, “적은 무리”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며, 지금 존재하는 “다른 양들”은 땅에서 살게 될 반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의로운 자손들을 낳고 땅을 가득 채울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이 연설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조직 안에서 보호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들은 몰두해야 합니다. 침례를 받아야 하며 조직 안에 숨어들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서 노아가 건축한 방주는 하느님의 조직을 상징합니다....<sup>9)</sup>

또한 위치타워 협회장은 노아의 세 아들이 홍수가 끝난 지 2년 동안 분명히 자식을 낳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현재 이 땅에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일입니까? 성경이 지지하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

9) 「사실을 보라」(Face the Facts) 영문 40, 41면. (방주의 상징적 중요성에 대한 관점은 계속 변했다. 그러나 진술된 것처럼 조직이 구원의 필수 요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무거운 짐을 지는 일 없이 자유롭게 지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으며, 또한 아마겟돈 때 방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sup>10)</sup>

조셉 러더퍼드는 특유의 억양으로 힘 있게 연설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실이 아니라,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으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할 확고한 진리였습니다. 증거활동은 적어도 결혼과 출산 등의 개인적인 일들보다는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과, 또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sup>11)</sup>

나는 1939년에 침례를 받았고, 1940년 6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즉시 증거 활동을 위하여 전 시간 봉사에 참여했습니다.<sup>12)</sup> 그 해는 세상이나 여호와의 증인 모두에게 격동의 해였습니다. 그 때는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었고, 여호와의 증인 활동이 몇몇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수백 명의 증인들이 투옥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 자녀들이 (그들이 숭배의 한 형태로 생각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습니다. 증인들의 중립

---

10) 「사실을 보라」(Face the Facts) 영문 46,47면. (원문에는 사진 복사본)

11) 러더퍼드가 이렇게 말한 1959년 당시 나는 36세였다. 막 결혼하여 아직 아이가 없었던 나와 아내, 대부분의 결혼 생활 동안에 피임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12) (역자): “증거 활동”(witnessing activity)이란, 전도활동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전 시간 봉사”(full-time service)란, 증인들이 (절대 다수는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전도 활동에 상당한 시간을 바치기로 약속하고 이행하는 활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파이오니아 봉사” 역시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다.

적인 태도는 종종 스스로를 충성스럽고 애국적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적개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잔인한 폭도들의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해 1940년 여름, 우리 가족은 미시건 주의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대규모 증인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포위당하고 있다는 팽팽한 긴장감이 만연했습니다. 대회의 마지막에 러더퍼드 판사는 “이 대회가 큰 환난이 닥치기 전에 보는 마지막 대회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해 가을에 나는 여름옷들을 다 버렸는데, 왜냐하면 다시 그 옷들을 입게 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거나 다른 많은 증인들처럼 나치 수용소에 감금될 거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폭도들의 공격은 1940년 초반부터 점점 거세졌습니다. 인디애나 주 코너스빌에서는, 단순히 가정에서 열리는 연구 모임에서 워치타워 출판물을 연구했다는 이유로 두 명의 여자 증인들이 선동죄(“폭동 음모”)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은 5일간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날 밤 배심원들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폭도들은 피고 측 변호인(빅터 슈미트라는 증인)과 그의 아내에게 거친 공격을 퍼부었고, 그 두 부부는 거센 비를 맞으며 도시 밖까지 걸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슈미트의 아내는 도중에 하혈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나는 증인의 대표자 한 명(잭 레인보우)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그들의 도시”로 돌아오면 죽여 버리겠다는 위협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도시 경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폭도들에게 쫓기고 있던 슈미트 부부를 보았습니다. 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나보다 먼저 그들을 태우려고 시도한 다른 증인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고 차 유리창만 깨졌습니다. 우리가 슈미트의 아내를 차에 태우자 그녀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얼굴에 멍이 들었고, 깊은 상처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낫쇠를 낀 주먹 *brass knuckles*에 맞은 것이 분명했습니다.<sup>13)</sup>

가혹하고 무정한 편협함을 직접 경험한 것은 어린 나의 마음에 또렷한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럴수록 하느님의 참된 종들과 함께하는 인생행로는 의롭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 후,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 온 내 부모님과 두 명의 누이들과 또 나를 포함한 75명의 증인들은 코너스빌까지 가서 “기습적인” 증거 활동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워치타워 협회의 법률 자문위원인 헤이든 커빙턴이 추천한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을 제외하고 남녀, 심지어 아이들까지 모두 체포되어 여러 감옥으로 분산 투옥되었습니다.

우리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일주일 동안 감금되었습니다. 아직 침대였던 나는 처음으로 육중한 철장 문이 닫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13) 「1975년 여호와의 증인의 연감」 영문 186-188면 참조. (한국어는 「1976년 여호와의 증인의 연감」 미합중국 편 제3부 165-167면 참조) 위 사진은 내 개인 사진첩에서 찾아서 게재하는 것이다. 당시에 우리는 그를 그의 집에 데려다준 후에, 피 묻은 옷을 갈아입도록 도와주었다. 사진은 그 직후 찍은 빅터 슈미트(Victor Schmidt)의 모습이다.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를 듣고는 이제 행동의 자유를 빼앗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개월 후, 나는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코너스빌 사건을 항소한 대법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의 삼촌 프레더릭 프랜즈가 여호와의 증인 전문가의 자격으로 협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브루클린에서 그곳으로 왔습니다. 삼촌은 1920년부터 워치타워 본부의 성원이었으며, 러더퍼드 판사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가 오자 그 지방에 있는 회중들은 한 저녁 집회에서 그에게 연설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프랜즈는 수많은 증인들이 갖고 있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태도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나는 삼촌이 정반대의 연설을 하는 것에 대해 어안이 병병했습니다. 삼촌은, 브루클린에서는 끝을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과수대 잡지를 구독하실 분들은 꼭 6개월 치 예약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1년이나 2년 예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삼촌의 연설 요점은 디트로이트 대회에서 했던 협회장의 말과는 너무도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삼촌이 협회로부터 정식으로 승인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삼촌에게 가서, 삼촌의 말이 브루클린에 전해지면 불충실한 사람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그때까지 발전되고 있었던 증인들의 극한 긴급성을 흐트러뜨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였음에도 삼촌은 러더퍼드 판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였으며, 나는 그의 말을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좀 경솔하고 독립적인 태도로 인한 것이라 여

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해에 나는 집을 떠나, 켄터키 동부와 웨스트버지니아의 탄광지역에 있는 짧은 동료 증인과 봉사 짝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폭력성 협박이 거의 일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어떤 탄광촌은 목재로 지어진 집들이 고속도로를 따라 길게 줄지어 있었는데, 때로는 그 집들의 끝에 서서 뒤 돌아다보면 우리가 방문을 시작한 집에서부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흥분하여 폭도들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켄터키의 “옥타비아 J” 탄광촌에서는 분노한 일단의 광부들이 우리의 낡은 포드 “A형” 자동차를 둘러싸고는 “여기서 꺼져. 켄터키 주에서 꺼져. 목숨이 소중하면 돌아오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야기해 보려는 시도는 더욱 큰 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몇 개월 후에 그곳에 다시 갔을 때는 우리에게 총을 쏘며 쫓아왔습니다. 우리는 뒷길로 가서 산을 넘어 탈출하여 간신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광부들을 움직였던 힘은 애국적인 열정과 종교적인 광신 이상의 그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자적으로 불타는 지옥의 고통을 부정하는 우리의 믿음은(이 때문에 어린 소년들은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지옥이 없다는 놈들 *no-hellers*”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전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동일하게 사람들로 부터 반대를 받았습니다.

당시의 편협한 종교적 광신은 나에게 소름끼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편견이 없는 자유로운 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내 기대와는 반대로 1941년 여름이 오고, 나는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또 다른 대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나는 체구가 큰 헤이든 커빙턴과 부 협회장 네이션 노어가 판사 러더퍼드가 탄 큰

차를 경호하면서 대회장으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차로 몰려든 모습을 기억합니다. 대회 마지막 날, 러더퍼드는 5살에서 18살까지의 모든 아이들을 연단 앞 지정된 좌석에 앉게 하고, 준비된 연설을 마친 후에 그들에게 즉흥연설을 했습니다.

보통은 무뚝뚝한 표정과 목소리를 가진 이 키 큰 남자가,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인자한 아버지의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른 고대의 신실한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들의 배우자 선택을 도와줄 때까지 그들의 마음속에서 결혼을 지워버리라고 권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어린이들*Children*」이라는 새로 나온 책을 한 부씩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책은 존과 유니스라는 가상의 젊은 중인 커플을 등장시켜 결혼에 관한 내용을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혼한 사이였지만 새 질서의 도래가 너무도 가까웠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기로 결정합니다. 그 책에서, 존은 유니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내로 우리는 결혼할 수 있을 거야. 주의 은혜로, 주께 영광이 되는 사랑스런 아이들도 가질 것이고 말이야. 이 땅에 영원한 평화가 올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야. 지금은 짐을 가중시켜서는 안 돼. 오히려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를 섬길 준비를 해야만 해. 신권통치가 온 땅에 임하게 되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집이 되지 않으니깐 말이야.”<sup>14)</sup>

---

14) 1941년에 발행한 「어린이들*Children*」, 366면.

(역자): 원문에는 해당 출판물을 그대로 찍어서 올렸다. 또한 “몇 년”으로 번역한 “a few years”라는 표현은 보통 영어권에서는 1~2년을 의미하는 시간이 아닌 적어도 3년 이상의 기간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많다. 또한 정해지지 않은 기간을 의미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코 많은 기간(many years)을 의미할 수는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1926년~40년대에 한국과 일본

당시 나는 19살이었는데, 리더퍼드의 연설이 내 마음속에 불리일으킨 내적으로 고무된 감정과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이 동시에 묘하게 느껴졌던 것을 80대인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나이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막연한 기간 동안 결혼이란 문제를 제쳐두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그런 식의 말을 듣는 것은 나를 심란하게 했습니다. 가톨릭 사제가 되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느끼는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마겟돈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협회장의 연설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1941년 10월 15일호 「파수대」는 그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책을 선물 받은 아이들은 그것을 꼭 껴안고 행진했다. 아이들에게 그 책은 심심할 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에 남아 있는 몇 달 동안 주께서 주신 가장 효과적인 봉사 도구였다.”<sup>15)</sup>

몇 년 후에 나는 당시 판사 리더퍼드가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아내와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고 있었는데, 아내 역시 여호와의 증인이며 병환 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외아들은 성인이 되어서는 아버지의 종교에 관

---

을 총괄하던 감독자이자 일본계 미국인인 아카시 준소(明石順三)가 협회 서적들을 번역하면서 이 “a few years”를 “두 서너 해”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번역했다는 사실이 「1988년 연감」 149면(영문, 한국어 동일)에 소개되어 있다. 아울러 「양심의 위기」일본어판은 「어린이들」책의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역시 “1~2년”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표현은 극히 짧은 기간을 연상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15) 「파수대」 영문 1941년 9월 15일호 참조. 밑줄은 내가 그은 것이다.

심이 없었습니다. 나의 삼촌인 프레더릭 프랜즈는 러더퍼드의 악화되는 건강 상태가 그 자신의 생전에 “끝”이 오는 것을 보고자 하는 강한 욕망과 어우러져, 1940년과 1941년에 했던 그러한 많은 연설들의 동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그 책에 나오는 연인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이었다면, 그들의 약혼 기간은 훨씬 길어졌을 것이며, 사실상 지금까지도 약혼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회에 참석했던 모든 어린 소녀들은 이제는 출산의 나이를 훨씬 넘어서는, 적어도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회에 참석했던 어린이들 중 일부는 그들이 들었던 충고를 정말로 따라서, 정상적으로 결혼해야 할 시기를 독신 또는 미혼 상태로 보내 버렸습니다.

1942년, 오하이오 주 웰스틴에서 있었던 “특별 파이오니아” 임명은 나에게 또 다른 경험이 되었습니다.<sup>16)</sup> 다른 젊은 증인과 짝이 된 나는 폭이 1.8m에 길이가 4.3m 정도(약 2.4평) 되는 작은 트레일러 집을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차 위에 얹어 놓은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단열도 전혀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가진 작은 석탄 난로는 기껏해야 몇 시간밖에 타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밤에는 트레일러 안에 있던 양동이 물이 퐁퐁 얼어버린 경우도 많았고, 동상 걸린 발이 너무 아파서 밤중에 깨어난 다음에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출판물 기부금으로 받는 돈을 제외하면, 협회로부터

---

16) “특별 파이오니아”는 협회가 특별히 임명하는 전 시간 대표자(“파이오니아”)이다. 상당한 시간을 바치도록 되어있으며, 매달 지출하는 경비를 충당하도록 소액의 수당도 받는다.(역자: 지금은 ‘전 시간 대표자’라는 표현보다는 대부분 ‘전 시간 봉사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각자 매월 최고 15달러의 수당만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활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sup>17)</sup> 그래도 좀 나은 달에는, 삶은 감자와 동물성 마가린과 하루 지난 빵(원래 가격의 반 값)을 하루 중 한 번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내 짝은 오래된 차가 있었지만, 우리가 기름을 넣을 여유가 있었던 날은 드물었습니다.



역시 이 마을에서도 반대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어린 사내 아이들이 트레일러의 모든 유리창을 깨버린 경우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엔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완전히 옆으로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또다시 체포되어 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경험도 했습니다. 구치소에서는 침대에 벌레들이 기어 다니는 바람에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꼬박 누군가 놓고 간 빈 깡통에 앉아서 보냈습니다.

1944년에는 ‘워치타워 길르앗 성서 학교’라는 5개월 과정의 선교 학교에 참석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졸업 후 선교인 임명을 기다리는 사이, 일 년 반 동안 나는 캘리포니아의 여러 지역들과 애리조나 주에

17) 수당 신청서에는 인세물을 전하고 받은 기부금과 지출내역을 적는 칸과 두 금액의 차액을 적는 칸도 있었다. 이때 그 차액이 15달러보다 작으면, 나는 15달러보다 적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나는 반복해서 더 적은 수당을 청구했다. 나중에서야 거의 대부분의 “특별 파이오니아”들이 그냥 15달러를 그대로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있는 회중들을 “순회”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있는 회중들을 방문했을 때는, 그곳에 있는 “벳사림” Beth Sarim (“군왕들의 집”이란 뜻)에서 5일을 보냈습니다. 그곳은 협회가 지은 커다란 집인데, 아벨에서 시작되는 고대의 충실한 사람들이 부활할 때 그들이 살게 될 곳으로, 협회에 의해 ‘위탁관리’되고 있었습니다.<sup>18)</sup> 폐질환이 있었던 판사 러더퍼드는 생전에 그곳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벳사림은 나에게 좀 비현실적인 느낌을 갖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샌디에이고는 멋진 도시이며 고상한 상류층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지만, 내가 성서에서 읽은 사람들이 왜 그곳에 사는 것에 흥미를 가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말이 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sup>19)</sup>

내 첫 번째 선교 임명지는 프랑스였는데, 병무청이 출국을 허가하지 않는 바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성직자”로 병역 면제를 받았음에도, 병무청에서는 군복무 나이 제한에 걸린다며 출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sup>20)</sup> 그래서 (미국 내의 섬이라고 간주되는) 푸에르토리코 섬으로 임명이 바뀌었습니다. 1946년, 협회장 네이션 노어는(러더퍼드는 1942년 초에 사망) 우리 선교인 그룹을 파견하면서, 우리의 임무는 다른 나라들에서 ‘지부 감독자’가 되어 감독하는 일을 하는 것

18) 1939년에 발행된 「구원」(Salvation)책 영문 311,312면 참조.

19) 벳사림 저택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판매 처분되었다. 아마겟돈 전에 “고대 충성자들”(고대의 충실한 사람들이 부활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도 폐기되었다.

20) (역자): 증인들은 영어 단어 “미니스터”(minister)를 보통 “봉사자”로 번역하는데 이것은 전도하는 사람을 뜻하며 모든 여호와의 증인에게 적용되는 단어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성직자”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가 그런 경우이다. 미국 등 일부나라에서 징병제가 적용되던 시절에 병역 면제 조건에 해당하려면 “성직자”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일부 선교인들 및 베델 성원 그리고 일부 파이오니아 증인들은 “성직자”(minister)로 인정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한국에서는 그런 제도가 존재한 적이 없었다. 또한, 「파수대」1996년 5월 1일호 18-19면 참조.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들 중에는, 만일 우리가 선교인으로 일하는 것을 계속하기 원한다면 연애와 결혼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피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독신을 포기하는 것은 임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인에 대한 정책이었습니다.<sup>21)</sup>

푸에르토리코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산후안에 “선교인 숙소”를 마련하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 6개 침실이 있는 2층집에서 한 쌍의 부부와 일곱 명의 미혼 여성들 그리고 내가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노어의 권고에 따라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15건 이상의 성서연구를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에 관한 정책과 사람들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환경이 부딪치며 생기게 된 압력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나를 짓눌렀습니다. 여러 차례 이질에 감염되었고, 극심한 복통을 동반한 파라티푸스 감염과 혈변 후 전염성 간염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도 그러한 압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질과 파라티푸스에 걸렸을 때도 사무실에서 일했으며, 계단 오를 힘조차 없는 간염에 걸렸을 때 일주일 휴식을 취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8년을 그러한 복잡한 긴장 속에서 살고 나니 신경쇠약 일보직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협회장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에서 그것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지부 감독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미국으로 돌아와서 순회활동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결국 다른 도시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임명이 변경된 아구아달라 시는 나

---

21) 기본적으로 동일한 규칙이 세계 본부와 지부에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칙은 1950년대에 바뀌었다. 노어 자신이 결혼한 것이다.

에게 전혀 끌리는 곳이 아니었지만, 그곳에 더 큰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내가 요청했었습니다.

일 년이 좀 안되어서 나는 그 섬의 회중들과 인근에 있는 섬 버진 아일랜드(푸에르토리코 동부에 위치)의 회중들을 순회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 도미니카의 독재자 라파엘 트루히요

다른 특별한 경우를 말하자면, 협회가 정기적으로 나에게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할 것을 지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이 그 나라의 최고 실권자 라파엘 트루히요에 의해 공식적으로 금지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방문하는 주된 목적은 협회 출판물을 몰래 유입하는 것이었습니다.

22) 나는 그 임무를 여러 번 수행했습니다. 1955년이 되자 협회는 나에게, 트루히요에게 개인적으로 탄원서를 전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루히요의 반감을 산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시우다드트루히요(지금은 산토도밍고)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도미니카 대원수에게 “북미의 교육자로 귀하와 귀국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가

22) 나는 중간키의 체형이었지만, 푸에르토리코에 있던 당시의 체중은 53kg에 불과했다.(본 서 48면 사진 참조) 몸 주위에 잡지 몇 권을 둘러서 그 위에 속옷 두 겹을 입고, 심지어 바지안쪽에 384페이지 두께의 책을 펴서 넣어도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은 비행기에 앉아있는 동안 책 모서리가 허벅지를 찔렀기 때문에 좀 힘들었다는 것뿐이다.

지고” 도미니카 최고 실권자인 라파엘 트루히요를 단독으로 만나기 원한다는 전보를 쳤습니다. 트루히요와의 만남이 국가 궁전에서 이루어졌으며, 나는 그에게 탄원서를 건네줄 수 있었습니다.<sup>23)</sup> 놀랍게도 나는 추방되지 않았으며, 정기적인 출판물 “밀수” 여행을 체포되는 일 없이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7년에 폭력적인 박해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모든 미국인 여호와와의 증인 선교인들은 국외로 추방되었으며, 많은 그 지역 증인들은 잔인하게 구타당하고 투옥되었습니다. 박해의 주요 이유는 군사훈련법이 요구하는 “행군”을 남자 증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종교적인 반대도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신문을 통해 선동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협회는 나에게 도미니카로 가서 그곳 증인들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미 얼마 전에 나는 그곳 선교인들에게 협회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그곳의 잔혹한 박해에 대한 실상을 자세히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은 푸에르토리코 신문들에 의해 크게 다루어졌습니다. 나는 트루히요의 측근으로부터 그가 이 불편한 보도에 대해 크게 화를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깃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시우다드트루히요의 한 호텔, 침대 옆에 프랑스식 창문이 달린 1층 방에서 첫날밤을 보낸 기억이 납니

---

23) 트루히요 대원수는 훈장이 줄줄이 걸린 정복을 입고 나를 맞아주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스스로 수여한 훈장) 나의 실제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서는 면담은 아주 짧게 끝났다. 그러나 얼마 후 금지령이 일 년 정도 풀렸다가 다시 발효된 사실에 비추어 그 때의 인상은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sup>24)</sup> 온몸으로 위험을 느끼던 나는 침대에다가 사람이 자는 것처럼 위장 해 놓고, 침대 뒤쪽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별문제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다음 여러 해 동안에도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에 관한 협회의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 온지 13년이 지나 이제 37살이 되어가는 나이에 나는 신시아 Cynthia와 결혼했고, 우리는 함께 순회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그 나라의 경제상황은 오늘날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열악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작은 집에서 살았는데, 어떤 집은 물과 전기가 들어오고 어떤 집은 그렇지 않았습

니다. 때로는 사생활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생활이란 게 거의 없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었던 우리는 그럭저럭 환경에 적응해 나갔지만, 그로 인해 아내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토르톨라라는 작은 섬에서 봉사하던 중 아내가 심각한 위염에 걸렸습니다. 분명히 오염된 물과 상한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의 주인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둔 고

---

24) (역자): 프랑스식 창문-프랑스의 문과 비슷하게 여러 개의 격자로 나눈 칸에 작은 유리를 격자마다 끼워서 만든 창문. 보통은 여닫이 창문이 많다.

상한 서인도제도 부부였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우리에게 세를 내 준 집은 아내가 극도로 싫어하는 바퀴벌레가 득실거렸습니다. 밤마다 모기장을 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에 바퀴벌레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 보았습니다. 하루는 한쪽 구석에 놓아둔 커다란 옷상자가 바퀴벌레의 소굴 같아 보여, 살충제를 들고 상자로 가서 맨 위 옷가지를 들어보았습니다. 나는 재빨리 옷을 내려놓았는데, 수백 마리는 돼 보이는 작은 바퀴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충제를 뿌리면 온 사방으로 바퀴벌레들이 흩어질까 봐 뿌리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매일 밤 우리 방과, 하나뿐인 화장실 옆에 있는 부엌으로 커다란 쥐가 들락거렸습니다. 그 쥐는 선반에 놓여있는 통조림을 옮겨갈 정도로 큰 쥐였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결국 아내는 위염이 악화되어 극심한 설사와 주기적인 구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섬에서 한 명뿐인 의사에게 아내를 데려가 주사를 맞혔으며, 아내의 구토는 일시적으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계속되는 설사를 동반하는 구토가 다시 시작되었고, 급기야는 탈수증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밤중에 나는 1마일(약 1.6km)을 달려가서 그 의사를 다시 깨워 집으로 데려온 후에, 아내를 그의 지프차에 태우고 진찰실로 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링거주사를 놓기 위해 아내의 혈관을 찾는데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며칠 후에 아내는 퇴원했지만 건강은 결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후에 기생충(편충) 감염까지 겹쳐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나는 1961년까지 순회활동을 계속하다가, 푸에르토리코에서 인접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임명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고 실권자였던 트루히요는 우리가 그 나라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암살당했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5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정권이 바뀌는 것을 4번이나

보았습니다. 1965년 4월에는 우리가 살던 수도를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과 다른 외국인들이 그 나라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교인 그룹은 도미니카의 여호와의 증인들과 우리의 임무를 버리고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전시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수백발의 소총 소리, 두두두 울리는 기관총 소리와 바주카포와 다른 중무기들의 폭발 소리가 도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낮에도 때로는 갑작스런 총격전 때문에 바닥에 바짝 엎드려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소강상태가 되면 밖으로 나가 조금이라도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난 벌이 날아가는 것 같은 웅웅거리는 총알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총알이 얼마나 머리에 가까이 지나가야 할까요? 이에 대해 한 병사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총에 맞으면 그 소리가 안 들릴 테니까요.”



그 이후 나머지 15년 동안의 전임 봉사 활동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뉴욕 브루클린 본부에서 일했습니다. 1965년

까지 활동했던 초창기의 일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그 때까지의 봉사가 사도 바울의 봉사와 비슷한 것으로(질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지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느님과 그리스도께 드리는 자신의 봉사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 냈습니다.”<sup>25)</sup>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연설 내용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연설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또 많은 신도들을 세워주는 조직  
적인 업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다른 여호와의 증인 선교인들이나 다른 종교의 선  
교인들보다 낫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경험에 대해 쓰는 것은, 독  
자들이 내 경험의 상대적인 가치를 가늠하고 특히 이 책의 나머지 부분  
에서 다루어지는 정보들의 타당성과 정직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  
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집필하게 된 상황들과 의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20<sup>26)</sup>

그 후 15년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나에게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주  
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이 나와 동일할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도 내가 경험한 바를 알지 못하고서는 내가 왜 양심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음과 같은

---

25) 고린도 후서 6:4-10. 원문은 「예루살렘성서」JB에서 인용했지만, 한국어는 「쉬운성경」에서 인  
용하였다.

26) 원문은 「개역표준역」RSV에서 인용했지만, 한국어는 「새번역」에서 인용하였다.

잠언의 말씀이 매우 적절할 것입니다: “사실을 듣기도 전에 문제에 대답하는 것은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이다.”<sup>27)</sup>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일 년 전, 탕기열에 걸려 신경 종말이 과민상태가 되었을 때, 나는 10개월 과정의 길르앗 성서 학교를 수료했습니다.<sup>28)</sup> 학교 졸업 때, 협회장 N. H. 노어는 나에게 카리브 해 선교봉사를 그만 두고 아내와 함께 브루클린 국제 본부(베델)로 와서 집필부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영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나는 그곳을 떠나는 데에 전혀 흥미가 없었습니다. 나는 노어 형제와 그의 사무실에서 얘기하면서, 내가 현재의 임명을 얼마나 즐기는지, 그곳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일을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안된 기회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비취졌음이 분명했습니다. 노어가 매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느낌을 알아주기 원한다고만 말하고, 제안된 그 임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본부에 도착한지 몇 개월이 지나고 집필부 일을 얼마간 한 후에, 협회장 노어는 나를 자료더미들이 높이 쌓여있는 탁자가 있는 한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성서 사전 개발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들은 전 세계 250명의 남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진 임명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임명들은 주로 그 사람의 조직에서의

---

27) 잠언 18:13.

28) 탕기열은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다는 점에서 말라리아와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낫는 병이다. 나에게 아직도 그 영향이 남아 있는 것은 어린 시절에 걸린 성홍열 때문인지도 모른다.

위치(지부 사무실 임원, 공장 감독자 등)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이 집필 경험이 없었고 거의 대다수가 조사를 할 만한 도서자료나 시간 또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줄잡아 최소 90%정도가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단어들을 “Aaron”(아론)부터 시작하여 “Aaronites”(아론사람들), “Ab”(아브월), “Abaddon”(아바돈) 등의 순으로 정리하며 일을 진행해 나갔지만, 곧 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위치타워 협회의 감독자인 라이먼 스윙글이 합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길르앗 성서학교의 사무관인 에드워드 던랩이 합류했습니다. 마침내 봉사부와 집필부의 라인하드 랭타트와 존 위스척이 각각 그 프로젝트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진행 과정 중에 간헐적으로 도움을 주었지만, 앞서 언급한 다섯 사람이 5년 후에 「성서 이해를 위한 보조서」라고 불리는 1,696페이지에 달하는 성서사전이 완성될 때까지 일했습니다.<sup>29)</sup>

일이 시작될 즈음, 협회장 노어는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가 되어버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뜻으로 이해되었으나, 나중에는 오히려 우연한 행운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시 그는 우리에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성서가 말하는 바를 전달하기만을 원합니다. 협회 출판물을 모두 조사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직접 말해줘서 알았지만, 그가 원했던 것은 그렇게 함으

---

29) 각각의 주제는 집필부 감독자 칼 애덤스가 배정했다. 1988년에는 이 「보조서」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두 권을 한질(set)로 구성한 「성경 통찰」책이 나왔다. (한국어는 2003년 발행)

로써 프로젝트가 빨리 끝나 비교적 작은 “안내서” 정도의 책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특정 성구들에 추가적인 해설을 거의 덧붙이지 않고 단순히 인용하기만 한다면, 최소한의 시간 안에 작업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오해하여, 워치타워 출판물에 나오는 내용에 구속될 필요 없이 성서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항상 애써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 경우 완성될 내용보다 상당히 다른 종류의 출판물이 완성되었습니다. 250명이 보내준 자료들은 워치타워 출판물에서 “승인된 견해”와 거의 일치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것들은 자주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부 협회장인 프레더릭 프랜즈는 조직 내에서 탁월한 성서학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사무실로 성서 말씀의 의미를 질문하러 가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주 나에게 성서주석서를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담 클라크나 쿡이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봐라.”라든가, 히브리 성경과 관련된 주제인 경우에는 “손치노의 주석서를 살펴보지 그래.”라고 말했습니다.

베델 도서관에는 선반마다 그러한 주석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타 종교 학자들의 산물이었기 때문에, 나를 비롯하여 프로젝트 그룹의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비중을 두지 않았으며 그것을 사용하기를 꺼려했고, 심지어 그 내용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집필부의 고참 칼 클라인은 때때로 매우 기탄없이 그러한 주석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큰 바빌론의 젖을 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회가 계시록의 큰 음녀 바빌론을 거짓종교 세계제국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

이었습니다.<sup>30)</sup>

그런데, 그러한 주석서들을 살펴볼수록 대다수의 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이 영감 받은 말씀이란 굳건한 믿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욱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어떤 주석서들은 18세기 초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가치 있고 정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종종 수년 내에 ‘구식이 되어버리고’ 출판이 중지되어 버리는 우리의 출판물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주석서들이 오류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석서의 훌륭한 면들은 때때로 발견되는 잘못을 상쇄하고도 남아 보였습니다.

나는 성경의 어느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전 어느 때보다 더 잘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보조서」 작업을 정기적으로 함께했던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서에 나오는 용어를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견해를 단순히 옮기거나 영어 사전에 나오는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 스스로가 정의하게 놔 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베델 도서관에 있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사전을 사용하였으며 영어 번역에 기초한 색인보다 원어에 기초한 색인들을 더욱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적이었고 우리를 매우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성서에 대한 이해가 한참 모자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뛰어난 성서학자가 아니

---

30) 그가 정말 심각한 뜻으로 말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는 프레더릭 프랜즈가 주석서들을 상당히 자주 이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자기 자신도 역시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서를 서너 번 통독하였지만 지난 25년의 세월동안 개인적으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25년간은 그렇게 진지하고 자세한 성서 연구를 할 수가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그러한 연구를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한 번도 그러한 연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내가 수료한 두 번의 길르앗 성서학교 과정도 너무나 뻘뻘하게 일정이 짜여 있어서, 목상을 할 만한 시간이 없었고 여유 있는 조사와 분석을 할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확보된 것과, 그밖에도 성서 보조서들, 용어 사전들, 주석서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색인 등을 동시에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차이를 만든 것은, 항상 문맥을 따르면서 성경 구절의 의미를 결정하게 할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견해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전체 의미를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차츰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베델 도서관에 있는 100년 혹은 200년이나 된 성서 주석서들이 세월을 넘어서는 상당한 가치를 지니게 된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절과 구절을 통한 그들의 접근 방식이 다소간 성서 문맥상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때문에 분파적인 견해를 취하거나 상상에 의한 성구 해석을 하지 않도록 그들을 엄격히 통제했던 것입니다.

집필부 감독자 칼 애덤스가 나에게 할당한 주제 중 “연로자(장로)”와 “감독자”란 항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당받은 것은 단지 항목의 이름뿐이었습니다. 주제를 발전시키는데 따르는 부가적인 지시사항이나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워치타워 협회가 1993년에 발행한

조직의 역사를 다룬 책인 「여호와의 증인 - 하나님의 왕국 선포자」책 233면에서 그 점에 관해 설명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적인 증가에 대비함

참고 서적인 *Aid to Bible Understanding*(「성서 이해를 위한 보조서」)를 준비하면서 통치체의 감독하에 조사가 행해질 때, 제1세기 그리스도인 회중이 조직된 방법에 또 한번 주의가 기울여졌다. “연로자”, “감독자”, “봉사자”와 같은 성서 용어들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가 있었다. 여호와의 증인의 현대 조직은 지침으로 성경에 보존된 본을 더욱 온전히 따를 수 있었는가?

여호와의 증들은 계속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1971년에 열린 일련의 대회에서, 초기 그리스도인 회중의 통치 마련에 주의가 기울여졌다. 성서에 사용된 *프레스비테로스*(연로자, 장로)라는 표현이 연로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회중 내의 영적으로 장성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 단어는 특히 회중의 감독자와 관련하여 공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도 11:30; 디모데 전 5:17; 베드로 전 5:1-3) 그러한 사람들은 영감받은 성경의 일부가 된 요구 조건들과 일치하게 임명에 의해 그 지위를 받았다. (사도 14:23; 디모데 전 3:1-7; 디도 1:5-9) 충분한 자격을 갖춘 남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회중에 한 명보다 많은 장로가 있었다. (사도 20:17; 빌립보 1:1) 그들은 “장로의 회”를 구성하였고, 그들 모두가 동일한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이라고 해서 회중에서 가장 탁월하거나 유력한 성원인 것은 아니었다. (디모데 전 4:14) 사도 바울이 제시한 요구 조건들과 일치하게, 장로들을 보조하도록 임명된 “봉사의 증들”도 있었다는 점이 설명되었다.—디모데 전 3:8-10, 12, 13, 「신세」.

조직이 성서에서 알려 주는 그러한 형태를 더 밀접히 따르기 위한 마련이 즉시 시행되었다.

위의 설명은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서 그릇된 인상을 심어줍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성서 이해를 위한 보조서」를 위한 조사가 “통치체의 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 고착하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진 통치체의 원활한 감독에 의해 보조서 조사가 이

루어졌다는 생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워치타워 협회장 네이션 노어를 제외하곤, 보조서 집필의 시작과 감독이 당시 통치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어가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긴 했지만 극히 제한적인 부분 말고는 실제적인 감독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실제 감독은 집필부 감독자인 칼 애덤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노어는 「보조서」에 포함되는 주제 목록을 개발하지도, 그 주제를 임명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감독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주제는 칼 애덤스에 의해 임명되고 만들어졌습니다.



• 칼 애덤스 *Karl Adams*

하지만 애덤스는 통치체 성원이 아니었고, 사실상 “기름 부음받은 자”로 불리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실제 보조서 조사와 집필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한 사람들 중에는 라이먼 스윙글

만이 협회 이사진이었고, 그만이 “통치체 성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칼 애덤스로부터 임명을 받았고 그의 감독하에서 일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던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라이먼이 쓴 내용은 칼이 편집하고 승인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네이션 노어와 프레드 프랜즈도 결국 완성된 내용의 일부를 읽기는 했지만, 노어는 칼 애덤스에게 노어 자신이 읽어보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고르도록 하였고, 그러한 경우조차 거의 드물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로자(장로)”와 “감독자”란 주제가 나에게 할당되었을 때, 내가 할당받은 것은 그 단어들뿐이었으며, 다른 것은 아무것도

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나는 통치체 성원이 아니었으며, 그 주제에 관한 연구 결과는 통치체에 의한 것도, 심지어 칼 애덤스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삼촌인 프레더릭 프랜즈가 언질을 주긴 했지만, 항상 내가 먼저 요청한 경우에만 그렇게 했고, 그 이후의 삼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나의 연구 조사 결과는 네이션 노어와 프레더릭 프랜즈에게 예상 밖의 것이었고, 심지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비쳤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나의 조사는 성서 시대의 장로들과 회중 감독에 대한 제도가 여호와의 증인이 취하고 있는 입장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다소 ‘군주제’ 적인 제도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회중은 “회중의 중” 또는 “회중 감독자”라고 불리는 한 개인의 감독 하에 있었습니다. “감독자”라는 말은 오직 그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의 보조자로 생각되었습니다. 성경적인 장로회 제도는 1932년에 판사 러더퍼드에 의해 끝이 났는데, 이는 일부 장로들이 협회의 프로그램과 정책을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sup>31)</sup> 협회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러더퍼드는 장로회 제도를 끝내고, 모든 회중들로 하여금 장로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협회가 임명한 “봉사 감독자”를 채택하는 투표를 하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1950년대에 출판된 신세계역 성서에는 “장로들<sup>elders</sup>”이라는 말 대신에 “연로자들<sup>older men</sup>”이라는 말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식적으

31) 이런 조치가 내려진 이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일부 장로들이 당시에 강력히 권고하던 호별 방문 증거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장로들은 집회를 주재하고 연설하는 것에만 열심을 보였다. 바로 워치타워 협회장인 판사 러더퍼드가 정확히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것은 결코 지적된 적이 없었다. 주어진 설명은, 러더퍼드 협회장은 그 책임 때문에 호별방문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로 용인되었던 말이 아닙니다.<sup>32)</sup>

조사 결과에 좀 혼란스러워진 나는 증거를 가지고 삼촌에게 갔습니다. 삼촌의 반응은 더 놀라웠습니다. 그는 “오늘날 조직에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성서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거라.”고 말하면서 “보조서를 순수하게 유지하도록 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항상 조직을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 유일한 하느님의 통로로 바라보고 있었던 나에게 삼촌의 말은, 아주 좋게 말해서 독특하게 들렸습니다. 협회에서 출간한 신세계역 사도행전 14:23에 장로들의 임명과 연관되어, “직무에 *to office*”라는 원문에 없는 말이 삽입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로 인해 구절의 의미가 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자, 삼촌은 “그러면 치우치지 않고 제대로 번역된 다른 번역판들을 살펴 보거라.”고 말했습니다.<sup>33)</sup> 삼촌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나는 정말 내가 제대로 들은 것인지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이 일을 통치체 회기 중에 한 번 이상 삼촌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대화는 성경에 대한 나의 견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는 삼촌이 성경 진리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보여준 것을 무척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삼촌이 보인 반응은 나를 더욱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

32) 「신세계역, 성경의 나중 판에서는 “장로”(elder)가 나오긴 했지만, 단지 계시록에서 하느님의 왕좌(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들을 언급할 때뿐이었다.

33) 「신세계역, 성경의 나중 판에서는 이 첨가된 단어들 이 삭제되었다. 초판에는 해당 성구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다. “Moreover, they appointed older men to office for them in the congregation and, offering prayer with fastings, they committed them to Jehovah in whom they had become believers.” “또한 그들을 위하여 회중에 연로자들을 직무에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를 드리고, 그들이 믿게 된 여호와께 그들을 맡겼다.”

“연로자”와 “감독자”에 관한 작업을 끝낸 후에, 나는 조사 결과를 집필부에 제출했습니다. 보통이라면 협회장 네이션 노어와 부 협회장 프레드 프랜즈는 그 내용을 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필부 책임자인 칼 애덤스가 내가 제출한 기사를 읽고는 노어 형제에게 가서 “이것을 좀 검토해 보셔야겠습니다. 변경된 것이 많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 하나님의 왕국 선포자」책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폭발적인 증가에 대비함”이라는 소제목하의 둘째 항 내용은, 「보조서」책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내가 제출한 기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선포자」책에서는 장로들의 “공적 지위”라는 개념이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포자 책의 저자 혹은 저자들이 보조서의 그 기사들을 누가 썼는지 밝힐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항과 이어지는 항의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협회가 성서에서 지적하는 제도에 순응하기 위해 기꺼이 그리고 즉시 필요한 결정을 했다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협회가 그렇게 했습니까?

칼 애덤스가 말한 바에 의하면, 그 기사를 읽은 노어가 프레더릭 프랜즈의 사무실로 가서 상당히 흥분한 채로,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늦은 때에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말하자, 프레더릭 프랜즈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칼 애덤스로부터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삼촌이 나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랬습니다. 나는 삼촌에게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

지만 삼촌의 말은 새로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보조서」가 여름 지역대회에서 완성본으로 형제들에게 배부될 것을 알고 있었던 나는, 1세기 회중 모임에서는 모든 장로들이 감독자로 봉사하던 장로회가 존재했었다는 증거를 형제들이 읽게 된다면, 그리고 협회가 성서의 본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차분하게,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제도가 보조서의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성서의 선례를 따르지 않는 것은 형제들을 매우 동요시킬지도 모른다는 깊은 염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삼촌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십 년 전에 형제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 즉 1914년에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잡으시면 지상의 일을 다스리는 면에서 즉시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고 추리했던 것에 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일들을 한 종을 사용하거나 그 종의 직무를 통해 감독하고 다스리는데 그것은 새 질서가 도래할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그는 이것을 이전에도 믿었고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의 취지는 이전에 했던 말의 취지와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서로 조화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부 협회장은 회중 감독 제도를 변경시킬 것이라는 암시가 담긴 몇몇 대화용 골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골자가 칼 애덤스에게 전해지자, 그는 골자의 내용을 눈치 채고 즉시 협회장 노어에게 가서 “프랜즈 형제를 만나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형제가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칼의 말에 따라, 노어 형제는 프랜즈 형제가 마음을 바꾼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 마음을 바꾼 결과로,

40년간 이어져 오던 협회의 제도에 변화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개선된 변화를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 하나님의 왕국 선포자」책에서는 “통치체”의 감독으로 “주의 깊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성경에 보존된 본을 더욱 온전히 따를 수” 있었으며, “계속 하나님의 인도에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조직이 성서에서 알려 주는 그러한 형태를 더 밀접히 따르기 위한 마련”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보조서」를 집필한 사람 혹은 집필진이 당시 경위에 대해 사실 관계를 몰랐거나 아니면 한 명이 아닌 전체 그룹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허위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밝혀진 사실은 극소수 사람들에게만 실권이 집중되었으며, 한 사람(프레더릭 프렌즈)의 좀 변덕스러운 결정이 세계적인 조직이 가야 할 방향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연대*Chronology*”라는 주제를 맡게 되었을 때도 그와 비슷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sup>34)</sup> 여호와의 증인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때”가 성서 예언에 의하면 1914년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에 나오는 “일곱 때” 기간은 1914년을 계산할 수 있는 기초가 되며, 또 다른 성구들을 사용하여 “일곱 때”는 기원전 607년에 시작해서 기원 1914년에 끝나는 2,520년 기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기간의 시작인 기원전 607년은 바빌론의 정복자 느

---

34) 나는 연대 외에도 역사 분야 대부분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메디아-페르시아 및 기타 나라들의 역사와 통치자들에 대해서도 집필을 맡았다(바빌론의 경우에는 통치자들만). (역자-나라이름은 「신세계역」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며, 학교 교과서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일치한다. 증인들이 90년대 초반까지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성경 표현은 애굽, 앗수르, 바벨론, 메대-바사였다.)

부갓네살(네부카드네자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해로 이해합니다.<sup>35)</sup> 나는 기원전 607년이 우리 출판물에서만 나오는 특이한 숫자인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실제 이유는 몰랐습니다.

나는 수개월동안 “연대”에 관한 한 가지 주제만을 조사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보조서」에서 가장 긴 내용의 항목을 쓰게 되었습니다.<sup>36)</sup> 1914년 계산에 매우 중요한 기원전 607년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증거들을 찾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본부 직원으로 당시 내 비서 역할을 하던 찰스 플로거Charles Ploeger는 뉴욕의 모든 도서관을 뒤져 기원전 607년을 지지하는 증거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원전 607년을 지지하는 증거를 단 하나도 찾지 못했고, 오히려 모든 역사가들은 그보다 20년 후를 지적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조서」에 들어갈 “고고학” 항목을 준비하기 전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바빌로니아(바빌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점토를 불에 구워서 만든 설형문자(뿔기문자)판이 그렇게 많은지 알지 못했습니다.<sup>37)</sup> 관련된 점토판들을 확인해보니 신 바빌로니아(신

---

35) (역자): 대부분의 우리말 성경에는 “느부갓네살”로 나오지만, 학교 교과서와 일반 역사책 그리고 가톨릭 성경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Nebuchadnezzar)로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명칭을 동시에 표기하였다. (영어권에서는 역사자료와 성경의 표기법이 동일하다.)

36) “연대” 항목은 27페이지 분량이었다(322-348면). 「보조서」의 1988년 개정판인 「성경통찰」책에서는 “연대” 항목을 20페이지로 축소시켰고, 이것이 개정판의 가장 큰 변화였다. 개정판에서는 기원전 607년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부분이 삭제되었다.

37) (역자): 원문에서는 보통 “수천수만”으로 번역하기도 하는 “tens of thousands”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말을 “수천”으로 번역하면 1만개 이내 “수만”으로 번역하면 10만개 이내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어서 한국어로는 정확하게 범위를 나타낼 수가 없었다. 현재까지 출토된 설형문자(뿔기문자) 점토판은 100만 점에서 200만 점 정도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해마다 2만 점 이상이 새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도 숫자를 확정할 수 없다. 전 세계 학자들은 엄청난 양 때문에 극히 일부만 판독한 상태이다.

바빌론) 제국에서 네부카드네자르(느부갓네살)가 통치한 기간은 우리가 주장한 기원전 607년과는 맞지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sup>38)</sup> 모든 증거는 우리 출판물에서 주장했던 연대기보다 20년씩 이후의 연대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들을 보고서 마음이 불안하긴 했지만, 이 모든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연대기가 옳다고 믿고 싶었으며, 그런 증거들은 어딘가 잘못됐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보조서」책에 쓸 내용을 준비할 때는, 우리의 기원전 607년을 틀린 것으로 만들고 그 연도를 사용해서 계산한

1914년도 틀리게 만들어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만드는, 고고학적인 증거와 역사적 증거들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려고 많은 시간을 노력했고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찰스 플로저와 나는 로드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 시에 있는 브라운 대학을 찾아가서 특별히 천문학적으로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 고대 설형문자 전문가 에이브러햄 작스(Abraham Sachs)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방대한 전문 자료들 속에서 오류나 약점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연대기가 맞으려면, 점토

38) (역자): “신 바빌로니아” 제국은 기원전 7세기에 등장한 제국이다. 이 제국은 고대 니므롯이 시날 땅에 건설한 바벨과는 다른 것이며, 기원전 2000년경에 등장한 “고대 바빌로니아” 제국과도 구별되는 왕국이다. 사르곤 왕과 함무라비 등은 신 바빌론이 아니라 고대 바빌론에 속한다. “신 바빌로니아” 제국은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칼데아(갈대아)사람 나보플라살이 새롭게 건설한 제국이기에 때문에 “칼데아 제국”이라고도 불린다. 성경에는 후대에 구별하기 위해 만든 명칭인 “고대 바빌로니아”와 “신 바빌로니아”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고, 수도 이름에서 유래한 나라이름 “바빌론”(바벨론)으로 나온다.

판을 만들었던 수많은 고대 필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 그럴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지만- 음모를 꾸몄다고 가정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마치 법정에서 고대의 증인들이 나타나 신 바빌로니아 제국과 관련된 역사기록의 증거들을 내놓았을 때 그것을 목격한 변호사처럼, 그런 결정적 증거들을 어떻게든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약점이 있는 자료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sup>39)</sup> 내가 제시한 논증 자체는 정직한 자료를 사용한 것이었지만, 그 의도는 역사적 근거가 없는 연대를 지지하기 위한 동기였다는 점을 나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성서 원칙들에 대해서 더 깊은 인식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가르침에 충실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보조서」책에 여전히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 「보조서」에 반영된 것들은 우리가 받은 영향에 비하면 작은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 이해를 위한 보조서」책은 많은 증인들 사이에서 성경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도록 도운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책의 논조, 접근 방식, 독단적인 자세를 피하려는 집필자들의 노력, 특정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점, 증거를 정직하게 검토하고 그 이상의 이야기를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 -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얻었던 가장 중요한 유익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선입견에 얽매이거나 성경 자체에 고착하는데 실패한 적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함을 드러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집필한 내용 중에서는 “나라들의 지정된 때”와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및 “큰 무리”와 같은 주제가 있는데, 나 자신도 위

---

39) 「성서 이해를 위한 보조서」영문 326-328면과 330, 331면 참조.

치타워 출판물에서 가르치는 방향과 일치된 주장들을 포함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간단한데, 당시 내 마음속에는 그러한 협회의 가르침이 “사실”과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내가 작성한 「보조서」 「머리말」에 나오는 내용을 배신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 책 6면에서는 “이 책의 목적”이라는 제목아래 “「성서 이해를 위한 보조서」는 교리적인 주석이나 해석을 만들 의도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비유적인 표현이나 상징적 표현을 다룰 때는 “독단적으로 적용하거나 교리에 맞추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말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깊이 뿌리박힌 믿음이 때때로 그러한 표준에 고착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무산시켰습니다.

「보조서」가 출간된 해에 나는 약 230개국의 여호와의 증인 활동을 감독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통치체 성원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7명으로 구성된 협회 이사회를 통치체와 동일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이사회는 찰스 테이즈 러셀이 펜실베이니아에서 위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라고 불리는 법인체를 만들던 처음부터 7명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1년 10월 20일에, 다른 세 명과 함께 내가 그 확장된 통치체의 성원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임명은 내가 마주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진짜 현실과 대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 이름이 비중 있게 등장한 「타임」지(1982년 2월 22일) 기사 내용을 읽고 화를 낸 증인들도 많았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조직을 “비밀” 조직으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와

마을 그리고 시골에서 공개적으로 호별방문 활동을 하도록 격려하는 조직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심하게 왜곡된 기사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타임」지 기자들은 이 책 제1장에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 워치타워 세계본부에 문의를 했을 때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썼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 가운데서도 조직의 중심부가 어떻게 그 기능을 발휘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 세계 증인들의 활동을 감독하는 통치체가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과, 내려진 결정들이 항상 만장일치가 된 것인지 또는 만일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가 없습니다.

통치체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은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내가 통치체 성원으로 있던 9년 동안 통치체 성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통치체 정기회기에 참석하도록 허용된 경우는 겨우 두세 번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게다가 그 경우에도 그 사람들은 단지 통치체가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요청할 때뿐이었고, 그들이 나가고 나서야 보고된 내용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보고할 내용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들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통

치체는 전체 증인들에게 협회의 수입, 지출, 자산, 투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매년 연감에 간단한 지출 보고만이 있을 뿐입니다.)<sup>40)</sup>

따라서 많은 종교 단체에서는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대다수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알 수 없으며 혹시 알더라도 막연하게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치체를 구성하는 소수의 남자들이 내린 결정은 여호와의 증인들의 삶에 매우 깊은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실제로 주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증인들은 그들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내가 이 책을 집필한 결정적인 이유이며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에 비하면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는 사소한 것입니다.

## 책임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 마태 7:12 (새번역)<sup>41)</sup>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원칙에 매여 있을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께서

---

40) 1978년에 통치체에 들어온 재무보고서에는 3억3천2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산(부동산, 예금 등)이 적혀있었다. 심지어 통치체 성원들 중에서도 협회의 재정적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분명히 현재의 자산은 이 금액을 훨씬 초과할 것이다.

41) 원문은 「개역 표준역」RSV에서 인용.

하신 이 말씀을 완벽하게 실천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나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들은 이 원칙을 따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sup>42)</sup> 그는 사람들에게 대한 의무감을 가졌으며 나 역시 그와 비슷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내가 내릴 매우 중대한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나는 그가 (나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랄 것입니다. 만일 그가 나의 친구라면, 진정한 친구라면, 그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9년간의 통치체 생활은 나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의 양심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내 자신이 인생의 큰 위기에 봉착했음을 알았고, 내가 맞닥뜨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갈림길에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린 결정은 온전히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으며, 그 결과로 치러야 했던 대가는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에 대한 후회는 없으며,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 사실들에 대해 알게 된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와는 다른 결정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남이 침범할 수 없는 그들만의 권리입니다.

1980년 5월 통치체 직분을 사임한 후, 조직 내의 실제 상황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신문사와 잡지사로부터 수없이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

42) 로마서 1:14.

나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브루클린 본부에 가서 직접 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브루클린 본부가 “노코멘트”로 일관하기 때문에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 역시 그들의 정보 제공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거의 2년간 그러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2년 동안 일어난 일들 즉 나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나의 입장을 재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양심적으로 조직의 가르침에 동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과 성품과 동기가 최악의 말들로 묘사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첫째로 두려운 그들의 결심이 하느님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야망이나 반항, 자존심의 산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충절과 진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진실함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들의 다양한 동기를 가려내려는 시도는 하나도 없었으며, 협회는 그들 모두를 무조건 “싸잡아” 매도해버렸습니다. 조직을 떠난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나 나쁜 행실을 조직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켜버린 것입니다. 설사 잘못된 태도를 나타낸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조직으로부터 받은 실망이나 낙담, 상처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조직을 떠난 사람들에게 대해 고의적으로 조작해 낸 엄청난 소문과, 심지어는 밑바닥 수준의 잡담들이 증인들 사이에서 돌고 돌았습니다. 높은 도덕적 표준을 가진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내 바꾸기를 하는 사람, 동성애자, 위선자, 혹은 자신이 교주가 되려는 이기주의자로 둔갑되었습니다. 나이든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 혹은 “치매 걸린 사람”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한 소문을 저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매우 진실한 사람들일 수 있으며 자신들의 양심에 충실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출판물을 통해서 그러한 소문을 더욱 퍼뜨리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러한 거짓 증언이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말입니다.<sup>43)</sup>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언어로 당시에 수백만부가 배부된 「파수대」 영문 1981년 8월 15일호 28~29면(한국어는 「파수대」 1982년 1월 1일호 15~16면)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4 때때로 여호와의 백성의 대열 가운데에서, 최초의 '사단' 과 같이, 독립적이며, 흠을 찾는 태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전세계적인 형제애를 가지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섞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2:19-22 비교)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굳은 어깨”를 내밀었습니다. (스가랴 7:11, 12 난외주 참조) 지난 세기에 걸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매우 은혜롭게 가르쳐 주신 “순결한 언어”를 헐뜯음으로, 이 교만한 자들은 예수께서 지상에 모으신 한 “무리”의 국제적인 “양떼”로부터 “양들”을 이 끌어내고자 합니다. (요한 10:7-10, 16) 그들은 의심의 씨를 뿌리고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에서 베풀어지는 영적 양식의 풍성한 “식탁”에서 의심하지 않는 자들을 분리시키고자 합니다. 그 식탁은 참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 23:1-6)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 작은 집단으로 오로지 성서만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

43) 출애굽기 20:16; 레위기 19:16; 시편 15:3; 베드로전서 2:21-23.

말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러한 ‘성서 읽기’를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 교국의 교직자들이 100년 전에 가르치고 해설한 바로 그 변절된 교리로 되돌아갔으며,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의 ‘로마’의 농신제와 같은 그리스도교국의 축제들을 기념하는 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와 그분의 사도들은 그러한 불법한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였습니다. -마태 24:11-13; 사도 20:28-30; 베드로 후 2:1, 22.

이 기사에서는 한 항을 통해서, 사탄과 같고, 독립적이며, 흠을 찾는 태도를 나타내며, 굳은 어깨를 내밀고, 혈뜩고, 교만하고, 변절된, 불법한 자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했기에 이런 비난을 퍼붓는 것입니까? 여기에 언급된 “잘못들” 중에는 조직의 가르침 중에서 불명확한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못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한 것도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또한 하느님의 영감 받은 말씀에 고착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잘못”과 건물에서 열리는 큰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잘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을 사탄과 같은 부류로 묘사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로 믿어지지 않았던 것은, 장로들과 여행하는 감독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증인들이 이 정도의 일 만으로도 그들을 사탄과 같은 부류로 묘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기사와 같은 비난도 합당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싸잡아서 정죄한 혐회의 태도를 그들이 발행한 「깨어라!」

2000년 6월 22일호에 실린 기사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일반화시켜 버리면 실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수법은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 전체를 비하시키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6면에 나오는 한 항을 읽어보겠습니다.

## 비방

어떤 사람들은 자기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이나 동기를 의문시함으로 그들을 모욕합니다. 비방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나 사상에 기억하기 쉬운 부정적인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비방을 하는 사람은 그러한 꼬리표가 계속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직접 증거를 조사해 보지 않고 그 부정적인 꼬리표를 근거로 그 사람이나 사상을 배척하게 되면, 비방한 사람의 계략은 성공한 것입니다.

아까 앞 페이지에서 인용한 「파수대」 기사를 다시 읽어보시고, 이 「깨어라!」 기사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라!」 기사의 요점은 여호와와의 증인에게 “이단” 꼬리표를 붙이지 못하도록 변호하는 내용입니다.<sup>44)</sup> 그런데 분명히 “변절된 *apostate*”이란 말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 심

---

44) (역자): “이단” - 원문에서는 이단에 해당하는 “heresy”(헤레시)를 사용하지 않고 “분파”에 해당하는 “sect”(섹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한국에서 증인들이 실제로 자주 듣는 “이단”으로 고쳐서 번역하였다. 영어성경 번역본들에 나오는 두 가지 단어는 모두 원래 그리스어 “하이레시스”를 번역한 단어이며, 「신세계역」에서는 일관되게 “분파”(sect)로 번역하지만, 「킹 제임스 성경」KJV과 「신 국제역 성경」NIV에서는 성구에 따라서 “sect”(분파)와

하게 멸시하는 말입니다.<sup>45)</sup> 일반 증인들조차도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그런 말을 들어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모든 사람을 싸잡아 비난”하는 관행은 공정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증인 조직을 떠나는 이유는 실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매년 조직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1970년부터 1999년까지 침례 받은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658만 7천 215명입니다. 통상적으로 조직은 매년 1%의 신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적용해보면, 1970~1999년 사이에는 98만 5천 734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30년간 침례 받은 사람들 전체 숫자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조직 안에 살아 있는 사람들만 계산해서 더해 본다면, 560만 1,481명이 증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이전 연도인 1969년 「연감」에

---

“heresy”(이단)으로 달리 번역한다. 「개역한글판」을 포함해 대부분의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이단”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리킬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 단어가 멸시의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학파”나 “무리”와 같은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중립적인 용어였다. 따라서 베드로후서2:1에서는 “파멸적인 분파”(신세계역), “멸망케 할 이단”(개역한글)처럼 앞에 부정적인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하기도 했다. 사도행전 28:22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행전26:5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사용했는데, 이 경우에도 「신세계역」에서는 모두 “분파”로 번역하지만 「개역한글판」에서는 “파”로 「새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파”와 “종파”를 섞어서 번역했다. 현재는 “분파”(sect)와 “이단”(heresy)을 문화 예술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교적으로 심각하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45) (역자): “변절된”-이 단어는 원문에서 “apostate”로 나오는데, 워치타워 출판물에서 이 단어를 명사로 사용할 때는 주로 “배교자”로 번역하고 형용사로 사용할 때는 “배교한...”, “배교적인...” 등으로 번역한다. 하지만 해당 한국어 「깨어라!」기사에서는 드물게 이 단어를 “변절된”으로 번역하였다.

따르면 활동적으로 연합하고 있었던 증인들의 총 수는 125만 6천 784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에 560만 1,481명을 더한다면 1999년에는 총 숫자 685만 8천 265명이 조직에 연합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고에 따르면, 1999년에는 실제로 591만 2천 492명만이 연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30년 동안 약 94만 5천 773명이 조직을 떠났거나 활동을 중단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새로 침례 받은 사람들 전체에서 14%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1999년 전 세계 보고에서 구체적인 통계들을 살펴보면 많은 나라들 특히 선진국에서의 현재 상황이 실감나게 나옵니다.

12개 주요 서유럽국가들과 영국 및 아일랜드에서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9년에 침례 받은 수:	2만 1,376
1998년에 보고된 평균 전도인 수:	93만 3,043
1999년에 보고된 평균 전도인 수:	92만 3,143

새로 침례 받은 사람들이 21,376명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전도인 수는 오히려 9,9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에 약 3만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조직을 떠났거나 “무활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태평양 연안의 3개 주요 국가(일본, 한국, 호주)의 증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9년에 침례 받은 수:	1만 2,162
1998년에 보고된 평균 전도인 수:	32만 5,316
1999년에 보고된 평균 전도인 수:	32만 5,972

이 나라들에서도 1만 2,162명이 새로 침례를 받고 들어왔지만, 증가는 656명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1만 2,162명이 새로운 신자가 되었지만, 1년 만에 1만 1,506명이 조직을 떠났거나 “무활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1999년에 침례 받은 수:	3만 4,123
1998년에 보고된 평균 전도인 수:	105만 5,950
1999년에 보고된 평균 전도인 수:	105만 1,124

34,123명이 침례를 받았지만, 전도인은 4,826명 감소했으며, 이것은 1998년부터 1999년 사이에 38,949명이 조직을 떠났거나 “무활동”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위에 언급된 19개 주요 국가들의 전도인 수를 더해본다면, 총 67,661명이 침례를 받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전도인 수는 증가하지 않았고, 1999년 보고가 보여주듯이 1만 4,07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19개 주요 국가에서 8만 1,731명이 조직을 떠났거나 “무활동”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999년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2%의 증가가 있었고, 일부 나라들은 뚜렷한 증가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나라들에서 보여준 “회전문” 상황은 주목할 만한 것일 뿐 아니라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일본과 한국은 상당히 예외적이지만, 워치타워 협회 역사 초기부터 발전과 성장의 본보기가 되었던 나라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직을 떠나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1970년부터 1999년에 이르기까지 30년간 조직을 떠난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 모두가 양심상의 이유로 조직을 떠났다거나, 그들 모두가 겸손하고 의로운 동기를 가진 사람이며 자신에 대한 관심사보다 진리에 대한 관심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일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그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부 사람들은 조직에 있을 때 혹은 조직을 떠난 이후 부도덕한 생활에 계속 몰두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조직을 나와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증인들에 대해 복수심을 품고, 그들을 조롱하며, 절반만 사실인 말들과 과장을 사용함으로 조직이 저지른 잘못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 집회와 대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훌륭한 본을 보이면서, 하느님을 경외하고, 동정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증거를 드러냅니다. 만약 득실만으로 따진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들이 취했던 입장과 그 후에 계속 추구한 행로 때문에 얻은 이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들을 괴롭힌 것은 그들 자신이 당한 부당한 처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사, 경직되고 편협한 모습, 심지어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인 장로들과 다른 이들의 거만함, 또는 명백한 성경적 근거도 없는 조직의 특정한 규칙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보는 것 등이 그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불만스럽고 적대적인 불평을 말하기보다는 단지 더 많은 동정심을 간청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정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아들이 보여주신 본을 따르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이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진리에 대한 염려, 하느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척하는 위선을 피하려는 노력, 양심상 지지할 수 없는 것은 지지하지 않고, 성경이 정죄하지 않는 것을 마음대로 정죄하는 잘못을 피하려는 노력-이런 것들 역시 그들의 동기가 진실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러한 마음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그들에게 “배교자”, “적그리스도” 또는 “사탄의 도구”라는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를 봤지만, 협회가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양심상 조직의 가르침과 정책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상 모든 경우에 3명~5명으로 이루어진 “사법위원회”가 그들과 비공개 모임을 가집니다. 그 모임에 증인으로 불려오는 사람들은 증언만을 할 수 있으며 모임의 토의 과정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후에 회중에 간단한 제명발표가 있게 되는데, 이때 제명당한 사람의 변론이나 제명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제명발표를 한 후에는 어떤 증인도 제명된 그 사람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명당한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 대해 친구와 증인 신자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만일 그들이 제명당하기 전에 자신의 입장에 대해 친구들이나 증인 신자들에게 말했다면, 그것은 “개종 활동”, “회중의 연합을 위태롭게 하는 일”, “불신의 씨를 심는 일”이나 “분파 조장”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명당한 후에는 그들과 대화를 하는 증인 신자는 누구라도 제명당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매우 위태로운 상

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명당한 그들은 효과적으로 “격리”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명처분 고발과 청취에 관한 증거 기록들이 현재 브루클린 봉사부의 많은 두터운 파일들(또는 지부 사무실 파일들) 중에 “파기하지 말 것”이란 인장이 찍힌 채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고발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파일들은, 사법모임과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보관되며, 재검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진정한 친구는 항상 사랑하니, 그는 고난의 때를 위해 태어난 형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sup>46)</sup> 나는 그런 진정한 친구들이 정말, 정말로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고 결정의 순간에 이르자, 그러한 친구는 단지 몇 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그들이 나를 위한 변호를 거의 하지 않았거나 그 반대였거나 간에, 그런 몇 안 되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때 조직 내에서 탁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에게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한편 그렇게 탁월한 위치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나와 동일한 경험을 통해 본질적으로 나와 같은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난 딸아이를 보아온 한 어머니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였을 때 젖을 먹고 아플 때 간호하고 인생의 초년기에 삶에 대해 가르치고 딸아이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딸아이가 실망하고 슬퍼할 때 그래서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이 마치 자신의 아픔인

---

46) 잠언 17:17

것처럼 함께 눈물을 흘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딸아이가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배척합니다. 단지 어머니가 자신의 양심과 하느님께 충실했다는 것이 그 이유라면, 그것이 이 어머니에게 어떤 고통을 주게 될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이유로, 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들이나 딸이 결혼을 하면서, “결혼식에 안 오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또는 결혼한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손자 또는 손녀를 보러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때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많은 부모들은 바로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 사는 한 어머니로부터 받은 편지는 그러한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내게는 조직 안에 결혼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제명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자녀들은 집으로 놀러와 달라는 제안도 했었습니다. 나에게 대한 인간적인 감정까지 바뀌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81년 9월 15일호 「파수대」에 제명당한 사람과의 교제에 관해 세 부적인 지시가 내려오자)<sup>47)</sup> 그때 이후로 아이들은 나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전화통화는 물론 저와의 어떤 접촉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

---

47) (역자): 한국어는 「파수대」 1981년 11월 15일호.

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어서 그 애들이 나를 더 멀리 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아이들이 전화번호를 바꾸어 버릴까  
봐 전화도 못합니다. 편지도 못 보내겠습니다. 불쾌하게 생각할 수  
도 있으니까요. 지금 나는 감정적으로 탈진하여 병원신세를 지고 있  
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짧은 시간에 일어난 너무나 압도적인 이  
런 일들로 인해 또 다른 인생의 위기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아마 형제계서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요. 나로선 어떻게 내  
아이들과 (또 앞으로 태어날 손자들과) 단절된 상황을 견디나갈 수  
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식들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만일 나의 탁월했던 과거의 지위가, 이와 같은 양심적인 입장을 고수  
하는 이들이 자기들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를 고치는 데 어떤 면  
으로든 이바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과거의 탁월함이 유일하게 쓸모  
있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생각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사실대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또다  
시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주어 속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서도 결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의 말을 반박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

당한 일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타락시키지 않았으며,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 말했듯이,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sup>48)</sup>

이 책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위에 언급한 자녀들로 하여금 그 어머니를 부끄러운 어머니가 아니라 양심을 지킨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볼 수 있게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책을 쓰는 데 들인 모든 노력은 보상을 받고도 남을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증인 통치체에서 보낸 9년 동안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책은 논쟁의 양면을 제시하면서, 많은 사람의 가슴을 찢는 아픔의 근원을 캐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이 책이 전달하고 있는 정보들은 어떤 것들을 “폭로”하기 위한 것들이 아닙니다. 일부 사실이 나에게 충격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충격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충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된 이유는 그것이 매우 근본적인 문제와 매우 심각한 논점을 잘 예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은 “조직에 대한 충성”이 야기할 수 있는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며, 기본적으로는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어떻게 불친절하고 불공정하며 심지어는 잔인한 결정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별다른 예외가 없는 한, 때와 장소와 사

---

48) 고린도 후서 5:11~12. 「공동번역」; 고린도 후서 7:2~3. 「신세계역」(원문은 모두 「신국제역」 NIV에서)

람들의 실명을 직접 언급할 것인데, 이는 믿을만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말한 내용들이 사실에 입각한 정보라는 확신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관련된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누구인지 알게 해 주는 단서들도 거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맥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인용한 내용들은 원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본래의 의미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발언을 언급할 때는 그들의 일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난 독특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발언은 인용하지 않았고, 그들의 평소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을 채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발언들은 익명을 사용했는데, 이는 그런 말을 한 당사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불필요한 곤란을 겪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익명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진술이 의미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중 아무도 다음과 같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네 말에 근거하여 네가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죄가 있다고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sup>49)</sup> 우리는 잘못된 말과 상처를 준 말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하며, 그러면 용서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

49) 마태복음 12:36, 37. 「쉬운성경」(원문은 「신 국제역」, NIV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책에 나오는 특정 내용들을 비난하면서, “우리 가족들의 지저분한 속옷까지 꼭 남들에게 보여줘야 하겠는가?”라고 말할 지도 모릅니다. 이상한 점은, 바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정작 타 종교의 “지저분한 속옷”을 지적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널리 홍보하고 전파하는 데 대단한 관심을 가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외부사람들이 논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오늘날 여호와와의 증인 사회 내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역적인 영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며, 또 다른 제명처분의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증인사회 안에서는 다룰 수가 없는데, 조직 밖에서도 논의를 못한다면, 정보에 대한 논의의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을 보실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하느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직 하느님께서만 모든 잘못을 온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품고 복수하려고 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중상모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 점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남기지 않습니다.<sup>50)</sup> 하지만 이것은 불공정을 보고서도 전혀 말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

---

50) 시편 37:5-9,32,33; 로마서 12:17-21; 베드로전서 2:21-23.

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된 가르침이 널리 퍼질 때에도 계속 침묵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러한 논의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권위를 멸시하는” 태도를 나타낸다는 증거로 간주되어야 합니까?<sup>51)</sup>

조직의 입장은 그러한 불공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조치들은 모두 성경과 조화되는 것이며, 사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그 문제들을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논의는 조직의 입장의 정당성을 더욱 분명하게 해줄 것이며, 불공정한 조직이라는 비난을 씻어버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직 불공정한 행위에 정말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만이 침묵하고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한 예는 독재 정부와 권위적인 종교에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잘못을 폭로하는 것을 포함하여 잘못을 지적했다고 꾸짖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예언자들의 임무는 종종 그런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권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표준을 범하므로 문제가 된 일들을 드러나게 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의 증인들은 자주 성서의 그러한 솔직함과 열린 태도를 성서가 진리이며 순수한 하나님의 책임을 증거 하는 것이라고 지적해 왔습니

---

51) 유다는 유다서 8절에서 “영광스러운 이들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말했는데, 「파수대」 영문 1982년 8월 15일호 28면(한국어는 1982년 12월 1일호 23면)에서는 이 영광스러운 이들 중에는 “임명받은 그리스도인 감독자들”이 포함되며, 그들에게 협조하고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업신여기려는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다.<sup>52)</sup>

예수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산헤드린과 산헤드린의 장로들 그리고 하느님께서 조직하신 제사장 직분의 권위, 이것은 하느님의 계약 백성(언약 백성)에게는 가장 권위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불법적인 처사를 맹렬히 대중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였습니다.<sup>53)</sup> 히브리 예언자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권위자들의 잘못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일의 동기는 더 높은 권위에 대한 복종과 존경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으며, 사실을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였습니다.

분명히, 오늘날에는 그 누구도 예언자나 사도로서의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느님의 예언자들을 본받기 위해 예언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께서 박해받고 온갖 조롱의 말을 듣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예언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sup>54)</sup>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전 예언자들과 동일한 행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언자들과 같이 부당한 처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본을 따르기 위해 사도가

---

52) 1963년에 발행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유익하다」(‘All Scripture Is Inspired of God and Beneficial’)책 영문, 341면 참조.

(역자): 1963년에 발표된 위 책은 60~70년대에 한국어로는 조금씩 번역되어서 회중에 날권들로 공급되었다. 한국어판은 영문 1982년 개정판을 근거로 1983년에 처음으로 한권의 서적으로 만들었고, 영문판이 1990년에(한국어판은 1991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성서 전체에 걸쳐, 필자들의 거리낌 없는 솔직함은 성서의 신빙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말과 함께 관련 내용이 1963년부터 1990년 개정판까지 모든 판에 실려 있다. 한국어판 역시 341면.

53) 사도행전 4:5-26; 5:17-40.

54) 마태복음 5:11,12. 또한 비교 야고보서 5:10,11.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메시아가 돼야 한다거나, 메시아인척 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sup>55)</sup>

물론, 하느님의 아들께서 받으신 부당한 대우는 오늘날 우리들이 받은 대우와 비교할 때, 그 중요성과 의미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보여주듯이, 잘못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을 하느님께서 승인하신다는 이 원칙은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그 힘을 가집니다. 적어도 하느님께서서는 불공정과 거짓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사람들이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현실을 일깨워주며, 도와주려는 동기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해 줍니다. “선한 사람이 침묵하면 악한 자가 활개를 친다.”는 속담이 이 경우에 적당한 말인 듯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문제들의 중대성이 이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은 나로 하여금 이전 어느 때보다 성서의 주요 내용과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면서 “그것은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는지, 법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의로움과 하느님의 은혜 즉 과분한 친절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의로움은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느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인 회중의 머리로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 회중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지, 하느님께서 회중에 권위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그 권위는 어떻게 오용

---

55) 고린도전서 2:1; 에베소서 5:1; 베드로전서 2:21.

되어 왔는지에 대해 나는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부 핵심 인사인 여호와의 증인 통치체 성원으로로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은, 이전 어느 때보다 그러한 성서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나와 비슷하게, 인생의 갈림길에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던 다른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책에 나온 특정 내용들을 알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이 읽은 성경만을 기초로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위기 상황에서 혼란과 근심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심지어 죄의식에 짓눌려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책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빛을 진 느낌입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어떻게 결론을 내리든지, 이 책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하느님의 영의 인도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제3장

# 통치체

C r i s i s   o f   C o n s c i e n c e



...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을 위한 동료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서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4

위에 인용한 사도 바울의 말은 통치체에 있던 9년 동안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오른 말입니다. 나는 모든 증인들이 이런 경험을 직접 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말만 듣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통치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sup>1)</sup>

---

1) (역자): 통치체 - 한국어로 “통치체”라는 말은 영어 “거버닝 바디”(Governing Body)를 직역한 말이며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동사 “거번”(govern)에서 나온 말이다. “통치체”라는 번역은 한국의 증인들이 수십 년 이상 익숙하게 사용해온 말이다. 그런데 2015년 중반부터 여호와와의 증인 한국 지부는 “통치체” 대신 “중앙장로회”라는 번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협회 본부가 영어 표현을 바꾸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증인 조직은 여전히 그 단어(Governing Body)를 사용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이 표현을 한국어 “통치체”와 같이 직역한다. 예외적으로, 우리와 같은 한자문화권인 중국과 대만에서는 일찍부터 “거버닝 바디”(Governing Body)를 번역할 때 “중앙장로단”(“중앙장라오투안”: 간체:中央長老团, 번체:中央長老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는데, 한국어 표현이 이처럼 바뀐 정책상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통치체”(“토오치타이”: 統治体)라는 번역을 유지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Governing Body”를 번역할 때 “중앙장로회”라는 대체 용어 대신 “통치체”라는 직역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중의 머리로서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집단)을 통해 자신의 회중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다스리신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반열은 그리스도의 하늘 왕국 상속자(후사)들로서, 기름부음받은 14만 4,000명 중 남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sup>2)</sup> 하지만 이 반열 중에서 소수의 남자들만이 통치체로 일하게 되며 그들은 전 세계 회중의 행정적 기능을 관리합니다.<sup>3)</sup> 그들은 현재 약 8,500명의 “기름부음받은 자”들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상속자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함께 연합하고 있는 610만 명이 훨씬 넘는 다른 증인들도 관리합니다.<sup>4)</sup>

1971년에 11명의 통치체 성원으로 초대받았을 때, 이것은 나에게 막중한 의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숫자는 1977년에 18명으로 증가했다가, 2004년 현재는 10명이 되었음)<sup>5)</sup> 하지만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회의는 내가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통치체 사회자는 운번제로 돌아갔습니다. 당시(1971년) 사회자는 부

---

2)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사용하신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 비유는 마태 24:45-47에 나온다. 또한 14만 4,000명이라는 숫자는 계시록 14:3에 나온다.

3) (역자): “통치체”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을 대표하며,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은 사실상 “기름부음받은” 남은 자들로서 기원 33년부터 존재했다는 이 가르침은 2012년에 변경되었다. 좀 더 자세한 점은 이 책 3장 끝에 있는 각주 참조.

4) 「파수대」 2004년 1월 1일호 21면 참조. (역자: 본문에 나온 통계는 2003 봉사 연도 기준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전도인 수는 786만 7,958명이며, “표상물 취한 자” 즉 “기름부음받은 자”로 공언한 사람들의 수는 14,121명이었다.)

5) 그 당시에 규모가 커진 통치체 성원 11명은 다음과 같다: 네이션 노어, 프레더릭 프랜즈, 그랜트 수터, 토마스 설리번, 밀턴 헨첼, 라이먼 스윙글, 존 그로우(여기까지 일곱 명은 워치타워 협회 이사회 명단), 여기에 더해서, 윌리엄 잭슨, 리오 그린리스, 조지 갱거스, 레이몬드 프랜즈. 이 열 한 명 중에 2004년 현재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유일하다. (역자: 이 책의 저자 레이몬드 프랜즈는 2010년 6월 2일에 사망했다. 2015년 현재 통치체 성원은 모두 7명이다.)

협회장 프레더릭 프랜즈(Frederick Franz)였습니다. 하지만 토론할 안건은 협회장 네이션 노어(Nathan Knorr)가 결정했습니다. 토론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협회장은 무엇이든지 회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의에 임해서야 그 안건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수주일 동안이나 회의는 단지 여행하는 감독자로 추천받은 명단을 살펴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내용은 추천 대상자의 이름, 나이, 침례연도, 기름부음을 받았는지의 여부, 몇 년 동안이나 전 시간 봉사를 했는지 등입니다. 대다수 경우에 있어서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는 단지 이름을 아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개인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령 수리남, 잠비아, 스리랑카와 같은 출신의 명단을 읽은 후에야,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임명동의안에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sup>6)</sup> 내 기억에 통치체 성원 중 한 명인 토머스 설리번(Thomas Sullivan)(보통은 “버드” Bud라고 불렀음)은 당시에 나이가 80대였는데, 그는 눈이 잘 안 보이는데다가 건강도 매우 나빴습니다. 그는 회의 중에 잠드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그렇다고 내용도 잘 모르는 사항에 투표하라고 깨우는 것도 서로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때때로 전체 회의 시간은 몇 분에 불과했습니다. 내 기억에 한번

---

6) 일부 중인들은 회중의 장로 임명을 통치체가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의 장로 임명은 원래 두 세 명의 통치체 성원들이 봉사부 임원들과 상의하고 결정했었다. 이 방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단되었고, 그 이후에는 봉사부 임원들이 장로들을 임명하였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워치타워 협회의 각 지부가 장로 임명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 통치체는 미국과 그 밖의 나라들을 포함하여 오직 여행하는 대표자들과 지부위원들만을 임명해오고 있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러한 직분의 사람들에게 “통치체를 대표”한다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방 회중 장로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권위를 가진 직분을 가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은 시작하는 기도를 포함해서 7분 만에 전체 모임이 끝난 적도 있었습니다.

때때로 협회장 노어는 증인들의 개별적인 특정 행동에 관한 문제들을 회의에 가져왔습니다. 이런 행위들에 대하여 협회는 지침(가령 제명이나 그보다 좀 더 약한 징계, 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1975년까지는 모든 결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토론이 끝나면 동의와 제청이 있었으며, 거수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만장일치로 채택되지 않으면, 만장일치를 얻기 위한 약간의 협상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자연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수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일종의 압력을 느끼곤 했습니다. 혼자만 다른 의견을 낸다든지 독립적이거나 부조화스런 입장에 서기는 어려웠습니다. 내가 거수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표결에는 따라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찬성하지 않음으로 협상안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 협상안이 내 마음에 전적으로 흡족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내키지 않더라도 다수에 따라 동의를 했습니다. 안건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지체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처리되기 위해 내가 동의하는 편이 나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를 점점 더 힘들게 하는 논쟁들이 발생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토론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령 한 집안의 가장이 18세의 자녀에게 결혼을 허용했다면 그 가장은 장로의 자격이 있는지, 어떤 가장이 자녀들로 하여금 고등 교육<sup>7)</sup>을 받

---

7) (역자): 여기서 “고등 교육”(Higher education)이란 고등학교 교육이 아니라 대학교육을 뜻하는

게 한다면 장로의 자격이 있는지,<sup>8)</sup> 직장이 교대근무라서 때때로 (야간 근무 때) 회중집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장로의 자격이 있는지; 장로들은 정황증거로 간음(간통)을 판단할 수 있는지 즉 남편은 아내에게만 간음한 사실을 고백했고 아내는 그 내용을 장로들에게 고발했을 때 아내의 증언만으로 성경적으로 이혼과 재혼을 허락해야 하는지, 무고한 배우자 측이 아니라 오히려 간통한 쪽에서 신청한 이혼이 법적으로 처리 되었다면 이것을 성경적인 이혼으로 볼 수 있는지;<sup>9)</sup> 상대 배우자가 간음(간통)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다른 이유로 이혼했는데, 나중에 보니 상대 배우자가 이혼하기 전에 간음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알게 되었다면 그 이혼은 합당한 이혼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그런데 만약 이혼 전이 아니라 이혼한 후에 간통한 것이라면 그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남편이 간음을 저질렀고 깨끗한 아내는 그 간음한 남편과 성관계를 가졌다면(남편이 간음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때도 아내는 자유롭게 이혼하고 재혼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권리가 취소되는지; 만약 증인이 증거활동을 하거나 증인의 믿음을 확고하게 고수하기 위해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이 부과되었다면 그 벌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지,<sup>10)</sup> 적십자사를 통하여 식량이나 기타 원조를 할

---

말이다. 미국에서는 고등학교까지가 기본 교육이기 때문에 대학교육에 대해 “추가 교육”(further education)이라는 말도 사용한다. 한국의 증인들도 이 단어를 일반적으로 대학교육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고등”이라는 말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을 금지한 것으로 오해하는 증인들도 극히 일부지만 있었다. 한국의 일부 사전에서는 아직도 “고등교육”을 “중등 후 고등교육”이라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아주 무리한 것은 아니었다.

8) 고등 교육은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믿음에 방해가 되며 부도덕한 행실에 쉽게 빠지게 하는 분위기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금지시켰다.

9) 당시 통치체의 결정은 무고한 배우자 쪽에서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만 성경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었다.

10) 이때 벌금을 낸다면 그것을 죄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자신의 충절을 타협한 것으로 보았

수가 있는지(주요 문제는 적십자사에서 종교적 상징물인 십자가를 사용한다는 점과 적십자사를 유사종교 조직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였습니다. 아주 장시간에 걸쳐 토론했으며 그 다음 회기에서 계속해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정 국가들(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 협회로 송금할 때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다양한 방법을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해당국가의 독특한 법률로 그것을 불법으로 판단한다면 기존 관행을 중단해야 하는지; 또한 어떤 나라들에서는 설비나 기계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 법으로 정한 무거운 수입 세금을 피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노동조합에 가입된 증인들이 파업에 동참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또는 피켓시위를 하라는 임무를 대신해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청소하는 업무는 가능한지; 징병소집을 대신해서 단순히 목화밭에서 일하라는 지시에는 따를 수 있는지(이것은 볼리비아에서 제기된 것)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내가 통치체에 있었던 첫 2년 동안 토론된 것들 중 단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결정은 나머지 증인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령 이혼 문제의 경우, 회중 장로들은 일종의 종교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일 회중 성원 중 누군가가 이혼을 진행 중일 때 장로들이 그 이혼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 이혼을 계속 추진하고 나중에 재혼까지 한 그 사람은 제명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논란을 가져왔던 것은 캘리포니

---

으며, 따라서 벌금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시의 정책이었다. 나중에 이 정책은 변경되었다.

아 출신의 한 부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침실에서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다룬 사진과 인쇄물을 발견했습니다. (목격자가 그 부부의 침실에 어떻게 그리고 왜 들어갔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지역 장로들은 조사와 심문을 통해서, 그 부부가 단순한 생식기의 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행위를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sup>11)</sup> 그 장로들은 그 부부를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브루클린과 통치체로 문의해 왔습니다.

아침에 회의가 열리고 우리가 그 편지를 읽기 전까지는 협회장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 시간 후에 그 부부는 제명에 처해져야 한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그 후로 협회의 공식 지침이 되었고, 의도적으로 유사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지침이 적용되었습니다.<sup>12)</sup>

출판물은 이런 식으로 이해되거나 적용되었습니다. 만일 이 같은 성행위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지든 한 쪽 배우자가 단독으로 시도하든, 결혼 배우자는 이를 장로들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행위를 시도한 배우자가 알리기를 싫어하더라도 시도하지 않은 배우자는 회중 장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로에게 찾아와서 고백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간주되며, 제명

---

11) 「파수대」 영문 1969년 12월 15일호 765-766면(한국어는 「파수대」 1970년 4월 15일호 189-190면)에 실린 독자로부터의 질문에서는 처음으로 그와 같은 성적 행위에 대해 적지 않은 분량으로 다루었다. 틀림없이 그 기사 때문에 장로들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사안을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이 기사는 사적으로 침실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고백이나 고발을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12) 「파수대」 영문 1972년 12월 1일호 734-736면 참조; 또한 「파수대」 영문 1974년 11월 15일호 703,704면 참조. (역자): 두 기사 모두 한국어로는 번역되지 않았다. 한국어 기사로 나오지는 않았더라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들은 한국 지부에서 여행하는 감독자나 각 회중 장로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관련 지침을 전달해왔다.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명 처분은 친구나 친척들뿐만 아니라, 구원의 전망이 있는 유일한 조직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장로들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협회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1972년의 이 같은 통치체의 결정은 무수한 “사법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이 부적절한 성행위에 대한 보고나 자백을 철저히 추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은 사법 청취에서 장로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신들의 성행위(결혼관계의 친밀도)에 답변하면서 치욕을 당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배우자가 증인이 아닌 경우에는 결혼생활의 폭풍 같은 시기를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의 입장에서 침실에서의 은밀한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생각해서 격렬히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국 이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sup>13)</sup>

그 후 5년간에 걸쳐서 전례 없이 많은 서신이 통치체에 도달했습니다. 대다수의 내용은 통치체 성원들이 그들의 사생활에 이런 식으로 끼어들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적인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인쇄물을 통해 전개된 논리가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규제방침은 주로 동성에 문제를 다루는 로마서 1장 24~27절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협회로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성간인 부부사이의 성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받

---

13) 본부 '담신 작성부'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1976년 8월 9일에 통치체로 다음과 같은 메모를 전달하였다. “현행 방침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증인이 아닌 남편이라는 뜻)이 있는 가정에서 아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자신을 이런 방식으로 흥분시키려는 것을 거절하며, 반대로 이런 방식으로 흥분시켜 달라는 남편의 요구도 모두 거부합니다. 이 때문에 결혼 생활은 결국 파경을 맞습니다.”

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내들로부터 종종 편지들이 왔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적인 전희”가 불결한 것인지에 대해 확신할 수가 없어서 느끼는 혼란과 고민을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자매는 어떤 장로와 대화를 나눴는데, 장로는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통치체로 편지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매는 남편과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으며, ‘특정한 형태의 전희’에 대하여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편지에서 “나는 이것이 양심의 문제라고 믿고 있으나, 확신을 얻으려고 편지를 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나는 두렵고, 상처를 받았으며, [내 남편이] 진리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 이 순간 염려하고 있습니다. … 내가 어찌해야 할지 알려 주십시오.”

또 다른 전형적인 편지에서 한 장로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서 “‘어머니’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sup>14)</sup> 그 장로의 문제는 자신의 성생활이었는데, “실제 성행위에 앞

---

14) 많은 증인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우리 어머니”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파수대」 영문 1952년 2월 1일호 80면과 「파수대」 영문 1957년 5월 1일호 274,284면에 실려 있다. 또한 「파수대」1994년 4월 1일호 32면 참조.

(역자): 한국어로 「파수대」는 1952년 9월부터 공식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1952년 2월 1일호는 그 이전 기사로 번역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1957년 「파수대」는 당시에 한국어 잡지의 지면이 영문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지면계약 때문에 상당수 기사들이 번역되지 못한 것 같다. 대신에 영문판 1957년 5월 1일호에 나온 일부 표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잡언 6:20-23을 주제성구로 다루면서). -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들을 위해 빛이 번쩍이고’ (시편 97:11) 이것은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직을 통해서 빛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빛은 잡언에 나오는 어머니의 가르침 혹은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걷고 있다면, 여호와 하느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분의 조

서 전회는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아내와 함께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로 보내는 어떤 충고도 따르겠습니다.”라고 협회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편지들은 사람들이 통치체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증거입니다. 통치체 성원들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그들은 사생활조차도 “어디서 선을 긋는지”를 협회가 결정해 줄 수 있다고 믿으며, 그래서 “그 편지에서” 지시한 그 선을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협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 편지들은 종종 (명확하게 말하지 않음으로써), 모호한 지침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난받는 성행위의 범주 내에서도 어떤 전회는 안 되고 어떤 전회는 비난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협회 봉사부 직원이 1976년 6월에 작성한 메모가 있는데, 그것은 (장로들이 참석하는) 강습(세미나)을 진행하는 강사와 전화로 상담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강습에 참석한 어떤 장로가 결혼생활 중에 명백히 금지된 성행위를 습관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사 이름\*\*\*] 형제는 그 장로가 한 성행위가 실질적인 구강성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그 장로와 긴밀히 얘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강사]는 위원회의 다른 성원들과 의논이 필요한

---

직을 우리의 어머니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또한 「파수대」 1994년 4월 1일호 32면에서는 조 직을 가리켜 “엄마”(Mama)라고 부른다는 한 자매의 발언도 소개되었다.

상황임을 장로에게 말했고, 마침 강습에는 위원회 성원 두 명도 참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강사 이름\*\*\*]은 자신이 또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 나는 [강사\*\*\*]에게 협회로 자세한 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제안했고, 그렇게 해서 협회의 지침이 마련되면 다시 문의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적으로 사적인 일들의 심문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고, 전체적인 상황을 조직의 임원들이 어느 정도로 감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지를 통해 통치체가 마련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을 행하면 장로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느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의무로 여겼던 것입니다.

미국 남서부의 어떤 형제는 아내와의 결혼생활에서 통치체의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장로들에게 고백했고, 장로들은 이에 관한 편지를 협회로 보냈습니다. 그 형제 또한 협회로 편지를 보냈으며, 8주 후에 다시 한 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저는 답변을 기다리고, 그 답변에 대해 노심초사하며 무슨 답변이 올까 기대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회중에서 집회 전에 기도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직책으로부터 배제되었으며, “매주 회중에서 30년 동안이나 일해 온 것들을 거의 잃었습니다.”라고 그 편지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조속한 답변을 애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조직과 함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나는 정

신적인 휴식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일부 장로들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적당한 정도에서 멈추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브루클린 본부 사무실로부터 문책을 당할 빌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편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편지는 협회 봉사부에서 한 회중 장로회 쪽으로 보낸 편지 사본입니다. 이름과 특정 지명은 지웠습니다.<sup>15)</sup>

SCE:SSE August 4, 1976

Body of Elders of the  
W\*\*\* Congregation  
of Jehovah's Witnesses, N\*\*\*  
C/O  
W\*\*\* M\*\*\*

Dear Brothers:

We have a copy of the letter dated July 21 from the committee of the S\*\*\* Congregation in California in which they write about matters involving J\*\*\*.

Please let us know if any of the elders in the congregation have been giving incorrect advice with regard to matters involving oral sex, if any of the elders in the congregation have advised married persons that it would not be improper for them to engage in oral sex, then on what basis was such counsel given? If wrong counsel was given, then let us know if appropriate steps have been taken to correct any misunderstanding on the part of individuals who were given wrong counsel and let us know if the elders concerned now are in agreement with what has been stated in the Society's publications with regard to oral sex.

If any of you brothers as elders have been advising individuals that oral sex would be permissible as foreplay prior to having actual sex relations, then such advice was not correct.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e above matter. May Jehovah's rich blessing go with you as you endeavor always to care for your responsibilities as elders in an exemplary manner.

Your brothers,

cc: Judicial Committee of the  
S\*\*\* Congregation  
of Jehovah's Witnesses, Ca

SCE:SSE 1976년 8월 4일

수신: 여호와의 증인의 W\*\*\* 회중 장로회.

주소:\*\*\*\*\* M\*\*\* W\*\*\*

15) 이 사본은 먹줄을 사용한 옛날 타자기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워터마크 형태의 직인이 찍히지 않았다. 약자 "SCE"로 표시된 것은 브루클린 봉사부에 있던 머튼 캠퐀(Merton Campbell)이 작성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역자): 협회에서 회중으로 보내는 편지는 실명이 아닌 익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SCE"나 "SSE"처럼 부서와 보낸 사람 및 어떤 종류의 문서인지를 기호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한국지부에서는 "S-\*\*\*-KO" 이런 식이다. 또한 편지 아래에 표시된 CC는 첨부된 사본을 가리키는 기호이며, 여기에서는 캘리포니아 S\*\*\*회중 사법위원회에서 보낸 편지를 복사해서 이 회중 장로회 쪽으로 동봉해서 보냈다는 의미이다.

친애하는 형제들: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S\*\*\* 회중 위원회로부터 J\*\*\*가 연루된 문제에 대해서 작성한 7월 21일자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구강성교가 포함된 문제에 관하여 만약 회중 장로들 중에 누군가가 잘못된 조언을 베푼 적이 있다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만약 회중 장로들 중에 결혼한 사람들에게 조언하면서 구강성교를 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조언한 적이 있다면, 그런 조언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만약에 잘못된 상담을 했다면, 잘못된 상담을 받은 사람이 오해하지 않도록 나중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장로가 협회 출판물에서 구강성교에 대해 제공한 견해에 현재 동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제 여러분 중에 장로로서 사람들에게 조언할 때 본격적인 성관계를 앞두고 전회의 한 방식으로 구강성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들로서 본을 보이면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들로부터,

cc: 여호와의 증인 S\*\*\* 회중 사법위원회, 캘리포니아

흥미롭게도 일부 장로들은, 통치체가 지침을 좀 너그럽게 적용시키거나 최소화해주길 바랐습니다. 미국의 한 장로는 협회로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부 나이 드신 형제들이 느끼기에는 결혼한 부부가 성관계를 가질

때 특이한 체위를 포함해서 ... 부자연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통치체가 너무 지나치게 정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 장로는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레위기 18장뿐 아니라 다른 장들에서도 성적인 행동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부부가 결합할 때 어떤 방법은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왜 아무 말씀도 안하셨을까요? 만약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나 “연로자들”이 결혼한 부부의 사생활과 은밀한 영역을 조사하고 평가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를 원하셨다면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조직의 결정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사고나 수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성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통치체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당혹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장애를 갖게 된 사람 중 한 명은 조직이 금지한 방식의 성행위를 그때까지 수년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치체가 금지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자구실을 못한다는 생각을 극복할 수 있었고 아내도 즐겁게 해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수대」 잡지에서 새로 발표한 입장을 뒷받침할 성경적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내가 지침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상황이었고 자신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정을 따르게 됐다는 말을 적었습니다. 자신은 과거와 달리진 게 없지만, 결혼생활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까 두려워서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허락받고 하느님의 뜻에는 어떤 허점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은 통치체의 결정을 위반한 사람을 처리해야할 입장에 있는 장로들의 양심을 상당히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장로는 편지에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나는 여호와와 그리스도 예수를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성실함과 신념 가운데 마음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성서의 법과 원칙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회중 장로로서 책임을 수행할 때 이렇게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여호와와 조직이 지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증명되고 올바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조직이 지시한다고 무조건 따를 수는 없습니다. 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교훈한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때문에 받아들이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의 입장표명은 훌륭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많은 장로들이 이런 태도로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거나 것처럼 분명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한 성행위들이 비록 내 표준과는 분명히 달랐지만, 그 문제에 대해 통치체가 제명 의견을 냈을 때는 사실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난 그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정작 표결이 시작되었을 때는 나도 다수 결정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통치체가 나에게 결정을 뒷받침할 자료

를 준비하라고 했을 때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임명을 받아들였고 통치체가 원하는 글을 썼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 그 장로가 훌륭한 견해를 나타낸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행동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 조직을 하느님께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지상 도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주제에 대한 대부분의 편지는 통치체가 직접 다루지 않았고, “서신 담당부” 직원들이나 봉사부 직원들이 답장하도록 임명받습니다.<sup>16)</sup> 하지만 통치체 성원들도 사람들이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당한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개인적인 대화나 접촉을 통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약 5년이 지난 후, 결국 그 문제는 다시 토의 주제로 올라왔습니다. 그 때 통치체는 제명 정책을 폐지했고, 신자들의 은밀한 성생활에 끼어드는 것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통치체는 나에게 다시 출판물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변화를 위한 자료를 지시한 것입니다. 비록 간접적이지만, 협회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파수대」 영문 1978년 2월 15일호 30, 32면에는 다음과 같

---

16) (역자): “서신 담당부”(correspondence desks)라고 번역한 말은 한국 지부에서는 “문서부”로 지칭하는 부서이다. 미국 본부의 해당 부서를 가리킬 때는 “답신 작성부”(Writing Correspondence Department)라는 명칭도 사용한다. 이곳은 증인들과 일반 독자들이 보내는 편지를 다루는 곳이며, 「파수대」 1999년 11월 15일호 11면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1998년 기준으로 한 해에 약 1만 4000가지의 문의 사항을 처리했다고 한다. 봉사부(Service Department)는 분야가 달라서 회중 사법문제 등을 다룬다.

은 기사가 실렸습니다.<sup>17)</sup>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명확한 성경적 근거가 없는 한 결혼한 배우자들의 문제는 그 책임을 하느님께 맡겨야 합니다. 개인적 기준에 관한 문제를 회중 장로들이 자신들의 영역에 두고 간섭하려 한다면, 제명을 시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장로에게 다가와 그 같은 문제를 상의하려고 하면, 장로는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그 문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결혼생활을 “경찰처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목자처럼 행동함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관련된 그 사람이 온갖 종류의 성행위를 하더라도 모두 묵인해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원칙을 적용할 때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충분한 근거가 없을 때에는 독단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행실에서 훌륭한 특성을 반영하는 것처럼 여호와와 백성이 훌륭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신뢰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는 그 같은 사적인 결혼 문제에 있어서의 판단을 여호와 하느님과 그분의 아들에게 전적으로 맡기자는 뜻입니다. 그분들은 필요한 모든 상황을 아시고 분별력을 사용하실 것이며,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우리가 모든 주요 문제들을 처리하는 방식, 즉 우리 중 압

---

17) (역자): 해당 기사는 “독자로부터의 질문” 기사였으며 한국어 「파수대」에는 실리지 않았다.

도적인 다수가 지침을 결정하고 교리를 만드는 이런 방식이 실제로는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잡지에서 내 견해를 적었고 통치체는 이 기사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같은 생각을 여러 번 말했는데도, 그때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독자들이 보낸 편지들은 대부분 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된 견해를 밝히는 이 기사가 어떤 만족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나의 노력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 어떻게 다시 쓰였다 해도 5년 전의 결정이 가져온 당혹감, 정신적 혼란, 감정적인 상처, 고통스러운 죄책감, 그리고 파혼은 보상할 수도 없고, 치료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은 사전 지식, 깊은 사고력, 특별한 기도 혹은 성서적 기준도 없이, 불과 수 시간 만에 차갑게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정은 시행되었고, 향후 5년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평생을 좌우했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sup>18)</sup>

이와 연관된 또 다른 문제가 남미의 한 증인에게서 발생했습니다. 그

---

18) 내가 통치체를 사임하고 나서 몇 년 후에, 협회는 “부자연스러운 성 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상 과거의 정책으로 되돌아갔다. 「파수대」 영문 1983년 3월 15일호 30,31면(한국어는 1983년 7월 1일호 20,21면)에서는, 장로들은 회중 안에서 부부들의 사적 결혼 문제를 “감시”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결혼한 부부가 “부자연스러운 성 관계”로 분류할 만한 행위를 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은 “심지어 회중으로부터 추방되는 사태를 빚기까지 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 통치체는 1972년에 내렸던 엄격한 정책을 나중에 폐기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때 로이드 배리는 본부에 없었다. 그는 본부로 돌아와서 본인이 없을 때 내린 정책폐기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집필부를 관리하면서 「파수대」 기사 작성도 감독했었는데, 협회가 또다시 엄격한 정책으로 상당부분 되돌아간 것에는 그의 영향력도 작용했을 것이다. 아무튼, 1983년에 나온 이 기사는 과거 1972년 당시에 규제정책을 발표했을 때 사법모임이 급증한 것만큼의 후폭풍을 만들지는 못했다. 아마도 이전에 이 문제를 다뤘던 장로들이 쓰디쓴 결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심문을 확대하려는 욕심을 자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너의 남편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아내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정상적인 형태의 성관계였고, 그 형태는 항문 성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한 몸”이 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는 성경적으로 이혼할 근거가 없고 미래에 재혼할 수도 없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표결방식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따라서 나는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성서적 기준으로 이 여성이 그 같은 행위를 한 배우자와 이혼하여 자유로운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결정은 어떤 남편이 동성애나 수간을 했더라도 성서적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의 가능성이 없는 남자끼리 혹은 짐승과 한 행위는 “한 몸”이 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해 초 「파수대」에서는 사실상 그런 방식으로 특별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sup>19)</sup>

이에 나는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워서, 마태복음 19장 9절에 나오는 그리스어 원어들을 조사했습니다. 협회가 발행한 「신세계역」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음행의 근거 외에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입니다.”<sup>20)</sup>

---

19) 「파수대」 영문 1972년 1월 1일호 31, 32면 참조.

(역자): 이 기사는 한국어로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독자로부터의 질문 기사였는데, “결혼한 사람이 동성연애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것으로 무고한 배우자가 재혼의 자유가 있는 이혼을 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됩니까?”라는 질문을 다루었다.

20) (역자): 해당 성구는 2013년에 「신세계역」이 개정되면서 조금 바뀌었다. 현재 개정판에서는 기존에 “음행”(fornication)으로 번역했던 그리스어 포르네이아를 “성적 부도덕”(sexual immorality)으로 번역했고, 2014년 한국어 개정판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었다.

여기에서는 “음행*fornication*”과 “간음*adultery*”이라는 서로 다른 두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수십 년 동안 워치타워 출판물에서는 그 두 단어가 본질적으로 같은 뜻을 갖고 있으며, “음행은 한 남자가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와(혹은 아내가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갖는 간통 관계를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간음이나 음행이 실제로 같은 뜻이라면 예수께서 마태복음에서 굳이 서로 다른 두 단어(*포르네이아*와 *모이케이아*)를 사용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베델 도서관에서 수많은 성경 번역판과 성서 사전들, 그리고 주석서들과 용어사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명백해졌습니다. 내가 조사한 거의 모든 책에서 신세계역에 나오는 “음행*fornication*”은 그리스어로 *포르네이아*인데, 이는 매우 넓은 의미를 담고 있는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성서 번역판들은 이를 “부도덕”, “성적 부도덕”, “음란”, “불충실” 등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sup>21)</sup> 용어사전들은 이것이 동성애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성서 자체가 유다서 7절에서 동성애로 악명 높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면서 *포르네이아*를 사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연구 결과를 통치체 각 성원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14쪽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불안해서, 프레더릭 프랜즈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나는 그 동안에 한 일을 설명하고 이 자료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질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

---

21) 마태복음 9:19에 나오는 “간음”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모이케이아인데, 이것은 넓은 의미를 가진 *포르네이아*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간음(간통)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 매우 한정된 의미를 갖고 있다.

자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어떤 반대도 없을 거라고 확신해.” 비록 간단하지만 자신감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조사한 것을 보겠느냐고 묻자,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삼촌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내 직감으로는 내가 조사한 내용들 중 일부를 삼촌은 꽤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는 짐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협회에서 발행한 신세계역 성경 번역자들 중에서도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포르네이아*(“음행”)의 정확한 의미만큼은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sup>22)</sup>

이 문제는 통치체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프레더릭 프랜즈는 지지를 표명했고, 내가 제출한 자료는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나는 변경된 견해를 「파수대」지에 실을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하라는 임명을 받았습니니다.<sup>23)</sup>

지금도 기억나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기사가 나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한 증인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남편이 수간을 했기에 수

22) 신세계역 성경은 번역자들의 이름이 익명으로 되어있다. 실명 대신에, “신세계역 성서 번역 위원회”가 번역한 것으로 나온다. 그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은 네이션 노어, 엘버트 슈로더, 조지 갱거스이다. 하지만 성경을 번역할 수 있을 정도로 성서 원어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었던 사람은 프레더릭 프랜즈가 유일했다. 그는 신시네티 대학에서 그리스어를 2년 동안 공부했으며, 독학으로 히브리어를 공부했다.

23) 「파수대」 영문 1972년 12월 15일호 766-768면 참조.  
(역자): 해당 기사는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레이몬드가 집필한 기사는 “독자로부터의 질문”이었는데, 질문은 이렇하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혼의 근거를 논하시면서 서로 다른 두 단어 “음행”과 “간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근거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간음”(간통)만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또한 해당 기사에서는 “음행”을 폭넓게 정의하면서도 부부간의 키스와 애무는 음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하지만 동성애 관계는 “음행”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설명했고, 이것은 이전 기사의 견해를 명백히 수정한 것이라는 사실도 적었다.

년 전에 이혼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짓을 한 사람하고는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그녀는 그 남자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속했던 회중에서는 그녀에게 재혼할 수 있는 “성경적 자유”가 없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파수대」 기사가 나간 후로, 그녀는 이제 입장이 변경되었으니 제명처분으로 겪었던 치욕스러운 불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한 답장으로 해당 기사를 통해서 그녀의 과거 행로가 결백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나마 조직의 잘못된 견해를 인정하고 바로잡았다는 나름의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잘못된 입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는지를 생각하니 심각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지 하느님께서만 아실 것입니다.

당시 통치체는 결정도 내리고 그 결정에 법률적인 힘도 있기에, 통치체는 사실상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사법부와 입법부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 시대 이스라엘의 “산헤드린”과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처럼,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은 모든 중요한 질문들을 브루클린에 있는 통치체에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도 통치체는 행정부가 **아니었습니다**. 행정적인 권위나 책임은 전적으로 협회장 네이션 H. 노어에게 달려있었습니다. 부 협회장 프렌즈가 통치체와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를 비교하는 설

명을 하기 전까지 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나중에 「파수대」 영문 1971년 12월 15일호에 기사로 실렸습니다. 부 협회장의 말은 과감하고 솔직했습니다. 그는 협회를 가리켜 통치체가 사용하는 “도구agency”, 또는 “임시기구temporary instrument” 일 뿐이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754, 760면; 한국어는 「파수대」 1972년 2월 15일호 89면, 94면)

29 이 세계적인 전도 조직은, ‘할-마계돈’에서 있을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에서 멸망될, 인간이 만든 정치적 정부의 법이 요구하는 현 시대의 어떤 법인 단체에 맞게 짜맞춘 것이 아닙니다. (계시16:14-16) 지상의 어느 법인 단체도 그 전도 조직을 틀잡거나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조직이 그러한 법인 단체를 위대하신 신정자의 사업을 위해 임시적인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따라서 그 조직은 그것에 대한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틀잡아집니다. 그것은 신권 조직으로서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아래로 지배되며, 하층에서 위 방향으로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직에 속한 헌신하고 침례받은 성원들은 신권 통치하에 있습니다! 지상의 법인 조직은, 그것을 인가하고 있는 인간이 만든 정부들이 조만간 멸망될 때에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

그러므로 본 ‘협회’의 의결권을 가진 회원들은 이 통치체가 그 성원들을 ‘협회 이사회’의 성원이 되게 함으로써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 반열의 사업을 위한 기구로서 이 “관리 대행기관”을 직접 사용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들은 ‘협회’가 관리체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일을 위한 단순한 대행기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협회’의 의결권을 가진 회원들은 분쟁이나 분열의 어떠한 근거도 있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관리 대행기관”이 그 대행기관의 사용자 즉 “충성되고 지혜있는 중”을 대표하는 통치체를 통제하거나 지도해야 할 경우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가이사’의 법에 의한 법적 종교 기구는 그 기구의 창설자를 지도하고 통제하려고 하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 법적 종교 기구의 창설자가 그것을 통제하고 지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과 일치하게 통치체와 법인 단체 ‘이사회’ 사이에 가장 능률적이고 완전한 조화를 갖기 위하여 의결권을 가진 ‘협회’ 회원들은 현명하게도 그들이 “충성되고 지혜있는 중” 반열의 통치체의 성원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사로 선출하였다.

설명에 등장하는 비유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그의 설명을 “개를 흔드는 꼬리 연설(tail wagging the dog talk)”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표현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문제는 실상이 그와는 정 반대라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한 프랜즈 부 협회장의 연설 당시에도, 그리고 그것이 기사로 발행되었을 때에도 통치체는 결코 협회를 통제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사가 나온 뒤로도 약 4년간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증인들에게는 이 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연설과 기사에서는 조직의 전체 역사에서 결코 존재한 적이 없었던 종류의 통치체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 통치체는 나중에 등장했는데, 그때는 조직의 역사가 시작된 지

90년 이상이 지났을 때였고 날짜로는 1976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와, 또 그것이 사실인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 세 명의 군주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라들의 통치자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큰 자들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휘두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안 됩니다.

마태복음 20:25, 26.<sup>24)</sup>

기록에 의하면,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는 특히 1879년 1월 1일에 「파수대」 잡지 창간호가 발행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는 1881년에 처음으로 구성되었고 1884년에 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협회는 통치체를 ‘형성하지도, 지배하지도, 통제하지도, 지시하지도’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통치체”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찰스 테이즈 러셀 Charles Taze Russel은 친히 편집자가 되어 「파수대」 잡지를 발행했습니다. 러셀의 평생 동안 워치타워 협회와 연합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를 자신들의 유일한 목회자 Pastor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협회는 출범 당시부터 법인이사회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와 그의 아내가 처음부터 이사회의 일원이 되었습

24) (역자): 원문은 「신영어성서」NEB에서 인용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신세계역」을 사용하였다.

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통치체로 간주되지 않았고, 그런 역할을 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파수대」 영문 1971년 12월 15일호(한국어는 1972년 2월 15일호 94면)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sup>25)</sup>

### 통치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근대에 와서 어떻게 이 통치체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로 있게 되었다. 현재 알 수 있는 사실에 의하면 통치체는 '펜실베니아 워취 타워 성서 책자 협회'와 관련이 있게 되었다. '시. 티. 러셀'은 19세기 말 4반세기 동안 그 통치체의 일원이었음이 명백하다.

여기서 프레더릭 프렌즈가 어떻게 “현재 알 수 있는 사실에 의하면”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이 러셀과 함께 당시 협회에서 일한 것처럼, 또 당시의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현시점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실제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법인 이사회와 관련하여, 러셀은 특별판 「시온의 파수대」영문 1894년 4월 25일호 59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893년 12월 1일에 이르기까지, 러셀자매와 나는 총 주식 육천삼백 팔십삼(6,383) 중에서 삼천칠백오(3,705)에 해당하는 주주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임원을 선출하고 협회를 총괄할 수

---

25) (역자): 당시에는 “워취 타워”라는 한글 표기를 사용했다. 1983년 하반기부터는 문교부에서 정한 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지금처럼 “워치타워”로 변경되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이사들도 처음부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은 후에 자신들의 가치가 전면에 나타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sup>26)</sup>

자신을 포함한 이사들 중 누구도 통치체로 간주되지 않았음은 러셀의 일관된 행보에서도 명백히 나타납니다. 「파수대」 영문 1923년 5월 1일 호, 68면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 러셀 형제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협회라고도 말합니다.”<sup>27)</sup>

그 기사는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두 가지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 러셀 형제는 가장 절대적인 의미에

---

26) 러셀 부인은 남편과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1886년 10월에 「파수대」 공동 편집자 직책을 사임하고 1897년 11월 9일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협회의 이사직을 1900년 2월 12일까지 유지했다. 그 후 1906년에 이혼했다.

(역자): 1993년에 워치타워 협회에서 발행한 「선포자」책에 의하면 러셀과 그의 아내 머리아가 이혼 판결을 받은 것은 1908년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인 이혼이 아닌 별거 수당을 받는 “숙식에 있어서의 이혼”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두 가지 주장이 모두 맞을 수 있다. 1903년에서 1908년까지 여러 차례의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 1906년에는 배심원과 판사가 머리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혼 결정을 하였고, 그 후에도 우여곡절 끝에 1908년에 확정 판결이 났다는 기록도 있기 때문이다.

27) (역자):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마태24:45)이라는 표현은 한국에서 「신세계역」이 발행되기 전에 사용하던 「개역한글판」의 표현이다. 원문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신실하고 현명한 종”(faithful and wise servant)으로 번역하였다. 「신세계역」이 나온 후로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faithful and discreet slave)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처럼 옛날식 표현이 나올 경우에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보다는 주로 「개역한글판」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서 협회 자체였으며, 지상에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서 협회의 정책이나 방향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때때로 협회 관계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제안에 귀 기울이기는 했지만, 결국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파수대」 독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C. T. 러셀은 1906년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제시하는 진리는 환상이나 꿈 혹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계시된 것도 아니고 모두 한꺼번에 계시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점진적으로, 1870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1880년부터는 특별한 계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가 이처럼 분명히 밝혀지는 것은 인간의 창의력이나 예리한 직관력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왔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고 다른 어떤 대행자도 찾을 수 없다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입니다.<sup>28)</sup>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믿었기에, 왜 그에게는 통치체가 필요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말을 하고 나서 러셀은 “마지막 당부와 유언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인 그해 1916

---

28) 「파수대」, 영문 1906년 7월 15일호 229면. (역자): 발췌된 기사의 일부 번역은 「선포자」책 143면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 번역을 재인용하면서 생략된 부분을 채웠다.

년 12월 1일호 「파수대」에 그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 유언만큼 찰스 러셀이 「파수대」 잡지를 온전히 통제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유언의 전체 내용을 이 책 부록에 실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인쇄된 유언의 두 번째 항(문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온의 파수대」, 「구신학 계간지」 및 「천년기 새벽-성경 연구」 시리즈 책들과 다양한 소책자들, 찬송가 서적들, 기타 간행물들을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에 기증합니다. 나는 내 생애 동안 이러한 출판물들을 온전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망한 이후에도 내 희망에 따라 다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나의 소망들을 내 유언으로서 다음과 같은 말로 남깁니다.

비록 그가 협회(1884년에 법인체로 등록)에 「파수대」를 기증했지만, 그는 분명히 그것을 자신의 잡지라고 생각했으며, 사후에도 자신의 뜻대로 발행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망을 대비하여, 자신이 직접 지명한 5명을 ‘편집 위원회’로 구성하였고 그들이 전적으로 「파수대」의 발행을 책임지도록 지시했습니다.<sup>29)</sup> 그는 또한 5명의 여성들을 수탁자로 지명하여 자신의 모든 주주 의결권을 넘겼고, ‘편집 위원회’ 성원 중에 어떤 사람이 탄핵 고발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 5명의 여성들이 다른 수탁자들(이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함) 및 ‘편집 위

---

29) 러셀은 러더퍼드를 이 다섯 명 중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그 대신 유사시에 결원을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다섯 명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그룹에 포함시켰다.

원회'의 나머지 위원들과 함께 판결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발을 받은 해당 편집 위원회 위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도록 마련했습니다.<sup>30)</sup>

한 사람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C. T. 러셀의 생애 중에는 즉 1916년에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통치체와 유사한 어떤 기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임자 조셉 F. 러더퍼드의 재임 중에도 동일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집 위원회나 이사회가 통치체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가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면 그런 가정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17년 1월 협회 연례총회에서는 러더퍼드가 그의 뒤를 이을 워치타워 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의 재임 초기에 협회의 7명의 이사들 중 4명(과반수)이 그의 독단적인 직무수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사회를 집단으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협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단적으로 행동했으며, 먼저 조치를 취하고 먼저 결정을 내린 후, 나중에 그 결과를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이사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목회자 러셀이 따르도록 규정한 지침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반

---

30) 1959년에 발행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의 여호와와 증인」(Jehovah's Witnesses in the Divine Purpose)책 영문 64면에 따르면, 법적으로 러셀의 표결권은 그가 사망한 이후에 무효화되었다.

대를 표명하자 곧바로 그들의 지위를 박탈했습니다.<sup>31)</sup>

비록 러셀이 직접 지명해서 평생 이사의 직분을 얻었지만, 그들 중 4명은 협회의 연례회의에서 결코 지명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협회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A. H. 맥밀런(A. H. MacMillan)의 말에 따르면, 러더퍼드는 이 점에 관해 자신의 사외 변호사와 상의를 한 후 법적인 근거 하에 이들을 해고한 것이었습니다.<sup>32)</sup>

따라서 러더퍼드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협회 이사회 과반수가 제기한 반대에 대하여 인정하고 수정할 수도 있었고, 다른 하나는 언급한 것처럼 법적인 근거 하에 자신의 직권으로 이사들을 해임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후자를 선택하여,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사들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편집 위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수대」 1938년 6월 15일호 185면에서는, 이 위원회에 속한 대부분이 1925년에 “나라의 탄생”(1914년에 “왕국이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라는 제목의

---

31) 이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은 러더퍼드가 「종말을 고한 비밀」(The Finished Mystery)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행했을 때에 일어났다. 이 책은 사람들에게 “러셀의 유작”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클레이턴 우드워스와 조지 피셔가 쓴 것이다. 러더퍼드가 이 책을 쓰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이사들과 상의하기는커녕, 이사들은 그 책이 “베델 가족”이나 본부 직원에게 배포될 때까지도 그 책이 출판된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던 것이다. 나중에 발행된 위치타워 출판물들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 in the Divine Purpose)책에서는 주된 이유가 네 명의 이사들이 반대를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영문 70, 71면) 그 책에서는 러더퍼드가 「종말을 고한 비밀」책을 본부 직원들에게 발표한 당일(1917년 7월 17일)에 이사들에 대한 해임도 발표한 것처럼 묘사하지만, 이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실제로는 그 책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이사들의 해임 발표가 있었다. (역자): 해당 출판물은 한국어로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회중에는 극히 소량이 보급되었다. 그 책을 대신하여 1993년에 나온 새로운 역사서 「여호와의 증인-하나님의 왕국 선포자」책 67면에서도 이 내용을 비슷하게 다루고 있다.

32) A. H. 맥밀런이 저술한 「믿음의 행진」(Faith on the March, 뉴저지주 잉글우드 클럽스에 위치한 프렌티스-홀 출판사 Prentice-Hall, Inc. 에서 1957년에 발행) 영문, 80면 참조. 이 책의 서문은 N. H. 노어가 썼다.

기사에 대해 “맹렬히 반대”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잡지는 협회장에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당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기사] 발행되었다. 이것은 현재의 편집위원회가 해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님께서 친히 이 조직을 운영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편집위원회는 해산되었습니다. 리더퍼드는 효과적으로 반대를 제압하고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있었던 흥미로운 특징은, (1917년의 핵심쟁점이었던) 「종말을 고한 비밀」책 뿐만 아니라 「파수대」잡지에서도 목회자 러셀이 성경에 예언된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라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제시했다는 점입니다.<sup>33)</sup> 이렇게 모든 신자들이 이 가르침에 온전히 일치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파수대」 1922년 5월 1일호 132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 충실함은 충성스러움이다

충실함은 충성스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 충성하는 것은 주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선택하신 도구를 버리거나 부인하는 것은 주님 자체를 버리거나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

33) 「종말을 고한 비밀」책 영문 4, 11면 참조. 「파수대」지 영문 1922년 3월 1일호 72, 73면, 1922년 5월 1일호 131면, 1923년 3월 1일호 67, 68면 참조.

따르면 주인이 보내신 종을 거부한 사람은 주인을 거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현재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러셀 형제의 봉사 활동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로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지식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에스겔을 통하여 한 종의 직분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이 먹 그릇을 찬 사람 한 명을 지명하여 그 도시(그리스도교국)로 파견하셨는데 그는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계몽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으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하지만 주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마련을 계속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무를 담당하게 된 사람은 러셀 형제였습니다.

1923년 3월 1일호 「파수대」(68, 71면) “충성심에 대한 시험”이라는 기사에서도, 러셀의 가르침과 방식에 복종하는 것이 곧 주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8 현재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는, 러셀 형제가 주님의 특별한 직무를 충실히 완수했고, 주의 모든 소유를 관리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

38 모든 동료 종들은 각자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주님의

방식과 조화롭게 추수활동을 함으로서 더 향상된 능력과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방식은 주님께서 러셀 형제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셀 형제가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의 직무를 온전히 맡았기 때문입니다. 러셀 형제는 주의 일을 주의 방식대로 수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러셀 형제가 주님의 방식대로 일한 것이라면, 다른 모든 방식은 주님의 방식을 반대하는 것이므로, 결국 주님의 왕국을 돌보는데 충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매우 분명해졌습니다. 누구든지 ‘주인의 집 관리인’ 러셀)의 가르침과 방식을 따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 죄 짓고 결국 배교자가 될지를 택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권위에 이토록 강하게 호소한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권위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그의 사후 불과 수 년 내에 (혹은 이와 같은 충성이 요구되던 동안에도) 자신이 평생 동안 마련한 교리들과 자신이 감독직으로 임명한 사람들이 새로운 회장(러더퍼드)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러셀이 유언장에 남긴 “유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아울러서 도덕적인 효력도 없게 되었습니다. 「파수대」 1931년 12월 15일호(376면)에서는 이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sup>24</sup> 예수께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은 잘 알려진 다음과 같은 사실들로 성취되었습니다: 즉 1914년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보좌에 왕을 앉히셨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3년 반은 왕국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이 기적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1916년에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회장이 사망했습니다. 협회장의 서명이 포함된 종이가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보통 “마지막 당부와 유언장”이라고 불리는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러셀 형제는 그가 사망하기 수년 전에 이미 자신이 그런 유언장을 작성할 수가 없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조직의 사업은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어떤 피조물의 유언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언장”에 적힌 대로 실행하면서 주께 영광과 영예가 돌아가도록 협회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통로”라는 「파수대」에서는 불과 8년 전에 러셀이야말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식대로 수행”한 사람이라고 말했으며, 따라서 “다른 모든 방식은 주님의 길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이때, 러더퍼드는 「파수대」지가 그토록 강력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주장했던 러셀의 방침을 배척했습니다. 러더퍼드의 그런 방식에 반대 의견을 내면 그가 누구든 악한 동기와 앙심을 품은 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습니다.

이 무리는 “러셀 형제의 유언이 무시되었다. 그리고 「파수대」가 그의 지침과 다르게 발행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떨어져 나가거나 추방되었고, 울며 통곡하면서 동료 형제들에게 이를 갑니다. 그들은 지상에 있는 주님의 조직이 한 사람의 유언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몹시 두려워하면서 자신들의 손을 들거나 악어의 눈물을 흘립니다. 달리 말해서, 그들은 가식적으로 울면서 통곡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협회를 마음대로 할 수 없

기 때문에 통곡하고 불평하며 읍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를 갈면서, 한때는 자신들의 동료 형제였던 사람들에게 악의와 원한을 품고서 거짓 주장을 합니다. 유다는 이와 동일한 무리에 관해 언급하면서, 그들이 이처럼 울며 통곡하기 시작하는 때가 예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에 오시는 때에 명확히 적용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은 원망하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정욕[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또 그들의 입으로는 과장하는 말[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하고, 유익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를 칭찬하는 자들이라.[달리 말해서, 그들은 특별한 사람을 칭찬(아첨)하면서 자기들도 칭찬받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그들의 태도와 행동 과정은 유다가 말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됩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러셀 형제에게 대단한 애정을 갖고 헌신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것은 이기적인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기록으로 남기신 목적과 주님의 명백한 의도는 주님의 백성이 이 무리를 식별하도록 하셔서 이런 부당한 일꾼들을 피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sup>34)</sup>

이 같은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며 엉뚱한 과정을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도구로 세우셨고 자신의 지침을 지상 백성들에게 제공하시는 통로

---

34) (역자): 해당 「파수대」 1931년 12월 15일호 기사에서 인용한 성구는 유다서 16절로 영문 「킹 제임스」KJV에서 인용한 것이지만, 한국어 번역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였다.

로 인정하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925년 J. F. 러더퍼드는 사실상 의심을 불허하는 명령을 협회에 내렸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조직의 기능들을 더욱 강하게 통제했습니다.<sup>35)</sup> 워치타워 협회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들, 또 지상의 전 회중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공급되는 여타의 모든 출판물들도 완벽히 통제했습니다. 어느날 삼촌(프렌즈)은 나를 사무실로 불러서 러더퍼드가 베델 가족에게 제시한 새로운 견해의 토론 주제를 말해 주었습니다.<sup>36)</sup> 토론에서 삼촌은 그 새로운 견해에 대해, 성서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러더퍼드는 삼촌에게 그 새로운 견해를 지지할 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이 “판사”(러더퍼드)는 「파수대」를 통해서 예언과 전파사업을 강조하는 정책을 확고히 세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기사들에는 사랑, 친절, 관용, 오래 참음 같은 주제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거의 60년에 이르는 러셀과 러더퍼드의 재임기간에는 통치체에 대한 어떠한 암시도 드러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들의 특권에 따라

---

35) A. H. 맥밀런은 「믿음의 행진」(Faith on the March)책 152면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러셀은 우리가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많은 것들을 개인의 재량에 맡겼다. … 러더퍼드는 전파 활동에서 통일된 모습을 원했는데, 사람들이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하거나 개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거나 개인의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러더퍼드는 차츰 자기 자신을 조직의 주요 대변인으로 만들어갔다. 그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소식을 모순 없이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36) 당시 논점이 된 문제는 로마서 13:1에 나오는 “위에 있는 권세”(higher powers)가 이 땅의 정부 당국이 아니라 여호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새로운 관점에 관한 것이었거나 장로회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것 둘 중 하나였는데, 그 어느 쪽이었던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역자: “위에 있는 권세”라는 표현은 「개역한글판」에서, “higher powers”라는 표현은 「킹제임스 성경」KJV에서 근거한 말이다. 「신세계역」이 나온 이후로는 “위에 있는 권위”(superior authoritie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독점적인 권위만 행사해왔을 뿐입니다.

1993년, 협회는 새로운 역사책 「여호와의 증인-하나님의 왕국 선포자*Jehovah's Witness-Proclaimers of God's Kingdom*」를 발행했습니다. 이는 전에 발행되었던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의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 in the Devine Purpose*」을 대신하는 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이 책은 최근에 발행된 세 권의 책들, 곧 1983년에 초판이 인쇄된 「양심의 위기」*Crisis of conscience*와 그 후속편으로 1991년에 인쇄된 「그리스도인 자유를 찾아서*In Search of Christian Freedom*」, 그리고 칼 올로프 욘손이 쓴 책 「이방인의 때 재고*The Gentle Times Reconsidered*」(초판, 1983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은 새 역사책의 머리말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역사책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사실들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것은 증인들이 만약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알게 될 때 받을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선포자」책은 독자들에게 “이 책의 편집인들은 객관적이 되어 솔직한 역사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라고 보증했습니다.<sup>37)</sup>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과거의 기록을 본 적이 없으며, 협회가 성장하면서 일어난 관련 사건들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중앙권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권위구조를 구성하는

---

37) 「여호와의 증인-하나님의 왕국 선포자」책에 나오는 “머리말” 참조. 「선포자」책 200면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공개한 사진 즉 1926년에 브루클린 본부 직원들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장면을 찍은 기념사진이 실려 있다. 그 사진은 1991년에 발행한 「그리스도인 자유를 찾아서」(*In Search of Christian Freedom*)책 영문 149면에서 공개한 사진이다. 이 사진은 2년이 지난 후 발행된 새로운 역사책에도 실렸는데, 워치타워 출판물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그때까지 협회는 67년 동안 그 사진을 소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은, 1993년에 나온 그 책의 편집인들이 “솔직한 역사”를 객관적으로 제공했다는 상상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그 책에 좌지우지 됩니다.

나는 이렇게 "객관성"을 잃고 "미화"시킨 책을 읽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책은 조직의 역사와 정책을 현실과 상당히 다르게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협회장 러셀과 러더퍼드의 진술을 다룰 때에도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4:45-47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신분(실체)에 관해서, 이 「선포자」책에서는 마침내 (142면, 143면, 626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즉 “여러 해 동안” 「파수대」 잡지에서는 찰스 테이즈 러셀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선택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했음이 사실임을 인정했으며, 러셀 자신도 1896년 이래로 개인에게 적용된다는 이런 견해가 “이치적인 것 같아 보인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러셀은 특별하게 선택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한 개인(즉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견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책 각주에 나온 「파수대」 참조를 실제로 찾아보면) 1881년에 취했던 자신의 원래 입장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실제로는 정확한 성경적인 적용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대신, 이 새로운 역사책에서는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러셀이 1881년에 표방한 주장 즉 그 신분(실체)이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적용된다는 주장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강조했습니다.

「파수대」 1909년 10월 1일호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지 특정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러셀은 “적”으로 간주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독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니다. 「파수대」 영문 1916년 10월 16일호 특별판에서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그 단어가 자신에게 적용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니다.<sup>38)</sup>

아울러서 이 책은 워치타워 조직의 가르침 때문에 생긴 모순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협회의 가르침은 1919년에 예수께서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 즉 집단을 선택하시고 인정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1919년 당시 사람들이나 그 이후 여러 해 동안에는 정작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집단이 아니라** 러셀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믿었으며, 그들은 러셀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 1874년부터 즉 1914년보다 수십 년 앞서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은 2대 협회장 러더퍼드가 조직을 독선적으로 통제했음을 부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선포자」책 220, 221면 참조) 거기에서는 러더퍼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라는 칼 클라인 *Karl Klein*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가 실제로는 근본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기록은 협회의 이사들 혹은 편집 위원회 성원 중 누구라도 그를 반대한 자들은 직위를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칼 클라인이 묘사한 러더퍼드의 겸손은 사실과는 다르며, 그 “판사”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이 점은 당시 협회 본부 직원 누구와 대화를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

38) 「양심의 위기」책 399-405면 참조. 또한 「그리스도인 자유를 찾아서」책 영문 78-84면 참조.

나는 그의 재임 마지막 5년 동안 조직에서 매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분명한 영향을 끼쳤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었습니다. 오늘날 절대 다수의 증인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라 하셨고, “자신의 말에 따라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며, 자신의 말에 따라 정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 12:34,37) 1920년대부터 1942년까지 출간된 「과수대」를 읽어보면 누구든지 겸손함이 아니라 독선과 권위주의가 기사 속에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듯이 이 기사들은 리더퍼드의 원칙 가운데 쓰인 것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조직의 정책과 가르침,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자들을 비난했으며, 심지어 가혹한 언어까지 사용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 하나님의 왕국 선포자」책 220, 221면에서는 리더퍼드가 협회의 지도자로 간주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리더퍼드가 자신이 죽기 전인 1941년에 자신이 지도자가 아니라고 말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리더퍼드 사진 바로 밑에 적힌 다음의 설명은 협회 역사책 집필진이 붙인 것입니다. “증인들은 그가 자신들의 지도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워치타워의 지지자들(증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보이지 않는 지도자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리더퍼드를 보이는 지상의 지도자로 믿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 즉 “또한 지도자라고 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마태 23:10)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리더퍼드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알려졌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포자”책 221면에 실린 사진. 사진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실렸다: 1941년의 J. F. 러더퍼드, 증인들은 그가 자신들의 지도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한 워치타워 대회 보고서인 「사자*The Messenger*」에 실린 사진과 그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속의 대회는 1931년 7월 25일에 유럽의 주요 대도시에서 열린 것입니다. 이 사진(두 번째 사진) 아래의 설명에는 대놓고 “그들의 보이는 지도자*Their visible leader*가 파리에서 막 연설하려고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현수막:“좋은 소식을 알리는 여자들이 큰 군대로구나.” - 시편68:11. 사진 하단 설명: 그들의 보이는 지도자(*Their visible leader*)가 파리에서 막 연설하려고 한다.

다음 두 장의 사진에서는 러더퍼드를 “사령관”*Chief*으로 묘사하고 있

습니다.



The Bethel Family at London. See 'em Grinning? The Chief Had Just Finished Telling Them Something in the "Colored Language."

- 런던에 있는 베델 가족. 함께 웃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사령관이 그들에게 막 어떤 농담을 마친 직후의 모습



The Chief Inspects the 'Cleaning of "Kopf Salat", Just Gathered from the Garden. It Takes Only Four Bushels for a Meal!

• 사령관이 정원에서 갓 따온 “코프 잘랏트”(독일상추)를 세척하는 과정을 시찰하고 있다. 한 끼 식사에 겨우 4부셀(108킬로그램)!

네 번째 사진에서는 리더퍼드가 대회의 “대원수generalissimo”로 묘사되어 있습니다.<sup>39)</sup>

이 대회의 보고서인 「사자」(*The Messenger*)는 워치타워의 새로운 역사책(「선포자」)에서 인용한 리더퍼드의 1941년 연설(자신은 지도자가 아니라는 발언)보다 10년 전에 인쇄된 것입니다. (사진 자료들이 증명하듯이) 리더퍼드는 워치타워의 지지자들이 자신을 지도자로 생각했음을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증거들은 그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이미지(지도자)를 부인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헛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39) (역자): “대원수”로 번역한 영어 단어(generalissimo)는 또한 “총통”이나 “최고 사령관” 등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의 회장이자 이 대회 대원수

판사 리더퍼드가 1942년 1월 8일 사망한 후, 협회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네이션 H. 노어(Nathan H. Knorr)를 3대 협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조직의 기본적인 구조는 근본적으로 이전과 같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런 점이 사실상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퍼드 사망 당시에는 증인의 숫자가 10만 8,000명이었는데, 노어의 재임 당시에는 2백만 명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집필자도 성서 연구생도 아닌 노어는 부회장 프레더릭 프랜즈(Fred Franz)에게 성서적인 문제를 검토하도록 일임했습

니다. 아울러 프랜즈를 조직의 주요 필자로 의지했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 있는, 통치체 내부에서 토론될 문제들은 수십 년간 프랜즈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만약에 협회장 노어가 어떤 결정이 세계 어느 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항상 프랜즈와 개인적으로 이 점을 의논했습니다. 이런 관계는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고, 그들의 결정은 세계의 회중 장로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특별한 결정은 한 사람, 프랜즈 부 협회장의 관점과 생각에 주로 의존했습니다. 만약 프랜즈가 마음을 바꾸고 회중의 장로들에게 결정을 번복하면, 협회장 노어는 그를 따랐습니다.

이 점은 모든 협회의 출판물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협회장은 다양한 집필자들이 제출한 자료들 중에서 「파수대」에 올릴 주요 기사를 선택한 다음, 이 기사들을 교정하고 필요시 다듬기 위해 편집부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이 만들어지면 협회장과 부 협회장이 읽고 승인했으며, 그런 후에야 「파수대」가 출판되었습니다. 내가 1965년에 편집부에 들어갔을 때, 칼 애덤스 *Karl Adams*는 나에게, 편집부는 그 같은 기사에 대해 교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으니, 프랜즈 형제가 집필한 것은 아무런 교정 없이 ‘출판할 준비’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협회장의 원고를 협회장이 기각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67년 협회장 노어는 우리 3명(칼 애덤스, 에드워드 던랩, 그리고 나)에게 프레더릭 프랜즈가 준비한 “독자로부터의 질문” 원고 사본을 나눠 주었습니다.<sup>40)</sup> 그 해 직전에 프레더릭 프랜즈에 의해 책 한 권이 발행되었는데, 이 책에서 그는 1975년이 인간 역사 6,000년이 끝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 년은 하루에 해당하므로, 그는 6,000년을 6일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40) 당시에 이 사본을 받았던 세 명 중에서 “기름부음받은 자” 반열에 속한다고 공언했던 사람은 내가 유일했다. 나는 1946년 이후 기름부음받은 자로 공언해왔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 세대 안에, 여러 해가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존재의 일곱째 날로 보실 수 있는 날에 이르게 됩니다.

<sup>43</sup>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일곱째 천년 기간을 휴식과 석방의 안식 기간 즉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큰 회년이 되게 하신다면 얼마나 적절할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때에 알맞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있어서도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아직도 성서 마지막 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 구백년 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자신에 관하여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마태 12:8)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사람 존재의 일곱째 천년과 평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신 목적에 따른 것일 것입니다.

#### 출판물 복사본<sup>41)</sup>

지난 수십 년 동안 여호와와의 증인들 사이에서 이와 같이 흥분을 유발하는 성명이 발표된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기대감이 분출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1940년대에 경험했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느낌보다도 훨씬 더한 것이었습니다.

프레더릭 프랜즈가 준비한 “독자로부터의 질문” 원고를 검토한 우리는 몹시 놀랐습니다. 그 원고에서는 6,000년 기간의 끝에 대해 논하면서 당시 새로 발행된 책에서 발표했던 연도보다 실제로는 1년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존재 6,000년의 끝은 1975

---

41) 1966년에 발행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 가운데서의 영원한 생명」(Life Everlasting in Freedom of the Sons of God)책 29, 30면.(한국어판역시 29, 30면. 1968년에 발행)

년이 아니라 1974년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칼 애덤스가 노어에게 들었던 말에 의하면, 노어는 그 원고를 전달받고 프랜즈를 찾아가서 갑자기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프랜즈는 확신 있게 “이것이 틀림없습니다. 1974년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노어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3명에게 프랜즈가 작성한 원고 복사본을 주면서, 우리 각자의 개인적 연구 결과를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부 협회장의 논리적 근거는 창세기 7장 6절과 11절에서 대홍수가 일어났던 때와 관련된 숫자를 기수와 서수로 사용했다는 것이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각 구절에서는 “육백 살”(six hundred years)이라는 표현과 “육백년 째”(six hundredth year)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1년 전 발표된 그 책에서는 홍수 사건을 계산하면서 1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1년을 고려하여 다시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인간존재 6,000년은 1년 더 이른 연도 즉 1975년이 아니라 1974년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3명 모두는 그 기사가 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형제들의 마음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내용을 각자 정중한 말로 보고했습니다.<sup>42)</sup> 협회장은 흔쾌히 동의했고, 준비된 원고는 기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처럼 드문 일입니다.

“통치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노어의 재임 중이

---

42) 그 당시에 내가 제출한 편지에서는, 그 주장이 지나치게 일부 성구에 의존한 것인데다가 그것을 근거로 하더라도 연도를 변경시켜야 할 만큼 명백한 것이 아니며, 기껏해야 매우 희박한 근거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었습니다.<sup>43)</sup> 출판물들을 통해서 이 용어는 협회 이사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1955년에 출간된 협회 간행물 「전도인으로서 자격을 구비함」(Qualified to Be Ministers)책 영문 381면에서는 이 점이 잘 드러납니다.<sup>44)</sup>

주께서 성전에 오신 이후에 눈에 보이는 통치체는 법인 이사회와 거의 동일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이처럼 일곱 명의 협회 이사회 성원들은 모두 “통치체” 성원들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통치체의 상황은 러셀과 러더퍼드 시대 이사들의 상황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말리 콜Marley Cole은 자신이 쓴 책 「여호와의 증인-신세계 사회」에서 이 점을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sup>45)</sup> 그는 이 책의 “내부 반란Internal Rebellion”이라는 장에서, 1917년 최초로 일어난 러더퍼드와 이사회 사이의 논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43) 「파수대」 영문 1938년 6월 1일호(168면)에서는 “조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앙 기구”(central body) 및 “중앙 권위”(central authority)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1세기 사도들 및 직접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로 구성된 회의를 가리키는 말이었을 뿐, 현대의 통치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다. “통치체”(governing body)라는 명칭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파수대」 영문 1944년 10월 15일호 315면과 1944년 11월 1일호 328-333면부터이다.

44) (역자): 이 책은 한국어로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을 한국어로 확인하려면 「파수대」 2001년 1월 15일호 28면을 참조. 거기에는 이런 설명이 있다. “당시에는 펜실베이니아 법인의 이사회와 임원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통치체 즉 언제나 영으로 기름부음받은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온 집단과 거의 같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45) 말리 콜(Marley Cole)이 저술하고 뉴욕 빈티지 프레스(New York: Vantage Press)에서 1955년에 발행한 책인 「여호와의 증인 - 신세계 사회」(Jehovah's Witnesses - The New World Society) 86-89면. 콜은 이 책을 마치 증인이 아닌 일반인이 쓴 책인 것처럼 보이도록 집필했다. 평소에 협회 간행물을 받지 않던 사람들도 외부 출판사가 발행한 책이라면 읽어볼 것이라는 생각에서 만든 것이다. 즉 홍보 전략 중 하나였던 것이다.

4명의 이사들은 조직이 재구성되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회장이 곧 이사회였기 때문이다. 회장은 이사들과 의논하지 않았다. 자기 혼자 일을 처리하고 나중에 이사들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알렸다. 러더퍼드는 이러한 '일방주의'에 대해 개의치 않았다. 이전 협회장 러셀도 일방주의자이긴 마찬가지였다. 러셀은 이사회회의 사전 재가 없이 행정적인 명령을 내렸었다.

그리고 나서 콜은 각주에 덧붙였습니다.

찰스 러셀 이후 협회장들의 제한받지 않는 자유, 즉 독선은 계속 이어져왔다. 이 점은 노어가 신세계역 성경을 발행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sup>46)</sup>

「파수대」 1950년 10월 15일호 315, 316면에는 이 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협회 이사들이 신세계역 성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협회장으로 부터 처음 통보받은 것은(아마도 이 사업은 조직이 해온 작업 중에서도 가장 큰 일일 것입니다.) 신세계역 성경 그리스어 판이 이미 완성되고 이제 곧 발행되려는 시점이었습니다.

통치체가 설립되기 전인 1971년까지도 법인 이사회는 정기적인 모임을 갖지 않았습니다. 단지 협회장의 결정에 따라서 이사들을 불렀을 뿐입니다. 때로는 수개월 동안 아무 회의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모임의 의제는 고작해야 협회에서 장비를 구하거나 다른 재산을 매입하는 것

---

46) 「여호와의 증인 - 신세계 사회」책 88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성경적 자료들이 출판된다든지 하는 문제들은 의논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부 협회장 프랜즈는 1954년 월시 사건 *Walsh Case*으로 알려진 소송과 관련하여 스코틀랜드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곳에서는 교리상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이사회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교리를 변경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 협회장은 그러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공식 법정 기록물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변호사가 질문하고 프레더릭 프랜즈가 답변합니다.)

질문: 영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사회의 각 성원들은 모두 동등한 발언권을 갖습니까?

답 : 협회장이 대변자입니다. 그는 연설을 통해서 성경 이해에 관한 진보를 보여주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본부 성원들 일부를 지명하여 성서의 어떤 부분에 빛을 더 비춰주는 다른 연설들을 발표하도록 임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당신이 말씀해주신 이러한 진보들에 대해 이사들은 투표를 합니까?

답 : 안 합니다.

질문: 그런 것들은 어떤 과정으로 발표되는 것입니까?

답 : 이런 내용들은 편집 위원회를 거칩니다. 나는 성서적인 검토를 한 후에 승인하는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노어 협회장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노어 협회장은 최종적인 서명을 합니다.

질문: 그것이 이사회를 거치는 경우는 전혀 없었군요?

답 : 없습니다.<sup>47)</sup>

나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법인 이사회에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1971년 이전에 칼 애덤스가 소집한 회의에 몇몇 집행 위원들과 자리를 함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파수대」 잡지에 실릴 기사에 대해 ‘누가 협회장의 승인을 구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라이먼 스윙글(Lyman Swingle)이 가서 허락을 받아오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스윙글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왜 나예요? 내가 될 수 있습니까? 난 그냥 이사일 뿐이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법정에서 증언한 부 협회장의 발언은 “통치체”가 당시에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이 “영적 양식”을 준비하고 공급했다는 주장이 허구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파수대」 잡지와 기타 출판물들에 실릴 내용은 두 명 혹은 많아야 세 명이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협회장 네이션 노어, 부 협회장 프레더릭 프랜즈, 끝으로 “기름부음받은 자 반열”에 속하지 않는 칼 애덤스였습니다. 부 협회장의 분명한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영적 양식”을 제공하면서 이사회 위원들은 물론이고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에 속한다고 공언한 사람들 중 아무에게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

47) 여기에서 부 협회장 프레더릭 프랜즈가 “편집 위원회”라는 말을 사용하긴 했지만, 나중에 그는 편집 위원회 구성원이 오직 자신과 노어 협회장 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편집 위원회” 성원은 이 두 명 말고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1965년에 이르러 출판물에 실릴 내용을 승인하기 위해 서명할 권한이 칼 애덤스에게도 주어졌는데, 그는 협회 이사회도 아니었고 “기름부음받은 자” 반열로 공언한 적도 없었다.

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마치 러셀이 1916년까지 협회 출판물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통제했던 것처럼, 그리고 러더퍼드가 1942년까지 이와 똑같이 행했던 것처럼, 노어도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권위를 사용하여 “영적 양식”을 준비했고 여호와의 증인 공동체에게 공급했습니다. 그 일은 두세 명의 극소수 사람들만 관여했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돌보도록” 임명하신 것으로 간주된 “반열”은 전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sup>48)</sup>

심지어 통치체가 기존 7명의 이사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숫자로 확장된 이후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1975년에 있었던 한 회의 기간에는 부 협회장이 대회연설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토론에 붙인 바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마태 13장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관한 것이었으며, 예수께서 비유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늘 왕국”이 실제로는 “가짜” 왕국, 즉 “모조품”이라는 주장을 상세히 펼쳤습니다. 기사 원고를 읽었던 통치체 성원 한 명은 그 주장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토의가 끝난 후에 진행된 찬반 표결에서는, 참석자 14명 중 노어와 프레더릭 프랜즈를 포함해서 모두 5명만 그 원고를 대회 연설로 사용하는 것에 찬성했고, 나머지 9명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

---

48) 마태복음 24:47.

(역자): 여기에 나오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은 “기름부음받은 자” 반열과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그동안의 가르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2012년 10월에 변경되었다. 현재는 레이몬드가 지적했던 것처럼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은 “기름부음받은 자 반열” 중 남은 자 전체가 아니라 통치체와 같이 극소수 남자들만을 의미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또한 1919년에 “모든 소유”를 맡게 되었다는 기존 가르침도 미래로 옮겨졌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 3장 마지막 각주(148면 하단) 참조.

고는 대회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은 그 해 대회에서 발표된 서적에 실렸으며, 몇 달 후에는 「파수대」에도 실렸습니다.<sup>49)</sup> 비록 거의 2/3에 가까운 통치체 성원들이 끝까지 납득할 수 없었던 논증이었지만 그 사실이 협회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협회의 잡지나 인쇄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의 모든 활동들 - 세계 90개 이상의 지부(모든 지부에서 지부감독자는 임명받은 구역 즉 해당 나라에서 “그리스도교 주임 봉사자”로 묘사되었음)를 감독하는 일, 모든 여행하는 대표자들을 관리하는 일, 길르앗 선교 학교의 운영 및 모든 선교 활동을 임명하는 일, 대회의 개최 및 대회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일 - 이 모든 것들은 독점적인 특권을 가진 한 사람(협회장)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통치체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토의해서 결론을 내렸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결국은 모든 것이 협회장의 판단과 결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모든 것은 부 협회장 프랜즈의 “개를 혼드는 꼬리” 연설 후에 발행된 기사들과는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다음 기사는 너무나 강력합니다.

---

49) 1975년에 발행된 「세계 고난으로부터의 인류의 구원은 가까웠다!」(Man's Salvation Out of World Distress At Hand)책 영문 206-215면 참조. 또한 「파수대」 영문 1975년 10월 1일 호 589-608면(한국어는 「파수대」 1976년 1월 15일호 32-48면) 참조.

## 19세기에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그의 충성되고 “지혜있는 중”반열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남은자들을 위하여 통치체를 구성하는 일에 반드시 작용하였을 것이다. 사실 자체가 그것을 증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여호와의 헌신하고 침례 받았으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일들을 다스리고 마태 24:45-47에 있는 예수의 예언에서 언급된 일을 성취시키는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질머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체가 있게 되었다. 사실은 말보다 더 명백하다. 통치체가 존재한 것이다. 감사하게도 여호와의 그리스도인 증인들은 이것이란 사람의 종교 조직이 아니고 이것에는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통치체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

### 출판물 복사본<sup>50)</sup>

하지만 불행하게도 요약된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자체가 그것을 증명한다”는 말처럼, 일찍이 워치타워 협회가 발행한 출판물 내용을 보거나 협회 이사들의 증언들을 확인해 본다면 실제적인 의미의 통치체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에 러셀이 재임을 시작할 때부터 네이션 노어가 재임하던 시기까지 즉 위에 인용한 「파수대」 기사가 나올 때까지도 그런 의미의 통치체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기사가 인상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는 가상이며

---

50) 「파수대」 영문 1971년 12월 15일호 761면(한국어는 「파수대」 1972년 2월 15일호 94-95면) 참조.

허구일 뿐입니다. 사실은 아주 초기부터 군주적 체계가 조직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군주”의 그리스어 어원은 “홀로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전상의 정의는 “탁월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sup>51)</sup> 초대 협회장은 인자한 모습이었고, 2대 협회장은 엄격한 독재자의 모습이었으며, 3대 협회장은 매우 사무적인 모습이었던 차이점이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세 협회장 모두 군주 권력을 행사했다는 점입니다.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을 구성하는 “기름부음받은 자” 대부분을 포함하여)<sup>52)</sup> “일반 전도인”으로 이루어진 절대 다수의 여호와의 증

51) (역자): “군주”로 번역한 영어단어 “마너크(monarch)는 “홀로”, “오직”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모노스와 “통치”라는 뜻의 아르케에서 유래한 말이다. 협회 출판물에서도 이 단어를 대부분 “군주”로 번역했다.

52) (역자): 괄호속의 내용은 증인 가르침의 변경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마태 24:47에 관한 그동안의 가르침은 2012년 10월 15일에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렸던 연례총회를 통해 다시 크게 변경되었다. 변경된 내용은 「파수대」 2013년 7월 15일호에 자세히 실렸다. 그동안 증인 조직은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과 “기름부음받은 자들”이 같은 사람들을 표현한 것이며 “종”이라는 단수 표현은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또한 통치체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을 대표하는 것으로 가르쳐왔다. 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은 기원 33년 오순절부터 현재까지 계속 존재해왔다고 가르쳤다. 조직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했던 이 가르침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아래에 핵심 부분만 인용한다.

「파수대, 2013년 7월 15일호 20면 3항: “그러나 주의 깊게 더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목상한 결과,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에 관한 예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바를 조정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수대, 2013년 7월 15일호 21면 8항: “따라서 이 충실한 종에 관한 예수의 말씀은 1914년에 마지막 날이 시작된 이후에야 성취되기 시작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파수대, 2013년 7월 15일호 21-22면 9항: “그러면 땅에 있는 기름부음받은 자들 모두가 충실한 종을 구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파수대, 2013년 7월 15일호 22면 10항: “그러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이 방식과 일치하게 그 종도 그리스도의 임재 기간에 영적 양식을 준비하고 나누어 주는 일에 직접 관여하는 기름부음받은 형제들로 이루어진 작은 집단입니다. 마지막 날 기간 내내, 충실한 종을 이루는 기름부음받은 형제들은 세계 본부에서 함께 섬겨 왔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는 여호와의 증인 통치체가 그 종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 종은 하나의 집합적인 종, 다시 말해 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증인 것입니다. 따라서 통치체는 집단으로서 함께 결정을 내립니다.”

「파수대, 2013년 7월 15일호 22-23면 12항: “1914년부터 1919년 초반까지의 기간에 예수와 그분의 아버지께서 승배를 위한 영적 마련인 성전에 와서 그것을 검사하시면서 그 답이 밝혀졌습니다. …1919년에 예수께서는 그들 중에서 유능한 기름부음받은 형제들을 충실하고 슬

인들은 앞에서 언급한 1971년(한국어 1972년) 「파수대」 기사에 나온 내용의 실태를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실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권위를 갖게 되면서 실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75년이 되자 통치체 성원 다수는 이제 몸통의 자격으로 “꼬리를 흔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통치체 성원들은 이미 출판물이나 연설을 통해서 제공된 내용과 실제 현실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에 통치체가 내린 결정이 본질적으로는 **일찍이 1917년에 네 명의 이사들이 제안했던 조직개편안과 동일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워치타워 출판물에서는 그 네 명의 이사들이 제안했던 조직개편안을 ‘야심적인 음모’ 이자 ‘반역적인 공모’ 로 묘사했으며, 결국 ‘그 음모는 하느님의 은혜로 성공하지 못했다!’ 는 식의 설명도 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결국 55년이 지나고 나서야 실현되었는데, 그것도 통치체에서 다시 수 개월간 큰 소동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

기로운 종으로 선택하여 자기 집 하인들을 돌보도록 임명하셨습니다.”(굵은 글씨의 강조는 모두 해당 잡지에서)





## 내부의 동요와 개혁

C r i s i s   o f   C o n s c i e n c e



...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과 관련하여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인간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3:21, 「신세계역」, 「공동번역」<sup>1)</sup>

「성서 이해를 위한 보조서」에는 장로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제시된 장로에 대한 정보가 일련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까지도 각 회중들은 “회중 감독자” 한 사람의 감독 하에 있었습니다.<sup>2)</sup>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이 아닌 “장로회”가 감독의 직분을 맡게 되면서, 지부 조직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의 지부 조직에서는 한명의 지부감독자가 나라 전체를 감독했는데, 이는 마치 가톨릭교회에서 주교나 대주교가 여러 교회로 이루어진 넓은 교구를 감독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또한 본부에는 한 명의 협회장이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협회장을 “전 세계 회중의 주임감독자”라고 말

1) (역자): 원문에는 「신영어성서」, NEB와 「예루살렘성서」, JB에서 인용되었다.

2) (역자): “장로”직이 폐지되었던 1932년부터 1972년까지 각 회중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회중감독자”라는 이름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장로 직분이 다시 생겨나게 되었고, 1972년 9월부터 각 회중은 장로회에 의한 감독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왔던 1인 체제가 적어도 회중 차원에서는 끝났음을 의미한다.

한 적도 있었습니다(이것은 브루클린 본부에서 지부감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에서 있었던 일입니다.).<sup>3)</sup>

이처럼 각 회중의 모습과 브루클린 국제본부의 모습은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그러한 부조화로 인해 “꼬리가 개를 흔드는 일”이라는 말이 연설에서 언급되기도 했으며, 그 표현은 「파수대」 기사에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sup>4)</sup> 이러한 사태 전개에도 각 회중과 중앙 본부의 조직상황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변명하는 것으로 애써 상황을 모면하려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기사들은, 협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회원들<sup>5)</sup>에게 암시를 보내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이 거의 분명합니다. 즉, 의결권을 가진 회원들이 브루클린 본부 구조를 바꾸려하거나, 통치체 성원을 선임하는 인사문제나 운영문제에 간섭하려는 의사표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 연설이 있었던 1971년에 노어 협회장은 통치체에 게 「왕국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기 위한 조직」책을 발행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결정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책은 일종의 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안내 책자 같은 것이었으며, 본부에서 시작하여 그 밑

---

3) 당시 협회장 노어는 연단 위에 앉아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불렀을 때 그는 어떤 반대 표시도 하지 않았다.

4) (역자): “꼬리가 개를 흔드는 일”(tail wagging the dog)이라는 말은 영어권에서는 유명한 속담 표현인데, ‘주객전도’나 ‘하극상’의 상황을 말한다. 본문에 나오는 해당 「파수대」 기사는 1971년 12월 15일호(한국어판은 1972년 2월 15일호) “법인 단체와는 별개의 것인 통치체”라는 기사였다. 그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더 자세한 내용은 3장 참조)  
- 그리하여 ‘협회’의 의결권을 가진 회원들은 분쟁이나 분열의 어떠한 근거도 있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관리 대행기관”이 그 대행기관의 사용자 즉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대표하는 통치체를 통제하거나 지도해야 할 경우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94면에서 인용.

5) (역자): 위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펜실베이니아 법인 정관에 의하면 연례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회원들은 500명을 넘지 않게 되어있었는데, 그 무렵에는 약 450명이 있었다.

으로 지부, 지역구 및 순회구, 그리고 각 회중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여호와의 증인 조직에 대한 운영정책을 다룬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협회장은 통치체에게 그 책의 집필을 맡기지 않았으며, 대신 집필부 감독자 칼 애덤스(Karl Adams)에게 이 책의 기획과 집필을 맡겼습니다. (칼 애덤스는 통치체 성원도 아니었고 “기름부음받은 자”로 공언한 적도 없었습니다.) 애덤스는 조직관리 서적을 개발하는 일에 에드워드 던랩(Edward Dunlap)과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우리 세 사람이 3분의 1씩 나눠서 쓰기로 했습니다.<sup>6)</sup>

우리들은 통치체와 각 법인체의 관계에 대해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던 「파수대」 기사와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집필 기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주요 골자를 통치체에 제시하자, 통치체 성원들은 매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모습에 대해 협회장 노어는 자신의 책무와 직무를 “접수”하려는 시도로 느껴진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는 통치체가 오직 “영적인 사안”에만 관여해야 하며, 나머지는 협회가 담당할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영적인 사안”이라고 해봐야, 결국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여행하는 감독자로 임명하고 승인하는 절차, 혹은 “제명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올라오는 질문들을 처리하는 일 같은 의례적인 일들뿐임을 당시 통치체 성원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

6) 내가 담당한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봉사”, “회중의 순결함을 보호함” 그리고 “하나님의 승인을 얻게 할 인쇄”였다.



• 1975년 당시 통치체 성원들.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로.

앞줄: 유어트 치티, 프레더릭 프랜즈, 네이션 노어, 조지 갱거스, 존 부스, 찰스 페켈.

가운데줄: 대니얼 시들릭, 레이몬드 프랜즈, 로이드 배리, 윌리엄 잭슨, 그랜트 수터, 리오 그린리스.

뒷줄: 시어도어 재라스, 라이먼 스윙글, 밀턴 헨첼, 칼 클라인, 앨버트 슈로더.

토의하는 가운데, 나는 통치체가 수행해야 할 “영적인 사안”에는 그것 말고도 책임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몇 차례 발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은 모두 형제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라들의 통치자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큰 자들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휘두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안 됩니다.”<sup>7)</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께서 하셨던 이러한 말씀들과 당시의 군주제식 운영방식은 서로 조화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1971년에 「파수대」에 기사만 실고 실천하지 않는 모습은 분명히 정직한 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협회장은 그것이 자신을 향한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힘을 주면서 “내가 일하

7) 마태 23:8,10; 20:25,26.

는 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시시콜콜 설명하고는, “내 방식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모든 특권을 내려놓을 테니 레이 프랜즈 형제, 당신이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어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노어 협회장이 내 말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오해할 수 있을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말의 취지는 통치체 운영을 개선하자는 것이었지, 관리 권한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자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에게, 내 말뜻은 누구의 잘잘못을 논하거나 인신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며, 단지 성경과 「파수대」를 통해 이해한 대로 조직을 개선하기 위해 논의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매번 설명해야 했습니다. 나는 반복해서 말하기를, 만약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맡아보고 결정해야 한다면 나는 단연코 노어 협회장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협회장은 이미 훌륭하게 일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도 전혀 불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협회장은 이런 설명을 듣고도 별로 수긍하는 것 같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가 이 문제에 대해 더 말할수록 그를 더 화나게만 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설득하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토의가 있을 때마다 다른 통치체 성원들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뿐, 누구 하나 거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일어난 일들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1975년까지는 아무런 개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93

년에 협회는 「여호와의 증인-하나님의 왕국 선포자」라는 역사책을 발행했습니다. 이 책에는 “현대 역사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조직상의 조정”이라고 부르는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108면과 109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조직상의 조정

1976년에는 이미, 노어 형제는 30여 년 간 워치 타워 협회장으로 부지런히 일해 왔다. 그는 전세계를 여러 차례 여행하면서 선교인들을 방문하고 격려하였으며 지부 요원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였다. 그는 활동적인 증인의 수가 1942년의 11만 7209명에서 1976년의 224만 8390명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는 특권을 누렸다.

그런데 1976년 여름에는 이미, 71세 된 N. H. 노어는 자신이 무엇인가에 잘 부딪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 보니 수술이 불가능한 뇌종양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맡은 일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여러 달 동안 분투하였지만, 몸의 예후는 심상치가 않았다. 그의 건강이 나빠진 것이 활동의 진전에 방해가 될 것인가?

통치체를 확대하는 일이 이미 1971년에 시작되었다. 1975년 중에는 17명의 성원이 있었다. 그 해 내내 많은 시간을 들여, 통치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명된 우리 시대의 세계적 전파 활동과 가르치는 활동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고려하였다. (마태 28:19, 20) 1975년 12월 4일에, 통치체는 여호와의 증인의 현대 역사에서 가장 의미 심장한 조직상의 조정 중 하나를 만장 일치로 승인하였다.

1976년 1월 1일부터, 워치 타워 협회와 전세계 여호와의 증인의 회중들의 모든 활동이 통치체의 여섯 소관 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되었다. 그 마련과 일치하게 1976년 2월 1일에, 전세계 모든 협회 지부에서도 변경이 실시되었다. 각 지부가 더는 한 명의 지부 감독자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 명 이상의 장성한 사람이 지부 위원회로 일하며 그중 한 성원은 영구적인 조정자로 일하게 되었다. 위원회들이 여러 달 동안 운영된 후, 통치체는 이렇게 평하였다. “몇 명의 형제들이 상의를 하여 왕국 사업의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유익하였다.- 잠언 11:14; 15:22; 24:6.”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제3대 협회장이었던 네이션 노어가 1975년 말 건강이 악화되자 조직상의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은 당시 통치체 성원이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노어의 건강 악화는 분명히 조직 개편 움직임이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 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우연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노어의 건강 상태는 통치체의 논의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위에 묘사된 내용은 진실성이 결여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75년, 두 명의 베텔 장로(봉사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말콤 알렌과 베텔 숙소 감독자 로버트 랭)가 통치체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브루클린 본부 직원들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었는데, 특히 엄격한 감독시스템이 조성한 두려운 분위기, 그리고 커져

가는 실망감과 불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브루클린 본부에서 봉사(“베델 봉사”)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은 최소한 4년을 채울 것을 서약하고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19살에서 20살 사이의 청소년들이었는데, 그들에게 4년은 자기들이 살았던 인생에서 5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식사 시간에 나는 옆에 앉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종종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내가 브루클린 본부에서 일했던 10년 동안 “한 1년이요” 혹은 “2년 정도요” 이런 식으로 어림잡아 말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답은 항상 “1년 7개월이요”, “2년 5개월이요”, “3년 1개월 됐습니다” 등 언제나 햇수와 개월 수까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이 자신의 남은 형기를 일일이 계산하면서 표시하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본부에서 일하는 이 청년들은 일반적으로 솔직한 생각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내면서 친밀하게 지냈던 내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은 조금이라도 불만을 털어놓으면 “B.A.” 등급으로 찍힐까봐 즉 “나쁜 태도” *Bad Attitude*를 가진 사람으로 낙인찍힐까봐, 솔직한 이야기를 잘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인격체가 아니라 “기계 속의 부속품”처럼 노동자 취급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담당 업무가 바뀌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그럴 때면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아서 업무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치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보이지 않는 선긋기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수당 14달러는 왕국회관 집회에 갈 때 교통비로 사라 집니다. (종종 그것도 부족합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생필품 외에는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먼 지역 특히 서부지역에서 온 경우라면, 더욱이 집안도 가난하다면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기 위해 여행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통치체 성원들은 국내외를 여행하면서 강연을 하고 돌아와서는 베텔 가족들에게 인사를 전해준다는 말을 매번 전해주곤 하였습니다. 베텔 봉사자들은, 협회에서 구입한 최신형 고급 승용차 올즈모빌을 자신들이 정비하고 세차해 놓으면 협회 임원들이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8시간 40분 동안 근무합니다. 토요일엔 오전 4시간 업무에, 일주일에 세 번은 집회참석, 그리고 매주 “증거” 활동까지 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지나치게 빡빡한 일정에 지쳐 보였습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는 경우에는 어김없이 “B.A.” 등급, 즉 “나쁜 태도”로 분류되어 징계위원회에 호출되었습니다.

두 명의 베텔 장로가 보낸 편지는 대략 이러한 부분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협회장은 이것을 자신의 관리방식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협회장은 통치체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들어보자고 요청했고, 1975년 4월 2일 이 문제에 대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여러 명의 베텔 장로들이 증언을 해주면서 위에서 언급된 상황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들이 밝혀졌습니다. 발언에 참가한 사람들은 특정 개인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다른 요구사항도 없었습니다. 다만 의사소통에 있어서 형제애를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장

을 잘 알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베텔 숙소 감독자인 로버트 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업무 성과에 더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텔 봉사자 담당 주치의 닥터 디슨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부 봉사자들을 상담한 경험이 많았는데, 아내들은 과도한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내조를 제대로 못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으며, 그와 상담하던 자매들은 많은 경우 대화 도중 울음을 터뜨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일주일 후인, 4월 9일 통치체의 공식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sup>8)</sup>

통치체와 협회의 관계에 대한 의견, 그리고 「파수대」 1971년 12월 15일호에 게재된 기사 내용에 대한 발언들이 나왔다. 리오 K. 그린 리스, 앨버트 D. 슈로더, 레이몬드 V. 프랜즈, 대니얼 시들릭, 존 C. 부스 등 다섯 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본 건에 대해 조사하고, 협회 임원들의 책무 및 관련 사항을 검토할 것이며, 두 개의 법인체에서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N. H. 노어와 F. W. 프랜즈 그리고 그랜트 수터의 견해를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이 모든 것은 조직의 연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8) (역자): 회의록에 언급된 「파수대」 기사는 “법인 단체와는 별개의 것인 통치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말한다. 언급된 발행일은 영문기준이며, 한국어판은 1972년 2월 15일호이다.

3주 후인 4월 30일에 개최된 회의에서 노어 협회장은 느닷없이, 모든 안건은 통치체 성원(당시에는 17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자고 제안을 하여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sup>9)</sup>

다음은 공식 회의록에 기록된 것입니다:

리오 K. 그린리스는 5인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위원회는 노어 형제가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묻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sup>10)</sup> 이 위원회는 「파수대」 1971년 12월 15일호 29항 및 760면에<sup>11)</sup> 대해 매우 신중히 검토했다. 이 위원회는 현재 통치체가 협회를 지휘 통솔해야 하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협회 측에서도 17명의 성원으로 구성된 통치체가 전 세계 회중들을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각 회중 모임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베델에서는 아직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는 조직이 이중구조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후 장시간에 걸쳐 통치체와 협회가 협회장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토론이 전개되었으며, 참석자 전원이 의견을 발표했다. 시

---

9) 이와 비슷하게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을 선출할 때도 추기경단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해야 한다. 내 생각에 노어 협회장과 프레더릭 프랜즈는 조직 변화에 찬성표를 던지는 통치체 성원들이 분명히 그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10) 이 위원회 성원 5명은 협회장 노어가 임명했다. 나는 “5인 위원회”의 사회자로 리오 그린리스를 추천했고, 표결에 따라 그가 사회자로 결정되었다.

11) (역자): 영문판 기준. 한국어판은 1972년 2월 15일호 94면이다. “29항”은 영문판과 한국어판에서 동일하며, 해당 잡지 첫 번째 연구기사의 29항이다. 760면(한국어판 94면)은 세 번째 연구기사 “법인 단체와는 별개의 것인 통치체” 중 소제목 “통치체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의 전후 두 개 항에 해당한다.

간이 다 끝나갈 무렵에 네이션 H. 노어가 위원회 의견에 동의했으며, 이어서 유어트 C. 치티와 리오 K. 그린리스 역시 동의했다. 이 세 사람은 동의한 제안서 복사본을 모든 성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다음 회의는 그 다음날 오전 8시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대단히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 하느님께 기도할 시간을 가질 것이다.

전달받은 제안서 복사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N. H. 노어: “나는 펜실베니아 법인 정관이 지정한 업무 관리 책임을 통치체가 넘겨받도록 할 것을 제안하며, 이 정관에서 정한 여러 가지 책임과 여호와의 증인이 사용하는 전 세계 법인 단체들의 정관에서 지정한 책임들도 넘겨받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 C. 치티: “‘책임을 넘겨받다’는 표현은 상대방에게는 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뜻이 되는데, 내가 보기에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책임사항을 감독’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리오 K. 그린리스: “나는 다음 사항들을 제안합니다. 통치체는 성서의 말씀과 조화된 방식으로, 여호와의 증인의 전 세계적인 연합체 및 그들의 활동을 관리하고 감독할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사용하는 법인체들에 속한 모든 협회 직원들과 임원들은 통치체와 조화를 유지하고 통치체의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통치체와 법인체들 사이에 만들어진 새로운 관

제가 왕국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발효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날인 1975년 5월 1일에는 다시 장시간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 협회장(그동안 언급했던 「과수대」 기사를 쓴 당사자)은 이 동의안에 반대했고, 현재의 조직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반대했으며, 회장의 권한 축소 역시 반대했습니다. (나는 1971년에 그가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는, ‘새 질서’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한 사람을 통해서 조직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처럼 반대하는 것도 이해는 했습니다.) 반면 그는 분명한 모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언급한 ‘문제의 「과수대」 기사’ (법인 단체들은 통치체가 사용하는 법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과감한 기사)에서 말했던 내용과 3인의 통치체 성원이 동의하여 제출한 ‘제안서’ (협회장의 발언도 포함된 것)의 내용은 서로 어긋나는데, 왜냐하면 제안서 내용은 당시까지도 여전히 통치체가 법인 단체들을 감독할 권한을 갖지 못했음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토론의 결론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랜트 수터(Grant Suiter)가 발언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협회의 총무 겸 재무이사였는데, 딱 부러지는 말투가 특징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변화를 지지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지극히 사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협회장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그동안 그에게 참아왔던 것들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조직의 권한 조정에 대해서도 말했지만, 그에 대해서는 그리 비판하지 않았고, 다만 자신의 개인 방을 조금 개선시켜 달라고 부탁했을 때 거절당했던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입과 턱 주변 근육까지 떨리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왕 통치체 성원을 할 거라면 말이죠, 그렇다면 통치해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통치라는 것을 해 본 적이 없다고요.”



• 그랜트 수터(Grant Suiter)

그의 말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또렷이 기억하는 것이 다행입니다. 그 정도로 그의 말은 아주 강렬했습니다. 이 말이 그의 생각과 진심을 그대로 전달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 짐작과는 달리, 그때 단순히 순간적으로 격앙되어서 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을 듣고 나는 올바른 동기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관련된 사람들이 성서의 원칙과 본을 면밀히 따르려는 진실한 열망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회의는 전체적으로 산만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는데,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영은<sup>12)</sup>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 겸 재무이사의 말이 끝나고 얼마 안 되어 네이션 노어는

12) (역자): “영”(spirit)- 증인들은 “영”(靈)이라는 단어를 종종 “지배적인 분위기”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한다. 이 문장에서도 역시 회의의 분위기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 단어이다.

분명한 결론에 도달한 것처럼 장황하게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자원하여 통치체 서기로 일하던 밀턴 헨첼<sup>13)</sup>Milton Henschel에 의해 속기록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남아 있습니다:

통치체는 헨첼 형제가 언급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치체가 여호와의 증인을 감독하는 기관이라고 한 「파수대」 기사의 설명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이미 「파수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통치체는 전반적인 인도를 하고 힘과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통치체는 통치체로서의 책임을 맡을 것이며, 여러 부서를 통하여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부서들을 설치 감독하고 하나의 조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말을 마치면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약간 놀랐던 것은 부 협회장 프레더릭 W. 프랜즈가 이 제안에 지지를 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제안서 안건은 통치체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수대」에 4년 전에 실렸던 대범한 기사는 단지 말뿐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협회장의 이러한 의견표명으

---

13) 밀턴 헨첼은 키가 컸으며 성실한 품모를 갖고 있었다. 평상시엔 말이 별로 없었지만, 막상 말하기 시작하면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편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노어 협회장의 비서로 일했으며, 이 당시에는 오십대 중반이었다.

로 인해 앞으로 순탄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전개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하나님의 왕국 선포자」책에 묘사된 것처럼 조화롭게 연합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 수개월에 걸쳐, 위임에 의해 “5인 위원회”는 통치체 성원 전원과 개별적인 면담을 실시했고, 본부에서 장기간 근무한 33명의 직원들 모두와도 그렇게 했습니다. 압도적인 다수는 조직 개편을 지지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통치체 산하의 여러 위원회들을 재조정하고 세계적인 활동의 다양한 부면들을 조정하기 위해 제안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회는 이 제안에 대해 통치체 성원들과 개별적인 면담을 했는데, 17명의 통치체 성원 중 11명이 기본적으로 찬성을 표명했습니다.

찬성하지 않은 나머지 6명 중에는 조지 갱거스 *George Gangas*가 있었는데, 그는 그리스 출신으로 따뜻하면서도 쾌활한 성격이었고 통치체 성원 중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정하지 않고 순간적인 기분에 따라 입장을 계속 바꿨습니다. 동유럽 출신의 찰스 페켈 *Charles Fekel*은 예전에 다년간 협회 이사로 섬겼었는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충성 맹세를 함으로 충절을 타협하는 일이 있었고, 그 일에 책임을 지고 직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얼마 전에 통치체 성원이 된 사람이었습니다.<sup>14)</sup> 그는 아주 순한 성격이었고, 토론 중에도 좀처럼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표결에서는 시종

---

14) (역자): 찰스 페켈이 통치체 성원이 된 것은 1974년 11월이었다. 이 회의는 1975년 5월에 있었으니, 6개월 만인 셈이다.

일관 다수의견에 찬성해왔으며,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별로 말이 없었습니다. 로이드 배리(Lloyd Barry)는 뉴질랜드 사람으로, 그 역시 아주 최근에 통치체 성원이 되었습니다.<sup>15)</sup> 그는 브루클린으로 오기 전까지는 일본에서 지부감독자로 다년간 일했는데, 일본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팔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곳입니다. 그는 권고안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나타냈고, 특히 협회장 역할이 분산되어 손상 받게 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1975년 9월 5일자 편지에서 그 권고안을 가리켜 “혁명적”인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빌 잭슨(Bill Jackson)<sup>16)</sup>은 (특별하다고 할 만큼 대단한 정도는 아니지만) 솔직하고 겸손한 텍사스 사람인데, 인생의 상당 부분을 본부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배리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방식을 가급적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현재의 관리체제 아래서 수적 증가가 훌륭하게 나타났다면 개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목소리를 높여 반대를 표명한 사람은 바로 협회장과 부 협회장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협회장이 개혁안을 제안하고 부 협회장이 이에 찬성했음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두 사람은 공공연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5인 위원회”가 오랫동안 생활한 베델 성원들의 견해를 수집하는 동안, 베델 식사 시간에 일주일간 사회를 볼 차례가 협회장에게 돌아왔

---

15) (역자): 로이드 배리는 1949년 11월부터 1975년 3월까지 25년 이상 일본에 거주하다가, 통치체 성원으로 초대받아 1975년 3월에 아내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회의는 그가 통치체 성원으로 일한지 두 달 만에 열린 것이다.

16) (역자): 통치체 성원 ‘빌 잭슨’(Bill Jackson)은 ‘윌리엄 K. 잭슨’(William Kirk Jackson)과 동일 인물이다.

습니다.<sup>17)</sup> 그는 이것을 한 주 동안의 아침식사 때, 여러 식당(모든 식당에는 텔레비전 화면과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었음)에 앉아 있는 1,200명이 조금 넘기도 하는 “베델 가족” 성원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협회장은 5인 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던 개별 면담을 “조사”라고 불렀는데,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조직의 전체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방식을 “얼마의 사람들”이 바꿔 버리려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방식을 바꿔야 할 정도로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반복적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조사”를 통해 “우리 베델 식구들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불평불만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기쁨을 압도”하지는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체제에서 이룬 많은 성과들을 열거하면서, “협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모두에게 촉구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감정을 실어서 강한 어조로, 소수의 사람들이 베델 가족과 그 업무와 조직에 대해 가져오려는 변화는 “내가 죽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sup>18)</sup>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덧붙이자면, 네이션 노어는 당시의 현행 체제가 옳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는 또한, 조직에서

---

17) (역자: 「선포자」책 234면 1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원래는 협회장 혼자 사회를 보던 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1971년 9월 6일에는 통치체 모임에서 사회자 직책을 그 성원들의 성(姓)의 알파벳 순에 따라 해마다 윤번 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이 마련은 실제로 10월 1일에 발효되었다. 또한 통치체 성원은 주(週)별로 돌아가면서 본부 성원들의 아침송배와 「파수대」연구를 사회하였다. 이 마련은 1971년 9월 13일에 프레더릭 W. 프랜즈가 뉴욕 브루클린의 협회 본부에서 아침 송배 프로그램을 인도하였을 때 발효되었다.” 1971년 이후로 이 방식이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통치체 성원뿐 아니라 베델 가족 중 일부도 ‘아침송배’(일용할 성구 검토) 사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이어진다.

18) 여기에서 인용한 말들은 당시 연설을 들던 현장에서 필기한 노트를 보고 옮긴 것이다. 당연히 모든 발언은 천 명 이상이 직접 들었던 내용이다.

가장 존경받는 학자이며 성서에 관한 문제들을 다룰 때 그가 의지하던 프레더릭 프랜즈 부 협회장도 같은 의견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노어는 원래 상냥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협회장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직분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그와의 교제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적인 역할이 너무나도 자주 이러한 장점들을 가려버렸고, (물론 자신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협회장으로서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침해당한다는 판단이 들 때면 즉각적이고 강렬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도 그를 자극할 만한 언행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장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의 권한을 넘겨받은 통치체가 나중에 보여준 비정한 행동방식을 보고서, 네이션 노어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지냈을지는 궁금합니다.

나 역시 여러 해 동안 푸에르토리코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지부 감독자로 섬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감정과 반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의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나는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으며, 협회장을 대신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다보니 나는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내 “자리”를 끊임없이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했던 경험을 겪으면서 발견한 것은, 조직이 정해놓은 개념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다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유쾌한 관계가 희생되고 나 자신의 생활마저 즐겁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이런 것들이 체질적으로 나와 안 맞는다고 느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본부에서 본 것들을 단지 그대로 모방하려는 노력도 그만두었습니다. 그 결과 내 인생은 훨씬 즐거워졌고, 전체적으로는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생산적이고 유익한 결과

가 나타났습니다.

협회장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내가 죽어야만 가능할 것”)은 거의 예언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이미 뇌에서 악성 종양이 자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이 알려진 것은 조직 개혁이 기정사실이 되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1976년 1월 1일이 지난 후였으며, 노어는 1년 반이 지난 1977년 6월 8일에 사망했습니다.

협회장의 반대 의견도 강했지만, 똑같이 아니 더 강한 목소리로 반대 했던 사람은 부 협회장이었습니다. 1975년 9월 7일에 열린 길르앗 선교학교 졸업식에서 베델가족 성원들과 초대받은 손님들(대부분은 졸업생의 가족이거나 친한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 협회장은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 프레더릭 프랜즈 Frederick Franz

프레더릭 프랜즈는 종종 흉내 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극적인(흔히 과장되고 감상적인 멜로드라마처럼) 스타일로 연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은 그의 연설문입니다. 이 연설문은 정확하게 옮겨 놓았지만, 글만으로는 그의 연설 전체에서 풍기는 말투나 분위기, 독특한 색깔, 가

끔씩 던지는 신랄한 풍자 같은 것들을 실감나게 전달할 수 없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sup>19)</sup>

19) 연설 전체는 테이프록 녹음되었으며, 이 연설 녹음에 간단한 해설을 첨부한 것은 “해설서 출판사”(Commentary Pres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역자: 원서의 각주에는 이처럼 연설 녹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책을 번역하고 있는 시점(2015년 말)에는 레이몬드 프랜즈 부부가 모두 이미 사망했고, 해당 출판사의 웹사이트(<http://www.commentarypress.com>)는 예전 모습이 아닌 추모 사이트로 바뀌어 있다.

그의 연설은 앞부분만 들어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무렵 통치체로부터 위임받은 5인위원회는 선교인 훈련, 임지 임명, 선교인들에 대한 감독 등의 일을 협회로부터 통치체로 가져오려는 제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프랜즈의 연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학급의 졸업생 여러분들은 뉴욕 법인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와 펜실베이니아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가 협력하여 파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바로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권리로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는 선교인들을 야외로 파견합니까? …… 펜실베이니아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가 선교인들을 지구 전역에 보낼 권한은 누구에게 부여받은 것입니까?

이러한 도전적인 질문을 떠올려보기 전에 잠시 상황을 과거로 되돌려봅시다. 이 협회는 나중에 세계적인 복음 전파자가 된 어떤 사람이 설립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복음 전파자들 중 한 명이었으며, 특히 1912년에 세계 전역을 여행할 당시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펜실베이니아 앨러게이니 출신의 찰스 테이즈 러셀입니다.”

초점은 분명히 협회에 맞춰져 있으며, 통치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연설에서 묘사했던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은 물론

---

대신 유튜브 사이트에서 “F. W. Franz speech”라는 검색어를 사용하여 프레더릭 프랜즈의 해당 연설 및 몇 가지 연설을 더 찾아서 확인할 수 있다.

없었지만, 이 연설에서 진짜 심각하게 여겨지는 문제는 통치체와 협회와의 관계에 대해 4년 전에 했던 연설과 현재의 연설 중 어느 쪽이 그의 진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의 독특한 연설은 계속 됩니다.

“나는 이 문제를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러셀은 어떻게 복음 전파자가 된 것입니까? 누가 그를 복음 전파자로 만들어주었습니까? … 그리스도교국 안에서도 다양한 종교단체들이 설립되었고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 국교회는 ‘집행 기구’ *Ruling body*<sup>20)</sup>가 있었으며 개신교 감독교회(미국성공회)도 ‘집행 기구’가 있었습니다. 감리교회는 ‘협의회’ *Conference*가 있었습니다.<sup>21)</sup> 또한 러셀이 다녔던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총회’ *Cynod*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셀이 나중에 연합했던 회중교회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중앙 회중’ *Central Congregation*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sup>22)</sup> 하지만 그런 조직들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서 … 러셀은 복음 전파자이자 선교인이 되었습니다.”

---

20) (역자): 본문에 나오는 “집행 기구”라는 말은 “*ruling body*”라는 영어단어를 번역한 것이며 한국 성공회에서는 “집행 기구”라 부르지 않는다.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는 전 세계를 통제하는 중앙집권체가 없이 각 나라의 성공회가 연합된 형태이며, 나라별(즉 교구별)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한다. 그러한 최고 의결 기구를 대한성공회에서는 “교구 의회”라고 부른다.

21) (역자): 감리교회에서 사용하는 “협의회”라는 단어는 영어단어 “*conference*”를 번역한 것이며, 한국 감리교회에서는 “연회”(年會)나 “총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22) (역자): 미국 회중교회는 한국에 선교인을 파견한 적이 없다. 다만 일제 강점기에 일본 회중교회의 영향으로 “조선 회중교회”가 일시적으로 존재했으며, 일제의 패망과 함께 다른 개신교 교단에 흡수되어 사라졌다.

연설에서 직접적으로 “통치체”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집행 기구” 등 여러 가지 이름들을 빌어서 결국 통치체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회를 언급하는 것이 좋을 뻔 했습니다. 예수회에 있는 관리 기구의 이름도 “통치체”<sup>23)</sup>이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통치체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워치타워 협회를 설립한 러셀에게 권위를 행사하거나 다른 어떤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러셀은 그들 중 누구로부터도 임명받지 않았으며, 자신이 “독립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통치체가 임명한 “5인 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사업을 돌보기 위한 영구적인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 협회장은 예수께서 칠십 명의 제자들을 파견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 그의 연설 속에는 어떤 의도가 함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졸업생들에게 계속 연설합니다:

“칠십 명의 복음 전파자들을 파견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상상하지는 않습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을 때는, 두 명을 하나의 위원회로 각각 조직하시고 그렇게 해서 70명의 복음 전파자들을 서른다섯 개의 위원회로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 여러분은 오늘 졸업한 후에 선교인으로 파견되는 것입니다. …… 두 사람은 볼리비아로 파견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으로 파견될 것이고, 어쩌면 넷

---

23) (역자): 영어권에서와 달리 한국에서는 예수회(Jesuits)의 최고 의결 기구를 “통치체”(Governing Body)라 부르지는 않는다.

이나 여섯 혹은 여덟 명이 한꺼번에 갈 수도 있으며, 아니면 각각 다른 나라로 가서 직무를 수행하라고 임명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교인 여러분들이 돌씩 짝이 되어 파견될 때, 아니 혹시라도 네 명이나 여섯 혹은 여덟 명이 파견될 때라도, 파견되는 나라와 지역의 업무를 접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인 짝과 협력하면서, 해당 지역의 위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지부와 협력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선교인으로 파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해당 나라의 지부 사무실이 업무를 운영하고 감독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런 위원회에 관한 발상을 머릿속에서 상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연설 내용에서는 통치체가 협회의 그늘에 가려 언급이 안 된 것 같지만, 오히려 강조된 셈이었습니다. 아무도 선교인들이 “위원회” 자격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고, “업무를 접수”하기 위해 임지로 간다고 말하지도 않았으며, 그런 발상 자체를 생각하지도 않았겠지만, 연사의 말은 ‘위원회’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갖도록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연설은 “복음 전파자” 빌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도 “누가 그를 복음 전파자이자 선교인으로 만들었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sup>24)</sup>

부 협회장은 사도행전 6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도들이 특

---

24) 사도행전 8:5-13; 21:8. 참조.

정 과부들이 차별받는 것에 대한 불평을 해결하기 위해 빌립을 포함하여 일곱 명을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음식 분배에 관한 일을 관리하도록 임명받은 것입니다. 그는 연설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매클린톡과 스트롱 공편 「종교 지식 백과사전」을 찾아본다면 사도들이 일곱 명에게 할당한 일을 가리켜 “준 세속적인 일” *semi-secular work*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러한 준 세속적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일곱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짐을 덜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 일을 잘 처리하세요. 우리는 기도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열두 사도들이 식탁을 돌보는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하님과 예수그리스도의 회중에서 그들이 장식용 허수아비들이 된 것입니까?<sup>25)</sup>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해서, 자신들을 허수아비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협회장이 통치체에게 “순수하게 영적인 일”에만 전념하고 나머지 일은 협회에 맡기라고 했던 말을 통치체 성원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 협회장의 이러한 말은 낯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통치체 성원들 중 절반은 매일 여덟 시간 사십 분 간 바로 그러한 “준 세속적인 일”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니얼 시들

---

25) (역자): 여기서 “장식용 허수아비”로 번역한 영어 단어는 ‘figureheads’로서, 배 앞부분에 붙이는 조각상(이물장식)을 가리키는 말이다. 비유적으로는 ‘권한 없이 명목상으로만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릭과 찰스 페켈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리오 그린리스는 비서 겸 재무 담당 사무실에서 보험관련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존 부스는 베델 주방에서 감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빌 잭슨은 법률 관련 문제와 서류들을 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랜트 수터는 날마다 재정 문제, 투자, 주식, 유언 처리 등의 업무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밀턴 헨첼과 협회장(그는 업무를 배분하는 역할을 했음)도 그런 종류의 일들에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 협회장의 말을 빌리자면 그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짐을 덜어야 할 “준 세속적인 일”이었습니다.

부 협회장의 설명은 여기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기원 1세기 이후로 하느님께서는 통치체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공식적인 교리와는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개종한 사울이 변화된 후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 전체가 아니라 사도들 중 단지 두 사람만 만났다는 것, 그 후에 시리아에 있는 안티오크(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타르수스(다소)의 사울을 선택하시고 임명하실 때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와도 의논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직접 하셨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활동과 관련해서는, 안티오크의 역할이 예루살렘의 역할보다 더 컸다는, 일종의 “두 도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독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워치타워 조직의 공식 가르침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모든 그리스도인 회중을 감독하던 통치체가 존재했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존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통치체에 대한 근거이자 선례가 된다

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활동으로 이끌어내는 장면에서 부 협회장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점은, 그 두 사람이 (사도들의 모임이 존재하던 예루살렘을 통해서가 아니라) 안티오크 회중(안디옥 회중)을 통해서 봉사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점이었습니다.<sup>26)</sup>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안티오크 회중에서 섬기고 있을 때, 안티오크는 시리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리아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성령은 안티오크에 있는 그 회중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안티오크에 있는 이 회중의 모든 사람들, 너희는 모든 일을 뒤로하고 내가 임명한 일을 수행하도록 정한 두 사람 곧 바울과 바나바를 준비시켜야 한다.’ 그래서 안티오크 회중은 지시에 따라서 사울이라고도 불렸던 바울 그리고 바나바에게 손을 얹는 일<sup>27)</sup>을 하였고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 그들은 안티오크 회중을 통하여 나타난 성령의 작용으로 파견되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첫 번째 선교 임지를 향해 떠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혹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조언을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듣지 않으셨고, 회중에 직접 행동을 취하심으로서 회중의 머리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분은 사울과 바나바를

---

26)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점은, ‘통치체’나 권위에 대한 증인들의 가르침은 성서 시대 예루살렘에 권위를 가진 통치체가 존재했다는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27) (역자): “손을 얹는 일” - 많은 한국어 성경 역본에서는 이것을 “안수”라고 번역한다.

안티오크 회중의 사도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는, 이쯤에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분은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것일까? 협회와 협회장의 권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통치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건 알겠는데, 하지만 자신의 말이 오히려 다른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걸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교리 전체를 흔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기원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에 통치체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회중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 회중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 직접 인도하고 감독하고 있었다는, 협회 간행물을 통해 여호와의 증인 절대 다수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심어지고 자리 잡은 개념을 연설이 허물고 있는 건데.”

하지만, 부 협회장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 있게 자신의 발상을 전개시켰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여행을 마칠 무렵을 묘사할 때에는 목소리에 더 힘이 들어갔고 더 극적인 음성으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 ...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가서 보고했습니까? 기록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사도행전 14장이 끝나는

부분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안티오크에 있던 회중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리고 겪었던 일들에 대한 경과를 그 회중에 있던 사람  
들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회중은 자신들을 하느님의 과분한  
친절에 의지하게 해주었으며 선교 활동을 하게 만들어준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 기록은 그들이 안티오크에 머물렀다고 나오는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습  
니까? 갑자기 무언가 일이 생기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  
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  
들을 예루살렘까지 가게 만들었습니까?

글쎄요, 혹시 예루살렘 회중에 있던 사도들과 다른 장로들로 이루어  
진 위원회가 그들을 호출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은 아닐까요?“이  
보게! 자네 두 사람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보고하러 예루살렘에 오지도 않았네. 우리가 누군지 모  
른단 말인가?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란 말이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직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만약, 자네들이 당장 서  
둘러서 여기에 오지 않는다면, 자네들을 징계 조치하겠네!”

기록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음, 만약에 그 예루살렘 회의가 바울  
과 바나바에게 그런 식으로 했다면, 즉 그들이 성령의 작용으로 자  
신들을 파견한 회중으로 가서 보고하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징계  
조치를 취했다면,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유대인 회중의 다른 장로  
들은 자신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직분 위에 스스로 높이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논리는 확실히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논리는 협회 출판물들을 통해 제시된 견해와는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었습니다. 출판물에서는 예루살렘에 근거지를 둔 통치체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하느님의 권위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통치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 감독과 권위를 행사했다고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부 협회장의 연설은 보통 「파수대」기사의 원고로 사용되었는데, 이 연설만큼은 결코 기사로 나오지 않았던 것도 분명히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증인이 연설에서 이런 견해를 제시한다면, 그 연설은 이 단적이고 반역적인 연설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적용한다면,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회중이든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의 인도가 있다는 확신이 들 때는 브루클린 본부든 지부 사무실이든 어떤 곳과도 상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선교인들을 파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내 생각으로는 협회 본부와 지부 사무실에서 신속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중앙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고, 해당 회중은 이런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작용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직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이 졸업식에서 부 협회장이 한 말들은 전부 정확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4년 전에 했던 “꼬리가 개를 흔드는 일”에 관한 강연만큼 강한 설득력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안티오크의 사례를 들어, 협회가 통치체로부터 분리되어 나와서 수평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그리려고 시도한 부분은 선명한 것이었습니다.

연설은 계속 이어져,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던 진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의하면, 예루살렘 자체가 안티오

크 회중에 일어난 심각한 문제의 **진원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율법과 할례를 준수할 것을 강요하면서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여행은 통치체에게 굴복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단지 이들 예루살렘 말썽꾸러기들의 가르침이 초래한 결과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연설은 바울과 그의 새로운 짝 실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수행한 제2차 선교여행을 다루면서, 그들을 파견한 것은 **안티오크 회중**이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시 **안티오크 회중**은 성서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선교인들을 파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안티오크로 다시 돌아갔고, 바로 그곳에서 바울은 제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부 협회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서 역사에 기록된 선교인들 중에 가장 탁월한 선교인으로 꼽히는 두 사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특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들을 보내신 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며, 위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는 협회가 설립된 이후로 계속 그분을 드높이고 그분께 순종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과, 다른 어떤 조직이나 그 어떤 누구와도 전혀 관계없이 그분께 직접 지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행사**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 협회장이 말한 이 마지막 세 문장은 근래에 들어 일부 여호와의 증인들이 취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와 동일한 견해를 밝혔을 때 그들은 “배교자”로 낙인찍혔습니다. 지금도 낙인찍히는 그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탁월한 권위를 깊이 존중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다른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며 다른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 협회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협회장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통치체에 의해 임명된 “5인 위원회”의 생각과 행동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대표한다고 믿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협회를 설립하셨으며 협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의 추리는 복잡하게 엉킨 것 같았습니다.

그의 전체적인 연설은 성서에 기록된 일들을 현재 사건에 적용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는 찰스 테이즈 러셀의 성공과, 그가 새롭게 창간한 「파수대」 잡지를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하도록 누가 승인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러셀이 시온의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를 법인체로 등록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를 설립했을 때, 그는 아무 것도 못하는 협회나 조직을 설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성령이 러셀을 일으켜 세우셨으며, 또한 “활동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협회”를 설립하도록 후원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부 협회장은 이어서 길르앗 학교의 설립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 학교는 협회장이 설립을 제안한 것이며 이사회가 후원했다는 것, 그리고 협회장은 학교의 감독을 맡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부 협회장이 연설하는 동안 네이션 노어는 연단에 앉아 있었는데, 이런 설명을 할 때 프레더릭 프랜즈는 협회장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친애하는 벗들이여, 뉴욕 법인과 펜실베이니아 법인의 이사회는 창립을 후원하면서 협회장의 직분에 대해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직의 협회장을 “아무것도 못하는 협회”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는 장식용 허수아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연설 초반부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그는 말투도 부드러운 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인 1975년 9월 7일을 언급할 때는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달력,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져온 이 히브리 달력에 따르면[손에든 작은 팜플렛을 가리키면서], 왜 오늘이 음력으로 1976년 티슈리 월 2일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졸업식이 있는 오늘이 바로 인간이 지상에 존재한지 일곱 번째 천년기가 시작한 둘째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웅대한…[여기에서 박수갈채 소리] 인류가 존재한지 일곱 번째 천년기가 시작되는 이 웅대한 날에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는 정관이 정한 규정에 온전히 따라서 길르앗 선교학교 제 59기 졸업생을 파견하는 바입니다.

여호와 하느님께서서는 틀림없이 그 열매를 통해 축복해주셨습니다. 협회가 여호와 하느님의 손 안에 있는 승인된 도구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회가 선교인들을 파견할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벗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안티오크 회중을 사용하여 1세기 당시에 가장 탁월한 선교인이었던 두 사람 즉 바울과 바나바를 파견한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여호와 하느님께서 사용하시는 펜실베이니아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와 뉴욕 법인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선교인들을 먼 곳으로 파견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과정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sup>28)</sup>

의심할 여지없이, 부 협회장의 마음속에는 누군가가 협회장의 지위에 도전하는 “결투 신청” 모습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이용

---

28) 이 연설에 이어 협회장 노어의 연설이 있었는데, 그는 감동을 받은 모습으로 감정에 북받쳐 거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그는 프레더릭 프렌츠의 연설에 감사의 뜻을 밝혔는데, 나는 그가 정말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그때 그는 이 연설을 “매우 유익한 연설”이었다고 칭찬했다.

하여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전선戰線을 그었던 것입니다. 협회는 주권 지역을 갖고 있는데 통치체는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동료들로 구성된 통치체가 침략자 역할을 하는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권위로 마련하신 “승인받은 기관” 즉 협회에 무례한 태도를 나타내는 자들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졸업식에 참석한 손님들, 즉 졸업생들의 부모와 벗들은 연설의 많은 내용들 때문에, 그리고 특별하게 초점을 맞춘 내용들 때문에, 또한 가끔씩 튀어 나오는 과격한 말투 때문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베델 가족 성원들은 그동안 협회장과 부 협회장이 식탁에서 사회를 볼 때 했던 말들을 알고 있기에 막연하게나마 무슨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통치체 내부에서 다툼과 심각한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심을 더 확실히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 연설은 예전에 개와 꼬리를 비유하며 이야기했던 연설과는 확연히 비교되는 연설이었습니다. 비유적으로 개와 꼬리에 대해 이야기했던 연설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연설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개”는 통치체를, “꼬리”는 협회를 상징. 꼬리인 협회는 몸통인 통치체를 흔들 수 없다는 내용.) 4년 전의 연설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연설한 것인데도 두 연설의 전개 방향은 정 반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졸업식이 있던 대회 회관을 빠져나오면서 나는 무척 혼란스러웠고, 그 때문인지 몸까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자신의 입장이 바뀌면 같은 하느님의 말씀을 정 반대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점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네이션 노어와 마찬가지로 프레더릭 프랜즈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41년 말, 협회장 러더퍼드 판사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벳사림 저택에서 임종을 맞이할 무렵에 세 명, 즉 네이션 노어와 프레더릭 프랜즈, 헤이든 커빙턴을 자기 곁으로 불렀습니다.<sup>29)</sup> 러더퍼드는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해 주기를 바랐으며, “뿔뿔 뭉쳐서” 한 팀으로 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 러셀의 “유언”을 떠오르게 하는데, 러셀이 유언을 기록으로 남겼던 것과는 달리 러더퍼드는 말로 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의 20년이 지나서 1961년에 프레더릭 프랜즈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옵소서*Let Your Name Be Sanctified*”」라는 책을 썼을 때 그 상황도 적었는데, 그는 그 상황을 엘리야가 자신이 입었던 예언자의 망토(신세계역에서는 “공복公服”으로 표현<sup>30)</sup>)를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전달하는 장면과 넉지시 연결시켰습니다.<sup>31)</sup> 그는 이것을 마치 예언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표현했는데,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러더퍼드는 태평양 연안 근처 병상에 있었습니다. 때는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미국이 제 2차 세계대전에 돌입할 때였습니다. “벳사림”이라고 불리던 저택에서 지내던 러더퍼드는 브루클린 본부에 있던 3명에게 자신을 찾아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29) (역자): 브루클린 본부에서 찾아가던 이 세 명은 며칠 동안 벳사림에서 러더퍼드와 함께 머물렀으며, 러더퍼드는 그들이 돌아간 후 3주일 만에 사망했다.

30) (역자): “예언자의 망토”(prophetic mantle)의 다른 표현으로 소개된 괄호 안의 “공복(公服)”은 한국어 신세계역 1999년판에 나오는 표현이다. 영문판은 이전판과 2013년 개정판에서 동일하게 “official garment”를 사용했지만, 한국어 2014년 개정판은 “공복”대신 “겉옷”으로 번역하면서 각주에는 “예언자의 옷”으로도 번역할 수 있음을 표시했다.

31) 열왕기하 2:8, 11-14.

들 중 두 명은 기름부음받은 남은자(한 명은 1913년부터, 다른 한 명은 1922년부터)에 속했고 다른 한 명은(1934년부터) “다른 양”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은 본부에서 출발하여 러더퍼드의 침상 곁까지 찾아갔습니다. 1941년 12월 24일에, 그는 세 사람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한 충실한 예언자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신세계에서 왕국이 된 “온 땅의 방백(군왕)들”로 등장하는 장면을 보기를 다년 간 기대했었습니다.(시편 45:16) 그러나 1942년 1월 8일 목요일에, 러더퍼드는 7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할 때까지 그는 여호와 하느님의 충실한 증인으로서, 하느님의 왕국 권익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우주 통치라는 중대한 쟁점에서 여호와와의 편에 서는 일에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sup>5</sup> 이것은 지금의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엘리야가 자신의 직무를 엘리사에게 넘겨주었던 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강물이 갈라져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요르단 강을 건너고, 동쪽 강가에서 엘리사가 퇴임하여 사라질 때까지 함께 걸었던 때와 비슷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옷 즉 공복(公服)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옷과 함께 그 힘도 전달된 것입니다.<sup>32)</sup>

통치체가 조직개편 제안에 대해 토의할 때였습니다. 부 협회장은 러

---

32) 1961년에 발행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옵소서”」(“Let Your Name Be Sanctified”) 책 영문, 335-337면.

더퍼드 판사가 임종할 때 그의 권한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프레더릭 프랜즈는 그 임종 순간에 “망토 전달” 사건이 일어났다고 느낀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러더퍼드의 뒤를 이어 네이션 노어가 협회장이 되었습니다. 노어는 헤이든 커빙턴이라는 사람에게 부 협회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헤이든 커빙턴은 몸집이 큰 텍사스 사람으로, 그 이전에 미국 대법원까지 가게 된 많은 사건들에서 여호와의 증인 측을 위해 변호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름부음받은 자” 반열에 속해있다고 공언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례는, 러더퍼드 판사뿐 아니라 네이션 노어 역시, “기름부음받은 자”가 아닌 사람도 세계적인 사업에서 중요 직책을 맡을 수 있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스코틀랜드의 월시 재판에서 커빙턴 자신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커빙턴은 부 협회장이 된지 몇 년 후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편지를 받았고, 자신이 “기름부음받은 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노어와 상의한 끝에 사임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sup>33)</sup>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결국 커빙턴은 본부에서의 직무를 떠나서 개인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sup>34)</sup> 커빙턴이 1944년에 부 협회장 직에서 사임했을 때, 그의 뒤를 이을 후임으로 프레더릭 프랜즈가 선택되었습니다.

러더퍼드가 사망할 당시에 당부했던 대로 그의 책임을 상속받은 세 사람은 (이것을 보면 당시에는 “통치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33) 공식 재판기록 387,388면 참조.

34) 커빙턴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투쟁을 했다. 그는 금주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본부에서의 봉사를 계속했다. 그는 결국 제명되었고, 그 후 미국 데이턴에 있는 스피어스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다시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이 문제를 완전히 극복했다. 그리고 복귀한 후에는 사망할 때까지 조직과 연합했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부 협회장은 여전히 예언 성취를 위한 역할을 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1978년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큰 대회에서, 이제 협회장이 된 프레더릭 프랜즈는 3만 명의 청중에게 증인생활에서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습니다. 경험담의 상당부분은 이제 고인이 된 네이선 노어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는데, 특히 러더퍼드 판사가 임종하기 전 자신들에게 했던 말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프레더릭 프랜즈는 네이선 노어에 대해 묘사하면서 상당히 훌륭한 인품이라고 칭송하면서, 자신은 “판사의 강권대로” 노어와 푹푹 뭉쳐 끝까지 협력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망토 전달”의 의미에 대해 가졌던 이런 시각은, 같은 해인 1978년에 열린 통치체 집필 위원회에서 토의하던 회기에서 더 명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 곳에는 라이먼 스윙글, 유어트 치티, 로이드 배리, 프레더릭 프랜즈가 참석했으며, 나도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에 에드워드 던랩은 야고보서를 해설한 주해서(주석서)를 집필하고 있었는데, 프레더릭 프랜즈는 야고보서 3장 1절 부분에 대한 던랩의 해설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성구는 제자 야고보가 한 말로,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더 무거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던랩이 만든 초안에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단

순히 탁월해지려는 욕망 때문에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한 것이라는 해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레더릭 프랜즈는 특별한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이 성구에 대한 해설 거의 전부를 삭제해달라면서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일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로 마련해 주셨다면, 그분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사로 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그때 이래로 계속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보내고 계신다면, 야고보가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안 됩니다.”라고 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야고보 자신은 어떻게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주해서를 개발하고 집필하는 과정을 감독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나는 집필 위원회 청문시간에 프레더릭 프랜즈에게 기존 원고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또 해당 성구가 정확히 무슨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회중 전체에서 “가르치는 자”가 될 사람은 매우 극소수여야 한다고 믿으며, 이것이 이 구절에 담긴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는 누가 그런 사람에 해당하는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매우 차분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음, 나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곳 본부에 오십년 이상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필과 연구 분야에서 열정을 쏟아 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에 해당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 지구 전역의 다른 형제들 중에도 그런 사람에 해당하는 이들은 약간 더 있을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나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말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 말은 나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다른 세 명의 집필위원들도 들었습니다. 그의 선언으로 우리는 지상에서 “가르치는 자” 중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프레더릭 프렌즈였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라이먼 스윙글에게도 말했지만, 그때 프렌즈 외에 다른 ‘교사’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끝까지 캐묻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 때는 그의 말을 듣고 정말 말문이 막혀서 그럴 경황이 없었습니다. 던랩의 해설에 반대하면서 제출했던 그 문서에서, 프렌즈 협회장은 집필중인 주해서에 다음과 같은 요점을 추가해 줄 것을 암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그때 제출한 서류의 2번째 쪽입니다. 여기에는 그의 약식 서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필중인 야고보서 3장 주석에 대한 교정 및 변경 99907

야고보서 3장, 2면

5항에 이어서 나는 다음 항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야고보가 가르치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의 이부 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되신 후에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7; 사도행전 1:14) 현

신하고 침례 받은 그리스도인 남자 중 누군가가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적인 욕망이 동기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것처럼 올바른 동기로 가르치는 자가 된 경우를, 1879년 7월에 27세의 나이로 시온의 파수대와 그리스도의 임재의 전령 잡지의 “편집인 겸 발행인”이 된 찰스 테이즈 러셀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75년에 길르앗 학교 졸업식에서 했던 그의 연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목회자 러셀을 일으키셨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그 연설에서 밝힌 그의 견해는 3년 후에 표명한 견해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느끼기에 는, 러셀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회중을 섬길 특별한 “교사”를 세워주신 경우가 더 있었는데, 오직 소수의 사람만 그러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sup>35)</sup>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러셀을 예로 들면서 변경을 요구한 내용이 본문에 실제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주해」책 99면부터 102면 첫 부분까지는 프랜즈 협회장의 반대 의견을 참고하여, 던랩의 초기 원고를 내가 고쳐 쓴 내용입니다. 하지만 협회장의 견해를 논박한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그러나 여러분은 랍비라고 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생은 오직 하나이며 여러분은 모두 형제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

35) 몇 번의 통치체 회기에서 칼 클라인은 프레더릭 프랜즈를 지칭하면서, 여러 해 동안 조직의 ‘신 탁자’(oracle)로 지내왔다고 말한 적이 있다. 비록 웃으면서 말한 것이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아 가벼운 농담 이상으로 여겨진다.

극소수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 개념, 혹은 ‘선생’으로 특별히 선택 받은 소수의 독점적인 집단 개념과는 철저히 상반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써서 제출한 부분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출판된 책에 포함되었습니다.

출판물로 인쇄되어 나온 내용은 것처럼 대범하고 힘 있게 표현되어 있는데 왜 실제 결과는 그토록 초라하고 볼품 없는지, 그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협회 임원들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큰 변화를 만들기보다는, 작은 조치로 생색만 내면서 충분히 변화되었다고 합리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971년에 노어 협회장은 베텔 식사 시간에 사회를 볼 독점적 권리를 법인 이사회 성원들에게도 나눠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통치체 회의 사회자 직책은 해마다 윤번제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법인체들 및 협회 임원들이 통치체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즉 드디어 “개가 꼬리를 흔드는” 상태가 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권위 구조 개혁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나 중대한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감동적인 그림을 그려주지도 못했습니다.

프레더릭 프랜즈도 분명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때보다 무려 20여 년 전이었던 1944년에 그가 쓴 「파수대」 기사들에서는 훗날 「보조서」책에서 장로와 감독자에 관한 항목을 다룬 기본 요점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sup>3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

36) 1944년 10월 15일호 「파수대」 영문. 또한 1999년에 발행된 책 「다니엘의 예언에 주의를 기

된 일인지 회중 업무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렇게 출판되었다’는 정도이고,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는 1944년을 성서 예언에서 주목할 만한 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워치타워협회에 기부금 10달러를 낼 때마다 하나의 투표권이 주어졌던 규정을 그 해에 폐지하고 수정 조항을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투표권은 협회 이사회에서 선정한 사람들에게만 최대 500명까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워치타워협회 연례 총회에서 이사 선출에 참석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투표는 정해진 대로 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표결권을 가진 대부분의 회원들은 협회 내부에서 진행 중인 일에 대해 사실상 아는 것이 없었고, 협회가 하려는 일이나 정책에 대해 영향력도 없으며 발언권이나 조정 권한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된 시간은 보통 한 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례총회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일 년 내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파수대」 1971년 12월 1일호 기사(프레더릭 프렌즈가 집필)에서는, 회원들의 투표권에 관한 조항을 수정한 일을 다니엘 8:14에 나오는 예언과 연결시키면서, “거룩한 곳이 반드시 올바른 상태로 복구될 것”이라는 말씀과 2,300일이라는 예언적 기간에 적용했습니다. 그 일을 예언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증인들에게 다니엘 8:14을 보여준다면, 협회에서 투표권 수정 조항을 채택한 1944년 사건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천 명 중에 한 명이

---

올이라」 178,179면 참조.

라도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것이 그 예언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을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상징적 가치를 부여하는 재능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입니다.

1975년 8월 15일, 마침내 5인위원회는 최종 조사보고서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나는 위원회의 의견을 대표하여 45쪽에 달하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역사적 근거와 특히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절대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여러 부서를 관할하기 위한 통치체 위원회들의 구조를 19쪽에 걸쳐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 5인 위원회는 매번 많은 기도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심사숙고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내리는 데 하느님의 영의 인도가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것이 통치체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조정안 제안이 승인될 경우에는, 이 조정이 통치체 성원들 사이에서 좀 더 유쾌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고, 회의에서 가끔 볼 수 있었던 긴장된 상태를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시 133:1, 야고보 3:17,18) 마찬가지로 이번 조정안 제안이 승인될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직분이 더욱 탁월하게 드높여질 것이며, 그분의 제자들 사이에서 진정한 형제 관계의 영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마가 9:50.

이 말들은 나의 솔직한 마음과 희망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회중에 베푸시는 인도에 도전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sup>37)</sup> 이 조정 제안은, 1975년 9월 10일에 열린 통치체 회의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기본적으로 개혁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최종적인 조정을 위해서 두 번째 5인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sup>38)</sup> 협회장과 부 협회장은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었으므로, 통치체는 새로운 5인위원회로 섬기는 일에서 이 둘을 제외시켰습니다.

협회장의 발언은 주로 개혁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 협회장은 이 제출안이 “협회장 직분에 대한 공격”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협회장이 스스로 동의하고 제안한 내용을 읽어주자, 그는 노어 형제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라이언 스윙글은 자신이 느끼기에 통치체 성원들은 협회장에게 존경심을 갖고 있으며, 그를 “아무것도 못하는 협회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있는 장식용 허수아비”로 생각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표현은 길르앗 졸업식에서 부 협회장이 연설했던 내용 중에 나온 표현입니다. 그는 강조하기를, 새로 제안한 마련 속에서도 협회장은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과, 방식 그리고 자기 주도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37) 간단한 설명을 위해 제안서와 함께 첨부하는 소개서에는 리오 그린리스가 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다. “우리의 제안은 지금까지의 체제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성서와 <파수대>에 실린 기사가 제시하는 방향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서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으며, 분명히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38) 두 번째 위원회는 밀턴 헨첼, 유어트 치티, 라이먼 스윙글, 로이드 배리, 테드 재라스(시어도어 재라스)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되었다.

니다. 계속되는 회의 중에 부 협회장은 5인위원회가 제출한 문서에 대해서, 결국 자신이 말했던 그대로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연례 총회에서는 협회의 권한이 계속 유지되는 쪽에 투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그때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은 형제들에게 사실을 알려 자신들이 “사기”당했다고 느끼는 일이 없게 하려는 의무감에서 나온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5인위원회는 그 제안을 정리해서 1975년 12월 3일에 제출했고, 마침내 최종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sup>39)</sup> 사회자는 거수를 요구했습니다. 두 명을 제외한 전원은 제안을 실행에 옮기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손을 들지 않았던 두 사람은 협회장과 부 협회장뿐이었습니다.

다음날 통치체는 다시 모임을 가졌습니다. 부 협회장은 “그것과 관련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서” 전날 회의에서는 함께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의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조정안을 지지한다는 뜻이 되는데, “양심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네이션 노어를 지칭하면서 반복해서 협회의 “최고 책임자”, “지상에 있는 주의 백성의 최고 책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대리인들을 사용하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시들릭(슬라브계 후손으로 떡 벌어진 어깨와 굵은 목소리가 특징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어 형제나 프랜즈 형제께서 자신들의

---

39) 이 새로운 위원회가 이전 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유일하게 변경한 내용은, 통치체 위원회에서 사회자를 윤번제로 맡는 것에 대하여 영구적인 ‘조정자’를 두게 하자는 것이었다.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설명을 해주시거나 적어도 위치타워 출판물에서라도 그 근거를 보여주셨다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들 안하셨네요.” 리오 그린리스는 논평하기를, 모든 회중이 통치체의 감독에 기쁘게 순종하는데 협회만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했습니다.

협회장은 기본적으로 발언을 자제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표명했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협회가 통치체와 “나란히” 일하게 될 줄로 알았는데, 조정안대로 하자면 협회가 종속적인 위치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는 하겠지만요.”

부 협회장 역시 자신도 두 개의 조직이 나란히 일을 수행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혹시 안티오크와 예루살렘처럼?).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치체가 지금 하려는 일에 대해서 나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협회장과 부 협회장은 반대 입장을 유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로이드 배리가 긴장감 때문인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 이 조정안은 이제 어차피 통과될 것이었기 때문에 기왕이면 만장일치로 채택하자고 두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다시 표결이 진행되었고, 이번에는 노어가 찬성 표시로 손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부 협회장도 손을 들었습니다.

4년 후 1979년이 되었을 때, 이때는 이미 협회장이 된 프레더릭 프랜즈는 그때의 표결에 대해 말하면서, 그때는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이션 노어가 물러나서 양보했을 때, 그 역시 싫지만 따를 수밖에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자신은 그때 개혁안

에 찬성한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단지 옆에서 지켜본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일과 위치타워 출판물에서 이상적으로 그려진 모습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17에는 “내가 구리 대신 금을, 철 대신 은을 들여오며, 나무 대신 구리를, 돌 대신 철을 들여올 것이다. 내가 평화를 네 감독자로, 의를 네 작업 임명자로 삼을 것이다.”라는 여호와와의 약속이 나옵니다. 「파수대」 1990년 3월 15일호에서는 이 성구를 인용하면서, 마치 조직의 “점진적인 개선”과 “계속되는 연단”이 평화롭고 조화로운 분위기 가운데서 순조롭게 진행된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위치타워 역사 전체에 걸쳐서 통치체가 언제나 존재해온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것처럼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조직의 역사에서 처음 70년 동안은 통치체에 대해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러셀이 자신의 사후에 여러 위원회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러더퍼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그런 제도를 폐지했고, 모든 반대의견을 탄압한 후 20년 동안 협회장 자격으로 전체를 장악하는 독재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노어 협회장 시대에는 이런 분위기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전체 통제권은 협회장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측근들에 의한 일종의 “내부 반란”으로 협회장의 권력이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1976년에 이르러서야 거의 반세기 동안 한 명이 독점하던 권한이 여러 명에게 이양되었고, 그렇게 해서 다시 위원회가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의 역사는 이처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적어도 “점진적인 개선”과

“계속되는 연단”이라는 설명과는 일치된 그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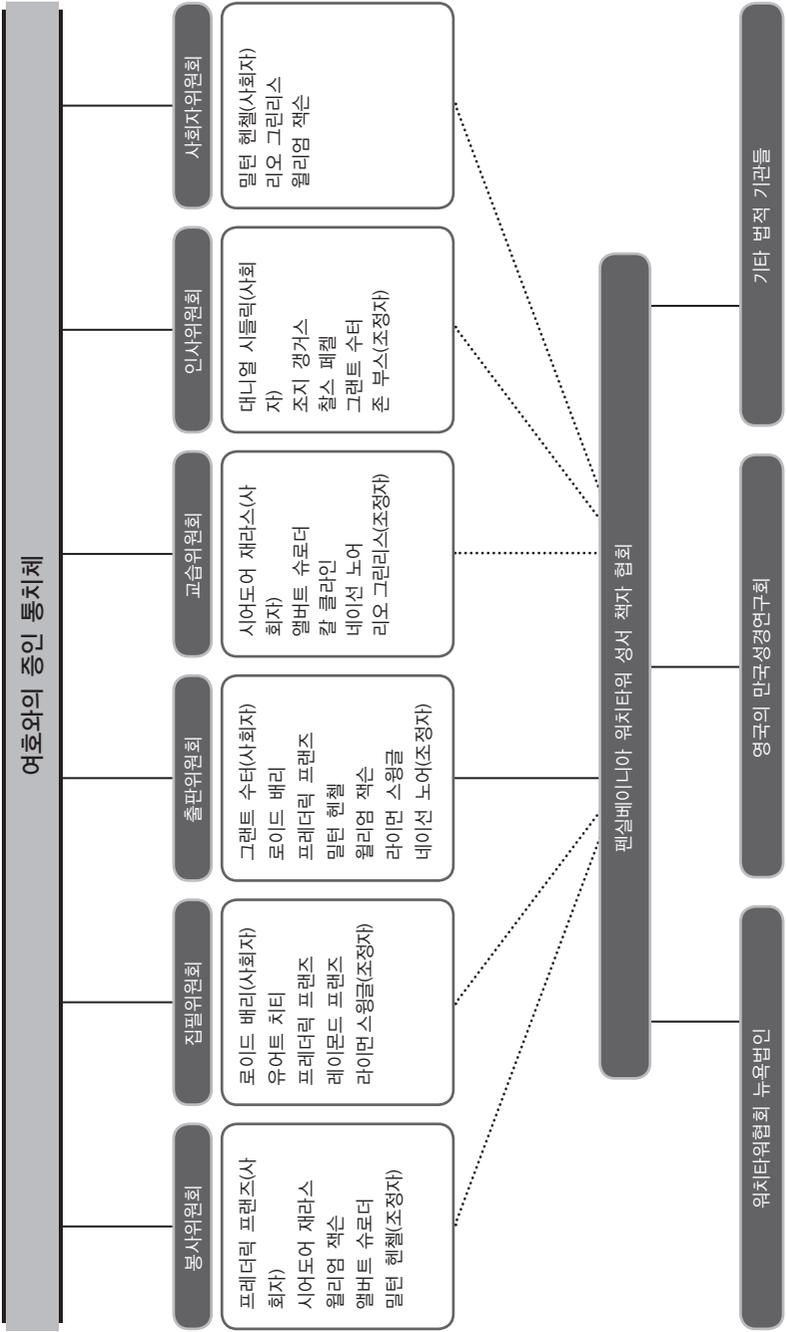
워치타워 협회가 1993년에 발행한 역사서 「여호와의 증인 - 하나님의 왕국 선포자」책 〈머리말〉에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기술한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그들의 기록이 “언제나 공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 책의 편집인들은 객관적이 되어 솔직한 역사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 108면부터 109면까지는 1975~1976년에 걸친 대규모 조직 개편에 대해 나오는데, “여호와의 증인의 현대 역사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조직상의 조정”이었다는 설명이 들어있습니다.(해당 내용은 본서 158-159면 참조) 이 책은 과연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 되어 솔직한 역사”를 설명했습니까?

그 책에는 당시의 개혁이 평화롭고 조화로운 가운데 이루어진 것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쓴 그 책의 “편집인들”이 앞서 벌어진 수 개월간의 처절한 개혁 투쟁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당시 브루클린 본부에 있던 천 명 이상의 남녀 직원들 중 협회장이 여러 번의 아침송배 모임에서 쏟아낸 분노에 찬 말들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변화가 결코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통치체 성원이라면 누구보다 그 투쟁이 격렬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역사책이 발행되었던 1993년에도 통치체 성원들 모두는 그때의 실상을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인 권력에서 집단 권력으로 바뀌는 과정에

서 협회장과 부 협회장이 거칠고 격렬하게 반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역사책에서 “만장 일치로 채택되었다”라고 표현한 그 개혁은 사실 노어 협회장과 프랜즈 부 협회장이 패배가 분명한 상황에 직면하자 마침내 항복했던(부 협회장 본인의 말을 빌리자면 “압박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결과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책은 사실 그대로 쓰는 정직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가운데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는 것은 진실 추구라는 도덕적 표준에서 벗어난, 꾸며낸 그림일 뿐입니다.



앞에 제시한 도표는 제2차 5인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체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차 5인위원회 성원 중 한 명이었던 존 부스는 일찍이 뉴욕 북부에서 농부로 살았던 사람인데, 부드러운 성격에 생각도 깊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좀처럼 표현할 줄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협회에 대해 그가 했던 말은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해주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그는 제1차 5인위원회의 한 회의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협회는 책상 위에 놓아둔 펜처럼 단순한 법적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가 펜을 쓰고 싶을 때는 손으로 집어서 쓰면 됩니다. 쓸 것을 다 쓰고 나면 다시 쓰고 싶을 때까지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펜실베이니아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와 그 보조 법인단체들은 바로 이런 위치에 놓인 것입니다. 협회장의 권한은 대폭 줄어서 사실상 없어졌으며, 그의 직위는 단지 법적인 기능만 남게 되었습니다.

네이션 노어가 사망했을 때, 통치체는 그의 후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들은 부 협회장 프레더릭 프렌즈와 노어의 감독업무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했던 밀턴 헨첼이었습니다. 이때 헨첼이 프레더릭 프렌즈를 협회장으로 추천했고, 이 의견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노어는 출판위원회의 “조정자”(혹은 “조정 위원”)로도 일했는데 이 자리는 헨첼이 맡는 것이 타당해보였습니다. 하지만 새 협회장 프렌즈는 그 자리에 헨첼 대신 로이드 배리를 추천했습니다. 그 무렵 노어와 헨첼은 수 년 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제1차 5인위원회가 노어를 면담했을 때 그는 자신의 협회장 직분을 로이드 배리가 대신 맡

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프레더릭 프랜즈는 이것을 과거에 러더퍼드 협회장이 유언처럼 부탁했던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회장이 갖고 있던 일부 “망토” 즉 일부 직분은 로이드 배리에게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통치체는 결국 조정자 자리에 헨첼을 앉히는 것으로 표결해 결정했습니다.

「타임」지는 프레더릭 프랜즈가 새로운 협회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적지만, 이번에 선출된 그는 전 세계 2백 20만 명에 달하는 영혼을 관장하면서 교황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된 사람이다.”<sup>40)</sup>

하지만 이 논평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니 불과 일년 전만 해도 맞았겠지만 이제는 틀린 말이 되었습니다. 협회장이 어느 정도의 명예도 생기고 탁월한 지위를 갖는 것은 맞지만, 그는 더 이상 전 세계적인 통제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통치체 밖에서는 거의 아무도 조직에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긴 것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협회장은 비록 교황처럼 화려한 장식물은 없었지만, 그전까지는 실제 교황과 맞먹는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지부에서도 대주교 못지않은 감독권이 있었으며, 협회장과 지부 감독자들은 각각 자신이 “임명받은 구역 내에서 그리스도교 주임 봉사자” 역할을 했

---

40) 「타임」 지 1977년 7월 11일호, 64면.

던 것입니다.<sup>41)</sup> 하지만 이후에는 지부에도 개혁이 적용되어, 지부 감독자의 권한은 지부 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976년과 1977년, 두 해 동안에는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국제 본부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이전보다 더 커진 형제애, 증가된 개방성과 평등지향적인 영이 그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교황 요한 23세가 가톨릭교회에서 “창”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들어오게” 했었던 개혁 조치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통치체에 속한 각 위원회들은 브루클린 본부 및 90개 이상의 지부에 있는 베델 가족들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인 사항은 “평 성원들”이라고 불리던 일반 서민 출신 증인들의 경제적 필요에 대한 것과, 여성과 노인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1976년에는 특별 모임들이 연달아 열렸는데, 그 모임들은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던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는 세계 전역에 있는 지부 대표자들을 초대했고, 두 번째 모임에서는 미국에 있는 여행하는 감독자들을, 마지막 모임에서는 여러 나라와 여러 지역을 대표하는 회중 장로들을 브루클린으로 초대했습니다. 모든 회기에서는 각자 자유롭게 토의하고 발표할 수 있었으며, 참가자들 대부분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쾌한 분위기속에서 회기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

41) 당시 모든 지부 사무실에서 사용한 지침서 「지부 운영 절차」(Branch Office Procedure) 영문 5, 6면에서 인용.

(역자): 이 책은 1958년에 영문으로 발행된 것으로, 「펜실베이니아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지부 운영 절차」(Branch Office Procedure of the Watch 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Pennsylvania)를 줄여서 부르는 명칭이다. 이 책은 회중에는 공급되지 않았고 베델에만 공급되었다.

일반 회중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별로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임들에서 참석자들이 제안한 많은 것들이 본격적인 실천 단계로 넘어가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전에 비해 많은 것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출판물에서는 인간 조직의 권위보다는 성경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직분을 드높이며 강조하는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 많은 증인들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전체적으로 좀 더 온건하고, 균형 잡히고, 동정적으로 접근하는 내용들을 발견하면서 세심한 배려를 받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활동해 온 한 증인은 “나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치체 회의에서도 어느 정도 변화된 분위기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널리 전파되었던 1975년에는 기대하던 천년기 희년이 오지 않았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버렸습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런 결과는 겸손하게 자숙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독단적인 태도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통치체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규칙을 부과할 때도 대단히 조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정 행위가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범죄”로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할 때도, 비록 부족하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상당히 고민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976년에 그런 변화를 겪는 동안, 노어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회기에 참석했고, 토의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조정안이 가져온 변화를 기뻐하지는 않았지만, 협조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발언은 극단적인 견해에 빠지는 것을 극복하도록 여러 번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록 성경적인 논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다른 성원들이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영향을 주었습니다.

통치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부 협회장은 시종일관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참여하기도 했는데, 대부분은 토론이 거의 끝나고 표결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시간이면 보통 상당한 의견 합의가 되어서 결론(이미 개개인들이 밝힌 의견들을 기초로)이 분명해질 때인데, 이때 전체 흐름과는 다르게 반대의를 표명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표결 결과가 뒤집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 협회장이 마지막 순간에 반대 발언을 한다고 해서 통치체 전체의 의견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변화된 통치체의 분위기를 이것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 협회장은 표결을 위해서 관례상 손을 들어줄 것을 요청받을 때까지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많은 경우에 “찬성 16, 기권 1”로 적혀있는데(아라비아 숫자 대신 다른 기호로 표시하기도 했음), 그 한 명이 바로 부 협회장이었던 것입니다. 보통 이런 표결 결과는, 이른바 “제명 처분 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완화시키기로 결정할 때 나타났습니다. 세속적인 문제나 어느 정도 영적인 일과 관련된 결정들(토지 구입, 사무실 운영) 또는 지부 성원들을 임명하는 일 등은 대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조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나는 권위 구조에 그토록 중대한 변화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협회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자신들은 물론이고 통치체 바깥에 있는 동료들까지 끌어들이어서 심한 반대를 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

다. 나의 진지한 희망은 개혁적 조정이 사람들을 더 합리적으로 변화시켜서 서로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가 되는 것, 독단적인 태도가 줄어드는 것, 개개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적 상황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는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고 적용하는 독재적 방식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런 일들은 어느 정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채 2년이 지나지 않아서 늦가을에 부는 스산한 바람이 겨울 추위가 다가옴을 알려주는 것처럼, 다시 종전 방식으로 되돌리려는 행동의 징후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 전통과 율법주의

C r i s i s   o f   C o n s c i e n c e



...

너희는... 너희 전통을 빌미로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  
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혼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마태 15:6,9 / 쉬운성경 2002년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통치체 회의(Governing Body Sessions)”<sup>1)</sup>라는 말을 들으면 ‘하느님의 말씀을 항상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모임’이라고 상상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모임을 통해서 여호와의 증인 형제들이 성서를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 겸손한 마음으로 숙고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행실의 원천인 믿음과 사랑이라는 특성 안에서 형제들을 세워주기 위한 고무적이고도 긍정적인 방법들을 논의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성서가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통치체 회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열리는 탓에 실제로 그러한지는 통치체 성원 외의 사람들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앞서 주목한 대로, 통치

---

1) (역자): Session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활동을 하는 회기 또는 심리기간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전 세계에서 올라운 교리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통치체의 정기회의를 말한다.

체 성원들이라면 협회와 통치체간의 관계를 알리는 파수대 기사나 사진 자료가 실제와 얼마나 다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언급한 회의의 실제 모습도 일반 전도인들의 상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통치체 성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나는 9년 동안 통치체의 성원이었습니다. 회기 전후로 회의록을 살펴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통치체 회의의 가장 중요시되고 시간이 할애된 부분이 결국 “이 행위가 제명사유에 해당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자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통치체를 ‘벽에 등을 대고 서서 건너편의 수많은 사람들과 공을 주고 받기 하는 일단의 남자들’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와 같이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릴 새 없이 수 많은 공들이 빈번히 날아들었습니다. 제명에 관한 지침을 끊임없이 제정하고 공개할 때마다,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참다운 성서의 본질에 대해 고찰하거나 연구하고 토론할 여유도 없이 또 다른 문제들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그런 사안들과 관련하여 성서연구가 그렇게 중요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수십 년에 걸쳐서 내려온 협회의 가르침이나 방침이 있다면 그것으로 지침이 결정되었으며 일부 위원의 성서적 문제 제기가 있더라도 기존의 지침과 일관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명처분에 관한 특정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논쟁을 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위치타위가 발행한 「조직<sup>Organization</sup>」책 혹은 “지부사무실 질의답변 보조서<sup>Aid to Answering Branch</sup>

*Office Correspondence*”<sup>2)</sup>에서 관련 지침을 찾아내면 그것을 근거삼아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비록 성서에는 이 사안에 대해 그 어떤 근거가 없을 경우에도 그러했습니다. 수년 동안, 내가 참석했던 그 많은 통치체 회의에서 증인 전도인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들이 논의되었지만, 성서 자체가 그 회의에 관련된 사람 그 누구의 손이나 입에서도 거의 다루지지 않았다는 데에는 복잡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통치체 성원들은 온갖 문제들에 정신을 쏟느라 정작 성서 연구에는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통치체 성원들이 지방 회중에 있는 증인들보다 성서 연구 시간이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은 지나친 얘기가 아닙니다. 출판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는 통치체 성원이 아닌 펜실베이니아 협회의 이사와 임원들도 속해 있다.)들은 회의 중 사용하게 될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사전에 직접 작성해야 하고, 결론이나 권고를 검토하고 제시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도, 맡겨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토론 주제는 종종 통치체의 자문을 받지 않고 글쓴이가 직접 생각해내어 끌어내고 발전시킨 ‘성서를 새롭게 이해한 내용’이었는데, 글쓴이는 종종 그 누구와도 이 새로운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거나 자신의 생각을 검증하는 일 없이 자신의 모든 주장을 완성하여 최종적인 결과물을 내놓곤 합니다. (심지어 네이션 노어가 살아 있을 때에도 이는 정상적인 절차였으며, 협회의 제1저자 프레더릭 프랜즈도 같은 절차를 따랐다.)

---

2) 고용, 결혼, 이혼, 정치 군사 문제, 노동조합, 가족관계 등 수십 가지 광범위한 주제들을 알파벳 순으로 정리해 놓은 워치타워 협회 색인서.

간혹 순전히 성서 연구만을 위한 시간으로 계획한 때에도, 사실상 통치체 회의는 누군가가 준비한 「파수대」 기사들과 그에 관한 이의에 대해 토론을 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완성본을 내놓아야 비로소 생각이 나 개진된 해석을 놓고 고심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토론 주제를 일주일 전에 예고했음에도, 밀턴 헨첼 *Milton Henschel*이나 그랜트 수터 *Grant suiter*같은 위원들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매우 바빴거든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렇듯 시간이 없는 통치체 성원들이기에 그들이 통치체 회의에서 토론할 문헌을 서둘러 읽어오는 것 외엔 거의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종종 회의 토론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마련이었는데, 왜냐하면 주제가 성서적 측면에서 타당한 논리인지 아니면 그저 “재주나 부리는 논리”여서 실제로 자료가 밝히려 한 것과는 달리 그저 요령있게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분석은 피상적 자료 읽기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료를 그저 읽기만 한 이들은 그 결론이 진실한 것이라는 입장에 섰고, 자료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한 이들은 반대나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그들이 정말 바빴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또 진위를 가려내고자 성서를 탐구할 수도 없었다면, 그 사안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떻게 올바른 양심으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출판물로 발행되고 나면 수백만 명의 형제들은 그 기사를 “진리”로 간주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으로 치자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은 프레더릭 프랜즈가 영적인 추수와 관련하여 수장절(*festival of the harvest ingathering*, 추수기 후에 이를 축하하는 절기)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는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대부분의 성원들은 그 논문을 인정한다는 입장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집필위원회 조정위원(*Coordinator of the Writing Committee*) 역할을 한 라이먼 스윙글(*Lyman Swingle*)은 이 입장에 찬성하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소. 당신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출판하도록 원고를 넘기겠소. 그렇다고 내가 이 내용을 믿는다는 뜻은 아니오. 워치타워가 잘못이 없지 않다는 거대한 증거의 기념비에 돌을 하나 더 얹는 것일 뿐일 테니까 말이오.”

이렇듯 진정한 성서 연구 시간이 부족했던 대부분의 통치체 성원들은 성서에 그리 정통하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도 1965년까지는 단조로운 활동만을 반복하며 지냈고, 실제로 진지한 연구 시간은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보다 더 심각한 데 있었습니다. 그런 연구와 탐색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았고,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한 협회 조직의 방침과 가르침이 그 자체로 신뢰할만한 지침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체가 어떤 활동을 전개할지라도 그 활동이 전통적인 방침이나 가르침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옳은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때때로 “제명”과 같은 문제를 두고 장시간의 토론을 벌일 때 갑작스럽게 해결책을 찾기도 하는데 그것은 한 성원이 「조직」(*Organization*)책과 같은 기존 워치타워 출판물에서 좀 더 그럴듯한

답을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사를 찾아내게 되면 비록 성서가 그 방침의 특정 부분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통치체 성원 대다수는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생각하여 문서화된 과거 방침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찬성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 경우에 발생한다는 것은 잘 알았지만, 이처럼 문서화된 과거의 방침이 토론에 영향을 미쳐 뜻밖의 결론을 이끌어 낸 일들은 내게 매우 강한 인상을 주어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토론에서 성서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데 대한 마지막 이유는, 많은 토론에서 다루지는 제명 문제가 정작 성서에서는 밝히지 않는 문제들과 관련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세부사항이 성서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혈청주사를 혈액주사와 같은 것으로 봐야 하는지 혹은 혈소판을 적혈구와 같은 거부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들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아내가 이를 남편에게(그 남편의 성향이 매우 폭력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해도) 고백해야만 했는지, 혹은 회개의 기회를 구하는 그녀의 요구를 타당하게 여기지 않고 그녀에게 제명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와 같은 것도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도대체 성서 어디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또 다른 예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코카콜라 회사의 트럭을 운전하는 한 여호와의 증인이 수많은 배달이 오고 가는 군사 기지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사 기지에 배달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

고도 온전한 입지를 유지하며 회중성원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행동은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다시 언급하지만, 인간적인 복잡한 추론과 해석을 거부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성서 어디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분명히 밝히고 있던 말입니까? 통치체의 대다수 성원들은, 이 경우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트럭 운전수가 온전한(회중내의) 영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다른 길을 택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한 여호와의 증인 음악가가 군사 기지 내에 있는 장교 클럽에서 재즈 밴드의 일원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치체의 대다수는 이 사안에서도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물론 성서는 침묵하고 인간의 추론도 이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토론에서 위와 같은 행동이나 행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5:19의 도움을 받습니다. 즉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라는 말씀에 대한 광의적 추론이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통치체 성원이 개인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주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들은 상황에 맞게 이 문구에 의지하여 확대 해석하고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성서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광의적 해석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의해 놓기를 바라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통치체의 결정은 3분의2 다수결 원칙으로 이루어졌는데, 때때로 이 원칙은 이상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활동 중인 전체 성원의) 3분의2 다수결 원칙은 동의를 가결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원칙이, 다수와 다른 의견을 지닌 성원이 효과적으로 “거부

권”을 행사하는 데 있다고 생각지 않고, 그저 단순히 기권하는 성원을 감안한 배려라고 생각하여 이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다수의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양심에 가책을 느끼는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소수의 편에 섰는데, 그럴 때면 혼자 양심을 지키는 일은 좀처럼 없었고 보통은 동의에 찬성하지 않음으로써 양심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는 한두 명, 혹은 두세 명의 성원과 함께 했습니다. 내가 통치체 성원이 된 후 조직에 여러 변화가 있던 처음 2년 동안에는 이러한 일이 그리 자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통치체 성원의 자격을 지녔던 마지막 2년 동안 “강경 노선”을 취하는 강한 경향으로 인해, 나는 아주 빈번히 다수와 다른 입장에서 투표를 하거나 기권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때로 통치체가 견해 차이로 양분될 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제명 처분”으로 지정되었던 행위에 대해 협회에서 토론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치명적인 통증을 다스리고자 누군가가 혈액의 특정 성분을 주입받았거나 믿지 않는 군인 남편을 둔 아내가 군대 매점에서 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토론이 벌어지면 통치체는 의견이 양분되기도 하며, 때로는 정확히 반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특정 행동이나 행위 또는 “제명 처분” 요건에 속하는 지침을 없애는 결의를 할 때,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기권을 함으로써 오롯이 혼자가 되어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총 활동정원의 3분의2 다수결 원칙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만일 출석 성원 14명 중에서 9명이 (특정행위에 대한) 제명 처분 “꼬리표”(기존의 방침)를 없애는 데 찬성하고 5명이 그것을 유지하자는 데 찬성할 경우, 9명이라는 숫자는 꼬리표를 바꿀 만큼 충분한 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다수이기는 하지만, 아홉은 3분의2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10명이 찬성하여, 14명에 대해서는 3분의2를 차지한다 해도 여전히 가결되는 다수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총 활동성원 17명에 대한 3분의2 다수가 되어야 가결되는 것이 원칙<sup>3)</sup>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엔 제명 조건을 없애는 데 찬성하는 9명이든 제명 조건 유지에 찬성하는 5명이든 누구 한 두 사람이 입장을 바꾼다 해도 기존의 지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만약 의제를 “그 행위에 대한 제명처분 방침을 없애자”가 아니라 “그 제명처분 방침을 유지하자”는 것으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찬성할 사람은 5명 밖에 없고 9명은 반대표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유지하자”는 의제는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자에서 다룬 9명이라는 숫자만이 그 제명처분 방침을 없애는 데 찬성했기 때문에 그 방침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방침을 없애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다수가 기존 방침을 없애자고 하더라도, 반드시 12명이라는 3분의2 가결을 거치지 않으면 이전 지침을 유지하는 것이 규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양분된 견해를 보이는 첫 번째 예에서 밀턴 헨셀이 견해를 밝혔

---

3) (역자): 17명에 대한 3분의2 다수결 숫자는 12명이다( $17 \times 2/3 = 11.3$ , 즉 절상하면 최소 12명이 되어야 함).

는데, 그는 3분의2 다수를 이뤄내지 못했으니 “현상유지”가 지속될 것이고 변할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성원이라도 자신의 견해를 바꾸어 교착상태를 야기하는 상황은 아주 드문 경우였습니다. 이는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특정 직업에 관련된 여호와의 증인은, 통치체 다수가 그 여호와의 증인을 제명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들의 생각을 분명히 밝혔다 하더라도, (3분의2 가결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명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상당수의 성원(3분의2 다수는 아니어도)들이 어떤 문제가 제명 위반에 해당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몇몇 경우에서, 나는 우리의 입장은 비합리적이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찬반이 갈리는 미묘한 문제와 관련된) 일들로 사람들이 제명되는데, 특정 사안들에 대해 그토록 가혹한 제명이라는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결코 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통치체 내에 다수가 있음에도 어떻게 예전처럼 상황을 계속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이런 복잡한 사정으로 결국 3분의2 가결로 지침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특정인이 제명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통치체 회의의 이런 비밀스런 속사정은 일반 형제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 회의의 “회의록”은 다른 여호와의 증인이 열람하도록 결코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사법위원회”를 구성하는 다섯 명의 지방 회중장로들이 어느 한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명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한 전도인에 대해 심리를 하는데, 다섯

장로 중 세 명이 위원회에 회부된 성원의 행동이나 행위가 제명 사유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도, 이들은 5분의3 다수일 뿐 3분의2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성원은 제명되는 것입니까?<sup>4)</sup>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불과 2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치체 회의에서는 이 경우와 달리, 상당수의 성원이 달리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3분의2 다수 가결이 안된다는 표결 원칙으로 인해 제명에 대해 정해놓은 기존의 입장이 유지되도록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아는 통치체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경우들이 생길 때마다 이전부터 확고히 굳혀져 온 전통적인 방침과 지침을 여전히 강력하게 지켰을 뿐 아니라, 당연한 정상적인 절차로 인식하였습니다. 협회 조직사의 어느 시기에 특정 사안이 제명 사유로 공식화되면 그 효력은 꾸준히 발휘되었으며, 지침 변경이 발의되어 3분의2 다수가 입장을 뒤집지 않는 한 그 원칙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모든 논쟁적인 경우들에서 대두된 “제명 처분”은 성서에서 명확히 죄로 정해 놓은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당수가 (통치체가 발행한 출판물에서 명기된) 협회 조직의 방침과 지침의 결과였습니다. 일단 공표가 되고 나면 그 방침은 견고히 확립되었으며,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은 그 기준에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에 견주어, 다음과 같은 예수의 말씀을 적절한 대답으로 삼는다면 잘못된 것일까요?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지우면서도, 자기들은 손가락 하

---

4) (역자): 5명 중 3분의2 이상의 다수결은  $5 \times 2/3 = 3.33$ , 즉 최소 4명이 되어야 한다.

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sup>5)</sup> 이에 대한 결정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 두겠습니다. 나는 단지 내 양심이 하는 이야기와 고수해야 했던 내 견해를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논쟁거리들에 있어 일반적으로 제명에 찬성하는 통치체 성원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기에 (또한 어떤 성서적 근거로-역자주) 그들은 규모가 큰 소수, 어쩌면 동료 성원들의 반 수 또는 그 이상의 수가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 직면해서도 제명 찬성 입장을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은 긴 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통치체 성원인 시어도어 재라스 *Ted Jaracz*가 다른 이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또 다른 성원인 대니얼 시들릭 *Dan Sydlík*처럼 슬라브계지만 재라스는 체격과 기질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시들릭이 종종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제에 있어 직감에 따라 마음을 정하는 반면, 재라스는 냉정한 기질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토론에서 재라스는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특정한 상황에 연루된 성원들에게 기존 방침은 고난의 조치가 될 수 있기에 이 문제에 관련된 성원들에겐 애석함을 금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저 두세 명의 성원들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주시해야 하는 거대한 규모의 조직이 있기에,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이 종교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종교 조직에 좋은 것이 조직 내 성원들에게도 좋은 것이고, 거대한 종교 조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

---

5) 마태 23:4, 신세계역 (2014년 판)

이라면 개인의 이익은 사실상 “희생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많은 성원들이 타당한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어떤 이들은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일은 “범법행위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을지도 모릅니다. 극단적인 나쁜 행동의 여러 예들이 토론 중에 있는 문제와 연계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거나 했다면, 이 예들은 “잠재적 위험”의 명백한 증거로 거론되었을 것입니다. 가결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주 많은 통치체 성원들의 생각이 변화 쪽으로 분명히 기운 경우들에서 흔히 그런 불길한 위험의 망령이 살아났습니다.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 한 경우에서, 밀턴 헨셀이 심각하게 주의를 촉구하며 “형제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도록 둔다면 나중에는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성원들과 더불어 그는 다른 경우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증인의 본분을 지키고 보호 울타리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켜져 온 방침들을 굳건히 유지해야 하며, 그래야만 증인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호 울타리”인 이 방침과 지침들이 실제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명백히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나는 기쁘게 찬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거의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는 회의 주제에 대해 글을 썼던 특정 장로들(종종 지부위원회의 임원들)이 성서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어떤 내용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사실로 보아 분명했습니다. 통치체 자체도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원들은 많은 점에서

논쟁이라 할 수 있는 긴 시간에 걸친 토론에서 자신들의 인간적 추론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본 장의 초반에 언급한 밀턴 헨셀의 말(‘형제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 하도록 둔다면 나중에는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에 뒤이어, 나는 형제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유일하신 하느님이 그들을 “허용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하느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그 행동을 분명히 정죄할 경우에는 명백하게 그리고 명시된 원칙에 따라 금지 의사를 밝히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불완전하고 실수하기 쉬운 우리(통치체)가 같은 인간에게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정할 수 있는 권위를 하느님에게서 부여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통치체 앞에서 “성서에 그 문제에 대해 명백히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하느님 놀이를 하려 합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경우 왜 하느님이 이들을 판단하도록 두지 않겠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견해를 주장했으나, 다수의 성원들은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정으로 그 생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의 잠재된 행동 혹은 미래의 행동까지 감안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면, 형제들은 의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조직의 지침 때문에만 영적 범죄를 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협회 잡지인 「깨어나라」(*Awake*)에 몇 년 전에 실린 어느 글이 생각납니다. 그 글에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일어난 경찰 파업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하루 남짓 동안 경찰력의 부재를 틈타 평상시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벌인 온갖 범법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사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경찰이 있건 없건) 합법적으로 행동할 것이며, 굳이 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이 그저 순전한 그리스도인 양심에 따라 움직이면 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정작 통치체는 (형제들의 양심에 많은 문제를 위임하지 않고- 역자 주) 조직내의 전통적인 지침(법)을 없애는 일이 형제들의 부도덕과 비행이 널리 퍼지는 “길을 여는” 것일 수 있다는 잠재적 예상만으로 이것이 위협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취했는지 의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통치체의 결정에 순종하지 못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제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명되면 회중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단절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결정에 순종하게 되면 직업을 갖는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 상대자의 바람에 반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으며, 이혼, 결혼 및 가정의 파탄, 그리고 자식과 부모의 이별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정해진 어떤 법을 준수하는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서 체포된 후 가족과 집을 떠나 감옥으로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실은 순응함으로써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는 것과 같은 훨씬 더 견디기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증인에게 있어서는 통치체의 결정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이다. - 역자 주)

초기에 내린 결정이 뒤바뀌게 되었을 때 생겨난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우병 환자가 치명적인 출혈을 막기 위해 혈액의 일부 성

분(혈액 응고 인자인 제8인자 같은 성분)을 사용했을 때 조직이 취한 입장입니다. 한 혈우병 환자는 수년 동안 본부(혹은 지부 사무국)에 문의를 했었지만, 그런 혈액 일부 성분을 한 번만이라도 수혈 받았다면 그것은 사실상 “치료”이기에 용납할 수 없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만일 한 차례 이상 받았다면 혈액의 일부 성분을 “주입 받아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수혈에 대해 성서에서 정한 금기를 어긴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년 후 이 방침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통치체가 결정을 바꾸어도 이것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와 관련된 증인 환자들은 수혈을 받는 것이 성서에서 금한 내용을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환자들은 이러한 입장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며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행정부는 새로운 입장이 인쇄되어 출판되는 것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문의해 오는 특정 성원들에게만 입장을 알렸을 뿐 간행물을 통해 알리지 않았습니다. 문서로 발행하려면 이전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먼저 설명한 다음, 지금은 그 입장이 쓸모없게 되었다는 점도 설명해야 했는데, 이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 조직의 성원들은 부지런히 서류들을 조사하여 문의 편지를 보냈던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변경 내용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조직의 성원들은 이렇게 마음의 부담을 덜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문의들이 전화 통화로 이루어져 당사자에 대한 기록이 온전히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의를 한 혈우병 환자가

누구였는지를 상당수 알아낼 길이 없었습니다. 이전의 결정이 새로운 결정으로 바뀌는 동안 어떤 이들이 죽었는지 이 성원들은 알지 못했으며, 접촉할 수 없었던 이들이 이전 결정을 지키다가 죽게 될지 여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조직의 높은 성원들에게 충성스럽게 복종하며 지시에 따랐다는 사실만 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 그릇된 지침에 순종한 것을 가지고 하느님께 충성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 역자 주)

이 방침의 변경은 1975년 6월 11일에 열린 통치체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 후인 1978년에서야 비로소 이 변경 내용이 간행되었는데, 다소 모호하게 진술되기는 했어도 예상과 달리 질병을 이겨내기 위한 혈청 주사 사용 문제를 포함해서 몇 가지가 1978년 6월 15일호(영문) 「파수대」에 활자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혈우병 환자가 혈액 일부 성분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관한 이전 방침의 변경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을 지내면서 수천 명의 성원들은 협회의 방침에 따랐고, 비록 그로 인해 고통 속에서 힘겨운 짐을 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방침에 변화가 일어난 지금, 성원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통이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느끼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런 식으로 고통 속에 있던 것이 “올바름을 지키기 위해 받은 고통”이라 여기며 나름 만족스러워 했을지라도, 이제 그들은 미몽에서 깨어나서, 다른 이들은 쉽게 벗어나기도 했던 사안에 대해 자신들은 순교의 형태를 견뎌낸 것이 불공평한 일이었다고 느끼지도 모릅니다. 성원들은 비록 자신은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다른 성원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면 기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전도인이 과중한 - 부당하기까지 한 - 세금으로 인해 농장을 잃었을 경우, 그 부당한 세금이 이후에 폐지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친구를 위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폐병으로 고통 받는 석탄 광부가 광산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자신은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 동료들을 위해 기뻐했을 것입니다. 단, 부당한 방침을 정한 조직이 그 책임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가한 일에 대해 뉘우쳤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통치체는 실수를 인정하는 일이 그들 스스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통치체와 조직의 이미지와 위신 그리고 성원들의 신뢰 유지에 대한 우려라는 측면에서만 이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를 지지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곳에는 변화를 막는 빈약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 빈약한 이유란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입니다. 통치체 회의에 제안된 주장들을 경청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미국 대법원 앞에서 당한 많은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반대측 변호사들이 내세운 주장들은 통치체 성원들이 내세운 주장들과 많은 측면에서 유사한 논거들을 보였습니다. 즉, 이 변호사들은 ‘잠재적 위험’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가호호 방문이 심각한 폐를 끼치거나 도둑질 및 기타 범죄 행위를 위한 속임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크므로,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대중 활동의 자유를 허용하거나 공원에서 전도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면 지역 사회가 전반적으로 적의에 찬 태도

를 갖게 되어 군중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기에 대한 경배 거부라든가 세속 정부를 “악마사탄이 조정하는 세력”으로 대하는 증인들의 성경해석을 진파하도록 놔둔다면, 지역사회의 이익에 해가 될 수 있고 반 애국심이 널리 퍼지게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동성이 있으므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관들은 이러한 반대측 변호사들의 주장이 허울만 그럴듯한 주장들이라고 밝히면서 이 주장들을 차단하는 팔목할만한 통찰과 이성의 명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재판관들은 단지 가능성 또는 잠재적 위험 때문에 개인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제재를 여호와의 증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적용하려면 그 위험이 “점점 더 커진다”고 여길 만한 그런 “공포” 이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명하게 현존하는 위험”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재판관들이 이러한 사법적 지혜와 진짜 문제가 무엇 인지를 간파하는 능력과 개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법적으로 호의적인 결정들을 상당히 많이 수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미합중국 대법원은 증인들이 정부를 사탄의 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고소 고발, 국기경배 거부에 대한 재판에서 그들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자체보다 인간에 대한 신뢰, 개인 양심에 대한 존중을 더 중시하여 여호와의 증인에게 유리한 판결들을 해주었습니다. 이렇듯 세상 재판관들이 보여준 판단과 고발 내용에 대한 정서적 접근은 많은 통치체 회의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 같았습니다. (많은 위치타워 출판물에서도 칭찬했던) 미국 대법원의 재

판관들은 통치체 성원들이 일반 전도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큰 존중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전도인들의 잠재적 위험이나 위험 가능성까지 판단하는) 통치체처럼 추론했다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건마다 패소했을 것입니다. 이런 판결들을 보면서, 통치체와 협회 임원들은, 심지어 세상 사람들을 사용하여 답변을 전할 것이라는 성서적 공표를 기억하여,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주의 깊게 숙고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통치체 방침의 큰 변화들이 출판물에 실린 것을 보면, 하느님의 통로로서의 조직의 “이미지”와 신성하게 임명되고 지도받은 행정가들로서의 통치체의 “이미지”에 대한 우려 말고는, 쓸데없이 고통 받았던 일반 성원들에게 변화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배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인상적인 예라면, “대체복무”를 수용하게 된 큰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대체복무는 의무 병역 입대를 양심상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 생겨난 대안으로서, 정부가 정해주는 (병원 업무 또는 기타 지역사회 지원 업무 형태의) 공익 근무를 의미합니다. 계몽된 많은 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을 위해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호와의 증인 조직과 이 조직의 통치체 내에서 보인 모습은 1996년의 방침 변경의 관점에서 볼 때 흥미로운 일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인 1940년대 초부터 워치타워 협회의 공식 입장은 한 명의 여호와의 증인이라도 그러한 대체복무를 받아들인다면 그는 타협을 한 것이고 하느님에 대한 성실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을 둘러싼 논리는, 이 복무는 “대체복무”이기 때문에 그 복무가 대체한 원래의 복무를 의미함으로(그러나 이 논리는 훗날 사라졌다), 군복무와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sup>6)</sup> 이 복무는 군복무를 대신 행하는 것이는데, 군복무는 (잠재적으로 최소한) 피를 흘리는 상황과 관련이 있으므로, 대체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방침은 통치체가 참다운 실체가 되기 전에 개진되었고, 프레더릭 프랜즈와 네이션 노어가 주요 방침에 관한 결정들을 내놓는 시기에 분명해졌습니다. 이 방침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증인 신분에서 자동으로 “소외”되고 회중에서 제명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파수대」 1996년 5월 1일호에서는 이 방침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카이사르의 것을 카이사르에게 바침” *Paying back Caesar's things to Caesar*이라는 제목의 기사 부록에 제시된 단락들을 통해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것만 봐서는 50년 이상 효력을 발휘하며 지켜져 온 협회 방침의 내력을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십년 전 이와 똑같은 방침에 관해서 통치체에서 결정한 일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통치체의 “3분의2 다수 가결 원칙”의 여파는 다음의 예에서도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1977년 11월에 벨기에에 사는 미셸 베버라는 여호와의 증인은 브루클린의 위치타워 본부로 편지를

---

6) 「파수대」 1990년 11월 1일호에서는 이 대체복무가 비성서적인 “타협적인 대체”라고 언급했다. 즉 이때까지도 대체복무는 영적 범죄로 정죄되었다.

보내, 조직의 대체복무 거부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해 왔습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고려할만한 주장은 무엇입니까? 공익 근무는 군복무의 대체안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부할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수혈을 거부하면 의사들은 고맙게도 혈액량을 대신할 수 있는 약품을 줍니다. 또는 피가 고인 고기를 받으면 거절하지만 그렇지 않은 고기를 받으면 우리는 감사해합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군에 입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군대에서 무기를 들거나 지니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무기 공장 등에서 일을 하도록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형제들의 우려는 자신들이 가장 먼저 군 징집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체복무의 하나인 공익 근무 기간 동안 이 젊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전쟁 형태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제복도 입지 않고, 정상 근무 시간 이후에는 완전히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그가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파이오니아만 어려울 뿐 그리스도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해결책을 받아들인다 해서 그것이 왜 그리스도인 규정을 어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1969년에 정한 이 법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즉시 회중에 이 문제가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형제들은 감옥에 가는 대신 이 대안을 받아들일 때 제명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감독자들은 회중 성원이 이런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 결정들이 개인적 양심의 문제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 형제들을 돕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여러분 형제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젊은 증인들이 장성하도록 돕기 위해 기율이

는 노력에 여호와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원한 형제 미셸 베버로부터

이 편지로 인해 통치체에서는 대체복무 문제에 대해 오래도록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첫 토론인 1978년 1월 28일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는 3월 1일에, 그리고 9월 26일에 다시 토론이 열렸고, 이어서 10월 11일, 10월 18일, 그리고 11월 15일에 마지막으로 토론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90여 개의 지부 사무국으로부터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편지에서 제시한 대로 많은 지부 사무실 위원회들은, 슬픔에 잠긴 남성 여호와의 증인들이 조직의 입장에 대해 논리적이거나 성서적인 근거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경우에서 지부 사무국들은 이것이 양심의 문제가 된다는 성서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미셸 베버가 사는 벨기에 지부 사무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펜실베이니아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수신: 통치체 - 저술위원회

미국 뉴욕 브루클린 11201

컬럼비아 하이츠 124

사랑하는 여호와의 증인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중립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귀하의 1978년 6월 6일자 편지를 받고 나서, 저희 지부 위원회는 기도하면서

속고해 보았습니다. 군복무 대신 대체 공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법이 마련되었지만 대부분의 형제들은 여전히 이를 모병소나 징병위원회, 혹은 기타 정부 기관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의 징역형을 받으면 형제들은 교도소의 주방, 청소, 사무일, 보수, 농사와 같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부는 국가 건물 관리를 위해 교도소 밖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군복무 대신 할 수 있는 대체 공익 근무를 하도록 선고가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선고를 받은 후에 대체 공익 근무에 속하는 일들과 똑같은 업무를 하도록 교도소나 법원이 명령한다면 형제들은 이를 타협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 이러한 입장을 성서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실제 선고 후 하는 일과 똑같은) 대체 공익 근무 수용을 왜 거부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형제는 별로 없습니다. 군복무와 정치 문제에 관한 한 그들은 성서에서 이 활동들을 비난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뿐, 실제로 공익 근무에 관해서 군복무 대신 이런 근무를 인정할 수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젊은 형제들만이 아니라 장로들도 이러한 입장을 설명하기 어려워합니다. 들은 얘기로는, 어떤 형제들은 때때로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이 그들을 대하는 판사들 앞에서 자신들의 중립적 입장을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대체 공익 근무는 잘못된 일이고, 협회도 동일한 관점으로 본다는 것을 알기에 군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의 받은 대체 공익 근무를 거부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형제들이 협회의 압박으로 대체 공익 근무 제의를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립 문제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몇 명의 형제들이 저희 지부 사무국을 찾아왔습니다. 인도적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체

공익 근무를 받아들여도 좋지 않냐는 일부 장로들과 젊은 형제들의 확신에 찬 설명에 이들 형제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모든 사람은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고 우리나라 협회가 이러 저러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들과 함께 대체 공익 근무에 관한 규정을 읽으며, 우리는 대체 공익 근무는 군복무법의 일부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체 공익 근무가 제안된 우선적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군복무법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체 공익 근무는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우리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인도적 근무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될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근무제가 만들어지고 선택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이사가 군복무를 대신하는 어떤 활동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형제들은 자신들의 그리스도인적 중립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생 질 브뤼셀에 있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우리의 형제들은 1978년 3월 23일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만찬일’을 기념하도록 허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합니다. 이 형제들을 면회한 장로들과 그 가족의 남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저희 지부에 문의해 왔을 때, 우리는 종교 모임 개최를 거부하는 것은 벨기에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므로 부모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의 번역본을 동봉합니다. 기쁘게도 결국 모임을 개최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으며, 형제들은 30일 후에 그들만의 기념식 모임을 가졌습니다.

결단의 순간에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저희의 따뜻한 사랑과 간절한 소망을 받아주시기를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로부터

지부 조정자의 이름으로 보내 온 벨기에 지부 위원회의 편지는 “충실”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는 협회 조직의 방침을 지키기 위해 위원회가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편지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 원칙을 이해한 대로 그 원칙을 성실하게 지킨” 경우가 아니었으며, 젊은이들이 대체복무를 거부하고 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된 원인은 “양심의 촉구에 대한 응답”이라는 그런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방침의 근거를 성서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형제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에 따르면 그들은 대체복무를 잘못된 행위이며, 협회도 그와 같이 판단하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에 근거하여 대체복무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대체복무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서에 기록된 바가 아니라, 협회의 의견을 참고했던 아니든 간에 인간에 의해서 문제의 옳고 그름을 결정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결국 그들이 2년간의 투옥으로 고통을 받은 것은 개인적 양심에 따른 결정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 판단에서 비롯된 방침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캐나다 지부 위원회도 당시 위치타워의 입장이 사실 논리적인 견지나 성서에 근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그들은 정부 당국과 슬픔에 잠긴 젊은 형제들에게 위치타워의 입장을 정당화하며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통치체

No. 341. 1978년 7월 28일

생각건대, 군과 아무런 관련도 맺지 않으려는 본 협회의 노력에 자신들이 고맙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그들이 인정할지 모르지만, 실제 맡은 일이 똑같은 일이라면 그 일을 지시한 기관이 어느 곳이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기관이 명령하는 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중립성 문제를 우리는 좀 더 명쾌하게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군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바라지 않으니, 이는 그것이 군 편제에 한 발 가까이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맡겨진 일의 형태가 그들에게 협력하기를 거부하는 근거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성서적으로 반대할 만한 일을 맡기는 법원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겠습니까? 자, 다시 업무 지시가 내려오는 기관보다는 양심적인 반응의 근거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얘기하게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같은 근거를 고수해야 하며, 이는 법원과 군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정해 놓은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형제들이 그리스도인의 중립을 기본으로 하여 성서를 통해 이 입장을 증명하면서, 어느 곳에서든 이성적으로 반응하여 정부 관리들이 각 종교의 개별적 견해를 배울 필요 없이 - 이들에게는 귀찮은 일이므로 -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화된 입장은 상급 당국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줄 것이고, 각각의 형제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형제들은 특정 정치·군사적 편제 때문에 도처마다 다른 수많은 모호한 결정들을 내릴 필요 없이, 어느 나라에서든 단순한 원칙들에 따라 자신들의 결정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형제들은 지부 사무국이나 브루클린본부와 연락을 취하든지, 아니면 (온갖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관계 기관에 연락을 취하든지 하면서 스스로 행동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의 체계와는 아주 다른 많은 국가들의 다양한 상황을 참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고 표준적인 입장을 고수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성서와 조화를 이룰까요? 우리에게 이 입장을 지지하는 성서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가이사를 존중할 것입니다(로마서 13장).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께 불복종하기를 요구하거나 그분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가 지시하는 활동에는 참여하기를 거부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2:21, 사도행전 5:29, 레위기 1:9). 1세기에 가이사가 지닌 “칼”은 종종 군인의 모습이었을 때 공개적으로 분명히 드러났지만, 칼을 찬 군인의 모습을 한 가이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존중심은 그리스도인이 군 체제의 일부가 되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군 당국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로마의 형벌 제도에는 노예 노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러한 노동은 종종 광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채석장은 파트모스 섬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일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늙어서 그곳에서 망명자 취급을 받을 수 있었다지만, 더 젊고 일할 수 있는 몸이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 광산들을 군대에서 운영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듯 세속의 정부 하에서 우리의 초기 그리스도인 형제들은 군대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얼마나 많이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어느 한도까지 명령을 받아들였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역사적인 연구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그저 행하고 만들고 생산해내도록 지시받은 일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고 거부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부터 지시를 받느

나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혹은 지금의 우리의 형제들도) 군 조직이 아닌 다른 세속 조직의 지시를 받을 선택의 여지도 가능성도 없는 체제 아래에서, 그저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만 했어야 할까요? 다른 이들은 군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에 살기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는데, 어느 형제는 군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국가에 산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우리의 결정을 위한 근거입니까? 과거에 세속 관계 당국과 군 관계 당국으로부터 받는 지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미국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이 입장은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 전 세계적인 상황에 들어맞는 것입니까?

오늘날 법원, 의회, 경찰, 모병소 그리고 군대는 “가이사의 권위”를 표현하는 곳들입니다. 어떤 식이든 전부 그의 기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서를 근거로 하여 협력을 거부하는 데에는 지시받은 업무의 성격에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난에 처했을 때 군대가 들어와서 노동이 가능한 모든 시민들을 조직하여 제방이나 강둑에 모래주머니 쌓는 일을 돕도록 했을 경우 우리는 가이사를 의미하는 군사체제의 지시라 하더라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지켜질지도 모르는 어떤 지시사항이 그리스도인 원칙을 위반한다면, 우리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는 재난의 희생자들을 위해 헌혈을 지시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경우에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 재난 구조 활동에 대해 군대에 협력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군대에 “입대”하지 않을 것이며 ‘모병’을 받아들여 군에 자원하지 않을 것이고, 군대와 타협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각 그리스도인은 이때에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중립이 기반이 되는 상황과, 인간의 행동과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도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 사도 4:19,20

이 문제를 간단히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A) 그리스도인이 군복무에 징집되면, 그는 양심적으로 거부한다. 군 당국과 관련을 맺고 징집을 하는 국가에서는 그가 이미 명단에 등록이 되었거나 다른 법률상 필요한 절차를 이미 마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모병을 거부한다. 일단 그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다음은 가이사가 반응할 차례이다.

(B) 이제 정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혹은 정부는 병역거부자에게 수년간의 징역형을 명령할 수 있다. 징역형을 받은 이후 어느 경우이든, 그가 요구받은 일이 무엇이든, 봉사캠프에서든, 농장에서든, 병원에서든, 감옥에서든 그는 이제 자신의 양심에 따라 그 일을 하고자 한 것이라면 해야 한다. 또한 병역 거부의 결과로 인해 고통을 자처하든 그렇지 않든, 군복무가 그리스도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 한편 그리스도교적 입장을 존중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인을 징집하려고 하지 않는 국가들에서도 동일한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이 국가들은 “대체복무”로서 (징역형을 내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일들을 수행하도록 명령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징역형을 받은 이후에) 해야 하는 일들과 같은 종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대체복무가 특별한 의미 없이 하나의 정상적인 용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따라서 대체복무라고 하는 것을 군대와와의 타협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반드시 징역형을 받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감옥에서든 봉사 분야에서든 혹은 기타 분야에서든 누군가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도록 명령받은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령기관, 근무지, 그리고 업무 현장의 관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심적 반응을 통해서 이 모든 변수들을 다 극복합니다. (미국과는

달리) 이와 동일한 일을 겪게 되는 캐나다에서 일어난 경우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깨끗한 양심을 지켜야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기관에 깊이 관여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문제들을 이해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귀하의 고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사랑과 간절한 소망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당신의 형제로부터.  
지부위원회

다음은 스페인 지부에서 보낸 편지에 제기된 몇 가지 논점들입니다.

###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수신 : 통치체  
미국 뉴욕 브루클린 11201  
컬럼비아 하이츠 124  
No. 254, 1978년 7월 28일

(2쪽)

이 프로그램에 협력하면서도 그들의 양심은 군 조직에 너무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행법 하에서 대체복무라는 문제에 대해 젊은이들과 토론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천주교 반대자들조차 (이들의 입장은 이념적인 입장일 뿐 종교적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조정안에 반대했고, 이들 중 일부는 대체복무 동의에 거부한다는 이유로 투옥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안은 재검토 중에 있으며, 새로운 대체복무 규정이 곧 마련될 것입니다. 이처럼 바뀌는 기간 동안 거부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질 것이며, 새 법이 발효되면 그때 다시 소집될 것입니다. 소수의 거

부자들은 사회 공익적 복무 수행에 관한 이 새로운 법에 따를 것을 서약하는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법안에 어떤 규정이 포함될지 알지 못하면서도, 한 사람도 아닌 여러 사람이 어리석게도 그런 약속에 서명했습니다.

어느 장로가 대체복무 문제에 대해 누군가와 토론을 하면,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대체복무가 그 원래의 복무와 매 한가지라는 점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참으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조직의 관점으로 장로들에 의해 전달되는 것이고 형제들은 성실히 이에 따릅니다. 그러나 많은 형제들은 우리의 논의가 다소 인위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합법적인 징병위원회 명령인 공익근무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합법적인 법원 판결인 형벌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장로들은, 전자는 군복무에 상응하는 안으로서 가이사가 만들고 고안한 복무이고, 후자의 경우는 처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는 일은 그대로 똑같은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법원이 강제하는 정치나 전쟁 같은, 이의를 제기할만한 복무는 어떤 상황에서 요구되든지 거부하고 거절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무 자체와 그 결과가 해가 되지 않는데도 가이사가 의도한 동기라는 이유로 어떤 근무는 되고 어떤 근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곳 형제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딜레마는 조화롭게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오늘날 스페인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적인 양심에 반하고 여호와와의 관계를 위협하는 일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이사의 명령에 최대한 따르는 것이 의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과 관련 없는 대체복무를 요구받게 되면 가이사에 대항할 논거를 찾지 못합니다.

(3쪽)

왜 다른 나라들에 사는 형제들이 군 징병 문제를 피하고자 자유의사로 대체 업무를 찾는지에 대해 우리 형제들을 명확히 이해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고린도 전서 7장 23절)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방식을 형제들에게 상기시키지만, 형제들이 보기에 어느 형제가 대체복무 수행을 요구받기 전에 다른 일을 찾는 것은 그저 절차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 형제의 진짜 동기는 군 복무의 대체안으로 인정될 복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부위원회의 한 성원은 이 글을 쓰기 위해 연구하면서, 수년 전에 중립적 입장으로 본보기가 된 세 명의 형제들과 다방면에 걸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성원은 세 명의 장성한 장로들과도 대화를 했는데, 그 중 다른 나라에서 온 두 장로는 개인적으로 스페인에서 중립 문제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복무의 많은 측면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나왔지만, 그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한 견해에 동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체복무”가 공익적 성격을 띠고 군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그 누구도 왜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장로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들은 종종 젊은이들을 사무국으로 보내어 대답을 얻어 오게 합니다. 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개인적 탐구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내세우는 주장과 논리가 충분한 확신을 주지 않아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명쾌하고 확고한 성서적 기반이 없어서일까요?

우리의 입장과 이 입장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우리 형제들이 이 분야에서 논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철저히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재난이 닥쳐와서 시민들을 도로 작업에 동원한 경우, 우리는 협력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복무에 대한 대체안으로 똑같은 일을 제의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중립을 어기는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나요? 그리스도인의 중립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치 운동이나 전쟁 주체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닌가요? 대체가 되는 민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인가요?

(4쪽)

이곳 스페인에서는 많은 형제들이 대체 공익 근무에 대해 추리하면서, 한 사람이 병역 대체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를 들고 전쟁 기계의 일부가 되어 근무할 또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자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익 근무가 병원, 양로원 또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기타 많은 곳에 속하는 일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이 공익 근무를 모든 것들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공익 근무가 실제로 성서에서 비난하는 어떤 조직을 직접 지원하는 일일 경우 우리 형제들이 그에 대해 취할 적절한 입장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 활동이 (군대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이롭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편한 파괴적이고 해롭고 정치적인 측면들이 없다면 이 대체안은 (군복무를 대신하는) 정말로 (군복무에) 상응하는 의미를 지닐까요?

젊은이가 20세의 나이에 이르면 그는 시정부로부터 그의 인생의 큰 부분인 2.3년 동안 군복무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젊은이가 개인의 양심상 군복무를 할 수 없다면 시정부는 그의 그리스도인 양심과도 조화를 이루고 여론의 공격도 피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제시하여, 그의 의무를 가볍게 면제해 줍니다. 그것은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내는 일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공물을 요구하는 그에게” 공물을 바

치는 일이 아닐까요?(로마서 13:7) 그것은 정말로 마태복음 5:41에 언급된 것처럼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바치는 더 많은 봉사”와 아주 다를까요?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일을 찾는 한 병역거부자가 그리스도인의 중립을 명백히 어기는 것이 아니면서도 군복무를 대신해서 맡겨진 일을 하면 회중으로부터 제명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서를 적용해보면, 그리스도인은 대사나 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국가의 시민권이나 여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이지만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성경 구절의 확장된 적용으로 과연 우리의 입장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5쪽)

앞선 질문과 관련해서, 대체복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참석한 스페인 지부위원회의 모든 성원들은 현재 입장을 재검토하고 보강하거나 혹은 수정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립이라는 제재는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출판물만을 통해서도 깊이 있게 고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원칙들이나 혹은 좀 더 충분히 설명되어야 할 기존 원칙들의 다양한 측면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장일치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토론한 또 다른 논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익 대체 복무를 담당하는 군 행정 당국과 관계가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든 군사 체제가 국가의 많은 활동들 즉 병원관리, 추수, 고속도로 보수 등을 감독합니다. 이행된 일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그 자체로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군 당국을 통해 임무가 주어지고 작업자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정부가 만든

법이 국방부장관이나 군대에 공익적 건설 사업이나 병원과 사회 수익 사업, 혹은 전쟁이나 정치 활동 등 이와 같은 유사한 상황을 관리하도록 권한을 준다면, 정부의 이런 제도에 복종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중립을 위반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는 여호와와 그분의 그리스도인 조직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기 위해, 혹은 우리 형제들이 신실하게 하느님에 대한 봉사를 계속 이어 나가며 그분의 승인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 통치체로부터 명쾌한 답변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사랑과 간절한 소망을 열렬히 보내며  
당신의 형제로부터  
여호와와의 증인 협회<sup>7)</sup>

나는 개인적으로 같은 관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역사적이고 성서적인 14페이지의 증거 자료를 통치체 회의에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언급된 여섯 번의 통치체 회의 중 마지막 세 번의 회의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978년 10월 11일 모임에 참석한 13명의 통치체 성원들 중 9명은 기존 방침을 변경하는 것에 찬성하여, 대체복무를 인정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지 4명만이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9명은

---

7) 이 방침이 슬픔에 잠긴 여호와와의 증인 남성들과 여러 나라의 지부위원회 성원들 모두에게 중대한 문제를 제시해 준다는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글들과 인용들을 보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찾아서」(In Search of Christian Freedom) 영문 256-270쪽을 참조할 것.

(당시 정원이던) 16명의 3분의2가 아니므로 방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0월 18일에는 이 주제에 대한 2차 토론이 있었으나 투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에 16명의 모든 성원들이 참석했는데, 당시에 각 지부에서 올라온 성서적 논리와 역사적 고찰을 종합해 볼 때 양심상 대체복무를 수용할 수 있으리라고 여긴 여호와의 증인은 다수였으며 이런 분위기라면 당연히 방침 변경에 찬성하여, 젊은 증인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 마냥 회중으로부터 제명되지 않도록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이 지난 후, 방침 변경에 찬성하는 3분의2 다수 쪽에 표를 던졌던 로이드 배리가 생각을 바꾸어 전통 방침을 존속시키자는 데 찬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3분의2 가결 원칙에 따라 이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연이어 15명의 성원들이 참석한 투표가 진행되었지만, 9명 찬성에 5명 반대, 그리고 1명이 기권을 했습니다.<sup>8)</sup>

이렇게 여섯 번의 통치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토론했고, 투표할 때마다 통치체 성원들의 대다수는 기존 방침의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3분의2 가결이 이루어지는 듯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내오는 편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젊은이들은 대체복무를 수용하기보다 투옥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치체 성원 다수는 양심상 대체복무의 수용이 하

---

8) 로이드 배리가 자리를 비웠다. 나의 기록에 따르면 방침 변경에 찬성을 한 성원들은 존 부스, 유에트 치티, 레이몬드 프랜즈, 조지 갱거스, 리오 그린리스, 앨버트 슈로더, 그랜트 수터, 라이먼 스윙글, 그리고 대니얼 시들릭이었다. 반대표를 던진 성원들은 케어리 바버, 프레더릭 프랜즈, 밀턴 헨첼, 윌리엄 잭슨과 칼 클라인이었다. 시어도어 재라스는 기권했다.

느님의 관점에서 적절한 것이었다고 느꼈지만, 믿기 어렵게도 전통 방침은 이런 식으로 고수되었고, 통치체 성원 대부분은 이 모든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효력을 발하고 있는 기존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후인 1979년 9월 15일에 또 다시 투표가 행해졌지만, 이때에는 오히려 찬성과 반대가 반반으로 양분되었습니다.

이후 16년간 그 방침은 그대로 효력을 발휘했으며, 1996년 5월 1일에 이르러서야 「과수대」는 돌연히 대체복무의 수용은 이제 양심의 문제<sup>9)</sup>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던 16년 동안 수천 명의 젊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복무의 대체안으로 부여된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 복무 수행 임무를 거부하며 감옥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1988년 말에 국제사면위원회는 한 보고서에서 “프랑스에서는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들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한 해 동안 500명 이상 투옥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이탈리아에서는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들인 대략 1,000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복무나 대체 공익 근무 수행을 거부한 죄로 10개의 군 형무소에 나누어 투옥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sup>10)</sup>

이러한 상황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978년에 한 명의 통치체 성원이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만 않았다면 이 젊은이들 중 그 누구도 감

---

9) 증인들에게 양심 문제라 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 처분에서 제외되는 사안이라는 말이다.

10) 최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워치타워 협회는 정부로부터 어떤 확실한 지위도 달성하거나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대체복무에 관한 방침의 변화는 이런 것들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부 사무국 위원회가 제공하는 명백한 증거로 보아, 구속이라는 상황을 양산한 것은 젊은이들의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직적으로 부여된 방침을 지키게 하려는 강요였던 것입니다. 변경된 방침은 의심할 여지없이 환영받았습니다. 비록 50년이 걸리긴 했지만, 이처럼 개인적 양심의 영역에서 조직의 영향력을 제거했다는 것은 확실히 의미가 큰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 젊은이들이 자유를 박탈당한 그 무수한 세월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감옥 안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자들의 경제에 도움도 주지 못하고, 그 외 어떠한 보람된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종교 조직의 권위가 강요한 비성서적 입장, 즉 불필요했던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소중한 세월을 터무니없이 낭비해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교리상의 오류까지는 아니더라도 타인의 양심의 권리를 악의적으로 침범하는 오류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강요의 나쁜 결과에 대해 조금이라도 후회하며 솔직히 인정하기만 했어도, 사람들은 조직에 대해 진지한 칭찬을 하거나, 심지어 기초적인 개혁이라도 이루어지겠다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1996년 5월 1일호 「파수대」는 그 어디에서도 이러한 요인들을 다루지 않고 있었으며, 반세기 동안 집행된 잘못된 입장의 효과를 누우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치타워는 잘못된 방침을 50년 동안이나 확고하게 주장한 이유에 대해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치타워가 칙령을 내리듯이 변화를 담은 몇 문장에서 효력을 발하는 문구는 “이 경우에 있어 이제는 양

심에 따를 수 있다.” 정도뿐입니다. 조직은 사과를 하는 대신 방침 변경을 한 것이 박수 받을 만한 업적이라고 여기는 것 같지만, 통치체 내부와 지부 사무국 위원회들이 성서에서 찾아 보내온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방침에 대해 통치체 회의는 이미 몇 십년 전에 훌륭한 판단력과 겸허함으로 변경해야 했습니다. 일부 지부 위원회는 1996년 5월 1일호 「파수대」에서 지적한 성서적인 그 모든 증거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고 신중한 성서적 근거를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쓴 글은 당시 전통 방침을 유지하기 원했던 통치체 성원들로부터 사실상 무시되고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지부에서는 “성서 시대에도 군대가 지휘하는 대체복무를 이행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로마 통치 하에서 이루어진 강제 노역에 대한 묘사를 역사서에서 발췌한 짧은 인용문과 예수의 형주를 나를 수밖에 없었던 시몬의 예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내가 18년 전 통치체에 제출한 비망록에는(1978년) 이와 동일한 증거를 보여주는 열네 쪽에 이르는 증거가 담겨 있는데, 이 비망록은 또한 “세금”(tax, 히브리어로 ‘마스’, 그리스어로는 ‘포로스’)에 해당하는 성서적 용어가 의무복무 형태의 일로 지불되는 보수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도 보여주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는 기록이었습니다. 1996년 「파수대」에서 인용한 바 대체복무의 인정을 지지하는 성서의 주요 구절인 마태 5:41과 27:32, 베드로 전서 2:13과 디도서 3:1,2과 같은 구절들은 내가 제출한 비망록뿐만 아니라 성서에서 대체복무를 인정했다고 추론한 지부 위원회들의 많은 편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러한 성서적 증거를 1978년에 다시 제시하였으나, 방침 변경이라

면 어떤 것이든 반대를 하는 통치체 성원들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18년 간 전통 방침은 계속 더 많은 고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류조차도 - 그것이 파수대의 오류라 해도 -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유익한 것으로 제공되곤 합니다. 같은 해인 1996년에 발간된 「파수대」에서는 초기에 증인 조직이 범한 로마서 13장의 “더 높은 권력”이나 “우월한 권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설명해 놓았는데, 즉 그 해석은 이 구절들이 세속 정부의 권위를 의미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더 높은 권력”은 하느님과 그리스도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잘못된 해석이 그 이전의 (현재 기준으로) 바른 견해까지도 대신하여, 1929년부터 1962년까지 교육되었습니다. 「파수대」 1996년 5월 1일호에서는(14쪽) 이 같은 잘못된 이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여호와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주권을 드높이는, 사물에 대한 이러한 견해가 하느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기 중 내내 타협할 줄 모르는 중립 입장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사실상 사도 바울이 그의 권고를 글로 남겼을 때 의도했던 그 올바른 이해가 길을 안내함에 있어 충분치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며, 또한 위치타워 조직이 가르친 그릇된 견해가 오히려 나름대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오류를 통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예는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위기의 시기에 오류가 아니라 진리로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 요한 1서 1:5; 시편 43:3; 86:11.

「파수대」 1998년 8월 15일호에서는 군복무를 대신하는 대체복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다루었습니다:

**불필요하게 고난을 겪었다는 생각이 들 경우**

<sup>6</sup> 과거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으로서는 자신의 양심으로 허용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고통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해 전에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종류의 시민 봉사와 관련하여 거부하는 쪽을 택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형제는 현 사물의 제도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 증명을 범하지 않고도 양심적으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sup>7</sup>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과거에 거부하여 고난을 겪었던 일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으므로 그분이 불의하신 것입니까? 그러한 경험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주 주권의 장점에서 자신들이 확고한 태도를 나타내기로 결심하였음을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낼 기회를 가졌던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비교 욥 27:5) 자신의 양심에 따라 여호와의 위해 확고한 태도를 취했던 일을 후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라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인 원칙을 옹호함으로써 혹은 양심의 소리에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벗이 되기에 합당함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혼란에 빠지게 하거나 어쩌면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행로를 피하는 것은 확실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면에서 사도 바울이 세운 모범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고린도 첫째 8:12, 13; 10:31-33.

<sup>8</sup> 여호와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을 비롯하여 그 밖에 약 600가지나 되는 매우 다양한 법에 순종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인 마틴 아래서는, 여호와의 섭기는 데 그러한 법들에 순종하는 것이 더는 요구되지 않았

으며,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하였습니다. 더는 구속력이 없는 법들 가운데는, 할례, 안식일을 지키는 일, 동물 회생을 바치는 일, 특정한 음식 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일에 관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첫째 7:19; 10:25; 골로새 2:16, 17; 히브리 10:1, 11-14) 사도들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율법 계약 아래 있었을 때 순종하도록 요구되었던 법들을 지킬 의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에게 요구되었던 일들이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하느님의 마련이 의롭지 못한 것이었다고 불평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목적을 더 넓게 이해하게 된 데 대해 기뻐하였습니다.—사도 16:4, 5.

<sup>9</sup> 현대에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매우 엄격한 견해를 가진 중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된 덕분에 그들은 사물을 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전에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한 것에 대해 후회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러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충실함을 유지하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려는 태도를 분명히 나타낸 것은, 다시 말해서 '좋은 소식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하'려는 자진성을 분명히 나타낸 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종류의 경건한 정성을 축복합니다. (고린도 첫째 9:23; 히브리 6:10) 사도 베드로는 통찰력 있게도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을 인내한다면, 이것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베드로 첫째 2:20.

이것을 보면 성서적 근거가 전혀 없는 방침과 지침으로 사람들의 생활에 해악을 끼친 것에 책임지려는 의도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투옥된 고통들은 (조직의 책임이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성실히 지키거나 혹은 개인적 양심에 반응하여 어떤 형태의 공익근무라도 거부한 개인들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쟁 시 유혈 사태 참여나 무력과 폭력이 동반된 군대에 참여하는 문제였다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그리스도인 원칙에 관해 머리와 마음으로 분명히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이 중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부가 이러한 영역들에 있어서 양심적 거부를 고려했기 때문에 “대체복무”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이러한 상황의 현실성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저술위원회를 구성하는 다섯 명의 통치체 성원들은 적어도 제대로 읽어보기라도 하고 이 기사를 승인했어야 합니다. 각 나라의 지부들은 자국의 젊은이들이 그 방침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이해하지 못하여, 결국 그리스도인 원칙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종교 조직의 지침에 대한 복종 때문에 대체복무를 거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이 보고 내용을 봤다면 여기에 제시된 내용이 얼마나 부정확한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부 위원회가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실제로 여러 형태의 대체복무를 승인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태국과 같은 나라들의 지부 위원회 성원들이 보낸 1978년 편지들은 영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찾아서 *In search of Christian Freedom*」라는 책의 259-

266,398,399쪽에서 그 인용문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이러한 논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교할 만한 표현들은 지부 위원회에서 온 수많은 편지들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수대」 1998년 8월 15일호에서는 그 방침을 지키느라 고통을 겪은 한 전도인을 소개할 때, 이 문제를 상당히 왜곡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과거에 거부하여 고난을 겪었던 일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으므로 그 분이 불의하신 것입니까? 그러한 경험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주주권의 쟁점에서 자신들이 확고한 태도를 나타내기로 결심하였음을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낼 기회를 가졌던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습니다. (비교. 욥 27:5) 자신의 양심에 따라 여호와를 위해 확고한 태도를 취했던 일을 후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라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인 원칙을 옹호함으로써 혹은 양심의 소리에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벗이 되기에 합당함을 증명한 것입니다.

「파수대」 1998년 8월 15일호 기사는 유대인들의 경험, 즉 모세의 율법과 이 율법에 대한 복종의 요구 아래에 있었으나 나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요구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경험에서 이 상황을 유추하려고 애쓰으로써 과거의 오류를 무마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았던 것들을 지켜야 했던 일에 대해  
하느님의 조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불평했습니까?

이 비교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경우 하느님은 직접 세부사항들을 그것에 넣어 유익한 목적을 이루었지만, 대체복무를 거부했던 협회의 임의적 방침에는 그분 자신이 그 어떤 것도 부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자신들의 가르침”이며 “인간의 명령” 즉 “하느님의 말씀을 공허한 것으로 만든” “인간의 전통”입니다. 여기서 통치체는 관심을 자신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돌리려고 시도하면서 마치 하느님이 “불필요한 고통”에 대한 책임을 방어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행실과 해로운 결정에 대해 진심 어린 후회를 하기보다는,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종교 조직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권위와 통제력의 축소를 회피하는 것이라는 점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호와의 증인 조직의 결정이 전도인들에게 커다란 통제력을 발휘하고 그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였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내가 통치체에서 9년 간 목격한 엄청난 모순 중 하나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자세”와 “조직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 “더러운 것을 멀리함”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충격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을 어떻게 얼버무리고 은폐하

면서 넘어갈 수 있었는지 지금도 나는 믿기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이런 표현이 과연 적절한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중 표준

C r i s i s   o f   C o n s c i e n c e



...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 행하고 지키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따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 23:2,3

워치타워 협회의 출판물에서는 훌륭하고 도움이 될 만한 논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사들에서는 빈번히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지지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장려하며, 정직하기를 권고하고, 겸손과 그 밖의 선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여, 성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기사들에서는 종교적 기만과 위선에 대한 반대를 강력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쪽에 수록된 「파수대」 기사가 그렇습니다.

워치타워 협회는 “많은 종교 조직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하느님의 의로운 기준과 방도를 위반하고 비행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회칠하고’ 묵인한다.”고 묘사하며, 자신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 죄가 없다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워치타워의 출판물들은 그러한 종교 조직 내부의 비행들과 위선의 증거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명백하게 앞장서왔

으며, 그러한 종교지도자들이 미혹하는 면에 있어서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유사하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공공연한 입장인 윤리적인 완전함, 더없이 올바르고 정직한 교제, 그리고 의로운 기준을 철저히 고수하는 것에 대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 당신은 사실을 숨기면서

### 하나님께 충실할 수 있는가?

**거**짓말을 묵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침묵은 거짓말이 사실처럼 전달되도록 도우며 거짓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그들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게 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행동과 부도덕을 덮어두고 눈감아 줄 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것은 법군이 감열되었을 때 그것을 치료하려고 진정으로 노력하지 않고 그것이 계속 퍼지도록 방임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는 근원으로부터 위험을 당하거나 그들이 친구로 간주하는 사람들로 부터 속임을 당할 때 그들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 불친절한 일입니까? 그들은 경고를 믿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심지어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경고를 할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납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충실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당신에게 지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역사상 어느 기간

에나 하나님의 종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하는 도전에 직면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과 범죄를 폭로하고 사람들에게 위협과



당신은 사실을 숨기겠는가 . . . ?

파수대-1974년 5월 15일

속임수를 경고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순결한 승배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침묵을 지키거나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실하고 이웃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입을 열어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번개는 숨은 사랑보다 나오니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잠언 27:5.

#### 계속되는 본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상태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대에 세운 본을 고려하여 보십시오. 범죄가 그 나라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부정직, 폭력, 부도덕 및 위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숭배한다고 공언한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정을 환영하였습니까? 그와는 반대로 성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알려줍니다.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췌경에서 돌이키라." -이사야 30:9-11.

종교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바로 그렇게 함으로 인기를 구하였고 범죄를 묵인하였고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과 길을 범하는 것을 '회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 예언자들에 대한 교훈은 예언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찌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에스겔 33:7, 8.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대로 그 나라에 멸망을 가져오셨습니다. 그 당시 충실히 그의 말씀



. . . 아니면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가?

233

그러한 입장에 서있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 통치체 내부에서 대체복무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었을 때 드러난 소식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멕시코에서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식 자체로도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지만, 나를 훨씬 더 중요하게 했던 것은 그 나라에서 채택된 조직의 입장이 다른 어떤 나라에서 채택된 입장과 너무나 대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조된 입장을 보인 나라는 이전에는 니아살란드라고 불렸던 동부 아프리카의 말라위였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에 대한 확실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1964년 초에 말라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근래에 거의 경험할 수 없었던 대규모의 박해와 폭력을 겪었습니다. 전국적인 악의에 찬 공격의 물결이 계속되었고, 격노한 폭도들의 잔인함이 1964년, 1967년, 1972년, 그리고 1975년에 그들을 휩쓸었습니다. 첫 번째 습격에서는 말라위의 1,081 가구가 그들의 작은 보금자리가 불타거나 다른 방법으로 파괴된 것을 목격했고, 588 필드의 수확물도 파괴되었습니다. 1967년의 공격에서는 천 명 이상의 여호와의 증인 여성들이 강간당했으며, 한 어머니가 여섯 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동안 그녀의 열세 살 된 딸은 세 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최소한 40명의 여성이 유산의 고통을 당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동안 정부 당국이 사실상 아무런 저지도 하지 않았기에 곳곳에서 구타와 고문과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났으며, 수천 가구가 그들의 집과 농경지를 버리고 이웃 국가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1972년에 정부 당국은 8,975명이 잠비아로, 11,600명이 모잠비크로 피신했다고 추산했습니다. 폭동이 수그러들자 피신했던 가구들은 하나둘씩 그들의 고

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폭동이 일어나자 그들은 다시 쫓겨 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더 비극적인 것은 어린아이들이 약품과 의료지원의 부족으로 수용소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sup>1)</sup>



※ 「깨어라」 영문 1968년 2월 8일호, 1972년 12월 8일호 각각 “말라위의 그리스도 반대자들의 잔혹함”과 “그리스도인의 피난, 말라위의 잔혹한 박해”라는 대표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폭동의 회오리를 둘러싸고 있는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유력한 지배 정당의 당원증을 여호와의 증인들이 구입하지 않기로 한 일이었습니다. 말라위는 종신대통령인

카무즈 반다 Dr. H. Kamuzu Banda가 당수인 말라위 국민의회에 의해 통치되는 단일 정당 국가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지부 사무실에 문의했던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러한 당원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립성을 위배하고 타협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께 불성실하게 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계 본부에서는 지부의 그 입장을 지지했고, 위치타워 협회의 출판물을 통해 세부 지침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말라위의 증인들 대부분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러한 입장을 견고히 지켰습니다.

1) 이러한 일련의 폭력 사건 및 난민 캠프의 상황에 대해서는 「1965년 여호와의 증인의 연감」(171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깨어라」 영문 1968년 2월 8일호, 16-22면; 「파수대」 영문 1968년 2월 1일호, 71-79면; 「깨어라」 영문 1972년 12월 8일호, 9-28면; 영문 1975년 12월 8일호, 3-13면 참조.

무방비상태의 사람들을 향해 말라위에서 행해졌던 잔인한 만행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 마음 속에 한 치의 의문도 없습니다. 말라위 정부와 당국의 공무원들은 국민 모두를 그들의 정책에 따르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당원증을 소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정부 조직에 대한 명백한 충성의 증거라고 여긴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패하고 범죄적인 방법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브루클린 중앙 본부에서 지지한, 그 지부에서 채택한 입장에 대해서 나는 마음속으로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975년에 나는 말라위의 여호와의 증인을 대상으로 일어났던 테러에 관한 당시의 캠페인에 대해 집필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 당원증을 구입하는 데 있어 왜 그토록 신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이전에 출간된 출판물들을 통해 이들 말라위의 증인들과 로마시대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제단 위에 향을 올려놓음으로써 로마 황제의 수호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동을 거절했었습니다.<sup>2)</sup> 하지만 정작 비교를 하면서도 나는 그 유사성이 적절한 예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단에 향을 올려놓는 행위가 분명한 숭배의 행위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원증을 구매하는 것도 명백한 숭배의 행위가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나는 당원증을 구매한다는 것이 숭배 행위에 해당한다는 어떤 강력한 논

---

2) 이 내용은 「깨어라」 영문 1972년 12월 8일호, 20면에 실려 있다(한국어판은 1973년 2월 22일호, 20면). 내가 쓴 기사는 「깨어라」 영문 1975년 12월 8일호에 게재되었다.

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원증을 구매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립을 범하는 것이며 하느님에 대한 성실을 깨뜨리는 것일까요?

당시 나는 그 문제에 대한 견해를 완전히 구체화시키지 못했으며, 지금도 그 점에 대해 독단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이 들었던 의문은, 내가 지금 통치체 성원으로 속해 있는 이 조직에서 그런 당원증을 구매하는 것이 하느님에 대한 불성실한 행동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러한 확고한 비타협적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점은, 당원증이 ‘정치적인’ 카드로서 ‘정치적’ 정당의 당원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정치적”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나쁜 것들을 설명하는 부정적인 용어로 받아들여집니다. 수 세기에 걸쳐 타락한 정치인들은 그 단어를 나쁜 의미로 만드는 데 기여해 왔고, 이런 의미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몇몇 종교인들의 위선 때문에 “경건한<sup>pious</sup>”이라는 단어가 종종 ‘경건한 척 하는 모습’이나 ‘거짓으로 거룩한 척하는 모습’ 등을 연상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건한”이라는 단어는 실질적으로 하느님에 대한 충성스런 경외심과 열정적인 헌신과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라는 단어도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치에 대한 고정된 또는 통상적인 체계를 가지는 것; 시정 *civil government*과 그 경영에 관련된; 국정이나 국가적 법령과 관련된; 국가<sup>state or nation</sup> 또는 국가들<sup>states or nations</sup>에 속하는; 시영의 또는 지

방자치와 구별되는; 정치학 또는 정치 조직을 다루는; 용례: 정당  
*political party*(정치적 모임)<sup>3)</sup>

“정치적*political*”이라는 단어와 “정치*politics*”라는 단어는 단순히 고대 그리스에서 “도시*city*”를 의미하는 “polis”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현재 “대도시, *metropolis*”같은 말에서 사용됩니다.) 그리스에서 “폴리테스”는 “시민*citizen*”을 의미했으며(영어에서의 “시민”은 “도시, *city*”를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됨), 형용사인 “폴리티코스”는 “시민의, 국가의”를 의미했고, 영어의 “political”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영어는 이러한 단어들을 라틴어를 통해 받아들였는데, 라틴어에서 “폴리티아”는 단순히 “시민권*citizenship*”, “국가*government*”, “경영*administration*”등을 의미합니다. “경찰*police*”이나 “정책*policy*”이라는 단어들도 모두 같은 어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로 볼 때 모든 국가는 분명히 ‘정치적인’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정치적인 존재이며,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 조직체’(*polity*, 그리스어 “폴리테이아”에서 유래함)로서의 국가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에 속해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정치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구성원으로서의 유익을 누리면서 그에 수반되는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의 요구에 대해 어떤 사람이 순종해야 하는 범위는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

3) 「새 웹스터 사전」, 디렉스 백과사전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 또는 사자로 여기며 순종해야 한다고 권고했던 것처럼,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 및 정치적인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 활동 자체 때문에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활동은 부패할 수 있으며, 로마의 정치 상황이 극도로 부패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국가의 시민권(정치적인 state 또는 nation의 일원이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라는 단어가 그 기본적인 원래의 의미를 벗어나, 개인적인 권력과 영광이나 지위 혹은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의 책략이나 계략이라는 부가적인 또는 하위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대개 권력에 대한 정당끼리의 경쟁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즉, 정치 활동과 관련된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악한 것이며, 정치적 활동이 없다는 것은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아 국가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내가 의문을 가지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당 정치로 특징지을 수 있는 정치적 투쟁이나 격렬한 경쟁으로부터 사람들이 왜 양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싶어 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위의 상황에서 나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했던 것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말라위는 단일 정당 국가라는 것입니다. 말라위 국민의회(Congress Party)는 다른 허가된 정당이 없이 국가를 통치하는 유일한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실상 정부 그 자체와 동일한 개념이며, ‘위에 있는 권위’인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시민이 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정치 연합체의 한 성원이 되는 것이 하

느님에 대한 충실함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라면, 국가 수장의 명령으로 하달된, 모든 사람에게 지배 정당의 당원증을 구입하라고 하는 정부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 하느님에 대한 성실함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것들 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내 자신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성서 시대에 아브라함, 다니엘, 예수와 그의 사도들 및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조직이 표방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러한 정부의 요구에 순종했을 것인가? 말라위에서 당원증 구입 의무에 대한 법률이 실질적으로 통과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배 권위에 의해서 전 국가적으로 시행된 명령에 직면해서, 그러한 전문적 사항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았는가?<sup>4)</sup>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주십시오. 세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공세를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공세를 내고, 두려움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존경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존경을 나타내십시오.”<sup>5)</sup>라는 사도들의 권고에 비추어 볼 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았겠는가?

그러나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요구에 순종하는 것을 정치 권위자들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타협’ 하는 것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많은 독실한 유대인들은 증오의 대상인 로마 황

---

4) 마태복음 17:24-27 참조. 여기서 예수께서는, 어떤 세금은 낼 필요가 없으나 “권력자들에게 반대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5) 로마서 13:7.

제의 군인이 어떤 짐을 5리만 옮겨달라고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하는 것을 너무나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요구에 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처벌과 박해로 고통 받는 것을 감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순종하고, 5리뿐 아니라 10리도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6)</sup> 이러한 권고는 의심의 여지없이,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비위에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대해 이방인에게 협조하지 않는 견고한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이교도의 힘에 비겁하게 항복했다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궁극적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엄중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나 자신부터 매우 분명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채택된 어떤 입장을 선포하거나 주장하기에 앞서, 그것이 인간의 논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의 기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신념 말입니다. 나는 말라위의 상황에 취해진 입장에 대해 성서가 그렇게 분명하고 명백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을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한 당원증 구입하기를 거부해야 한다고 양심에 찢리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며,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로마서 14장 1-3절과 23절<sup>7)</sup>에 나온 사도들의 권고에 따라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

---

6) 마태복음 5:41.

7) 이 부분은 다음과 같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가까이 받아들이고,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지는 않지만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가까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다면 그는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양심을 다른 사람이 강요한다든지, 특히 성서와 진리로부터의 전폭적인 지지도 없이 그러한 입장을 견고한 표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도 고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근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대체복무 제도에 대한 통치체의 토의 중 드러난 정보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말라위와 관련된 그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반하는 것들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한 성원들은 많은 성명서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은 말라위의 증인들에게 장려된 엄격하고 굽힘 없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명서들은 대체복무에 대한 현재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그러한 성명서들의 내용입니다:

아주 약간의 타협이나 의심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중립성을 분명히 고수함으로써 ‘세상의 일부가 아님’을 나타내야 한다. 종교, 정치, 군대와 같은 세상으로부터의 그러한 영향력을 가까이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입장이다. 우리는 회색지대를 원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 원한다.<sup>8)</sup>

---

8) 이것은 통치체 성원 로이드 배리의 각서이다.

… 군복무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신에 민간업체에서 일을 하는 것은… 가이사의 전쟁 기구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한 암묵적이면서도 은연중인 승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군 제도를 지지할 필요가 없다.<sup>9)</sup>

판사에게 병원일이나 그와 유사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의 한사람으로서 판사와 ‘협상’을 하는 것이 될 것이며, 하느님에 대한 신실함을 깨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sup>10)</sup>

대체 민간 복무를 승인하는 것은 전체적인 조정안에 대해 정신적으로 지지하는 것의 한 형태이다.<sup>11)</sup>

우리는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단호해야 하며…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이 범위를 허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형제들은 자신의 양심을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sup>12)</sup>

만일 우리가 가이사에게 항복한다면 인정된 증인은 없는 것이다.<sup>13)</sup>

이러한 대체복무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쉬운 행로를 택하는 것이다.<sup>14)</sup>

내가 놀랍게 생각했던 것은, 이러한 강력하고 비타협적인 성명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 이것들을 만든 사람들은 멕시코에서 벌어지

---

9) 통치체 성원 칼 클라인의 각서이다.

10) 통치체 성원 프레더릭 프랜즈의 말이다. 이것은 윌리엄 잭슨이 폴 트래스크에게 쓴 편지에 적혀 있다.

11) 덴마크 지부위원회의 편지이다. 로이드 배리의 각서에 인용되었다.

12) 통치체 성원 시어도어 재라스의 말이다.

13) 통치체 성원 캐리 바버의 말이다.

14) 통치체 성원 프레더릭 프랜즈의 말이다.

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사한 대체복무에 대한 지부 위원회의 보고서의 내용들을 각 성원들에게 배포했을 때, 그 안에는 멕시코 지부 사무실에서 보내온 문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병역 의무에 대한 신원증명서 *Identity Cartilla for Military Service*”를 다룬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까르띠야 *cartilla*”는 증명서를 의미함).

“병역 의무에 대한 신원증명서”는 1년간 병역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다. 증명서를 가진 사람은 병력 동원령 또는 최소한 주둔령이 효력을 발휘함에 의해서 국가가 그들을 부를 때 그들 자신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규례 136-139, 6쪽 참조)

그러나 군대 또는 징병당국의 구성원이 돈을 지불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것을 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러한 법을 어기고 있다. (규례 50,51, 21쪽; 규례 3, 29쪽; Instructive number 1, 1977.9.16., 2쪽, 3-4문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주간 교육에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기록해 달라 하거나 그들에게 발급하는 문서를 완전히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달라 하는 등, 이런 저런 핑계로 군복무를 회피할 수 있다. 멕시코에서 이러한 일은 매우 일상적인 것이다. 멕시코 정부는 법률적으로 정당한 사유도 없이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공무원들이 군복무 증명서를 만들어주는 행태를 근절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한 장성의 말에 의하면, 공화국의 대통령인 호세 로페스 포르티요 *Licenciado Jose Lopez Portillo*는 1978년 5월 5일 국기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기념식에 참석하여, 100,000

명의 젊은 징집자들 앞에서 “군은 병역 의무에 대한 신원증명서를 얻기 위한 불법적인 행동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장성은 말하기를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군복무에 대한 불법행위를 최후의 일각까지도 뿌리 뽑을 것이며, 모든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 지자체의 징병위원회에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다. (El Heraldo, 1976.5.6. 참조)

이 법률과 관련된 “불법적 행위”에 대한 여호와의 증인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대해 지부 위원회 서신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젊은 전도인들은 군복무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군복무에 대한 법률은 매우 구체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리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군복무 연령에 도달한 어떤 전도인이 징병위원회의 부름에 앞서 자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먼저 전도인을 징집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으며 예비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징집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 예비군에서 다른 예비군으로 예편될 때 자신들의 “증명서”에 도장을 찍기 위해 가야 하지만, 여기엔 어떠한 다른 의식도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증명서”에 도장을 찍기 위해 징병사무국에 스스로 출석하는 것을 뜻할 뿐입니다.

“증명서”는 신원보증을 위한 문서로 사용됩니다. 이 문서는 누군가가 직장을 구하려 할 때 비록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지만, 신원증

명서로 사용됩니다. 여권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이 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증명서”가 없이는 군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 나라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전도인들이 “증명서”를 받으려면 징병위원회 중 한 곳을 방문해야 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즉시 자신의 “증명서”를 받을 수 있지만, 물론 이것이 전부ではありません. 즉, 받은 “증명서”가 아직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증명서”를 법적으로 효력 있게 하려면 영향력 있는 누군가에게 혹은 공무원에게 직접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요청하는 사항에 따라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인들은 그들의 “증명서”를 얻을 수 있으며, 증명서를 가진 대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얻은 것입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멕시코에서 징집 연령이 된 젊은이들은 1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군사 훈련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자들은 매 주 시행되는 군 교육과정에 참석했다고 기록된 증명서, 즉 “까르띠야(*cartilla*)”를 받습니다. 만일 징병사무원이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출석했다고 해 놓으면 그것은 불법이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뇌물로 매수할 수 있으며, 멕시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부 사무국 위원회에 따르면 이것은 멕시코의 여호와의 증인들 사이에서도 일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지부의 증언을 인용해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멕시코 형제들의 입장은 수년 전에 협회에서 고려해 준 사항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를 문의하기 위해 협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지침을 받았고, 그때 이후로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동봉된 문서를 참조할 것)

멕시코 지부에서 수년간 지켜왔던 협회의 지침이 무엇입니까? 그 지침이 어떻게 내려진 것입니까? 통치체 성원들이 만들었던 성명, 즉 군대 조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어떤 “정신적인 지지” 형태에도 대항해야 하며 “타협에 대한 가장 작은 제안”에 대해서조차 대항해야 한다고 하는 그 강력하고도 완고한 성명 및 말라위에 취해진 입장에 비교했을 때 어떻게 그런 지침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1978년 11월 15일부터 며칠간 통치체 회의를 위해 멕시코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회의에서 통치체는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는 멕시코 및 중부 아메리카의 몇몇 국가들의 지부 사무실을 방문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내가 멕시코 지부 위원회와 회합을 가지는 동안, 그들은 보고서에서 설명했던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말라위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당원증 구입을 거절했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끔찍한 박해는 멕시코의 많은 증인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멕시코 증인들에 대한 그들의 권고는 지부 사무국이 세계 본부로부터 받았던 권고에 온전히 합치된 것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권고가 무엇이었을까요? 혹자는 그러한 권고안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아래의 증거는 지부 위원회에서 제시된 증거로서, 첫 번째 증거인 편지입니다.

N. H. Knorr  
 124 Columbia Heights  
 Brooklyn 1, New York

친애하는 노어 형제:

협회에 자문을 구하고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자매의 아버지로서 봉사의 종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사례입니다. 그 자매는 결혼한 전도인으로서, 봉사의 종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의 사위는 다른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명되었습니다. 수년간 이 사위는 두 집 살림을 해 왔는데, 진리 안에서 연합한 자매인 법적 아내와 함께 봉사의 종으로 수고하는 장인의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여자와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명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아버지는 이 사악한 남자가 그의 딸과 그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봉사의 종 임무에 많은 혼란과 이의제기가 야기되었고, 수년간 많은 수의 전도인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그의 봉사 집단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질문은 그 자매가 그녀의 법적인 남편이지만 동시에 다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이 남자와 함께 살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자매의 아버지가 회중에서 자매인 딸과 이 남자가 그의 집에서 함께 살도록 허락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례를 다룰 수 있도록, 이러한 사례에 대한 협회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논란이 되어온 또 하나의 질문은 군사훈련제도의 일환으로 군대에 복무하는 법률에 관한 것입니다. 1년간의 '군복무'를 마치면 1년간 군복무 의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카드를 받게 되는데, 이 카드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등 사실상 많은 법률적인 업무를 위한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형제들은 그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스도

인의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많은 형제들이 특정 공무원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들의 군복무 카드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옳은 것입니까? 만일 이 형제들이 실제로 군복무를 했다면, 우리는 그들이 타협적인 태도를 취했으므로 최소한 3년 동안 봉사의 종으로 임명하지 않는 정책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의 종 또는 순회감독 *servant or circuit servant* 인 어떤 형제가 현재 또는 앞으로의 법률적인 업무를 위해 복무 카드를 소지하고는 있지만 군복무를 하지는 않았다면, 이 점과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옳은 것입니까? 형제들 사이에서는 얼마간의 돈을 지불하고 그들의 군복무 카드를 구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관례이며,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순회의 종 *circuit servant* 또는 봉사의 종 *congregation servants* 으로 섬기는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지 악한 제도 하에서 벌어지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눈감아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일에 대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이 나라에는 수많은 부정행위들이 존재합니다. 경찰관은 교통 위반을 한 사람을 길가에 세우고 “mordida”라고 하는 40센트의 적은 뇌물을 받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경찰이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경찰서에 가서 50페소의 벌금을 물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그 경찰관에게 5페소를 주고 맙니다. 이곳에서 이런 일은 관례이며,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군복무 카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일에 관한 협회의 권고안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봉사자로부터

여러분이 방금 읽은 것은 멕시코 지부에서 협회장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의 둘째 문단에서, 군복무 관련 위조문서를 위해 뇌물을 제공하

는 것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본은 지부에서 보관중인 복사본으로, 원본과는 달리 관례상 직인이 생략되어 있음.)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답변을 받았을까요? 협회는 1960년 6월 2일자로 두 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 두 번째 페이지가 바로 군복무 관련 쟁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은 멕시코 지부 위원회가 나에게 보여준, 그들의 질문에 대한 협회의 권고안이 담긴 편지입니다.

La Torre Del Vigia  
Calzada Melchor Ocampo No. 71  
Mexico 4, D.F.  
Mexico

1960. 6. 2. (157) 2페이지

...과정이 위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장애물, 소위 그 남자의 간통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그 봉사의 종과 그의 딸 모두에게 매우 직설적으로, 실수 없이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봉사의 종은 회중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의 행로로부터 올바른 행로로 돌이켜야 합니다. 만일 그가 간통을 저지른 그의 사위를 쫓아내는 것을 거절하고 돕는 일을 계속한다면 회중에 대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며, 회중의 연합과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이러한 행로를 따르려 하지 않는다면, 회중의 종으로서의 그의 직무는 박탈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공무원과 금전적인 거래 *money transaction*를 함으로써 군복무를 면제받은 사람들에 관해서는, 이것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행해진 것과 똑같은 것으로서, 그곳에서 형제들은 그들의 신권적 활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몇몇 군당국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았습다. 만일 군사시설의 관계자가 일정한 요금을 받고 *payment of a fee* 그러한

합의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국가기관의 대리인인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한 경우 지불된 돈은 군사시설에 투자되지 않으며, 그러한 합의를 시도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만일 어떠한 형제의 양심이 그들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그러한 합의를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문제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제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곳에서는 일상적인 일인 그러한 협상에 대해, 조사관이 그 일을 알면서도 그 문제의 정직성에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위하여 묵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이것이 군복무 카드를 가진 이들 형제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된다면, 그들은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므로,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의 성향이 시험받게 될 것이며, 그들은 결정적인 시험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인의 중립성에 찬성하고 있다는 그들의 입지를 솔직하게 증명하고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왕국 봉사에서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직인)

지부의 편지는 협회장인 노어 형제에게 보내진 것이었지만, 답장에는 협회의 직인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프레더릭 프랜즈가 작성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종류의 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면 노어 협회장은 늘 부 협회장인 프레더릭 프랜즈를 지목해서 시키곤 합니다. 편지에 사용된 문체도 협회장의 문체가 아니라 부 협회장의 문체입니다.

이 편지에서 사용된 표현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잠시 시간을 내어, 대체복무에 대해 논쟁했던 통치체 성원들이 만든, 앞에서 제시했던 그 성명서 내용을 이 편지와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성명서에서는 단어들을 조심스럽게 사용하지도 않았고 미묘한 표현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뚝뚝하고 심지어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의 질문에 대한 협회의 답장에서는 “뇌물”이라는 단어를 회피하고, 대신 “금전적 거래” 또는 “요금을 받고”라는 완곡한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돈들이 “군사시설”로 흘러들어가기보다는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이런 것들을 명백히 지적함으로써 “거래”의 윤리적 특성이 어쨌든 더 나아보이게 했습니다. 이 편지는 “그곳에서는 일상적인 일”인 협상에 대해 조사관이 “그 문제의 정직성”에 관해 묻지만 않는다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위해 그 일이 “묵인”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언젠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험”에서 고결함을 유지할 것을 언급함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만일 동일한 서신을 대체복무 논쟁과 관련된 회의에서 통치체 성원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표현들로 대체하자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부패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지불하는 것은 라틴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의 여호와의 증인들에게서도 행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만일 군사 관계자 *men of the war machine*들이 뇌물을 받고자 한다면, 그로 인해 위협해지는 것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최소한 당신은 실제적인 군사

시설 그 자체에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한 대령 또는 공무원에게 준 것이며, 그들은 그 뇌물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들의 양심이 ‘뇌물을 받을 기회를 노리는’ 몇몇 공무원들과 ‘홍정’ 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거기서 분쟁이 생기면 우리에게 도움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에, 조사관들이 위조된 문서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면 지부 사무실에서도 편법을 그냥 묵인할 수 있습니다. 중립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걱정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 Kingdom Ministry에서 당신의 신실한 형제들로부터

비꼬려는 뜻은 아니며, 이것이 빈정대는 내용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위 내용이 멕시코 지부 사무실에 대한 협회의 권고안을, 완곡한 표현 없이 통치체 회의에서 사용되는 실제적인 언어로 제대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충격적이었던 한 가지 이유는, 멕시코의 증인들이 군사훈련을 위해 징집되었을 때 돈을 지불함으로써 빠져나오는 쪽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협회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편지에 이야기하던 바로 그때, 수많은 도미니카 공화국 젊은이들은 동일한 종류의 훈련을 거부한 것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소중한 몇 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온 글래스Leon Glass와 그의 형제인 엔리케Enrique를 비롯한 몇몇 형제들은 그들이 훈련을 거부한 것 때문에 두 세 차례 형을 선고받았고, 그들의 청년기 중 총 9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협회장과 부협

회장은 도미니카공화국을 여행했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을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 도미니카의 죄수들 상황을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이중 표준이 적용된 것은 여전히 나에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멕시코에 권고안이 내려진지 4년 후에 말라위의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첫 번째 폭력적인 공격이 발생했고(1964), 당원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말라위 지부 사무실이 취한 입장은, 당원증을 소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타협적 행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본부는 이러한 입장이 취해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폭동은 수그러들었으나, 1967년에 다시 극심한 폭동이 일어나, 수천 명의 증인들이 그들의 고향에서 도피해야 했습니다. 끔찍한 잔혹행위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세계 본부로 무수히 날아들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취해진 입장을 고려해볼 때, 그러한 보고들이 조직을 이끄는 사람들과 그들의 양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말라위에서 증인들은 당원증을 구입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반역 행위라고 하는 조직의 기준을 지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구타와 고문을 당했으며, 여자들은 강간당하고, 그들의 집과 농경지는 파괴되었으며, 전 가족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멕시코에서는 증인 남자들이 군복무를 이행했다는 거짓 증명서를 갖추기 위해 군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부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그곳의 직원은 지부의 권고안을 따라, 어찌 되었든 이러한 행동이 하느님의 말씀의 원칙이나 협회의 기준에 모순된 것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조직의 최고 권위자들은 이 입장에 대해 어

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다음의 내용을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지부에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지 9년이 지난 1969년 8월 27일, 그들은 역시 노어 협회장 앞으로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에 그들은 그들이 간과해 왔다고 생각한 특별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래 제시된 것은 지부 위원회에서 나에게 보여준 편지의 일부(3,4쪽)입니다. 밑줄 친 부분은 지부에서 강조한 주요한 부분입니다.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협회장 사무실  
124 Columbia Heights  
Brooklyn, New York 11201  
1969. 8. 27, Page 3, No. 182

길르앗 졸업생인 웨인 프레블 *Weyne Preble* 형제가 1970년 1월중 결혼할 예정이라는 그의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프레블 Preble 형제는 길르앗 졸업생이 아닌 특별 파이오니아와 결혼할 예정이며 그가 협회에서 근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길르앗 졸업생이며 그의 신분이 이 일로 인해 분명히 변화될 것이기에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프레블 형제는 현재 순회의 중 *circuit servant*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파이오니아인 조이 코넬 *Joy Konnett*은 스페인어 실력이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봉사에서 그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협회의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한 페드로 아리아스 *Pedro Arias* 형제는 이곳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어느 정도 능숙해지기 위해 3주간 지역 순회의 중 *local circuit servant*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국경 근처에 있는

몬테레이Monterrey의 순회구를 할당받았습니다. 아리아스Arias 형제가 오게 됨으로써 우리 순회구역의 종의 수요를 충족시켰으므로, 우리는 베델에 추천했던 콘트라라스Contreras 형제를 대신할 다른 형제를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6월에 있었던 지부 회의에서 “대답을 위한 안내Aid to Answering” 34,35쪽에서 소개된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수년간 이곳에서 군복무 문제가 다뤄진 방식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그곳의 몇몇 형제들에게 알렸었지만, 제 생각에, 그때 제가 그 문제의 세부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편지를 보내어 답장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류철을 검토하다가 우리는 1960년 2월 4일자 123번 서신을 발견했는데, 그 편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징병 적령자들에게 주어지는 합법적인 문서를 얻기 위해 얼마간의 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는, 이 증서를 받게 될 때 그것을 받은 사람은 정규 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소집 대상이 되는 제1예비군에 편성된다는 사실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언급된 우리 편지에 대해 1960년 6월 2일자로 협회에서 보내 준 157번 서신의 2쪽에서 제시된 정책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까? 협회는 이렇게 답장 했습니다: “관련 공무원과 금전적인 거래money transaction를 함으로써 군복무를 면제받은 사람들에 관해서, 이것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행해진 것과 똑 같은 것으로서, 그곳에서 형제들은 그들의 신권적 활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몇몇 군당국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만일 군사시설의 관계자가 일정한 요금을 받고payment of a fee 그러한 합의를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국가기관의 대리인인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한 경우 지불된 돈은 군사시설에 투자되지 않으며, 그러한 합의를 시도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만일 어떠한 형제의 양심

이 그들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그러한 합의를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이 짊어져야 할 문제이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제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곳에서는 일상적인 일인 그러한 협상에 대해, 조사관이 그 일을 알면서도 그 문제의 정직성에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위하여 묵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 비상사태가 벌어지고 이것이 군복무 카드를 가진 이들 형제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된다면, 그들은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므로,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의 성향이 시험받게 될 것이며, 그들은 결정적인 시험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인의 중립성에 찬성하고 있다는 그들의 입지를 솔직하게 증명하고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협회의 편지로부터 인용된 정책은 지금까지 지켜져 왔지만, 이들 형제들이 제1예비군에 속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정책에 대해 약간의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순회감독자와 지역감독자 및 베델 가족 중 대다수가 이러한 관행을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일들이 수년간 매우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곳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에게 그분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는 변경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이 문제에 대해 협회로부터 얼마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변경이 있게 되어 이 관행을 따를 수 없게 된다면, 형제들은 여권을 얻을 수는 없지만 대신 이 나라의 집회에는 항상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변경이 있다면 제1예비군에 속한 이 사람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협회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건물의 건축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그 건물이 완공되어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사용되고 그곳에서 개최될

집회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전하며,

여러분의 형제들이자 동료 종인,

다음은 이에 대한 답장입니다. 1969년 9월 5일자로 보내진 이 답장에는 뉴욕 법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세히 보면 날짜 앞에 “A/AG”라는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이 편지가 협회장이 비서를 통해 쓴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A”는 협회장을, “AG”는 그의 비서들 중 하나를 나타내는 기호임). 이 편지를 보낼 때 세계 본부의 우두머리들은 이미, 말라위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정부에 의해 장려된 당원증 구입을 거절함으로 1964년과 1967년에 끔찍한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멕시코 지부의 문의 내용에 대해 1969년 9월 5일자로 보내진 답장을 살펴봅시다.

A/AG 1969년 9월 5일  
멕시코 지부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께:

우리는 멕시코에 등록되어 현재 제1예비군에 소속된 형제들에 관한 8월 27일자 문의편지(182)를 받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인용한 1960년 2월 4일자 편지(123)가 모든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언젠가 무엇인가를 하도록 부름을 받는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이러한 개인들 각각의 몫이며, 그러한 일이 닦혔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한다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돈을 지불하고 국가에 등록된 이들 형제들이 그러

한 의무를 행할 것인지는 그들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것은 그들의 양심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아닙니다. 만일 그들의 양심이 허락한다면 그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어쨌든 그들이 타협한 것은 아니므로, 여러분도 그 문제를 그냥 보류해 두십시오. 여러분이 그들 각자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질문에 답해주거나 토론에 참여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 편지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결정은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삶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양심이 그들이 한 일 및 그 결과 예비역에 편성되는 것을 허락했다면, 그 일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협회 사무국의 몫이 아닙니다.

협회는 언제나 사람들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각 사람들이 여러분이 편지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 일들을 했고 그것이 그들의 양심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일을 있는 그대로 두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결정해 주거나 그 문제에 관해 토론이나 논쟁에 참여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문자 그대로 무기를 들어 올리는 것에서 타협을 하지만 않는다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든 무엇을 하든, 결정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입장을 바꾼다면, 그때 회중에서 감독자가 어떠한 행동을 취한다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들을 지금 그대로, 그리고 1960년 2월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추가적인 언급 없이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느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인,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직인)

“정치적”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한 조직의 입장과 군대 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한 조직의 입장이 언제나 동일해 왔다고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쪽 모두에서, 그런 조직의 일원으로 속하게 된 증인들은 자동적으로 “이탈”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멕시코 지부 위원회는, 뇌물을 써서 군복무를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받은 이들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이 현재 군대 조직인 제1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말라위의 증인들은 자기 나라에 대해 조직에서 채택한 기준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 가정과 토지와 신체와 생명을 잃을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는 극도로 관대한 정책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증인 남자는 군대의 제1예비군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베델 성원으로서 순회감독자나 지역감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사 내용에 대한 지부 위원회의 응답 내용은 이 점을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증인들 사이에서 그러한 증명서를 얻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일상적인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브루클린으로부터 온 편지에서 지적하듯이, 형제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각자의 양심을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돈을 지불하고 “증명서”를 얻는 것은 멕시코의 조직에서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하면 몇 가지 불편한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나라의 형제들은 집회 참석을 위해 자주 미국에 가곤 하는데, 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하면 이 나라에서 나갈 수 없으며, 직

업을 구하려 해도 이 문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 문서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서를 취득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이 문서를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젊은이들은 이 문서를 위에 언급된 방법으로 취득하면서도, 개인적으로 그 문서 자체가 본질상 그들에게 괜찮은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서를 계속 취득하는 것에 대해 그 외의 다른 반대 이유는 없습니다.

멕시코의 수 천 명의 증인들은 서술된 그대로 이 상황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지부 위원회의 모든 성원들도 알고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한 세계 본부의 입장을 통치체 성원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밖에서는 언급한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말라위의 증인들 중에서 이렇게 주목할 만한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분명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보다 더 확실한 이중 표준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멕시코에서의 입장은 허용하는 동시에,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을 “군복무의 수행”이라 하면서 “가이사의 전쟁 기구에 대한 암묵적이고도 무언의 승인”이기 때문에 책망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격렬하면서도 독선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논리보다 더 일그러진 논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통치체 회의에서 “우리는 회색지역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형제들은 그들의 양심을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바로 그 사람들이 멕시코의 여호와의 증인들

사이에서 군복무 증명서를 위해 뇌물이 사용된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20년 이상 일상적인 일로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계 본부의 우두머리들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과 같이 그러한 관습이 ‘그들의 양심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몇몇 성원들은(다행스럽게도 몇몇 회의에서 이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일하라고 판사가 요구한 것을 양심에 따라 수락했다면, 그를 “이탈자”라고 치부해야 한다는 전통적 입장을 격렬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멕시코에서 연장자들과 순회감독자들과 지역감독자들과 지부 사무국 직원들이 현재 군대의 제1예비군, 즉 “전쟁 기구”에 소속되어 있다고 증명하는 군복무 이수 증명서를 얻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전통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입장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전통적인 입장을 주장하는 한 통치체 성원은, 덴마크의 지부 위원회 성원의 한 사람인 리차드 아브라함슨 *Richard Abrahamson*이 대체복무와 관련하여 했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나는 이들 젊은이들이 앞으로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을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진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세계 본부에서 멕시코 지부로 보낸 공식적인 권고안은, 젊은 형제들이 제1예비군에 편성되었다는 위조된 문서를 갖기 위해 뇌물을 주는 것에 관해 “그 일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협회 사무국의 몫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뒷부분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결정해 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라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어째서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진지하게, 지부 사무국의 직원이 그랬던 것처럼, 대다수의 증인들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품게 되었습니다. 말라위의 증인들이 순종해야 했던 그 공식적 정책을 결정한 지부 대표자들 중에 말라위(그 당시에는 니아살란드였던) 출신은 한 사람 뿐이었던 것도 역시 똑같이 의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시된 방향들이 기형적인 불일치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조직 내의 권위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주목할 만하게도 워치타워 협회는, 그들의 헌법의 높은 규범을 받들게 했던 말라위 정부의 실패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밴다Banda 대통령에게 있다고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만일 그가 이 일을 알면서도 지속되도록 허용했다면 그는 이 나라와 말라위 국민의회의 대표로서, 그의 나라에서 그의 정당의 이름하에 발생한 일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선동했거나 일어난 일들에 대해 눈감아준 국회의원이나 당원들 역시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입지에 대한 안전을 우려하여 말라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침묵으로 묵인해 버린,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경찰 공무원, 법 전문가, 그리고 다른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겠습니까?<sup>15)</sup>

---

15) 「깨어라!」 영문 1968년 2월 8일호 21,22면; 마태복음 7:1-5 참조.

하지만 말라위 정부의 행동에 대해 조직에서 비난했던 것과 똑같은 기준이 워치타워 협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통치체가 말라위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그들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한 것처럼, 통치체가 말라위 형제들에게 선포한 입장이 옳은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면, 멕시코에서 취해진 조직의 입장을 알았을 때, 그들은 분명히 멕시코에서 취해진 입장에 대해 거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말라위에서 취해진 굳건한 입장을 지지한다면, 그들은 그 표준이 완전하고 견고하게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단 한가지의 표준으로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심이 없다고 단호하게 확신했어야 합니다.

반대로, 그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군복무 증명서를 얻도록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개인적인 양심을 훈련할 수 있도록 했던, 멕시코에서 취해진 입장이 옳다고 생각했거나, 최소한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말라위 형제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권리를 허용했어야 합니다. 뇌물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행위도 아니며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도 아닌, 그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의 양심을 훈련시킬 수 있는 똑같은 권리 말입니다. 이중 표준에 대해서 어느 쪽이 옳은지 분명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진실에 대해 눈감아버리고” “침묵으로 묵인하는” 행위들은 분명히 “그들의 입지의 안전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며, 그들이 말라위 공무원들에 대해 비난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행로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멕시코에서의 소식이 주의를 끌고 있었던 그 회의 동안에, 통치체에서 실제로 거론되었던 것들은 무엇이였을까요? 멕시코에 대한 정책은 단 두 사람, 즉 네이션 노어와 프레더릭 프랜즈에 의해 주로 수립된 것

이지만, 지금은 통치체 성원 전체가 그 정책을 알게 되었습니다.<sup>16)</sup> 그들은 말라위에서 취해진 입장과 이 입장의 확연한 불일치에 대해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그 문제를 꺼내 들자, 대체복무에 대항하여 그런 강력하고 비타협적인 주장을 했던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분노의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타협을 “제안”하는 것조차 반대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언명했던 사람들은 멕시코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정책을 바꾸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972년과 1975년에 세 번째와 네 번째 폭동의 물결이 말라위의 여호와 의 증인들을 강타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에서 적용된 기준과 말라위에서 적용된 기준 사이의 불일치성에 대해 당황스러워한다는 기색조차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성원들은, 멕시코의 정책을 수용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표준을 강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나는 이 문제가 단순히 각 성원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질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그리스도인 믿음의 실천을 형식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권위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것들이며, 이런 모든 일들이 그 권위 구조에 속한 사람들이 이중 표준을 바라보면서 강력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그들을 신뢰했기 때문에 멕시코의 형제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복무 증명서를 얻고 있는 동

---

16) 이때(1978년) 네이션 노어는 이미 사망했다. 그러나 새 협회장이 된 프레더릭 프랜즈는 대체 민간 봉사에 관해서 논의된 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안 말라위의 형제들은 지배정당의 당원증을 구입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돈을 내는 것도 거절함으로 격렬한 고난을 겪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맨 윗선, 소위 상아탑이라 불리는 브루클린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러한 감정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러한 이중 표준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결과에 대해 무감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이것 역시 조직 구조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한 조직 구조에 대해 그렇게도 불쾌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입니다.

1978년 가을 무렵에는 통치체 성원들 전체가 멕시코에서의 정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1979년 9월, 통치체는 대체복무의 결정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 토론을 재개했습니다. 이때에는 폴란드에서 온 한 통의 편지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밀턴 헨첼은 대체복무가 “형제들에게 어떤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많은 폴란드의 증인들이 징병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행로를 취하는, 즉 탄광에서 일하는 관례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로이드 배리는, 우리는 증인들이 “모든 군대 조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시어도어 재라스는 “우리의 형제들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들의 행로에 대해 여호와의 조직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통치체가 대체복무 명령에 대해 ‘가서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형제들이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케어리 바버 *Carey Barber*는 “이 일에서는 양심을 훈련할 여유가 없다. 이것은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오직 올바른 행로를 향해

전진해야 하는 그런 문제이다.”라는 관점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프랜시스 프랜즈는, 우리의 “양심은 성서적으로 훈련되어야” 하며, 대체복무에 관한 것은 어떠한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지지하며 주장했습니다.

이 무렵, 이제는 통치체의 성원이 아닌 유어트 치티는 통치체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그랜트 수터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치티는 1978년 11월 15일의 회의에서 정책을 변경시켜야 한다는 데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대신 영국인 잭 바와 독일인 마르틴 포에칭거 두 명이 새롭게 통치체 성원이 되었으며, 그들은 1979년 9월 15일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최종적인 투표 결과가 나왔을 때, 표는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쪽을 지지한 8명과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8명(새로운 두 명의 성원이 포함된)으로 정확히 양분되었습니다.

1980년 2월 3일, 그 주제는 다시 한 번 의제에 붙여졌습니다. 내가 멕시코를 방문한지 1년 이상이 경과된 이때쯤, 앨버트 슈로더가 그곳에 또 다시 연례적인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지부 위원회의 성원들은 다시 한 번 그에게 군복무와 관련된 위조문서를 얻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관례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표명했고, 본부로 돌아온 뒤 슈로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통치체에 이야기했습니다. 회의 동안 다양한 성원들의 의견은 대체복무와 관련된 어느 쪽 의견이든 3분의2 이상의 다수표를 결코 얻을 수 없었으며, 동의안조차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보류”되었습니다. 1977년 11월 벨기에의 연로자인 미셸 베버(Michel Weber)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부터 1980년 2월까지 여호와의 증인 통치체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섯 번의 개별적인 기

회를 만들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sup>17)</sup>

그렇다면, 계속 시행되어온 그 정책이 워치타워에서 “일반성원*the rank and file*”이라고 불려온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그들도 역시 이 문제를 “보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통치체에서 필수불가결한 2/3의 다수표를 획득할 수 없었다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든 여호와의 증인 남성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정부의 정당한 요구인 대체복무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제명당한 사람과 동등하게 여겨지며, 조직을 이탈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통치체의 의도 속에서 결국은 멕시코에서 20년간 효력을 발휘해 온 정책이 계속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동시에, 말라위에서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 변화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무게를 다는 두 개의 저울추

“부정직한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혐오하시고, 속이는 저울은 좋지 않다.”

잠언 20:23

멕시코의 여호와의 증인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또 다른 상황을 고찰해보자면 몇몇 성원들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멕시코 혁명의 결과로, 또한 이 나라에서 가톨릭교회가 오랫동안 막대한 토지 및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역사 때문에, 멕시코 헌법은 최근까지

---

17)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속편인 「그리스도인 자유를 찾아서」 영문 256-270면 참조.

어떠한 종교 조직에 대해서도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교회들과 교회의 재산은 정부에 의해 압류되어 있었으며, 종교 조직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고서야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성직자들에게 착취당했었던 과거 때문에 멕시코에서는 어떠한 외국인 선교사나 성직자의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증인 조직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여호와의 증인 조직의 본부 사무국은 멕시코에 시행되고 있는 법률 때문에 수십 년 전부터 멕시코의 여호와의 증인들을 종교 조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문화 단체라 표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멕시코에 형성된 지방 법인인 ‘라 토레 델 비히아 *La Torre del Vigia*’는 멕시코 정부에 그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sup>18)</sup> 그래서 멕시코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십 년 동안 종교적 집회나 성서연구 모임을 가진다고 표현하지 않고 “문화적” 모임을 가진다고 표현해 왔습니다. 그들은 모임에서 기도나 찬양을 하지 않았고, 이것은 더 큰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별활동을 할 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워치타워 협회에서 제공해준 인쇄물만 들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성서를 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구역 내의 증인들의 집단은 “회중”이 아닌 “부회”라고 불렸으며, 침례의식을 가진다고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침례를 줄 때는 “상징”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것은 그들이 숭배의 자유를 법

18) 나에게는 1943년 6월 1일자 등록 서류의 사본이 있는데, 거기에는 멕시코 워치타워 협회가 그 나라 외무 비서관실에 의해 “과학·교육·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 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이 단체는 약 46년간 지속되어 왔다.

적으로 규제하는 몇몇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sup>19)</sup> 그것은 사실 종교 조직의 재산 소유권에 대해 정부의 규제에 따르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었습니다.<sup>20)</sup> 그러한 조정은 멕시코의 증인들이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브루클린 국제 본부에서 계획되고 실행에 옮겨진 조정안이었던 것입니다.

멕시코의 증인 집회에서 기도와 찬양을 의도적으로 빼버린 것을 미국 내 워치타워 협회의 행동과 대조해 보십시오. 미국에서는 경찰에 등록하거나 면허를 얻지 않고도 호별방문으로 출판물을 제공할 권리, 홍보용 음향차량을 사용하거나 길목에서 출판물을 배부할 권리, 혹은 그러한 수많은 다른 행동들을 할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연방대법원에까지 이르도록 줄곧 싸울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조직은 이러한 일들 중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은 이러한 특별한 행위들이 분명, 제1세기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행해진 적이 없었으며 따라서 일차적인 그리스도교적 관습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고수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회중에서 혹은 집단에서 기도하는 것은 초기 그리스도인 집회에서 있었던 일차적인 종교적 행위였으며, 먼 옛날부터 하느님의 종

---

19) 멕시코 정부는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상당히 관대했다. 비종교적 '문화' 단체라는 것이 단순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대했다.

20) 1970년대에 나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국제 대회에 아내와 함께 참석하고 그곳 현지 지부 사무실에서 묵은 적이 있었다. 노어 협회장도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 멕시코 지부의 여러 건물들을 둘러보도록 안내를 해 주었다. 그때 협회장은, 멕시코에서는 협회가 법률상 문화 단체로 등록되어 있다고 알려주면서, 그 일차적인 이유가 주로 협회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들 사이에서 행해져왔던 것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종교집회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들의 모임은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고 말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하느님을 숭배하는 데에 있어서, 더 순수하게 영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에 기도보다 완벽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왕의 칙령으로 30일간 왕 이외의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었을 때, 선지자 다니엘은 그 칙령을 어김으로써 그의 지위와 재산과 생명을 잃는 것까지 각오할 만큼 그 문제를 중대하게 생각했습니다.<sup>21)</sup>

그러나 조직 본부는 멕시코 전역의 여호와의 증인들 사이에서 집회 기도를 없애는 것을 적절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익, 어떤 “얻을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그랬을까요? 집회 기도와 찬양, 그리고 대중적인 증인 활동에서 성서를 사용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협회는 멕시코에서 협회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고, 다른 종교들처럼 정부 규칙으로 통제받는 것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반대로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조직은 종교 단체가 아니며, 그들의 모임은 종교적 모임이 아니고, 그들의 증인 활동은 종교적 활동이 아니며, 침례 의식은 종교적 행동이 아니라고 말하고자 했습니다.

통치체 성원들도 이러한 조정안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 중 몇몇이, 위조문서를 받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것이 그 나라에서의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

21) 다니엘 6:1-11.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기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타협은 없다”라고 그렇게도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몇몇 성원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이중 표준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의 표준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 표준이란 ‘무슨 일을 하든지 조직이 결정하고 승인한다는 것’입니다. 조직은 멕시코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관습을 개인적인 양심에 맡기도록 그냥 내버려두자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허용될 수 있었고, 사람들은 군복무 증명서를 위해 그러한 뇌물을 공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 앞에서 특별한 두려움을 느낄 필요도 없이, 이것이 가장 믿음만한 방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직은 대체복무에 관해서 말라위의 상황에 대해 결정했던 것과는 다른 결정을 내렸으며, 누구라도 그러한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회중 내에서 어떤 지위도 차지할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하느님에 대한 충실함을 깨뜨린 사람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러한 관점을 채택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세상으로부터 깨끗함을 유지함’이라는 거의 귀에 거슬리는 뻔뻔스러운 외침은, 감명 깊은 언어로 치장되었으나 현실에는 맞지 않는 화려한 웅변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러한 표현들을 듣고 말하는 성원들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논리를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거의 20년간 살았지만 뇌물을 제공한 적

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단 라틴아메리카에서 뿐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법이 우리 편이고 또 구하려는 것이 온전히 합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게 돈을 주지 않고는 거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누군가가, 성서 시대의 세금징수원들 및 군인들이 책정된 것보다 무리하게 많이 거두고 착취한 것처럼, 이 상황을 그와 같은 부당한 착취로 여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러한 착취에 복종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적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법률이 자신의 편이 아닌 멕시코 사람들이 법률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부당한 착취에 단순히 복종하는 대신 불법적인 위조문서를 얻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돈을 줌으로써 불법적 행동을 하게 했다면, 나는 그들을 판단할 만큼 뻔뻔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깨달은 이 사실은 전반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다지 충격적인 것도 아니고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도 이것은, 직장과 가정과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 무엇이 자신들의 양심 범위에 속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기 위해 법정에서 출두할 만큼 하느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충분한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평범한 관심사들에 비해 “조직의 관심사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 높은 권좌에 앉은 종교인들에 의해 조장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획일성을 강요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에게는 진실을 왜곡하는 불법적인 술책에 대해 양심을 단련할 권리를 주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자신들과 자신들의 결정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권좌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체포하여 수개월간 집과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심지어 누군가를 수년간 감옥에 가게 할 수도 있는 이 정책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자신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한 사람만 달리 투표해도 다 투표가 66%에서 62%로 감소되기 때문에 그 정책을 강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권좌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에게는 군복무 요건을 충족시켜 제1예비군이 되게 하기 위해 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어 거짓 카드를 얻게 하는 동시에, 보통 사람들인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자신의 가정과 터전을 잃는 상황이 닥쳐도 자기 나라 지배 권력 기관의 당원증을 얻기 위해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구타와 고문과 강간과 죽음까지도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권좌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나에게 충격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순수하게 보려 해도 그것은 역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모든 모순을 볼 수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삶에 대한 그 정책의 영향을 보면서 깊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사람들을 그러한 믿을 수 없는 결론으로 이끌었고, 그들로 하여금 엄청난 불공정을 합리화시킬 수 있게 했으며, 그들의 정책 때문에 일어나게 된 어떠한 고통에 대해서도 그들의 양심이 영향받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물론 문헌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된 것처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은 무감각이라

는 효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종교와 정치의 역사 속에서 수세기 동안 반복적으로 증명되어 왔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는 종교재판과 나치 정권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까이에서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이것은 너무도 구역질나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다른 동료 인간들 위에서 그러한 과도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결코 의도하시지 않았었는지 강력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멕시코에서 “문화” 조직의 지위를 고수한지 거의 반세기 후에, 워치타워 조직은 마침내 그것을 종교 조직으로 변경시켰습니다. 1990년 1월 1일자 「파수대」는 7쪽(한국어판도 동일함, 역자 주)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지위의 변화”가 1989년에 일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기사는 멕시코의 증인들이 처음으로 호별방문을 할 때 성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처음으로 그들의 공개집회에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술했습니다.

「파수대」는 이러한 변화가 멕시코의 증인들에게 얼마나 “감격적인”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다.”고 기술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17,000명이 넘는 “전도인”의 즉각적인 급등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는 독자들에게 이전의 지위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승리하게 된 것인지, 또 지위의 변화가 왜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를 읽은 사람은 누구라도, 그 기술된 이점들과 더불어 그러한 지위상의 변화는 조직이 처음부터 원해온 것이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독자들은 지금까지 증인들이 집회에

서 기도를 하지 못하거나 호별방문 활동에서 성서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던 것은 멕시코 정부나 멕시코의 법률이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기사는 독자들에게, 멕시코의 증인들이 최소한 반세기 동안 이러한 것들을 빼앗겼던 이유가 그들 조직의 우두머리들의 선택 때문이었으며, 그것도 다른 지위를 선호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는 또한, 이와 같은 “기쁨의 눈물을 억제할 수 없게” 한 “감격적인” 변화는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이며, 조직이 수십 년 동안 종교 조직이 아니라 “문화” 단체였던 입지를 버리려고 결정하기만 했다면 되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의 증인들이 전에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지 선택된 “문화” 단체로서의 입지를 보호하기 위해 조직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멕시코 증인 조직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 의해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여호와의 증인들의 거의 대부분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1990년 1월 1일 워치타워는 그들을 그 일에 관해 어둠 속에 남겨 두었습니다. 조직은 이 사건에 대해, 그들이 종교 조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종교 조직이라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사칭했던 1989년 이전의 일에 대해 오도할 수 있는, “잘려진” 그림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좀 더 최근의 기사로서 「깨어라!」 1994년 7월 22일자(한국어판은 1994년 8월 1일자, 역자 주)와 「여호와의 증인의 1995년도 연감」은 워치타워 협회가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허위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자 했던 것은, 그 나라의 입법부에 의해 계속적으로 채택되어 왔던 멕시코 헌법에 대한 개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감 212 페이지(한국어판도 동일, 역자 주)는 1943년 이전에 종교 조직이 아니고

시민단체라고 위장함으로써 “회중”대신에 “부회”라는 용어로 대치했고, 모임 장소를 “문화연구를 위한 회당”이라고 부르고, 그곳에서 있었던 집회에서 들릴만한 기도와 “모든 종교적 의식의 외형”을 없앴을 뿐 아니라 호별방문 활동에서 “성서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마저 회피하게 결정하는 데에는 자산의 소유권이 원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감은 232,233쪽(한국어판은 233쪽, 역자 주)에서, 1980년대에 조직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증가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연감은 249쪽(한국어판도 동일, 역자 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988년 12월에 공화국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하였을 때, 종교에 관한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과 교황청과의 관계 회복이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대통령의 취임 연설 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고위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자연히, 그러한 일이 여호와의 증인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의문이 생겼다. 가톨릭 교회에 이처럼 호의를 표명하는 일이 있자 가톨릭 교직자들은, 헌법을 개정하여 종교 조직에 더 많은 자유를 주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마침내 1992년 1월, 의회는 헌법 가운데서 종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그 후 7월에는 변경 내용을 시행하는 세칙이 작성되었다. 이것을 ‘종교 단체 및 공공 숭배에 관한 법’이라고 칭하였다. 이 법의 취지는 종교 단체에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이 법은, 종교 조직이 이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음을 허용한다. 또한 성당 밖에서 종교 집회와 시위를 가지는 것을 허락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명백한 것은, 위치타워가 지위상의 변화를 선택하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종교적인 논점이나 원칙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년이 흘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워치타워 협회가 “비정부기구(NGO)”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정보가 국제연합의 홍보국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 일은 1991년에 일 어났는데, 이 일이 공공연히 알려지고 조직이 이러한 일을 한 것에 대 해 반발하는 반응이 나타나자, 조직은 2001년 10월에 그 가입 관계를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자료입니다:

UNITED NATIONS  NATIONS UNIES

POSTAL ADDRESS—ADRESSE POSTALE UNITED NATIONS, N. Y. 10017  
CABLE ADDRESS—ADRESSE TELEGRAPHIQUE UNATIONS NEW YORK

REFERENCE:

11 October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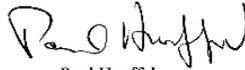
To Whom It May Concern:

Recently the NGO Section had been receiving numerous inquiries regarding the association of the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with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DPI). This organization applied for association with DPI in 1991 and was granted association in 1992. By accepting association with DPI, the organization agreed to meet criteria for association, including support and respect of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commitment and means to conduct effective information programmes with its constituents and to a broader audience about UN activities.

In October 2001, the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requested termination of its association with DPI. Following this request, the DPI has made a decision to disassociate the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as of 9 October 2001.

We appreciate your interest in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Yours sincerely,



Paul Hoeffel  
Chief

NGO Section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2011년 10월 11일

근년에 비정부기구(NGO) 관련 부서는, 뉴욕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의 국제연합 홍보국(DPI)과의 협력 관계에 대한 문의를 다수 받아왔습니다. 이 조직은 1991년에 국제연합 홍보국에 협력을 요청했고, 1992년에 제휴가 승인되었습니다. 국제연합 홍보국과의 제휴 관계가 성립됨에 따라, 이 조직은 국제연합 현장의 원칙과 의무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그 회원들 및 폭넓은 청중들에게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유엔의 활동에 대해 홍보하기로 약속하고, 그 협력 관계를 이루기 위한 요건에 따르기로 동의했습니다.

2001년 10월, 뉴욕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는, 이 조직과 유엔 홍보 부문과의 제휴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에 근거해서, 유엔 홍보 부문은 2001년 10월 9일부로 뉴욕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와의 제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연합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비정부기구 홍보국 담당부서 대표, 폴 호펠(Paul Hoeff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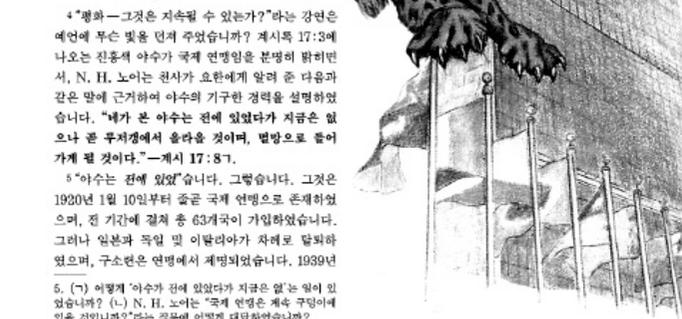
영국의 신문인 가디언지의 보고에 따르면, 워치타워의 런던 지부 사무실의 대변인으로 일하는 폴 길라이스(Paul Gillies)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정부 기관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국제연합에 대한 주제를 표현하고자 할 때 우리는… 좋고 나쁜 정치인들이 있듯이, 좋고 나쁜 기관들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계시록이 말하는 것들은 믿지만, 우리가 정치 조직을 변화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는 않는다.”

그가 “계시록”을 참고문헌으로 언급한 것은 분명, 1942년 이래 워치 타워의 출판물들이 국제연맹과 그 계승자인 국제연합을 큰 바벨론이라는 음녀를 태운 것으로 묘사된 붉은 빛 짐승으로 규정지어왔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계시록 17:3-6 참조). 거기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은 사실상 평화의 군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참람된 곧 신성모독적인 모조품이다.”<sup>22)</sup>



9월에는 독일의 나치 독재자가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실패한 국제 연맹은 실질적으로 무활동의 무지개 속으로 들어 갔습니다. 1942년 무렵에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얼마 전이나 얼마 후가 아니라, 바로 그 중대한 시기에, 여호와의께서는 환상의 온전한 의미로 자신의 백성에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신 세계 신권 대회에서, N. H. 노이는 예언과 일치하게 “야수는 ... 지금은 없”다고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 1940년 11월 30일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및 헝가리가 “신 국제 연맹”을 결성하기로 서명하였으며, 다음 뒤에 로마 교황청은 종교적 평화와 새로운 사탄의 질서를 위한 미사 및 기도들을 발송하였다. “신 국제 연맹”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4 “평화—그것은 지속될 수 있는가?”라는 강연은 예언에 무슨 빛을 던져 주었습니까? 계시록 17:3에 나오는 신종적 야수가 국제 연맹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N. H. 노이는 권사가 요한에게 알려 준 다음과 같은 말을 근거하여 야수의 기구한 경력을 설명하였습니다. “네가 본 야수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곧 무지개에서 올라올 것이며, 변방으로 끌려 가게 될 것이다.”—계시 17:8,7.

5 “야수는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1920년 1월 10일부터 줄곧 국제 연맹으로 존재하였으며, 전 기간에 걸쳐 총 63개국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독일 및 이탈리아가 차례로 탈퇴하였으며, 구소련은 연맹에서 제명되었습니다. 1939년

5. (7) 어떻게 ‘야수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일이 있었습니까? (1.) N. H. 노이는 “국제 연맹은 계속 주립이 되었을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까?  
두려움을 갖게 하는 신비가 풀린다

신종적 야수에 대해 예언된 바와 같이, 국제 연맹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무지개에 있었지만, 국제 연합으로 바뀐다

22) 「계시록 - 그 웅대한 절정은 가까웠다」 246-248쪽 참조.

이와 같이, 본 장에서 인용된 사례에서 취해온 정신적 입장은 계속되었습니다. 대체복무의 논쟁 및 말라위에 대해 조직이 나타냈던 입장의 배경에 대해 본 것처럼, 워치타워 협회가 “평화의 군왕이 다스리시는 하느님의 메시아 왕국의 참람된 곧 신성모독적인 모조품”이라고 여겨지는 국제연합과 이러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충절과 양심에 대해 심각하게 비뚤어진 관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예언과 독선

C r i s i s   o f   C o n s c i e n c e



...

그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도 그 말이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호와가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 예언자가 주재념게 말한 것이다. 너는 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신명기 18:2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된 재림에 대해 무관심한 자세를 갖기보다는 열망을 갖는 것이 분명 바람직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에 대해 결코 무관심하지 않았 습니다.

몇 년 전, 나는 여호와의 증인 캐나다 지부의 홍보 대변인 월터 그레이엄 *Walter Graham*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단정적 예언이 실패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만약 예언의 실패에 관해 여호와의 증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느님의 이름이 입증되고, 지상을 통치하는 하느님의 왕국을 보고자 하는 우리의 지나친 열정'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순간적 충동으로 무언가를 말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희망사항이나 강한 갈망 그리고 지나친

열정이 우리의 판단을 흔들어 성급한 결론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점에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어디에서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말할 내용들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가볍게 넘어갈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히 일반사람들이 수시로 저지르는 실수와는 다른 더 깊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과 관련된 그 길은 사람들의 중대한 관심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는, 통치체가 여호와와의 증인을, 그 중에 최소한 “기름부음받은 자 반열”(이 집단에는 통치체도 포함)을 하느님께서 “예언자” 역할을 위해 선택하시고 놀라운 책임을 부여하셨다고 본다는 점입니다.

「파수대」 영문 1972년 4월 1일호 197면(한국어는 1972년 6월 15일호 270면)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한 ‘예언자’가 있음을 알 것이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을 돕고 위험을 경고하고 장차 일어날 일을 선포할 한 예언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제시하면서 현대에도 그런 예언자가 있었다는 역사를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5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교국의 사람들이 교직자들의 인도만 받고, 국제 연맹이 하나님의 왕국을 사칭하는 가짜임을 경고받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았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할 한 “예언자”를 가지고 계셨읍니다. 이 “예언자”는 한 사람이 아니고 남녀로 이루어진 한 단체였읍니다. 그것은 그 당시 국제 성서 연구생이라고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의 조그마한 단체였읍니다. 오늘날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그리스도인 중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경고를 선포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진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6 물론, 이 집단이 하나님의 “예언자”로 활약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는 무엇을 밝혀 줍니까?

: 5항에 언급된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은 국제 연합(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UN)의 전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근 「과수대」 1997년 5월 1일호 8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느님은 누가 자신의 참된 사자들을 지를 밝히시는 위대한 식별자이십니다. 그분은 참된 사자들을 통해 전달하신 소식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그들이 참된 사자임을 밝히십니다. 여호와는 또한 거짓 사자들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위대한 폭로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그들의 정체를 어떻게 폭로하십니까? 그분은 그들의 표징과 예언들을 좌절시키십니다. 그렇게 하여 그분은 그들이 자칭 예언자들이며, 그들의 소식은 사실상 그들 자신의 거짓된 추리에서—아니 그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어리석고 육적인 생각에서—나온 것임을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로 인용한 「파수대」에서는 현대에 “예언자” 역할을 하는 한 단체(기름부음받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구성된)가 활약하고 있다는 증거를 “역사<sup>record</sup>”가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참된 사자들 *true messengers*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참된 사자의 소식은 “이루어지게” 하시지만, 반면 거짓 사자들의 “표징과 예언들을 좌절” 시키심으로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역사<sup>record</sup>”는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실수들을 드러내었고, 심지어 협회의 본부 성원들도 이런 실수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어느 날 아침, 브루클린 베델에서 매일 일용할 성구 토의를 주재하던 당시 협회장 프레더릭 프랜즈 *Fred Franz*는 지상에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온전히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의 그 시기가 1925년이라고 기대했던 일을 회상하며 그 얘기를 베델 성원들에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프레더릭 프랜즈는 판사 러더퍼드 *Rutherford*가 나중에 자신의 예언에 대해 “나도 내가 나를 완전 멍청이<sup>ass</sup>로 만든 걸 알아”<sup>1)</sup>라고 말한 내용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이런 실수들은 단순히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증거에 불과하며 오히려 하느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은 강력한 열망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지나친 열망으로 자기 자신을 “멍청이”로 만드는 것은 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

1) 러더퍼드의 이 말은 「파수대」 영문 1984년 10월 1호 24면에 인용되었다. (역자: 이 기사는 통치체 성원 칼 클라인의 체험담으로 각주에 러더퍼드의 발언이 실렸다. 한국어 「파수대」에는 이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하며, 심지어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믿음을 공격하고 동기를 의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심각한 것은, 협회가 자신들을 온 인류 가운데 기름부음받은 유일한 하느님의 대변자로 자칭하면서, 단지 몇 개월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넘어 백 년 이상 주기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단순히 어깨를 으쓱이며 “글쎄?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아.”라고 말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불완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모두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행동이 하느님과의 관계처럼 중요하고 개인적인 일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더욱이 특정 연대에 대한 예언을 조직의 지도자들이 의견을 조정해서 만장일치로 발표하고 그 예언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갖도록 호소했다면 더욱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통치체의 경험 덕분에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처음 약 20년 동안, 나는 협회의 과거 예언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안개와 같은 흐릿한 생각으로 바라봤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공격을 하는 서적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말부터 협회의 일부 출판물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조직의 역사를 다룬)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의 여호와의 증인

*Jehovah's Witnesses in the Divine Purpose*」책과 협회가 후원한 서적 「믿음의 행진 *Faith on the march*」책 등에서도 과거의 실패를 언급했지만 사소한 문제로 기록하였고 나 역시 동일한 견해를 가졌습니다.

1970년대 말이 되어서야 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소위 말하는 “반대자들의 서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워치타워 협회 출판물과 통치체 성원을 포함하여 활동적이고 존경 받는 동료 증인들을 통해서였습니다.

1914년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와 권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연도입니다.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들은 1914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4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임재”하셨으며 그때부터 그분의 추종자들과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다.<sup>2)</sup>

1914년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셨으며 그분의 왕국은 공식적으로 설립된 것이다.

1914년은 성서에 예언된 “마지막 날” 혹은 “마지막 때”가 시작된 연도이다.

1914년으로부터 3년 반 후 (1918년에) 죽어 잠들어 있던 사도 시대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기 시작하였다.

---

2) (역자: 여기에서의 “심판”은 최종 심판이나 멸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파수대」 2013년 7월 15일호를 통해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고 심판하는 일은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큰 환난 때 있을 것이라고 해설이 변경되었다.

부활이 시작된 그 때(1918년에) 당시 살아있던 그리스도의 참 추종자들은 큰 바빌론에 영적인 포로로 사로잡히는 일을 겪었다가 이듬해인 1919년에 해방되었고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인정받았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대항자로서 그리스도의 지상 소유를 맡아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이다.<sup>3)</sup>

그 때로부터, 마지막 날의 궁극적 운명인 구원과 멸망의 “추수”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1914년의 근간이 되는 연도의 그 중요성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은 1914년에 기초를 두고 있는 나머지 모든 교리 체계(위에서 언급한 것)를 약화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에 대해 공식적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지니는 특별한 권위가 담긴 주장들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그 연도를 제거하는 것은 그 연도에 기초한 모든 교리와 권력 구조를 사실상 붕괴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1914년은 그 만큼 중요한 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 중에서, 거의 반 세기 동안 - 1879년부터 1920년대 후반까지 - 「파수대」와 기타 출판물에 발표된 1914년에 관한 예언의 내용들이 지금의 교리와는 완전히 상반된다는 사실을

---

3) (역자): 큰 바빌론에 영적으로 유배된 기간이 1918년부터 1919년의 짧은 기간에 있었다는 오래된 가르침은 폐기되었다. 2015년 10월에 열린 펜실베이니아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연례총회에서 통치체 성원 스티븐레트의 연설을 통해 새로운 해설이 제공되었다. 변경된 내용은 영적 포로기간이 기원 2세기 어느 때인가부터 1919년까지 있었다는 것이며, 이 내용은 2016년 연구용 「파수대」 3월호 “독자로부터의 질문” 기사에 실려서 보게 될 예정이다. 또한 “기름부음받은 자” 전체가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인정받았다는 기존 가르침 역시 2012년 하반기에 폐기되었다. 이 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이 책 제 3장 마지막 각주(148면) 참조.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 역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소위 유일한 “통로”로 여겨지는 위치타위가 거의 50년 동안 위에 열거된 목록 하나하나에 대해 완전히 다른 때와 연도를 주장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이유도 알게 되었는데, 1914년에 대한 예언이 실패하자 여기에 새로운 연도를 적용시켜 예언이 성공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2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성서 이해를 위한 보조서」 책을 집필하기 위한 조사를 거치면서,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 기원전 607년에 멸망되었다는 역사적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역사적 증거와 상반되지만 성서적 근거는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607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1914년이라는 중요한 연도는 의문 속에 묻힐 것이기에, 그래서 나는 역사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보조서」에서 그 점을 기술하였습니다.

그런데 1977년, 스웨덴에 거주하는 칼 올로프 욘손 *Carl Ol of Jonsson*이라는 여호와의 증인이 방대한 조사 결과를 브루클린 본부에 보내왔는데, 그 자료는 성서 연대 계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칼 올로프 욘손이라는 사람은 장로였고 20년 동안 여호와와의 증인과 연합한 활동적인 증인이었습니다.

나 자신도 연대 문제를 조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칼 올로프 욘손의 연구가 얼마나 방대하고 깊이가 있으며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칼 올로프 욘손은 기본적으로 누가 21:24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때”의 끝이 1914년이라는 협회의 연대 계산에 치명적 약점이 있다는 점을 통치체에 각인시키려 하였습니다.

다. («신세계역」에서는 “이방인의 때” 대신에 “나라들의 지정된 때” 혹은 “나라들의 정해진 때”로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1914년 연도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됩니다:

다니엘 4장의 예언에서 “일곱 때”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기간은 일차적으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Nebuchadnezzar*이 7년 동안 정신 나간 상태로 지낸 기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sup>4)</sup> 협회는 “일곱 때”가 더 큰 예언적 의미를 지니는 기간이며,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협회에 의하면 기원전 607년)로부터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그 의미가 확장되는 기간이며, 이 기간에는 이방인의 나라들이 “간섭을 받지 않고” 온 땅을 통치한다고 가르칩니다.

“일곱 때”는 일차적으로 7년을 의미하며 (음력으로 12달은 각 달이 30일이므로) 일 년을 360일로 간주합니다. 360일에 칠을 곱하면 2,520일이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예언에서 언급하는 “하루를 일 년으로”<sup>5)</sup>라는 표현을 여기에 적용합니다. 이 공식을 차용하면 2,520일은 2,520년이 되고 기원전 607년부터 시작해 기원 1914년에 끝나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의 왕국 통치 시작, “마지막 날”, 부활의 시작,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협회의 현재 가르침은 전적으로 이 연대 계산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각 성구들의 연관성이나 정확한 적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면서 연대 계산법의 최종적 결과물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십 년 동안 1914년에 대한 연대가 자

---

4) 다니엘 4:17, 23-33

5) 민수기 14:34; 에스겔 4:6.

기 조직만의 독특한 교리이며 초대 협회장인 설교자 러셀에 의해 처음 출판물에 발표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959년에 협회가 발행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의 여호와의 증인」책 영문 안쪽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1870년 찰스 테이즈 러셀은 소규모로 연합된 사람들과 더불어 성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1877년 「세 가지 세상」(*Three Worlds*)이라는 서적에서 1914년을 “이방인의 때”의 끝으로 식별하였다.

위에 있는 내용만 보면 1914년에 대한 교리가 마치 「세 가지 세상」(*The Three Worlds*) 책에서 처음 발표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상 러셀은 이 책에 재정적 지원만 하였음)<sup>6)</sup>

나 역시 스웨덴 장로 칼 올로프 욘손이 자료들을 세계 본부에 보내주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료를 받아 본 후에야 그 동안 협회 출판물들이 얼마나 많은 사실들을 무시했고 얼버무리며 은폐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칼 올로프 욘손은 먼저 연대 계산에 관한 오랜 역사를 추적하였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하루를 일 년으로”라는 공식은 이미 다양한 시대에 작위적으로 적용되었으며 그 시작은 1세기 랍비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9세기에는 “유대인 랍비의 한 분파”에서 다니엘서의 예언 중에

---

6) (역자): 증인들에게 「세 가지 세상」책은 「삼 세계와 현세계의 추수」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나오는 1,290일과 1,335일 그리고 2,300일이라는 특정 기간에 “하루를 일 년으로”라는 공식을 적용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물들을 모두 메시아의 출현과 결부시켰습니다.<sup>7)</sup>

저명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있었으며, 표면적으로 처음 드러난 때는 12세기 로마 가톨릭 수도원 원장인 플로라의 요아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sup>8)</sup> 그는 다니엘서의 예언뿐만 아니라 계시 11장 3절과 12장 6절에서 언급된 1,260일 역시 “하루를 일 년으로”라는 공식을 적용해서 해석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양한 해석들을 통해 주목할 연도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1260년을 예언했다가 그 다음엔 1364년과 그 이후를 그리고 16세기에는 또 다른 연도들을 언급했습니다. 예언된 그 해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필연적으로 새로운 연도와 수정된 계산법이 등장하였습니다.

1796년, 조지 벨 *George Bell*은 런던의 한 잡지에 기사를 작성하고 (그의 견해에 따르면 “교황”인)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 해는 1787년 또는 1813년이었는데 그의 예언은 1,260년을 근거로 한 해석이었지만 다른 해석자들과 다른 시작점(일부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또 다른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의 시작을 기점으로 삼았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의 예언은 프랑스 혁명 기

---

7) 다니엘 8:14; 12:11,12. 칼 올로프 온손의 온전한 연구 자료는 1983년에 출판된 「이방인의 때의 재고」(*The Gentile Times Reconsidered*) 책을 통해 제공되었으며, 현재는 개정판을 통해 읽을 수 있다.(Commentary Press, 1998)

8) (역자): “플로라의 요아킴”(Joachim of Flora)은 라틴어식 표기이다. 영어식 표기는 “플로리스의 요아킴”(Joachim of Floris), 이탈리아어로는 “피오레의 조아키노”(Gioacchino da Fiore)라고 표기한다. 한국어로 된 백과사전이나 여러 자료들은 이런 다양한 표기를 모두 사용한다. 요아킴은 플로라(현재 이탈리아 남부 소도시 코센차)에 수도원을 설립했고, 시대를 3단계(아버지의 시대, 아들의 시대, 성령의 시대)로 구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언을 발표하고 얼마 후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 바로 교황이 프랑스 군에 포로로 잡혀서 강제 축출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놀라운 성서 예언의 성취로 받아들였고, 1798년을 예언적 1,260일이 끝나는 해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발전해 그 다음해인 1799년을 “마지막 날”이 시작하는 해로 인식하였습니다.

이후 유럽의 급변하는 역사 속에서 새로운 예언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자 중에 영국 태생의 존 아퀼라 브라운 *John Aquila Brown*이 있었습니다. 1800년대 초반 그는 다니엘 8장에 나오는 2,300일이 기원 1844년에 끝난다는 해설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미국 재림운동의 선구자인 윌리엄 밀러 *William Miller*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연대 계산법이 여호와의 증인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존 아퀼라 브라운은 연대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을 발전시켰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 1914년 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칼 올로프 욘손의 자료들에는 브라운이 바로 다니엘 4장의 “일곱 때”를 해석한 장본인이며 여기에서 하루를 일 년으로 적용하는 공식을 사용해 2,520년을 도출했다는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1823년에 브라운은 최초로 이런 해설서를 출판하였고, “일곱 때”를 2,520년으로 계산하는 그 방식은 오늘날 워치타워 출판물에서 계산하는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1823년이라는 시기는 찰스 테이즈 러셀 *Charles Taze Russel*이 태어나기 29년 전이었고, 성경 연구생 모임을 시작하기 47년 전이며, 「세 가지

세상(The Three Worlds)이라는 서적이 출간되기 반세기 전의 일입니다.

나는 스웨덴에서 칼 올로프 욘손이 보내준 자료들을 읽어보기 전까지 이런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 이런 사실을 인정할 협회 출판물은 전무했습니다. 심지어 존 아퀼라 브라운에 대해 언급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칼 올로프 욘손은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1983년에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워치타워 협회는 처음으로 2,520년 계산법의 실질적인 시초가 존 아퀼라 브라운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1823년에 만들어진 이 계산법은 러셀이 발표한 것보다 50년 앞 선 것이었습니다.<sup>9)</sup>

그러나 존 아퀼라 브라운은 2,520년이 기원전 604년에 시작돼서 결과적으로 기원 1917년에 끝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 때에야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영광이 온전해질 것이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914년이라는 연도가 어떻게 중요한 교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까?

1844년 전후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실패로 돌아가자 재림파들은 여러 가지 분파로 갈라지게 되었고 그들 대부분은 새로운 연도를 설정하려는 움직임은 보였습니다. 그러한 모임 중에 하나가 뉴욕

---

9) 「여호와와 증인 - 하나님의 왕국 선포자」책 134면 참조.(영문, 한국어판 동일) 이 책은 문제의 2,520년의 그 기간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분별'하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진술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시작과 끝에 관한 그의 기간이 명백히 워치타워의 가르침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라운은 “‘일곱 때’를 누가 복음 21:24의 이방인의 때와 관련’시키지 않았다. 칼 올로프 욘손의 「이방인의 때 재고」(The Gentile Times Reconsidered) 책의 정확한 설명에 의하면 “브라운 자신은 그 기간을 누가 복음 21:24의 이방인의 때와 연결시키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후 1826년에, 그가 말하는 2,520년의 계산은 “일곱 때”를 ‘이방인의 때’와 연관 짓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를 갖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방인의 때 재고」책 32-36면 참조.

주 로체스터에 거주하던 N. H. 바버(N. H. Barbour)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었습니다.

바버는 존 아퀼라 브라운의 해석을 상당 부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2,520년의 시작점을 기원전 606년으로 변경하였고, 결국 기원전 606년에서 시작하여 2,520년이 끝나는 해가 1914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계산 착오로써 결국 이 기간은 2,519년이 됩니다.)

1873년에 바버는 재림파를 위한 잡지를 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한 밤의 외침*The Midnight Cry*」이라고 명명되었다가 나중에 「아침의 전령*Herald of the Morning*」으로 개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아침의 전령」영문 1878년 7월호의 표지 삽화가 첨가되어있습니다. 이 해는 첫 번째 「파수대」 창간 기사가 발행되기 1년 전입니다. 이 표지 삽화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1914년에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 “*Times of the Gentiles’ end in 1914*”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sup>10)</sup>

---

10) (역자): 「아침의 전령」잡지 사진 복사본 아래 오른쪽에 표시된 굵은 화살표는 “1914년에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잡지 하단 왼쪽은 육적 계획, 오른쪽은 영적 계획이라고 나오며 하단 왼쪽 선들과 오른쪽 선들은 서로 평행하는 사건들로 인식하도록 선들을 배치한 것이다. 서로 평행하는 사건으로 왼쪽은 예수 탄생, 오른쪽은 1873~4년에 2,300일이 끝났다는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 침례 시점은 1,335일이 끝나는 1874년(역시 희년의 주기임)과 평행하는 것으로 나오며, 십자가형(이 때까지 ‘형주’의 개념은 없었다)은 1878년과 연결, 이스라엘의 멸망 연대를 표시한다. 하단 왼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표시되어 있고, 이에 평행하는 사건으로 하단 오른쪽에는 1843-4년에 2,300일이 끝났다는 내용이 나온다. 침례 시점은 1335일이 끝나는 1874년(역시 희년의 주기임)과 연결되어 있고, 십자가형은 1878년으로, 예루살렘의 주후 70년(기원 70년) 멸망은 “이방인의 때”의 끝이라는 1914년과 연결시키고 있다.

# HERALD OF THE MORNING

GODS TEMPLE

"All nations whom thou hast made, shall come and worship before thee."

Vol. 7. ROCHESTER, N. Y., JULY, 1878. No. 1.



N. H. BARBOUR, Editor.

ASSISTANT EDITORS,

C. T. RUSSELL, PITTSBURG, PA. ELB. J. H. PATON, ALBANY, NICH.



PLAN OF THE AGES:

"Both the Cherubim of one measure and one size."

## PLANE OF THE FLESH

Earthly Jerusalem.  
 Earthly Sacrifice.  
 Earthly Kingdom.  
 This one looking forward to the sacrifice.

### TWELVE TRIB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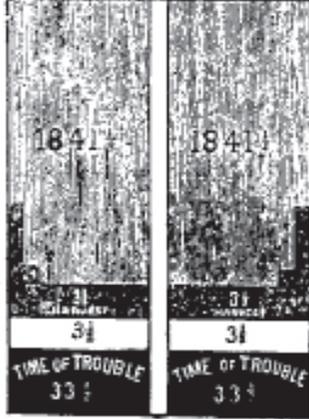
From the end of the Patriarchal age, at the death of Jacob, to the end of the Jewish age, at the death of Christ, was 1845 years.

Birth of Jesus—

Baptism of Jesus—

Crucifixion, A. D. 33—

Jerusalem destroyed—  
 A. D. 70.



## PLANE OF THE SPIRIT

Heavenly Jerusalem.  
 Spiritual Sacrifice.  
 Heavenly Kingdom.  
 This one looking back to the sacrifice.

### TWELVE APOSTLES.

From the end of the Jewish age, at the death of Christ, to the end of the Gospel age, should, if of equal measure, be 1845 years.

2500 days ended in 1843-4.

1335 days ended in 1874, also Jubilee cycles

1812, the abode complete.

"Times of the Gentiles" end in 1914.

TERMS—Six Months, 25 Cents; One Year, 50 Cents.

: 사진설명은 왼쪽 페이지의 각주 10 참조

이 표지는 브루클린 본부의 내부 서류로 보관되어 온 것으로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열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표지의 존재로 말미암아 「파수대」가 1914년에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고 선포한 첫 번째 잡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협회의 임원들도 알았음이 분명합니다. 이 가르침은 사실상 N. H. 바버가 이끌던 재림파의 출판물에서 차용된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재림파 잡지인 「아침의 전령」 영문 1878년 7월호 표지에 “보조 편집자”로 C. T. 러셀 C. T. Russell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러셀은 직접 자신이 어떻게 N. H. 바버와 연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버의 연대기(사실상 다니엘 4장의 일곱 때에 대한 해석은 존 아퀼라 브라운의 해석을 차용한 것이지만)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파수대」 영문 1906년 7월 15일호 기사에서 설명합니다.<sup>11)</sup>

1876년 1월 무렵, 나는 교리들, 희망들과 관련되었던 예언의 연대라는 주제에 특별한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흥미를 가지게

11) (역자: 존 A. 브라운에 관한 언급과 「아침의 전령」지에 관한 언급이 「선포자」책에도 어느 정도 나와 있다. 배경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내용을 간단히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또한 「파수대」 1973년 10월 1일호 438-439면 참조)

「선포자」책 134면 - “일찍이 1823년에, 존 A. 브라운은 영국 런던에서 자신의 저술을 발표하였는데, 다니엘 4장의 ‘일곱 때’의 길이가 2520년임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예언적 기간이 시작된 연대와 끝나게 될 때를 분명히 알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이 “일곱 때”를 누가 복음 21:24의 이방인의 때와 관련시켰다...”

「선포자」책 135면 - “1876년 초에, C. T. 러셀은 「아침의 전령」을 한 부 받았다. 그는 신속히 바버에게 편지하여 필라델피아에서 바버와 함께 여름을 보내면서 특히 예언적 기간에 대해 토의하였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이방인의 때: 언제 끝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러셀 역시 성경을 사용하여 그 문제에 관해 추리하였으며 증거는 ‘일곱 때가 주후 1914년에 끝날 것’임을 보여 준다고 기술하였다. 이 기사는 「사경」 1876년 10월 호에 인쇄되었다. N. H. 바버와 C. T. 러셀이 1877년에 공동으로 발행한 Three Worlds, and the Harvest of This World(「삼 세계와 현 세계의 추수」)책은 동일한 결론을 지적하였다. 그 후 1879년 12월 호와 1880년 7월 호 같은 초기의 「파수대」(영문)는 성서 예언의 관점에서 매우 의미 심장한 해로 기원 1914년에 주의를 이끌었다. 1889년에 Millennial Dawn(「천년기 새벽」) - 나중에는 「성경 연구」로 불림 - 제2권 제4장 전체가 ‘이방인의 때’를 논하는 데 할애되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의 끝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된 경위는 이러합니다: 나는 「아침의 전령」이라고 하는 잡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잡지는 편집자였던 N. H. 바버씨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잡지를 열자마자 그 표지의 그림을 보고 이 잡지는 재림파의 출판물임을 바로 알아차렸고, ‘재림파 그 사람들은 언제 다시 세상이 불타게 될 것이라고 말할까? 그 시기는 언제일까?’ 라는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그 잡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잡지의 내용은 놀랍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잡지의 내용은, 그 편집자(바버 씨)가 앨러게이니 *Allegheny*에서 몇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을 매우 기쁘게 했던 주제들에 대해 눈이 떠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그 주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은 멸망시키려고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재림하는 것이고, 도둑과 같이 재림하는 것이고, 육신의 몸을 지니고 재림하는 것이 아니며, 영적인 존재로서 오시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시고; 그분의 교회를 모으고 “곡식”에서 “쭈정어”를 분리하는 일은 이 세대의 끝에 세상이 알지 못하게 끝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나와 동일하게 진보된 견해를 가진 이 사람을 보고 기뻐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제시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즉, 그 편집자(바버 씨)는 주께서는 지상에 (보이지 않게 비가시적으로) 이미 임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언들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추수는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 - 그리고 이 견해는 그가 추측했던 연대 예언이 실패한지 여러 달이 지난 후에 나타난 연대로서 예언에 의해 보장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재림파가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경시한, 때에 관한 예언은 참으로 주께서 왕

국을 설립하시기 위해 보이지 않게 임재하실 때를 알려 주기 위한 것은 아닐까? 내가 명백히 봤던 것들을 알 방법이 이것 뿐일까? 최소한도로 말해서, 주께서 그 백성들에게 특정 주제에 대해 정보를 주실 것이고, 충성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둠에 남겨지지 않을 것 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그리고 주의 날은 마치 밤에 도둑같이(은밀히, 부지중에) 온다고 하였지만, 항상 주의하고 열심인 성도 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합리적으로, 매우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데살로니가 전서 5:4.

나는 친구 조너스 웬들과 그 외의 재림파 성원들이 사용했던 주장 들, 즉 1873년에 불타는 세상을 목격할 것이라는 주장(세계의 연대 계산에서 아담으로부터 6,000년은 1873년 초에 끝날 것이라는 주장)을 떠올려보았습니다. 또한 성서로부터 도출되었고 우연히 일치 했던 그들의 주장들을 회고했습니다. 그들이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내가 살펴볼 가치도 없다고 여겼던 그 연대 계산속에 혹시 중요한 진리가 정말로 담겨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유의할 점은, 러셀은 이때까지만 해도 때에 관한 예언을 중요 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경시<sup>despised</sup>”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이 가르치시는 것이라면, 모든 방면에서 어떠한 것이라도 배우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던 나는 당장 바버 씨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나는 다른 내용에서도 당신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과, 특히 ‘당신이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성서적

근거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복음시대의 추수 작업이 시작되는 날짜가 1894년 가을이라고 언급했는지를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답장을 통해 나는 나의 추측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답장의 내용은, 때의 논의, 연대 계산 등은 1873년에 재림파가 사용한 것과 완전히 같고, 어떻게 바버 씨와 그 동료인 미시간의 J. H. 페이턴(J. H. Paton)씨가 그 무렵까지 재림파 정규 멤버로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상에 아무런 일도 없이,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1874년이 지나가 버렸을 때 바버씨와 페이턴씨가 어안이 병병했었다는 내용의 답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취되지 못하고 지나간 것 같은 연대 예언을 재차 검토했지만, 거기에 어떤 실수도 발견할 수가 없었고, 대신 '그 시기 자체는 옳았고, 다만 그들의 기대가 틀렸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과 다른 이들이 가르쳤던 지상에 대한 보상과 축복이었을지 모르는 그런 것들은 기대할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874년에 대한 그들의 낙담이 얼마 가지 않아, 「아침의 전령」의 독자로서 「다이어글롯역(Diaglott)」 성경 한 권을 들고 있던 그 독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성경 번역판에서는 마태 24:27, 37, 39, 등에 나오는 단어가 오심(coming)으로 나오지만 「다이어글롯역」에서는 임재(presence)로 번역한 것이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였고, 그들은 이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서가 되어, 이후 그들은 예언적 시기를 주의 재림의 목적과 그 방법으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나는 우리 주의 돌아오심의 목적과 방법으로 보는 것은 우선적으로 옳은 것이지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밝히고 있는 것들을 통해 그 시기를 고찰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하느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진리의 다른 출발점으로 종종 이끄십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이 다르더라도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의 결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연대 예언을 다룬 책이나 출판물은 없었고, 그래서 나는 바버 씨에게 가능하다면 필라델피아(나는 1876년 여름 동안 업무상 여기 있었습니다)까지 와서 나를 만나 주기를, 그리고 1874년에 주님은 임재하셨고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완전하고도 성서적으로 나에게 보여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왔고, 그 증거들은 나를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확신과 주께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이기에, 나는 당장 우리가 사는 이 특별한 시기는 우리 의무와 주의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추수의 시대에 있다는 것, 추수의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현재의 진리는 낮이고 이 낮으로 주님은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 사이에서 모으는 일과 낫질을 할 것이라는 것을 당장 보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재림파인 N. H. 바버의 방문을 통해, 러셀의 연대 예언에 대한 생각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러셀은 재림파들의 잡지인 「아침의 전령」의 보조 편집자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러셀의 저서와 그가 설립한 위치 타워에서 출판되는 잡지의 내용은 연대에 대한 예언들이 주요 특징들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sup>12)</sup>

12) 바버와 만난 후에 러셀은 또 다른 재림파 사람인 조지 스토스(George Storrs)가 발행한 잡지 「사경」(查經 :The Bible Examiner)에 바버가 계산한 1914년에 대해 설명한 기사를 기고했다. 이때부터 다른 재림파들처럼 “전령”(Herald)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사용하였고, 당시 잡지 제목

“일곱 때”에 대한 해석과 러셀이 선택한 1914년은 모두 바버와 그의 추종자들이 제시한 주요 연도인 1874년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당시 1874년은 이미 지났지만 1914년은 아직 십여 년 남은 상태였습니다.) 재림과 사람들은 1874년이 인간 역사 6,000년의 끝이며 그 해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1874년이 지나가자 재림파들은 낙담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인용했던, B. W. 키이쓰 B. W. Keith는 재림파로서 바버의 잡지에 기사를 기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서 「임팩틱 다이어글롯역 *The Emphatic Diaglott*」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 “오심 *coming*” 대신에 종종 “임재 *presence*”를 사용한다는 점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키이쓰는 바버에게 그리스도는 사실 1874년에 보이지 않게 “임재 *presence*”하셨으며 이제 보이지 않게 심판과 관련된 일을 진행 하시는 중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임재”라는 것은 반박하거나 반증하기 매우 어려운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한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신의 부모가 보이지 않게 자신을 방문해서 위로해준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보이지 않는 임재”라는 개념은 바버가 몸담고 있던 재림파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예언한 [1874년]이라는 연도는 정확했으며, 다만 그 때 일어날 일에 대해 잘못된 기대를 한 것”이라는 변명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러셀은 이런 설명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sup>13)</sup>

---

은 「시온의 파수대와 그리스도의 임재의 전령」(Zion's Watch Tower and Herald of Christ's Presence)이었다. (러셀은 “임재”가 이미 1874년에 시작되었다고 믿었다.)

13) 앞서 인용된 「파수대」 영문 1906년 7월 15일호에서 어떻게 그들이 이 주장을 발전시켰는지 볼 수 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임제가 1914년에 시작되었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거의 50년 동안 워치타워 협회가 마치 예언자(선지자)처럼 그리스도의 임제는 보이지 않게 1874년에 시작되었다고 선언하고 선포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914년으로부터 15년이 지난 1929년이 되어서야 지금의 교리로 변경된 것입니다.<sup>14)</sup>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으로 1914년에 자신의 왕국 통치를 시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대」는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이 1878년에 일어났다고 가르쳤습니다.<sup>15)</sup>

현재 여호와의 증인들은 1914년에 “마지막 날” 혹은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대」 잡지는 반세기 동안 “마지막 날”이 1799년(1796년에 발표된 조지 벨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임)에 시작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로 사망한 기름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이 1918년에 부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십 년 이상 「파수대」는 이 일이 1881년에 일어났다고 가르쳤습니다.

현재 여호와의 증인들은 1914년 이후, 특히 1919년 이후 큰 “추수”가 시작되었으며 자신들이 전파하는 소식에 응답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현 사물의 제도가 멸망됨으로써 절정을 맞이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대」는 창간호부터 “추수”는 1874년부터 1914년

---

14) 1926년에 발행된 「예언」(Prophecy)이라는 서책 64, 65면 참조. 「파수대」 영문 1974년 8월 15일호에서는 이러한 교리들을 언급하지만, 1914년 이후에 변경된 것이라는 어떠한 암시도 제시하지 않았다.

15) 이 교리는 1914년으로부터 8년이 지난 1922년 시더포인트 대회(Cedar Point Convention)에서 처음 변경되기 시작하였다.

까지 진행될 것이고 1914년에는 이 세상에 동조한 모든 인류가 멸망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협회는 “큰 바빌론”(“거짓 종교 세계 제국”)이 1919년에 무너졌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파수대」는 최소한 사십년 동안 큰 바빌론이 1874년에 무너졌고, 완전한 멸망은 1914년이나 1918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 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지 받던 이러한 주요 예언들을 갑자기 변경한 합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13세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행해진 예언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 즉 실현될 것이라고 간절히 믿었던 예언들을 발표했지만 결국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주장에 불과했다고 평가 절하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일반적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래된 「파수대」 기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협회는 조직의 지난 역사를 다룰 때 오랜 세월 믿어왔던 교리들을 무시해 버리거나 단지 일부만, 그것도 축소 또는 왜곡된 형태로 언급하기만 할 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교리들이 그 당시 얼마나 강력하고 확신에 찬 형태로 전달되었는지 지금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제 협회의 “기록물*the record*”들로부터 증거의 조각들을 살펴볼까요? 위치타워가 말한 기록물들을 살펴보면, 현대의 오늘날에 있어서 협회가 예언자의 역할을 한다는 그 주장이 유효한지가 확정될 것입니다.<sup>16)</sup>

---

16) (역자): 여기에서의 “기록물”이란 한국어 「파수대」 1972년 6월15일호 270면 6항에서 “역사”

「파수대」가 처음 발행된 1879년부터 검토해보면, 기록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금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1914년을 “이방인의 때”의 끝이라고 표기하고는 있지만, 이 연도는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1874년이었고 그 해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 임재하셨고 왕국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곧 하늘로 홀연한 승천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이 도래하기 훨씬 전에 이 세상은 큰 재앙과 혼란에 빠져 무정부 상태가 되고, 1914년에는 이 모든 일이 완료되고 그분의 왕국이 모든 인류의 통치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견해가 명확해진 시점의 자료를 「파수대」 영문 1881년 1월호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정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유대 민족 시대의 추수와 복음 시대의 추수가 그 시작한 시점뿐만 아니라 그 진행되는 기간에도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 시대의 기간은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때 [A. D. 30년은 추수 때의 시작임]부터 예루살렘이 붕괴된 A. D. 70년에 이르는 40년 동안입니다. 우리의 복음 시대의 기간은 “분노의 날”의 끝인 1874년에서 “이방인의 때”의 끝인 1914년까지인데 - 이것은 동일하게도 그 40년 기간과 대응됩니다. 유대 민족 시대의

---

(the record)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의미.

수확 처음 7년은 교회에서 익은 곡식을 모으는데 특히 사용되었고; 3년 6개월 동안은 예수께서 신랑으로서 임재하신 기간이고; 이후 3년 6개월이 지나면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영광에 들어가는 데, 그 기간 동안 모든 사람은 예수의 감독과 지휘 하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는 바닥을 청소하시고, 곡식을 모으시고, 껍질을 태우셨습니다. 또한 지금 동일한 일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년의 주기”의 정점인 1874년에 그리스도가 임재한 것을 율법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음을 압니다.(앞서 제시한 - “Day Dawn” 「새벽」책 참조) 그리고 이 대응 관계는 우리에게 그 때부터 추수가 시작되었고, 안전한 장소로 데려갈 신부를 모으는 일이 동일하게 7년 동안 이루어져 1881년에 종료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언제, 그리고 왜 “종의 집”은 그리스도에 의해 넘어졌을까요? 특히, 유대 민족 시대의 추수의 마지막 작업은 정확한 패턴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볼 때, 만약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언제, 그리고 왜 복음의 집이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지를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위대한 힘과 통치권을 가지고 추수 작업을 시작하셨음을 인지하면서, 그리스도가 지금 임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추수 작업은 교회에서 밀과 잡초(가라지)를 분리하는 것과 모든 시대를 통해 그리스도의 왕국 권위아래 밀을 단으로 묶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발아래 모든 것들이 굴복할 때까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는 말씀과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라는 말씀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를 선택하면서 추수의 작업을

시작하셔야 했고, 두 가지의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해 보입니다.<sup>17)</sup>

당시 「파수대」에서도 명확하게 표명했듯이 “지표 *anchor*”가 된 연도는 1914년이 아니라, 1874년이었습니다. 그 해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부터 40년 안에 그분은 모든 추수 작업을 완료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당장 무슨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심지어 1881년 바로 그 해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제시되었습니다. 동호의 다음 기사는 바로 그런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오 주님,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 “오 주님,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는 언제 오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 보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그 분을 마주대할 때를 생각하며 떠올리는 그 많은 기쁨을 아직은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변화와 관련된 기사 12월호에서, 우리는 우리의 많은 추측 보다 더욱 가까이 그 변화가 있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고, 우리가 특별한 때에 우리의 변화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시기 동안 또는 1881년 가을까지는 몇 가지 증거들을 볼 수 있을

---

17) (역자): 성구의 인용은 「개역개정판」에서 인용.

것인데, 그 증거는 자연에서 영적인 상태로 변이 또는 변화하는 것  
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그 때에 있을 것이라는 증  
 거는 영적인 몸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욱 더 그렇습니다. 그 변화를 가지고 그 결혼하고 1878년부터 일반  
 적인 교회(지금은 황폐하게 변한)에 특별한 호의가 3년 반 동안 있  
 었다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1881년 근처에서 어떠한 변이의 기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혼으로 향해 가는 것은 이미  
 변화를 위한 준비(예수의 임재를 깨닫는 것에 의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 자체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  
서 언급한 그 시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또는 우리가 변화할 것  
이다)라는 증거는 매우 강력한 것이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를  
조사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가까웠다는 직접적인 증거  
 를 차지하고서, 그 변화의 방식을 지금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  
리가 변화의 그 시기에 가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진  
 리는 “때를 따라 준비된 음식”이고 그런 방식으로 이해되기 때문입  
 니다. 이것은 1878년 봄 이후에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왕으로서 계셨다는 것을 이해할 때) 거룩함 또는 혼례 의상에 대한  
 주제가 우리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유대 시대의 끝에 대응되는 것  
 이외에도, 유대 나라에 그 당시 보여졌던 호의는 왕의 임재를 암시  
 했습니다. 혼례 의상에 대한 논의도 역시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  
 와서” [마태 22:11]라는 말씀의 적용에 있어서 정확했다는 증거였습  
 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이 왕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변화에 앞서서 지금 손님들을  
 조사하는 것이 마지막 일이고, 조사가 끝나면 결혼식이 진행되고 우

리는 모두 변화된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들의 변이를 나타내는 것 같은, 그리고 높은 부르  
심의 그 문이 1881년에 닫힐 것이라는 모든 형태와 예언적 요소로  
인용하는 것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겠지만, 1881년 1월 그 당시에는 1881년 가을에 하늘로 홀연한 승천을 할 것이며 그 때에 “신부 반열이 될 기회  
의 문이 닫힐 것 *when the door - opportunity to become a member of the bride - will close.*”  
임을 강조한 것은 확실합니다. 이 일은 1914년보다 35년 전의 일입니  
다. 당시 1914년은 모든 사건이 종료되는 종착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기름부음받은 그리스도인 “신부 반열”이 1881년 가을 하늘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눈앞에서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시  
간이 지나면서 그 시점은 점점 연장되었고 1914년이 좀 더 중요한 연  
대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1914년은 모든 상  
황이 종료되는 시점으로써 지상의 통치권이 제거되고 “명목상의 그  
리스도교국”은 완전히 멸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878년에 그리스도께서 왕국의 왕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신다는 믿음  
에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러셀의 저서 「때는 가까웠다 *The  
Time Is At Hand*」 239면과 247면에서 다음과 같이 보여줍니다.

### 대응되는 특정 시대의 제도들

239

그는 신랑으로서 왔고, 동시에 추수(그의 직책을 시작하는 것)를 시  
작하러 온 수확자였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기 전 그 자신을 그들의

왕이라고 말한 것 같이, 그들을 향해 선언한 심판에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움직이고, 그들의 집을 황폐케 버려두고, 그들의 성전을 정화(누가 19:41-46; 마가 11:15-17.)하는 전형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추수에서 나타났습니다: A.D 1874년부터 A.D. 1878년에 이르는 첫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우리의 주님은 신랑과 수확자로서 임재했습니다. 그 때 이후부터 명확해 졌습니다. 그 때 하느님의 집에서 왕으로서 심판을 시작하셨던 A.D 1878이 도래했던 것입니다. 계시 14:14-20 에서, 우리의 주님은 금 면류관을 쓰신 수확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추정적 권력이 이러한 형태로 대응된다면, A. D. 1878년은 우리에게 임재하는 주님, 영적인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이 왕중의 왕으로서의 실제적인 권력을 명백히 지니는 그 시기- 그가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바로 그 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으로 그가 말씀하신 부활, 환란의 시작, 그리고 나라의 황폐와 밀접합니다.(계시 11:17, 18)

**그들은 그들의 방문 시기를 알지 못한다.**

누가 19:44; 마태 24:38,39.

우리의 주님은 신랑, 수확자, 그리고 왕이라는 세 가지 모습으로 임재하신다.

요한 3:9; 4:35,38; 마태 21:5-9; 4:2,

고린도후서 11:2; 계시 14:14,15; 15:17:14

예수 탄생 시대의 초림의 순간, 30년 후 침례를 통해 메시아로서의 기름부음 받음. 마태 2:1-16

신랑과 수확자로서 주님의 실질적 존재 - A. D. 29년 10월

3년 반 이후 주어지는 왕으로서의 권력과 명성 - A. D. 33년

재림의 순간인 1844년, 30년 후에 실재로 존재하여 교회를 깨우고 시험 함. 마태 25:1

주님은 실재로 존재하여 신랑과 수확자가 되심 - A. D. 1874년 10월

3년 반 이후 주어지는 왕으로서의 권력과 명성 - A. D. 1878년

### 왕의 첫 번째 일, 심판

보통의 유대인 집이 거절되었음.  
문자적인 성전 정화가 이루어짐 -  
마태 20:18; 21:5-15; 23:37; 24:1  
유대의 정치가 완전히 붕괴됨. 버  
려진지 37년이 완성됨 - 또는 추  
수가 시작된지 40년이 됨 - A. D.  
70년

보통의 그리스도인 집이 거절되었  
음. 영적인 성전 정화가 이루어짐  
- 베드로전서 4:17; 계시 3:16; 말  
라기 3:2  
일반 교회가 완전히 붕괴됨, 버려진  
지 37년이 완성됨 - 또는 추수가 시  
작된지 40년이 됨 - A. D. 1914년

세기가 바뀌어 1900년대가 되었지만, 그들의 모든 생각이 맞물리는  
핵심 연도는 여전히 1874년과 1878년이었습니다. 1799년부터 그들은  
“마지막 날”에 살고 있었고, 1878년부터 시작된 “추수”의 시기에 살고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1878년부터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행사하고 있  
었으며, 부활이 그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신  
념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보이지 않게 일어날 뿐이었  
습니다. 다만 1881년에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할 것이라는 기대만 빛나  
갔을 뿐이었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사건들 덕분에 그들의  
주장은 과거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계속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1914년을 불과 3년 앞둔 1911년에도 「파수대」지는 여전히 1874년  
과 1878년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큰 바빌론”은 1878년에 무너졌고  
1914년 10월에 “완전한 멸망”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조정’된 견해도 있었습니다. 종래에는 1881년에 하늘 왕국 반열의 문  
이 완전히 닫혔다고 했지만, 「파수대」 영문 1911년 6월 15일호 기사에  
서는 아직 “문”이 “반쯤 열어둔 채”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관계가 없더라도, 우리는 1874년이 이 “수확”이 시작

하는 시기이자 하늘 사방의 바람으로부터 “선택 받은 자”를 모으는 작업이 시작 되는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바빌론이 공식적으로 버림받았던 때인 1878년은 라오디게아 *Laodicea*가 내뿜었던 말 즉, “바빌론이 무너졌다. 무너졌다”라는 말이 진술되는 그 시기이고, 하느님의 호의가 있던 때입니다. 바빌론의 조직이 붕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응관계는 어떤 호의가 여전히 1881년까지 바빌론의 사람들에게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81년 이후로는, 우리는 그 관계성이 어떠한 유익이 아니라 뚜렷한 불이익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고, 이 때부터 고통만이 그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주의 은혜와 진리의 도움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응 관계의 조화에서 보면 1914년 10월에는 바빌론의 종결, 즉 “큰 냇들의 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처럼” 완전히 황폐화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육신의 이스라엘에 대한 호의의 끝이 이 복음 시대에 대한 특별한 호의의 끝으로 추론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즉, 높은 부르심에 대한 초청; 즉, 이 시대를 향한 왕국으로의 제한 없는 또는 일반적인 “부르심”은 1881년 10월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서 연구』에서도 밝힌 대로 우리는 “부르심”이 끝나는 것과 “문”이 닫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왕국 반열을 향한 문은 아직 닫혀있지 않고; 당분간은 반쯤 열려둔 채 있다고 믿습니다. 반쯤 열린 이유는 이는 “부르심”을 이미 받아들인 사람, 자기희생을 통해 그 특권과 기회들을 사용하는데 실패한 사람이 쫓김을 당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면류관을 받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이며, 이것은 계시 3:11의 구절과 조

화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1881년부터 주의 봉사에 헌신하는 기회의 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지금의 이 시기는 하느님의 호의에 있는 시기이거나, 하느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는 자를 “선별”하는 기간입니다.

1914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추수 때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그 절정을 향해 다가가고 있으며, 그들의 희망은 완전히 실현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워치타워의 출판물들은 1914년이 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정확히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1914년이 오기 25년 전에 발행된 「때는 가까웠다」(*The Time Is At Hand*)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7가지 요점을 발표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이방인의 때의 종말 즉, 주후(A. D.)에 도달할 잠시 주어진 권력의 종말에 대한 성서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 이방인의 때

77면

1914년; 그리고 그 때는 불완전한 인간들의 통치가 완전히 종결될 것 will be the farthest limit입니다. 그리고 관찰해 볼 때, 만약 이것이 성서에 의해 명백히 수립된 사실이라면, 그것은 다음을 증명합니다:-

첫째, 그 때에 하느님의 왕국,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왕국이 임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하느님의 왕국이, 이 땅에 현존하는 기구들이 황폐케 되는 그 터 위에, 완전하고

총괄적인 권력 *obtain full, universal control* 을 가지고 “세워지” 는 때입니다.

둘째, 이렇게 지배권을 취할 분이 그 때 땅의 새로운 통치자로서 존재할 것을 증명하고; 그 뿐만이 아니라, 이 분은 그 날짜 전부터 상당한 오랜 기간동안 존재하실 것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이 마치 용기장이가 도자기를 던져 부수듯이 이방인의 정부들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시편 2:9, 계시 2:27), 그들의 정부대신 그 자신의 의로운 정부를 설립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A.D. 1914년이 끝나기 전 어떤 때에 (*some time before the end of A.D. 1914*), 신령한 그리스도의 회중, “존귀한 제사장” “그리스도의 몸” 의 성원들은 그 머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을 계승할 자들이며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할 것이며, 모든 성원이 모여지지 않으면 완전한 왕국이 “세워”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넷째, 그 때로부터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지 않게 되지만, 신성한 꾸지람의 먼지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때”가 완전히 차거나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그 때까지 혹은 좀 더 빠른 시기에, 이스라엘의 눈먼 상태가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분적인 눈먼 상태”는 단지 “이방인이 다 찰때까지”(로마 11:25),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의 몸 또는 신부의 성원으로 완전히 선택된 성원들이 완전히 찰 때까지 였습니다.

## 때는 가까웠다

78면

여섯째, “나라가 생긴 이래로 결코 없었던 큰 환란의 시기”가 세계 곳곳의 혼란의 상태에서 정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호와는 하느님이시고 그 분은 이 땅에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조용히 배우고 알게 됩니다.(시편 46:10) 그때에 바다에는 성난 파도가, 땅은 녹고, 산은 무너졌고, 하늘은 불타는 그 상징적인 말로 회자된 상태가 지나가고 평화로운 축복에 찬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환난에 허덕이는 인류에 의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정당하고 올바른 권력자들이 하느님의 어린이 단체에 의해 제일 먼저 깨닫게 될 것입니다 - 이 반열은 연대 그림에서는 m 및 t로 제시하고 있음(제1권 235 페이지에서 239페이지 참조); 그 후, 환난이 끝날 때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를 알아채고 마지막에는 전 인류가 이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그 때가 되기 전에 권력으로 조직된 하느님의 왕국은 땅에 존재할 것이고, 이방인의 우상을 때려 부술(다니엘 2:34) 것이고, 이들 왕들의 권력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양한 영향력과 대행인들에 의해 이 왕국의 권력과 지배가 빠르게 확립되고, “존재하는 권력” - 세속적이고 기독교적인 것 - 은 철과 점토로 깨지며 흩어질 것입니다.

이상은 1914년 이전의 출판물들입니다. 지금까지 인용된 출판물들에서는 1914년에 “불완전한 인간들의 통치가 완전히 종결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해에 하느님의 왕국이 설립되어 “온 우

주적 통치권을 획득하고 지상에도 확고하게 설립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14년 이후 (1924년) 발행된 출판물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지면을 장식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이방인의 때의 종말 즉, 기원후 도달할 잠시 주어진 권력의 종말에 대한 성서적 증거를 제시합니다.

### 이방인의 때

77면

1914년; 그리고 그 때는 불완전한 인간의 통치가 붕괴 *disintegration*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해 볼 때, 만약 이것이 성서에 의해 명백히 수립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면, 그것은 다음을 증명합니다:-

첫째, 그 때에 하느님의 왕국, 우리의 주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왕국이 임하시옵고”라고 했던 하느님의 왕국이, 이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기구들이 황폐케 되는 그 터 위에, 맡겨진 권력 *assume control*을 가지고 곧 *shortly* “세워지”는 때입니다.

앞서 언급한 출판물에서는 세 번째 요점에서 1914년까지 즉 1914년이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의 마지막 성원까지 그 머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1914년 이후 출판물에는 말투가 바뀌어 1914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셋째, 전복이 끝나기 전 어떤 때에 *some time before the end of the overthrow*.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리스도의 교회, “존귀한 제사장”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성원들은 그들의 머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 계승자들이며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이며, 모든 성원이 모여지지 않으면 완전한 왕국이 “세워”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1914년에 대해 자신만만하게 예언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하나도 발생하지 않고 실패로 돌아가자 1914년 이후의 출판물에서는 그 실패에 대해 은폐하려는 명백한 노고가 있었습니다. -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은 그들이 주장했던 일곱 가지 예언들 중 하나도 적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러한 기대들은 오늘날 협회의 출판물들에서 언급된 극히 일부분의 내용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나, 어떤 이는 그 일들을 완전히 무시해 버립니다.<sup>18)</sup>

실상, 최근의 협회 출판물을 읽으면 초대 워치타워 협회장인 러셀이 1914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판물들은 오히려 일부 독자나 개인들이 지나치게 강한 기대 또는 독선적인 외침을 했던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워치타워의 이런 태도는 수십 년 동안 조직의 공식적인 역사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의 여호와의 증인 *Jehovah's Witnesses in the Divine Purpose*」책 영문 52면의 내용입니다.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상하는 일에서 그들의 진술이 지나치

---

18) 1799년과 1874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1878년과 1881년에 대한 연도 예언도 단순한 실수라고 무시해버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게 열정적이었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수대」지를 읽으면서 기사가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러셀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큰 변화가 반드시 있을 것을 확신하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었고, 특히 시간적 요소와 관련해서 독자들이 여전히 열린 마음을 유지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 서적은 「파수대」지를 인용하고 있지만 「파수대」지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위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용한 1893년 「파수대」지에서 특정한 “시간적 요소 *time element*”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단 한 번만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great storm is near at hand. Though one may not know exactly when it will break forth, it seems reasonable to suppose that it cannot be more than twelve or fourteen years yet future.**<sup>r</sup>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12년 내지 14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위에 인용한 러셀의 저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 환난은 분명히 1914년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것도 늦어도 1905년이나 1907년까지는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상 정부들은 1914년에 멸망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확정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914년이 시작되기 겨우 2년을 남겨두고 「파수대」지는 독자들에게 약간의 주의를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의 여호와와 증인 *Jehovah's Witnesses in the Divine Purpose*」책 53면(영문판)에서는 1912년 「파수대」지에 실린 러셀의 말을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확실히 미묘한 의견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 우리로서는 가능한 서로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이방인의 권력 지배가 끝나는 것은 1914년의 10월 또는 1915년의 10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시작된 이래 결코 없었던” 극심한 다툼과 혼란은 이방인의 때의 마지막이거나 메시아 지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 번 독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우리는 재난의 때(큰 환난)가 진행되는 중에 이방인의 때가 끝날 것이라거나, 혹은 거기에 계속되어 오는 영광의 시대에 대해 아무것도 예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성서가 말하는 포인트를 드러내고, 그 의미에 대해 우리의 견해를 나타냈을 뿐이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 각자가 판단해 줄 수 있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이 예언에 대한 견해가 바뀌는 점은 없습니다. ...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이런 일들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이런 것을 믿고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이것이 협회가 그려가는 그림입니다. 「파수대」와 다른 출판물들에서 언급한 것들이 오늘날 협회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에 어떠한 형태로든 각주로 달리지 않는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독선적

인 주장, 특히 1914년에 관련한 모든 일에 대해 조직의 바깥에서 그 책임을 두거나, 출판물에서 명확하게 의도하지 않은 것을 “주의 깊게 읽지 못한” 독자의 책임을 두는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1889년에 발행된 「때는 가까웠다*The Time Is At Hand*」책 98, 99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True, it is expecting great things to claim, as we do, that within the coming twenty-six years all present governments will be overthrown and dissolved ; but we are living in a special and peculiar time, the “ Day of Jehovah,” in which matters culminate quickly ; and it is written, “ A short work will the Lord make upon the earth.” (See Vol. I., chap. xv.)**

In view of this strong Bible evidence concerning the Times of the Gentiles, we consider it an established truth that the final end of the kingdoms of this world, and the full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God, will be accomplished at the end of A. D. 1914. Then the prayer of the Church, ever since her Lord took his departure—“*Thy Kingdom come*”—will be answered ; and under that wise and just administration, the whole earth will be filled with the glory of the Lord—with knowledge, and righteousness, and peace (Psa. 72 : 19 ; Isa. 6 : 3 ; Hab. 2 : 14) ; and the will of God shall be done “*on earth, as it is done in heaven.*”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미 선언한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26년 내에 현존하는 모든 정부들이 전복되고 사라지는 엄청난 사건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태가 속히 절정으로 치달는 “여호와의 날” 즉 특별하고 기이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땅 위에서 ... 속히 시행하시리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제1권 제15장 참조).

---

이 이방인의 때에 관한 성서로부터의 강력한 증거에 근거해, A.D. 1914년의 마지막에 이 세계에 있는 왕국들은 종말을 맞이하고 하느님의 왕국이 수립될 것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에는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 “주의 왕국이 오시옵소서”라고 했던 교회의 기도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공정한 체제 아래에서, 온 세상은 지식과 정의, 그리고 평화(시편 72:19; 이사야 6:3; 하박국 2:14)로 충만한 주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고;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sup>19)</sup>

단순히 어느 정도 “사실”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진리<sup>established truth</sup>”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까? 이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단정적인 표현’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는 표현보다 더 단정적인 말이 또 있을 수 있습니까?

동일한 출판물 제101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실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성도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잘못과 악

---

19) (역자): 인용부호 안의 성구들은 영문 「킹제임스역」KJV을 사용했지만 일부 번역문은 「개역개정판」을 사용)

을 제거하는 주님의 병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의 평화적인 개종은 여기서 상징하는 것으로 선불리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서의 많은 부분 계시 11:17, 18; 다니엘 12:1; 데살로니가전서 2:8; 시편 149 및 47 등에서 그 정반대의 면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이어지는 장에서, A. D. 1878년에 권력의 집행이 시작되는 예언에 기인해서, 하느님의 왕국이 수립되는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우리가 증거들을 제시할 때, 독자 여러분은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미 시작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계시 16:14)은 땅에 현존하는 지배 체제를 전복시키고 A. D. 1914년에 끝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관점에서부터 그 군대들이 모여지는 것은 눈으로 명백히 보입니다. 만약 우리의 견해가 편견으로 뒤틀어지지 않으면, 하느님 말씀의 망원경을 올바르게 조정할 때, “주님의 날”에 일어날 많은 사건들의 특징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 즉 우리는 확실히 이러한 사건들의 한 가운데에 있고, 그리고 “하느님 분노의 위대한 날은 다가옵니다.”

「때는 가까웠다」책이 출판된 지 2년 후인 1891년에 러셀은 「주의 왕국이 임하옵소서」(*Thy Kingdom Come*)라는 서적을 출판하는데, 이 책 제 153면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sup>20)</sup>

---

20) (역자): 인용문에 나오는 ‘그리스도교국’ Christendom이라는 단어는 영어권에서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 러셀은 특히 로마 가톨릭의 교황제도와 부패하고 세상적인 개신교 교회들을 뜻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신비의 바빌론에게 닥친다고 예언되었던 붕괴, 역병, 파괴 등등이 큰 환란과 나라의 멸망의 전조로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내렸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던 A.D. 70년에 함께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붕괴의 기간은 A.D.33년에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의 집은 황폐되어 남겨지는” 때로부터 A.D. 70년은 36년 6개월이라는 기간; A.D. 1878년부터 A.D. 1914은 36년 6개월이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A.D. 1914년의 끝에는, 이미 예언에 나타난 것처럼 하느님이 일컫는 바빌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교국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 다음 해인 「파수대」 영문 1892년 1월 15일호 기사에서는 이미 최종 “전투”는 시작되었고 1914년에는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출판물의 반대적인 놀라운 설명의 관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설명한 유럽의 상황 - 이것은 성서가 우리로 하여금 기대케 했던 것과 조화롭게 - 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었지만, 하느님의 말씀과 그 위에 빛나는 현재의 진리의 빛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크기 때문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났던지 간에 우리는 그 증거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전투”가 종결하는 날은 1914년 10월로서 성서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는 1874년 10월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전투는 문자적인 전투이며, 자본, 노동, 군대, 비밀 결사라고 하는 조직력에 의한 전투입니다.

지금처럼 서로 단결했던 시기는 결코 없었습니다. 국가는 동맹을 맺어 다른 국가로부터 보호하려고 할뿐만 아니라 각각의 국가 내에서도 많은 당파가 각각의 이익을 지키려고 조직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양한 당파들은 단지 상황을 연구하는 중, 그들의 반대자의 힘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 그리고 미래의 전투에 대비한 계획과 힘을 완벽하게 할 것들을 찾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것들은 성서의 증거 없이도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른 이들은 평화! 평화!라고 외치면서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데, 하느님의 왕국이 임하여 그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까지는 평화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의 특징은 모든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성취로서 지속되어야 합니다; 조직화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싸움은 비교적 빨리, 소름끼치게, 단호히 끝날 것이고, 이후 무정부 상태를 초래합니다. 많은 점에서, 세계의 위대한 장군들의 신념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예언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의 다음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또는 국가는 화있을진저”, 왜냐하면 그 전쟁은 전멸의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은 국가적 반감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충, 야망, 그리고 사회적 반감에 의해 사주될 것이고, 만약 이 전쟁이 하느님이 선택한 사람들과 영광을 받은 회중의 손을 통해 하느님의 왕국이 설립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면, 인류는 전멸할 것입니다. - 마태 24:22.

1894년 7월 15일호 「파수대」 기사에서는 세상의 큰 환란은 이제 시작되었고, 마지막 순간인 1914년이 다가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짧은

기사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그 당시 여호와의 증인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CAN IT BE DELAYED UNTIL 1914?

Seventeen years ago people said, concerning the time features presented in MILLENNIAL DAWN, They seem reasonable in many respects, but surely no such radical changes could occur between now and the close of 1914: if you had proved that they would come about in a century or two, it would seem much more probable.

What changes have since occurred, and what velocity is gained daily?

“The old is quickly passing and the new is coming in.”

Now, in view of recent labor troubles and threatened anarchy, our readers are writing to know if there may not be a mistake in the 1914 date. They say that they do not see how present conditions can hold out so long under the strain.

We see no reason for changing the figures—nor could we change them if we would. They are, we believe, God’s dates, not ours. But bear in mind that the end of 1914 is not the date for the beginning, but for the end of the time of trouble. We see no reason for changing from our opinion expressed in the view presented in the WATCH TOWER of January 15, '92. We advise that it be read again.

### 1914년까지 연장될 수 있는 것인가?

17년 전에, 사람들은 「천년기 새벽」책에 나오는 연대 계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연대 계산은 많은 점에서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지금부터 1914년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만약 그 변화가 약 100년이나 200년 사이에 올 것이라고 증명했다라면, 확률적으로 좀 더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매일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까?

“낡은 것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새로운 것이 옵니다.”

지금, 근래의 노동 쟁의나 혼란의 세태의 관점에서, 1914년이라고

하는 연대는 잘못된 것이 아닐 것이라는 내용이 독자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어떻게 현재의 상황이 고통 속에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연대를 변경할 이유가 없고,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변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연대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연대이지 우리의 연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1914년의 끝은 재난의 때가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재난의 때가 끝나는 날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파수대」 1892년 1월 15일호에 나타낸 우리의 의견을 바꿀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그 기사를 참조해 주실 것을 조언합니다.

여기에 “의견<sup>opinion</sup>”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대가 정확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느님의 연대<sup>God's dates</sup>”라는 표현을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파수대」에서 말하는 이른바 “하느님의 연대”에 의심을 품으려고 하겠습니까?

오늘날 협회가 과거 주요한 진리로 주장했던 모습과는 비교가 되게 현재는 이 모든 것들은 지엽적이며 사소한 것들이라고 말하려 하고 있지만, 1914년이 “이방인의 때의 끝<sup>the end of the Gentile times</sup>”이라는 사실은 유효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때의 끝”라는 표현이 워치타워 협회가 현재 사용하는 의미와 1914년 이전 40년 동안 사용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십 년 동안 워치타워 협회는 지상의 모든 정부가 멸망되고 모든 통치권이 그리스도 왕국의 통치로 완전히 대체될 때가 바로 “이방인

의 때의 끝”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즉 어떠한 인간 통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앞서 인용했던 「때는 가까웠다」책 98, 99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1889년부터] 앞으로 28년 안에 현존하는 모든 정부들이 전복되어 사라질 것이다.” 또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에 대한 성서의 강력한 증거들에 근거하여 (1914년에) 이 세상 모든 왕국들의 최종적 종말이 올 것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다. 1914년 말까지 하느님의 왕국이 완전히 설립되어 이 모든 일을 완수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의미는 오늘날 사용되는 “이방인의 때의 끝”(또는 “나라들의 지정된 때”)이라는 의미와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끝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멸망시킨 결과인 인간 정부 통치의 실제적인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인간 정부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 통치”가 끝난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1914년에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게 왕권을 맡아 지배를 시작하심으로 써 “특별한 방식”으로 지상에 주의를 기울이셨다는 의미로 인간 정부들에게는 “간섭”이 시작된 때로 말하고 있습니다(사실상 이런 가르침은 1874년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 누군가를 이론적으로 반박하는 일은 무척 난해한 일입니다. 1914년 이후 지상 정부들의 통치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결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왕이 보이지 않게 해지시켰기 때문에 지상 정부의 “임대된(임시로 맡겨진)” 권력은 종료되었고, 따라서 나라들의 지정된 때의 “끝”이 도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집에 바람직하지 못한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 바람직하지 못한 세입자는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이 반드시 쫓아낼 것이라고 40년 동안 공개적으로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세입자는 여전히 자리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있자 이렇게 말합니다. “음. 나는 임대를 해지시켰어. 그리고 나로서는 이것이 실제로 세입자를 쫓아 낸 것과 같다고 생각해. 게다가,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감시를 기울일거야.”

솔직히 말해, 1914년이 가까워질수록 예언에 있어서 더 많은 주의가 기울여진 것은 사실입니다. 러셀은 초기에 1914년 10월이면 큰 환란과 전 우주적 무정부 상태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1904년 7월 1일호 잡지의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세계적 대혼란

- 단지 1914년 10월의 전후

예언적 숫자에 의해 세계적 대혼란을 예견할 수 있을 때, 얼핏 순전히 하찮고, 전혀 관계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것이 연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념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의 천년기 전에 오는 대혼란의 정점이 1914년 10월 이후 - 그 이후 매우 빠르게, 우리의 견해에서는 - “한 시간 내”, “갑자기”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1894년에 러셀은 1914년을 “우리의 연대가 아니라 하느님의 연대”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단언하다가, 「파수대」 영문 1907년 10월 1일호에서는 1914년을 겨우 7년 남겨두고 “지식 그리고 연대에 관한 믿음”이라는

제목 아래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친해하는 형제가 질문해 왔습니다. 「천년기 새벽 연구」에 있는 연대 계산이 옳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해도 될까요? - 1874년에 수확이 시작되었고, 전 세계의 고통 속에서 수확이 1914년에 끝나 현존하는 정치 기구가 모두 뒤집혀 영광의 왕과 그분의 신부인 회중의 정의로운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해도 될까요? 우리의 답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천년기 새벽」책이나 「파수대」지에서 그리고 구두나 편지에서 자주 언급했듯이, 우리는 우리들의 연대 계산이 항상 틀림없이 정확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연대 계산들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증거, 사실들, 지식에 기초한 지식이 아니라,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사에서 연대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연대계산에 대한 신념이 연대계산은 정확하다는 지식이 된다는 매우 놀랄만한 방법으로 연대 계산의 그 약점은 연대기와 얽혀진 여러 가지 예언들에 의해 충분히 보충됩니다. 일년을 변경하는 것은 그 훌륭한 대응 관계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주전(B.C.)부터 계산하는 것, 주후(A.D.)부터 계산하는 것, 그리고 양쪽 모두에 기초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이런 예언들이 “머지않아” 이해되는 것으로 의미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 예언들을 정말 알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 그리고 그 예언들은 연대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들은 연대기가 절대로 틀림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까요? 예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신념**을 가지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께서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선포하셨고;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르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연대기를 통해서 우리(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은 우리)는 열 처녀의 비유가 지금 성취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 “보라 신랑이로다”(즉 임재)라는 외침이 첫 번째로 들렸던 것은 1844년이었으며, 두 번째로 들렸던 것은 1874년이었습니다.<sup>21)</sup>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견해를 수용하는 사람들만이 믿음이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입니까? 과연 이것이 겸손을 나타내는 태도입니까? 1844년과 1874년에 있었던 동일한 “외침”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어리석은 처녀” 반열로 비유되었습니다.

동일한 기사의 앞부분에서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때와 시기는, 하느님과 친숙하게 대면하는 것에 의해 하느님의 특별한 방식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지식에 따르면, 협회의 연대에 의심을 품는 사람은 하

---

21) (역자): 인용부호 안의 성구 다니엘12:10과 마태25:6 등은 「개역개정판」에서 인용

느님과의 개인적 관계까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도로 계산된 사상적 헐박의 형태입니다. 이런 행태는 1914년이 지나가고, 전 세계적으로 그들이 공포했던 일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더욱 더 몇 배로 심각해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93년 워치타워 협회는 「여호와의 증인 - 하나님의 왕국 선포자」라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자를 발행합니다. 이 출판물의 일부 내용은 다른 책자에서 폭로한 내용에 대해 변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1983년에 출간된 칼 올로프 욘손의 「이방인의 때의 재고」에서 1914년을 포함한 러셀의 독특한 교리들의 근원이 재림파임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워치타워 출판물들에서 수십 년 동안 이런 문제들은 완전히 제외되거나 무시되었습니다. 마치 1914년에 관한 교리가 러셀이 처음 고안한 연대인 것처럼 위장해서 러셀의 「파수대」 잡지가 지금까지 알려진 적이 없는 진리를 전달하는 유일한 통로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상 처음으로 협회는 러셀의 교리가 어느 정도 다른 이론들과 연관이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4장의 「일곱 때」를 2520년으로 계산해 누가 21장 24절에 나오는 “이방인의 때”와 연관시키는 것이 존 A. 브라운이 개발한 이론임을 인정합니다. (이 출판물이 나오기 전까지 워치 타워의 출판물에서 존 A. 브라운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1914년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러셀이 아니라 재림파인 N.H. 바버임을 인정합니다. 바버의 잡지인 「아침의 전령」지는 러셀이 처음 「파수대」에서 1914년을 언급하

기 4년 전인 1875년에 1914년을 “이방인의 때의 끝”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워치타워 협회의 임원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접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칼 올로프 욘손은 자신의 책을 출간하기 전인 1979년에 모든 통치체 성원들 앞으로 2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보냈으며 위 내용들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치타워 협회는 최근에서야 이런 사상들의 출처를 인정한 것입니다.<sup>22)</sup>

여호와와의 증인 역사를 다룬 이 책자는 또한 초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1874년을 그리스도의 “두 번째 임재”로 가르쳐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878년을 그리스도가 왕권을 잡은 해로, 1881년에 하늘로 홀연한 승천이 있을 것으로, 1925년에 “고대 군왕들”이 지상에 부활되고 대 “희년”이 시작될 것으로 가르쳐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1983년 초판이 발행된 이 책 「양심의 위기」에서 제기된 정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자는 길게는 50년 이상 이런 연대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책자를 포함해 최근 「파수대」와 「깨어라!」에서는 늦어도 1914년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예언하였던 수많은 일들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대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sup>23)</sup> (1914년을 “이방인의 때의 끝”이라고 인용하면서

---

22) 「이방인의 때의 재고」책 19-29면과 「여호와와의 증인-하나님의 왕국 선포자」책 45-47, 132-135면을 비교 참조.

23) 예를 들어 「파수대」, 1993년 11월 1일호 8-12면과 「깨어라!」 영문 1993년 3월 22일호 3, 4면(한국어는 「지금은 깰 때이다」, 1993년 4월 1일호 3, 4면)을 참조.

마치 1914년을 “중요한 해”로 여기기만 했다는 듯이) 협회는 당시 수많은 주장 중 일면만을 강조하고 빗나간 예언들의 주요 내용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반 독자들은 1914년(나중에는 1925년)을 얼마나 대담하게 예언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단지 하나의 ‘제언’ 혹은 ‘가능성’으로만 제시된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치타워 출판물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초기 출판물을 찾아 볼 수 없으며, 현재 기사들은 과거 내용을 일부분만 인용하거나 과거 예언들이 그토록 단정적으로 공표된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사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매우 자주 사용하는 트릭은 특정 단어나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특정 단어나 문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 것에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꾸미는 것입니다. 일례로 「깨어라!」 영문 1993년 3월 22호 3면(한국어는 1993년 4월 1일호 3-4면)에서는 “왜 그토록 허위 경보가 많은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세상 끝에 대해 요란한 예보를 하여 주의를 사로잡고 추종자를 끌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선포하는 것을 참이라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일부 성구 혹은 물리적 사건을 그 나름대로 해석한 것을 근거로 기대를 표명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예보가 여호와로부터 직접 계시된 것이라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들은 신명기 18:20-22에서 경고한 부류의 사람들과는 달리 거짓 예언자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

그들은 잘못을 범하기 쉬운 인간의 특성 때문에 문제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각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열렬한 기대로 인해 제시한 날짜가 부정확하였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증인을 거짓 예언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경우에 증인은 결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보하는 것인 양 주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결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다. 여호와의 증인의 기관지인 「파수대」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 (1883년 1월 호 [영문], 425면) “우리는 우리가 기록한 내용을 오류가 없는 것으로 숭상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 (1896년 12월 15일 호 [영문], 306면) 「파수대」는 또한 이렇게 언명하였다. 일부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여호와의 증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영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본지 「파수대」에 집필된 내용이 영감받은 것, 무류한 것, 과오가 없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1947년 5월 15일 호 [영문], 157면) “「파수대」는 자체 내용이 영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교리서도 아니다.” (1950년 8월 15일 호 [영문], 263면) “이러한 간행물을 준비하는 형제들도 전혀 잘못이 없을 수는 없다. 그들이 집필한 것은 바울과 기타 성서 필자들의 기록처럼 영감받은 것이 아니다. (디모데 후 3:16) 그러므로 때로는 이해가 더욱 분명해짐에 따라 견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었다. (잠언 4:18)” - 1981년 10월

15일 호 24면.

위에 있는 주장은 마치 “여호와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실패할 수 없는” 또는 그분에게 “영감 받은”이라는 용어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예언들은 아무런 해악이 없는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성서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예언이 실패할 경우, 과오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이런 단순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거짓 예언자들은 “직접 계시”나 “영감 받은” 혹은 “실패할 수 없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예언이 여호와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워치타워가 발행한 「성경 통찰」책 영문 제 2권 468면(한국어는 제2권 603면)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그분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셀은 자신을 하느님의 대변자로 언급하였고,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 결과라면서 연대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이 그의 모든 주장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독단과 독선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보’ 하는 것인 양 주장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각주에서 제시한 두 개의 참고문헌(이것은 「파수대」 영문 1883년 1월호와 1896년 12월 15일호)을 고려해 보고, 1914년 이전의 출판물과 이후의 출판물에서 발견되는 것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1914년 이전의 「파수대」에서는 연대 계산법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연대”라고 했으며 “1878년에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집에 왕 겸 제사장으로서 오심이 명백한 현시로

나타날 것이고” [1878년] 그 해에 “왕 중에 왕의 권능을 실제 행사하는 것이 명백해 질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성서적으로 확고하게 성립된 사실”로써 성서적 증거들로 “증명된”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즉 1914년에 “불완전한 인간 통치가 끝날 것”이며, 1914년에 그리스도의 몸 마지막 성원들이 “그 머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될 것”이며, 그 해에 “하늘 왕국의 권능이 조직되어” “모든 [이방인] 왕들의 권력을 소멸시켜” 복종시키고, 먼지처럼 땅에 흩어질 것이라고 단언하였습니다. 또한 “[1889년부터] 26년 안에 모든 현재의 정부들이 무너져 소멸될 것이며,” “1914년 말까지 이 세상 나라들이 멸망되고, 하느님의 왕국이 완전하게 설립되어 완수할 것을 확고한 진리로 간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14년 10월까지 큰 날의 마지막 전투가 확실히 종결될 것이며 1874년 10월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앞 장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1914에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예언과 관련된 패턴은 수사적 연막을 사용해 사실을 덮으려는 반복적 행동입니다. 워치 타워의 새로운 역사서 「선포자」책 영문 635면(한국어는 636면)에서는 1916년 「파수대」 내용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추측하였을 따름이고 그것은 잘못임이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증거” 그리고 “증명된”, “확고히 성립된”, “확고한 진리”, “명확하게 정해진”과 같이 그들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용어들을 볼 때 이런 해명은 교활하고 부정직한 태도입니다.

워치 타워는 종종 “논점 흐리기” 기술을 사용합니다.<sup>24)</sup>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예언에 실망한 사람들에게 사과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약한 자들” 또는 이기적인 동기로 “하느님을 섬기다 지친 자들”로 묘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비극적인 일은 워치 타워가 자신들이 행하는 이러한 예언적 행동들이 사람들의 인생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파수대」지의 독자들은 그것을 “때에 따라 공급되는” 하느님의 인도로 받아들입니다. 협회는 자신들이 제공한 예언과 연대에 모든 희망을 걸고 신도들이 인생을 바치도록 독려합니다. 그러나 예언이 빛나가고 사람들이 실망하면 믿음이 부족하고 단순한 의견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그냥 그 속에서 위안이나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낫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시안적 생각입니다. 망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냉정한 현실에 부딪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1차 세계 대전 중 발행된 「월간 성경 연구생」 중 하나입니다. 워치 타워는 협회장 러셀이 단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 그들은 “웅대한 하느님의 계획”이라고 칭하면서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직전에 국가적 위기”, “설교자 러셀은 이 전

---

24) (역자): “논점 흐리기”로 의역한 단어는 원문에서는 “붉은 청어”(red herring)라는 영어 표현으로 나온다. 이것은 혼제청어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사냥감을 추적하는 수색견이 혼란을 일으켜서 사냥감(혹은 추적 대상)을 놓치게 할 목적으로 던져 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토론이나 논쟁에서 불리할 때 논점을 흐리거나 바꾸기 위해서 사용하는 “논점 일탈”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동양에서 해당하는 말을 굳이 찾자면, 상대방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성동격서”(聲東擊西) 정도의 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며 봄에 아마겟돈이 올 것이라고 선언”,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뀔 수 없다.” 등의 제목이 보입니다.

# The Bible Students Monthly

International Bible Students Association, Publishers.

VOL. VI GEORGETOWN, N. Y. No. 5

**RELIGIOUS AND SCIENTIFIC GLEANINGS**  
**NEED GEORGE SAVE CHURCH GIFTS**  
**"SPIRITUALLY SMALL."**

George's religious and scientific views are being widely discussed in the pages of the American Scientist, which gives the total of conference, their character and the results of the same.

The American Scientist, in its issue of the 1st of May, has published a long article on the "Scientific Basis of the Bible," by George, which is a very interesting and valuable contribution to the knowledge of the Bible.

After our own country, the British Government is the largest contributor to the support of the American Scientist, and it is a very interesting fact that the British Government is the largest contributor to the support of the American Scientist.

**PICKETT WIRELESS TELEGRAPHY**  
 Doctor Albert Pickett,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has been successful in his experiments with the wireless telegraph, and he has been successful in his experiments with the wireless telegraph.

## DISTRESS OF NATIONS PRECEDING ARMAGEDDON

**PASTOR RUSSELL DECLARES PRESENT WAR WILL EVENTUATE IN NO MARKED VICTORY FOR EITHER SIDE—THEN "ARMAGEDDON"**

**PLAYERS CANNOT CHANGE THE DIVINE PLAN OF AGES**

Coalition Forces According to God—Present Condition of Triangle Resigning Progress—Present Coalition Forces According to God—All Nations to Be Destroyed—The War to Be Ended in Armageddon—Lasting Peace Obtainable Only Through Messiah's Kingdom, Seen to Be Established.

We wonder do you not almost and wonder all of these things? We wonder do you not almost and wonder all of these things? We wonder do you not almost and wonder all of these things?

It is a very interesting fact that the British Government is the largest contributor to the support of the American Scientist, and it is a very interesting fact that the British Government is the largest contributor to the support of the American Scientist.

After our own country, the British Government is the largest contributor to the support of the American Scientist, and it is a very interesting fact that the British Government is the largest contributor to the support of the American Scientist.

Doctor Albert Pickett, of the University of Toronto, has been successful in his experiments with the wireless telegraph, and he has been successful in his experiments with the wireless telegraph.



DOCTOR PICKETT





제8장

## 정당화와 헐박

C r i s i s   o f   C o n s c i e n c e



...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쉬우니 말을 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잠언 10:19<sup>1)</sup>

스스로를 “하느님의 대변자”로 여겼던 찰스 테이즈 러셀은 1916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성취되지 못한, 때에 관한 예언을 남기고 죽었고, 수천 명의 성경 연구생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930년에 발행된 「빛」이라는 책 제1권 194면에는 그때의 상황이 다음과 같이 실려 있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은 즐거운 기대 속에서 1914년을 고대하고 있었다. 기대했던 때가 왔지만 그냥 지나가자 그들은 크게 실망했고, 유감스러워했으며 슬픔에 잠겼다. 주의 백성들은 그동안 그토록 열심히 1914년에 관한 소식을 전해 왔기 때문에, 1914년에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자 동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 특

---

1) (역자): 원문에서는 「신영어성서」NEB에서 인용, 한국어는 「현대인의 성경」에서 인용.

히 그리스도교국의 교직자들로부터 조롱과 심한 손가락질을 받았다.

1914년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사건들(모든 왕국들과 인간의 제도들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의한 통치가 있을 것, “큰 바벨론”이 멸망할 것,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것)이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고 1914년과 1915년이 그냥 지나가자, 성경 연구생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의혹이 일었습니다. 1914년에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 전쟁이 전 세계적 무정부 상태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리셀은 죽기 직전이었던 1916년 10월에 「때는 가까웠다*The Time Is At Hand*」라는 책의 개정판 서문에서 1914년에 관해 부정확한 예언을 했던 일의 중대성을 축소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sup>2)</sup>

저자는 이 책에서 주님의 성도들이 이방인의 때의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리란 생각을 기술했던 것을 인정하는 바이다.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과오였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축복을 위해서 파기하신 것이었다. 1914년 10월 이전에 교회가 영광으로 모여들 것이란 생각은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자극과 정화의 영향을 주었다. 실수이긴 했지만,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 그들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희망했던 정점이 기대했던 때에 오지 않았음에 감사

---

2) (역자): 「때는 가까웠다」 책은 1888년에 초판 1916년에 개정판이 나온 서적으로 한국어로는 발행된 적이 없는 책이다. 따라서 인용문의 번역은 개인 번역이다.

함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 이는 주님의 백성으로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고 주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더 많이 전달하는데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제시했던 하느님의 낱씨는 지극히 인간적인 추리에서 나온 결과였지, 실제 하느님이 정해 놓으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되게도 그들은 “하느님의 낱씨”라고 제시했으며, 거기에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연관시켜 하느님이 특정 예언을 ‘파기’ 하셨다고 말함으로써 거짓 예언을 한 실제 책임에서 매우 편리하게 벗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잘못에도 불구하고 주를 찬양”하도록 하여, 그릇된 예언을 통해 “고무적이고 정화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태도로 그들은 “고무적인” 효과를 지닌 거짓 예언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실한 예언자의 다음과 같은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는 자들, 빛 대신 어둠을 내주고 어둠 대신 빛을 내주는 자들, 단 것 대신 쓴 것을 내놓고 쓴 것 대신 단 것을 내놓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sup>3)</sup>

러셀이 살아 있는 동안 그리고 그가 죽고 난 후에도 몇 년간, 그의 추종자들은 희망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모든 일들이 정상화 되자, 해가 지날수록 앞으로 있을 연대에 관해 의문점들이

---

3) 이사야 5:20.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판사 리더퍼드가 협회장이 되었고(1917년 1월 연례 총회에서 협회 회장으로 선출됨), 그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게 됩니다. 즉, 솔직하게 예언에 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것인지, 아니면 선임자의 예언을 정당화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후자의 길을 걷기로 선택합니다.

리더퍼드는 「파수대」 독자들의 시들어가는 확신을 되살리기 위해 신속히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러셀이 죽은 지 1년 후인 1917년에 「종말을 고한 비밀」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로마인들이 유대인을 멸망시킨 사건에서 평행점을 찾으며, 1914년에 일어난다고 예언했던 사건들 중 일부를 1918년까지 늦추려고 했습니다. 로마군이 기원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지만, 유대인의 마지막 요새가 함락된 때는 그로부터 3년 반 후인 기원 73년 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종말을 고한 비밀」책에서는 1914년 가을에서 3년 반의 시간을 더하여 1918년 봄을 중요한 날짜라고 새롭게 지목했습니다.

다음은 그 책 62면에 나온 내용의 일부인데, 그 중 밑줄 친 부분들은 이제 일어나게 될 일들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다음을 읽으면서 사용된 표현들에 주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책의 예언이 매우 단정적이었고 실현된 적 없는 기대들을 고의적으로 불러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것인지’ 질문해 보십시오.<sup>4)</sup>

---

4) (역자): 「종말을 고한 비밀」책에 인용된 성구는 모두 영문 「킹 제임스 성경」KJV에서 인용했지만, 한국어 번역에서는 「신세계역」을 사용했다. 또한 「종말을 고한 비밀」책은 한국어로 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인용한 부분은 모두 개인 번역이다.

계시록 2:1 해설에 나온 자료는 유대 정복의 종결이 기원 73년 유월절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거한다. 또한 앞선 성구들에 비추어 볼 때, 1914년 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의 경력이 1918년 봄에 그리스도교국에 닥칠 것이란 것이 확실하다. 「성경연구」 제2권 246,247페이지의 병렬제공 목차의 테이블에 나오는 37이 40으로 70이 73으로, 1914년이 1918년으로 변화됨을 재검토해 보라. 우리는 그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믿기에, “큰 권능과 영광으로”(마가 13:26) 성취될 것임을 믿는다(마가 13:26). 고대 유대 정부의 끝을 기원 70년 또는 73년으로 봐야 하는지에 관한 우리 주님의 뜻은 1915년 10월이 지나기까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더욱이, 우리는 “나라들에 심한 고통이 있(는 것과),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예상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하(는)” 약속된 징조를 보아 왔으며, 그 근거가 될 “하느님의 왕국이 가까웠음”, 심지어 “문 앞에 있는 줄”과 “여러분의 구출이 가까워”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다. 기원 1980년에는 모든 육적 이스라엘이 죽음의 포로 상태에서 회복할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해는, 목회자 러셀이 뉴욕 히포드롬 극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증언을 했던 1910년에서 단지 70년이 지난 해였다. [본서 551면을 볼 것.]

시온의 진통(이사야 66:8)의 때가 1918년에 일어날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예언자 이사야가 언급한 그 사건으로부터 단 “하루”(일전) 전에 살고 있는 것이라면, 그 동안 적은 무리가 무엇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가? “위에서 예언한 그 상징적 진통은 큰 환란의 때의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고통은 소위 복음교회, 즉 큰 바벨론에 닥칠 것이며, 그들 중 일부만이 환란을 면할 가치가 있다고 간

주될 것이다.

따라서 1918년에는, 그리스도교국들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914년보다 더 큰 '고통의 경련'을 겪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1918년에 휴전협정으로 전쟁이 끝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종말을 고한 비밀」은 또한 1918년에 “마지막 엘리야 반열”인 “기름부음받은 자들”의 남은 자들이 하늘 생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음은 이 책 64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Forty days after Christ's resurrection His ascension occurred. This confirms the hope of the Church's glorification forty years (a year for a day) after the awakening of the sleeping saints in the Spring of 1878. The seven days before the Deluge may represent seven years, from 1914 to 1921, in the midst of which "week of years" the last members of the Messiah pass beyond the veil. The Great Company class shall be cut off at its end—the fact that we see the first half of this week so distinctly marked would lead us to expect three and one-half years more of witnessing by the Great Company class; for it seems to be the Heavenly Father's way to accomplish His work by weeks and half weeks, from the very beginning of creation until now. The covenant with Abraham, 2045 B. C., was half way (2081 years each way) between the fall of Adam, 4127 B. C., and the conversion of Cornelius, A. D. 36. The last observance of a typical jubilee by Israel, 626 B. C., was half way (2500 years each way) from the end of Adam's Day, 3127 B. C., and the beginning of the Times of Restitution, A. D. 1874. The captivity, 606 B. C., marks the beginning of the Times of the Gentiles, half way (2520 years each way) between the end of Adam's 1000-year day, 3127 B. C., and the end of Gentile Times, A. D. 1914. The captivity, 606 B. C., marks a point half way (3520 years each way) between the fall of man, 4127 B. C., and his full restoration to Divine favor, A. D. 2914. Christ's death, A. D. 33, marks a point half way (1845 years each way) between the death of Jacob, 1813 B. C., and the restoration of favor to Israel in 1878 A. D. The death of Christ, A. D. 33, was half way (three and one-half years each way) between His baptism, A. D. 29. and the conversion of Cornelius, A. D. 36.**

The awakening of the sleeping saints, A. D. 1878, was just half way (three and one-half years each way) between the beginning of the Times of Restitution in 1874 and the close of the High Calling in 1881. Our proposition is that the glorification of the Little Flock in the Spring of 1918 A. D. will be half way (three and one-half years each way) between the close of the Gentile Times and the close of the Heavenly Way, A. D. 1921.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한 지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이것은 1878년 봄에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난 지 40년 후에(하루를 일 년으로 계산하여)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란 희망을 확증한다. 대홍수 전의 7일은 1914년부터 1921년까지의 7년에 해당한다. 그 “햇수로 된 주간”의 중간에(1918년 - 역자 주) 메시아의 마지막 성원들이 인간 생애를 마감하고, 큰 무리 반열은 그 기간의 마지막에 중단될 것이다. 우리가 그 주간의 전반부를 명확히 보았다면, 후반 3년 반 동안 있을 큰 무리 반열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 주 또는 반 주 단위로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창세 이래 지금까지 하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다. 기원전 2045년의 아브라함과 의 계약은 (2,081년간을 절반으로 계산하여) 아담이 타락한 기원전 4127년과 고넬료가 개종한 기원 36년의 중간이었다. 기원전 626년에 모형적 희년을 마지막으로 지킨 일은, 아담의 마지막 날인 기원전 3127년과 반환의 때의 시작인 기원 1874년의 중간이었다. 기원전 606년의 유배, 즉 이방인의 때의 시작이었던 그 해는 아담의 출현 1,000년이 되는 기원전 3127년과 이방인의 때의 끝인 기원 1914년의 중간이었다. 기원전 606년의 유배의 해는 (3,520년간을 절반으로 계산하여) 인류 타락의 해인 기원전 4127년과 하느님의 은혜로 인류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기원 2914의 중간이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기원 33년은 (1,845년간을 절반으로 계산하여) 야곱이 죽은 기원전 1813년과 이스라엘에게 은혜의 회복이 주어진 기원 1878년과의 중간 지점이었다. 또한 예수께서 돌아가신 기원 33년은 (3년 반을 절반으로 계산하여) 그분의 침례와 고넬료의 개종의 중간이었다.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난 기원 1878년은, 반환의 때의 시작인 1874년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마감한 1881년의 중간이었다. 적은 무리가 영광스럽게 된 해인 기원 1918년은 이방인의 때가 종결된 (1914년)과 하늘의 길이 닫힌 기원 1921년의 중간이 되는 시점이라는 것은 우리의 확실한 견해이다.

그러나 1881년에 관한 예언과 비슷하게, 이 예언도 맞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강력한 표현은 1918년에 그리스도교국의 교회들과 그들의 교직자들이 시체가 묻히지도 못한 채 널릴 것이라는 끔찍한 멸망의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고한 비밀」 484,485면에서 이 예언들 중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죽음에 처할 교회

(484면)

(에스겔 24:20,21)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말씀은 이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여라. “주권자인 주 여호와와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내가 나의 신성한 곳, 너희 힘의 자랑, 너희 눈에 보배로운 것과 너희 영혼의 동정심의 대상을 더럽히겠다. 너희가 뒤에 남겨 둔 너희의 아들딸들 - 그들도 칼에 쓰러질 것이다. - 하느님께서서는 이유를 알려 주신다. 그것

은 그리스도교국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림 또는 비유와도 같은 것이었다. 1878년 이전에는 어느 정도까지 명목상의 교회가 하느님의 신성한 곳 또는 성전의 역할을 하였지만, 1878년 이후에는 잘못된 교리와 행위들을 하느님께서 역병과도 같이 제거하시어 1918년에 정점에 달할 것이었다. 교회는 그리스도교국의 힘으로서, 그 생명의 근원이었으며, 그 조직의 바탕이었다. 사람들의 눈에 보배였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중심주의를 폭로하실 것이며, 하느님 앞에서 죽은 자, 불결한 것, 만질 수 없는 것, 애도될 것으로 만드실 것이었다. 그리고 “교회의 자녀들”은 전쟁의 칼과, 혁명과 무정부에 의해 멸망할 것이며, 영적인 생명의 희망을 잃었음을, 즉 “문이 닫혔음”을 성령의 칼을 통해 알게 될 것이었다.

(에스겔 24:22) 그래도 너희는 내가 한 대로 하고 말 것이다. 콧수염을 가리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빵을 먹지도 못할 것이다. - 그 환란은 너무나도 영향력이 넓고 끔찍한 것이어서 죽은 자들이 문자적으로 장사되지도 못하고 널브러지게 될 것이다. 살아 있는 자들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환란에 압도당한 나머지 죽은 자들을 애도하지도 못할 것이다.

---

### 목회자 러셀, 죽었지만 다시 말하다

(485면)

(에스겔 24:25,26) 너 사람의 아들이야, 내가 그들에게서 그들의 요새, 그 아름다운 환희의 대상, 그들의 눈에 보배로운 것과 그들의 영혼

이 열망하는 것, 그들의 아들딸들을 맞아 가는 날, 그 날에, 도망친 사람이 네게로 와서 귀에 들려주지 않겠느냐? - 또한 1918년, 하느님께서 교회를 대대적으로 파괴하시고, 수백만의 성원들을 멸하실 때에 그 환란을 피한 자는 “그리스도교”의 멸망의 의미를 배우고자 목회자 러셀에게 올 것이다.

(에스겔 24:27) 그 날에 네 입이 도망친 사람에게 열려서, 네가 말하게 되어 더 이상 말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들에게 틀림없이 전조가 되리니, 그들은 반드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 지금까지 목회자 러셀의 목소리는 마치 죽음과도 같은 조용한 상태였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병어리와도 같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 혁명과 무정부 시기에 러셀은 목소리를 낼 것이며, 환란의 날을 피한 자들에게 더 이상 병어리와 같이 조용하지 않을 것이다. 목회자 러셀이 “그들에게 전조가 될” 것이며, 그들은 러셀의 책을 읽고 환란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의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러셀의 말은 그들에게 희망의 전조가 되어 구름의 밝은 면을 보게 해주고, 곧 설립될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왕국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줄 것이다. 그때에야 “그들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교국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그 정부들도 재난과 잊혀짐(끊어짐)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 그리스도교국은 생존하지 못한 것이다.

(513면)

(에스겔 31:14) 이는 물을 공급받는 나무들 중 어느 것도 그 키가 커 지거나 꼭대기가 구름 속에까지 닿지 못하게 하며, 물을 마시는 어느 나무도 그 키에서 구름에 맞서 서 있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틀림없이 죽음에 넘겨져, 인간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래 땅에,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 어떤 다른 지상 조직도 그녀(그리스도교국)의 오만한 전철을 밟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조직으로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놓이므로 치욕스럽게 되어 마치 죽음에 이른 것과도 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에스겔 31:15) 주권자인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 나무가 스올로 내려가는 날, 나는 반드시 애통하는 일이 있게 하겠다. 그 나무 때문에 깊은 물을 덮어서, 그 시냇를 붙들어 두고 많은 물을 그치게 하겠다. 그 나무 때문에 내가 레바논을 어둡게 할 것이며, 그것 때문에 들의 나무들이 모두 기절할 것이다. - 1918년에 그리스도교국이 잊혀짐을 당하고(스올로 내려가), 혁명적 공화국이 그 뒤를 잇게 될 때, 하느님은 애통하게 하는 일이 있게 할 것이다. 하느님은 잠시 동안 위협적인 무정부주의 세력을 억제하고 늦추실 것이다. 그분은 나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교국에 대하여 슬퍼하게 하시고, 세상의(들판) 모든 인간 제도들(나무들)도 세상의 몰락으로 인해 약해지게 하실 것이다(E392,372).

(에스겔 31:16) 내가 그 나무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스올로 내려 보낼 때에, 그 떨어지는 소리에 나라들이 정녕 진동하게 하겠

다. 그러면 아래 땅에서는 에덴의 모든 나무, 레바논의 가장 빼어난 나무와 제일 좋은 나무,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위로 받을 것이다. - 하느님은 전 세계 그리스도교국을 하나의 조직으로서 망각의 구덩이로 던져버리실 때, 나라들을 대규모 혁명으로 흔드실 것이다. (부자 우화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에스겔 31:17) 이것들도 그와 함께 지옥(스올)으로, 칼에 살해된 자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그의 씨로서 나라들 가운데서 그의 그늘에 거하던 자들도 내려갔다. - 그러나 그리스도교국의 힘이었던 자들뿐 아니라 그들의 권세 아래 보호받던 나라들도 함께 망각(스올)의 구덩이로 떨어질 것이다(E392,372).

이 모든 일들은 1918년에 일어난다고 예언되었다. 그러나 그 중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그 책은 1920년에 있을 놀랄 만한 사건에 대해서 예언했다. 대규모의 혁명이 일어나 현존하는 모든 형태의 정부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며, 그 혁명이 1918년에 시작되어 1920년에 정점을 이룬다고 했다.

### 종말을 고한 비밀

(258면)

그에게 그분의 진노에 찬 분노의 포도주 잔이 주어졌다. - 지상의 포도로 만든 포도주 - 계시록 14:17-20, 예레미야 8:14, 이사야 51:17-20, 예레미야 25:26-28, 계시록 18:6.

(계시록 16:20) 또한 모든 섬이 도망하고 산들이 보이지 않았다. - 심지어 그 공화국도 1920년 가을에 사라질 것이다.

또한 모든 섬이 도망하고 산들이 보이지 않았다. - 지상의 모든 왕국이 사라지고 무정부상태로 삼켜질 것이다.

(계시록 16:21) 그리고 사람들에게로 떨어졌으며 - 그리스어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즉 성직자들이다.

큰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 굳게 결속되어 파괴적인 힘을 가진 진리, 즉 「성서 연구」 제7권이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파괴적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결론적 표현. - 계시록 11:19, 이사야 28:17; 30:30, 에스겔 13:11, 여호수아 10:11.

우박의 무게가 각각 한 달란트쯤 되는 - 113파운드(말라기 3:10). 「성서 연구」 제7권이 짐승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즉 성직자들에게 주었던 또다른 의미를 출애굽기 11장과 12장에서 이집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이집트에 찾아오자마자,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은 은으로 만든 보석(큰 무리)과 금으로 만든 보석(적은 무리)을 기꺼이 포기하고 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면서 하루 속히 이집트를 떠나라고 말했다.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성서의 진술을 연결함에 있어서, 만약 「성서 연구」 제7권의 어떤 단락이 계시록 8장과 9장에서 언급한 인용 항목을 간과했다면, 그 누락된 부분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며, 추후 개정판에서 수정될 것이다.

파라오의 군대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한 3일의 기간은 1917년부터 1920년의 3년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기간 동안 파라오의 전령들은 무정부상태의 바다 속으로 삼켜질 것이다. 그 전차 바퀴들은 그 전차들 - 조직들 - 에서 빠져버릴 것이다.

급진적인 요소들이 일어나 1918년에 그리스도교에 변혁을 가져오고 노동당원과 사회주의 정부들이 생겨나게 했지만, 그러한 그들의 움직임조차도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움직임이 그리스도교국의 현존하는 정부들을 몰락시킨 후, 그들 스스로도 1920년에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해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 종말을 고한 비밀

(542면)

교회들과 그리스도교에 대한 화와 분노와 증오에 찬 질투심으로, 하느님은 사회주의자들과 노동당원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교국의 몰락을 도왔던 것처럼, 무정부주의자들이 그들의 몰락을 도울 것이다.

(에스겔 35:12) 그러면 너는 베가 이스라엘의 산들을 거슬러 한 모욕적인 말을 나 여호와가 다 들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너는 “그것들이 황폐되었으니, 우리가 집어삼킬 것이다.”하고 말하였다.  
- 노동당원 등의 세력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사를 주관하시며, 그들이 그리스도교국(이스라엘)의 국가들(산들)에 대항하여 말하는 것들에 주목하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교국이 몰락하고 난 후 노동운동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나라들은 황폐케 되었고, 우리에게 넘겨져서 나뉘게 되었다.”

(에스겔 35:13) 너희가 나를 거슬러 거만하게 말하고, 나를 거스르는 말을 늘어놓았다. - 사회주의나 그와 같은 운동들이 자본주의를 헐뜯고, 그리스도교를 은근히 비난할 때, 사실은 그들이 하느님이 허락하신 질서에 대항하여 말해왔던 것이다. 참 그리스도인이 세상

에 속해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성령 안에 거하셨다. 그들이 이 세상을 사악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두운 상황으로부터 구해내겠다는 결심을 표명하면서, 그들은 의도치 않게 하느님을 대적하여 으스했다. 그러한 일은 하느님의 충실한 교회에 의해서 수행되도록 하느님께서 미리 계획한 일이었으며, 어떤 대행자도 그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사회주의자, 무정부투쟁적 극렬주의자, 노동운동가, 그 밖의 사람들이 한 어떤 말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실 것이며, 그대로 되갚아 주기 위해 기억하실 것이다.

(에스겔 35:14) 주권자인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황무지로 만들 때에 온 땅이 기뻐할 것이다. - 다가올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때에, 회복되지 않을 것들 중 하나는 사회주의, 노동주의 운동들일 것이다. 모든 사회가 하느님이 마련하신 새로운 질서 가운데 기뻐할 때, 사회주의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버려질 것이다.

(에스겔 35:15) 이스라엘 집의 상속 재산이 황폐되었을 때 네가 기뻐한 것과 같이, 나도 너에게 그대로 해 주겠다. 세일 산간 지방아, 온 에돔아, 네가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 급진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을 편들어 그리스도교를 배교한 자들이 1918년 그리스도교국이 멸망되면서 그 상속의 황폐에 기뻐하듯이, 하느님도 성공적인 혁명운동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심지어 모두” 버려질 것이다. 1920년 가을에 있을 전 세계적인, 모두를 아우르는 무정부상태의 소용돌이를 살아남지 못하므로, 그들은 어떤 흔적도 남기지 못할 것이다. (계시록 11:7-13.)

하지만 “1920년 가을에 있을 전 세계적인, 모두를 아우르는 무정부상태.” 이러한 대담한 표현들과 확신에 찬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914년이 그러했듯이, 새로 지목했던 1918년과 1920년 역시 그리스도교국의 ‘고통의 경련’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교국의 정부들과 그에 속한 교회들이 멸망되지도 않았고, 수백만이 살육되지도 않았으며, 기쁨부음받은 자들이 하늘생명으로 부름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1918년에 러더퍼드와 여섯 명의 주요 인사들이 기소되어 투옥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말을 고한 비밀」과 다른 출판물들이 반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방첩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해인 1919년에 모든 혐의를 벗고 풀려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유의 몸으로 1920년을 지켜 볼 수 있었습니다. 「종말을 고한 비밀」에 따르면 그 해의 가을 무렵에 모든 공화국들과 “지상의 모든 왕국들”이 “무정부상태로 삼켜 질”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 “지금 살아 있는 수백만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달려 나갔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예언하였다.

예레미야 23:21

워치타워 협회장 러더퍼드는 1920년에 「지금 살아 있는 수백만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소책자를 발행했습니다. 이 캐치프레이즈는 심지어 최근까지도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러더퍼드가

새롭게 발전시킨 예언에 근거한 문구였습니다. 지금 살아 있는 수백만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의 모든 요지는 새로 지목된 때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25년입니다. 다음의 밑줄 친 부분은 소책자가 그 해에 관해 얘기한 부분입니다.<sup>5)</sup>

「지금 살아 있는 수백만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88~90면)

... 70년의 희년이 지나갈 것임을 보여준다.(예레미야 25:11; 역대기하 36:17-21) 이 희년에 관한 간단한 계산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70번째 돌아오는데 모두 3,500년이 걸릴 것이다. 기원 1년부터 1,575년을 거슬러 올라간 때(즉, 기원전 1576년 - 역자)를 시작으로 하면, 그 기간은 필연적으로 1925년 가을에 끝나게 되며, 그때 예언적 모형이 끝나고 모형의 위대한 실체가 시작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하는가? 예언적 모형에 의하면 온전한 회복이 있었다. 따라서 모형의 위대한 실체에서 만물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회복이 필요한 것들 중 주된 것은 인류의 생명이다. 성경에서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한 고대의 충성스러운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이들이 첫번째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못박았으므로, 우리는 1925년에 이 충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5) (역자): 「지금 살아 있는 수백만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책에 사용된 성구는 영문 「킹제임스역」 KJV에서 인용했지만, 한국어 번역은 「개역개정판」을 사용하였다. 이 책은 한국어 공식 번역이 존재하는 책이다.(1921년) 하지만 현대인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개인 번역을 사용하였다.

죽음의 상태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목격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은 부활된 후에 완전한 인간성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지상의 새 질서에서 눈에 보이는, 법적 대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루어진 위대한 메시아의 왕국이 일단 설립되면,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품었던 염원과 희망과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때가 오면, 그곳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있을 것이다. 예언자가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묘사해 놓았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느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 미가 4:1-4

## 지상 통치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돌아오는 대 희년은 1925년에 시작

될 예정이다. 그 해는 왕국의 지상 단계로 식별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죽었던,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시기 전에 죽었던 충실한 사람들의 명단을 길게 열거한다. 이들은 결코 하늘 반열이 될 수 없다. 그들은 하늘 희망을 품지 않았다. 하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위해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분의 약속에 따르면, 그들은 완전한 인간으로 부활되어 지상에서 군왕들이나 통치자들로 임명받을 것이다 (시편 45:16, 이사야 32:1, 마태복음 8:11).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바울이 특별히 이름을 언급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고대의 충실한 예언자들(선지자들)이 인간의 완전성을 회복한 상태로 돌아오는 일이 1925년에 일어날 것임을 확신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다.

(97면)

... 왕국이 설립된 후에 때가 되면, 그대에 성취될 일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예수께서 정해진 때에 온전한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실 생각이 없으셨다면 이런 약속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분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한 11:26)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가? 그렇다면 세상이 알게 될 때에는, 그 말씀을 믿고, 당연히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확약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쟁점들에 근거해 볼 때, 다시 말해, 사물의 옛 질서

와 옛 세상이 끝나고 있고, 따라서 지나갈 것이라는 점, 그리고 새 질서가 오고 있으며 1925년에는 고대의 충실한 종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해 볼 때,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1925년에도 여전히 살고 있을 것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합리적이다. 하느님의 말씀에 명시된 약속에 의하여, 우리는 지금 살아 있는 수백만 명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논쟁의 여지없이 명백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살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하느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돌이켜 다시 의롭게 살고 의에 순종한다면, 그들도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주님의 예언자(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했다: (역자: 에스겔 18:27,28. 인용 생략)

앞서 인용된 적 있는 1993년 판 「깨어라!」와 같은 출판물들뿐만 아니라 위치타워가 최근에 발행한 역사책을 보면, 특정 날짜를 찾으려는 온갖 노력과 그 기간에 일어날 사건들에 관한 예언들이 마치 단순한 “기대들”에 불과했었던 것처럼, 어떤 확신도 나타낸 적 없었다는 듯이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틀릴 수 없는 신성한 영감’이라고 하면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을 피해갈 수 있도록 경고의 선언들이나 조항들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여 인용합니다. 한편으로는 분명하게 “여호와와 이름으로”라는 어구를 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925년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 예언을 하면서, 그것이 “신성한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돌아올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다” - 단지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 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는 척하며, 무엇을 근거로 독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확신을 가지도록 부추기는 것입니까? 한편으로 확실하여 절대 틀릴 수 없음을 공언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신성한 약속에 근거했으므로 “우리는 지금 살아 있는(책이 발행되었던 해인 1920년에 살고 있던) 수백만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논쟁의 여지없이 명백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는 것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단지 표현상의 차이만 있을 뿐, 소식의 의미나 강력함, 사람들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소위 “수백만 캠페인”이라 불렸던 운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소책자가 전하는 소식에 주의를 끌기 위해 2년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캠페인이었습니다. “지금 살아 있는 수백만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힌 대형 광고판이 대도시마다 세워졌습니다. 신문 광고면을 사용한 선전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워치타워 대표들은 모든 공개강연에서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최근의 역사책에서 협회는 그토록 충력을 기울여 세계적 규모로 진행했던 그 모든 선언들이나 기사들을 언급할 때, 그 일을 단지 과거의 흥미로웠던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1925년에 대한 예언은, 그 당시에는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제시되었습니다. 인간들의 말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 위에 매우 굳건하게 세워진 소식이었으므로, **온전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치타워의 이 역사책이나 다른 어떤 출판물에서도 그 소식이 사람들

의 희망과 삶에 미친 심각한 영향이나, 예언이 맞지 않았을 때 느낀 깊은 환멸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미명하에 선언되었던 예언들이 사실은 인간의 추리와 상상에 불과했다는 점에 대하여 미안함을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과 관련된 도의적 책임은 사소하며 본질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1921년에 러더퍼드는 그의 첫 표준 사이즈 서적인 「하나님의 거문고 *The Harp of God*」를 발행했습니다. 그 책은 1799년에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1874년에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임재가 있었다는 협회의 확신과 믿음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거문고」 236~240면의 내용이며, 밑줄 친 부분이 그가 말하고 있는 요점입니다. 그 시대의 주목할 만한 발전들과 세상의 상태가 그러한 날짜들을 지지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사용되었다고 말하는 점에 주의해 보십시오.<sup>6)</sup>

… 여기서의 목적은 중요한 특정 날짜에 주의를 기울이고, 만약 있다면, 얼마나 많은 예언이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대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정확한 계산에 기초해 있으며, 오류의 가능성도 언제나 존재한다. 이미 성취된 예언은 물리적 사실들의 기록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명확히 고정된 것이다. 물리적 사실들은 무

6) (역자): 「하나님의 거문고」책에 인용된 성구는 영문 「킹제임스역」이지만, 한국어 번역에서는 「개역개정판」을 사용하였다. 이 책 영문은 1921년에, 한국어는 1924년에 출판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한자를 매우 많이 사용했고, 아래아 모음도 사용하는 등 표기법도 지금과 너무 달라서 지금으로서는 읽기가 매우 난해하다. 따라서 이곳에 사용한 번역은 개인 번역이다. 이후로도 영문판으로 표시된 잡지나 서적의 번역은 모두 개인 번역이다.

능력하지 않으며, 명백하여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증언을 하는  
증인처럼 조용히 서 있을 것이다.

400 우리가 혼동하지 말고 확실히 구분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날짜가 있다. 바로 “마지막 때”의 시작과 “주의 임재”의 시작이다. “마지막 때”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원 1799년에 시작해서 사탄의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메시아 왕국이 설립될 때까지의 기간이다. 주의 두 번째 임재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1874년에 시작되었다. 물론, 이 임재 기간은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기간에 속하며, 마지막 때의 후반부를 차지한다.

---

404 그때 이후로, 이에 부합하는 상당한 양의 지식의 증가가 모든 과학 분야에서, 아니 배움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늘 교황의 반대를 받아왔던 공립학교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보통교육과 더 향상된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다. 또한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이 세계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과 노동을 절약할 수 있는 기계 등의 발명품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나오고 있다.

405 1799년 이전에는 하루에 아주 짧은 거리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 밖에 없었다. 말이나 소가 끄는 차를 타거나 걸어야 했고, 바다를 건너가려면 아주 느린 돛단배를 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1831년에 처음으로 증기기관차가 발명되었다. 이런 놀라운 발전 덕분에 철로를 달리는 기차를 타면 지구의 어느 지역으로든 빠른 속도로 여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 후에는 전기기관차와 전동차 그리고 가

솔린 엔진도 나왔다. 그리고 지금은 지구 전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시속 75~100마일(120~160킬로미터)로 이동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며, 특히 아주 최근에 나온 발명품인 비행기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406 지금까지 나열한 발명품들은 그리스도의 임재 기간에 있는 ‘하느님의 준비의 날’과 관련이 있다. - 나훔 2:1-6.

407 1844년에는 전보가 나왔고, 나중에는 전화기가 발명되었다. 처음에는 전선을 통하여 전달된 전기 신호로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선도 필요 없이 기계를 사용하여 공중에 신호를 쏘아서 지구 저편에 소식을 전할 정도가 되었다.

408 이렇게 지식이 방대하게 증가하고, 사람들이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활발히 이동하는 모습은 의문의 여지 없이 “마지막 때”임을 증언하는 예언의 성취이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사실들은 부정할 수 없으며, 분별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1799년 이래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다.

409 이 “마지막 때”의 후반기는 예수께서 추수 때로 지정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이 “추수는 세상[세대]의 끝이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때에 와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1874년 이후는 “마지막 때” 기간의 후반기에 해당한다. 앞서서도 말한 것처럼, 1874년부터는 주님의 두 번째 임재 기간이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과 관련해 이루어진 많은 것들을 열거하면서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라고 말했다(고린도 전서 10:11).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은 “마지막 때”에 이해될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

410 노동자 계급은 재정적, 종교적, 정치적 군주 아래 계속 피지배자로 살면서, 항상 압제에 시달려 왔다. 그런데 1874년, 우리 주께서 두 번째로 임재하신 해에 세계 최초로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이다. 그때 이후로 빛이 놀랍도록 밝아지고 있고, 우리를 위한 발명과 발견들은 여기에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졌다. 하지만 1874년 이후 주의 임재로 빛이 밝아진 증거들을 일부만 열거하자면 다음과 같다: 계산기, 항공기, 알루미늄, 살균 수술법, 인공 염료, 자동 연결 장치, 자동차, 철조망, 자전거, 카보런덤(탄화규소의 특허상표명), 금전 출납기, 셀룰로이드, 통신학교, 지방 분리기, 아프리카 오지탐험, 회전식 쟁기, 「시대에 관한 하느님의 경륜」책, 다이너마이트, 전철, 전기용접, 에스컬레이터, 불 없는 조리기구, 가솔린 엔진, 수확용 농기계, 조명용 가스, 유도 전동기, 라이노타이프(Linotype: 활자를 한 글자씩이 아니라 한 줄씩 주조하게 해주는 장치), 점화 기계, 모노타이프(한 글자씩 자동 주조해주는 장치), 활동사진, 북극탐험, 파나마 운하, 저온살균처리법, 라듐, 철도 신호, 린트겐선(일명 X선), 신발 봉제기계, 고층빌딩, 무연화약, 남극탐험, 잠수함, 지하철, 축음기, 전화기, 텔레비전, 타자기, 진공 청소기, 무선통신 등.

특히 그는 성서공회들, 대학들의 증가, 증기 및 전기와 가솔린을 이용한 운송수단의 발전, 전신과 전화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지식의 증가와 이동성의 향상을 묘사한 후에, 이 책 239면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마지막 날”임을 증언하는 예언의 성취이다. 이러한 눈에 보이는 사실들은 부정할 수 없으며, 분별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1799년 이래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충분히 확신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다.

“몰어볼 것도 없”고, 논쟁의 여지도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결코 틀릴 수 없음을 뜻합니다. “결코 틀리지 않는”이라는 단어가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면으로 보나 그는 사실상 그러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의심이 생기거나 확신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분별력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지적인 협박에 해당합니다. 진정한 진리는 이런 식의 협박이 결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예언들과 과거의 날짜들에 관한 강력한 확인들이 얼마나 “격려적이고 정확하는” 효과를 가졌든지 간에, 1914년으로부터 8년이 지난 1922년 무렵에는 때에 관한 협회의 예언에 대한 확신이 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이 사용한 방법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방법들은 1975년 이래로 패턴처럼 사용되었고, 최근에도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석에 대하여 좀 더 부드럽게 주장하고 권위에 대하여 좀 더 겸손한 관점을 취하는 대신, 조직은 연대에 관한 교리가 정확하다고 더욱 독단적으로 주장하면서, 일관된 태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그 당시에는 분명히 목회자 러셀에 해당한다고 여겨졌던)에 대한 가르침에서 “충성함”이 바로 그들이 내거는 표어였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근거한 연대 교리에(그 연대는 N. H. 바버, 존 아킬라 브라운과 그의 동료들의 가르침에 근거함.)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지혜에 지나치게 심취한 나머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야망적이고, 고집스럽고, 적의에 의해 그릇 인도되어 주를 부인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로 묘사되었습니다. 조직이 제시한 날짜들에 반하는 고대 역사가들의 증언에 조금이라도 무게를 둔다면, 그는 사탄의 제국의 사신들에게 신뢰를 두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이 믿기 어려우면 1922년과 1923년에 발행된 「파수대」에서 꾸준히 사용되었던 표현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논쟁할 수 없는,” “의심의 여지없이 옳은,” “거룩하게 입증된,” “절대적이고 무조건 옳은,” “명백히 설립된,” “증명된 확실함,” “하느님으로부터 기원한” 등. 반복적으로 사용된 이와 같은 표현들은 1914년, 1918년 그리고 가장 최근의 예언적 해인 1925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대기를 설명하는 데에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1799년(마지막 때의 시작), 1874년(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임재 시작), 1878년(기름부음받은 자들의 부활 시작), 1881년(러셀이 주의 관리인으로 온전히 지명된 때)이 포함되며, 이는 ‘1914년만큼이나 성서적 지지’를 받고 있는 연도들로 여겨졌습니다. 다음은 「파수대」 영문 1922년 3월 1일호의 내용이며,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부분에 밑줄을 그어 놓았습니다:

### 추수의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와 함께 그 시대는 끝날 것이며, 그때

주께서 거하시며 사자를 보내 그가 선택한 자들을 함께 모으실 것이라고 하셨다.(마태복음 13:24-30; 24:31) 주께서 추수 때에 그분의 임재와 추수 작업을 알리시기 위해 지상에 증인을 두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정황적으로 결정적인 증거들이 더 있다. 즉, 눈에 보이는 사실들은 말보다 더욱 강력한 힘이 있는 법이다. 추수 활동이 있을 때와 주인의 임재에 관한 발표를 한 사람은 러셀 형제였다. 그가 “추수 때이다, 들로 나가 추수하라.”고 외치며 처음으로 밖으로 나간 사람이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선포하는 데에 참여하여 따라 나섰다.

예수께서는 그의 임재 기간 동안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두어, 그들을 사용하여 믿음의 가정들에게 때에 적절한 양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오늘날 시대에 대한 신성한 계획이 무엇인지 배워 알게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가 얻은 지식은 러셀 형제가 쓴 것들과 관련하여 성경을 공부하여 얻은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구원에 관한 하느님의 계획이 있었는지조차 몰랐다고 진실되게 대답해야 한다. 오늘날 하느님의 말씀의 진리의 빛 가운데 즐거워하는 모든 이들은 주께서 러셀 형제에게 진리를 주셨고, 주의 임재가 시작된 직후 러셀 형제가 시작한 봉사와 활동을 통해 그 진리를 밝히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느님을 향한 지혜”(러셀을 가리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남보다 더 지혜롭다고 믿는 자들”을 비웃으며,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전형적으로 “독단적인 발언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몇 단락 뒤에서는 1799년과 1874년에 관한 “논쟁의 여지없는 사

실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독단적인 태도”가 본인들에게 적용될 때는 “진심어린 확신”으로 여겨졌나 봅니다. 이어지는 잡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느님을 향한 지혜

그가 현명한 사람이었을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의 뜻에 의하면, 특히 세속 성직자들의 내리는 정의에 따르자면,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가 현명하지 않았다는 것에 하느님께 감사드린다. 그를 헐뜯는 자들이 언급했듯이 그가 뛰어난 세속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더라면, 하느님께서도 결코 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위 학식있는 교직자들이 그가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에 주목해 보라. 그 비난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어나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 상당수가 그들 스스로를 몹시 대단하게 여긴다는 것도 아주 잘 보여준다. 그들은 아는 것이 매우 많아서 다른 누군가가 이루어 놓은 것을 뒤집을 정도로 놀라운 무언가를 반드시 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주의 길에서 벗어나며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지혜에 의존한다.(잠언 3:5,6) 그들은 대개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문들로 말하고 쓴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들의 지혜가 돋보이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믿기 때문에 독단적인 방식으로 발언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지혜라는 것을 다른이들이 갖지 못한 경우에는, 그들의 독단적 발언은 진위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

게 된다.

---

그러므로 명백한 사실들이 “마지막 때”가 1799년에 시작됐고, 주의 두 번째 임재가 1874년에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이후에 추수가 잇따라 시작되었고 더 밝은 빛이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마태복음 24:45,46)

두 달 후인 1922년 5월 1일호에서도, 그들은 조직의 가르침에 의문을 품는 사상을 쫓아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같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sup>7)</sup>

### 야심의 열매

적어도 얼마간은 주님을 따랐었고, 좋은 정신과 성격도 가졌지만, 지나치게 자신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때때로 나타난다. 그는 자신이 신성한 것들을 돌보고 하느님의 백성들을 황야에서 이끌어 내는 일을 하도록 하느님으로부터 임명받았다고 스스로 확신한다. 그러한 마음 상태가 더욱 발전할수록, 주께서 러셀 형제를 그 종으로 택한

---

7) (역자): 인용된 성구는 「개역개정판」을 사용했다.

것은 실수였다고 확신하게 되며, 이 의구심이 나중에 더욱 발전되어 러셀 형제가 아예 “그 중”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러셀 형제가 쓴 것들에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러한 생각을 드러내어 표현하기도 한다. 이제 그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이와 같이 그는 경고를 무시하고, 적들의 교묘한 영향력에 이끌리게 되어, 러셀 형제의 가르침을 무효케하고 교회가 가야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본인의 중대한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옹호하는 데 부합하는 원고와 도표를 준비하여 설명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의견을 제시할 때, 그는 자신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조언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 여기고 이런 조언을 무시해 버린다. 그는 완전히 도취가 되어, 자신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고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되돌려야 한다고 여긴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발행하기 시작하고 이것들을 배포한다. 그의 주장은 피상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가르침 받은 것들을 잊어 버린 사람들에게는 호소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것들을 읽은 어떤 사람들은 의심이 생긴다. 이제 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러셀이 발전시킨 협회의 가르침에 충성을 나타내는 것은 하느님과 그리스도께 충성을 나타내는 태도와 동일시되었습니다. 러셀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주장이 같은 호에 숨김없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재림 기간 동안, 때에 따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줄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회중 안에 두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주의 재림, 추수 때, ‘그 종’의 임무가 러셀 형제에게 맡겨졌음을 지지하는 증거는 넘쳐난다. 이것은 절대로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찰스 테이즈 러셀이 의사였든, 미장공 보조였든, 셔츠 판매원이었든, 그가 누구였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성 베드로는 어부였고, 성 바울은 율법학자였다.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하느님이 선택한 그릇이었다. 러셀 형제의 세속 직업이 무엇이었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느님의 종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원리에 의해, 러셀과 그가 한 일을 부인하는 것은 주를 부인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러한 일련의 논지는 반세기 후인 1980년대에 “배교자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때에도 지금처럼 연대 교리는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를 판단하는 “믿음을 시험”하는 요소였습니다. 같은 호 「파수대」에서는 협회가 제시한 ‘때’에 관한 교리를 - 1799년, 1874년, 1914년, 1925년을 포함한 - 의심하는 것은 결국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신 그의 피를 부인하는” 결과로 이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시험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연대기와 관련되어 있다. 만일 의심과 반대의 길을 따라 간다면, 주의 재림과 추수의 때, “종”의 임무와 “그 종”에 임명된 자, 세상의 마지막 날에 관한 증거들, 왕국의 설립, 곧 있을 부활 마련 등을 모두 의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결국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신 그분의 피마저 부인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파수대」는 매 호마다 협회의 연대 교리에 조침을 맞추면서, 그와 반대되는 증거들은 비난하고 자신들의 때에 대한 교리는 정확하다고 자찬했습니다. 1914년은 때에 관한 교리들 중 단 한 부분에 불과하며, 모든 날짜들(그리고 그 날짜들에 대한 모든 설명들)은 정확하고 신성한 인도를 받은 결과이므로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파수대」는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파수대」 영문 1922년 5월 15일호 기사입니다:

## CHRONOLOGY

**W**E HAVE no doubt whatever in regard to the chronology relating to the dates of 1874, 1914, 1918, and 1925. Some claim to have found new light in connection with the period of “seventy years of desolation” and Israel’s captivity in Babylon, and are zealously seeking to make others believe that Brother Russell was in error.

The apostle James assures us that “if any of you lack wisdom, let him ask of God, that giveth to all men liberally, and upbraideth not; and it shall be given him”. We believe that promise and daily petition for heavenly wisdom and grace to be guided aright. We also believe that the prayers of the saints ascend daily to the throne of heavenly grace for divine guidance as to what shall appear in **THE WATCH TOWER**, and we are very appreciative of that fact.

### 연대

우리는 1874년, 1914년, 1918년, 1925년과 관련된 연대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70년간의 황폐 기간”과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배 생활과 관련해 새로운 빛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러셀 형제가 틀렸다고 믿도록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설득하려 한다. 사도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우리에게 확언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며, 하늘의 지혜와 영광을 날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또한 종들이 파수대에 어떤 내용을 실어야 할 지 신성한 지침을 구하는 기도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왕좌에 날마다 닿는다고 믿으며 이 사실에 매우 감사한다. (성구의 인용은 「개역개정」)

협회는 독자들에게 자기들의 연대 교리에 반하는 세속 역사의 증거들에 넘어가 쉽게 흔들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문단의 마지막 결론 문장에 유의해 보십시오:

요세푸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권위 있다는 사람들의 의견도 때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시대 후 첫 두 세기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자료들을 손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들을 편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세속 역사 중 최고라고 여겨집니다. 출처가 이들 기록이든, 다른 기록이든간에, 역사가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날짜들이 있습니다. 그

러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독자들에게 자신들의 지혜를 인상깊게 심어 주고자 매우 확신에 찬 말로 결론을 지으며, 배우는 사람들은 더 깊이 조사해 보지 않고 눈 앞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에 관한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는 데 사용한 「파수대」의 표현들과, 이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 하느님의 승인의 표를 얻음

1874년, 1914년 그리고 1918년이라는 연도가 산출되었다. 그리고 주께서는 1914년과 1918년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도록 봉인하셨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동일한 계산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때에서 시작하여, 여호와께서 유대인들을 꼭 채운 70년 동안 바빌론으로 보내신 사건에서 명백히 나타나듯이, 50년으로 이루어진 각 주기를 온전히 70번 계산하면, 희년 모형의 실체가 1925년, 아마도 그 해 가을에 시작한다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다. 1914년 만크이나 1925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없다. 1914년에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연대기를 조금이라도 바꾸지는 않는다. 중요하게 지목된 날짜에 주의하다 보면, 모든 사건들이 그 날짜를 중심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한정된 생각을 가지기 쉽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언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된다.

1914년과 1918년뿐 아니라 1844년, 1874년, 1878년에 그러하였다.  
이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보면, 그러한 날짜들은 명백히 성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기대했던 얼마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시험과 정련의 수단으로 사용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백성  
들을 격려하시기 위해 의도하신 일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25  
년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된 일들이 그 해에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  
도,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날짜를 조금이라도 바꾸지는 않  
을 것이다.

앞서 제시되었던 때에 관한 예언이 또 다시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은 주님께 핑계를 댔습니다. 예언이 실패한 것은 주님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것 없이 주가 그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느님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종들을 격려하기 위해 거짓말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사상이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성서에서는 분명히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sup>8)</sup>

하느님과 그의 아들이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오류를 사용하신다는 점은 이러한 성서의 말씀과 조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의문을 품는 자들을 하느님을 반대하는 불평하는 자들이라고 못박아버려,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단 일 년만 바뀌어도 연대 교리가 위험해진다고, 즉 협회가

---

8) 요한 1서 1:5

발전시킨 “연대 체계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매우 강조했었습니다.<sup>9)</sup> 하지만 협회는 최근에 기원전과 관련된 날짜들 대부분을 바꾼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소위 “현존하는 참 연대”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 사용한 어떤 수식어도 그들에게는 지나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설명도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장의 많은 부분이 나중에 버려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을 읽어 보십시오. 「파수대」 1922년 6월 15일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 현존하는 참 연대기의 다른 증거

수학에는 “확률의 법칙”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은 일상생활에서 의심스러운 일을 해결할 때 유용하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그 일은 아이들 중 누군가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 사실은 그랬을 게 확실하고, - 나머지 다른 아이들은 관련이 없게 된다. 어떤 집이 밤 사이 알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면 확률의 법칙에 의해 그것은 순전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두 집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일이었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만약 같은 방식으로 세 집 이상에서 동일한 일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우연의 가능성을 떠나 계획된 일이었음이 확실해지는 것이다.

---

9) 「파수대」 영문 1922년 6월 15일호, 187면.

1845년과 2520년이라는 두 개의 커다란 주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현존하는 참 연대기가 단순한 우연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의 영역에서 벗어나 확실성의 영역에 속하게 한다. 만약 이 주기들 중에 상응하는 날짜가 한두 개라면, 이는 어쩌다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일 수 있지만, 일치하는 날짜와 사건들이 수십 개라면 이는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일을 계획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존재 - 여호와 - 에 의해 의도되고 계획된 일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연대는 그 자체로 참이어야 한다.

기자의 대피라미드에 적혀 있는 문구를 보면, 한두 개 측정이 현존하는 참 연대기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일 수 있지만, 수십 개가 일치한다는 것은 피라미드와 그 연대기를 만드신 분이 동일한 하느님이라는 증거이며, 동시에 연대기가 옳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성막과 에스겔의 성전의 측량치가 연대기와 부합하는 것은 연대기가 참임을 더욱 확실히 못박는다.

과학이라는 가장 확실한 법칙과 일치되는 그러한 무수한 상응점들에 기반하여 있다고 우리는 확언한다. 성서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존하는 참 연대기는 의심할 수 없는 참이다. 1874년, 1914년, 1918년이라는 연도와 그 때 일어난 사건들은 연대기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현존하는 참 연대기는 현신한 하느님의 자녀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 알고자 할 때 기댈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다. - 베드로전서 1:11,12, 요한복음 16:13.

“바위처럼 굳건하게,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진 연대 교리

에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여호와와 그의 영감 받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문제”라고 기사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sup>10)</sup> 지금은 대부분 버려진 연대 고리를, 당시에는 특정 부분이나 일정 부분에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신성”하다고 주장했었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인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1922년 7월 15일호 「파수대」에 “연대의 강한 빛줄”이라는 제목 하에 실린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진리의 연대기는 다른 연대기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날짜들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랜 기간의 전후가 연결되는 사건들인데, 그 단계들은 믿음만한 실존증거로 검증됩니다. 하지만 연대기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전부라면 세속의 것들보다 더 믿음만하다고 정직하게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사슬에 불과하며, 사슬은 다른 고리들이 아무리 강해도 어느 한 고리가 약하다면 그 사슬은 약한 사슬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참 연대기의 날짜들 사이에는 잘 짜여진 연관성이 있습니다. 날짜들 간의 그와 같은 내부적 긴밀함은 세상의 어떤 연대기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부여해 줍니다. 어떤 특성들은 매우 놀라워서 이 연대기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임을 명백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왔으며 거룩하게 입증된 연대기는 단연 독보적이며, 절대적이고, 무조건 옳습니다.

---

10) 「파수대」 영문 1922년 6월 15일호, 187면.

## 명백히 세워짐

날짜가 여러 증거들로 뒷받침된다면 그것은 굳게 입증된 것입니다. 과학적인 확률의 법칙에 비추어 볼 때, 날짜의 증거들이 모여 만든 것보다 여러 가닥으로 엮인 동아줄 같은 연대기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일들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입니다. 즉, 어떤 일이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설명이 되면 우연히 맞은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일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이 되면, 그 일은 거의 사실임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만약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설명이 되면, 그것은 우연이라거나 사실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에 더해 더 많은 증거들이 있다면 우연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검증된 확실성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이 법칙은 날마다 재판정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들을 다룰 때 적용됩니다. 한 증인의 증언은 의심스럽게 여겨질 수 있지만, 두세 증인의 일치된 증언은 사실로 성립됩니다. “모든 일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확증되어야 합니다.” - 고린도 후서 13:1

현존하는 참 연대기의 날짜들은 서로 간에 긴밀한 연관성이 매우 많습니다. 단순한 날짜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사슬이 아니라, 가닥들이 서로 단단하게 엮여 만들어진 동아줄입니다. 거룩하게 조화된 체계이며, 모든 날짜들이 다른 날짜들과 놀라운 연관성을 가지는데, 이는 인간으로부터 기원한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

## 신성한 기원을 가졌다는 증거

현존하는 참 연대기의 중요한 날짜들은 명백히 거룩한 예지라는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대기가 신성한 기원을 가지며,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신성한 진리의 발견이라는 증거를 나타내줍니다. 날짜들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이 그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이 없다면 세상의 어느 연대기와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주신 승인의 인장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때에 관한 계산이 신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로 “평행점들”이라는 이론이 제시되었습니다. 1845년과 2520년에 상응하는 기간은 많은 역사 속 사건들과 날짜들에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호 「파수대」 기사에서는 평행점들로부터 연대를 찾는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행점들이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온 현존하는 참 연대기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일어난 사건들은 나중 일어날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급한 것처럼, 서로 2520년의 차이가 나는 이스라엘의 분열과 그리스도교의 분열에서 첫 번째 분열은 나중 분열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건의 시간과 속성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사실입니다. 두 사건 간에 2520년의 차이를 보이는 평행된 날짜 구조가 적용되면, 그것은 예지를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사건들 간의 그러한

관계가 하느님의 신성한 마련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터무니없습니다. 하느님만이 오직 그러한 선견지명을 가지십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때와 사건들을 결정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들은 마치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조화롭게 잘 짜인 직물과 같습니다. 너무나 절묘해서 우연의 산물이라거나 인간의 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온 현존하는 참 연대기”라고 여기는 것과, 연대기를 “영감 받은” 것이라고 묘사하는 것 사이에 어떤 실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평행점에 근거한 연대 계산법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신성한 예지의 산물이므로, 그것이 갖는 중대한 의미나 확실함을 부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협회가 그 계산법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협회의 교리 체계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때에 관한 예언’에 의혹을 품는 태도라면 그 어떤 것도 배척하려고 애쓰면서, 그들은 이 모든 기사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다가올 사건을 준비시켜온 것으로 보입니다. 1922년에는 오하이오 주 시더 포인트에서 대회가 열리기 전 먼저 독자들에게 특정한 정신과 태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협회 역사상 중대한 의미를 갖는 행사로 자주 언급되는 1922년 대회의 주요 연설은 이미 「파수대」 기사들을 통해 미리 다져 놓은 초석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요즘은 협회가 1914년을 옹호할 때면 그 연설의 매우 일부분만을 인용합니다. 1799년과 1874년이 동일하게 중요시되었고 청중들도 같은 결론에 이르도록 촉구했다는 사실은 감춰버립니다. 이는 다음에 나오는 「파수대」 영문 1922년 11월 1일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ible prophecy shows that the Lord was due to appear for the second time in the year 1874. Fulfilled prophecy shows beyond a doubt that he did appear in 1874. Fulfilled prophecy is otherwise designated the physical facts; and these facts are indisputable. All true watchers are familiar with these facts, as set forth in the Scriptures and explained in the interpretation by the Lord's special servant.

Jesus himself declared that in the time of his presence he would conduct a harvest of his people, during which he would gather unto himself the true and loyal ones. For some years this work has been in operation and is nearing completion. He stated that during his presence he would have one who would fill the office of a faithful and wise servant, through whom the Lord would bring to his people meat in due season. All the facts show that those prophecies have been fulfilled.

#### DAY OF PREPARATION

Why has the King come? To set up his kingdom and reign as King. But he had a work to do before his reign began, and that is a preparatory work. Since there are to be associated with him in his reign his body members, these must be gathered together and prepared for the beginning of the reign. The gentile time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god of this world ended August 1, 1914. Before that date it would not have been consistent for the Lord, the King of glory, to take unto himself his great power and reign. (Ezekiel 21:27) Since he has been present from 1874, it follows, from the facts as we now see them, that the period from 1874 to 1914 is the day of preparation. This in no wise militates against the thought that "the time of the end" is from 1799 until 1914. The period from 1799 to 1874 could not be said to be a day of preparation, but a day of increasing light. It is not reasonable to think that the King began to make preparations until he was present.

For six thousand years God has been preparing for this kingdom. For nineteen hundred years he has been gathering out the kingdom class from amongst men. Since 1874 the King of glory has been present; and during that time he has conducted a harvest and has gathered unto himself the temple class. Since 1914 the King of glory has taken his power and reigns. He has cleansed the lips of the temple class and sends them forth with the message.

The importance of the message of the kingdom cannot be overstated. It is the message of all messages. It is the message of the hour. It is incumbent upon those who are the Lord's to declare it.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the King reigns; Satan's empire is falling; millions now living will never die.

Do you believe it? Do you believe that the King of glory is present, and has been since 1874? Do you believe that during that time he has conducted his harvest work? Do you believe that he has had during that time a faithful and wise servant through whom he directed his work and the feeding of the household of faith? Do you believe that the Lord is now in his temple, judging the nations of earth? Do you believe that the King of glory has begun his reign?

Then back to the field, O ye sons of the most high God! Gird on your armor! Be sober, be vigilant, be active, be brave. Be faithful and true witnesses for the Lord. Go forward in the fight until every vestige of Babylon lies desolate. Herald the message far and wide. The world must know that Jehovah is God and that Jesus Christ is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This is the day of all days. Behold, the King reigns! You are his publicity agents. Therefore advertise, advertise, advertise, the King and his kingdom.

성서 예언은 주께서 1874년에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를 볼 때, 의심할 것 없이 1874년에 주께서 나타나셨음을 알려줍니다. 예언의 성취는 물질적인 면으로 확인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서에 기록되어 있고, 주의 특별한 종이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진실한 모든 파수꾼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익숙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임재하셔서 사람들을 추수하실 때에 진실하고 충성된 자들을 그의 곁으로 모아들이실 것이라고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일은 진행되어 오고 있었고, 이제 완수될 때가 가까워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임재 기간에, 충실하고 지혜로운 종

을 세워서 그를 통해 주의 백성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양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실들은 그러한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준비의 날들

왕은 왜 오셨습니까? 왕국을 설립하고 왕으로서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하셔야 할 일들이 있는데, 바로 준비 작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원들과 함께 연합하여 통치하실 것이므로, 그들은 함께 모여야 하고 통치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감독 하에 이 세상의 이방인의 때가 1914년 8월 1일에 끝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광스러운 왕이신 주께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일이 불완전했을 것입니다(에스겔 21:27). 그분은 1874년 이래 임재해 오셨으므로,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볼 수 있듯이, 1874년부터 1914년까지가 바로 그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이 1799년부터 1914년까지라는 생각과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1799년부터 1874년까지는 준비 기간이 아니라 빛이 점점 밝아오는 기간이었습니다. 왕께서 임재하시기 전에 준비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하느님께서 6천년 동안 이 왕국을 위해 준비해 오셨습니다. 1천 9백 년 동안은 사람들 가운데서 왕국 무리를 모아 오셨습니다. 1874년에는 영광스러운 왕께서 임재하여 추수 활동을 하시고 성전 무리들을 모아들였습니다. 1914년에는 영광스러운 왕께서 왕권을 받으시고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성전 무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

시고 소식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왕국의 중요한 소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식 중의 소식이며, 목하의 소식입니다. 주의 종들은 그 소식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왕께서 다스리시고 사단의 제국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 살아 있는 수백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습니까? 당신은 영광스러운 왕께서 1874년 이래로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기간 동안 왕께서 추수 활동을 해 오셨음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기간 동안 왕께서 충실하고 지혜로운 종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일을 수행하시고, 자신의 믿음의 집안 사람들을 먹이고 계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왕께서 자신의 성전에 계시며, 지상의 국가들을 심판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영광스러운 왕께서 통치를 시작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야외로 나가십시오! 가장 높은 분이신 하느님의 아들이여! 갑옷을 단단히 여미십시오! 깨어있고, 방심하지 말고, 활동적이 되십시오. 용감해지십시오. 주를 위해 충성되고 진실한 증인이 되십시오. 바벨론의 모든 흔적들이 사라질 때까지 싸우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소식을 널리 선포하십시오. 세상은 여호와께서 하느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모든 날들의 날입니다. 보십시오, 왕께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전파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왕과 그분의 왕국을 광고하고, 광고하고, 광고하십시오.

목회자 러셀의 가르침과 연대 교리에 대한 “충성”이 극심히 요구되던 시대였음에도, 그러한 가르침들로부터 서서히 멀어지려는 첫 조짐을 드

러났다는 점에서, 1922년 대회는 주목할 만했습니다. 「때는 가까웠다」라는 책에서 러셀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1878년에, 그리스도께서 권력과 권위를 넘겨받는 모형과 평행하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현 영적 주에 의해, 왕들의 왕으로서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권능을 넘겨받은 해였다.” 그런데 러더퍼드는 시더포인트 대회에서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난 해를 1878년에서 1914년으로 조정했으며, 이로써 1914년에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고 예언했던 모든 사건들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후, 1914년 이전부터 1914년까지 일어나게 되어 있던 사건들은 모조리 1914년 이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아 있는 수백만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책과 조화되게 협회는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주기(모세를 통한 하느님의 법에 따르면, 50년마다 돌아오게 되어 있으며, 매 50번째 해가 희년이였다.)를 적용하여, 1925년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통치하시고 옛 예언자들이 땅으로 돌아오는 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1924년에 「낙원으로 가는 길 *The Way to Paradise*」이라는 책자를 발행했는데, 이 책은 젊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자신감 넘치게 이 예언들을 전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내용 중에는 회복된 인류의 중심지가 될 땅의 예루살렘에 관한 묘사도 있습니다:

### 「낙원으로 가는 길」

(224-227면)

하느님께서는 그의 왕국의 가장 높은 모든 영예로운 자리를 채울 이방인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들이 놓쳐 버린 것을 보면서 매우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유대의 법정 연도는 가을에 시작합니다. 우리식 달력으로 대략 10월 1일 무렵입니다. 따라서 1926년은 1925년 10월 1일에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호의를 보이시어 세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그 날 직후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합당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에 돌아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나라들로서 이방인에게 허락된 하느님의 시간은 1914년에 끝났습니다. 나라로서 유대 국가가 그들이 예수를 기동에 못 박았을 때 하느님의 호의를 잃었으며, 이제 하느님께서는 더 이상 이방인들을 국가로 식별하지 않으실 것이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머지않아 개개인 차원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고대의 충실한 종들을 통해 유대인들을 가장 먼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925년 직후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뿔기세텍, 욥,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침례자 요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다른 종들이 깨어나는 것을 볼 것이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들은 지상에 새로운 왕국의 중심을 형성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일들이 필요하겠지만, 기꺼이 그 일들에 참여하려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최근의 뉴스들을 보면 이미 팔레스타인 지방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길을 닦고 농지를 개간하는 일은 이미 상당히 진척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군왕”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감독 하에 일을 한다면, 훨씬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수도는 영토 내의 모든 지역들과 직접적이고 신속한 통신을 해야 합니다. 만약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수도라면 모든 지역들과 빠르게 연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전 6천년 동안 마귀들이 초래한 모든 일들을 천년 만에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이전의 방식들로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봅니다. 무선 라디오가 지구 반대편까지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군왕들이 돌아올 무렵이면 이러한 발명품들이 더욱 완전해져서 모든 지역에까지 닿을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자면 “한 방”에 들어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방은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익숙해 있던 방들보다 조금 더 클 것입니다. 아무려면 뭐 어떻습니까? 이사야 2:3과 스가랴 14:16,17에서는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 가는 일이 얼마나 수월할 것인지 읽어 볼 수 있습니다. 군왕들은 그들의 지시를 세계 어느 지역으로든지 쉽게 무선으로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군왕이 된 아브라함이 “잘 들으십시오.” 하며 지시를 내릴 때,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들으며, 그가 말하는 모든 얘기를 경청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대회장 연단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 것처럼 쉬울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방문하거나 군왕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나, 공적 업무상 개인적 감찰이 필요한 군왕들은 곧 완벽해질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구의 어느 곳까지든 서로 오가는 데 단지 몇 시간이면 될 것입니다. 참된 신세계일 것이며, 모든 면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 스가랴 14:20,21; 계시록 21

장; 시편 72,145편.

이 고대의 충실한 종들은 또한, 필요하다면 고집 세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다루기 위해 “혹독하게” 다스릴 권한을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은 허락되지 않을 것임을 배워야 합니다. 정의는 새로운 왕국 법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 시편 37:9,10,2,38.

이 책을 읽는 많은 소년 소녀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과 고대의 다른 충실한 자들이 완전한 몸과 정신으로 “더 나은 부활”의 영광 속에서 깨어 돌아오는 장면을 틀림없이 살아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자신을 대신하도록 충실한 자들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명하시고, 권위를 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 세계와 지금 사용되는 모든 편의를 위한 물건들이 처음에는 그들에게 매우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그들도 곧 이 새로운 방식들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전화, 라디오, 자동차, 전등, 비행기, 증기엔진 등과 같은 것들을 그들은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간 즐거운 경험담들을 갖게 될 지도 모릅니다.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지구 전 역사를 통틀어도 오늘날이 가장 훌륭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었던 소년 소녀들이 지금은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80대일 것입니다.

협회는 “지금 살아 있는 수백만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귀에

쑥쑥 들어오는 슬로건을 시시때때로 내걸고, 증인들이 수백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주의를 끌었지만, 명백하게 그릇된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며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는 수백만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슬로건은 1990년대나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20년대 초반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590만 명의 증인들 중 일부분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날 75세 이상의 증인들이 200만 명만 되어도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우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언과 슬로건의 근거가 되었던 1925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의 가르침은 근거 없는 텅 빈 예언적 환상에 불과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파수대」 및 다른 출판물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자료들은 하느님께서 소통 통로를 통해 공급하시는 “시기적절한 양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통로가 현재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특별한 승인과 지시 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하느님의 “진실한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의 예언들이 틀리고 1925년이 그냥 지나갔다는 것은, 이 예언자들이 “충실하고 분별 있는 중”의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충실하고 겸허하게 하느님의 영감 받은 말씀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느님의 영감 받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반박할 수 없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세계적으로 그런 독단적인 주장을 펴던 시기 내내

분별력이 있지도 못했습니다. 사실상, 스스로 비웃음거리가 된 러더퍼드의 승인 하에 본인들의 무분별함만을 인정한 것입니다.

소위 하느님의 “통로”라던 「파수대」에서 야망적이고 교만하고, 그리스도께 불충실한 태도를 나타낸다고 빗댄 사람들, 즉 협회의 주재님은 행로를 함께 걷기 원치 않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은 공격적인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한 표현들은 확실히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그 지도자를 따르던’ 대다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은 그들의 무책임한 행로를 계속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협회는 1925년 이후에 증인들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일을 겪었습니다.<sup>11)</sup>

협회의 출판물들은 1925년의 상황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1975년 여호와의 증인 연감 146면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예가 나옵니다. 문제의 책임을 잘못된 지식을 퍼뜨린 협회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은 “형제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1925년이 왔고, 그냥 지나갔다. 예수의 기름부음받은 추종자들이 한 무리로서 여전이 지상에 남아 있었다. 고대의 충실한 자들이 - 아브라함과 다윗과 또 다른 이들 - 지상에서 군왕으로 아직 부활되지 않았다(시편 45:16). 애나 맥도날드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1925년은 많은 형제들에게 매우 슬픈 해였어요. 그들 중 일부는 걸려 넘어

---

11) 그 시기에 조직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내 아버지의 동생이며, 아버지를 포함하여 네 명의 형제들 중에서는 가장 막내였던 앨빈 프랜즈(Alvin Franz)가 있었다.

졌지요. 그들의 희망이 꺾여 버렸거든요. 그들은 ‘고대의 충실한 자들이(아브라함과 같은 옛 사람들) 부활되어 돌아오는 장면을 목격할 것이라’ 생각하며 바랐습니다. 그들은 예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믿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활하여 돌아올 것에 대해서도 대비했어요.”

이 책 앞부분에서 다뤘듯이, 「파수대」에 실린 글에서 때에 관한 협회의 예언에 높은 기대를 걸었다가 그 희망이 꺾어버린 형제들에 대해, 그 책임을 형제들에게 묻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정당화하려고 할까요?

「연감」 영문 1980년(프레더릭 프렌즈가 협회 식구들에게 러더퍼드가 개인적으로 했던 발언을 이야기한 해) 판에서도 그들은 그 문제와 관련해 비슷한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그 책에서는 1926년 5월에 러더퍼드가 대회를 위해 스위스를 방문했고,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이 오고갔던 모임에 참석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여호와의 증인의 연감 - 1981년」 52-53면):

“질문 : 고대의 합당한 자들이 돌아 왔습니까 ?

“답 : 확실히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읍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읍니다. 그리고 그러한 발표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될 것입니다. 「수백만」 책에서 1925년 직후에 그들이 돌아올 것을 이치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단지 표현된 의견에 불과하였읍니다.

누구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지상 대변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정이 달라야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어야 하며,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져야 하

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단순한 의견을 말할 권리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소식, 즉 “때에 맞는 양식”을 지구상에 공급할 때, 그들이 무책임하게 잘못된 의견을 말하고, 그것들을 완강하게 옹호하고, 자신들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는 그들의 충성심을 의심하면서 하느님 앞에서 겸손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충성되지”도 못하고 “분별 있지”도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1930년에 협회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벳사림’ *Beth-Sarim*이라고 하는 집을 지었습니다. 프레더릭 프랜즈는 자신이 쓴 「신세계」(*The New World*)라는 (영문) 책에서 그 집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즉시 전쟁에서 패하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다. 그 악한 자와 그의 악귀들이 땅과 바다에 큰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모든 나라들을 전체주의 국가로 전향시킬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비통 속에서 하느님을 대적하도록 만들 것이다. 주 예수께서 심판을 위해 성전에 도착하셨으며, 아직 땅에 남아있는 “그의 몸” 성원의 남은 자들을 성전으로 모이들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주와 완전한 연합 상태가 된다(말라기 3:1-3). 그리고 고대의 충실한 자들이 언제든지

곧 죽음에서 돌아 올 것으로 기대된다. 성서는 아마겟돈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기대로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저택을 지었다. 그것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종교적 적들에 의해 많이 알려지게 되었지만, 1930년에 완성된 그 건축물은 “군왕들의 집”<sup>12)</sup>을 의미하는 “벳사림”이라고 불렸다. 군왕들 *princes*이 땅으로 돌아오면 거할 수 있도록 지금은 신탁에 맡겨져 있다. 가장 최근의 사건들을 보면 종말을 볼이 세상의 종교인들이 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군왕들의 집”이 신세계를 의미한다는 증언 때문이다. 종교적 광신자들과 그 일파들에게는 그 충실한 옛사람들이 돌아와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일이 전혀 달갑지 않을 것이다.

앞의 장들에서 보았듯이, 1925년으로부터 꼭 16년이 지난 후인 1941년, 미주리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협회장 러더퍼드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아주 조금만 있으면 성서 시대의 충실한 남자와 여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다시 한 번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관여하면서, 그때가 올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파수대」는 그 연설에

---

12) 「신세계」책이 발행된 지 여러 해 후에(1942년) 그 집은 팔렸다. 1950년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프레더릭 프랜즈 형제는 연설에서 아마겟돈 전에 “군왕”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공식적으로 포기했으며, 협회로부터 임명받은 사람들이 이미 각 회중에서 군왕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해 설명한 후, 그 대회에서 발표한 「어린이들」이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그 책은 “아마겟돈까지 남아 있는 달들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추가 공급해 주신 도구”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략 300달 정도 후인 1966년에 새로운 연도가 지목되었습니다. 바로 1975년입니다.



1975: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기에 적절한 때

C r i s i s   o f   C o n s c i e n c e



...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원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사도행전 1:7. 「쉬운성경」

러더퍼드 재임 후반기 동안, 그의 재임 전반기에 열렬히 지지되었던 대부분의 이전 예언들은 점차 사라지거나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의 시작은 1799년에서 1914년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1922년에 그리스도의 활동적인 왕국통치 공식출범의 해가 1878년에서 1914년으로 옮겨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임재 역시 1874년에서 1914년으로 옮겨졌습니다.

적은 무리의 부활의 시작은 1878년에서 1918년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지어, 하느님께서 지상에 있는 세상 나라들에게 허락하신 권위를 ‘합법적으로’ 종결시키셨다는 의미에서 1914년이 진정한 “세상의 끝”을 가져왔다고 한동안 주장되었는데, 이 주장 역시 사라지고 그러한 의미의 ‘끝’은 이제 미래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보이지 않게**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되었고, 따라서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믿음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관한 예언과 그 변경에 대한 토의가 진행된 회기가 끝난 후, 통치체 성원 빌 잭슨은 나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곤 했듯이, 조직은 날짜를 이쪽저쪽으로 옮겨 붙인다네.”

2,520년의 시작점인 기원전 606년에 관한 변화가 1942년 러더퍼드 사망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기원전 606년부터 2,520년을 내려오면 기원 1914년이 아니라 1915년에 다다른다는 사실을 지난 60년간 조직은 모르고 지냈거나 혹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2,520년의 시작점을 한 해 전인 기원전 607년으로 옮겼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2,520년이 끝나는 해가 여전히 기원 1914년으로 유지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이 606년보다 한 해 앞선 607년에 일어났음을 알려주는 어떠한 역사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지적해온 획기적인 해로서 1914년을 유지하려는 조직의 열망은 (1915년은 강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1년 전으로 옮기는 결정을 하게 만들었고, 이는 인쇄물에 나온 연도를 간단히 고침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1940년대 중반까지, 조직은 러셀과 러더퍼드가 협회장으로 있었던 기간에 사용한 연대기 체계에서, 아담의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며 시간을 계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약 100년 정도를 없애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1966년에는 그때까지 가르쳤던 1874년 대신에 1975년이 인간 역사 6천년의 끝이라고 말했습니다.<sup>1)</sup>

---

1) (역자): 러셀과 러더퍼드 당시에 사용하던 연대기에는 아담 창조가 기원전 4128년이었고 인

이 변경된 내용은 1966년 여름에 발행된, 프레더릭 프랜즈가 저술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 가운데서의 영원한 생명*Life Everlasting in Freedom of the Sons of God*」이란 책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책 제1장에는 희년에 대해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제1장에는 또한 1925년과 관련된 예언들도 두드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주장했듯이) 여섯 “날들”의(인류가 불완전을 경험하는 기간) 각 날이 천 년으로 이루어졌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죄와 질병과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웅대한 희년에, 완전함이 회복되는 천년으로 이루어진 일곱째 날이 여섯째 날에 뒤이어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책 28, 29면(영문판, 한국어판 동일)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41. ‘앗서’ 이래 성서 연대의 철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습니다. 이 20 세기에 그리스도교의 전통적 연대 계산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독립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왔고 이 독립적 연구의 결과로 발행된 연대표는 사람이 창조된 때가 기원전 4026년임을 알려 줍니다.† 이 믿음직한 성서 연대에 의하면 사람이 창조된지 6,000년이 되는 해는 1975년이며, 인간 역사의 일곱째 천년 기간은 기원 1975년 가을에 시작됩니다.

42. 그러므로 땅 위에 사람이 존재해 온 6,000년은 곧, 바로 이 세대(世代)안에 끝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편 90:1, 2에 기록된 바와 같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주여 주는 때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존재의 지나간 6,000년이란 세월을 보실 때 그것은 24 시간의 6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계속해서 (3,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첩 같을 뿐이니이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 세대 안에, 여러 해가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존재의 일곱째 날로 보실 수 있는 날에 이르게 됩니다.

---

간 존재 육천년은 기원 1872년에 끝난 것으로 보았다. 변경된 연대기에서는 아담 창조가 기원전 4026년이 되었고, 인간 존재 육천년은 기원 1975년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1976년(영문 1973년)에 한국어로 발행된 「하나님의 천년 왕국은 다가왔다」책 193-195면 참조.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43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일곱째 천년 기간을 휴식과 석방의 안식 기간 즉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큰 희년이 되게 하신다면 얼마나 적절할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인류에게 가장 때에 알맞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있어서도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인류는 아직도 성서 마지막 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 구백년 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자신에 관하여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마태 12:8).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사람 존재의 일곱째 천년과 평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신 목적에 따른 것일 것입니다.

이 책에서 조직은 일곱째 천년의 이정표가 1975년이 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문단의 내용은 이 책 제1장에서 주의 깊게 구성하여 쌓아온 논증, 즉 1975년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1975년과 관련된 노골적이며 단정적인 예언은 없습니다. 그러나 프레더릭 프랜즈는 하느님께서 1975년이라는 특정한 때에 일곱째 천년 기간(천년통치-역자)을 시작하신다면, 그것은 “적절할 것”이며 “하나님께 있어서도 가장 적절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

다. 이러한 선언은 불완전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시  
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아닌지를, 단순한 ‘의견을 표현’ 한 것이 아니  
라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분별력이 요구되는 사람이(“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서-역  
자) 오히려 하느님께 분별력을 요구한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언  
급한 것처럼, 일곱째 천년이 1975년에 시작하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  
인’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사람 존재의 일곱째 천년과 평행한다  
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신 목  
적에 따른 것일 것입니다.”라는 위 문단 끝의 언급은 더욱 더 강한 요구  
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협회의 최근 발행된 조직의 역사를 다룬 출판물인 「여호  
와의 증인 - 하나님의 왕국 선포자」 104면에서는 이 출판물 서문의 약  
속을 객관적이고 솔직하게 보여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1975년 문제에  
대한 매우 간결한 소개에서는, 프레더릭 프랜즈가 1975년에 관한 정보  
를 다룬 새로운 출판물을 발표했던 1966년 대회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  
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매릴랜드 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대회에서, F. W. 프랜즈는 결론 연  
설을 하였다. 그는 이러한 말로 연설을 시작하였다. “연단에 올라오  
기 바로 전에 한 청년이 와서 ‘이 1975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뒤이어 프랜즈 형제는 그 새로운 책의 내용이  
1975년경에 아마겟돈이 끝나고 사단이 감금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  
인지에 관해 많은 질문이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그는 이러한 요점을  
말하였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언하지 않습니다. 하

나눔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지금부터 1975년까지의 기간에 발생할 사건에 대하여 확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동료 여러분,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곧 때는 짧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때는 다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1966년 이후 여러 해 동안, 여호와와의 증인 대다수는 그 교훈에 담긴 영과 일치하게 행하였다. 그러나 이 제목에 관해 다루는 내용이 또 있었는데, 지나칠 정도로 단정적인 내용도 있었던 것 같다. 「파수대」 1980년 7월 호(37면)는 그 점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또한 여호와와의 증인은 여호와와의 뜻을 행하는 일에 주로 집중해야 하며 연대에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구원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지나치게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받았다.

위 내용에서는 (확정적으로 단언하지는 말라고) 주의를 준 한 가지 사례가 일반적인 분위기였던 것처럼 언급합니다. 물론, “이 제목에 관해 다루는 내용이 또 있었는데, 지나칠 정도로 단정적인 내용도 있었던 것 같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sup>2)</sup> 현재 조직 성원 중 대략 3분의2 정

---

2) 이 워치타워 역사서 「선포자」책 각주에서는 주의를 준 다른 사례들도 있다는 것을 출판물 증거로 제시한다. 60년대에 주의를 준 기사는 한 번 뿐이다. (「파수대」 영문 1968년 5월 1일호, 한국어판은 1968년 8월 1일호) 나머지 두 기사에서도 이전의 예측을 포함하여 주의를 주는 내용이 실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두 기사는 1975년 직전과 1975년 중에 발행된 것이다. (「파수대」 영문 1974년 6월 15일호와 1975년 5월 1일호 기사, 한국어판은 「파수대」 1974년 9월 15일호와 1975년 8월 1일호 기사)

「선포자」책 각주에서는 1963년에 발행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유익하다」책에 나오는 설명을 마치 1975년과 관련하여 주의를 준 것처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직도 미래에 속한 일자들을 추측하는 데 성서 연대기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마태 24:36” 하지만 「선포자」책 집필진은 이렇게 30년 전에 협회가 분명히 규정한 원칙을 스스로 어기고 왜 1975년에 천년통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도가 1975년 이래로 조직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들은 1966년 이후에 어떤 일이 더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1975년이란 해에 대한 강조 범위와 강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중대성이 덧붙여졌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통치체 성원들은 그것에 대해 참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집필위원회 성원 중 일부는 1993년에 발행된 「선포자」 책에 기술된 내용들을 읽고 승인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이 출판물이 기술한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들을 불완전하게 그리고 사실을 흐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같은 해인 1966년, 「파수대」 자매지인 「깨어라!」 영문 10월 8일호는 “그것은 얼마나 오래일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6,000년은 1975년에 끝난다.”라는 소제목 하에서도 하느님의 안식일인 7,000년의 마지막 천년이 1975년에 시작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19, 20면):

따라서, 인간 존재의 첫 6,000년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날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래로 인간이 지구에 존재해온 그 시기와 평행합니까? 명백히 그렇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성서연대기의 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세속적인 많은 날짜들을 조화롭게 받아들여 보면, 우리는 기원전 4026년경 가을에 아

---

(역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유익하다」 책 한국어판은 1983년에서야 책으로 나왔다.(현재는 1991년 개정판) 하지만 당시에도 비록 수십 권의 날권 형태이긴 했지만 각 회중에 배포되어 있었고 동일한 경고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답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해 어느 때쯤인가 하와가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그 직후 하나님은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존재의 첫 6,000년과 하나님의 안식의 날의 6,000년의 끝은 언제입니까? 그때는 1975년입니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이 1914년에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예언의 성취로서 우리시대의 실질적인 사실은 1975년이 이 사악한 세상의 마지막 세대로서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동적인 사건의 성취로서 곧 일어날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믿음을 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종말”과 관계되는 남은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머지않아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sup>3)</sup>

협회의 1993년 역사 서적 「선포자」책은 「파수대」 영문 1968년 5월 1일호(한국어는 1968년 8월 1일호)를 1975년과 관련된 경계의 본보기로 언급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기사는 1975년에 대한 기대를 계속 고무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위에 언급된 「깨어라!」지의 동일한 논증을 상당 부분 사용하여, 그 기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영문 272, 273면, 한국어는 351면):

---

3) (역자): 해당 기사의 인용문은 한국어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회 공식 번역이 아닌 개인 번역을 사용하였다.

七 이 남은 제도가 그의 완전한 종말에 다  
 가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정에 달한 사  
 건들이 연달아 일어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기  
 켓해야 여러 해 안이 『마지막 때』에 관한  
 성서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一,〇〇〇년  
 통치로 살아남은 인류는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날들이 오겠지만,  
 바로 우리 앞에는 얼마나 웅장한 날들이 놓  
 여 있습니까!

八 그러면 一九七五년에 「아마겔론」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까? 어느 특정한 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는 아무도 확정적  
 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날  
 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  
 다. (마가 一三32)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사  
 단」의 지배하에 있는 이 계도에 게 때가 급격  
 히 짧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만으  
 로 충분합니다. 남아 있는 짧은 때에 대하여  
 곧 발생될 지구를 뒤흔들 사건들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의 구원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에  
 대하여, 깨어 있지 않고 경계하지 않는 사람  
 이 있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  
 까!

#### 출판물 복사본<sup>4)</sup>

위 내용은 커다란 연대 도표 칼럼 내에 실린 것인데, 이 도표는 “아담 창조(초가을)”의 날로 주장되는 기원전 4026년으로 시작하여 양쪽에 선이 그어진 도표입니다. 이 도표는 다음과 같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1975	6000	인간 존재의 여섯째 1,000년 날의 끝(초가을)
2975	7000	연간 존재의 일곱째 1,000년 날의 끝(초가을)

이러한 문맥 속의 내용들 즉 마지막 날들의 예언 가운데 최종 부분의 성취와 관련하여 “틀림없습니다”라는 표현과 “기껏해야 여러 해”, “남아있는 짧은 때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일반 신자들에게 기대를 지나치게 가져서는 안된다는 ‘주의’를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4) (역자): 밑줄은 해당 「파수대」에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레이몬드 프랜즈가 그은 것이다.

까? 과연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그것이 1975년을 중심으로 한 희망과 기대를 열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의도로 쓰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라!」 영문 1968년 10월 8일호(한국어는 1969년 1월 8일호)에 실린 “어떠한 일이 1970년대에 일어날 것인가?”라는 기사에서는 그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남아있는 때가 짧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문 13면, 한국어는 11면)

**“마**지막 날”이라는 기간 중에서 이미 54년이 지났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사실은 땅을 지배하고 있는 부패한 사물의 제도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되기까지, 잘 해야, 몇 해 밖에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것처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1975년을 인간 역사 6,000년의 종결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영문14면, 한국어는 11면):

#### **6,000년의 끝이 가까왔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남은 마지막 몇해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니엘 12:9) 성서는 우리가 인간 역사의 만 6,000년의 끝에 가까왔음을 알려 줍니다. 이 사실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협회 출판물들은 1975년과 관련된 말을 한 저명인사 또는 어느 분야가 됐든 그러한 내용을 언급한 “전문가”들의 말을 거듭 인용하고 있습

니다. 예를 들어, 전 미 국무장관 딘 아처슨이 1960년에 다음과 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사의 변천으로 보아, 앞으로 15년(즉 1975년)이면 이 세상이 너무 위험해서 살아갈 수 없으리라고 충분히 확언할 수 있습니다.”

1967년에 두 명의 식량문제 전문가에 의해 발행된 「기근-1975」라는 책에는 많은 면에서 1914년에 관한 러셀의 예언들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다음 예언이 반복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1975년까지, 세계는 전대미문의 규모로 재난을 당할 것이다. 사상 공전의 기근으로 후진국들은 피해를 입을 것이다.”

“본인은 두려운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위기가 우리에게 닥칠 정확한 해를 예언할 수 있는데, 그 해는 1975년이다.”

“1975년까지는 민란, 무정부 상태, 군사 독재 정치, 견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교통마비 및 무질서로 인한 불안이 많은 굶주린 나라에서 유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 가운데서의 영원한 생명」책에서 처음으로 1975년에 초점을 맞춘 지 3년 후, 그 책의 저자인 프레더릭 프랜즈는 「다가오는 천년 평화*The Approaching Peace of a Thousand Years*」라는 제목의 또 다른 출판물을 저술합니다.<sup>5)</sup> 이 출판물에서는 1975년에 대해 언급할

---

5) 같은 내용이 「파수대」 영문 1969년 10월 15일호 기사에 나온다. 그런데 1930-1985년 워치 타워 출판물 색인(한국어는 1971-1985년 색인)에서 “1975년” 항목을 찾아보면 해당 기사가 특정 연대에 그토록 강력히 초점을 맞춘 기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나오지 않는다.

때 이전 출판물(「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 가운데서의 영원한 생명」: 역자 주)에서보다 더욱 명확하고 세부적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1969년에 발행되었는데, 이 책의 25, 26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최근에 성서의 열렬한 연구자들은 이 연대를 재조사하였읍니다. 그들의 조사에 의하면 지상의 인류 생애의 6천년은 70년대 중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한 인간 창조부터의 일곱째 천년기는 10년 안에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그의 천년 통치는 일련의 천년 기간 즉 천년기의 일곱째에 해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 12:8) 그리하여 그것은 안식 통치가 되어야 합니다.

위의 결론은 매우 분명하고 직접적입니다. 안식일이 고난의 여섯 기간 후에 일곱째 기간이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는 고난과 고통의 여섯 천년기에 이어 안식의 일곱째 천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에는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알맞은지”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도 그러한 식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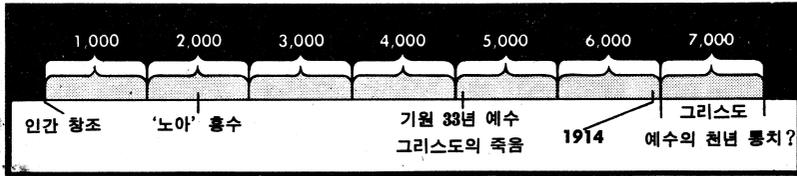
(역자): 「다가오는 천년 평화」책은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그 대신 해당기사는「파수대」 1970년 1월 1일호에 “다가오는 천년 평화”라는 주제의 연구기사로 나왔다.(본문 인용문 번역은 13면 38항과 42항에서 발췌)

니다. 이런 식의 요구로 인해 예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여섯 번째 천년기가 끝나고 일곱 번째 천년기가 시작되는 때에 통치를 하셔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추리가 예수께, 그분이 꼭 이행하셔야만 하는 요구사항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6천년은 1975년에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 출판물의 결론에 따르면, 인간 존재 6천년이 끝나고 이어 시작되는 ‘일곱 번째 천년에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그의 주인이 자신의 말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제한사항을 결정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록 이 책의 문장들이 더 다듬어지고 세련되어졌을지라도, 본질적으로 그 내용은 판사 러더퍼드가 그 자신도 어리석게 말했음을 인정한 「지금 살아있는 수백 만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Millions Now Living Will Never Die*」라는 서적에서 말했던 것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정한 날짜를 공표한 것은 제쳐두고서라도, 이 출판물의 내용은 마치 시간이 반세기 전인 1925년 이전의 날들로 돌아간 듯 착각을 일으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당시 출판물에서 1925년에 대한 것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1975년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sup>6)</sup>

1970년대가 도래했을 때, 그러한 기대들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깨어나라!」 영문 1971년 10월 8일호(한국어는 1972년 4월 22일호)에서는 또다시 고난과 수고의 여섯 기간에 이어 안식의 일곱째 기간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 도표를 제시했습니다.

6)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 가운데서의 영원한 생명」책 25면에서는 “70년대 중간”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1975년이 성경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연도로 확립되어 있었으며,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에게 그 연도는 단단히 각인된 것이었다.



우리가 1970년대 중엽 인간 역사 6,000년의 끝에 다가감에 따라  
웅대한 해방을 맞으리라는 놀라운 희망이 있다

1972년 4월 22일

21

이러한 모든 지속적인 정보 제공은 분명히 기대와 희망을 촉진하고 키우도록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흥분된 기대의 영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거나 약화시키기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단언하지는 않지만” 또는 “특정한 날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와 같이 몇몇 적합한 표현과 함께 쓰인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협회는 이 분야의 초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조직의 역사는 특정 연도에 대해 사람들의 희망을 부풀게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희망은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특정 연도들과 함께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과거 그러한 일이 있던 후에, 협회 출판물들은 그러한 환상이 깨진 것에 대한 책임을 정보 제공자(협회 자신)에게가 아니라, 정보를 들은 사람들에게 전가해 버렸습니다. 즉 그 정보를 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지나친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당시 조직의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인간본성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커다란 희망이 촉발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야만 했습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비록 특정한 연대에 천년통치가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직설적인 예측은 조심스럽게 피하면서도, “비

교적 몇 년 안에”, “가까운 장래에”, “기껏해야 몇 년 안에”, “기껏해야 단지 몇 년 안에”, “마지막 여러 해 동안” 등과 같은 표현들은 사용해도 괜찮다고 한 셈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파수대」지와 「깨어라!」잡지에서 1975년을 언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문맥상 천년통치 시작에 관해 언급하면서 사용했던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사용한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별 생각 없이 한 실수였을까요? 사람들의 희망과 계획 그리고 어떤 감정들을 상대로 장난삼아 흔들어 본 것일까요? 책임감을 못 느끼는 태도와 무감각한 태도 모두가 이런 표현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파수대」 영문 1968년 8월 15일호(한국어는 1968년 11월 15일호)에서는 심지어 예수께서 경계하도록 주신 말씀조차도 지나치게 신경 쓰지는 말라는 암시를 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한국어는 「파수대」 1968년 11월 15일호 521면 35항)

三五 성서 예언의 성취로 그 확실성이 강화된 성서 연대에 의하면, 인간 존재의 6,000년이 조만간, 바로 이 세대 내에 끝나리라는 것은 절대 확실합니다!(마태 24:34) 그러므로 지금은 냉담하거나 무관심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희롱할 때가 아닙니다.(마태 24:36) 그와는 반대로 지금이야말로 이 사물의 제도의 끝이 그의 횡포한 종말을 향하여 급격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리하게 의식해야 할 때입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그 날과 그 때』를 아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sup>7)</sup>

어떻게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바와 다름없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이 이것저것을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그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구.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당신들의 삶을 인도하는 힘이란 것을 깨달아야 해.”

가장 직접적인 언급은 브루클린 봉사부에서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증인 신자들만 보는 「왕국봉사*Kingdom Ministry*」라는 월간지에 제시되었는데, 1968년 3월 영문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전시간 전도 활동(“파이오니아 봉사”)에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환경이 허락하는 한 자주 이런 일을 하기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지상에 인간이 존재한지 6,000년이 완성되는 날이 약 9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의 왕국봉사」 영문 1974년 5월호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기”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그들의 집과 재산을 팔아서 이 낡은 제도에서 살게 되는 생활의 남은 부분을 파이오니아 봉사로서 마치고자 계획하고 있

---

7) (역자): 이 당시의 한국어 「파수대」 기사는 세로쓰기로 되어있지만, 여기에서는 가로로 표기하였다.

다는 보고를 종종 듣는다. 그것은 참으로 이 악한 세상의 끝이 이르기 전에 남아 있는 짧은 시간을 보내는 훌륭한 방법인 것이다.

- 요한일서 2:17<sup>8)</sup>

아주 많은 수의 증인들이 위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1975년을 통과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남겨둔 채, 일부 증인들은 그들의 사업체를 팔고, 직장을 그만두고, 집과 농장을 팔고, 그들의 아내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더 큰 필요가 있는 곳으로 봉사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좀 더 나이든 사람들을 포함하여 또 다른 사람들은 보험이나 주식을 현금화했습니다. 일부는 천년 통치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외과수술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1975년이 그냥 지나가면서, 그들의 자금이 바닥나고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자, 이제 그들은 힘든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삶을 분투하며 재건설해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통치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통치체 성원 중 연장자 일부는 1940년대초에 가졌던 열광적인 희망 뿐 아니라, 1914년과 1925년의 기대가 그저 사라지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내가 관찰한 것으로 볼 때, 그들 중 대다수가 ‘기다려보자’는 식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기대에 대한 흥분을 가라앉히는

---

8) (역자): 「우리의 왕국봉사」지 영문 1974년 5월호의 해당 내용은 한국어 1974년 6월호 4면에 실렸지만, 내용은 그대로 번역하지 않았다. 번역문에서는 “형제들이 그들의 집과 자산을 팔아서”(brothers selling their homes and property)라는 부분이 사라졌고 그 대신 “형제들이 그들의 책임을 가볍게 함으로써”로 대체되어있다. 「온라인 라이브러리」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워치타워 라이브러리」 영문 CD-ROM에서는 확인이 가능하다.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조직은 매우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0년에서 1975년까지 침례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침례 받은 수	연도	침례 받은 수
1960	69,027	1968	82,842
1961	63,070	1969	120,805
1962	69,649	1970	164,193
1963	62,798	1971	149,808
1964	68,236	1972	163,123
1965	64,393	1973	193,990
1966	58,904	1974	297,872
1967	74,981	1975	295,073

1960년에서 1966년 전까지는, 증가율은 거의 정지 상태라 할 만큼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1966년 이후로는 1975년이 부각되면서, 위의 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경이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1971년에서 1974년까지 내가 통치체 성원으로 봉사하는 동안, 당시의 열광적인 기대에 대해 통치체 성원들이 강한 우려를 나타내는 표현은 그 어떤 것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천년기 희년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선명한 그림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 가운데서의 영원한 생명」책이 1966년에 출판된 초기에, 나 역시 매우 고무되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초기에 1975년이라는 목표 연도로 초점을 이끈 것에 대해, 그것이 어떤 형태로 행해졌든 간에 나 역시 공헌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1966년에서 한 해 한 해 지나감에 따라 1975년에 관한

생각은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내가 성경을 더 읽을수록, 1975년에 대한 전체 개념은 점점 더 제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과 조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주가 어느 날에 올지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살피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정해진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관할에 두셨으니,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sup>9)</sup>

본부 조직의 일원으로서 나는 기쁨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놀랄만한 성장의 절정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1975년이라는 주제를 다룬 기사를 편집할 때 나는 극단에 흐르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나는 사적인 대화 같은 개인적인 활동이나 공개 연설에서, 방금 전에 언급한 성경 말씀으로 주의를 이끌려고 진심으로 노력했습니다.

---

9) 마태복음 24:36, 42, 44; 마가복음 13:33; 사도행전 1:7 참조.

1974년 어느 일요일 저녁, 다른 곳에서 강연을 끝내고 아내와 함께 집에 돌아오자, 삼촌(당시 부 협회장)이 우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력이 극도로 나빠서, 우리는 보통 「파수대」 연구 기사를 매주 큰 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아내는, 내가 그 주간에 있었던 한 강연에서 형제들에게 1975년에 대해 지나치게 흥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즉시, “왜 그들이 흥분하면 안 되지? 그것은 흥분할 만한 대단한 일이야.”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통치체 성원 중에서 나의 삼촌인 부 협회장은 자신이 쓴 내용의 정당성과 다른 사람들이 이어 쓴 내용들을 가장 확신하는 사람이었다는 데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1975년 여름 어느 저녁, 피터슨이란 이름의 그리스 출신 연로한 형제가 우리 방에서 있어 온 「파수대」 읽기 모임에 그의 관습대로 함께했는데, 읽기가 끝난 후 삼촌은 피터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1914년과 비슷한 면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도 여름까지는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고 전쟁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1975년이 시작되기에 앞서, 협회장 노어는 부 협회장 프랜즈와 함께 세계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그들이 방문한 모든 나라에서 부 협회장의 연설은 1975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통치체의 다른 성원들은 부 협회장이 호주에서 행한 연설에 대해 많은 나라들로부터 고무적인 반응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연설이 녹음테이프를 제공되기를 요청했습니다.)<sup>10)</sup>

부 협회장은 그의 연설에서 1975년을 “커다란 가능성과 엄청난 확률

---

10) 이것은 1975년 2월 19일 회의에서이다.

의 해”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청중들에게, 히브리 달력에 의하면 그들은 “이미 1975년의 음력 다섯 번째 달에 살고 있으며” 1975년이 지나 가려면 이제 일곱 달이 채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해가 히브리 달력으로 유대인의 새해인 로시 하사나Rosh Hashanah월과 함께 끝나며, 그 때는 1975년 9월 5일임을 연설 중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나야만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만일 최종 결말이 그때 오게 된다면, 아담 창조와 하와 창조 사이에 약간의 시간차가 있었을 것이기에 마지막 결말의 때가 1975년에서 일 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1925년과 1914년에 가졌던 기대가 빗나간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러더퍼드의 예언이 빗나갔던 것에 관해서는 “나는 나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었다.I made an ass of myself.”는 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부 협회장은, 조직은 “너무 대담하고 극단적인 예언”은 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향해 가면서 그는 청중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부적합한 견해를 가지거나, 다가오는 멸망이 “여러 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잘못된 추리를 하여 다른 문제들, 이를테면 결혼, 가족 부양, 새로운 사업 또는 어떤 기술과정을 배우기 위해 여러 해를 대학에서 보내는 일 등에 그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연설 테이프를 들은 후 통치체의 몇몇 성원들은, 과연 이것이 “매우 대담하고 극단적인 예언”을 한 것이 아닌가, 교묘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흥분의 정도로 볼 때 명명백백한 예언의 효과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이 통치체 회의에서 처음으로 표현된 우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 것이며, 어떤 정책도 결정되지 않았습

니다.

부 협회장은 그 후 길르앗 성서학교 졸업식 연설에서도, 위 연설의 많은 요점들을 반복하여 말했습니다.<sup>11)</sup>

1975년은 지나갔습니다. 1881, 1914, 1918, 1920, 1925 그리고 1940년대의 예언이 빛나간 것처럼 빛나갔습니다. 1975년과 관련된 조직의 기대가 빛나간 것에 대해서는 다른 매체들에 의해 세인들의 주목도 많이 받았습니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많은 말들 중 대부분이 그 문제에 대한 주요점을 빛나갔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어느 개인의 정확성이나 부정확성, 심지어 조직이 믿을만하다든지 믿을만하지 못하다든지, 또는 그 조직 성원들의 분별력이나 속기 쉬운 특성 등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요소는, 어떻게 그러한 예언들이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예언을 하면서 자기들이 성서에 기초해서 예언하는 것이라고, 성서로부터 그것들에 대한 논증을 쌓아나가고 있다고, 또는 그들 자신이 하느님과 대화의 “통로”라고 주장할 때, 만일 그들의 예언이 거짓임이 드러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이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쌓게 만들고, 그분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

---

11) 「파수대」 영문 1975년 5월 1일호 참조. (역자: 한국어 기사는 발행되지 않았다. 해당 기사는 1975년 3월 2일에 열린 길르앗 학교 졸업식 내용이었으며, 길르앗 학교 교무주임 에드워드 던랩, 협회장 N. H. 노어, 부 협회장 F. W. 프랜즈의 연설이 각각 간단히 소개되었다.)

금 성서의 소식과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구실을 주지는 않았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매우 주요한 변화를 경험했던 당시의 증인들은 그들의 환상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주워 담으며 살아갈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그들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976년, 널리 알려진 해가 지나간 지 일 년 후에, 몇몇 통치체 성원들은 조직이 잘못했다고 말하며, 잘못된 기대를 불러 일으켰음을 시인하는 발표를 하도록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통치체 성원들은 그러한 생각에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반대자들에게 공격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밀턴 헨젤은, 현명한 행로는 단순히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며, 때가 되면 형제들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분한 수의 성원들이 (잘못된 기대를 불러 일으켰음을 인정하는 발표에 동의하는 표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 「파수대」 영문 7월 15일호(한국어는 10월 15일호)에서는 실제로 빛나간 기대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는 단순히 통치체 내부에 퍼져 있는 생각을 실어야만 했고, 따라서 1975년 사태에 대해 조직의 책임을 인정하는 어떤 명확한 내용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sup>12)</sup>(역자: “어떤 특

---

12) (역자): 기사들은 1975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파수대」1976년 10월 15일호 471면에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어떤 날 혹은 어떤 해에 특정한 일이 발생하리라는 그릇된 견해에 따라 자기 생활을 계획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정한 해”를 언급하면서 1975년은 언급하지 않았다.)

1977년에도 또다시 1975년 문제가 회기 중에 대두되었습니다. 그때에도 동일한 반대가 있었지만, 잘못된 기대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언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지역대회에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 로이드 배리가 그것을 준비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그 후에 통치체 성원인 테드 자라크스와 밀턴 헨첼이 그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느낌을 로이드 배리와 이야기한 것을 나는 이해합니다. 경우야 어떻든간에, 그 연설이 준비되었을 때 1975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로이드에게 그 점에 대해 물은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단지 자신의 연설 주제와 1975년에 대한 내용을 조화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거의 2년이 흘러가고, 1979년에 또다시 통치체는 그 문제를 깊게 논의했습니다. 그때는 1975년이 심각한 “신뢰성의 공백”을 만들어내었음을 모든 상황이 암시했습니다.

많은 본부 성원들도 자신들이 바로 그 공백에 간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1975년을 우리 목에 매달려 있는 “골칫거리”라고 묘사했습니다. 통치체 서기인 로버트 월런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침례 받은 증인으로서 39년이 넘도록 연합해 왔으며, 여호와와의 도움으로 충실한 종으로 계속 남아있다. 그러나 내가 실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1975년에 대한 나의 감정은 여러 출판물들을 읽고 형성된 것이었는데, 사실은

---

그들은 수행해야 할 일을 연기하였거나 등한시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서 연대가 특정한 날짜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사물의 제도의 끝에 관한 성서의 경고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조직으로부터)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느끼기에 그것은 공정하지도 정직하지도 않다. 우리가 오류 없이 일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잘못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나에게는 합당한 조치로 보일 뿐이다.

집필부의 레이몬드 리처드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겸손함에 끌리고, '솔직함'이 있는 곳에 더욱 신뢰를 두려고 하지 않는가? 성서 자체가 가장 위대한 솔직함의 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서를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가장 뚜렷한 이유이다.

집필부의 프레드 러스크 역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1975년에 아마겟돈이 올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형제들에게 경고할 수 있는 어떠한 적합한 언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잡지와 다른 출판물들의 매우 많은 기사들은 이 낡은 제도가 1970년대 중반에 여호와의 새 제도로 대체될 것이라는 힌트 이상의 내용을 전했던 것이 사실이다.

봉사부의 머튼 캠벨은 이렇게 썼습니다:

메사추세츠에서 한 자매가 다른 날 전화를 했다. 그녀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 자매와 자매의 남편은 둘 다 질병으로 쌓인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자매는 그들 부부가 이 제도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1975년이 끝내줄 것이라고 너무도 확신했으며,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말했다. 이 예는 우리가 만나는 많은 형제들의 전형적인 본보기이다.

봉사부의 해럴드 잭슨 역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1975년에 대해 틀렸다는 취지의 설명이기라기보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문제라는 사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체 문제를 왜 그토록 오랫동안 무시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신뢰성의 공백이다. 그리고 그것은 재난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말이든지 해야 한다면, 형제들에게 사실을 직시하고, 열린 그리고 정직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같은 부서의 하워드 젠크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형제들이 무언가를 읽거나 듣고 그들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우리가 취한 접근방법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같다고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이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우습게도, 지금 가장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들 자신이 1975년 이전에 그 날과 그

날이 요구하는 극단적인 “긴급성”을 강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 장의 앞부분에 언급한 기사들을 쓰기까지 했으며, 1975년이 가까워옴에 따라 자신들의 집과 자산을 판 사람들을 칭찬한 「왕국봉사」지의 내용을 승인하기까지 했습니다. 1975년에 관한 대부분의 독단적인 내용들이 여행하는 대표자들(순회 및 지역 감독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들 모두는 봉사부가 직접 감독하는 형제들이었습니다.

1979년 3월 6일에는 통치체 회기 중에, 1975년과 관련된 어떤 간행물에 대해서도 출판을 반대하는 동일한 논증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조직이 반대자들에게 보다 많은 비난거리를 제공한다는 것과, 이렇게 늦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 또한 사과를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강한 주장을 펴는 통치체 성원들도 이전 회기보다는 덜 완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다음 요소 때문이었는데, 즉 전 세계적으로 증인의 수가 2년 동안 심각하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연감입니다:

연간 활동보고 총수		% 전년대비 증가율
1970	1,384,782	10.2
1971	1,510,245	9.1
1972	1,596,442	5.7
1973	1,656,673	3.8
1974	1,880,713	13.5
1975	2,062,449	9.7
1976	2,138,537	3.7
1977	2,117,194	-1.0
1978	2,086,698	-1.4

이러한 감소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통치체 성원들에게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5대 3으로 표결이 되어, 1975년과 관련된 잘못에 대해 조직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출판하지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내용은 「파수대」 영문 1980년 3월 15일호에 실렸습니다.

조직이 1975년에 관한 그들의 잘못과, 거의 10년에 걸쳐서 그에 관련된 거짓 희망을 부풀려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데는 거의 4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출판된 내용은 ‘사실이긴 하지만’ 아주 솔직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용이 어떠하든, 통치체 입장에서는 전체 내용이 출판되기에 별 무리가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내용을 쓰도록 임명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전의 경우들과 비슷하게, 나는 집필내용이 통치체에게 제시되었을 때 통치체의 3분의2가 그것을 승인하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집필했기에, 그 내용의 집필을 감독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이 표현은 내가 하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 형제들이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표현이지만)<sup>13)</sup>

---

13) (역자): 레이몬드 프렌즈가 쓴 1975년 실수를 인정한 기사는 「파수대」 영문 1980년 3월 15일 호(한국어로 1980년 7월호)에 실렸다. 그 기사는 “가장 가치 있는 생활의 선택”이라는 제목이었다. 관련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파수대」 1976년 10월 15일 호에서는 특정한 연대에 고착하는 것이 현명치 못함을 지적하여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은 결과로 실망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거나 그 말씀이 그를 속여 실망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그릇되게 이해하였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견해를 조절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파수대」지가 지적한 ‘어떤 사람’이라는 말에는 여호와의 증인 가운데 실망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며 따라서 그 연대를 중심으로 희망을 세우 나가게 한 설명을 지면으로 나오게 한 일과 관련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2009년에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깨어있으십시오” 국제대회에서는 넷째 날 마지막 프로그램에서 “여호와와 날을 기대하며 깨어 살피십시오”라는 주제로 통치체 성원 게리트 뢰쉬의 연설이 있었다. 연설을 75년과 관련된 부분만 그대로 적는다면 다음과 같다: “...또 1975년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를 불러일으키게 만든 것은 어떤 지방회중

오늘날, 1975년이 중심이 되어 10년간 축적된 희망이 이제는 어떠한 특별한 중요성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1916년에 러셀이 한 말의 본질이 다시 한 번 조직에 의해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참으로 매우 고무적이고 신성한 효과를 나타낸다. 그들 모두는 주를 찬양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잘못에 대해서도 찬양할 수 있다.”

---

의 장로들이 아니었고 사실상 출판물에 실린 일부 내용들이 그러한 기대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1995년 6월 22일호 「깨어라」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1975년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 (이때 통역은 급히 ‘재림’이라는 말을 다시 수정하면서) 임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이때 연사 게리트 뢰쉬는 ‘millennial reign’ 즉 ‘천년 통치’를 말했지만, 통역하는 형제가 긴장한 탓인지 ‘임재’로 바꾸었음) 그리고 또 1996년에 한 파수대 기사에서는(이때 연사는 ‘1996년 7월 15일호’라고 말했지만 통역하는 형제는 ‘7월 15일호’라는 말을 통역하지 않았음. 게다가 이 출처 역시 틀린 것임. 1996년에는 그런 언급이나 비슷한 내용의 기사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연사 게리트 뢰쉬는 어쩌면 1980년 3월 15일호를 말하려고 한 것이거나 착각한 것으로 보임) 인정하기를, 누군가 실망한 사람이 있었다면, 거기 누군가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출판물에 그런 내용들을 실어서 그 해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람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 반열은 한동안 이런 그 잘못된 기대를 불러일으켰고 또 그것을 자라게 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대」 기사를 통해 자기들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을 실은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대」 기사를 집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그런 일을 하는 형제들이 참으로 정직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증거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교국의 교직자들은 그러한 기대감 자체를 아예 상실하였습니다....”

일부 증인들은 2009년 국제대회에서 통치체 성원이 한 이 연설을 근거로 1975년에 대해 통치체가 사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내용은 레이몬드가 집필한 파수대 기사를 다시 인용한 것에 불과하며 인용한 원래의 기사에서도 “사과”나 그와 유사한 단어는 사용된 적이 없었다. (물론 연설에서는 출처도 잘못 언급하였다.) 이것을 사과로 볼 수 있을지의 여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 1914년과 “이 세대”

C r i s i s   o f   C o n s c i e n c e



...

침대가 너무 짧아 몸을 펴지 못하고, 이불이 너무 작아 몸을 감쌀 수 없다.

이사야28:20

1914년이 도래하기 전 30년이 넘도록, 협회는 1914년을 연대 예언이 끝나는 **종착역** *terminal point*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협회는 똑같은 1914년을 연대 예언의 **출발점** *starting point*으로 만들었고, 그 후 약 80여 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에게 “긴박감”을 갖도록 격려하는 주된 근거로 사용해왔습니다.<sup>1)</sup>

아마 현대의 어떤 종교도 이처럼 단 하나의 연대에 의존하고, 그토록 집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증인 조직은 자신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통로이자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1914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1914년

---

1) (역자): “80여 년 동안”-레이몬드가 원고를 준비하던 시점의 계산으로 보인다. 이 책 영어 원서 4판이 발행된 2004년 기준으로 1914년이 지난 지 90년이었고, 2014년에는 100주년이었다.

에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심으로 그분의 “보이지 않는 임재”가 시작되었고, 그 후 예수께서는 지상에 있는 많은 종교단체들을 검사하신 후에 워치타워 협회를 인류 앞에 자신을 대표할 조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동일한 종교단체의 사람들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sup>2)</sup> 반열로 승인하셨으며, 이에 따라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예수의 모든 지상 소유를 임명받게 된다는 상관관계를 성립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통치체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반열을 대표하는 관리인으로서 그들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는 데 위의 주장을 그 근거로 합니다. 1914년이라는 연대 그리고 1914년과 관련된 의미를 없애버린다면, 통치체 권위의 기초는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증거들은, 통치체가 주요한 특정 시점에 대한 예언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 할당된 정해진 시간은 당혹스러울 만큼 짧았고 미리 말한 것들을 숨기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한해 한해가 지나가는 것은 곤란함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

2) (역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원문에는 “faithful and wise servant”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영어 「킹 제임스 성경」KJV 마태 24:45에 나오는 단어이다. 이 번역판은 초대협회장 러셀 시대에 주로 사용되었고, 제2대 협회장 러더퍼드 시대에는 「미표준역」ASV과 함께 많이 사용하던 성경이었다. 그 이후에 번역된 영어 「신세계역」NWT 성경의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the faithful and discreet slave)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했던 말이다. 원문에서 이전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책에서도 「개역한글판」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3) (역자): 사진 설명: 「파수대」 영문 1984년 5월 15일호 표지 사진. 한국어는 「파수대」 1984년 9월 1일호로 발행되었으며, 표지 기사의 제목은 “1914년-지나가지 않을 세대”였다.



• 사진 설명은 왼쪽면 하단 각주 3번 참조

1940년대 이래로, 워치타워 출판물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는 예수의 말씀을 1914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설명해왔습니다.<sup>4)</sup> “1914년 세대”는 “마지막 날 예언들”의 최종적인 성취가 일어나고 새 질서로 들어가는 기간을 설명하면서 연설로 다

뤄지고 인쇄물로 제시되었습니다.

1940년대에 가졌던 견해는, 한 “세대”가 30~40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남아있는 때가 극히 짧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몇몇 성구들이 그러한 견해를 확증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32:13)

그러나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30~40년으로 정의된 세대도 신속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세대를 “늘리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과수대」 영문 1952년 9월 1일호 542,543면에서 한 세대의 정의를 바

4) (역자): 저자 레이몬드는 마태 24:34에 나오는 예수의 이 말씀을 「신세계역」에서 인용하였다. 하지만 한국에서 1994년 이전에 증인 생활을 했던 분들은 「개역한글판」의 다음 말씀을 기억할지도 모른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리라.”

꿨는데, 처음으로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이 한 평생을 의미하게 되었고, 따라서 한 세대는 (단지 30~40년이 아니라) 70에서 8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이러한 조정 때문에, 출판물을 통해 예언된 내용들이 성취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1914년 세대”를 다시 정의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1968년 10월 8일호 「깨어라!」(13,14면)에 나오는 다음 기사에서 밑줄 친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는 1969년 1월 8일호 11면)<sup>5)</sup>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력을 가지고 목격할만큼 성장한 사람들을 말씀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날의 징조’가 나타났을 때에 살던 사람들 중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종결지으실 때에 계속 살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15세의 나이라면 1914년에 발생한 사건들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세대”의 가장 어린 사람들은 지금 70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언급하신 세대의 대다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도 늙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세대가 죽어 지나가기 전에 이 악한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 자체는 예언된 종말이 오기까지 많은 헛수가 남을 수 없음을 알려 줍니다.

5) (역자): 1968년 「깨어라」를 비롯해서 1970년 이전의 「깨어라」잡지는 「워치타워 온라인 라이브러리」나 「워치타워 라이브러리 CD」에서는 검색할 수 없는 출판물이다.(영문판, 한국어판 동일) 여기에 올린 것은 당시의 한국어 잡지를 복사한 것이다. 영문 「양심의 위기」에서는 영문 「깨어라」를 복사한 사진이 올라가있다.

「깨어라!」 잡지가 30여 년 전에 이 점에 관해 논의할 때는, 즉 1975년 이전에는, 이 1914년 세대가 얼마나 빨리 지나갈 것인지, 그리고 1914년 세대에 속한 사람들의 수명이 얼마나 짧게 남아있는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1968년에 살았던 여호와의 증인 중에 누군가가 아직도 때가 30년 혹은 그 이상 남아있다고 추측했었다면, 그는 인식이 부족한 사람 즉 강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975년이 지나갔을 때, 그러한 강조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1914년 세대 기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짧은 것은 아니고, 상당히 긴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78년 10월 1일호 「파수대」지<sup>6)</sup>에서는 이제 1914년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력을 가지고” 목격할 만큼 성장한 사람들에게 대해서가 아니라, 그 해의 사건들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단순한 관찰은 이해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러한 변경은 논리적으로 “이 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최소 연령을 더 낮게 잡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서, 2년 후 「파수대」 영문 1978년 10월 1일호에서는 한 사건이 “사람의 기억에 지속적인 인상”을 주기 시작하는 시기가 열 살일 수 있음을 설명하는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의 기사를 인용하였습니다.<sup>7)</sup> 그 뉴스 기사는,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

6) (역자): 영문 「파수대」 1978년 10월 1일호에 해당하는 기사는, 한국어 「파수대」 1979년 2월호 48면 “독자로부터의 질문” 기사이다.

7) (역자): 한국어 「파수대」에서는 이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

“제1차 세계대전의 기억을 가진 미국인이 천3백만 명 이상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기억하는 것’은 이전에 「깨어라!」 1968년 10월 8일호에서 언급한 “15세의 어린이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1차 대전은 1918년까지 계속되었고, 미국이 전쟁에 개입한 것은 1917년이었습니다. 따라서 뉴스 기사에서 말한 10살이라는 나이를 1914년에 10살이었던 사람들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계산 방법의 변화로 인해 여기저기서 몇 년을 늘리기는 했지만, 언제나 고령자 사망률이 가장 높으므로, 1914년 세대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통치체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번 그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1978년 6월 7일 통치체 회의 중에 그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러한 회의를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통치체 성원 앨버트 슈로더가 통치체 성원들에게 미국의 인구통계 자료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914년에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1978년 기준으로 미국 인구 중 1퍼센트 이하로 남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통치체 성원들의 주의를 잡아 끈 것은 슈로더가 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중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브루클린에 들어온 보고에 따르면, 그는 예수께서 마태 24:34에서 언급하신 “이 세대”란 표현은 “기름부음받은 자들” 세대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라도 살아 있는 한 그 “세대”는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설명은 조

직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통치체의 승인을 받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슈로더가 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1914년에 대한 그의 해석은 거부당했고, 표결에서 향후 「파수대」 “독자로부터의 질문”에서 “이 세대”에 관한 표준이 되는 가르침을 재확인하는 기사를 다루기로 결정되었습니다.<sup>8)</sup> 흥미롭게도 통치체 성원 슈로더가 유럽에 있을 때 통치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반대되는 견해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나 비난도 없었습니다.

1914년에 대한 문제가 1979년 3월 6일과 11월 14일의 회의에서도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주의가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스웨덴 장로가 보내온 1914년과 2520년의 근원을 밝혀주고 연대 계산의 역사를 자세히 다루는 20쪽 분량의 자료를 복사하였습니다.<sup>9)</sup> 집필부 책임자인 라이먼 스윙글은 이미 이 자료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는 통치체 성원 모두에게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리적이고 확고한 주장을 한 1922년에 발행된 몇몇 「파수대」 기사를 큰소리로 낭독함으로써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는 1914년에는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당시에 4살 정도) 1914년과 관련하여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sup>10)</sup> 그러나 그는 1925년과 관련하여 그의 집에서 있었던 토론은 매

---

8) 「파수대」 영문, 1978년 10월 1일호 참조. (한국어는 「파수대」 1979년 2월호 48면 참조)

9) (역자): 여기에 나오는 “스웨덴 장로”는 칼 올로프 욘손(Carl Olof Jonsson)을 말한다. 이 자료는 통치체 성원 모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무심코 한 말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그 자료를 토의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10) 당시에 토론을 했던 통치체 성원 중에 유일하게 프레더릭 프랜즈-Fred Franz(1992년 사망)만이 1914년 당시에 10대를 넘은 나이였고 갓 21세가 되는 나이였다. 또한 마찬가지로 칼 클라인-Karl Klein(2001년 사망)과 케어리바버-Carey Barbel(2007년 사망)는 당시 9세였고, 라이먼 스윙글-Lyman Swingle(2001년 사망)은 4세, 앨버트 슈로더-Albert Schroeder(2006

우 잘 기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1975년이 그냥 지나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또 다른 연대에 휘둘리기는 싫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회의 일정 중에 나는 협회의 기원전 607년이라는 출발 연도를 지지하는 어떤 역사적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914년과 당시 살았던 세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만일 조적이 전통적으로 가르쳐 온 이 교리가 확실하다면, 예수께서 이 세대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함께 언급하신** 말씀을 1914년 당시 생존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세대와 함께 언급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을 아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몸을 똑바로 일으키고 머리를 드십시오. 여러분의 구출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 출판물은 정기적으로 이 말씀이 1914년 당시 생존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해석이 옳다면, 당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중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50세였던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만일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대화

---

년 사망)는 3세, 잭 바-Jack Barr는 1살이었다. 로이드 배리-Lloyd Barry(1999년 사망), 다니얼 시들릭-Dan Sydlík(2006년 사망), 밀턴 헨첼-Milton Henschel(2003년 사망), 테드 제라스-Ted Jaracz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이다. 그들은 1914년 이후에 태어났으며 나중에 다섯 명이 통치체 성원에 추가된 것이다. - (괄호 안에 나오는 사망 연도는 역자가 추가)

를 하던 1979년 기준으로) 115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40세였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이제 105세입니다. 심지어 30세였던 사람도 이제는 95세이며, 20세였던 사람들도 1979년에는 이미 85세가 되었습니다.(만약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10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sup>11)</sup>

예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몸을 똑바로 일으키고 머리를 드십시오. 여러분의 구출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고무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1914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최종 결말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라면, 이치적으로 볼 때 그 말씀 뒤에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아주 어려야 하고 상당히 장수해야 합니다.”

나는 1891년생이신 나의 아버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1914년 당시에는 23살밖에 안된 젊은이였습니다. 그분은 단지 칠팔십년만 사신 것이 아니라 86세까지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 토의가 있기 2년 전에,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망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동료 통치체 성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1914년 당시에 십대였거나 더 어린 아이들만 그 말씀의 온전한 성취를 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예수께서 마태 24:33,34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뚜렷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

11) (역자): 여기에서 사용한 나이는 태어나면서 0세부터 시작하는 서양식 나이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성원들은 “이 세대”와 1914년에 관한 조직의 현재 가르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이드 배리는 1914년에 관한 가르침을 의심하는 통치체 성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실망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라이먼 스윙글이 1922년도 「과수대」에서 낭독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내용들에 관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그 내용들이 형제들에게 그 당시 시점에서는 “현재의 진리”였다고 하였습니다.<sup>12)</sup> 1914년 세대의 고령화에 대해, 소련의 어느 지역에서는 130살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통치체 성원들이 일치된 태도를 형제들에게 보여서, 형제들이 긴박감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다른 성원들도 동일한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자로서 발언권을 얻은 나는, “현재의 진리”로 가르치는 것도 나중에는 “과거의 진리”가 될 수 있으며, “과거의 진리”를 바꿔버린 “현재의 진리”는 “미래의 진리”에 의해서 폐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진리”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몇몇 통치체 성원들은, 만약 현재의 해석이 옳지 않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질문은 나를 겨냥한 듯 보였기에, 나는 성경과 사실에 모두 조화되는 그런 설명

---

12) “현재의 진리”(present truth)라는 표현은 러셀과 러더퍼드 시대에 매우 인기 있던 표현이었고, 베드로 후서 1:12의 잘못된 번역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신세계역에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the truth that is present in you)라고 표현하고 있다.

(역자): “현재의 진리”(present truth)라는 표현은 「킹 제임스 성경」KJV에 나오는 표현이다.

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설명도 “즉흥적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되며, 주의 깊은 조사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내가 보기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형제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통치체에서 승인만 해준다면 그 일을 수행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치체 성원들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 계속 진지한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질문은 흐지부지 사라졌습니다.

토의의 끝 부분에, 몇몇 성원을 제외하고, 통치체는 1914년과 “이 세대”에 관한 가르침을 하나의 교리로 묶어서 계속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집필부 책임자인 라이먼 스윙글은 말하기를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분은,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1914년에 관련된 거의 전부가 재림파 *The Second Adventists*로부터 넘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가장 속상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 중 한 가지는 아마도, 조직이 형제들에게 1914년 해석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하라고 촉구하면서, 정작 조직 내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그들 스스로가 1914년에 기초를 둔 예언들에 대해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예가 1975년 2월 19일 회기 중에 있었습니다. 통치체는 프레더릭 프렌즈가 1975년에 대해 연설한 녹음 내용을 듣고 난 후 연대 예언의 불확실성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이 때 협회장 네이션 노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 나는 여호와께서 하느님이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바치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것만큼 강한 확신을 갖지는 못합니다. 1914년 - 난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오랜 기간 1914년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sup>13)</sup>

그 회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연대는 1975년이었습니다. 따라서 1975년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그보다 훨씬 더 근간이 되는 해인 1914년을 언급해야만 했다는 것은 나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말했듯이, 협회장은 사적인 대화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통치체 회기 중에 공개 발언을 한 것이기에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1914년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1979년 11월 14일 통치체 회의 전체에서 그러한 토의가 있었음)가 있기 전, 통치체 집필위원회는 위원회 모임에서 1914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토의했습니다.<sup>14)</sup> 그 위원회 토의에서는 적어도 1914년을 “밀어붙이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조직의 가르침에 어떤 변경을 할 때는, 형제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

13) 이 말은 단지 순간적으로 나온 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노어 협회장과 가까운 베델 성원 조지 카우치도 사실상 같은 말을 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을 알고 있는 내 생각으로는, 카우치는 노어의 이런 생각을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노어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다.

14) 당시에 집필위원회는 로이드 배리, 프레더릭 프랜즈, 레이몬드 프랜즈, 칼 클라인, 라이먼 스윙 글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당 기간 동안 특정 가르침을 그냥 언급하지 않는 것이 조직의 관행이라고 칼 클라인이 말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놀랍게도, 그런 조직의 관행을 따라 앞으로 출판물에서 1914년과 관련된 언급을 하지 말자는 제안이 집필부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필부의 입장은 금방 철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979년 11월 14일, 통치체 전체회의에서 과반수가 넘는 찬성으로, 1914년을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1914년 교리에 대한 의문은 브루클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은 1979년 가을에 서서 아프리카를 방문하면서 우발적인 경험을 할 때였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오랫동안 선교인으로 일해 온 두 명의 지부위원은 협회가 새 지부사무실 건물을 짓기 위해 구입한 부지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언제쯤 새로운 곳으로 지부가 이사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부지를 정돈하고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후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이사를 갈 수 있는 시기는 1983년이나 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함을 알게 된 나는 “이 나라 형제들로부터 1914년 이후로 지나간 기간에 대해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지부책임자 형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이지리아 형제들은 그런 질문을 거의 안합니다. 그런데 - 우리끼리는 합니다.” 거의 곧바로 이 오래된 선교인은, “프렌즈 형제, 예수께서 언급하신 ‘이 세대’는 당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이렇게 생각해본다면, 모든 것이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라고 말하였습니다.

분명히 그가 생각하기에는 협회가 1914년에 대해 가르치는 현재의

방식이, 도무지 잘 들어맞지 않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나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한 생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간단히 대답하였습니다. 브루클린 본부로 돌아온 후에 이 대화에 대해 통치체에 보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형제들의 마음속에 1914년 교리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지리아 형제들의 말은 그들이 내가 나이지리아 지부를 방문하기 전에 그들 사이에서 이미 그러한 의문점들을 토의했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1980년 2월 17일 통치체 회기에서 로이드 배리는 또 다시 1914년과 “이 세대”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라이먼 스윙글은 1978년에 출판된 “독자로부터의 질문”에서 1914년에 대해 다른 내용이 형제들의 마음에서 의문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앨버트 슈로더는 길르앗 학교와 지부위원회 세미나에서 형제들이 1914년으로부터 70년이 되는 1984년을 예언 성취의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해로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70이라는 수가 매우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음이 분명합니다.) 통치체는 1914년 문제를 다음 회의 일정에서 더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sup>15)</sup>

앨버트 슈로더(사회자)와 칼 클라인 그리고 그랜트 수터로 구성된 사회자 위원회는 이제 매우 특이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들은 그 문서의 복사본을 통치체 성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

15)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통치체 내부에서는 1984년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내 기억으로는, 이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딱 한 번이었는데 그것도 1984년과 관련된 소문이 있다고 언급했을 때 뿐이었다.

문서에서 제안한 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이 세대”라는 표현을 1914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43년 후인 1957년에 살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적용을 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문서가 그 세 명의 통치체 성원이 당시에 우리에게 나누어준 바로 그 문서입니다:

To Members of the Governing Body -- On Agenda for Wednesday Mar.5 '80

Question: What is "this generation (genea)?" (Mt. 24:34; Mr. 13:30; Luke 21:32)

TDNT (many Commentaries) say: genea "mostly denotes the sense of contemporaries." Vol. 1, p. 663

Most all say genea differs from genos; genos means offspring, people, race. See TDNT Vol. 1 p. 685 (genos at 1 Pet. 2:9)

Answer may be tied to question on Mt. 24:33. What is meant by: "When you see all these things"?

Lange's Commentary (Vol. 8) suggests that "these things" do not refer to C.E. 70, nor the parousia 1914 but to vss. 29,30 the celestial phenomena that we now see began with the space age 1957 onward. In that case it would then be the contemporary generation of mankind living since 1957.

Three Sections

Lange's Commentary divides Matthew 24th chapter into "three cycles."  
 His 1st cycle-- Matt. 24:1-14  
 2nd cycle-- Matt. 24:15-28  
 3rd cycle-- Matt. 24:29-44 (synteleia or conclusion)  
 (See Vol. 8 pp 421, 424 and 427)  
 Based on Matt. 24:3 question in three parts.

The Watchtower and God's Kingdom of a Thousand Years (ka)  
 Have now also divided Matthew 24 into three parts so to speak

- (1) Matt. 24:3-22 Has parallel fulfillments in 1st century and today since 1914. (See w 75 p. 273, ka p. 205)
- (2) Matt. 24:23-28 Period into Christ's parousia of 1914. (See w 75 p. 275)
- (3) Matt. 24:29-44 "Celestial Phenomina" have literal application since the space age began in 1957 and onward to include Christ's erkhomenon (coming as the executioner at the beginning of the "great tribulation.") (See w 75 p 276 par. 18; ka pp 323 to 328)

"All these things" would have to throw back in the context to the nearest items listed in the composite sign, namely, the celestial phenomena of verses 29 and 30.\*

If this is true: to  
 Then "this generation" would refer/contemporary mankind living as knowledgeable ones from 1957 onward.

\*Confirmed in thought by C.T. Russell in Berean Commentary, p. 217:  
"Genea, people living contemporaneously which witness the signs just mentioned." Vol. 4 p. 604.

Chairman's Committee, 3/3/80

통치체 성원 여러분께 - 80년 3월 5일 수요일에 다룰 의제에 관하여

질문: “이 세대(게네아)”는 무엇인가? (마태 24:34; 마가 13:30; 누가 21:32)

「신약 성서 신학 사전」(많은 주석들)에 따르면: 게네아는 “대부분 동시대 사람들이라는 개념을 전달” 제1권 p.663.

대부분은 게네아와 게노스가 다르다고 말함. 게노스는 후손, 사람들, 인종을 의미.

「신약 성서 신학 사전」 제1권 685면 참조. (베드로 전서 2:9에 나오는 게노스 참조)

대답은 마태 24:33에 대한 의문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랑계의 주석」(제8권)에 의하면 “이 (모든) 일”은 기원 70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1914년의 파로우시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님. 이것은 29절과 30절에 나오는 천체 현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1957년 이후 우주시대로 들어서면서 목격하기 시작한 것임. 따라서 이 세대는 1957년 이후로 살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대가 될 수 있음.

### 3가지 구분

「랑계의 주석」에서는 마태 24장을 “3 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제1단계 : 마태 24:1-14

제2단계 : 마태 24:15-28

제3단계 : 마태 24:29-44 (신텔레이아 또는 종결)

(제8권 421,424,427면 참조)

마태 24:3의 질문에 근거하여 3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파수대」, 「하나님의 천년 왕국」책(약어: 천년)에서도 마태 24장을 굳이 말하자면 3개 부분으로 분리해 왔음.

(1) 마태 24:3-22 기원 1세기와 1914년 이래의 오늘날과 동일하게 성취(파 75년 273면, 천년 205면)

(2) 마태 24:23-28 1914년의 그리스도 파로우시아로 들어가는 기

간(파 75년 275면 참조)

- (3) 마태 24:29-44 그리스도의 에르코메논(“큰 환난”의 시작과 더불어 심판관으로 오심)을 포함하여 1957년에 시작된 우주시대 이래로 “천체 현상”이 문자적으로 성취됨(파 75년 276면 18항, 천년 323면-328면 참조)

“이 모든 일”은 분명히 문맥에서 복합적인 표징 즉 29,30절의 천체 현상이 열거된 가장 가까운 항목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함.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

“이 세대”는 1957년 이래로 1957년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생존하는 동시대 인류를 가리킴.

\*베리언 주해서Berean Commentary 217면에 나오는 C.T.러셀의 생각으로 확증됨 :

“게네아, 앞서 언급한 표징들을 목격한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제4권 604면

사회자 위원회, 1980년 3월 3일<sup>16)</sup>

1957년은 최초의 소련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가 우주로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분명히 사회자 위원회는 그 사건을 예수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의 성취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날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

16) (역자): TDNT는 「신약 성서 신학 사전」(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을 가리키는 말이다. 「랑게의 주석」은 「랑게의 성경 주석」(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을 가리키는 말이다. 참조: 출판물의 발행 연도와 날짜는 모두 영문판 기준이다.

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입니다.<sup>17)</sup>

이러한 적용에 근거하여, 그들의 결론은 위 문서에 언급된 바와 같습니다.

“이 세대”는 1957년 이래로 1957년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생존하는 동시대 인류를 가리킴.

세 명의 통치체 성원은 1914년 자체를 없애자고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1914년은 “이방인의 때의 끝”으로 남겨 두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1957년부터라는 것입니다.

1914년 세대가 신속하게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 어떤 지역에서는 130세를 산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설명보다는 이쪽이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세대”의 시작을 1914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 보다는, 1957년을 기준으로 하면 추가로 43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통치체의 규정에 따르면 어떤 위원회든지 통치체에게 어떤 제안을 할 때는 위원회를 이루는 성원들의 만장일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위원회 성원 사이에서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 통치체가 그 문제를 조정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1957년에 관한 그러한 기발한 생각을 통치체 앞에서 발표한 것은 사회자 위원회를 구성하는 슈로더, 클라인, 수터가 만장일치로 동의했음에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

17) 마태복음 24:29.

있게 합니다.

만약 그때의 일에 대해 통치체가 지금 질문 받는다면, “아, 그건 단순한 제안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정도의 답변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의 제안은 매우 진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앨버트 슈로더, 칼 클라인 그리고 그랜트 수터는 그 제안을 통치체에게 하였을 때, 그들은 틀림없이, 자신들이 제안한 대로 세대에 관한 가르침이 변경되는 것을 보기를 마음속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만일 진실로, “이 세대”에 관한 협회의 오래된 가르침(이 세대가 1914년부터 적용된다는)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확신이 강하고, 확고하며, 절대적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그들이 제시한 그러한 새로운 해석을 통치체에게 제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통치체는 이 세 명의 통치체 성원들이 제시한 새로운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통치체 성원들은 그들의 제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어쨌든, 슈로더, 클라인 그리고 수터가 그들의 생각을 매우 진지하게 제안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1914년 세대와 관련된 현존하는 교리의 확실성에 대한 그들의 확신이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914년 세대”와 1914년과 관련된 주장의 타당성에 관해 분열된 견해가 존재한다는 이 모든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자” 조직은 1914년과 “이 세대”에 대해 대담하고, 단정적인 설명을 성경적으로 확립된 사실인 것처럼 계속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는 이 교리에 온전한 신뢰를 두어야 하며 이 교리에 관한 소식을 지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1914년 세대 계층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수대」(영문) 1980년 10월 15일호 31면에서는 그 세대의 나이 제한이 10살로 낮아질 수도 있다고 암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세대가 끝까지 생존할 것이라는 성서 예언과 세상 풍조를 고려해 볼 때, 현 악한 세상 제도가 20세기가 끝날 때까지 여전히 존속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1914년 세대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현 “사물의 제도의 종결”이 그 끝을 향해서 매우 빠르게 가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입니다.<sup>18)</sup>

위 「파수대」 기사는 1980년에 쓴 것입니다. 20년 후인 20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1914년에 10살이었던 사람들이 **96세의 나이**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되더라도 여전히, 1914년 세대는 세계 어딘가에 일부가 생존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부라도 남아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예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데 충분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 물론 이러한 견해는 그리스도께서 특히 1914년에 10살이었던 아이들을 초점으로 말씀하셨다는 가정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1914년 세대”의 기존 정의를 굳건하게 유지하려는 조직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더 이상 “10살인 사람들”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대신에 단순히 “1914년에 살았던 사람들” 또는 그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표현들은 “1914년 세대”에 1914년에 태어난 아기들도 포함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

18) (역자): 영문판에만 있으며 한국어판 「파수대」에는 이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

1990년대가 도래하고, 21세기가 막 시작되려고 하자, 심지어 이러한 “이해의 조정”도 1914년 문제에 관한 일시적인 해결책에 지나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1914년에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2000년에는 90살에 가깝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통치체가 사용하는 논증이 터무니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통치체 성원들 스스로가 이 교리의 정당성에 대해 온전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연대 예언에 맞추어 그들의 꿈을 조정하고 그들의 인생을 그 희망에 맞추어 **계획해야 한다**면서 확고한 예언으로 받아들이도록 인도하는 것을 볼 때 비극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이 수십 년간 연대를 이리저리 옮기고 조정해 온 것을 생각해본다면 그리고 그것의 배경을 알고 되돌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태도에 대해 조금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나에게 더욱 놀라웠던 것은 사회자 위원회 성원들인 앨버트 슈로더, 칼 클라인과 그랜트 수터가 “이 세대”에 관한 그들의 새로운 견해를 제출한 지 **약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1914년 그리스도의 임재의 시작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주장했던 그 가르침을 누군가가(본부 성원을 포함하여) 가르친다면 그것은 “배교”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으로 제명처분 될 수 있는 주요 교리 항목 중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는 바로 그 본인들이 “이 세대”에 대해, 즉 1914년 교리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반세기 동안 조직은 “1914년 세대”란 개념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수명이 너무 짧아서, 마치 몸을 펼 수 없는 침대와도 같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이 교리적인 “참상”을 가리기 위해 사용된 추리들은 너무 작아서 충분히 몸을 덮을 수 없는 이불과도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도부는 수많은 조정을 하였으며, 이제 남아있는 대안이 거의 없었습니다. 슈로더, 클라인과 수터 성원이 제안한 “이 세대”의 출발 연대를 1957년으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세대에 관련된 예언을 “적은무리” 반열에 적용시키자는 앨버트 슈로더의 생각(조직 내에서 매우 오랫동안 돌아다니던 견해)은 분명히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자신을 “기름부음받은 자” 반열이라고 공언하기 시작하는 (일부는 매우 젊은)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생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이 세대”의 기간을 거의 무제한으로 연장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sup>19)</sup>

또 다른 대안이 있었습니다. 협회가 예루살렘 멸망 연도로 가르쳐온 기원전 607년을 포기하고, 그보다 20년 후에 멸망했다는 역사적 증거를 통치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2520년 해석을 여전히 적용할 경우) 이방인의 때는 1934년에 끝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14년은 그동안 너무 엄청나게 강조한 연도라는 점과,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교리들이 이 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문제 때문에,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

19) (역자): “세대에 관련된 예언을 “적은무리” 반열에 적용시키자”고 말했던 앨버트 슈로더의 제안과 동일한 내용이 결국 「파수대」 2008년 2월 15일호에 공식 가르침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해의 조정”을 피할 수가 없다는 신호가 「파수대」 1994년 2월 15일호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파수대」지에서는 예수께서 “해와 달과 별들에 표징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서는 바다가 울부짖고 요동하는 것 때문에 나라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매우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1914년에 성취된 것이 아니라, 아직 미래에 있을 “큰 환난”이 시작하고 즉시 성취될 것이라고 변경하였습니다.<sup>20)</sup> 이와 비슷하게, 예언된 “선택된 자들을(자기 택하신 자들을-개역한글)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는 말씀은 그동안 1919년부터 시작했다고 가르쳐왔지만, 이때부터는 “큰 환난” 후에 즉시 천체 현상이 일어나고 이어서 모으는 일이 시작된다고 변경하였습니다.<sup>21)</sup> 이제는 포기하고 버린 이 교리들은 각각 약 50년 동안 가르친 것입니다.(많은 예들 중 하나는 「파수대」 영문 1946년 7월 15일호)

“새로운 빛”으로 자신 있게 선포하기는 했지만, 워치타워 조직의 변경된 가르침은 그들이 “그리스도교국의 학자들”이라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과 비슷하게 바뀐 것입니다.

1994년 9월에 인쇄한(8쇄) 「양심의 위기」책 이전 판에서는 「파수대」 1994년 2월 15일호 기사에서 마태 24장의 적용을 “큰 환난”이 시작한

20) (역자): 1994년 2월 15일호의 두 차례 연구기사에서 나온 내용이다. 당시에는 한국어 「신세계 역」이 없었기 때문에 성구는 「개역 한글판」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일월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누가복음 21:25.

21) (역자): 「파수대」1994년 2월 15일호 21면 23항 참조. 그 이전에는 마가복음 13:27의 “모을 것”이라는 말씀을 1919년 이후로 지상에서 연합을 이루어 모이고 있다는 뜻으로 보았지만, 이 기사에서는 “14만4천명의 남은자들”이 왕 겸 제사장이 되기 위해 하늘로 모일 것이라는 뜻으로 변경하였다.

직후로 변경시킨 것에 대해 다뤘습니다. 나는 그 문제를 논의한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책에 썼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동안 「파수대」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마태 24:34과 누가 21:32에 나오는 “이 세대”라는 문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주 등장하던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 문구가 사라진 것이 눈에 띕니다. 이 조직은 마태 24:29~31을 미래에 있을 “큰 환난”이 시작되고 난 이후 시점에 적용하였는데, 그러면서 3구절 뒤에 나오는 “이 세대”를 1914년에 시작된 기간으로 계속해서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신 것처럼, 통치체가 1914년과 연결된 “이 세대”라는 말(“이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라는 말씀)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구를 환영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이치적일 것입니다.

협회가 새로운 해석을 준비하여 “이 세대”에 대해 그동안 가르쳤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할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없이 가장 멋지게 탈출하는 방법은 1914년은 “마지막 날의 시작”으로 유지시키면서, “이 세대”라는 말은 1914년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설득하는 것입니다. 설명한 것처럼, 조직이 1914년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1914년과 연결된 교리들이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세대”를 1914년에서 분리시켜서 알 수 없는 미래까지 연장할 수 있다면, 2000년이나

심지어 2014년이 오더라도 그 교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과 그를 대표하는 통치체가 제시하는 설명은 무조건 받아들여도록 훈련받은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양심의 위기」책에서 설명한 위 내용은 1994년 9월에 인쇄된 것입니다. 겨우 13개월이 지났을 때인 1995년 11월 1일호 「파수대」에서는 「양심의 위기」책에서 지적한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sup>22)</sup> 이제 그들은, 마태 24:24에 나오는 “이 세대”를 1914년에서 분리시켰으며, 하지만 여전히 성경적으로는 중요한 연대로 유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이 책에 나오는 “세대”에 관한 관념을 새롭게 정의내림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그 기사가 실린 때로부터 70년 전이었던 1926년 10월 20일호 「황금시대」잡지에서는,<sup>23)</sup>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라는 말과 1914년을 연결 지었습니다.(이때 이후로는 「파수대」역시 마찬가지로) 약 25년 후인 「파수대」영문 1951년 6월 1일호 335면에서는 1914년과 연관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sup>24)</sup>

“따라서 우리 세대는 아마겟돈을 포함하여, 이 모든 일들의 시작과

---

22) (역자): 영문판과 한국어판 모두 「파수대」 1995년 11월 1일호 첫 번째 연구기사에 실렸다.

23) (역자): 「황금시대」는 「깨어라!」지가 나오기 전에 발행하던 잡지였다. 한국어로는 잠시 발행된 적이 있었지만, 일반 증인들은 물론 나중에 설립된 지부에서도 구할 수 없었던 잡지이다. 상당히 오래전에 어떤 회중에서 호별 중 「황금시대」잡지를 보관하고 있던 할아버지를 발견하였을 때 협회는 기증받기 위한 설득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24) (역자): 1951년에는 한국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한국어 「파수대」는 발행되지 못했다.

끝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세대입니다.”

「파수대」 영문 1951년 7월 1일호 404면에서는, “이 세대”를 다시 한번 1914년과 연결시켰습니다. 마태 24:34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문의 여지없이 이 성구에 나오는 “세대”는, 마가복음 8:12과 사도 행전 13:36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처럼,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914년부터 시작된 세대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들은 큰 재난의 때 한가운데에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 40년이 넘도록 워치타워 출판물에서는 계속해서 마태 24:24에 나오는 “세대”를 시간적인 의미로 설명해왔습니다. 1914년 세대가 연로했다는 사실은 남아있는 때가 매우 단축되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 갑자기 세대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세대를 제한된 기간으로 보거나 어떤 특정 연도를 출발점 *starting point*으로 지정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정된 시간의 의미가 아닌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특징 *characteristics*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대”의 뜻

이 “그리스도의 임재의 표징을 보면서도 자기들의 길을 바로잡지 않는, 지상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sup>25)</sup>

그래도 1914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조직이 1914년을 버리면, 종교적으로 중요한 신학적 구조와 특징이 사라지게 됩니다. 조직은 여전히 1914년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왕으로 즉위하신 때, 즉 보이지 않는 임재가 시작된 때, “마지막 날” 혹은 “마지막 때”가 출발한 연도로 설명합니다. 또한 조금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 세대”의 새로운 정의 역시 1914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의 표징”은 - 보고도 무시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 1914년 이후에 전 세계적인 규모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914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도 “이 세대”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의 표징”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대”에 속하며, 언제 태어났는가와 상관없이 - 심지어 1990년대나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도 - “이 세대”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그 시점도 자유롭게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1914년 이후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과,

---

25) (역자): 인용부호 안에 나오는 “이 세대”의 정의는, 「파수대」 1995년 11월 1일호 19면 12항에 나온 것이다. 이 가르침은 「파수대」 2008년 2월 15일호에서 또 다시 정의를 바꿀 때까지 약 12년 이상 유지한 가르침이다.(영문, 한국어 동일) 이 책의 원서가 된 「양심의 위기」 2004년판은 1995년 가르침이 계속 유지되던 때였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파수대」 2008년 2월 15일호 24면에서 “세대”에 관해 변경된 설명을 일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하나의 반열로서 이 기쁨부음받은 자들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사라지지 않을, 동시대인들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기쁨부음받은 형제들 중 일부가 예언된 큰 환난이 시작될 때에도 땅에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급격히 사라지는 것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거의 없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변경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깨어라!」잡지에 나오는 발행 목적 칸일 것입니다. 1995년 10월 22일호까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한국어는 1999년 11월 1일호)<sup>26)</sup>:

300-444-0101 「깨어라!」			
이 간행물이 발행되는 이유. 본지는 가족 전체에게 계몽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타개책을 제시합니다. 이 간행물은 뉴스를 전하며,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종교 및 과학 기사를 게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면을 파헤쳐서 현대 사건 배우의 진정한 의미를 지적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이 간행물은 항상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며 특정 인 등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본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원 1914년부터 일어난 사건들을 보아 온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평화롭고 안전한 신세계를 실현시켜 주시겠다는 창조주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지식을 원하십니까? 5면에 있는 해당 주소의 워치타워 협회로 편지하시기 바랍니다. 「겔 메이다」지의 발행은 자진적인 기부로 유지되는 세계적 성서 교육 활동의 일부입니다.			
본지에 사용된 성서 번역판은 성구 옆에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그리스어 성경의 경우는 「그리스도인 그리스어 성경 신세계역」이며 히브리어 성경의 경우는 「성경 진서, 개역 한글판」이다.			
발행소	100-452 서울 특별시 중구 신당동 405-15	창간 연월일	1952년 9월 1일
등록번호 및 연월일	다 332 1964년 1월 1일	방정 결 편집인	워치타워 監製 冊子 協會 朴鍾一
국제판 통권 제76권 21호; 한국문판 통권 제44권 21호		인쇄인	워치타워 監製 冊子 協會 全榮純
		Printed in Korea	KOREAN EDITION

파수대 (별) — 1995년 11월 1일

“본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원 1914년부터 일어난 사건들을 보아 온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평화롭고 안전한 신세계를 실현시켜 주시겠다는 창조주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는 내용은 1982년부터(한국어는 1982년 3월호부터) 1995년까지 매년 볼 수 있었습니다. 1995년 11월 8일호(한국어는 1995년 11월 15일호)에서는 이 내용이 다음과 같이 대체되었습니다:

26) (역자): 사진에 나오는 한국어 「깨어라!」지의 제목이 다른 이유는, 한국에서는 그때 잡지명이 달랐기 때문이다. 제5공화국은 언론 통제정책으로 상당수 신문과 잡지들을 폐간시켰다. 「깨어라!」지 역시 폐간되었고 실제로 1981년 1월호를 발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제목을 바꾸어 「파수대」지의 별책부록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발행을 허락했고, 1981년 2월호부터 「지금쯤은 겔 때이다!」라는 이름으로 발행되었다.(이때부터 1일호와 15일호로 「파수대」와 발행날짜를 맞추) 이 특별한 제목은 1995년 12월 1일호까지 사용되었고, 1995년 12월 8일호부터는 다시 「깨어라!」라는 원래의 잡지명으로 돌아갔다.

이 간행물이 발행되는 이유 본지는 가족 전체에게 게을리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타개책을 제시합니다. 이 간행물은 뉴스를 전하며,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종교 및 과학 기사를 게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면을 파헤쳐서 현대 사건 배후의 진정한 의미를 지적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이 간행물은 항상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며 특정 인종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본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현재의 악하고 불법한 사물의 체도를 이제 곧 평화롭고 안전한 신세계로 대체하시겠다는 창조주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지식을 원하십니까? 5면에 있는 해당 주소의 워치 타워 협회로 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날』지의 발행은 자진적인 기부로 유지되는 세계적 성서 교육 활동의 일부입니다.

본지에 사용된 성서 번역판은 성구 옆에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그리스어 성경의 경우는 「그리스도인 그리스어 성경 신세계역」이며 히브리어 성경의 경우는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이다.

발행소	100-452 서울 특별시 중구 신당동 405-15	장간 연합일	1952년 9월 1일
	韓國人 워치 타워 協會 冊子 協會	발행 겸 편집인	워치 타워 協會 冊子 協會 朴 鍾 一
등록번호 및 연월일	다 332 1964년 1월 1일	인쇄인	워치 타워 協會 冊子 協會 全 榮 純
국제판 등록 제76권 22호; 한국문판 등록 제44권 22호		Printed in Korea	KOREAN EDITION

파수대 (별) — 1995년 11월 15일

1914년을 언급한 모든 내용이 이제는 삭제되었습니다. 발행 목적의 내용은 중대한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생생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찌되었든 “창조주”께서 1914년과 관련된 그분의 “약속”을 어기셨다고 지적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변경이 여호와의 증인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자신이 죽기 전에 하느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연로한 분들과 오랫동안 증인 생활을 했던 분들에게는 깊은 절망감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잠언 13:12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기대하는 것이 늦추어지면-신세계역]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개역한글판)<sup>27)</sup>

현재 이들이 겪고 있는 어떠한 마음의 병도 창조주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잘못된 희망을 심고 자라게 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7) (역자): 원문에서는 「신 개역 표준역」NRSV과 괄호 안에는 「신세계역」NWT이 사용되었다.

좀 더 젊은 사람들이나 비교적 최근에 연합한 사람들은 이분들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직은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점진적인 이해”와 “밝아지는 빛”과 같은 용어들로 교리 변경을 포장합니다. 「파수대」 1999년 5월 1일호 13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태 24장과 25장에 나오는 예언을 이해하는 면에서 이루어진 진보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해 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느님의 진리로 가르쳐온 해석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많은 새로운 신자들은 수십 년 동안 “1914년 세대”라는 개념이 “끝이 가깝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개념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1914년 세대” 가르침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만드셨으며, 사람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시간표에 근거한 것이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이 개념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주장한 것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 23:21의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달려 나갔다.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교리 변경은 오직 통치체의 결정에 의해서만 있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이 본질적인 문제는 오래전인 1970년대부터 회의에서 포함시켰던 문제입니다. 통치체 성원들이 현재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책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통치체 성원들은 과거에 연대를 어

떻게 확정하고 예언했는지에 대해서 조직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출판물을 통해서도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이 자기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은 열렬한 욕망 때문이었다.”<sup>28)</sup>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마음대로 하느님의 시간표를 정하지도 않았고, 혹은 자신의 예측을 하느님의 예언으로 만들지도 않았으면 마치 하느님의 약속에 대해 열렬한 욕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조직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후에도 잘못을 또 반복하면서 신자들에게 새로운 예언들을 계속 공급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진 적도 없고,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면에서도 계속 실패해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미지와 자신들이 주장하는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신자들로 구성된 하나의 전체 집단이 그러한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깨어라!」 1995년 6월 22일호 9면(한국어는 7월 1일호 9면)<sup>29)</sup>에 실린 “거짓 예언 혹은 참 예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31년부터 여호와의 증인으로 알려진 성경 연구생들도, 성서의 놀라운 예언들이 1925년에 성취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들은 그 때 지상 부활이 시작되어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과 같은 고대 충실한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좀더 최근에 와서, 많은 증

28) (역자): 「깨어라!」영문 1995년 6월 22일호. 한국어는 「깨어라!」 1995년 7월 1일호 9면.

29) (역자): 문서 사진은 한국어 「깨어라!」 1995년 7월 1일호 9면을 복사한 것이다. 원서에는 영문 판 잡지 사진이 복사되어 실렸다.

인들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의 시작과 관련된 사건들이 1975년에 일어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고 추측하였다. 그들의 그러한 예상은 인간 역사의 일곱째 천년기가 그 해에 시작될 것이라는 이해에 근거한 것이었다.

「파수대」 1995년 11월 1일호 17면에서는 “이 세대”와 관련된 새로운 가르침을 설명하면서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악한 제도의 끝을 보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여호와와의 백성은 “큰 환난”이 갑자기 시작될 때에 관해 때때로 추측하는 일이 있었으며, 심지어 그것을 1914년 이래의 한 세대의 기간에 대한 계산과 관련 시키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세대가 몇 년 혹은 몇 날로 이루어지는지를 추측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돌아가게 하는 일에서 어떻게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함으로써 “지혜의 마음을 얻”습니다. (시 90:12)

이와 같이, 지도자들은 신자들의 영적인 시각에 대해 종교적인 충고를 함으로써, 문제를 발생시킨 것은 마치 신자들의 잘못된 영적 견해 때문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서 그들 스스로가 정당하게 저야 할 책임을 펼쳐내 버렸습니다. 그들은 신자들로부터 시작된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품게 된 연대 예언에 대한 확고한 희망은 조직의 지도자들이 신자들에게 명백히 그러한 희

망을 고취시키기 위해 고안된 영적 양식을 먹였기 때문이라는 것과 예 언된 모든 연대와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짐작’, ‘추측’ 그리고 ‘추론’과 ‘계산’ 등이 신자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그냥 먹었을 뿐인데, 소화불량에 걸려서 힘들게 앓고 있는 자녀를 가리키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먹을 때 조심성이 없네요.” 그런데 어머니는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 준 음식을 매우 건강에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뛰어난 식사임을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라도 표현한다면 처벌받을 것이라고 위협도 가합니다.

1914년과 관련된 가르침이 변경되기 전에는, 누군가가 1914년과 관련된 조직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건 공개적인 의문을 제기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명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제명 처분되었다는 것을 지금의 모든 통치체 성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파수대」 기사를 통해 현재 촉구하고 있는 바로 그 “지혜의 마음” - 연대에 근거한 추측을 피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느님께 맞추면서 단순한 생활을 유지하려는 마음 - 이 과거에 브루클린 본부에서 일하던 일부 성원들이 말하고자 했던 “마음”과 완전히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본부 성원들은 바로 그러한 “지혜의 마음”을 말했다는 이유로 고발의 주인공이 되었고 “배교자”로 판결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현재 통치체에 속한 성원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 내가 아직도 통치체 성원이고, 그래서 그동안 심각하게 잘못 인도한 것에

대해 남자답게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가혹하게 판결했던 것에 대해 밝히지도 않은 채로 저런 기사를 쓰는 일에 동참했다면 도덕적인 수치심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 단체 즉 ‘하나님의 전 세계 교회(Worldwide Church of God)’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연대를 정해서 예측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증인 조직과는 뚜렷하게 대조되는 태도를 취한 것을 고려해 본다면 깊은 감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 교회를 오랜 세월 이끌었던 허버트. W. 암스트롱이 사망하자, 새로운 지도부는 이 교회의 주 출판물인 「명백한 진리(The Plain Truth)」 3~4월호에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이며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명백한 진리(The Plain Truth)」 잡지의 후원자인 ‘하나님의 전 세계 교회(The Worldwide Church of God)’는 지난 몇 년 동안 오랜 세월 가져왔던 수많은 믿음과 관행에 대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sup>30)</sup>

---

30) (역자): 여기에 나오는 WCG라는 약칭으로도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전 세계 교회”(The Worldwide Church of God)는 한국에서 발생하여 흔히 “하나님의 교회”(The Church of God)로 알려진 단체와는 전혀 다른 교파이다. 한국에서 발생한 이 교파는 “안상홍 증인회”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및 “보혜사”로 믿는 단체이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 세계 교회”(WCG)는 미국에서 생긴 교파이다. 이 교파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신념을 전파하기도 했고, 1932년과 1972년을 “주의 날”(Day of the Lord)로 예언하였지만 모두 빗나갔다. 창시자 허버트. W. 암스트롱은 교회에서 자신만을 유일한 사도라고 여겼는데 사망하기 전에 사석에서 자신의 교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바 있다. 나중에 지도자가 된 목사는 이 말을 근거로 그리고 다른 이유 등으로 광범위한 교리 검토를 지시하였고, 지도부는 결국 일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시 14만5천 명에 달하는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거짓 예언과 자신들만 “유일한 참 교회”라는 주장 등 여러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1988년) 다수 교인들은 변화를 환영하였지만, 일부 교인들은 원래의 가르침을 고수하기 위해 여러 단체로 분열되었다.

이 기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 흔적이 매우 진하게 남아 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함 있는 교리적인 이해가 그리스도의 명백한 복음을 가려버렸으며 수많은 잘못된 결론과 비성경적인 관행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개할 것과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이었고 스스로 의로워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속이는 자들”, “사탄의 도구”라는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성원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을 위해 행함을 강요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약성서 법전의 무거운 규칙들에 고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데 지나친 율법주의적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약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은 신약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형제애와 연합보다는 배타적이고 교만한 태도를 조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영된 사건과 예언에 대한 추측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참된 복음을 보잘 것이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관행들이 우리가 최우선으로 회개해야 할 것들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과 관행들로 인해 빚어진 비탄과 고통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우리 중 누구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려는 의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고 믿었던 것에 너무도 정신이 팔린 나머지 우리가 걷고 있던 영적 행로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의도적이었던 그렇지 않든 간에, 그 행로는 성서적인 행로가 아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토록 잘못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의 가르침으로 인해 성서를 잘못 이해한 모든 이에게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영적인 혼란과 혼동을 가변이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

우리는 과거의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잘못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러한 글로서 그러한 틈을 덮어버리는 것도 우리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피하지 않고 우리가 발견한 잘못과 죄들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과 죄는 언제나 우리 역사에 남아서 행함을 통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영원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솔직한 인정과 잘못된 결과에 책임을 지려는 자세는 위치타워 출판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나로서는, 통치체 성원 중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섬기고 있다는 믿음에서 진실하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에 더불어 그들은 그들이 이끌고 있는 조직이 하느님과 의사소통의 통로이며, 지상의 다른 모든 종교 조직보다 우월하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 이 믿음이 바로 조직의

결함 있는 행로와 역사의 현실을 그들 스스로 외면하게 만들고 그러한 잘못들을 부인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욕망이 얼마나 진실하든 간에, 그들의 실패한 중 말론적 예언에 대해 잠재적인 환멸감을 주고, 성서의 가치와 신뢰성에 대한 사람들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데 대한 놀라울 정도로 무감각한 것으로부터 그러한 진실한 열망이 그들을 보호해오지는 못했습니다.<sup>31)</sup>

31) (역자): 마태 24:34의 “이 세대”에 관한 개념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1995년에 변경된 가르침이 13년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양심의 위기」 최종판인 2004년 판이 발행되었을 때에도 1995년의 가르침은 유지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2008년에 “이 세대” 개념은 크게 변경되었다.

1995년에 정의한 세대는 1차 성취에서 1세기에 살던 “동시대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세대”였으며, 2차 성취에서는 1914년 이후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목격하고 있는 “악한 세대”, “동시대의 일반 대중과 ‘눈먼 인도자들’”, “동시대의 ‘악하고 간음하는 세대’”, “그리스도의 표징을 보면서도 자기들의 길을 바로잡지 않는, 지상의 백성들” 등의 뜻이었다. 시간의 개념보다는 특징을 가진 동시에 사람들로 정의한 것이었다.

2008년에 또 다시 변경된 세대 개념은, 1차 성취에서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 반대로 정의한다.(「파수대」 2008년 2월 15일호 23면 10항과 11항 참조.)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사라지지 않을 “세대”에는 자신들과 동료 제자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의 의미라는 것이다. 또한 2차 성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도 나온다.(「파수대」 2008년 2월 15일호 23면 15항 참조.) “그리스도의 충실한 기름부음받은 형제들”, “하나의 반열로서 이 기름부음받은 자들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사라지지 않을, 동시대인들로 이루어진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2009년에는 추가적인 해설이 나왔는데, 그것은 2009년에 열린 “깨어있으십시오”라는 주제의 서울 국제대회 첫째 날에 있었던 연설 중 “끝이 가까웠음을 기억하십시오”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나왔다. 전 세계에서 동일한 골자를 사용한 연설 내용 중 일부는 이러하다: “이 세대”는 일 세기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모든 기름부음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요한 반열은 번쩍이는 번개를 본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표징을 분별하고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름부음받은 자들은 1914년 이래 하나의 반열로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사라지지 않을 ‘이 세대’입니다. … 이 마지막 때 기간을 함께 살아온 기름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반열로서 표징의 시작도 보았고 끝도 볼 것입니다.”

2010년에는 좀 더 특이한 개념이 등장했다. 「파수대」 2010년 4월 15일호 2번째 연구 기사 “여호와와 목적을 이루는 일에서 성령이 하는 역할”이라는 제목 하에(11면 14항) 이러한 설명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대”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의 말씀은, 1914년에 표징이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할 때 지켜본 기름부음받은 자들의 생애와, 큰 환난이 시작되는 것을 지켜볼 기름부음받은 자들의 생애가 겹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2014년에는 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파수대」 2014년 1월 15일호(30~31면. 15, 16항)에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예수께서 언급하신 “이 세대”에 두 부류의 기름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된다고 이해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1914년에 존재했고 그 해에 그리스

---

도의 입재의 표징이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1914년에 단지 살아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에 또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써 영으로 기름부음 받았습니다. - 로마 8:14-17,16. "이 세대"에 포함되는 두 번째 부류는 첫 번째 부류와 동시대에 사는 기름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의 생애 중에 단지 살아 있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아직 지상에 있을 때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존재하는 기름부음받은 사람들 모두가 예수께서 언급하신 "이 세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2014년 9월 서울 국제 대회 및 지역 대회에서 발표된 새로운 증인 역사책 「하느님의 왕국이 통치한다」 책 11,12면에서는 설명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인 도표가 등장한다.

2015년 9월에 "여호와와의 증인 방송국"(tv.jw.org)에서는 한 통치체 성원(데이비드 스플레인)이 "이 세상 제도의 끝이 가까운 때"라는 주제로 마태 24:34에 나오는 "이 세대"의 새로운 개념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사례와 도표를 사용하여 2008년 이후로 수년간 설명된 이 복잡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였다.



# 결정의 순간

C r i s i s   o f   C o n s c i e n c e



...

그 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빌립보서 3:7,8. (쉬운성경)<sup>1)</sup>

1979년이 끝날 무렵 개인적으로 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직 내의 모든 직책에서 일해 보았고 조직의 전 시간 대표자로서 거의 40년의 세월을 보낸 나는, 40년 중 15년을 협회 본부에서, 그 중 마지막 9년은 여호와의 증인 전 세계 통치체 성원으로 보냈습니다.

그 마지막 9년은 나에게 매우 중대한 시기였습니다. 그 기간에 협회에 대한 환상을 깨고 현실적으로 협회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최근에 읽은, 이미 고인이 된 한 정치인의 말에 공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

1) (역자): 원문에서는 「신국제역」NIV에서 인용.

진리에 대한 가장 큰 적은 매우 자주 하는, 고의적으로 꾸며낸 부정직한 거짓말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설득력 있는 비현실적 신화이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성인으로서 전체 삶을 그러한 “지속적이며 설득력 있는 비현실적” 신화에 매우 많은 부분 의지하고 살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성서에 대한 나의 견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서에 대한 견해가 바뀐 것이 있다면, 내가 경험한 일들로 인해 성서에 대한 나의 인식이 한층 더 확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서만이 내가 본 사건들, 협회가 내게 보여준 태도, 그리고 그들이 내게 제시한 추리와 내가 느꼈던 압력과 긴장감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찾게 해 주었습니다. 성서를 이해하는 나의 방식이 근본적으로는 분파의 견해(뒀에 걸리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믿었던 뒀)에 불과한 것으로부터 유래하였다는 것을 깨닫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류투성이인 인간 대리인들이 “통로”가 되어 해석해 놓은 것을 통해 성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 자체가 스스로 말하도록 내버려 두자, 성서의 말씀이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성서의 말씀이 지니는 의미를 내가 너무도 많이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통치체에서 보낸 시간 동안 내가 회기 안팎에서 들은 것과 통치체에 흐르는 기본적인 영은, 조직 즉 ‘냅아 버린 가족 포도주 부대’가 원래 그것이 지니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어떤 유연함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교리적인 믿음 또는 인도를 받기 위해 조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대하는 조직의 잘못된 방식에 대한 성서적인 시정에 뻗뻗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했습

니다.<sup>2)</sup> 나는 당시에 통치체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으며, 여전히 그때의 생각이 옳다고 느낍니다. 이전에 증인이었던 어떤 사람은 장거리 통화 중에 “우리는 추종자들의 추종자들이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우리는 피해자들의 피해자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두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애 당시 특정한 사람들의 견해를 좇았던 러셀은 그 사람들이 “밝혀진 진리”라고 전파했던 신화의 피해자였습니다. 러셀 이후 지도부가 여러 번 계승되었는데, 각 지도부는 원래의 신화를 지지하고 더욱 손질하여 추가적인 신화를 만듦으로써 러셀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그들에게 깊은 원한을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그들에게 동정심만이 느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피해자들의 피해자”였으며, “추종자들의 추종자”였기 때문입니다.

통치체 성원으로 보냈던 기간, 특히 1976년부터는 나에게 더욱 힘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문제가 개선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그것이 근거 없는 희망이었음을 깨달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권위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권위가 극단으로 흐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회중의 동료 신자들의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 권위를 행사하여 통제하도록 목적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권위에 대해 내가 이해한 바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섬기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만 그분의 회중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지배하기

---

2) 누가복음 5:37-39 예수의 말씀 참조

위해 권위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sup>3)</sup>

이와 비슷하게, 나는 질서정연함이란 측면에서의 “조직”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회중 자체가 그러한 질서정연함을 포함한다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sup>4)</sup> 그러나 나는, 그 질서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그 질서의 존재 이유가 오직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만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질서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오직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질서라도 남자와 여자를 제도화된 조직 혹은 통치체에게 의존하게 하는 영적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남녀를 세워주어 온전히 장성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질서는 형제들을 조직의 법과 규칙에 단순히 순응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 “선악을 분별하도록 훈련받아 지각력을 갖도록” 해야만 합니다. 어떤 질서이든지 간에, 그것은 말의 자유와 - 소수의 통치자에 의해 다수가 통치를 받는 협회를 통해서가 아니라<sup>5)</sup> - 진정한 형제애가 가져다주는 상호신뢰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형제애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질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굳게 잡음으로써, 주인이 그들에게 주신 가르침 그대로 나아가고 가르치며, 인간이 만들어낸 조직의 이익에 맞추어 그 가르침을 “조정하지” 않고, 위대한 스승이 사람들에게 권위의 무게를 느끼지 않도록 하신 것과 같은 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sup>6)</sup> 또한 그러한 권위의 사

---

3) 마태복음 20:25-28; 23:8-12; 고린도 후서 4:5; 베드로 전서 5:3.

4) 고린도 전서 12:4-11,25; 14:40.

5) 히브리서 5:14; 고린도 전서 8:9; 16:13,14

6) 마태복음 20:25

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중의 머리로서 높여야만 하며, 결코 지상의 권위 체계와 그 관리자들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권위적인 행동과 끊임없이 스스로를 추천하며 스스로를 찬양하는 조직에 의해, 활동적인 회중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은 희미해지고 실제적으로 가려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나는 가르침의 필요성과 그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하기 쉬운 인간의 추리에 근거한 조직의 해석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변하기 쉬운 인간의 추리는 변함이 없는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과는 결코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인 견해가 가지는 중대성은 하느님의 말씀을 그 전통과 맞추기 위해 구부리고 기울이게 했으며, 그러한 이중 표준의 결과로 인해 빚어진 부조화는 나에게 심각한 감정적 혼란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깨닫게 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독단적 주장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가졌던 그러한 확신들을 통치체에서 봉사하는 기간 동안 나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애초부터 그러한 노력이 나를 어렵고 적대적인 상황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결국 그 노력은 거부와 제명이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979년 가을, 나는 서아프리카의 지부들을 방문하는 “지구 방문”이라는 임명을 받았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일부 나라에서는 증인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금하고 있었습니다. 임명을 수행하는 동안 억류되거나 또는 투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몇 가지 점들을 아내와 의논해야 할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1969년에 아내를 거의 죽게 할 뻔한 혈액 문제를 포함하여 아내의 이전 건강 문제들

을 고려할 때, 나는 이 임무를 혼자 수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내가 느꼈던 감정적 긴장상태를 알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한 긴장의 원인이 되는 문제 -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실제 문제들 - 에 관해 결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의논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러한 의논을 하는 것이 적절할 뿐 아니라 특히 성서의 빛에 근거하여 내가 인지하고 있었던 문제들에 관해 아내와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느님의 말씀에서 알게 된 진리를 아내와 함께 토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간섭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당시 아내와 나는 협회 본부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현명한 행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전히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희망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칼튼 박사를 포함하여 두 명의 의사와 그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sup>7)</sup> 나는 당시 57세였으며, 그러한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한 세속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 개의 욕망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의 의견이 통치체에 짜증스럽게 들리고 무시되

---

7) 내 아내는 나보다 13살 연하이다. 두 명의 의사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더라도, 중용과 균형을 위해서, 성서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 발언이라도 할 수 있는 통치체 성원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결정의 시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또한 통치체 회의 중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더라도 곧 무시되고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임도 감지했습니다. 내가 본 의심스러운 분위기가 발전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욕망과, 도덕적으로 묵과할 수 없는 결정들과 성서적으로 그 근거가 없는 권위체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은 같은 무게로 나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만일 안전과 편안함이 나의 목표였다면 나는 분명히 내가 있던 그 위치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치체 성원인 우리에게 모든 육적인 필요가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공서열 상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협회의 많은 대형 빌딩 내에서 제공되는 더 나은 숙소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sup>8)</sup> 매년마다 6주에 해당하는 기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었고, 통치체 성원이라는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 전역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연설을 하면서 또는 전 세계 나라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지구 방문을 하면서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것이 항상 가능했습니다. (통치체 성원들은 정기적으로 일반인에게 상상에서나 가능한 곳에서 그들의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

8) 협회는 얼마 전에 15층 타워 호텔을 구입했다. 그 밖에도 브루클린 하이츠 주변에는 수십 층의 주거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후 협회는 브루클린에 스탠디쉬 암스 호텔과 보세트 호텔(에이전트를 통해) 구입했으며, 그 지역에 30층 높이의 주거용 빌딩을 신축하고 있었다.



◦ 과거 호텔이었던 곳들이 현재  
는 워치타워 소유이다.



◦ 본부에 있는 개인용 주거 공간.

1978년에 아내와 나는 한 해에 50회 이상 비행기를 탔으며, 그때까지 몇 년간 중앙아메리카와 서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을 여행했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권이나 탁월함을 추구하였다면 합리적으로 요구할 만한 것이 더 이상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나는 기력이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달 3~4번의 연설 요청만을 수락했습니다. 만일 파리, 아테네, 마드리드, 리스본, 멕시코시티, 상파울로 또는 다른 나라들의 주요 도시를 여행하게 된다면 각 지부에서만 연설하거나 수천 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모임을 주최한 후에 연설을 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신자들이 모인 곳에서 연설하는 것이 거의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통치체 성원은 동료 증인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이었습니다.<sup>9)</sup>

9) 이런 일들을 접할 때에는 마태복음 23:6의 예수의 말이 떠오르곤 했다.



• 마드리드에서 연설하는 장면

통치체 자체에 대해서는, 통치체 동료 성원으로 존중받기 위해 거의 예외 없이 성원 다수가 동의하는 내용에 주목하여 그에 따른 의견을 말하고 투표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조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나타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비꼬는 표현이 아닙니다. 통치체 내에서 특정한 전통적 입장과 정책 및 가르침에 양심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느꼈던 소수의 다른 성원들은 - 비록 그들이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을지라도 - 나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내가 통치체 위원회 중에서 다른 부서보다 더 영향력 있는 부서로 불릴 수 있는 부서, 즉 집필위원회와 봉사위원회에 임명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필위원회는 다양한 언어로 수백만부가 발행되어야 하는 많은 출판물의 개발을 (실제 집필은 하지 않으면서) 감독하는 데 나를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sup>10)</sup>

출판물의 “개발 지침” 말하자면 조직 내에서 탁월한 위치를 유지하기

10) 이 출판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의 생명이 모든 것입니까?”(실제로 쓴 것은 라인 하트 렌타트), “인생은 확실히 목적이 있다”(에드워드 던랩), “당신의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하기”(주로 콜린 쿠파켄 부시가 집필), “최선의 삶을 선택”(라인 하트 렌타트), 「야고보서 주해」(에드워드 던랩). 그만 둘 때쯤 내가 말아 본 일은 에드워드 던랩이 집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책을 감수하는 일이었다.

위한 개발 지침은 매우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개발지침을 양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한 성서적 원칙이라고 느끼지만 통치체의 많은 성원들이 기뻐하지 않을 특정한 주제들을 대할 때는, 나의 견해를 숨기기 위해 눈먼 장님이 되어야 했습니다. 통치체 회의에 참여하여 적대적인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보다는 그저 말을 하지 않는 편을 택하기로 결심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삶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이 불거지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나 있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일 그런 상황에서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특별한 무게감을 가지고 전달될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 오히려 나는 경험상 그것이 나 자신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더욱 믿을 수 없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매우 중대하다고 느끼는 특정 그리스도교 원칙들을 옹호하지 않는다면, 내가 통치체 성원으로서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삶의 진정한 목적이 있을 수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78년 이후로는 통치체 내에 변화된 분위기가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행부의 극적인 변화와 더불어 초창기의 행복감은 쇠퇴해버렸습니다. 또한 견해 차이에 대한 더 큰 유연성과 중용을 보이며 한동안 충만한 듯했던 형제간의 “동료애”의 영도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통치체 성원들은 다양한 위원회에서 각자의 직책에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일부 특정 위원회에 대해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이 나타나 보였습니다. 통치체 내의 가이드라

인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종종 어떤 쟁점에 대한 투표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밀턴 헨첼, 프레더릭 프랜즈, 테드 재라스와 로이드 배리의 손이 올라가면, 캐리 바버, 마르틴 포에칭거, 윌리엄 잭슨, 조지 갱거스, 그랜트 수터와 잭 바의 손도 올라가리라는 것을 대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만일 전자의 손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후자의 손도 대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일부 성원들도 이들과 함께 투표하는 경향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투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이와 같은 투표 방식이 만연했습니다.

이 방식은 특히 전통적인 협회 정책이나 입장을 토론할 때 더욱 그랬습니다. 협회의 전통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어떠한 변화도 반대하는 데에 있어서는 위에 언급된 성원들이 거의 확실히 찬성표를 던질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 이전 장에서 이미 토의된 - “대체 복무”의 경우에도 이 압도적인 수의 성원들은 3분의2라는 다수표로 그 문제에 관한 협회의 입장 변경을 계속해서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논쟁이 된 특정한 경우 일부 성원들에게 “로비 활동”을 했다는 증거도 일부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만일 누군가가 실제 회의석상 밖에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문서로 작성하여 제공하고, 사본을 모든 통치체 성원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모든 성원이 동일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며, 사실상 “패를 모두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서 제출은 보통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에 관한 토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79년 11월 14일의 통치체 회기는 1980년 봄에 본부를 강력하게

뒤흔든, 본부 성원 중 많은 수가 “배교”로 제명되고 나 자신도 본부 성원과 통치체를 사임하게 된 충격적인 사건의 전조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네 가지 사소한 문제들을 다루었고, 각 발의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존재했을 수도 있는 어떤 조화로운 불쾌한 암시에 의해 쉽게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랜트 수터는 그 자신이 “주목할 만한 험담”이라고 표현한 문제를 다루기 원했습니다. 그는 통치체와 집필부의 일부 성원들이 협회의 가르침에 따라 말하지 않으므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본부 가족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 “사울 왕이 죽으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는 식의 말들이 있다는 것도 들었다고 했습니다.<sup>11)</sup>

나는 본부 가족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랜트 수터는 그가 언급한 “험담”의 근원이 누구인지 또는 그러한 정보를 어디서 얻게 되었는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긴장했으며 그의 말과 얼굴 표정은 공격적이고 격한 감정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통치체 회기 중에 “배교”라는 용어가 표면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부분의 성원들이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라 말하면서, 꽤 긴 토의가 이어졌습니다. 나 역시, 미국 전역과 많은 나라들에서 연설을 했지만 한 번도 조직의 출판물과 반대되는 연설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치체 성원의 말이 적어도 누군가에 의해 녹음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넘는 발언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녹음

---

11) 이것은 추측컨데 협회장(프레더릭 프랜즈)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았다. 회장이 (1976년까지와 같은) 권력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테이프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나는, 통치체가 진상을 알기 위해 소문에 의존해서는 결단코 안 되며, 누군가가 질문을 통해 분명히 기록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는 수터에게 개인적으로 집필부 또는 통치체 성원 중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단순히 ‘이 문제들이 지금 논의되는 중이지 않느냐?’ 였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본부 세미나에 참석한 일부 지부 위원들이 그 세미나에서 진행된 수업 중에 협회와 반대되는 일부 견해를 듣고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세미나 감독을 맡은 교육 위원회가 이 문제에 관한 조사를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나중 회기에서 교육 위원회는 수터의 주장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수터가 말한 “혼란”에 빠진 지부 위원들에 관해서는, 캐리 바버가 진행한 수업 중에 발전된 견해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이 유일하게 보고되었습니다. 바버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기원 33년부터 그분의 왕국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다루었는데, 일부 지부 위원들이 이 점과 1914년에 관한 가르침 간에 조화를 찾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sup>12)</sup> 이 문제에 관해 모든 통치체 성원은 연설 임명을 수행할 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동의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회기 중에 분명히 설명되었듯이, 이 결의에는 친구로서 하는 통치체 성원들 간의 사적인 대화를 통제하려는 의도는 어떤 것도 내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입장은 시험 아래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토의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

12) 공식적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과 동시에 우선 자신의 회중의 왕으로만 군림하고, 1914년이 되고 나서야 지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랜트 수터가 어떤 통치체 성원도 연설 임명 수행 중에 출판물과 반대되는 말을 한 경우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부 성원이 언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통치체는 앨버트 슈로더가 일부 유럽지부를 방문해서 “이 세대”라는 표현이 출판물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에 대해 이미 속고하는 중이었습니다. 이것에 관한 소문이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왔습니다. 또한 협회장 프레더릭 프랜즈가 길르앗 성서학교 강의 중에 (마태 16장 19절에 언급된) “왕국의 열쇠”에 관해 조직의 출판물과 반대되는 새로운 견해를 소개했었다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프랜즈는 통치체와 사전 조율 없이 왕국의 열쇠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소개했으며, 그 견해는 하나의 가설로서가 아니라 정확한 해석으로서 소개되었던 것입니다.<sup>13)</sup> 길르앗 성서학교 졸업생 전체는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들어보지도 못한 프랜즈의 이 새로운 견해를 가지고 임명지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 중 어느 것도 통치체 회기 중에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나 역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sup>14)</sup> 그러나 나는, 보이진 않지만 통치체 내에 흐르고 있는 분명한 무언가가 조만간 공개될 것임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공개될 때 의심할 여지없이, 그것이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과 통치체 외부의 사람인 에드

---

13) 이에 대해서는 결국 통치체 논의에 회부되어 길게 토론한 결과 새로운 견해가 승인되었고(그러나 만장일치는 아님), 「파수대」 영문 1979년 10월 1일호 16-29면(한국어는 1980년 2월호 8-13면)에 발표되었다.

14) 여호와의 증인 변호사와 의사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을 때(시카고에서 열린 것으로 믿는다.) 통치체 성원인 그랜트 수터는 “성직 임명을 받은 봉사자”(ordained minister)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된 협회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석자들에게 물어 보았다. 그 자리에서 그는 분명하게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통치체 회의에서는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이를 들은 사람들은 이에 관한 협회의 견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워드 던랩을 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일부 성원들에게서 감지할 수 있었던 경향 때문에, 이미 나는 봉사위원회를 사임하고 위원회 성원으로서는 나의 역할을 집필위원회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생각의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봉사위원회의 비서인(통치체 성원은 아님) 로버트 월렌과 대화하면서 봉사위원회를 그만둘 결정을 했다고 말했더니,<sup>15)</sup> 그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회는 균형이 필요해요,”라고 말하면서 내 마음을 돌리라고 거듭 권유했었습니다.

그러나 1979년 11월 14일에 나타났던 동일한 반대 의견이 또 다른 회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었던 대로, 이제 내가 회의의 주된 화제가 되었습니다. 회기 중에 파수대 기사의 취합과 출판 준비를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던 로이드 배리는, 숫자를 제시하며 집필 부에서 회람되는 상당수의 「파수대」 기사에 나의 이니셜(역자: 이름의 약자표시)을 적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강한 염려를 나타냈습니다. (각 기사가 출판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섯 명의 위원회 성원들이 회람한 후 기사 위쪽에 출판 승인을 나타나는 그들의 이니셜을 적게 됩니다.) 로이드 배리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또는 집필위원회 모임에서 먼저 말하지 않고 왜 그 문제를 전체 통치체 회기 중에 끄집어냈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의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내가 서명하지도 않은 기사의 수를 그가 정확히 세고 있었다는 것을 듣고 실제로 매우 놀랐습니다.)

---

15) 당시 봉사위원회의 구성원은 나 이외에 테드 재라스(조정자), 밀턴 헨첼, 앨버트 슈로더, 윌리엄 잭슨, 마르틴 포에칭거가 있었다.

나는 내가 서명을 하지 않았던 경우는, 그것은 단지 양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임을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특정 기사(일부는 협회장에 의해 저술된 예레미야의 예언에 관한 내용과 특정한 연대, 이를테면 1914년과 1919년 그리고 조직의 “예언자로서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음)의 출판을 방해하거나 그 기사들을 문젯거리로 만들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나의 이니셜이 빠진 것은 기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는 전체 통치체 성원에게, 만일 이것이 문제로 인식되고 양심적으로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면 간단한 해결책이 있음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통치체가 기사를 승인하는 데 양심의 제약을 받지 않는 다른 누군가를 집필위원회에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집필부의 필요를 돌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봉사위원회 사임에 관한 내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그 문제를 그들의 손에 맡겼고,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받아들일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회기 후에, 당시 집필위원회와 집필부의 책임자인 라이먼 스윙글이 그의 사무실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만일 통치체가 집필위원회에서 형제를 대체하기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뭐, 좋습니다. 하지만 사임한다고는 하지 마세요.” 그는 매우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단순히 그 문제를 통치체에게 맡긴 것에 불과하긴 하지만 사실 나는 논쟁에 지쳤으며, 내가 느끼고 있던 긴장감을 줄일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윙글은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통치체는 나의 임명에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

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강한 예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6개월 동안 나의 행동을 조직의 심장부를 직접 겨냥하는 심각한 “음모”로 보는 통치체의 가혹한 반응과, 그들이 나타내는 광신적 열광의 폭풍우 한 가운데 서 있게 될 것임을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위험한 음모”가 실제로 무엇이었던 간에, 그 음모가 얼마나 “방대”하고, 관련된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컸던 간에 그것을 정당화했던 것은 조직 내에서 발전된 “피被포위 심리”(역자: 항상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믿는 강박관념)이었고, 결국 그 관념은 1980년 봄의 “숙청” 사건으로 통치체를 이끌어 가고 말았습니다.

나의 서아프리카 방문 중 첫 번째 일정인 파리로 향하기 전날(1979년 11월 16일), 협회장 프레더릭 프랜즈는 (그 주에 임명된 사회자이기 때문에) 아침성구토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토의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부음받은” 자들만을 위한 중보이시며 다른 수백만의 여호와의 증인들을 위한 중보는 아니라는, 최근 위치타위가 세워놓은 협회의 입장에 대해 일부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sup>16)</sup> 그는 그러한 의심을 품은 일부 사람들이 모든 이들을 한데 모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보통사람들을 위한 중보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시 본부 가족들 중에 있던 그러한 보통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어떻게 협회장의 말이 그런 보통사람들에 해당하는 본부 가족에게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나는 본부 가족 내에서 그 문제에 관해 상당한 토의를 했고, 일부 성원들은 그러

16) 「파수대」 영문 1979년 4월 1일호 31면(한국어는 없음), 「파수대」 영문 1979년 11월 15일호 21-27면(한국어는 「파수대」 1980년 3월호 33-42면) 참조.

한 협회의 입장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 습니다.

협회장은 계속해서 협회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단언했습니다. 그는 지지하는 성구로서 히브리서 12장의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 그 성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일을 여러분이 받는 징계의 일부로 여겨 인내할 필 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협회장은, 주인에게 원을 돌며 걷는 법을 배우는 말을 비 유로 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때때로 말을 훈련시키는 데에는 채찍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는 협회의 현재 가르침에 의심을 품 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한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훈련에 고착할 만한 **배짱**이 있음을 증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sup>17)</sup>

파리로 향한 그날 저녁부터 며칠 동안 나는 이러한 말 때문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보아왔던 총체적인 접근방식과 영에 대해 역겨움을 느꼈 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분명히 모든 보통사람들을 위해 하느님과 화해 하는 중보이시며,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바치셨고, 그분의 대속희생과 그로 인한 유익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에게 허락 된 것임을 성서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협회 본

---

17) 나중에 이에 대해 에드워드 던랩은 “나는 항상 나를 인내토록 해 주는 것은 믿음이지 ‘배짱’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에서의 토의에서 나타난 태도는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1세기 성서필자들에게 의해 전해진 좋은 소식이 아니라 “또 다른 좋은 소식”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방문지로 나는 아프리카의 말리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가 프랑스어로 연설을 한 후에, 나는 각 나라의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질문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들은 두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협회는 예수께서 다른 여호와의 증인 모두를 제외한 기름부음받은 자들만을 위한 중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 명확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조차도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가 아니신 건가요?”



• 아프리카에서의 “증거”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다면 이것은 분명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에 나는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서 그들의 “돕는 자”이심을 요한 1서 2:2을 통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중보로 생각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들의 돕는 자로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이시는 관심은 지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관

심만큼이나 크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 심각해 있던 그들을 어떻게든 진정시켰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 어떤 의문의 실마리라도 남기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세네갈로 가기 위해 공항에 갔을 때 그 선교사들이 배웅을 나왔는데, 한 여자 선교사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서조차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가 아니시란 말인가요?” 나는 선교사들과 일전에 가진 그 모임에서 지적했던 동일한 요점만을 반복하여 강조할 수밖에 없었으며, 다른 말은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볼타Volta 위의 와가두구Ouagadougou에서 아이보리 해안의 아비장Abidjan으로 20여 시간 여행하면서 기차가 탈선했던 것 빼고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약 3주 후에 브루클린으로 돌아왔습니다.



• 탈선했던 열차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 본부를 방문 중인 지부 위원과 그의 아내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질문을 해도 되는지 물었을 때 나는 아침을 거의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만 대답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에 그리스도의 중보 역할에 관해 다루는 협회 수업에 참석했다고 말하면서, 말리에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했던 것과 실제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와 동일한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주에 나는 뉴저지로 연설 임명을 수행하러 갔는데, 연설이 끝나자 청중에서 한 자매(활동적인 증인이었음)가 다가와서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증보 역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나는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위 사례들은 협회의 출판된 가르침과 관련된 질문을 형제들로부터 받았을 때, 원칙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협회의 가르침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에 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오직 장로이면서 동시에 나와 오랜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들과만 그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1980년까지, 아내를 제외하고 내가 염려했던 점들에 관해 알았던 사람들은 절대로 4~5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왜 내가 그러한 염려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 이유를 알려면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내가 가졌던 바와 동일한 염려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sup>18)</sup> 나는 통치체에서 일하는 동안 그러한 염려가 솔직하게 직시되거나, 성서를 통해 조심스럽고 철저하게 조사되었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서에 근거한 결정이 아니라 성서적 근거가 빈약하거나 오랜 전통에 근거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공개적 토의는 어떤 경우라도 조직에 중대한

---

18) 어느 날 봉사부에서 다년간 종사하고 있던 한 성원이 내게 와서 회장이 쓴 기사에 대해 질문을 해왔다. 나로서는 그 기사에 대해 답을 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그가 질문 형식으로 글을 쓰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다. 그러자 그는 “아니예요, 그 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불에 덴 것 같이 되었지요.”라고 대답했다. 그래도 누군가 써야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 않겠느냐고 하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이런 기사에 대해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순회 감독자와 지역 감독자에게 자기 생각을 써 내도록 하면 되거든요. 단, 무기명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면 남들이 듣기 원하는 것만 써 낼 거예요.” 이는 “베델” 장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위험을 초래하고 불충실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분명히 연합(실제로는 확일성)이 진실보다 더욱 중요했습니다. 조직의 가르침에 대한 의문은 오직 통치체 내부에서만 토의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얼마나 열띤 논쟁이 있었든, 통치체는 외부를 향해서는 만장일치의 얼굴로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토의 내용에 대한 중대한 불일치가 있을지라도 그 “얼굴”은 그것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성서는 그러한 위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들과 장로들을 포함하여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존재했던 불일치를 솔직 공명정대하게 인정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충실함을 증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협회의 남자들만이 문제에 대한 토의를 하고 그들이 과반수 득표로 결정한 사항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밝혀진 진리”로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말하는 성구는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공개적 토의를 두려워하거나 면밀한 조사를 피해야 할 어떤 이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조사를 피해야 되는 가르침이었다면 그 어떤 것도 지켜질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서 이해를 위한 보조서」를 집필할 때부터 나는 에드워드 던랩과 친한 사이였습니다. 나는 10개월 코스의 길르앗 성서학교가 있던 1964년에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학교의 사무를 담당했으며, 네 명의 강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39기였던 그 학급은 약 100여명의 학생으로 이루어졌으며, 상당수는 지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서에 대한 이해를 얻는 면에서 에드워드의 수업이 가장 교

육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sup>19)</sup> 오클라호마 태생으로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에드워드는 통상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복잡한 주제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에는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생들은 그가 모세 율법의 기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유전적인 특징에 관한 과학 연구에 대해 논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정작 중요했던 것은 그의 솔직함이었습니다. 화려한 벡타이를 좋아하는 것을 제외하곤, 그는 기본적으로 외양, 태도 그리고 말에 있어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임명이 있든 간에 그는 겸손한 사람으로 일했습니다.

학기 시험과 관련하여 나에게 한 말은 에드워드의 성격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학급에서 사도 바울의 여러 편지들을 조사하고 매주 연구한 점들에 관한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에는 일반적으로 각 편지가 쓰인 추정 장소와 시간을 묻는 문제가 포함되었는데, 한번에 한 편지에 대해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기말 시험에 바울의 편지 13개가 모두 출제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시간과 장소를 기억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일거리가 되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바울의 편지의 순서는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추정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는 나름대로의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학기말 시험이 되었습니다. 2시간짜리 시험을 약간 일찍 마치고 교실을 나오다가, 들어오는 에드워드를 만났습니다. 그가 나에게 “어땠나?”라고 묻자, 나는 “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가만 두진

---

19) 로이드 배리도 이 수업에 참여했으며, 통치체의 구성원이 되고 나서도 에드워드의 수업은 좋았다고 여러 번 입에 올렸다. 다른 어떤 학생들도 에드워드의 성격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식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않겠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나는 “각 편지가 쓰인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하지 않았던 걸요?”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나는 가볍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에드워드는 “학기말 시험에 그 문제를 출제하지 않은 이유를 아나? 나도 그걸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네.”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에는 윌리시즈 글래스, 빌 월킨슨, 프레드 러스크, 에드워드 던랩 이렇게 4명의 강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에드워드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겸손한 성품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에드워드 던랩

그는 항상 조직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의 전 시간 봉사 기록은 나의 기간과 동일했습니다. 그에 관해 알려주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말 그는 프랑스식 용어로 “고통스러운 경련”을 뜻하는 유통성 *틱tic douloureux*을 앓고 있었는데, 의학적 명칭은 삼차신경통 *trigeminal neuralgia*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얼굴 삼차신경에서 오는 통증으로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고통스런 병 중 하나입니다.<sup>20)</sup> 바람이 살짝 스치거나 물건에 살짝 닿거나 하는, 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것이라도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머리를

20) (역자): ‘삼차신경’(三叉神經)이란 뇌신경 중 가장 큰 다섯 번째 신경으로 안과신경, 위턱신경, 아래턱신경을 말한다.

빳거나 양치질, 식사 등을 할 때에도 그러한 통증의 위험 없이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이 병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일부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에드워드는 이 병으로 7년이나 고생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고통이 수그러들 때도 있었지만 그 후에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협회장 네이션 노어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근거해서) 에드워드 병이 전적으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노어가 에드워드에게 이 병과 연관되었다고 생각되는 그의 결혼생활과 다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드워드는 그러한 것들과 자신의 병은 절대로 아무 연관이 없으며, 자신의 휴가를 온전히 즐기고 있지만 병으로 인한 통증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그에게 확실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협회장은 에드워드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를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는 제본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에드워드는 60대의 나이였습니다. 당시 그는 한동안 통증을 가라앉히는 강한 약을 본부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투여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통증으로 인해 여러 날 혹은 일주일간 침대에 누워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제본부로 가야 했으며, 거기서 제본 기계를 작동시키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러 달 동안 그 일을 했으며, 묵묵히 이 “신권적인” 임명에 부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이 일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조직에 의해 완전히 통제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려는 그의 시도는 무시되었고, 몰상식하게도 그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절대 피해야 할 일에 그를 임명한 것입니다.

몇 년이 흐른 뒤 에드워드가 절망적인 순간까지 다다랐을 때, 노환으로 인해 생기는 병의 원인을 발견하여 치료하는 피츠버그의 한 신경의과 의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미세 수술법 *microsurgery* 을 완벽히 해내는 의사였는데, 에드워드는 그에게 수술(두개골의 일부를 제거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뇌로 통하는 대동맥과 연관된 수술)을 받아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자신이 싸웠던 문제에 관해 심각한 잘못을 범한 조직으로부터 사과를 받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과는 없었습니다.

보조서 집필 기간과 그 이후로 에드워드와 내가 일했던 곳은 단지 사무실만 달랐을 뿐, 우리는 정기적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알게 된 흥미로운 점들에 관해서도 정기적으로 대화했습니다. 통치체의 집필위원회는 우리를 「야고보서 주해」 작업 등과 같은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도록 임명했습니다. 의견을 교환하는 중에 항상 모든 점에서 일치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우정과 상호 존경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에드워드에게 관해 이런 것들을 모두 말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특히 통치체 내부에서 내가 본 것들에 관해 내가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러한 염려를 함께 했으며, 나처럼 그러한 염려를 한 것은 그가 본 많은 것들이 성서에서 듣고 읽은 것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930년대 초반부터 조직과 연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의 대부분 동안 그는 자신을 “기름부음받은 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1970

년대 말 어느 날 나는 이 점에 관해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자신이 1930년대에 연합하기 시작했을 때는 협회가 하늘 생명을 상속할 두 무리, 즉 (144,000명을 구성하는) “택함 받은 자들”과 “큰 집단”(또는 계시록 7장의 “큰 무리”)에 대해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협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큰 집단”은 택함 받은 자들보다 믿음이 적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늘 생명은 얻게 되어 있지만 예수와 함께 왕 겸 제사장으로 왕 노릇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위와 하위로 나뉜 두 개의 그룹으로 인해, 그의 성격과 걸맞게 자신은 분명히 하위 그룹인 “큰 집단”에 속한다고 추정했습니다.

1935년이 되자 판사 러더퍼드는 워싱턴 D.C. 대회에서 “밝혀진 진리”라고 언급하면서, “큰 집단”은 성경적으로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살 사람들과 선언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에드워드는 항상 하늘 생명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아들과 함께 하늘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변화된 관점으로 인해 그는 하늘 희망을 버리고, “큰 집단”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자신의 희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979년에 에드워드는 어떤 인간 조직도 연대를 정해가며, 그의 이름이 톰, 딕, 해리(보통 사람들을 의미: 역자 주), 에드워드 또는 그 누구라도 성서를 통해 가지고 있는 하늘 생명으로의 초대에 대한 희망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1935년을 기점으로 44년이 지난 후에 에드워드는 주의 만찬에서 여호와의 증인 중 “기름부음받은 자들”만이 떨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자신이 하늘 희망을 가진 ‘기름부음받은 자’ 반열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협회는 로마서 8장 16, 17절의 바울의 말을 대답으로 사용합니다.

바로 그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자녀라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 함께 고난을 당한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협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오직 “기름부음받은 자”인 144,000명만이 그러한 영의 증거를 가질 수 있으며, 따라서 택함 받은 그룹인 144,000명만이 하늘 생명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땅의 희망을 가지며, 하느님의 자녀가 “될 가망이 있는”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로마서 8장 시작부터 바울이 두개의 그룹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그룹은 미래의 희망이 하늘이나 땅이나 하는 것에 따라 분류된 것이 **아닙니다**. 그 둘은 분명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과 죄 많은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대조는 하늘 생명의 희망 또는 지상 생명의 희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 자체의 대조, 하느님의 친구가 되느냐 원수가 되느냐 하는 것을 대조하여 말한 것입니다. 6~9절을 읽어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에 정신을 쏟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만 영에 정신을 쏟는 것은

생명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육체에 정신을 쏟는 것은 하느님과 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하느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며, 사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참으로 여러분 안에 머물면 여러분은 육체가 아니라 영을 따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 속에서 하늘의 생명 또는 땅의 생명에 대한 질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죄 많은 육체를 따라 살 것인지 하느님의 영을 따라 살 것인지에 대한 내용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용한 대조를 통해 다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람이 하느님의 영을 가지고 영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과 원수가 되고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한 영이 없다면 “생명과 평화”도 없으며, 단지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느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의 아들입니다.<sup>21)</sup>

에드워드가 눈치 챘듯이, 바울은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

---

21) 이와 마찬가지로 죄스러운 육신과 하느님의 영을 대비하면서 “영의 인도를 받는”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갈라디아서 5:18에도 있으므로 참조바람. 거기에서는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만약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면, 선택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율법과 정죄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다.

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의 아들 즉 그분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들의 삶에서 영의 열매를 맺고, 결과적으로 영의 “증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다른 이들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언”을 얻었다고 말한 것과 흡사합니다.<sup>22)</sup>

아프리카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후 얼마 되지 않아, 한 오랜 친구가 본부 내에 있는 우리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르네 바즈퀘즈였는데, 그와 나는 약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나는 푸에르토리코의 마야기에스란 마을에서 재혼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르네는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의 부모는 둘 다 르네가 여호와의 증인과 성서 연구를 하는 것을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증인 선교사와 함께 성서 연구를 마친 어느 날 저녁, 르네는 더 이상 부모의 극심한 반대를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장 공원 벤치에서 하루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혼한 삼촌 집으로 찾아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으며, 삼촌은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삼촌 부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관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르네는 즉시 전 시간 “파이오니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1953년 뉴욕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하던 중 그는 미국에 남아있기로 결심하고,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 “파이오니아”를 했습니다. 르네 부부는 미국 서부 지방의 스페인 회중에서 순회하는 일을 하도록 임명되었

---

22) 히브리서 11:1-7.

고, 나중에는 길르앗 학교를 졸업하고 스페인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르네는 스페인에서 즉시 지역감독자로 임명되었는데, 증인의 활동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르네 부부는 스페인 전역의 회중을 방문하면서 경찰의 움직임과 발각, 체포 및 추방의 위협에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모든 집회는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지하” 활동을 여러 해 한 후로 르네는 극도로 신경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때까지 르네 부부는 스페인에서 7년을 봉사했으며, 그의 건강과 아내의 가정의 필요로 인해 그들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비로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사실상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철강 공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체구가 작은 그는 일을 시작한 지 둘째 날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었고, 다시 한 번 그들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 문제가 해결되자 르네 부부는 즉시 “파이오니아” 봉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순회와 지역감독자로 일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브루클린 본부 성원으로 초대되었습니다. 본부에서 그는 3만 명으로 이루어진 미국 내의 스페인어 회중을 돌보는 봉사부 감독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임신하여 “베델 봉사”를 포기해야 했던 1969년까지 그 임명을 수행했습니다.

르네는 나에게 뉴욕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뉴욕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허락한다면 본부 조직에 무언가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나자 스페인어 번역을 하고, 대회에서 사용될 스페인어 드라마를 녹음하는 일을 감독했으며, 뉴욕의 20개의 스페인어 회중의 대리 순회 및 지역감

독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포르투갈에서도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으며 포르투갈 회중이 설립되자 포르투갈어를 공부하여 그곳에서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르네가 조직과 연합한지 30년이 됐을 때, 나는 푸에르토리코, 스페인 또는 미국에서 르네의 봉사에 대해 흠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매우 온화한 성품의 르네는 동시에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까다롭거나 가혹하지는 않았지만, 확고한 태도를 보이는 법을 터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르네의 나중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르네와 어디서 어떤 일을 했던지 간에 누구라도 한 개인으로서 르네에 대한 나의 정직한 평가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그의 결점을 들자면, 그 자신도 인정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지나치게 순종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협회의 방침에 순종적이었습니다. 오늘날 르네는 이러한 자신의 결점으로 인해 그의 가족이 불필요하게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르네는 아내와 함께 여러 해 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해 왔습니다. 한번은 르네가 아내와 함께 스페인 방문 여행 일정을 잡아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일자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 당시 봉사위원회 감독자인 할리 밀러로부터 그 여행 일정에 해당하는 기간에 순회 봉사를 해 줄 수 있느냐는 전화 요청이 왔습니다. 르네는 밀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하느님의 조직”으로부터의 임명을 거절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르네의 아내는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스페인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할리 밀러를 포함한 봉사 위원회 성원들을 비롯하여 르네는 라 가디

아 공항 근처에 살았는데, 비행기를 이용하여 연설 임명을 다녀오는 성원들을 정기적으로 베델로 데려다 주는 데 르네가 임명되었습니다. 일부 비행편은 자정이 되어서야 도착했으며, 일부는 그보다 훨씬 더 늦게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르네의 자발적인 봉사 열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기 전까지, 나는 오랜 친구인 르네가 나를 위해 그러한 호의를 베푸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르네의 좋은 성품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였기에, 그 후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베델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통치체는 나와 에드워드 그리고 르네를 자신들이 숙청했던 “조직에 반하여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 중 주요 인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셋은 한 번도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관련된 기간 중에 르네와 나는 아마도 두 번 정도 대화를 했을 것이고, 에드워드와 르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의적인 행동에 연관되어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오랜 친구와 함께 단지 친구로서 성서를 토의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르네는 협회가 마련한 장로들을 위한 모임에 참석한 후에 우리 숙소로 왔습니다. 우리는 그 장로 모임에 관해 토의를 했습니다. 르네는 장로 모임에 대해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대화 중에 갑자기 “나는 우리가 사람을 숭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때로는 협회에 하는 보고를 완전히 없앴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보고란 여호와의 증인 개개인이 매월 내는 “증거” 활동에 대한 봉사보고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각 개인이

그 달에 사용한 시간과 전한 출판물 수 그리고 기타의 것들이 포함됩니다.<sup>23)</sup>

나는 예전에 지역대회 프로그램에서 “믿음과 행동”이란 주제로 한 연설에서 다루어진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행동에 대해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로마서의 바울의 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생산적이고 활동적이듯이 진정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즉 믿음이 세워지면 행동으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면, 그 사람들은 그 압력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과 사랑으로 한 행동이란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동기가 없이 한 행동이 어떻게 하느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행위는 조직화되거나 특정한 틀에 의해 짜 맞추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야만 한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사랑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프로그램화해 놓은 계획표에 마지못해 맞추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 행해져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질서정연하게 하는 것의 장점이 분명히 있으나, 그것은 일을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코 교묘하게 충

---

23) 이 보고서는 중요한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소속 회중에게 보고하고, 회중은 그 나라 지부에 보고하고, 지부는 매월 세계 본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보낸다. 본부에서는 그 보고서를 정리, 평균값을 산출한 증가율을 기록한다. 그냥 큰 회사가 매출·실적 등을 열심히 조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봉사 시간 및 출판물의 배포 수 등에 심한 변동이 있거나 감소를 보인다면 문제로 여기게 된다. 따라서 지부 대표는 자신들의 국가 보고서가 증가를 보여 주지 않거나 또는 감소를 보이면 불안해진다.

동질하고 ‘틀에 맞지 않는’ 누군가에게 죄의식이란 강박관념을 심어주기 위해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료 그리스도인의 삶과 활동을 더욱 밀접하게 감독하려 하면 할수록,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일을 하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실제로 빼앗아 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서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믿음과 인식을 세워주는 것이 단순히 “격려 연설” 또는 그들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러한 더 힘든 길이 내게는 유일하게 성서적으로 옳고 현명한 길로 보인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그날 대화의 요점이었습니다. 봉사 보고에 대한 주제로 열띤 대화를 나눈 후로 그런 열띤 토의가 다시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나중에 협회 건물 중 한 곳 로비에서 르네와 가졌던 모임에서, 그는 로마서의 바울의 글 속에 나타난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은 그의 순회 및 지역감독자의 직분을 더욱 즐겁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장로들과의 성서 토의는 더욱 의미가 깊어졌습니다.

몇 주 후에 나는 아내와 함께 르네의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뉴욕에서 첫해를 보내면서 퀸즈에 있는 같은 스페인어 회중에 참석했었지만, 그 이후로는 만남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 그리고 마친 후에도 르네는 로마서의 내용을 토의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내보단 덜 했지만, 나는 르네가 제시하는 문제들을 피해나가기보다는 대답을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와 30여 년을 알고 지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가 진실한 성경 연구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직의 대표자가 아니라 친구로서 그와 이야기를 했으며, 그와 성서 토의를 하면서 조직이나 사람이 아니라 최우선으로 하느님 앞에 책임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만일 내가 알고 있는 성서의 분명한 가르침을 르네와 같이 진실한 성서 연구생과 함께 토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6~27절에서 에베소서의 장로들에게 한 말과 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합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모든 뜻을 알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 에베소의 회당에서 그를 비방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sup>24)</sup> 나 또한 나의 말이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장의 첫 부분에서 언급했던) 로마서 8장의 앞부분을 토의했습니다. 나는 르네가 문맥이 비춰주는 것에 따라 14절의 하느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을 이해한 방법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아마도 모든 여호와의 증인이 그러하듯이) 14절을 이해하기 위해 문맥을 고려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해 보이는 것이 한 사람의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마치 계시를 받는 것과 같은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르네는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 성서를 읽으면서 성령을 저항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서의 모든 내용을 나에게 적용시켜가며 쪽 읽어 나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하지만 이 성구는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쁨부음받은 자들에게

---

24) 사도행전 19:8,9.

만 적용되는 것이야.’ 하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르네를 포함하여 하느님께서는 내가 그 문제들을 다르게 보도록 그를 설득하지 않았음을 알고 계십니다. 르네의 이해는 바로 성서 문맥 속에서 바울의 말이 설득하고 있던 것과 같았습니다. 나중에 그를 우연히 만났을 때 그는 이전의 요점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지며 성서가 전체적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약 8,800명의 기쁨부음받은 자들을 제외한) 일반 여호와의 증인들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성경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어색한 일이지만, 단순한 “확대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그 말씀이 적용된다는 이러한 결론은, 오랫동안 자주 답을 위해 왔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는 많은 질문의 도화선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나는 조직이 성서와 사실들을 조작한 것에 불과한 그들의 해석을 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성서가 말하는 것을 단지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시키는 조직의 해석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1980년 3월 4일, 나는 통치체 인사위원회에 3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둘 다 건강이 많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본부에서의 봉사가 끝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살 곳과 직장 또한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우리의 주요 자산은 600달러의 저축액과 7년 된 자동차였습니다.

엘라배마 지역 대회에 참석했을 때, 우리는 이전에 만났던 피터 그레저슨이란 증인과 친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우리를 엘라배마의

개즈턴으로 두세 번 초대해서, 그곳 지역의 회중들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터는 앨라배마 조지아 지역에서 작은 슈퍼마켓 체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978년에 아내와 함께 이스라엘에 “지구 방문”을 했을 때, 피터와 그의 아내는 우리와 함께 2주 동안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피터는 1975년 예언이 초래했었던 영향에 대해 심각한 염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만일 협회가 1914년을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1975년과 같이 어쩔 수 없이 1914년 연대에 관한 주장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그 여파가 1975년이 가져온 환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의 아버지는 피터가 어렸을 때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피터는 그가 4살 쯤 됐을 때부터 부모를 따라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젊었을 때 피터는 전 시간 “파이오니아”로 일했으며, 심지어 결혼하고 첫 번째 아이를 얻기 전까지 잡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전 시간 봉사를 계속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sup>25)</sup> 협회는 그를 일리노이즈와 아이오와의 “문제” 지역으로 임명하여 그곳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특정 회중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1976년에는 브루클린의 통치체와 토의를 하기 위해 구성된 장로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의가 있던 지 한두 해 후에, 피터는 장로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당시 동생들 중 한 명에게 자신의 식료품 체인사업을 물려주고, 늘어난 자유 시간을 성서를 연구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

---

25) 피터 부부는 현재 아이 일곱 외에도 약 열일곱 명의 손자가 있다.

는 조직의 몇몇 가르침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했으며, 그 가르침의 옳고 그름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자신의 평생 종교에 대한 확신을 새롭게 확립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때 피터는 5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의 희망과는 정확히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성서를 연구하면 할수록, 조직의 교리에 심각한 결점이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확신이 그로 하여금 장로직 사임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점들에 대해 나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집회를 진행하거나 연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위선자로 느끼게 합니다. 나의 양심은 그러한 위선적인 행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의 진지한 질문의 타당성을 부인할 수 없었으며, 그의 양심과 위선을 경멸하는 그의 태도를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먼저 인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피터는 협회가 함께 먹지도 말아야 할 “악한 자”로 분류한 사람에 포함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1981년 한 식당에서 나와 식사를 한 사람이며, 그것 때문에 내가 사법모임에 소환되어 제명된 것입니다.

1980년 4월이었습니다. 개즈던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 브루클린 본부에서 나에게 관해 이상한 말이 돌고 있는 것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기대했던 폭풍우가 우리를 덮쳤던 것입니다.

## 심문

그분이 거기서 나가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거세게 몰아붙이며 많은 질문을 더 퍼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

로 그분을 책잡으려고 기다렸다.

누가 11:53,54<sup>26)</sup>

종교적인 의미로 심문이란 개개인이 가진 신념과 믿음에 관해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심문의 목적은 개인을 돕거나 그 사람과 이성적인 추리를 위한 근거를 놓고자 함이 아니라, 죄를 뒤집어씌우거나 이단자로 판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종종 심문은 어떤 개인이 분열을 초래하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신념에 관해 목소리를 내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시작됩니다. 단순한 의심이 심문을 위한 충분한 이유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선 용의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어떠한 권리도 사실상 무시됩니다. 심지어는 친한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도 심문자들이 조사할 합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스페인 종교재판은 역사에서 악명을 떨칠 이름을 지니게 된 혹독한 처벌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 재판소가 열성적으로 무고한 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권위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무례한 방법으로 심문한 것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당시에 자행됐던 고문과 가혹한 형벌은 오늘날에는 비합법적인 것이 되었지만, 권위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무례한 방법으로 심문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는 「깨어라!」 영문 1981년 1월 22일호(한국어는

---

26) (역자): 원문은 「예루살렘 성서」JB를 인용했지만, 여기에서는 「신세계역」을 인용했다.

1981년 9월 15일호 13면)에 실린 “법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기사가 생각납니다. 그 기사는 모세 율법과 다른 법들에 나타난 탁월한 판례들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이 성문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이 공개되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신명 16:18-20) 공개 재판은 재판관들이 주의력과 공의 및 때때로 비밀 성 법원星 法院 청문에서 사라져 버리는 특성들을 나타내도록 영향을 주었을 것임에 틀림없다.<sup>27)</sup>

협회의 출판물은 이 원칙의 가치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결 과정에서는 이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즉,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sup>28)</sup> 앞에서 본 분명한 증거처럼, 그들에게는 “비밀 심문”이 선호되었습니다. 진실의 힘에 대한 두려움은 협회로 하여금 그런 종류의 재판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정의나 자비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고한 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깨어라!」 영문 1986년 4월 22일호(한국어는 1986년 7월 1일호 15면) 기사는 또한 다음과 같은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27) (역자): 한국어 기사에서 “성 법원(星 法院)”으로 번역한 말은 “star-chamber”이며 “성실청”으로도 번역된다. 한국어 독자들에게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 한국어 위키백과에 의하면 이것은 영국의 제임스 1세(1566~1625)와 찰스 1세 시절에 유명했던 형사법원이며, 1641년에 폐지되기 전까지 고문과 불공평한 심의를 하는 법원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한다. 영어권에서는 “불공평한 법원(위원회)”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모세율법에서 규정한 “공개재판”이 비밀스럽고 불공정한 법원보다 탁월하다는 의미에서 관용적인 영어 표현을 사용한 것 같다.

28) 마태복음 23:3.

누구 - 남편, 어린이 또는 노예 - 든지 이단자를 고소할 수 있었는데, 피소된 자와 대면하게 되거나 그 피고인이 고발자를 알게 될지 모른다는 염려를 할 필요는 없었다. 피고에게는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었는데, 그것은 피고의 편을 드는 어떤 변호인이나 증인이라도 이단자를 돕고 지원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피고인은 검사인 동시에 판사들인 심문관들 앞에 홀로 서야만 하였다.

내가 엘라배마로 휴가를 떠난 지 4주 후에, 에드워드 던랩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눈 후에 에드는, 통치체 성원 중 로이드 배리와 잭 바 둘이 자신의 사무실로 와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에 관해 약 3시간 정도 심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 중에 에드는, “도대체 이렇게 ‘혹독한 심문’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것은 “혹독한 심문”이 아니라 단지 어떤 문제들에 관한 에드의 생각을 알기 원해서일 뿐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들은 에드에게 심문의 목적에 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심문이 단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에드는 그것이 공식적인 심문과 처벌을 준비하는 조직적인 행동이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조직에 대한 그의 견해, 1914년 교리, 두 개의 그리스도인 반열과 하늘 희망 그리고 그와 비슷한 점들에 대해 심문했습니다.

에드는 심문관들에게 조직에 관해서 염려되는 바를 말했습니다. 즉, 통치체 성원들 사이에서 성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통치체는 형제들에게 성서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을 주된 관심사로

삼도록 하고, 정작 자신들은 서류 작업과 다른 일들에 매여서 성서 연구를 밀어내고 있는데, 이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14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교리로 인정하기 힘들다고 얘기했으며, 오히려 통치체가 1914년 교리를 확실히 굳건하게 믿고 있다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대답은 “한두 사람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치체는 1914년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드는 그들에게 집필위원회의 다른 사람들도 어떤 특정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에드워드의 심문이 있던 후, 앨버트 슈로더와 잭 바가 집필위원회의 각 성원을 개인적으로 심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대화에서는 특정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표했던 집필위원회의 성원 중 아무도 특정 가르침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아이러니한 것은 통치체 내에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들이 심문한 사람들에게 통치체도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통치체의 집필위원회 부책임자이며 집필부의 부책임자인 라이먼 스윙글이 지구 방문 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철저한 심문이 라이먼의 부재중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치체는 그러한 본격적인 조사라 할 만한 비밀상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어떠한 암시도 주지 않았습니다. 조직과 함께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해, 나는 통치체의 심문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는 것이 악의 없이 순수한 것이 아니라 막상 심문이 시작됐을 때, 관련된 사람들에게 대단히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1980년 4월 21일에 나는 앨라배마에서 브루클린 본부로 전화를 걸어 통치체 성원인 댄 시드릭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협회 전화 안내원은 그가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했으며, 그래서 그 해에 통치체 의장직을 수행한 앨버트 슈로더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그 역시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나는 둘 중 누가 됐든 나에게 전화해 달라는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앨버트 슈로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와 나는 대화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통치체 의장으로서 나의 질문에 대답하며 그가 한 말을 통해, 나는 마침내 이미 사건이 벌어졌으며 그와 전화로 이야기할 당시에 이미 사건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슈로더가 나에게 전화를 하기 8일 전인 4월 14일에는 뉴욕의 조 굴드라는 한 증인이 브루클린 봉사부에 전화를 걸어, 5인으로 구성된 봉사부 위원회의 성원인 할리 밀러와 통화를 했습니다.<sup>29)</sup> 그는 자신의 직장 동료인 홈베르토 고디네스라는 쿠바 태생의 증인이 자신의 집에서 베델 성원인 친구와 나눴던 대화를 전해 주었다고 밀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 베델 성원이 조직의 가르침과는 다른 견해를 상당수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는 굴드에게 고디네스를 통해 그 베델 성원이 누구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밀러의 지시대로 했으며, 그 베델 성원은 크리스 산체스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고디네스는 또한 내 이름과 에드 던랩 그리고 르네 바즈퀘즈도 언급했습니다. 밀러는 굴드와 고디네스에게, 관련된 사람들과 문제를 명확히 다루려 하거나 형제들과

---

29) 이 위원회는 봉사 부문을 관할했으며, 당시 약 40명의 직원이 있었다.

의 토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밀러는 그가 잘 알고 있고 사무실도 단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만큼 가까운 사람인 에드 던랩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진해서 운전 봉사를 해 준, 여러 해 동안 알고 지냈던 르네에게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니다. 협회 공장에서 일하는 크리스 산체에게도 전화할 수 있었지만 어떠한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니다.

대신에 밀러는 먼저 봉사부 위원회의 성원들에게 혹시 비슷한 종류의 정보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니다. 그리고 통치체 의장인 앨버트 슈로더를 만났습니니다.

앨버트는 협회 본부로 고디네스와 그의 아내를 불러, 밀러와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니다. 크리스 산체스, 에드 던랩 또는 르네 바스퀘즈에게는 어떤 언질도 주지 않았으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니다. 통치체 의장 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호의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는 것은 일을 진행시키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느꼈음이 분명습니니다.

고디네스 부부와 밀러가 면담을 하는 동안, 밀러는 고디네스가 르네에게 전화를 해서 그 문제에 관해 어떤 말을 하는지 “전략적으로” 알아볼 것을 제안했습니니다. 밀러는 자신이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에드 던랩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든 단지 길을 건너 직접 그를 만나 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니다. 고디네스는 르네에게 전화를 했으며, 전화를 건 목적, 즉 르네가 유죄판결을 받도록 대응하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니다. 그리고 고디네스 부부와 또 다른 면담이 마련되었습니니다. 이번에는 통치체 성

원으로 구성된 의장위원회의 슈로더, 수터 그리고 클라인이 참석했습니다. 이 면담은 4월 15일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르네, 에드워드, 크리스 또한 나에게서는 어떤 언질도 없었습니다. 그 면담은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내용은 녹음되었습니다. 고디네스는 같은 쿠바 태생이며 자신의 오랜 친구인 크리스 산체스와 자신의 집에서 식사를 하며 했던 대화에서 받았던 인상과 기억나는 것들을 그들에게 진술했습니다. 고디네스는 크리스가 많은 논쟁거리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 이야기 가운데는 르네, 에드워드 던랩 그리고 내가 포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음이 끝나갈 즈음에 3명의 통치체 성원 슈로더, 수터 그리고 클라인은 고디네스 부부에게 비밀을 지키는 면에서 충성스러운 것을 지시했고, 면담에서 거론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시했습니다. (해당 테이프에 녹음되어있음)

밀러처럼 통치체 의장위원회도 그들이 단지 전해들은 것에 지나지 않는 증거에 관해 크리스 산체스와 이야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르네 바즈퀘즈, 에드 던랩 그리고 나에게도, 제삼자로부터 들은 정보에 지나지 않은 것들에 관해 어떠한 대화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면담이 있었던 다음 날인 1980년 4월 16일 수요일, 밀턴 헨첼과 라이먼 스윙글과 내가 빠진 정기 통치체 회기에서 의장위원회는 두 시간짜리 녹음테이프 전체를 통치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슈로더가 내 요청에 의해 나와 통화하기 전 일주일 동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드 던랩에 대한 조사로부터 시작해 결과적으로 전체 집필부 직원에게 행해진 조사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가 통치체에 들려진 후의

일이었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진 원인은 바로 그 녹음테이프였습니다. 그 조사를 했던 배리, 바 그리고 슈로더 이 세 명의 통치체 성원은 그것이 사법모임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점에 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에드 던랩이 심문의 목적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관련된 조치들은 신속하고 광범위하며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크리스 산체스와 그의 아내 그리고 네스터 쿨리안과 그의 아내 역시 이제 심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와 네스터는 르네가 일주일에 이틀을 봉사하는 스페인어 번역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리 밀러는 이제 르네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자신의 사무실로 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문제들에 관한 자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

의장위원회는 이들 각자의 심문을 다루게 될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댄 시드릭을 제외하곤,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통치체 성원이 아니었습니다. 통치체는 의장위원회를 통해 모든 조치들을 지시하고는 이때부터 자신들은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통치체는 다양한 사람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그들에게 자신들이 들었던 두 시간짜리 녹음테이프의 일부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사위원회가 산체스, 네스터 그리고 바즈퀘즈를 조사하면서 나와 에드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거론한 이유입니다. 여전히 의장위원회는 그 녹음테이프의 존재조차도 나에게 알려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심문 방식을 볼 때, 조사위원회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네스터 쿨리

안을 심문한 조사위원회는 그에게 에드 던랩이나 나와 나누었던 사적인 대화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사적인 대화를 그들이 알 권리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나누는 사적인 대화가 잘못됐거나 “죄”가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보고했겠지만, 이번 경우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그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제명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스터가 물었습니다: “제명이라고요? 무엇을 근거로요?” 그에 대한 대답은 “배교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네스터는 다시 물었습니다: “배교라고요? 무슨 배교요? 누가 배교자란 말입니까?” 조사위원회는,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배교가 일어난 것은 확실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투옥 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피의자가 투옥의 이유를 물으면 은행 강도 공범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어디 은행이 털렸으며 누가 털었는가?”라고 질문하면, “글쎄, 아직 어느 은행이 털렸고 누가 그랬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어딘가에서 은행 강도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고, 만일 네가 우리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너는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투옥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인 것입니다.

네스터는 에드워드 던랩이 길르앗 학교 강사일 때 길르앗 학교 수업을 받았으며, 그때부터 에드(역자: 에드워드 던랩의 애칭)와 잘 알고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나에 대해서는 내가 푸에르토리코에서 선교사이자 지부감독자로 봉사할 때부터 알고 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에드나 나와 가끔 대화를 나누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 내용 중에 죄를 짓거나 잘못된 것은 전혀 없었으며, 모두 자신의 사적인 문제에 관

한 대화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슈로더가 나의 요청으로 나와 통화를 한 4월 22일까지, 조직의 재판 시스템은 신속하고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슈로더는 통치체 의장으로서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앞서 말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위원회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의장위원회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에게 전화하기 일주일 전에 앞서 말한 두 시간짜리 녹음테이프를 의장위원회가 통치체에게 들려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조사위원회가 그 테이프 일부분을 “간략하게” 청취했고, 나와 전화를 하던 바로 그때에도 조사위원회의 심문 과정에서 나와 에드 던랩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원회가 녹음테이프를 청취하면서 분명하고도 틀림없는 “배교”라고 판단을 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로서 수십 년간 알고 지냈던 두 명의 남자에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전화통화에서 그는 무엇을 말해야 했을까요?

짤막하게 인사를 나눈 뒤, 나는 “버트 Bert(슈로더의 애칭-역자), 도대체 집필부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슈로더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글쎄 - 통치체는 우리 중 몇 명이 집필부의 효율성과 연합과 협조적인 면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조사하고, 또 일부 형제들이 어떤 문제들에 의혹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네.

슈로더는 마지막 표현 즉 의혹을 품은 개인에 대한 말을 즉석에서 생각난 듯 말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다’는 식의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진행되는 일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여름 지역대회 때 발표될 서적이 늦게 공장에 넘겨졌기 때문에, 집필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슈로더는 또다시 이어지는 나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고 얼버무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의 말에 대해, 나는 집필부의 효율성에 관한 문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야고보서 주해」(에드워드 던랩 저)와 「최상의 삶의 길을 선택함」(라인하드 령타트 저), 이 두 권의 서적이 1월 초순에 공장으로 잘 넘겨졌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그 두 권의 서적이 제때 발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에 발행된 「행복, 그것을 발견하는 방법」이란 서적은 집필 경험이 전혀 없는 진 스몰 리가 쓰고 있었으며, 그 프로젝트는 나의 감독 하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러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점을 덧붙여 말했습니다.

슈로더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형제들이 그 작업이 재검토되는 방식에 대해 불만이 좀 있어. 레이 리차드슨은 자신이 쓴 기사의 편집 방식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더군.”

이에 나는 “버트, 자네도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쓴 기사가 ‘수

술' 받는 것을 좋아하겠나? 집필부가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일해 왔는데, 그것이 새삼 놀랄 일은 아니지 않는가 말이야. 라이먼(스윙글, 집필부 책임자)은 뭐라고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 라이먼은 지금 출장 중이야."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출장 중인 건 나도 알아. 지금 지구 방문 중이잖아. 그에게 서신을 보내봤어?"

그가 말했습니다. "아직 보내지 않았네."

나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트, 좀 이상하네. 만일 예를 들어 말이야, 밀턴 헨첼(모든 공장 운영을 감독하는 출판위원회 책임자)이 출장 중이고 게다가 또 다른 출판위원회 성원이 출장 중이라면, 뭐 예를 들어 그랜트 수터가 그렇다고 치세, 그러면 통치체가 공장 작업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자네 같으면 통치체가 그 두 사람 없이 그것에 관해 전폭적인 조사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나?" (이 경우에 통치체는 그러한 조치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통치체가 우리에게 조사를 지시했고, 우리는 통치체가 시킨 대로 조사를 할 뿐이야. 우린 내일 통치체에 보고를 할 예정이야."

나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관해 내 생각을 통치체에 전달해 주게. 나는 라이먼 스윙글과 상의하거나 그에게 알리지 않고 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오랜 그의 봉사와 그의 위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네."

슈로더는 나의 생각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만일 보고와 관련된 토의를 할 때 매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그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슈로더는 "자네가 그럴 수 있나?" 하고 물

었습니다. 나는 “물론이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는데 뭐가 어려울 게 있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내가 다음 수요일에 협회로 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라이먼 스윙글도 없는데 내가 가야 할 이유가 뭐가?” 하고 대답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통치체의 사회자로서, 그는 나의 질문에 탁 터놓고 솔직하게 대답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레이몬드의 애칭-역자),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네, 심지어 배교가 일어났다는 고발도 있었네. 우리가 조사를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자네의 이름도 그 고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리는 것이라 생각했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그러한 종류의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를 포함한 의장위원회의 다른 성원들이 이미 녹음을 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심문을 하는 일련의 광범위한 조치를 취한 후에 그런 식의 솔직한 답변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통치체의 대표로부터 받은 인상은,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속이고 꾸며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시에는 그들이 어느 정도나 거짓말을 하고 꾸며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곧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통치체가 아니라 다른 통로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런 부면에서 통치체와 의장위원회의 행동이 이해하기 힘든 차원의 것이라면, 당시 바로 협회 내에 있었던 에드 던랩에게조차 솔직하

지 않고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일일 뿐 아니라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드가 배리와 바에게 심문의 목적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왜 통치체가 그를 심문하도록 임명했는지, 어떤 심각하고 중대한 고발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했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포함하여, 분명히 성서의 원칙은 누군가가 등 뒤에서 그를 “배교”로 고발할 때 통치체 성원 중 누군가는 직접 그것에 관해 그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바와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도 거의 한 달 동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그의 이름이 조사위원회 성원들에게 전달되고 다음에는 사법위원회 성원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적어도 12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달됐지만, 여전히 통치체에서는 그 누구도 에드에게 그의 이름과 관련된 중대한 고발 죄목이 무엇인지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매일 에드를 만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월 25일 금요일, 나의 요청에 의해 슈로더가 전화한 지 딱 3일이 지난 후에, 통치체 의장위원회의 허가와 감독 아래 사법위원회가 구성되어 크리스 산체스와 그의 아내 그리고 네스터 쿨리안이 제명 처분됐습니다. 르네 바즈퀘즈와 그의 아내 역시 르네가 섬기던 회중의 장로가 포함된 다른 사법위원회에 의해 제명되었습니다. 그 장로를 제외한 제

명된 모든 사람의 이름이 전체 본부 성원들 앞에서 공표되었습니다. 통치체는 이제 그 일에 대해 약 1500명의 사람들이 잘 알게 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알았지만 통치체는 내가 그 일을 아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나봅니다. 물론 결국 나는 그 일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치체의 동료 성원들로부터가 아니라, 제명된 그들에게서 전화를 받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부 성원으로 10년을 봉사했으며 산체스 부부와 콜리안 부부와 친하게 지냈던 다니언 비어즈는 4월 21일과 26일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인상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주에 받았던 인상 중에서 가장 강렬했던 것은 이 친구들이 너무도 잔인한 방식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법모임에 참석할 때까지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 크리스가 갔다 온 다음에 네스터가 갔다 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주 내내 정신없이 불려 다녔습니다. 어느 날 내가 노마(산체스의 아내)와 이야기할 때, 그녀는 사법위원회가 남편 없이 자신과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남편 없이 사법위원회와 만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녀가 어떤 응답을 했는지에 대한 증인이 전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한 말을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분명히 사법위원회가 노마로 하여금 크리스를 모함하도록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금요일 오후 (4월 25일) 4시 45분에, 사법위원들이 우리가 일하고 있는 8층으로 몰려와서는 내 책상 바로 뒤에 있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즉시 일을 멈추고 숙소로 돌아갔지만, 나는 사태가 어떻게 될지 알아보기 위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와 노마 그리고 네스터와 토니를 불렀고, 그들은 각자 따로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리로 갔습니다. 토니와 네스터와 이야기하기 위해 네스터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이 눈에 띄면 곤란하게 될 테니 어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무진 애를 쓰면서 숙소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제명됐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느낀 감정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곳은 수년간 나의 집이나 마찬가지로였으며, 나는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도 낯선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예수의 말씀과 그 주간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조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가혹하고 사랑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협회에다 그들의 봉사를 바쳐온 이 사람들은 훌륭한 명성을 얻고 있었고 모든 이로부터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비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도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날 저녁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레슬리[다니엘의 룸메이트]가 집회에 갔다 온 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

다. 그때는 밤11시쯤이었고, 노크를 한 사람은 토니 쿨리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집 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남편이 알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대로 주저앉아 함께 울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그녀와 네스터는 언제나 지금처럼 친구라고 말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녀를 격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서 새벽 2~3시쯤에 일어났습니다. 침대에 앉아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해보니,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마치 악몽을 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나는 네스터와 토니 그리고 크리스와 노마를 만나러 네스터의 숙소로 찾아갔습니다. 존 부스(통치체 성원)가 막 그들의 숙소를 다녀간 후였습니다. 존 부스는 그들의 상소가 통치체에 의해 기각되었음을 알리러 왔었던 것입니다. 전날인 금요일 저녁, 사법위원회는 그들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소 기한은 다음날 아침 8시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상소를 해야만 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상소를 했고, 그 즉시 부스가 찾아와서 상소가 기각됐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네스터가 기각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부스는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며, 더 이상의 토의를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 하느님께 대한 봉사라고 믿으며 온 영혼을 다해 자기 생의 수십 년을 전 시간 바쳐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 봉사를 바친 그 장소에서 6일 동안, 즉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그러한 모

든 것들이 무시되고 제명된 것입니다. 그 주간에 심문자들이 사용한 성구는 비난하고 유죄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4-25절에서 지시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종은 싸워서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잘 가르치며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자들을 온유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들을 회개(마음의 변화-신국 제역)시키시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sup>30)</sup>

나는 바울의 이 말을 통해, 어떤 종교든, 자신의 종교의 가르침에 대한 성서적인 답변을 원하는 사람에게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아니라 몇 주 혹은 몇 개월간의 시간이라도 기꺼이 내어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를 도우려하지 않는다면, 그 종교는 비판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에서 심문을 받던 사람들이 성서적인 접근을 시도하면 조사위원회는 수없이 다음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성서에 관한 질문을 토의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리 밀러는 르네 바즈퀘즈에게 “나는 성서학자가 아닙니다. 나는 협회 출판물의 지시에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문자들의 마음속의 주된 관심사는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조직과 조직의 가르침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본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협회의 출판물에서 찾아냈습니다.

---

30) (역자): 원문에서는 「신국제역」NIV에서 인용했으며, 이곳에서는 「성경」-가톨릭 판에서 인용했다.

솔직히 말해서 제명된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조직에서 분리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독려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태도는 르네 바즈퀘즈가 제출한, 그와 그의 아내에게 내려진 제명처분의 결정에 대한 상소문 가운데 감동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르네 바즈퀘즈  
31-06 81 가  
잭슨 하이츠, 뉴욕11370  
1980년 5월 4일

사법위원회  
클라디우스 존슨 앞  
1670 E 174가 Apt. 6 A  
뉴욕 브롱크스 10472

친애하는 형제들에게:

나는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건전한 추리와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아내와 나에 대한 고발에 관해 유죄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조사할 필요를 느끼기에 이와 같이 상소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우리를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정말 알지 못하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모임 중에 우리는 진심으로 여호와 앞에 선 진실함으로, 분파를 조장하거나 배교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여러 번 진심을 다해 진술하였습니다. 나의 가족과 세속 일에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이면서 지난 30년간 여호와 하느님께 나의 헌신적인 봉사를 바친 것이 배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나의 절친한 형제들

과 친구들과 함께 몇 가지 성서적인 요점을 사적으로 대화 나눈 최근의 나의 행동이 갑자기 조직을 공격하는 행위로 또는 배교로 취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협회에 의해 발행된 내용들과 조화되지 않는 것들을 반복해서 말하거나 경솔한 말로 인해 빚어진 아픔 또는 어떤 오해도 건전한 추리와 친절과 참 그리스도인 사랑과 자비로 바로잡고 치료할 수 있는데, 왜 제명처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사악한 사람,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 반역적인 개인, 악한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으로 낙인찍혀야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토록 많은 세월을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영혼을 쏟아 붓고 충실하게 섬긴 것 이외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교라는 법률 용어로 그토록 차갑고 무자비하게 정죄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비난하고 조직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취해진 조치들이 너무 지나치고, 사랑이 결여된 방법이 사용되고, 중상하는 소문이 퍼지고, 그리스도인 사랑과 자비가 결여되고, 의심과 공포와 철저한 조사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오해 또는 어떤 말들에 대해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으로 인한 부지불식간의 피해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여, 우리 형제들의 총 연합체에 대해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아내와 나는 추호도 형제들의 믿음에 혼란과 방해로 주는 악한 의도를 갖거나 행동을 하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셨겠습니까?

사법위원회 모임의 주된 목적은 배교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유죄를 확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는 우리의 진심어린 하소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우리를 배교자로 단정했습니다. 사법위원회는 우리의 절친한 친구들과 나눈 사적이고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가 배교

자인 것을, 또한 배교를 통해 분열을 야기하고 분파를 조성하려는 악한 계획을 가진 사람인 것을 밝혀내는 데 혈안이 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두 경우에, 해롤드 잭슨 형제는 음행을 범한 한 소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음행을 범했지만, 그녀의 정신이 음행을 범하는 것을 너무도 혐오스러워했기 때문에 자신은 사실상 음행을 범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녀는 임신을 하였다는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 예가 시사하는 바는 배교 행위를 우리가 얼마나 혐오스러워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배교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들이여,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를 압니다. 우리의 경우는 이해심과 경험이 부족한 이 어린소녀의 예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 가령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양심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진정한 우리 자신일 수 있다고 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겠습니까? 그분은 사랑의 친절과 자비를 이 소녀에게 보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죄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는 우리가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자신은 음행을 범하지 않았다고 확신하지만 배가 불러오는 소녀의 예를 다른 사건을 판단하는 원칙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자궁에 낭종이 생긴 한 소녀가 사실을 말했으나 너무 많은 질문에 지치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게다가 그녀가 임신했다, 쌍둥이를 낳을 것이다, 이미 세쌍둥이를 낳았다는 식의 중상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상황의 예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상황은 지나치게 불공

정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 예에서 진실로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는 그러한 심한 불공정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이유로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병 고침을 행하신 그분을 정죄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롭게 판단하십시오.” --요한 7:24

사법위원회의 성원인 에피스코포 형제는 수많은 유도심문을 통해, ‘배교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실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는 배교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한 배교 행위는 우리가 생각도 하지 않은 일이며, 우리는 조직에 대항하는 어떤 악한 의도도 가진 적이 없고, 분파를 조성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친구들과 함께 사적으로 토론한 내용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배교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배교의 정의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과거 우리 여호와의 증인 조직의 역사가 배교 행위로 가득 차 있다고 결론 내렸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임재가 1874년에 시작되었다고 가르칠 때, 우리는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가르치던 것이 성서 진리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에피스코포 형제의 배교에 대한 정의대로라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배교자로 생각하셨어야 마땅합니다.

거듭해서, 조직으로서 우리는 경건한 정성과 신실함으로, 하느님의 말씀과 조화되지 않는 것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친 대로 상황이 진전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일을 근거로 조직을 배교자로 판단하는 것은 자비와 사랑의 원칙과 조화를 이룹니까? 이런 경우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므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파선시킨 히메니우스와 필레투스 같은 무리로 조직을 바라보는 것이 이치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취해진 조치에 대한 근거는 몇몇 형제와의 사적인 대화에서 우리가 성서의 특정 부면들에 대해 토의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 중 하나는 친구나 신뢰하는 사람과 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또는 그러한 내밀한 대화를 고백해야하고, 그러한 대화를 근거로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 또는 서로의 내밀을 공유한 개인들이 서로를 대적하거나 고발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도대체 하나의 조직으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완전한 복종 또는 극단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회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직분의 권위를 짓밟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를 재판한 일부 사법위원들도 함께 했던 조직에 의해 가르쳐지지 않거나 출판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눈 과거의 다양한 사례를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그러한 대화 내용을, 얼마나 더 알았거나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자주 그들이 그러한 내용의 대화를 했겠습니까? 그러한 경우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모두를 배교자라고 단정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례와 이름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와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자 이제! 형제들이 집에서 읽은 성서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배교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이단”이라고 불리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된 것입니까?

사법 모임 중에 나는 여러 형제들에게, 매우 경솔하게 일부 성서 요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한 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어떻게든 돌아온 당황스런 상황에 대해 우리 부부의 유감을 표시하고, 더 이상 그러한 대화를 다른 사람들과 하지 않을뿐더러 그러한 말을 하

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확실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해롤드 잭슨은 매우 강한 어조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사법위원들이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는 우리가 조직에 위험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암시를 주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한 말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에 관한 성서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에게 그러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분파를 조장하고 있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디도서 3:10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분파를 조장하는 사람은 한 번 훈계하고 또 한 번 훈계한 후에 물리치십시오.” 그가 분파를 조장하는 면에서 지속적인 입을 암시하는 새로운 범죄 행위가 있을 때 두 번째 훈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에게 우리가 분파를 조장하는 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처음 불미스런 오해가 생길 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비정상적일 정도까지 말을 아껴왔습니다. 바울의 충고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말로 주는 확신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 개인의 행위가 두 번째 훈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를 반복했을 때 잭슨 형제가 원하는 종류의 확신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훈계 후에 두 번째 훈계가 필요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를 지켜보는 의심의 혜택마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이상 잭슨 형제는 우리가 형제들과 나눈 대화가 조직의 심장부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러한 공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공격을 하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성급한 판단으로 불평을 한 어떤 분별없는 사람의 말이 조직의 심장부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한 분별없는 사람의 말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형제들이여, 이러한 상황에서 취해진 극단적

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조치는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르지 않는 잘못으로 판단 받았기 때문에, 의와 자비에 근거하여 상소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 여호와와 이름의 축복과 그분의 백성들의 영적인 안녕이 밝히 빛나게 되기를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인,  
르네 바즈퀘즈  
엘시 바즈퀘즈

약 30년 전에 르네는 편협하고 억압적이며 비관용적이라고 느꼈던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여호와와의 증인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여호와와의 증인에 대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과 2주라는 기간 동안, 자신의 30년간의 봉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가혹한 심문을 받는 처지가 되었으며, 그의 진실한 동기가 의심받고,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반역자로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편지에는 그가 탈출했다고 생각했던 그 동일한 편협함과 종교적인 비관용적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의 절망적인 괴로움이 담겨있습니다.

르네의 상소는 받아들여졌고, 그는 (다른 5명의 장로로 구성된) 상소 위원회와 모임을 가졌습니다. 르네는 상소 모임에서 자신은 특정한 교리적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며, 그러한 문제에 대해 독단적인 교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 역시 전혀 없음을 설명하며 융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소위원회는 그러한

르네의 시도를 자신의 잘못을 얼버무리려 하는 것으로,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세례를 몇 시간 동안 받고 나자, 갑자기 상소위원회의 성원이며 브루클린 본부 성원이기도 한 샘 프렌드가 나서서 르네에게 말했습니다. “오물 *hogwash* 같군요. 이제부터 내가 질문하는 바에 대해 ‘예, 아니오’ 로만 대답하세요.” 스페인어가 모국어인 르네에게 “오물”은 낯선 말이었고, 그는 지방 사투리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르네는 나중에 그 단어가 더러운 것을 자신의 속에 “집어넣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르네는 “됐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내 생각을 체질하려고 하는군요.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휴정이 선언되었고, 르네는 그 자리를 떠나 거리로 나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상소위원회는 제명처분결정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르네가 알고 브루클린 봉사부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 - 오랜 세월 동안 르네의 친절과 도움을 이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 르네를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sup>31)</sup> 협회의 입장에서도 르네는 지난 30년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신실함에 대한 훼손되지 않는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신실한 봉사는 만일 르네가 조직과 일치하게 살지 않았거나 무조건적인 복종을 나타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협회의 이 모든 조치들을 볼 때 야고보가 한 말이 떠오릅니다:

---

31) 회의가 “비밀 심의”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봉사부에서는 직접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부서 내에서 이른바 “가십”을 통해 사정을 알고 있던 사람이 많이 있었다.

언제나 자유민의 법에 따라 심판받게 될 사람들답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sup>32)</sup>

1980년 5월 8일 통치체는 마침내 내가 이 모든 사건에 연루되어 있음을 정식으로 통지했습니다. 의장인 앨버트 슈로더가 내게 전화를 걸어, 통치체가 나를 브루클린 본부로 부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이 통치체가 처음으로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암시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슈로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질문을 반복적으로 교묘히 빠져 나간 지 15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두 시간짜리 녹음테이프가 있다는 것과 그것이 통치체 전체 회기에서 공개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는 후 23일이 지났음에도 말입니다.

그 23일 동안 그들은 통치체에게 녹음테이프를 들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과 에드 던랩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통치체가 아닌 (조사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구성한) 17명에게 들려주었으며, 나와 30년간 우정을 유지해온 친구 한 명을 포함하여 본부 성원 3명과 본부 성원이 아닌 사람 3명을 제명시켰습니다. 또한 그들은 보넬리란 이름의 남자를 인터뷰하며 녹음했습니다(이 책 나중에 나오는 테이프). 그들이 베델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인터뷰를 할 때에는 단순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죄에 대한 증거를 얻어내려는 것이었습

---

32) 야고보서 2:12,13. 「예루살렘 성서」JB. 한국어는 「신세계역」에서 인용.

니다. 일부 성원들에게는 심지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명을 당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자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에 통치체는 내가 일련의 사건들에 연루되어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알게 된 모든 사실은 내가 9년 동안 속해 있던 통치체가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소식통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혹독한 심문과 심리를 받았던 베델 본부 성원들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위원회가 나타낸 불친절하고 완고한 태도에 당황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전체 조사과정을 지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겨냥하는 사람은 나와 에드워드 던랩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느낀 바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시시한 사람들” 즉 덜 유명하고 덜 탁월한 사람들부터 조사하여 그들의 유죄를 확정짓고, 그에 따라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가능하면 더 유명하고 더 탁월한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든 틀리든 간에,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인상이었습니다. 나는, 조사위원회와 사법위원회가 모든 조치에 방향 설정을 해주고, 관련된 모든 상황 보고를 들은 의장위원회로부터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장인 슈로더가 5월 8일에 나에게 전화를 했을 때, 나는 내 생각을 솔직히 말해주었습니다. 함께 살고 일하고 매주 그렇게 하면서 통치체 성원으로 9년을 함께 보냈음에도 (15년을 함께 보낸 통치체 성원도 있습니다.) 어째서 단 한 사람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형제애를 가

지고 나에게 말해 주지 않았는지 너무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공정하게 평가한다면, 의장위원회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 통치체 성원들이 모두 그 세세한 부분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나와 슈로더의 4월 23일 전화통화가 녹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이 거의 확실하다고도 생각되지만, 통치체 성원 전체는 슈로더와 전화로 나눈 대화 내용과 그가 나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통치체 성원 중 일부 또는 다수는, 의장위원회가 그리스도인 원칙에 의거하여 ‘자신들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대접을 남에게도 하고 있을 것’ 이기 때문에 사건의 진행과정을 그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기대하며 또 믿고 있습니다.)

앨버트 슈로더가 유럽에 있을 때 증인 교리의 근간인 “이 세대”에 관해 다른 해석을 설파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때 브루클린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배교적인 성향”을 가진 자로 분류하여, 중대한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그것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 점에 관해 내가 물었을 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요구대로 브루클린으로 가겠다고 말했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5월 19일 브루클린에 도착했을 때, 나는 신경과민으로 인해 거의 쇼크 상태에 빠질 만큼 힘들었습니다. 사건 진행 절차에는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몽”이라고 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좀 더 강한 어구, 이를테면 “편집증”과 같은

말이 더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이 위험한 적군으로 취급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수년 전에 스크랩해 놓은 뉴욕 타임즈의 기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닉슨의 참모진의 불신이 발견되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1971~1973년까지 백악관에서 근무한 한 정신과의사는 리차드 닉슨 주위의 참모 그룹이 다른 사람들의 동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사람들에게 대한 염려는 성격상의 약점으로 생각되었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반대 의견을 내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존중되지 않았다.

제롬 H. 제프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불충스러운 것은 결코 뗈 수 없는 개념이었다.” “그것은 정말로 비극적인 단면이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곧 불충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제였다.”

“행정부는 인사 결정을 내리는 데 냉정하고 공정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했다. 감정에 치우치는 것과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결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한 염려는 치명적인 결점으로 인식되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에 대해 뿌리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동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sup>33)</sup>

---

33) 「뉴욕 타임즈」 1976년 1월 12일자 12면.

나는 이 기사가 1980년에 브루클린 통치체가 보여준 태도와 소름끼치도록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기사 중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곧 불충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주제였다.”라는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친절한 태도가 심각할 정도로 결여되어 보였습니다. 따뜻한 우정과 그러한 따뜻한 우정을 가능하게 하는 동정어린 이해심은 가장 나쁜 것을 기대하고 의심하는 조직적인 냉정함으로 대체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획일성과 일치조화가 목표인 조직의 이익에 비호의적이며, 조직의 이익을 변호할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법적인 기계가 작동하여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무감각하고 무자비하게 움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통치체에 도착했을 때, 내 책상 위에는 사회자위원회가 1980년 4월 28일에 미리 준비해 놓은 목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조) 그 목록에서 다루는 어떤 문제들이 나를 놀라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 문제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토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려해 본 적도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목록의 “해설”이 진짜 의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석들은 “협회가 정한 근본적인 성서적 그리스도인 믿음의 틀”과 “여호와의 백성이 여러 해 동안 믿어온 성서적으로 건전한 말씀의 형태”에 대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통치체 회기 중에 매우 자주 사용된 주장들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 주장이란 협회의 오래된 전통적 가르침에 고착해야만 한다는

것이며, 시간이 지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혐회의 주장이 옳다고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전통적인 가르침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5월 20일 나는 의장위원회를 만났고, 그들은 통치체에게 보고한 집필부 성원들과의 인터뷰 내용과, 의장위원회가 그 후의 조사과정과 진행 중인 사법처리에 관해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은 나에게 2개의 인터뷰 테이프를 주며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쿠바 출신 고디네스 부부와의 2시간짜리 인터뷰였고, 다른 하나는 좀 더 짧은 내용의 보넬리라는 증인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2시간짜리 녹음테이프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통치체는 그것을 한 달 전에 청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테이프가 들려진 이후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해버린 그 모든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돌았다는 것과, 나에게서는 통치체 성원 전원이 참석한 나의 심문 회기 단 하루 전에 알도록 허락됐다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To Governing Body) RECENT EVIDENCES OF WRONG TEACHINGS BEING SPREAD ABOUT

Following are some of the wrong teachings being spread as emanating from Bethel. These have been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Governing Body from the field from April 14 onward.

1. That Jehovah does not have an organization on earth today and its Governing Body is not being directed by Jehovah.
2. Everyone baptized from Christ's time (C.E. 33) forward to the end should have the heavenly hope. All these should be partaking of the emblems at Memorial time and not just those who claim to be of the anointed remnant.
3. There is no proper arrangement as a "faithful and discreet slave" class made up of the anointed ones and their Governing Body to direct affairs of Jehovah's people. At Matt. 24:45 Jesus used this expression only as an illustration of faithfulness of individuals. Rules are not needed only follow the Bible.
4. There are not two classes today, the heavenly class and those of the earthly class also called "other sheep" at John 10:16.
5. That the number 144,000 mentioned at Rev. 7:4 and 14:1 is symbolic and not to be taken as literal. Those of the "great crowd" mentioned at Rev. 7:9 also serve in heaven as indicated in vs. 15 where it is claimed that such crowd serves "day and night in his temple (nao)" or K. Int says: "in the divine habitation of him."

6. That we are not now living in a special period of "last days" but that the "last days" started 1900 years ago C.E. 33 as indicated by Peter at Acts 2:17 when he quoted from the Prophet Joel.
7. That 1914 is not an established date. Christ Jesus was not enthroned then but has been ruling in his kingdom since C.E. 33. That Christ's presence (parousia) is not yet but when the "sign of the Son of man will appear in heaven" (Matt. 24:30) in the future.
8. That Abraham, David and other faithful men of old will also have heavenly life basing such view on Heb. 11:16.

---

Notes: The above Biblical viewpoints have become accepted by some and now being passed on to others as "new understandings." Such views are contrary to the basic Biblical "framework" of the Society's Christian beliefs. (Rom. 2:20; 3:2) They also are contrary to the "pattern of healthful words" that have come to be Biblically accepted by Jehovah's people over the years. (2 Tim. 1:13) Such "changes" are condemned at Prov. 24:21,22. Hence the above are 'deviations from the truth that are subverting the faith of some.' (2 Tim. 2:18) All considered is this not APOSTASY and actionable for congregational discipline. See ks 77 page 58.

Chairman's Committee 4/28/80

(통치체 앞) 잘못된 가르침이 번지고 있다는 최근의 증거들

다음의 내용은 베렐 내에서 시작되어 번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 중 일부이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4월 14일 이후로 본부 밖에서부터 통치체의 주의를 끌게 되었다.

1. 여호와께서는 오늘날 지상에 조직을 두고 계시지 않으며, 조직의 통치체는 여호와로부터 직접적인 인도를 받고 있지 않다.
2. 그리스도의 시대(기원 33년)부터 마지막 때까지 침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늘 희망을 갖게 된다. 기념식 표상물을 취하는 것은 기름부음받은 남은 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침례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3. 여호와와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 기름부음받은 남은 자들과 그들의 통치체로 구성된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 반열을 위한 적절한 마련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4:45에서 예수께서는 이 표현을 오직 충실한 개인들을 예시하는 데 사용하신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규칙이 아니라 오직 성서를 따르는 것만이 요구될 뿐이다.
4. 오늘날 하늘 희망을 가진 무리와 "다른 양들"이라고 불리는 지상의 무리를 형성하는 두 개의 반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5. 계시록 7:4과 14:1에 언급된 144,000은 상징적인 수이며,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계시록 7:9에 언급된 “큰 무리” 역시 하늘에서 섬길 것인데, 15절에서는 그 무리가 “성전(나오스)에서” 또는 「왕국 행간역」에 의하면 “하느님의 거처에서” 밤낮으로 봉사를 드릴 것이라고 지적하는 바와 같다.
6. 우리만 현재 “마지막 날”이라는 특별한 기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날”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11에서 예언자 요엘의 말을 인용했을 때 암시된 바와 같이, 1900년 전인 기원 33년에 시작되었다.
7. 1914년은 확정적인 연대가 아니다. 예수께서는 1914년에 즉위하지 않으셨으며, 이미 기원 33년 이래로 그분의 왕국을 통치해 오셨다. 그리스도의 임재(파루시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며, 장차 “하늘에 인자의 표징이 나타날 때”(마태 24:30) 성취될 것이다.
8. 히브리서 11: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고대의 다른 충실한 사람들 역시 하늘의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해설: 위의 언급된 성서 해석이 일부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현재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해”로 전해지고 있음. 이러한 견해는 협회가 정한 근본적인 성서적 그리스도인 믿음의 “틀”에 반대되는 것임(로마 2:20; 3:2). 또한 여호와의 백성에 의해 여러 해 동안 받아들여져 온 “건전한 말씀의 표준”에 반대되는 것임(디모데 후 1:13). 이러한 “변경”은 잠언 24:21,22에서 정죄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위에 언급된 가르침들은 “진리에서 벗어나 ...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해당됨(디모데 후 2:18).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배교**이며 회중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임. ks 77, 58쪽 참조.

사회자위원회 80년 4월28일

나는 그 테이프들을 내 사무실로 가져와 들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나를 언짢게 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너무도 추잡스러웠습니다. 나는 고디네스 부부가 그들이 들은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하도록 조정되었다는 데 일말의 의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부부는 언제나 품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리 밀러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 나는 계속해서 “녹음테이프에서 고디네스 부부가 말하는 것처럼 과연 모든 사건들이 그들에게 극단적으로 비취졌을까?”라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의장위원회가 관련된 사람들을 제명시키도록 사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래로, 이런 식으로 사건이 구성되는 것으로부터 나는 효과적으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테이프의 말미에, 나는 의장위원회 성원들 중 3명이 인터뷰를 통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고디네스 부부에게 인터뷰에 관한 내용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명령한 후, 연루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상해버린 나의 기분을 더욱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크리스 산체스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산체스는 그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왜 르네 바스퀘즈는 할리 밀러의 제안(바로 이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는), 즉 고디네스가 르네에게 “약삭빠르게” 전화로 접근하여, 르네가 죄를 범하는지 알아보도록 하는, 사실상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술책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품었던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그 일을 통해 얻으려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관련된 사람들의 견해를 이해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야 하며, 가능한 어려움과 상처를

주는 일 없이 친절한 충고와 온화한 영과 사려 깊음으로 권고하면서 문제들을 명확히 해결하고자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니다. 과연 그들의 행동은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고자 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배교로 몰아세우기 위한 행동에 지나지 않았을까요? 나는 전체 테이프를 들은 후에, 그들은 사람들을 배교로 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녹음테이프의 내용도 좋지 않았지만, 두 번째 것은 더욱 나빴습니다.

고디네스 부부는 그들의 집에서 나는 대화에 대해 얘기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그 대화는 그들 부부에게 충격적이었다는 식으로 진술했습니다. 나는 그들 부부의 진술이 매우 진실했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테이프는 거의 소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그 말을 한 당사자들이 심문을 진행했던 본부 성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넬리는 르네가 참석하던 회중 인근에 있는 스페인어 회중의 성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테이프는 앨버트 슈로더가 보넬리를 소개하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보넬리는 이전 두 회중에서는 “봉사의 종”(또는 집사)이었으나, 현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넬리의 말을 인용하여, 그가 현재 회중에서 봉사의 종으로 임명되지 못한 것은, 그 회중의 장로들 중에 앙굴로란 장로가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넬리가 자신에 대해 증언을 했는데, 그는 앙굴라가 한 말 때문에 자신이 봉사의 종으로 임명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앙굴로는 제명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3월 31일 왕국회관에서 기념식(주의 만찬)을 하고 르네 바즈퀘즈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르네의

아내와 어머니가 떡과 포도주 표상물을 취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sup>34)</sup> 그는 자신도 표상물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넬리가 표상물을 취했다는 진술은 심문을 진행한 봉사부의 앨버트 슈로더와 데이브 올슨과 헤롤드 잭슨을 놀라게 했습니다. 보넬리는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여기에 그가 한 말을 정확히 옮기겠습니다: “제가 비열했습니다.*I'm sneaky*” 그는 르네의 정보를 얻기 위해 그의 집에 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sup>35)</sup>

그는 계속해서 다른 증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했는데, 앙굴로란 장로가 집회를 할 수 있는 건물을 르네와 함께 얻었으며, 이미 그들의 새로운 믿음에 따라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문은 단 한마디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심문관들은 집회 장소가 어디인지 또는 침례 받았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 질문을 했다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회 장소나 침례 받은 사람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테이프를 더 듣는 중에, 보넬리가 어느 순간 자신의 말을 영어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스페인어를 하는 헤롤드 잭슨이 그와 스페인어로 대화를 나눈 후 영어로 통역했습니다. 보넬리는 웃으며 말하기를 “영어를 잘 하지 못해요. 하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정보

---

34) 내가 휴가를 떠나기 전에 르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아내도 어머니도 르네 자신도 양심적으로 표상물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 명이 왕국 회관에서 이것을 하면 소란이 될 것이 분명했다. (스페인어 회중에 “기름부음받은 자”가 있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적은 것은 아내와 어머니가 회중 집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집에서 표상물을 취하는 것이다. 보넬리는 자신의 회중도 없고, 집에 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온다고 했다. (르네의 어머니는 보넬리와 성서 연구를 한 적이 있어 잘 알고 있었다.)

35) 이것이 진짜 이유였는지는 의심스럽다.

라고요.”라고 말했고, 데이브 올슨은 재빨리 그의 말을 받아 “맞습니다, 형제, 형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화를 들었을 때 나는 마치 무언가 무거운 것이 나의 마음을 내려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체 면담 과정에서 이 남자는 성서를 잘못 이해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유일한 목적은 사건을 만들고 유죄 판결에 필요한 증거들을 입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들의 절반은 소문에 불과하고 사실무근이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도 친구 간에 나누는 성서에 대한 사적인 대화나 가정에서 행하는 양심적인 행동들까지도 종교조직이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경우어나 중요하게 여겨질 그런 종류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보넬리의 증언 테이프 끝부분에서 데이브 올슨은 그에게 이와 비슷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형제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보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적인 믿음에 대해 들었다고 주장했으며, 올슨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르는 한 “형제”가 뉴저지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올슨이 그의 이름을 묻자, 보넬리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누군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올슨은 “하지만 정보를 제공해 줄 사람이 많아야만 합니다.”라고 말했고, 보넬리는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자매들”도 몇 명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넬리는 그들의 이름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앨버트 슈로더는 그에게 증언에 협조해 주어 감사하다고 하며,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함으로써 영적인 강함을 유지하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보를 듣는다면 자신들에게 알려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니다.

내 생각에는, 그 어떤 것도 조사와 심문과 적극적인 정죄를 한 전체 절차들이 보여준 방향에 대해 이 녹음테이프만큼 명확하고 강력하게 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해, 당시에 퍼져있던 “분위기”에 대해 이것보다 더 잘 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본부에 있는 하느님과의 “통로”의 연결고리인 사람들이 그때까지 들었던 것들과 비교하거나 소문을 통해 들었던 것과 비교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이 테이프만큼 잘 알려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넬리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할 권리를 행사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문과 사실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왜 이런 종류의 증언이 본부 성원들에 의해 “꼭 필요한 것”으로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할 권리를 행사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조직이 이 테이프 전체를 들려주고 필요한 질문들을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권리를 스스로 없애버렸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의장위원회가 사건의 전말을 나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통치체는 본부 성원들을 제명시킨 며칠 내에 이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과 똑같은 종류의 소문, 즉 그 “배교자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세우고 비밀리에 집회를 가지며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들의 믿음을 “자유 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소문이 베텔 가족 내에서 번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명확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문과

비슷한 대화는 흔히 있는 일이었으며, 그러한 소문과 말들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침성구토의를 주재하는 통치체 성원들은 그 “배교자들”에 대해 많은 말들을 했음에도, 돌고 있는 소문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소문들은 거침없이 번져서 세계 전역으로 퍼졌으며, 그러한 소문을 전해들은 증인들이 그들의 동료 증인들에 대하여 부지불식간에 잘못된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문의 진위를 밝혀내고 잘못된 증언들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통치체였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는 그들 자신만이 알 것입니다. 나는 통치체 내에 그러한 소문이 사실일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치와 그들이 지고 있는 책임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은 그러한 소문을 조사하여 그것이 사실이 아니며 지어낸 이야기이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가혹할 정도로 해를 주는 꾸며낸 이야기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있어서 판단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다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판대에 서게 된” 우리들 중에는 분별없는 말로 인해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말 중 일부는, 위원회가 접근하자 재빨리 동료 장로를 대항하는 ‘위원회 측 증인’이 될 것을 자처한 한 남자에 의해 제공되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남자를 알지 못하며, 한 번도 그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장로 역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

들이었습니다.<sup>36)</sup>

나는 본부 성원들이 그들의 주의를 끌게 된 정보로 인해 그 문제를 조사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전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일이겠지요.

하지만 경솔한 대응과 조급함, 사실을 왜곡하고 생명과 명예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은폐하는 방식, 치명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교활하게 접근한 점, 또한 유죄판결에 대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제명처분이라는 협박으로 압력을 가한 점, 무엇보다도 압제적인 독재의 영과 무감각한 법적 차원의 접근, 그리고 관련 조치들을 통해 보인 무자비한 영은 나로서 이해할 수가 없었고, 성서와 조화를 이루는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판대에 서게 된’ 일부 사람들의 분별없는 말이 어떤 것이었든 간에,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그들의 잘못된 말보다 훨씬 더 심한 잘못이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심문을 받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는 심문자들에 의해 박탈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자신들은 질문할 수 있는 권리와,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법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했으며, 다른 사람들의 참석을 완전히 배제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심문하는 사람들의 사적인 대화와 행동을 밝혀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법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은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합당하게

---

36) 이 장로 두 사람은 르네가 참가하는 회중 옆의 회중에 속한 사람들이다.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스런 조치는 단순히 “실용적이고” 전략적이며, 반대로 피고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대화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교활하고 감추어진 음모의 증거로 규정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자신들의 행동이 “밝혀진 진리”와 하느님께 대한 열정의 증거로 받아들여지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하느님을 첫째로 두려는 진실함이나, 전통적인 가르침과는 반대되더라도 진리에 대한 사랑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그들을 몰고 갔습니다.

예를 들어, 르네 바즈퀘즈는 심문을 받으면서 중용을 지키고 독단적인 태도를 피하면서, 사소한 교리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쟁도 불리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과 다른 누구에게도 자신이 가진 견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한 적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설명은 사법위원회의 성원들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르네의 내면의 느낌과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배교로 몰아가고자 노력했습니다. 한 방향으로 설정된 질문을 통해 만족스런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단정적인 대답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법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르네의 청문회에서 벤저민 앙굴로란 장로도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앙굴로는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데 있어 매우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르네가 중용적인 태도를 보이자 사법위원회의 한 사람인 해롤드 잭슨은 르네에게 “당신은 제대로 된 배교자도 못 되는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르네가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변호하지도 못한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양굴로를 보시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잘 대변하고 있소. 당신이 양굴로에게 말한 것에 대해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좀 보시오. 그 때문에 그는 제명될 수도 있소. 그런데 당신은 그에게 말한 것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군요.

상소위원회와 가진 두 번째 청문회에서, 앞서 보인 것처럼 중용의 입장을 견지하려는 르네의 노력은 “쓰레기”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온화하고 중용을 나타내고 양보를 나타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꺼이 양보하는 이러한 성품은 반대하는 “배교자들”로 제명되는 사람들에게 좋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품이 르네 바즈퀘즈의 천성이었으며,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르네가 제명된 지 2년 후, 나는 그와 함께 사건의 전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이해한 성서적 내용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 어떤 심정을 가졌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업상의 조직체에서 일하는 경우, 그는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조직의 모든 정책들에 순응해야 하고 만일 정책에 순응할 수가 없다고 느낀다면 아무 말 없이 조직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업상의 조직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나는 문제들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며, 그 문제를 보다 높은 관계 즉 하느님이 관련된 문제라고 봅니다. 나는 당시의 나의 심정과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

의 심정과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음모를 꾸몄다면 왜 지금까지도 그것을 부인하겠습니까? 사법모임이 열렸을 때, 나는 제명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제명되었습니다.

내가 만일 조직 내에 남아있기 위한 이유가 누군가를 개종시키려는 것이었다면, 현재의 나는 매우 투쟁적으로 변해있을 것입니다. 내가 추구했다고 하는 '분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꾸미고 있던 일에 대한 증거를 후에라도 밝혀냈습니까? 오늘날까지, 나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무언가를 꾸며낸 창시자가 아니라 그것을 따라간 사람으로 부르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일을 다시 당하게 된다고 해도 나는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성서로부터 배운 것이 너무도 훌륭하다고 느끼며, 내가 그런 식으로 제명되어 모든 문제가 명확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어떤 '음모'를 꾸몄었다면 나는 내가 하던 방식을 따라 프로그램을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은 단순히 인간적인 것이었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했을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특성은 조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제명되는 것은 결단코 나의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단지 성서를 통해 알게 된 내용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도달한 결론은 개인적으로 성서를 읽어서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결코 독단적인 교리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30여 년간이나 여호와의 증인으로 있었던 내가 질문하는 한 가지는, 내가 가졌던 자비심과 동정심에 관한 것입니다. - 왜 그들에게서 자비심과 동정심을 느낄 수 없었을까요? 왜 자신들의 심증을 확인하기 위한 틀에 박힌 질문들만 할까요? 사법모임은 '잘못을 범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유죄를 증명할 정보를 얻기 위한 것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소문이 널리(사실상 국제적으로) 퍼져 있었는데, 그것은 스페인어 번역부에서 일하던 이 세 명의 남자들(바스퀘즈, 산체스 그리고 쿨리안)이 번역 작업 중에 기사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바꾸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내가 그것을 묵과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어를 말하는 나라에서는 이 소문이 프랑스어 번역을 하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변형되어 전해졌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르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출판물의 내용을 변경한 적은 없었으며, 그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사법모임에 출석했을 때에도 그 점은 전혀 언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출판물의 번역된 내용은 5명의 각기 다른 사람의 감사를 받게 되며, 그 마지막 사람은 파비오 실바입니다. 번역에 있어서는 출판물의 원래 의도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sup>37)</sup>

---

37) 번역물은 브루클린 본부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확인할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를 쓰는 각국 지

소문 중에서 가장 악의적인 것은 “배교자들” 간에 동성애가 성행한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 각지에서 장로들과 다른 증인들에 의해 “사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뻔뻔스러운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설명은 1년 전 심문 전략이 시작되었을 무렵, 상당한 직위에 있는 한 조직의 성원이 동성애적 경향이 있는 것으로 고발당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이 사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통치체는 그 사건을 다루면서 그 문제를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말들이 나돌았는데, 소문을 지어내는 방앗간은 이 남자의 행동을 이제 “배교자들”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퍼지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 소문에 대한 다른 납득할 만한 이유는 찾기가 힘듭니다.

그들 스스로 높은 그리스도인의 표준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왜 전혀 근거가 없는 험담에 불과한 이러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 이것은 단지, 벌어진 일에 대해 어떻게든 그들 스스로를 정당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그들과 친밀하여 그들이 평화롭고 우호적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직이 취한 그러한 신속하고 가혹한 조치에 대해, 진실한 설명보다는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다른 이유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배교자”라는 추한 꼬리표를 붙이기 위해

---

부의 직원들 대부분은 스페인어와 영어를 모두 읽을 줄 안다. 따라서 만약 변조가 사실이라면 즉시 보고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도 모르고 이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이곳의 사정을 몰랐거나,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실과는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없이는 이 사람들을 알았던 사람들과 그들에 관해 들었던 사람들에게, 조직이 더 이상 하느님과의 유일한 지상 의사소통 통로이며 인도를 받고 있는 집단이라고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안전감, 사람들이 일말의 의심도 없이 이 인간 조직에 상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의지하면서 가졌던 안전감을 심하게 손상시킬 것입니다.

### 산헤드린 법정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2-4<sup>38)</sup>

내가 브루클린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동안 숨겨졌던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통치체 전체 회기에 출석하게 되어있었습니다.

회기 참석 후 정보를 검토하면서,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취해진 일련의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용된 방법들은 무엇

---

38) (역자): 원문은 「신국제역」NIV에서, 한국어는 「새번역」에서 인용.

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일은 나에게 충격만을 던져주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관련된 사람들에게 물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명되었으며 그들의 증언을 통치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내 평생의 종교적 자산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사건을 처리한 방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통치체 본부에 대한 나의 감정은 이상하게도 독재자 트루질로 정부의 도미니카 공화국을 여행했을 때와 비슷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를 떠날 때만해도 모든 것이 너무 자유롭고 개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탄 비행기가 트루질로 정부의(현재는 산토 도밍고) 도미니카 공화국에 착륙했을 때, 모든 것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서 했으며, 공공장소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일은 극히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트루질로 집권정부 때 급증한 스파이 시스템 때문에 그들의 말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으로 발각될까봐 걱정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되던 대화와 생각의 교류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정부의 적으로 치부될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한쪽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수의 생각과 다른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말이 언급되더라도 염려하지 않았으나, 다른 쪽에서는 그곳의 사상에 순응하지 않는 사상을 표현하면 나중에 자아비판에 회부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이 나쁜 일의 징조로, 즉 죄의식을 가져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고,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이 경우 그가 한 말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정직한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도덕적으

로 올바른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후자의 경우가 내가 1980년 봄에 통치체에 불려갔을 때 일순간에 느낀 텅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감정에 둘러싸여 압도당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장위원회가 나에게 대해 '브리핑' 한 자료를 통해서, 통치체의 권위를 행사한 사람들이 이미 압제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장위원회와 봉사위원회 사람들이 한 말에서도 그러한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극도로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남자들이 표현하는 것은 무자비하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조직의 관점에서 이단인 것이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고 옳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생각이었는데, 오랜 세월 조직 내에서 열정적인 봉사를 수행한 후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나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질문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대답하게 해야 함을 지적해 줄 의무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성서에서 찾게 될 답이 통치체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더라도 말입니다.

나는 당시 통치체에 출두했을 때 그들이 오직 조직적인 관점에서만 그 문제를 바라보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만일 처음부터 조직과 다른 견해가 제시되었다면, 나는 그 사건이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단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선을 넘는 연설이 있었다면 중용을 권고하고,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이 보였어도 사려 깊은 행동을 촉구하면서 친절하고 형제애에 기초한 대화를 통해 해결했다

면 좋았을 것입니다. 비난을 피하고 독단적인 방법과 법적인 접근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소수의 사람들 간의 사적인 대화와 일들이 크게 번져 그들의 이름이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격렬한 충격을 주는 사건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험담과 반항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으로 발전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통치체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미 불이 타고 있는 곳에 기름을 붓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그 불이 너무도 타올라 사랑하는 친구들을 태워버리고 난 후였습니다. 당시에 내가 개인적으로 한탄했던 것은, 사건에 관련된 몇몇 사람들이 했을지도 모르는 극단적인 교리적 문제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비록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었고, 문제에 주로 관련된 사람들이 나오는 전혀 성서 토론을 한 적이 없으며, 일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말입니다.

5월 21일 수요일에 통치체는 앨버트 슈로더를 의장으로 하는 회기를 개최했습니다. 슈로더는 먼저 의장위원회가 내가 통치체 토의 내용을 (내가 복사본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녹음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통치체 회의실에는 약 20명이 앉을 수 있는 타원형의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은 17명의 통치체 성원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앉았던 라이먼 스윙글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나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날에도 아무도 (내가 속해있던 부서의 성원들조차도) 내 사무실이나 숙소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통치체 회의실에서는 어떤 형태의 따뜻함이나 형제애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오직 이전에 세속 법정에서 출두했을 때 느꼈던 감정만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세속 법정에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으며,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그들이 들

은 말과 본 일에 대해 증언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치체 법정은 폐쇄된 비밀 재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르네 바즈퀘즈에게 한 나의 행동에 대해 그들이 알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영만이 존재했습니다.

사회자는 사회자위원회에 의해 배교의 증거로 제시된 (그들의 4월 28일 메모에 있는)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듣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위선을 피하면서 양보와 타협의 영으로 중용을 지키며, 비교리적인 방법으로 각각의 사항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장위원회 메모에서 가장 극단적이었던 것은, 만일 누군가가 조직의 교리를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것은 조직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으로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이것은 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덟 가지 사항 중 어떤 것도 핵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느님께서 지상에 “조직”을 가지고 계신가가 아니라, 그 조직이 어떤 성격의 조직이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어느 조직이 중앙집권적이고 가장 조직적이며 권위 있는 조직인가, 그리고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돕고 인도하고, 섬기기 위한 권위가 유일한 권위인 형제들로 된 그리스도인 회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느님께서 이 통치체 성원들이 구성되는 것을 인도하셨는지 (또는 인도하실 것인지)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어느 정도나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통치체가 진정으로 하느님의 인도를 구한다면 하느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데 조금의 의심도 의문도 품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부 결정들, 특히 초창기에 내려진 결정들은 훌륭했으며 사랑에 찬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

한 인도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특정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하는 조건부의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착하는 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가 항상 함께할 것이며, 또한 그 고착하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베푸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고 믿는다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덟 가지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고발당한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의장위원회가 주장하듯이 교리적이거나 극단적인 말을 했다면, 나는 그들이 이성적이면서도 중용의 태도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고 유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또한 가능한 한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다른 문제에 관한 질문은 비교적 별로 없었습니다. 라이먼 스윙글은 내가 이의를 제기하고 통치체 회의의 주제가 되었던 성서 주석서들에 관한 나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나는 삼촌의 격려로 (「보조서」를 집필하는 동안) 성서 주석서들을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해오기 시작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성서 주석서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베델 도서관에 있는 수십여 종의 주석서들을 버리고 도서관을 비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치 시대에 강제수용소에서 수년을 보낸 마르틴 포에칭거는 여덟 가지 질문에 대한 나의 반응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설명한 것이 사실이라면 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그러한 비난을 하고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통치체 성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나를 비난한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sup>39)</sup>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나에게 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8절과 베드로 후서 3장 15,16절로 그의 주의를 끌어주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도 바울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비난을 받거나 오해를 산 경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솔직히,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비난받는 이 상황이 누가복음 11장 53절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나를 수많은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 죄를 짓는 말을 찾아 덮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sup>40)</sup> 전 주에 통치체가 한 행동은 오직 그러한 느낌만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포에칭거는 계속해서 “배교자”로 제명된 사람들에게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매우 흥분하면서 그는, 배교자들은 “협회를 떠나기 전에 협회 출판물들을 쓰레기통에 버림으로” 그들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베델 가족 내에서 가장 흔하게 퍼져있는 소문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그 소문은 어느 날 아침 한 통치체 성원에 의해 전체 베델 가족에게 보고된 것입니다.) 나는 마르틴 포에칭거에게,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 관련된 사람들과 대화도 없이 그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본부에서 일하는 15년 동안 나는 본부 가족 성원들이 버리는 수많은 협회 출판물들(오래된 잡지와 서적)이 담긴 “상자”가 벽장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아

---

39) 로이드 배리도 비슷한 불만을 토로했다. 사회자위원회가 만든 ‘배교’의 증명 서류에 있는 여덟 가지 점 모두에 대해 내가 “말끝을 흐렸다”는 것이다.

40) 「필립스 현대 영어 번역」이다.

는 바로는 제명된 베델 직원 중 일부가 푸에르토리코로 비행기를 타고 떠났으며, 그들이 가지고 간 짐 중에서 가장 무겁고 버려야 할 것은 바로 그러한 오래된 협회 출판물들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반복해서 소문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특히 재판관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노려보았지만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그 전 4월에 플로리다 홈스테드에서 내가 주관한 기념식(주의 만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sup>41)</sup> 기념식 연설에서 (땅의 희망을 가진) “다른 양”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인지를 물어왔고 나는 사실이라고 대답하면서, 내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브루클린으로 돌아온 첫 해에 겪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당시 아내와 나는 초저녁에 열렸던 한 회중의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 부협회장이었던 나의 삼촌의 전체 연설을 들으러 제시간에 베델 본부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우리는 삼촌과 함께 본부 성원인 말콤 앨런의 방에 초대되었는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내가 삼촌에게 “연설 때 ‘다른 양’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던데 왜 그러셨어요?”라고 물었습니다. 삼촌은, 그날은 “기쁨부음받은 자들”에게 특별한 저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집중하는 연설을 한 거지.”라고 대답했었습니다. 나는 통치체에게 부협회가 한 그 연설을 필기하였으며 기념식을 주관할 때 많은 경우 그 내용을 사용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그 내용을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기념식에는 협회장도 있었으며, 협회장도 그의 연설을

---

41) 여호와의 증인은 이 기념식을 일 년에 한 번, 유월절 무렵에만 한다.

들었습니다.) 그러자 통치체는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sup>42)</sup>

일부 사람들이 극단적인 말을 했었다는 면에서 나는 관련 사건에 대해 진실로 유감스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그런 일에 대해 알았다면 온 힘을 다해 막았을 것이라고 통치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분별없는 말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분별없는 말에 대해서는 나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별없는 행동과 악의적인 행동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악의적으로 비춰지고 다루어진 사람들, 내가 개인적으로 알아왔던 그 사람들의 그리스도인 특성에 대해 확신과 존경을 표했습니다. 르네 바즈퀘즈가 통치체에게 30년간 헌신한 것과, 푸에르토리코와 스페인과 미국에서 봉사한 그의 흠 없는 기록에 대해 내가 아는 바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통치체 성원들과 그토록 오랜 세월 함께 일하고 생활한 나에게 어느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일하게 사회자 슈로더가 나의 말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하지만 레이, 자네도 우리에게 완전히 솔직하지는 않았잖나. 자네도 [전화 통화에서] 집필부 내사에 관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잖아.”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점에 관해 물어보거나 했나?”고 하자,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만일 자네가 물어봤다면 나는 지체 없이 대답했을 거야. 에드 던랩도 나에게 전화해서

---

42) 루머 중에서도 전형적인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질문 편지가 왔다. 심지어 멀리 뉴질랜드에서도 편지가 왔다.) 내가 모두에게 표상물을 취하도록 말하고, 최종 모두가 따라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실로 가관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1980년 4월 플로리다에서는 단 두 명이 기념식의 표상물을 맡았었는데, 한 사람은 나였고 또 한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인근 교회에서 온 여자였다.

자기도 똑같이 했을 거라고 말하더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의장위원회 성원인 칼 클라인이 웃으면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우린 레이에게 모든 면에서 솔직하진 않았지.” 그리고 “만일 르네 바즈퀘즈가 레이가 했던 것처럼 대답했다면 그는 제명당하지 않았을 거야.”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칼이나 통치체 성원 중 그 누구도 르네와 이야기를 하거나 르네를 “조사하기 위한” 첫 면담에 참석하거나 또는 르네의 첫 사법 모임이나 상소 모임에 참석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러한 조사를 했던 사람들이 보내온 보고서에 따라 르네의 반응을 판단하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남에게 들은 것을 근거로 판단하거나 비교한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칼 클라인을 포함한 사회자위원회가 고디네스 부부와 보벨리의 적대적인 증언을 포함하는 고발 내용을 듣기 위해 고발자들을 만나는 데 기꺼이 시간을 낸 것과는 다르게, 그들은 **고발당한 사람들 중 단 한 명에 대해서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형제 사랑과 동료애 또는 동정심의 표본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치체 성원 중 대다수는 질문을 하거나 어떤 의견도 말하지 않은 채 그저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2~3시간 후에(감정적으로 복받쳐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떠나도 좋다는 말을 들었고, 나는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말을 듣고 내 사무실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오후가 되어 창밖을 보니 통치체 성원들이 정원을 지나 식당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3시쯤 되니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전 주에 있었던 의장과의 전화 통화와 그 통화가 얼마나 교묘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된 충격, 심한 심문과 압박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과의 이어지는 통화에서 나타난 비탄, 그

리고 신속하고 가차 없는 제명처분의 결정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에 대해 나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았던 일관된 통치체의 침묵, 그리고 그들이 그날 아침 나에게 보여준 냉정함과 이어지는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하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충격을 최고조에 달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무렵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의장 슈로더가 전화하여, 저녁 회기에 참석해서 통치체에 게 심도 있는 심문을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내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 아내는 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으며, 또한 내가 해야 할 말은 이미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통치체는 그들이 오전 회기에서 들은 내용만 가지고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우리 숙소보다 두 층 위에 사는 라이먼 스윙글이 내 몸 상태를 보러 들렀습니다. 나는 그런 스윙글이 고마웠고, 그에게 여러 주 동안 느꼈던 심한 긴장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은 통치체가 나에게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가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진리가 추하게 보였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고, 조직의 교리가 성서의 단순명료한 말씀을 왜곡하여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되었다는 것과, 그 단순명료한 성서의 말씀이 (그것이 조직의 해석 “패턴”에 맞지 않았기에) “배교”의 증거를 제공하는 왜곡된 가르침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선생은 오직 하나이며 여러분은 모두 형제입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과분한 친절 아래 있[습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몸도 하나이고 영도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의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이며 침례도 하나입니다. 모든 것의 하느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통해,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관할에 두셨으니,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sup>43)</sup>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자위원회가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 일종의 “신앙 고백”에 해당하는 여덟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 단 하나도 명확한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성서의 명확한 말씀이 있었다면 누구라도, 통치체이든 아니든 간에, “성서는 여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라고 지적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1. 하느님께서서는 지상에 하나의 조직 - 통치체가 말하는 조직 - 을 가지고 계시며, 통치체를 사용하여 그 조직을 이끄신다? 성서 어디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까?

---

43) 마태복음 23:8; 로마서 6:14; 8:14; 에베소서 4:4-6; 고린도 전서 11:26; 디모데 전서 2:5; 사도행전 1:7.

2. 하늘 희망은 그것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이유는 (1935년 이래로) 하늘 희망이 땅의 희망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 표상물에 관해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대속 희생에 믿음을 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성서 어디에서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3.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은 오직 특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반열”이며, 개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고 통치체를 통해서만 운영된다? 이 역시 성서 어디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4.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반열(집단)로 나뉘어, 땅과 하늘 희망에 근거하여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각기 다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어디서 그런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5. 계시록에 나오는 144,000명은 반드시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며, “큰무리”는 하느님의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는 개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서 어디에서 그러한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까?
6. “마지막 날”은 1914년에 시작되었으며,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17에서) 오순절부터 적용시킨 “마지막 날”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3:1에서) 말한 “마지막 날”과 동일하지 않다? 어디서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7. 기원 1914년은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온 땅에 대한 왕으로 공식 즉위하신 해이며, 그 해는 그분의 파루시아(임재)가 시작된 해이다? 성서 어디에?
8. 히브리서 11:16에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 “더 나은 곳

곧 하늘에 속한 거처를 얻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라고 한 말씀은 그들이 하늘 생명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서 어디에?

위에 언급된 협회의 교리 중 단 하나도 성서의 명료하고 직접적인 말씀에 의해 지지되는 것은 없습니다. 각각의 교리는 매우 복잡한 설명과 문맥의 복잡한 조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부 교리의 경우에는 그것을 지지하는 데 정신적으로 많은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위의 교리는 사람들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었고, 하느님께 대한 봉사에 그들의 삶을 쏟아 부었던 이들을 배교자라고 판단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통치체 앞에서 심문을 받은 다음 날 아침, 의장 슈로더는 내 방으로 와서 본부 직원인 파비오 실바의 추가 증언에 대한 내 대답을 녹음하려 했습니다. 언젠가 르네 바즈퀘즈가 자신을 공항에서 협회까지 태워 주면서 했던 말을 파비오 실바가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소문에 근거한 증거에 대해서는 전혀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나는 그곳의 압제적인 분위기에서 빠져 나오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났음을 알았을 때 나는 내 방을 나와서 위층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그의 방으로 가는 라이먼 스윙글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되냐고 묻자, 그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오후쯤에는 통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서 나는 일부 통치체 성원들이 나를 제명시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일부 성원들이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돼. 나는 반대했다네, 아~ 내가 얼마나 반대했는데...” 그리고 그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깨를 들썩이면서 내 앞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갑자기 그를 위로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스윙글에게 통치체의 결정이 어떤 것이든지 정말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그저 이 문제가 빨리 끝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윙글이 계속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나는 그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도록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는 통치체 성원 중 여호와의 증인 조직에 라이먼 스윙글보다 더 헌신적인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존경과 애정을 동시에 느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정직함과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스윙글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마 그때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날 복도에서 보여주었던 진실한 감정을 가진 스윙글을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슬픔 속에서 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sup>44)</sup>



● 라이먼 스윙글

그 날 오후 의장 슈로더가 통치체의 결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명처분을 주장했던 성원들이 3분의2의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슈로더가 나에게 통치체와 본부 직원의 사임을 요구하

44) 몇 개월 후 라이먼 스윙글은 통치체의 구성원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집필위원회 성원 및 집필부 조정자로서의 역할에서는 제외되었다. 대신 로이드 배리가 그 역할을 맡았으며, 스윙글은 얼마 후 사망했다.

는 결정만을 간단히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통치체는 나를 (아내를 포함해서) “병가 중인 특별 파이오니아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순회 혹은 지역감독자가 노령으로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감독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종종 제안되는 제도입니다.) 그 목록에 포함된 사람들은 매달 협회에 보고서를 쓰며 매달 협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파 사업에서 “할당된” 시간을 채우는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sup>45)</sup> 나는 슈로더에게, 아내와 나는 어떤 의무를 지는 것이라면, 심지어 그것이 실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마련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슈로더는 「성서 이해를 위한 보조서」가 “너무도 훌륭한 작품”이었다며, 몇 마디 말을 하고는 우리 숙소를 떠났습니다.

나는 사임서를 썼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사임서에 있는 내용을 현재까지도 지키고 있습니다.

---

45) 당시의 1인당 수당은 한 달에 약 175달러였던 것 같다.

---

May 22, 1980

Governing Body

Dear Brothers:

By means of this letter I submit  
my resignation as a member of the  
Governing Body.

I will also be terminating my Bethel  
service.

My prayers will continue to be offered  
on your behalf as well as for Jehovah's  
Woods servants worldwide.

Your brother,

RF Franz

---

1980년 5월 22일

통치체

친애하는 형제들께:

나는 이 편지로 통치체 성원으로로서 사임한다는 뜻을 밝힙니다.

나는 또한 베텔 봉사도 중단하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상 전역에 있는 모든 여호와 하느님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형제인,  
레이몬드 빅터 프랜즈.

아내와 나는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 며칠간 본부를 떠났다가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많은 파일을 두고 떠났지만,

이 문제와 개인적으로 깊이 관련된 파일들은 먼저 챙겨 떠났습니다. 앞선 몇 가지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 사건과 관련된 나의 입장이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므로, 나의 입장을 문서화해 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에드 던랩이 본부 건물 밖에 서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날 사법위원회에 출석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에드는 당시 69세였고, 한 해 전에 그러니까 1979년에 본부를 떠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통치체 내외부에서 그 문제로 인해 자신을 좋지 않게 평가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괴로운 나머지 에드는 어느날 집필위원회에 그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집필위원회는 라이먼 스윙글, 로이드 배리와 어트 치티를 임명하여 통치체 성원 칼 클라인에게 이야기하도록 마련해주었습니다. (칼 클라인은 당시에 집필위원회 성원이 아니었으며, 나중에 치티가 사임한 후에 집필위원회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칼 클라인에게 에드의 사무실 출입을 금하고, 에드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비평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금하는 동시에 에드에게도 비평적으로 말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회기 중 통치체 내부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지만, 통치체 외부에서는 일정기간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1979년 말에 나는 에드에게 본부를 떠나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자신도 그 문제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보았으나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나이와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그는 자신과 아내가 먹고 살길을 합리적으로 찾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본부에 남아있음으로 인해 적어도 에드와 그의 아내는 살 곳과 먹을 것과 필요한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

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부에 머물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만일 집필위원회에 있는 것이 너무 골치 아프게 되면 그냥 목공 쪽이나 다른 종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할거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 년이 조금 안돼서 사법위원회에서 자신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를 본 날, 그는 “나는 사법모임에서 정말 솔직하게 말할 거야. 돌려 말하는 것은 나에겐 안 맞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법위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5월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사회자위원회가 고디네스 부부 면담 테이프를 통치체 성원들에게 들려준 지 6주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그 테이프에는 에드워드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좀 정보를 찾고 있을 뿐”이라며 로이드 배리와 잭 바가 에드워드를 안심시켰을 때부터 6주 정도가 지나간 것입니다. 그 시간동안 에드워드 던랩은 계속해서 본부에 있었고, 통치체가 거의 마지막으로 맡긴 업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있었지만, 사회자 위원회에 속한 어느 누구도 그를 매장시키기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체적인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게다가 그들 모두 에드워드와 매우 친밀한 사이였는데도 그에게 단 한마디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sup>46)</sup>

에드는 먼저 배리와 바와 면담을 했습니다. 그 후 거의 6주 동안, 거

---

46) 앨버트 슈로더는 길르앗 학교에서 수년간 에드워드 던랩과 함께 동료 강사로 일했다. 칼 클라인과 집필부에서 함께 일했으며, 게다가 집무실은 에드워드의 옆방이었다. 그랜트 수터는 일 년 전쯤에 자신에게 할당된 일(지부 세미나의 개요를 정리하는 일)을 에드워드 던랩에게 대신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 자신은 매우 바쁘며 에드워드가 “어차피 잘할 테니까”라는 이유였다.

의 50년을 연합하고 약 40년을 전 시간 봉사자로 일했으며 하늘 희망을 가지고 살던 이 70살이 다 된 에드에게 통치체 성원 중 그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하느님의 말씀으로 추리하거나 그와 함께 토의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이 말이 사실임은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통치체가 보기에는 에드워드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지만 그들이 행한 처사는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제명된 사람들 중 몇몇이 분별없는 말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취해진 앞서 언급된 조치들은, 내가 생각하기엔, 제명된 사람들이 한 분별없는 말에 비해 너무나 가혹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sup>47)</sup>

에드 던랩을 판단하는 일은 5명의 본부 직원으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임명받았으며, 통치체는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임명된 5명은 모두 에드보다 나이가 적었으며, 아무도 자신을 “기름부음받은 자”라고 공언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단 하루의 조사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전형적인 태도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반열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에 관한 조직의 교리에 대해 의견을 묻자, 에드는 그들에게 로마서 8장 14절을 제시하며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에드가 “다른 식으로 이 성구를 이해할 방법이 있는가?”라고 묻자, 에드가 사무관으로 있을 때 길르앗 학교 강사로 일했던 프레드 러스크는 “오, 에드, 그건 그냥 당신의 해석일 뿐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

47) 요한 1서 3:14-16,18.

다. “그렇다면 형제는 이 성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에드가 묻자, 프레드 러스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봐요, 에드, 지금 재판 받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예요.”

조직이 정한 법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그리스도인은 법 아래 있지 않고 과분하신 친절(또는 은혜)아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에드는 믿음과 사랑이 법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로버트 월렌은 “하지만 에드, 난 누군가가 내가 뭘 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이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에드는 히브리서 5장 13-14절에서 사도가 말한 바, 그리스도인은 아기가 아니라 성숙한 개인으로서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성서를 더 읽어보아야 하겠군.” 로버트 월렌이 웃으면서 “저와 이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이죠.”라고 말하자, 에드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핑계가 될 수는 없네.”라고 응수했습니다. 에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즉 형제들이 성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출판물만을 의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양심은 진정으로 성서로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기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주요 현안은, 에드가 이제는 제명된 사람들과 두 번 가졌던 성서 토의였습니다. 에드는 모든 부면에 있어 처음부터 완전히 개방적인 태도로 사법위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법 모임은 제명된 사람들과의 대화로 인해 에드를 문제 삼을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제명된 사람들은 두 번의 경우

모두 에드와 함께 로마서를 토의하고, 그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려고 했던 것일 뿐입니다.<sup>48)</sup>

사법위원회는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점에 관해 이야기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그것을 “광고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도움을 구하면,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성서를 제시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을 도와줘야 할 의무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십중팔구는 이 말이 사법위원회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적으로 성서에 대해 토의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자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그것은 이단으로, 분열시키는 위험한 요소로 취급되었습니다.

사법모임에서 있었던 말 중에 특히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에드가 그들에게, 자신은 제명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현재 즐기고 있는 형제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하자, 사법위원회는 에드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조직을 기다려 보세요, 누가 압니까? 한 5년쯤 후에 형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 모두 또는 상당수가 출판물에 실리고 교리로 확립될지 말이에요.”

그들은 조직의 교리가 수시로 변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다. 따라서 의심할 여지없이 그들은 그러한 생각을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쟁점들에 대해, 확고한 성서적 근거가 있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만일 그들이

---

48) 에드워드는 지부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서 로마서 강좌를 맡아 보도록 통치체 교습 위원회로부터 지시를 받았었다.

그 문제들에 대한 조직의 교리가 확고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어떻게 당시의 교리를 근거로 에드가 하느님의 충실한 종인지 배교자인지 결정할 수 있었던 말입니까?

만일 그들이 (의장위원회에 의해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되었던) 교리들이 변경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고려했다면, 5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기다려 볼 가치는 없었던 것일까요? 또한 조직에 대한 봉사로서 5년이 아니라 50년을 보낸 에드에 대해 어떤 형태의 사법조치라도 연기할 가치는 없었던 것일까요?

사법위원회가 취한 이러한 행동은 한 개인의 명성과 힘들게 쌓은 평판, 그리고 생애를 다 바친 봉사를 포함한 그 개인의 이익이 한 조직의 목적에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소모품처럼 버릴 수 있다는 가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법위원회가 비록 던랩을 정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입장이었을지라도, 그들 모두는 에드워드 던랩이 하느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성서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사법위원회는 사회자위원회를 통해 전달되는 통치체 내부의 분위기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직의 해석과 주장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았던 던랩에 대해 그러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조직에 대한 충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드워드 던랩을 제명시켰습니다. 그리고 던랩에게 그의 집이었던 베텔 본부를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던랩은 일흔 두 살의 나이로 자신이 자란 오클라호마로 돌아가, 자신과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 도배공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일은 그가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의 전 시간 대표자로서 40년간의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일입니다.<sup>49)</sup>



· 에드워드 던랩과 그의 아내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할 - 정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 사람들이 과연 한밤중에 하느님께 나아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서는 그것을 상상하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

49) 에드워드 던랩은 86세가 될 때까지 생계를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했다(신체가 노쇠하여 도배 일은 계속 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1999년 9월 1일 8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제12장

파장

C r i s i s o f C o n s c i e n c e



...

내가 떠난 뒤에 압제적인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 떼를 부드럽게 대하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압니다.

사도행전 20:29

“비단 장갑 속에 있는 철의 손”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1980년 봄, 조직의 지도부에서 이 속담과 같은 잔혹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잔혹함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해 봄에 일어난 사건으로 마침내 비단 장갑은 벗겨지고, 그 안에 있던 악랄하고 잔혹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파장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명의 베텔 장로로 이루어진 사법위원회가 정의란 이름 아래 통치체를 대신하여 에드워드 던랩(Edward Dunlap)을 제명시키기로 했습니다.(역자: ‘에드워드 던랩’은 이하 ‘에드’라는 애칭으로 대신할 수도 있음) 그들이 이 사실을 전하자, 에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이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배교자’라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배교자는 하느님이나 예수에게 반역하는 사람이지만, 알다시피 저는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회중에 매달 배부되는 「우리의 왕국봉사」 1980년 8월호 1면에는 “다수의 베텔 성원들이 조직에 반하는 행위로 배교자가 되었다.”라는 기사와 함께 그들이 제명되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실이 아닌 부분이(그들이 조직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기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표현이 떠도는 소문보다는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1980년 5월 28일, 베텔본부 가족들은 사임을 알리는 나의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29일에는 베텔 장로 다섯 명이 소집되었는데, 봉사부와 통치체에서 일하고 있던 존 미첼 *Jon Mitchell*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아프리카에 가야 했을 때, 비자 수령 문제로 존에게 한 번 연락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명된 사람들 중 그 누구하고도 대화를 나눠 본 적이 없었지만, 사무실에서 사법위원회의 편지 일부를 보았고, ‘이단’ 재판에 대한 부서의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로 회의에서 통치체 성원 슈로더 *Schroeder*와 배리 *Barry*의 발언에 대해 존이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슈로더의 발언은 조직에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슈로더는 ‘잘 짜여진 조직’의 규칙과 규정을 따를 수 없는 성원은 ‘조직을 떠나야 하며, 더 이상의 작업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슈로더는 「지부조직」이라는 책을 보여 주며, 조직이 얼마나 ‘잘 짜여진’ 단체인지 말했는데, 그 책자에는 본부 및 지부에 대한 1000가지 이상의 규칙과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마녀사냥’이 아님을 강조했지만, 그래도 뭔가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명되는 사람들에 대해 그는, “이들이 성경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면 무신론자라고 했었겠죠.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슈로더는 발언을 끝맺고 베텔 장로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럴드 잭슨이 손을 들고 공개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지만 슈로더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편지로 하면 된다고 했지요. 다른 장로 워런 웨일은 제명되는 형제들에게 “충성 서약”을 할 기회가 주어졌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슈로더는 그 당시 그럴 시간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로이드 배리도 역시 그들이 배교자들로 보이도록 애쓰면서 조직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듯했습니다. 배리는 잠언 24:21,22을 읽은 후 성구에 나온 것처럼 “변화를 추구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지요. 그는 독립적으로 성경공부를 하기 위해 모이는 성원들에 대해서는 아주 경멸하는 투로 말하고, 그들이 심지어 월요일 저녁에 베텔 성원들이 함께하는 파수대 연구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모임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배리는 그리스도교국의 주해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봉사부 형제들은 「반스의 신약 주해」를 소유하고 공공연히 사용했지만 배리의 이 발언으로 즉시 서랍 안에 숨겨버렸습니다.) 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지닌 “풍부한 유산”에 대해 말하고는, 본인처럼 이런 유산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성원들에 대해서는 드러내 놓고 화를 냈습니다. 그들이 조직의 성장과 발전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요.

로이드 배리는 이 문제와 관련된 성서적 관점이 무엇인지, 또는 다수에 의해 제기된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전혀 토의하지 않았습니다. 존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는, 처음 연이은 제명 처분들과 프랜즈 형제의 사임을 들었을 때 놀란 것 이상으로 역겨운 감정까지 일어났습니다.

「파수대」 1980년 8월 1일호(한국어판은 12월호)는 ‘배교를 구분짓는 특징’에 대한 다양한 예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직이 진정으로 의도했던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임을 알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 1) 자유로운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제한한다. - 성경을 불태워 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해설서를 읽거나 자유롭게 성경에 대해 논하는 것은 금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왜 통치체는 조직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존경받는 성서학자들이 관련된 이 문제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이 숨기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가 이런 종류의 시험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인가요?
- 2) 성경이 아니라 풍부한 유산이나 조직의 전통을 더 중요시 한다. - 바리새인처럼 다른 여러 종파도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서는 하느님의 말씀보다 관습에 더 치중을 둔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조직과 조직의 규율에 대한 충성을 확약 받기 위해 요구된 ‘충성 서약’은 나를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3) 신속한 사법 제도. - 이것은 통치체가 형제들을 섬기기 위한 목적보다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문제들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 같았습니다. 문제를 신중히 분석하여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결론을 낸 뒤 행동해야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언젠가 장로회의 때 떠올랐던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잠깐, 천천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조직을 사랑하고 굳건한 진리에 기초한 결정을 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존처럼 처음엔 나도 이 악몽이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양심적인 몇몇 사람들의 발언을 통해, 이 세계적인 조직에 위협이 되는 감정적이고 히스테릭한 “강압적인 생각”들이 이성적이고 분별력 있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1980년 9월 1일 협회 봉사부에서 여행하는 감독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래는 편지의 첫 두 페이지를 발췌한 것인데, “양떼를 보호하라”는 제목 아래의 글을 특히 주목해 보십시오.<sup>1)</sup>

---

1) (역자): 본 12장에서는 많은 분량의 서신들이 나옵니다. 영문판에서는 이러한 편지를 직접 복사해서 본문에 실었지만, 한국어판에서는 지면 관계상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편지 이미지를 직접 실지 않고 번역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뉴욕법인

미국 뉴욕 브루클린 애덤스 길 *street* 117, 11201 전화:(212) 625-1240  
SCG:SSF

1980년 9월 1일

모든 순회 및 지역 감독자들에게

친애하는 형제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내는 “하느님의 사랑” 지역 대회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회에서는 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중 사랑이 가장 으뜸인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고린도전서 13:13).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은 연합 가운데 머물도록 도와줍니다(골로새서 3:12-14)

형제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나타난 사랑에 대해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 한 장로회에서는 그들의 순회감독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여호와의 뜻에 따라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문제를 잘 도와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그와 쉽게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형제들의 문제에 공감해 줍니다. 그런 형제야말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 기댈 수 있는 그런 형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들의 일에 관심을 보이게 될 때, 그 형제 역시 우정과 화합과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빌립보서 2:19-23,29). 그러므로 계속 형제들을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결코 그들을 압박하지도 비난하지도 말고 그들의 요구에 맞추어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의 깨우침이 느리다고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인내로 그들을 대한다면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마태복음 11:28-30).

## 양떼를 보호하라

‘하느님께서 돌보시는, 그분의 양 무리를 치는 목자’로서 감독자의 주요 책임은 그 양들을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사도행전 20:28) 사도행전 20:29절과 30절에 의하면 이러한 위험 중 하나는 ‘배교’입니다. 「파수대」 1980년 8월 1일호에서는(한국어는 12월호) 이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모든 장로들과 봉사의 종들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순회방문 때 ‘배운 것 안에 머무르십시오.’ 라는 프로그램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십시오.

문제를 일으킬 자가 누구인지, 믿음이 약하고 의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를 장로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베드로후서 2장, 유다서 22-23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자는 성경적으로 교훈한 후 단호히 처리해야 합니다(요한 2서 7-10절). 반면,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형제는 인내와 사랑으로 그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편지 2면)

배교자는 그의 견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제명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파수대」 1980년 8월 1일호 17면(한국어는 1980년 12월호 18면) 두 번째 항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배교’라는 단어가 유래한 그리스어는 ‘물러섬’, ‘떨어져 나감’, ‘이탈’, ‘반항’,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통해 베푸시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성서에서 금하는 다른 교리를 믿고 주장한다면 그는 배교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생각을 바꾸주기 위해 온화한 방법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

람이 계속해서 배교적인 사상을 믿고 “종 반열”을 통해 제공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적절한 사법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 장로들이 개인적인 믿음을 일일이 물어보며 ‘마녀사냥’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로들은 유의해야 할 만한 증거가 나올 때 다른 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처리할 때는 신중히 처리하십시오. - 야고보서 1:19,20.

### 장로회들 사이의 협조

협회에서는 대도시에서 잘못된 일이 일어날 때 여러 회중이 함께 연루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회중의 장로회는 온전히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회중의 장로들은 다른 회중에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이를 알려 협조를 구하십시오. 누군가 지각없이 잘못된 행동에 연루된다면 바로잡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이는 엄격히 꾸짖어야 하고,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회중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순회구의 장로들을 대상으로 1979년 가을에 있었던 학교의 교재 내용 중 ‘회중 내의 문제가 있을 때 장로들은 협조하라.’라는 주제 13번 조항을 장로회에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어떤 정보든지 신속히 해당 회중에 넘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은 하느님께 잘못된 행동이 회중에 침투하고 퍼지는 것을 막고자 할 것입니다(고린도전서 5:6-8). 사법위원회는 그로 인해 초래된 회중 전체의 불명예를 용서하기 전에 그 당사자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인과 따끔한 충고가 있었다 해도 그 당사자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장로들은 기꺼이 과단성 있는 결정을 하여 양떼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편지는 공식적인 정책을 담고 있는데, 조직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믿으면 - 단순히 믿을 뿐 퍼뜨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 “배교자”로 여겨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 편지에는 하느님 말씀의 근본적 가르침(예를 들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대속물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피를 흘리신 것, 또 부활과 같이 명백히 나온 성서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의 차이로 배교로 규정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대신, 배교자란 하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제공하는 여호와와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마치 왕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증거가 왕의 어명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결정을 전달하는 전달자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1980년 9월 1일자 편지에는 “SCG”라는 기호가 있어, 리언 위버가 작성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사상통제’ 정책은 어느 한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누군가가 어쩌다 즉흥적인 말을 하고는, 그 후에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다고 반성하고 끝날 문제도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봉사부 위원회 성원 중 한 명이고, 그 위원회에는 할리 밀러<sup>Harley Miller</sup>, 데이비드 올슨<sup>David Olson</sup>, 조엘 애덤스<sup>Joel</sup>

Adams, 찰스 우디 Charles Woody, 그리고 리언 위버 Leon Weaver가 있습니다. 모두 수십 년의 경험 있는 협회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은 미국 내에서만 수 천 개의 회중, 백만 명 정도의 증인, 그리고 모든 장로와 순회감독자와 지역 감독자의 활동을 감독하는 통치체의 대행자입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통치체와 연락하여 통치체 정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봉사 위원회는 통치체의 생각, 관점, 정신에 잘 맞춰져있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이 편지는 소름이 끼칩니다. 봉사 위원회에 여러 해 있었던 나의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중요한 편지를 보내려면 반드시 통치체 봉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sup>2)</sup> 만약 봉사 위원회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할 경우에는 그 편지를 전체 통치체 회의로 보내게 됩니다.

때문에 그 편지에 포함된 정책(종교적 재판의 기준이 되는 정책)들은 통치체 성원들과 본부 대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진정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라고 한다면, 1980년 9월 1일자 편지에는 친구 관계, 가족 관계, 개인적 명예, 그 밖의 인생 모든 것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오랜 시간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되어야만 했습니다. 나중에 “글쎄, 우리 표현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라고 말하며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이 보여주듯이 이 사상통제 편지로 인해 증인들, 그것도 많은 증인들이 실제로 제명되었고, 또 계속 제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의 해석을 모두 받아들이는 어렵다는 마음 때문에 “배교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것입니다.

---

2) 그 당시 봉사 위원회 구성원은 시어도어 재라스(조정자), 밀턴 헨첼, 앨버트 슈로더, 윌리엄 잭슨, 마르틴 포에칭거였다.

아마도 이 정책은 몇 해 전 뉴욕 회중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의 영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봉사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존 미첼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1980년 초 여름) 프레더릭 W. 프랜즈가 쓴 메모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해럴드 잭슨(봉사부 성원 중 한명)이 누군가에게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는 스페인 회중의 파이오니아(전 시간 전파자)인 자매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명을 문자적 숫자로 받아들여 전파하는 것이 양심에 걸린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매는 성서연구생에게 14만 4천명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이라고 가르치고 싶지 않고, 자신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잭슨 형제의 질문은 이런 성원들을 '배교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프레더릭 W. 프랜즈의 메모 대답은, 그런 사람은 배교자로 봐야 하며 협회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제명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못 박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봉사부의 한 사람은 그 사건의 결과를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그 자매는 자신의 의견을 철회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이 아무 부끄럼도 없이 이렇게 처리되는 것에 무척 놀랐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앞서 언급한 1980년 9월 1일자 편지를 본 후, 장로들과 그 외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센 반발은 아닐지라도, 놀라움의 표현들이 터져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그들이 너무나 잘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극히 일부만 그것도 '배교자'라는 낙

인이 찍히지 않는 수준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유감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반발이 없었던 이유는 바울이 권고한 것처럼 ‘하느님의 선하고 받아들이실 만하고 완전한 뜻’을 스스로 분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sup>3)</sup>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성서에는 이런 사상통제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들이지 인간이나 조직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sup>4)</sup> 그렇다면 왜 그러한 통제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조직’이라는 개념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조직이 무슨 말을 하든 “이것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이 편지뿐 아니라 앨라배마 순회구 장로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 이 조직이라는 개념이 만들어낸 효과가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지역감독자 바트 톰슨 *Bart Thompson*은 녹색 표지의 책을 하나 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조직이 이 책을 녹색이 아니라 검정색이라고 말한다면, 녹색인 것이 확실하더라도 녹색이 아니라 검정색인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예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맹목적 믿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증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직의 해석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해도 그저 순종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통치체를 포함한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보고 그들과 함께 했

---

3) 로마서 12:2

4) 고린도후서 10:5

있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그들은 관념의 포로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이라는 관념과 이미지가 각자의 개성을 없애고, 그들의 생각, 태도, 판단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며, 그들을 움직이고 제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조직이 아니라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성경 그리고 그리스도인 형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직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생각과 견해가 바뀌어 결국 조직의 지배와 통제 아래 있게 됩니다.

통치체 성원들도 조직을 말할 때 실체가 아니라 관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조직이란 매우 크고 웅장하며, 수치적으로 어마어마하고,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무엇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생각은 사실보다 조직을 과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에 대한 충성”을 말할 때 그들이 **알아야 할 것**, 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조직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 - 예를 들어 세계적인 수천의 회중과 그 성원들 - 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권위와 가르침과 지시가 시작된 **근원**에 대한 충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체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지도 않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절대적 충성의 대상은 바로 “**조직**”입니다. 그 외에 어떤 권위가 있더라도 - 예를 들어 지부 위원, 지역 또는 순회감독자, 회중 장로회 - 그 모든 권위도 결국 전적으로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 귀속됩니다. 그들 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어떠한 문제 제기도 받지 않고, 조종되고 변경되고 지시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깨어라!」 2000년 6월 22일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습니다:

구호란 일반적으로 어떤 견해나 목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뜻

이 막연한 문구를 말합니다. 뜻이 막연하기 때문에 쉽사리 동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분쟁에 휘말리게 될 때 선동 정치가들은 “옳든 그르든 내 조국”이라든지 “조국이 있어야 종교도 있고 가정도 있다.”라든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와 같은 구호를 사용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나 분쟁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 문제를 주의 깊이 분석해 봅니까? 아니면 듣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선전가에게는 또한 21발의 예포, 군대식 경례, 깃발 등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상징물과 표시들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삭빠른 설득자의 손에 의해서 조국이라든지 모국 또는 모교회와 같은 상징이 요긴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교활한 선전 수법은 사고 기능을 마비시키고, 명료한 생각과 분별력을 저해하며, 개개인을 길들여 군중 심리에 따라 행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통치체 성원들과 여호와의 증인 대부분은 이렇게 조직을 구체적인 실체가 아닌 정의되지 않은 무엇, 추상적인 무엇, 관념적인 무엇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머니 같은 회중이 아니라 어머니 같은 조직으로 받아들입니다. 조직에 대한 이런 환상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의 권력을 가진 통치체의 일원이 되어, 조직을 잘못 이끌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도 개인적 책임감은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뒤늦게 잘못된 결정이나 교리를 바꿀 일이 생겨도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

으로 제명되거나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니라 조직이 한 일이다.”라고 말하며, ‘조직은 하느님이 선택하셨으니 책임도 하느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즉 통치체 성원은 개인적 책임에서 면제되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통치체를 비난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들, 바탕이 친절한 사람들이 평범했다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조직이라는 관념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이라는 관념은 비극적이고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을 “배교자”라고 하면서 가하는 극단의 조치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니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원망과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원망은 스스로를 자멸시키고 망가뜨립니다. 이들이 우리 집에 온다면 나는 잘 대해 줄 것이고, 어떤 질문을 하거나 사과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내 친구들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위배됩니다.

내가 통치체 회의에 참석했을 때 대화 내용은 녹음이 됐고, 그 녹음 테이프의 복사본을 받기로 약속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테이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와 관련한 다음의 사례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점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앨라배마로 돌아온 지 약 3주 후, 나는 통치체에 연락해 녹음테이프 복사본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1980년 6월 26일, 나는 다음과 같이 답장을 받았습니다:

##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뉴욕법인

미국 뉴욕 브루클린 컬럼비아 하이츠 124, 11201. 전화: (212) 625-1240  
1980년 6월 26일

레이몬드 V. 프랜즈  
P.V. 그레저슨씨 댁  
Route 4, Box 444  
개즈던 AL 35904

친애하는 프랜즈 형제:

6월 14일에 보낸 형제의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발송부에 검토해 본 결과, 형제의 가구가 포장되어 6월 24일 화요일  
브루클린 사무실에서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가구를 곧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청한 테이프는 복사본이 만들어지는 대로 즉시 보내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당신에게서 두 개의 운영지침서를 즉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  
회 강연 원고도 꼭 동봉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며, 우리의 그리스도인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인,  
펜실베이니아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사회자 위원회<sup>5)</sup>

5) (역자): 통치체 산하에 6개의 위원회가 있다. '사회자 위원회'(Chairman's Committee)는 나머지 5개 위원회의 조정위원들과 서기 한 명으로 구성되며 전원 통치체 성원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조정자 위원회'(Coordinators' Committee)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파수대」 2010년 6월 15일 호의 설명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세계 전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영향을 주는 주요 비상사태, 박해, 법적문제, 재해 및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라고 나온다.

그리고 2주가 지난 후, 다음과 같은 답장을 한 통 더 받았습니다:

###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뉴욕법인

미국 뉴욕 브루클린 컬럼비아 하이츠 124, 11201, 전화 : (212) 625-1240  
1980년 7월 10일

레이몬드 V. 프랜즈  
P.V. 그레거슨씨 맥  
Route 4, Box 444  
개즈던 AL 35904

친애하는 프랜즈 형제:

6월 26일 보낸 편지에 대한 추가적 내용:

얼마 전 저희 쪽으로 「지부 조직」과 「통치체 운영지침」서를 돌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발송부에 따르면, 형제의 가구가 보내져 잘 도착했다고 하더군요.

조정위원회는 당신이 요청한 5월 20일(통치체 회의가 21일에 있었으므로 21일 테이프임을 상기시켜드립니다.) 테이프는 '주의를 요' 하는 것으로, 이 날짜에 만들어진 그 어떤 테이프의 복사본도 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에 통치체 성원에게 보낸 기밀문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명된 베텔 가족 중 한 명에게 전달되어 유포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통치체는 협회를 떠난 회원에게는 회중의 기록(녹취든 서면이든)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당신의 신분엔 변화가 생겼습니다. 향후 테이프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베텔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구두로 또 서면으로 테이프의 복사본을 받아 볼 수 있다고 했던 것은 상황이 변하기 전이고, 이제 더 이상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통치체가 이것을 신중히 검토했다는 것을 당신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며,

이 조치가 적절한 것임을 당신이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 처리되길 바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사랑과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인,  
펜실베이니아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사회자 위원회

이 편지를 보니 조정자 위원회가 처음에 조치를 취하고 그로 인해 여러 사람이 제명되었던 사건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어서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그들이 편지에 쓴 '4월에 통치체에게 보낸 기밀 문서'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동안 나는 제명된 사람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었고, 앨라배마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답장을 했습니다:

1980년 7월 19일

워치타워 협회  
수신: 사회자 위원회

친애하는 형제들:

7월 10일자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보내신 가구도 이상 없이 잘 받았으며, 발송부 형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에게 발송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5월 21일(5월 20일은 실수였습니다.) 테이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테이프를 보내주기로 했던 것은 녹음 전 통치체 사회자께서 동의하셨던 사항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제가 베텔 성원이든 아니든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녹음한

테이프를 달라고 했고, 이에 대한 허락 후에 녹음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면으로 이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이상 그 테이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든지 위원회는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면 녹음한 테이프와 서면 기록을 없애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테이프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 위원회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그 녹음테이프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녹음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전부 검토해 보진 않았지만, 위원회에 돌려줘야 할 문서가 더 있다면 발견하는 대로 즉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에 관한 조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테이프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 테이프와 서면으로 기록된 문서를 폐기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의 문제에 대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왕국의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해 지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레이몬드 V. 프랜즈

다음은 이에 대해 통치체로부터 3주 후에 받은 답장입니다.

###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뉴욕법인

미국 뉴욕 브루클린 컬럼비아 하이츠 124, 11201, 전화: (212) 625-1240  
1980년 8월 8일

레이몬드 V. 프랜즈  
P.V. 그레저슨씨 댁  
Route 4, Box 444  
개즈던 AL 35904

친애하는 프랜즈 형제:

사회자 위원회가 7월 10일에 보낸 편지에 대한 형제의 7월 19일자 답장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7월 10일 편지에서 말했듯이, 통치체는 5월 21일 테이프를 당신에게 발송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그 테이프의 내용을 듣고 싶으면 베델에 와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동료 여호와의 종들인,  
펜실베이니아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사회자 위원회

그들은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경험한 비현실적인 느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편지의 문구는, 모든 권리는 '조직'에만 있고 개인의 권리는 중요하지 않으며 가볍게 무시해 버려도 상관없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1980년 8월 28일

사회자 위원회  
뉴욕 브루클린

친애하는 형제들:

저에게 보내 주기로 했었던 테이프에 대한 편지를 제가 7월 19일에 보냈었고, 그 편지에 대한 답장을 8월 8일에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제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지만, 제 문의에 대한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형제들께서 7월 10일에 보낸 편지의 요약본이었지, 7월 19일에 제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위원회는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5월 21일에 녹음된 테이프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를 한 후에 일방적으로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6월 26일 위원회가 저에게 보낸 편지에는 테이프를 보내겠다고 한 것을 인정하며, 보내려고 준비 중이고 곧 저에게 보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미 제 지위는 바뀐 상태였는데, 이제는 테이프를 줄 수 없다는 이유가 제 상황이 바뀌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월 10일 편지에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제시한 이유는 여전히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레위기 19:15과 로마서 1:31에 나와 있는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테이프 복사본을 외부로 인출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가 우려한다고 했기에, 저는 아주 정중하게 대안 책으로 그 테이프와 그 밖의 기록 문서를 없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테이프를 계속 소장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저에게 보내 처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 제가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면 위원회는 지금 제가 하는 것과 똑같이 테이프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 마태복음 7:12

이 편지는 저와 위원회와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천한 지위에 있더라도 이 편지와 7월 19일에 보낸 편지를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레이몬드 V. 프랜즈

거의 한 달 후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GT/A September 24, 1980

Raymond V. Franz  
Route 4, Box 440F  
Gadsden, AL 35904

Dear Brother Franz:

Your letter of August 28, 1980 has been received and has been given consideration.

This is to inform you that the tapes of the May 21, 1980, meeting to which you have made reference have now been destroyed. There are three witnesses of the Governing Body who were present when such tapes were destroyed. There were no written transcripts made of the material that was taped, nor were any taped copies made of the recordings. The tapes have been totally destroyed.

This is in accordance with your wishes as set out in your correspondence to us.

Your brothers,

*Watch Tower B. & T. Society*  
OF PENNSYLVANIA

For the Chairman's Committee

###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뉴욕법인

미국 뉴욕 브루클린 컬럼비아 하이츠 124, 11201, 전화: (212) 625-1240

1980년 9월 24일

레이몬드 V. 프랜즈  
P.V. 그레저슨씨 닉  
Route 4, Box 444

친애하는 프랜즈 형제:

당신이 8월 28일에 보내신 편지는 잘 받아 신중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1980년 5월 21일에 녹음된 테이프는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명의 통치체 성원이 있는 앞에서 그 테이프는 폐기되었습니다. 이젠 아무런 테이프 복사본도 없고, 서면으로 기록된 문서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테이프는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이는 당신의 요청에 따라 처리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인,  
펜실베이니아 위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사회자 위원회

위의 편지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바라는 것”은 보내주기로 한 복사 테이프였습니다. 그들이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터게이트 사건처럼) 나는 어쩔 수 없이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무튼 문제가 해결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통치체와 접촉할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앨라배마로 돌아와 몇 주 동안 위와 같은 편지 교환이 있었고, 남쪽 지방에서 다시 정착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협회로부터 만 달러 수표를 받았습니다. 자금을 요청하지 않았기에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고마웠습니다. 나는 오천 달러를 더 대출받아 이동식 집을 얻었고, 피터 그레거슨 *Peter Gregerson*이 그의 땅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피터의 정원 일은 격렬한 육체노동이었지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일을 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나는 매일 잔디를 깎고, 잡초를 자르고, 울타리를 다듬고, 말벌에 쏘이고 불개미에게 물어뜯기며 30일간 38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며 보냈습니다. 내 생애에 가장 육체적으로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행복했고, 감정적인 상처가 치유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와 아내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매일 읽었던 성경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시편을 4편씩 읽었고,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계속 읽었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읽었지만 우리에게 시편은 새롭게 다가왔고,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구절 중 한 부분을 확실히 이해할 때마다 하느님의 종으로서 개인적인 관계를 더 잘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역할을 시편이 잘해주었습니다. 시편 저자가 자주 표현했던 분노, 한탄, 무기력이 여호와 안에서 완전한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국제 본부를 떠나면서 나는 어떠한 문제도 만들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문제를 만들지 않아도 문제가 나를 찾아 왔습니다.

몇 달 동안 나와 아내는 개즈던Gadsden 동부 회중 성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그곳에서 그들과 ‘야외봉사’를 했습니다. 몇 달 후 그 지역 장로회에서는 나를 장로로 임명해달라는 추천서를 브루클린 본부에 보냈고, 즉시 답변이 왔습니다. 나를 장로(혹은 봉사의 종)로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짧은 답변이었는데, 그 이유는 나의 사임 발표가 얼마 안 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임은 「우리의 왕국 봉사」지에 제명당한 베델 성원들과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회중의 조정자는 그 답장에 꽤 언짢은 듯했으나, 나는 그에게 그냥 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와 더불어 1980년 9월 1일자로 협회가 장로들에게 보낸 편지(조직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믿기만 하더라도 제명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로 인해 상황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파수대」는 “배교”를 구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기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말과 글을 통해, 제명된 브루클린 형제자매들에 대한 극단적 조치가 정당하다는 신념과 정책을 증인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기사가 나왔

습니다. 하느님의 권위를 앞세운 독단적인 행동과 무조건적인 충성을 점점 더 요구한 것입니다. 「파수대」에는 이 문제에 대해 정당함을 주장하는 기사가 연속적으로 실렸고, 정책은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논증들은 또 다른 새로운 상황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불신과 두려움의 공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정책을 좀 더 온건하게 하고자 망설이는 장로들은 충성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강경파들은 이런 상황을 자신들의 태도를 보여 줄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는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 시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행동에 반감을 가지면 그 누구라도 “극단주의자”나 “공산주의자”로 분류되어,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나는 점점 더 집회에 나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조직은 끊임없는 자화자찬을 하고, 하느님의 말씀은 남용되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가 진실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이로 인해 유대교 회당에 출입할 수 없게 되었을지라도), 우리에게 적어도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는 피터 그레거슨에게 말했던 바와 같이, 내가 그저 왕국회관의 손님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그들의 홀이고, 그들의 회의이고, 그들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하는 일을 “망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해당 성경 부분을 읽으면서 충족시켰습니다. 집회에서는 간단히 관련된 성구를 읽거나, 성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강조하는 수준에서만 참여했습니다. 집회 후 몇몇 오래 되신 분들이 참여에 감사의 표현을 해 주셨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군 전쟁’과 같은 분위기가 발전되었고, 나에 대해 모종의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 죄와 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은 죄인들을 반기고 그들과 함께 먹는 군” 하고 계속 투덜거렸다. - 누가복음 15:2

‘한 번의 식사’로 모든 증거가 충분해졌습니다. 일은 이런 식으로 일어났습니다:

내가 앨라배마 북부로 돌아온 지 약 6개월 후쯤, 협회는 이 지역에 새로운 순회감독자를 보냈습니다. 그전 감독자는 온건한 사람이어서, 그 문제를 크게 하기보다는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온 담당자는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평판이 난 사람입니다. 이때쯤에 협회는 지역 및 순회감독자들에게, ‘배교’란 조직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새로 온 순회감독자 웨슬리 베너 *Wesley Benner*가 1981년 3월 개즈던 동부 회중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는 피터 그레거슨을 만나려고 이 지역 장로 짐 피치포드 *Jim Pitchford*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방문의 목적은 피터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그 도시와 회중에 퍼져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피터는 깜짝 놀라며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베너가 말하기를 주저하자, 피터는 이 상황의 해결

책을 찾기 위해서는 그 말의 출처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너는 피터 가족의 사돈으로부터 그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피터는 그 동안 자신은 말과 행동에 신중해 왔다고 분명히 말하면서, 성경적인 대화는 엄격하게 가족 외에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터는 가족들이 아닌 외부에 ‘그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퍼진 것에 의아해하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고 순회감독자에게 물었습니다. 베너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요? 그때 베너는 피터가 「파수대」의 어떤 내용에 반대 의견을 가진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성서의 ‘주요 가르침’은 아니고 세부사항일 뿐이었습니다.<sup>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가 조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오랜 대화 끝에 순회감독자가 「파수대」 내용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했음에도 그러했습니다. (사실, 워치타워 협회는 1981년 5월 11일에 보낸 편지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문의에 대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15쪽 밑에 요약 부분에 있는 세 번째 주장은 「파수대」의 외국어 버전에서는 삭제되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sup>7)</sup>

나중에 피터는 “나는 이 일이 대립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 대화를 차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

6) 문제가 된 기사는 1980년 8월 15일호(한국어판은 12월호) 「파수대」이다. 이 기사에서는 계시록 7:15에 큰 무리가 있는 그리스어 “나오스”(성전, 안식처)가 예수께서 요한복음 2:14에서 환전상을 쫓아내신 동일한 “나오스”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명백하게 다른 단어(“히에론”)가 사용되었으므로 이 주장은 틀린 것이며, 한 장로가 말했듯 이것은 “부정직한 지식과 무지한 지식의 본보기”였다.

7) 이 문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존 미첼이 쓴 「큰 무리」는 어디에서 봉사하고 있는가? (“Great Crowd” Serving God?)책 영문 부록을 참조할 것(Commentary Press, 1998).

고 말했습니다. 순회감독자와 장로가 떠났을 때, 피터는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순회감독자는 그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하고 싶다며 두 번째 만남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피터는 그때 무엇인가 결정할 순간이 왔다고 느꼈다 합니다. 통치체와 협회 봉사부, 1980년 9월 1일에 발부된 편지, 그리고 「파수대」의 연재 기사들에서는 '마녀 사냥'과 같은 분위기가 풍겨나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그가 제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피터가 나의 친구인 것도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피터는 두 갈래 길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스스로 이 조직에서 나오거나, 제명되는 말든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피터는 첫 번째, 즉 본인 스스로 조직에서 나오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 상황이나고 우려하자, 피터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고 기도한 뒤 이 방법이 가장 현명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걱정하는 것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피터의 자녀 7명 중 3명은 결혼을 했고, 손자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터의 남자형제 3명과 여자형제 2명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조카들도 많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었습니다.<sup>8)</sup> 만약에 협회에서 피터를 제명시키게 내버려 둔다면 피터의 가족들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를 아버지로, 할아버지로, 형제로, 삼촌으로 계속 교제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직을 배반한 배교자

---

8) 피터 아내의 가족 대다수도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로서 그를 피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피터가 운영하는 식료품 회사 직원 중 약 35명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자진해서 조직을 나오면 그는 더 이상 조직의 멤버가 아닌 것이 되기에, 피터는 이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교의 경우, 조직의 정책은 엄격한 교제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sup>9)</sup>

피터는 1981년 3월 18에 탈퇴서를 편지로 제출했고, 이는 회중에서 낭독되었습니다. 비록 통상적인 수준의 웅성거림은 있었지만, 피터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오랫동안 이 지역 회중의 책임자로 봉사하였기에, 또한 이 편지에서 피터가 침착하게 탈퇴 이유를 밝히고 어떠한 적대적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기에 큰 오해는 없었습니다. 아주 몇 명만 제외하고, 개즈던 회중의 성원들은 그 집회에서 피터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옳고 그를 스스로 판단하여 계속해서 피터를 따뜻하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기 상황은 모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파수대」 기사에 의해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잡지에 당신 이름과 피터 그레거슨의 이름만 빠졌을 뿐 당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렸어요.”라고 누군가 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파수

---

9) 내가 알기로 그때까지 통치체에서는 회중 성원이 정치계에 들어가거나 군인이 되지 않고 단순한 이유로 회중을 떠나는 것은 제명과 같은 의미가 아니었다. 사실 나는 「지부 사무실로부터의 편지 응답 매뉴얼」(이 단체의 모든 정책에 대한 설명서) 개정 작업을 했기 때문에, 매뉴얼에는 스스로 그만둔 자에게 내려지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다시 회중과 연합하기를 원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탈퇴한 사람을 제명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나는 탈퇴한 사람과 제명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편지를 봉사부가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봉사부 위원회 한 명에게 통치체에서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다룬 적이 없으며 이는 분명 봉사부 자체에서 결정한 행동이 아니냐고 지적했다(봉사부가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정책 도입”을 한 예). 그러자 그 위원도 통치체의 승인은 없었다고 인정했다.

대」 기사가 전적으로 개즈던 지역의 상황을 실은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이 기사를 쓸 동기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로 인해 무엇이 변했을까요?

과거 1974년에, 나는 통치체에서 제명된 사람들의 대우에 대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통치체는 정책이 합리적으로 보이도록 만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sup>10)</sup>

통치체에서 정식으로 승인받은 이 기사 내용은 그 당시 일반적이었던 제명된 성원들에 대한 차가운 대우를 점점 누그러뜨리고 그들을 더 자비롭게 대하게 했으며, 제명된 성원의 가족들을 대하는 엄격한 정책도 수그러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파수대」 영문 1981년 9월 15일호(한국어는 같은 해 11월 15일호, “제명처분 -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의 내용은 이 모든 정책을 뒤바꿨을 뿐 아니라, 1974년 이전의 정책보다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것은 ‘퇴보’의 사례였고, 과거보다도 못한 처리였습니다.)<sup>11)</sup>

가장 큰 변화는 스스로 탈퇴한 성원들(몇 달 전 탈퇴한 피터와 같이)에 대한 대우였습니다. 협회는 탈퇴한 성원들을 제명된 성원들과 똑같

---

10) 제명된 성원들 중 회중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통상의 도움이 필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뉴잉글랜드의 시골 지역에 사는 어린 여성의 경우였고, 다른 사례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마약중독 재활센터에 있는 여성에 대한 경우였다. 두 경우 모두 책망 중이었지만 교통수단 없이는 집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 통치체는 이런 경우 도움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11) 「파수대」 영문 1981년 12월 1일호(한국어는 1982년 5월 15일호)에서는 조직이 교리에 대한 견해를 계속해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정당화하려는 기사를 실었다. 그들은 이를 배가 바람을 거슬러 갈지자 형태로 항해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태킹”(tacking) 항법에 비유했다. 그러나 문제는 때때로 그들이 주장했던 교리가 사실상 다시 원점으로 간다는 것이다.

이 대우하겠다는 정책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sup>12)</sup>

이 기사를 읽으며 통치체에서 내가 경험했던, 특히 사회자 위원회와 겪은 최근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이 발표의 지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세부점까지 지시하는 것은 내가 연루되었거나 이 상황이 너무 특이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한 전형적인 것으로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호와의 증인 장로들이 문제를 풀고 행동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은 조직의 중앙에서 나온 생각과 영을 장로의 생각과 영으로 심어준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파수대」 영문 9월 15일호(한국어는 11월 15일호)가 도착하고 2주가 지난 며칠 후, 개즈던 동부 회중의 장로이자 피터의 동생인 댄 그레거슨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장로들이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좋다고 했으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첫 번째는 조직에 대해 내가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논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물었고, 그는 그 사람이 본인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출처를 모르는 돌팔매질’은 꽤 흔한 일이고,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이것이 일상적이며 정당하다고 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마태복음 18:15~17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당신과 그 형제만 있는 자리에서 그의 잘못

---

12) 이는 주로 스스로 탈퇴(혹은 이탈)한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정치체에 들어가거나 군인이 되는 경우엔 그들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조직의 정책에 따라 장로들이 자동적으로 “이탈” 처리를 시켰다. 따라서 스스로 탈퇴한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했다.

을 드러내라는 내용)을 따라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댄은 예수님의 충고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고, 나는 댄에게 그 익명자를 만나서 예수님의 충고대로 그가 직접 나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럴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는 말다툼하고 싶지 않으며,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다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 내 잘못을 지적해 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직접 사과하고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른다.) 댄은 말하기를, ‘장로들은 양떼를 보호하고 양들의 관심사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 장로들은 또한 회중 성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신중히 받들어 그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점도 알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번 경우에 대해서는, 장로들이 그 사람이 예수의 권고에 따라 나를 직접 만나 얘기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내가 그 사람을 불쾌하게 했다면 사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는 중단한 채, 화제를 돌려 나의 “교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와 다른 장로들이 이를 후 방문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를 후 댄 Dan과 데오티스 프렌치 Theotis French라는 장로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댄이 고린도 후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를 읽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댄은 그들이 이 곳에 온 이유가 「파수대」 영문 1981년 9월 15일호(한국어는 같은 해 11월 15일호)내용에 따라 나의 생각을 “바로잡기 *readjust*”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특히 현재 탈퇴한 댄의 형 피터와 나의 관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지난 8월 피터와 우리 부부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댄이 그 식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집은 피터의 재산이며 피터가 나의 집주인인 걸 알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또한 피터는 나의 직장 고용주인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문제를 떠나서 나의 교제는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고 설명했으며, 로마서 14장에 있는 양심의 중요성에 대한 바울의 말을 언급했습니다. 나는 성서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따를 것이지만, 지금과 같이 탈퇴한 사람들에게 대한 견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 이를 뒷받침한단 말입니까?

다음부터 무슨 대화가 오고 갈지는 너무도 자명했습니다. 댄은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5장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간음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착취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했으며, 나 역시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지내지도 않았고 내 집에 들이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설마 피터 그레거슨을 그런 종류의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두 사람 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후 댄은 요한 1서 2:19의 요한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나는 이 구절에서 요한이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요한이 언급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요한 2서 7-11절 역시 적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말하는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하느님과 예수님에 대한 반역자, 적그리스도와는 교제한 적이 없음을 확실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내 주

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정 피터 그레거슨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그들은 또 다시 대답이 없었습니다.<sup>13)</sup>

이것은 **실제로** 내가 이 두 장로들로부터 받은 성경적 ‘재조정’이었습니다. 그들의 견해는 오로지 「파수대」에서 언급한 내용뿐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이라면 그 의견을 받아들였을까요? 나도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 복종했을까요? 나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이며, 어떤 가르침은 하느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분명하게 이해되지만 그렇지 않은 가르침은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댄에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언급하신 “이 세대”의 의미를 조직에서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통치체 성원 슈로더, 클라인, 수터가 예전에 “이 세대”의 시작을 1914년에서 1957년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한 사실이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댄은 대답하기를, “조직이 그 문제를 향후 변경하기로 한다면 나는 이를 받아들일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긴 하지만, 그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는, 조직이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는 가르침을 바꿀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댄은 그저 나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가르침은 성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현재

---

13) 댄은 그의 형 피터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점에 관해 이야기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이해하고 있는 것', 즉 예수의 대속 희생 같은 가르침과는 확실히 다른, 변경될 수 있는 수준의 가르침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파수대」 영문 1981년 9월 15일호(한국어 11월 15일호)의 내용과 탈퇴한 신도들과의 접촉을 금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댄은, 하느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겸손에 대해 연설하는 사람들이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 나는 한 방에서 대화하는 일단의 사람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안건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끝나자 방에 있던 다른 한 사람이, 대부분의 안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이 몹시 흥분해서, 이 사람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그 두 번째 사람을 추방하자고 요청합니다. 그 두 번째 사람이 자신의 모든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 누가 겸손을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까?”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다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후, 대화는 금방 끝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피터는 결과를 듣기 위해 그 날 밤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든 것에 대해 굉장히 미안해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터는 나에게, 자신과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해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피터에게, 1년 6개월 전인 1980년 5월, 내가 브루클린 본부 통치체와의 마지막 모임에 가기 전 저녁 그와 함께 있었던 일을 떠올려

주었습니다. 나는 그와 차 안에서 대화를 했는데, 그때 내가 말하기를 “신시아와 상의한 결과, 베텔에서 나가면 앨라배마로 돌아가는 것보다 신시아 친척 집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모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아마도 “최악”의 상황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피터 부부에게 어떠한 불편한 일도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sup>14)</sup> 처가가 있는 동네로 가도 아내의 가족들에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터는 우리가 다시 앨라배마로 돌아왔으면 했고, 우리를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대가족 - 아내, 아들과 딸들, 형제 자매들, 손주들과 사돈들 - 이 여호와의 증인이어서, 내가 베텔에서 제명되고 돌아온다면 조직의 일원인 그들을 아주 곤란하고 불쾌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나도 충분히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대해 얘기해 봤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든 당신이 다시 돌아와 주길 바랍니다.”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말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나는 피터에게 그때 그가 나에게 해주었던 것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양심과 진실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한 피터 같은 사람에게 사악하다고 하는 무리에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개즈던 동부 회중 장로 두 명과의 “바로잡는” 모임을 가진 이후, 당분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순회감독자 웨

---

14) 그 당시 피터는 아직 이탈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약 1년 후에 이탈했다.

슬리 베너가 도착했습니다. 베너는 댄과 함께 우리 집으로 왔고, 피터의 다른 형제 톰 그레거슨 Tom Gregerson과 그의 둘째 아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순회감독자가 내 얘기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 외에는 이전과 같은 양상으로 대화가 흘러갔습니다. 순회감독자 베너가 내 말을 계속 막으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결국 그에게 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고, 그도 이 집의 손님인 이상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이 “바로잡는 일”은 또 다시 성서에 토대를 둔 것이 아니라 「파수대」에 토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다시 그들에게, 진정으로 피터 그레거슨을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 혹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항상 양심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사도의 예가 나오는 로마서 14장을 인용했습니다. 거기에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하느님께서서 허락하신 것이 맞는지 의심하면서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악한 자를 무죄라 하는 자와 의로운 자를 유죄라 하는 자, 둘 다 여호와께서 혐오하신다.”라고 성서에서 말했기 때문에, 피터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양심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어긋나는 행동인 것입니다.<sup>15)</sup>

베너는 내가 나의 양심에 따라 행동한다면 장로들인 자신들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들은

---

15) 잠언 17:15.

그들이 정한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장로들의 양심이란 다른 사람들의 양심을 존중하거나 관용을 보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양심임이 분명합니다.) 베니의 다음 발언으로 그 '조치'의 의미는 더욱 명료해졌습니다. 자신은 조직의 심부름꾼으로서, 단순히 조직의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나는 통치체의 방침을 전할 뿐입니다.” 그는 이 말을 자랑스럽게 했는데, 다른 사람 말이나 반복하는 앵무새가 된 것이 과연 대단한 임무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화는 곧 끝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톰 그레거슨은 믿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들은 말들이, 자신이 알던 그 사람들의 말이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매우 우울해 했습니다.

11월 1일, 브루클린에서 있었던 사법 절차가 개즈던에서도 시작되었습니다. 장로들은 계속 전화해서, 내가 사법위원회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나는 통치체에 협회 회원권을 반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는 몇 해 동안 워치타워 펜실베이니아 법인과 뉴욕 법인 양쪽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이었습니다.)<sup>16)</sup>

나는 다음과 같이 회원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을 11월 5일자 편지로

---

16) 내가 협회 본부를 떠나고 나서도 회원으로서의 투표권은 유지 되었다. 1980년과 1981년에는 평소대로 연례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임장”(“Proxies”)을 받았다. 1980년도에는 내가 이것을 우편으로 제출했지만, 1981년엔 「파수대」에 게재된 내용을 감안할 때 위임장을 제출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역자): 정관에 의하면 펜실베이니아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에는 일곱 명의 이사들이 있다. 뉴욕법인은 주로 미국 내의 활동과 관련이 있고, 펜실베이니아 법인은 전 세계 활동에 더 많이 관여한다. 매년 열리는 협회 연례총회는 이 일곱 명의 이사는 물론이고 투표권을 가진 회원들(300명에서 500명 사이)과 그들에게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들이 참석할 수 있다. 다른 수천 명의 참석자들은 투표권이 없는 일반 프로그램 참가자들이다.

통치체에게 보냈습니다:

이곳 지역의 장로들은 「파수대」(영문) 1981년 9월 15일호를 근거로, 나의 집주인이며 고용인인 피터 그레거슨 씨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터가 스스로 조직을 이탈한 이상 그를 제명된 사람처럼, 함께 식사해서도 안 되는 악한 적그리스도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60세가 다 되어가는 나이에 저는 금전적으로 도움 받을 곳도 없고, 이사 갈 장소도, 새로 일할 직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파수대」의 의미가 정말로 집주인을 초대해 식사를 같이 하는 것도 제명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이 의미를 과용하고 있다면, 이를 중재해 향후 저에게 닥칠 압력에서 구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접적인 답변이든 아니면 다른 부서를 통해서든 명쾌한 설명을 기다리겠습니다.

같은 날 장로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너무 자주 오고 그들의 냉랭한 말투 때문에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아내와 나는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내가 없을 때 장로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하실 말씀은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부탁하도록 했고,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1981년 11월 10일, 임명된 사법위원회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내가 정말로 피터 그레거슨과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제명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유가 아니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의 편지가 진실을 말해 줄 것입니다. 다음은 사법위원회가 1981년 11월 6일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2822 Fields Avenue  
East Gadsden, AL 35903  
November 6, 1981

Raymond V. Franz  
Route 4, Box 440F  
Gadsden, AL 35904

Dear Brother Franz:

As per your instructions given us by Sister Franz on Thursday, November 5, this is to ask you to meet with a judicial committee on Saturday, November 14, at 2:00 p.m. at the East Gadsden Kingdom Hall. The purpose of the meeting is to discuss with you your continued association with a person disassociated from the congregation.

If you are unable to meet with us on the above date, please contact one of us to arrange another meeting.

Your brothers,

  
Theotis French

  
Eugene Bryant

  
Dan Gregerson

앨라배마 동부 개즈던 35903 2822 Fields Avenue

1981년 11월 6일

레이몬드 V. 프랜즈  
P.V. 그레저슨씨 댁  
Route 4, Box 444  
개즈던 AL 35904

친애하는 프랜즈 형제:

11월 5일 목요일 프랜즈 자매를 통해 들은 당신의 상황에 따라, 사법 위원과의 만남이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개즈던 동부 왕국회관에서 열림을 알려드립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당신이 이탈자와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 논하기 위함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날에 올 수 없다면 저희 중 한 사람에게 연락해 다른 날짜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인,  
데오티스 프렌치  
에드거 브라이언트  
댄 그레저슨

이 편지에서 그들이 ‘사법처리’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탈자와 어울렸다”는 단지 그 하나의 이유 때문임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나는 개즈던 장로들 앞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파수대」 1981년 9월 15일호 내용의 의미를 설명해 줄 것을 통치체에 요청했으며, 장로들은 왜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지, 왜 나에게 답장받을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지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나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댄 그레저슨을 이 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는 사법위원회가 새로운 정책과 적용에 있어 더 공정하고 편견 없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sup>17)</sup>

이 편지를 보내고 일주일 뒤인 11월 20일 금요일,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데오티스 프렌치 장로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 오후에 사법위원회 모임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전화 외에 공식 문서도 보내왔습니다.

그날 오후 등기우편이 왔다는 메모를 받았습니다. 나는 즉시 우체국으로 차를 몰아, 우체국이 문을 닫기 전에 그 편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1981년 11월 19일에 보낸 것인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7)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가 보낸 편지 전문을 부록에 실어 놓았다.

앨라배마 동부 개즈던 35903 2822 Fields Avenue

1981년 11월 19일

레이몬드 V. 프랜즈  
P.V. 그레저슨씨 댁  
Route 4, Box 444  
개즈던 AL 35904

친애하는 프랜즈 형제:

장로회에서는 형제의 편지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당신이 워치타워협회에 편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으며, 사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둘째, 댄 그레저슨 형제는 고소인이기 때문에, 레리 존슨 형제가 사법위원으로 대체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댄 외에도 이 문제를 증언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당신이 회중을 이탈한 성원과 어울렸다는 것을 인정한 이상 다른 증인들의 이름을 알려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장로회는 사법위원으로 장로 3명을 임명했습니다. 그 장로들은 당신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사법위원회와의 모임은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 왕국회관에서 열릴 것입니다. 만약 이 날짜에 참석할 수 없다면 아래에 서명한 장로들 중 한 명과 연락해 더 편한 시간으로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인,  
레리 존슨  
에드거 브라이언트  
데오티스 프렌치

이 편지는 단순한 공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이 서명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 형제애의 따뜻함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는 법정 통지문 같았습니다. 차가운 법정의 분위기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아직 판결난 것이 아니라면(그들은 그렇게 단언했지만) 그들은 적어도 형제애가 담긴 표현을 썼어야만 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을 사람의 생명에 대한 관심과 동정심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서의 내 생애 전체의 봉사, 통치체로서의 봉사, 내 나이, 내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 이 모든 것을 다 제쳐 놓고라도 - 그들은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 주었어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로 보이더라도 말입니다(마태복음 25:40 참조). 나는 이러한 냉정한 표현들이 이 형제들로부터 저절로 나왔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 편지는 다른 근원에서 보내져 온 전형적인 편지였습니다.

내 아내는 이미 프렌치 장로 형제에게 전화하여, 토요일에 다른 지역에서 손님이 올 것이고 그들에게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3일에는 내가 다시 편지를 써서 사법 위원회가 보여준 성급하고 신중치 못한 진행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 날 오후 프렌치 장로 형제로부터 전화가 와서, 사법위원회는 이틀 후 수요일 저녁(11월 25일)에 열릴 것이고, 나의 참석 여부를 떠나 모임은 열린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새로운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빠른 판결’을 위해 굉장히 서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보였습니다. 사법위원들은 협회의 대변인이자 순회감독자인 웨슬리 베

너와 연락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말투와 태도 대부분은 우리 집에서 봤던 베너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편 그는 브루클린 본부의 봉사부와의 접촉할 것이고, 또 봉사부는 - 의심할 바 없이 - 통치체와 연락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할 게 없는 것은, 보통 일이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에 나는 놀란 것이 아니라 그저 실망스러웠습니다.

수요일(11월 25일)이 되었을 때, 나는 프렌치 장로 형제가 말한 '수요일 저녁'이라는 모임에 불참하기보다는 참석하는 것이 낫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날 오후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사법위원회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의 아내가 전화를 받아 형제는 이미 왕국회관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나는 왕국회관에 전화를 걸었고, 그 회의가 이미 오후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저녁'이란 오후 3시만 넘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준 적도 없으므로, 회의 시간을 6시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동의했습니다.

톰 그레저슨이 나와 동행하고 싶다고 해서 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왕국회관에 도착하자마자 장로 형제들, 즉 프렌치(사회자)와 브라이언트와 존슨이 있는 사법위원회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톰에게, 증인으로 부르기 전에는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톰은 그가 관리자로 근무하는 식료품 창고 회사(웨어하우스 식료품점) 직원 중 약 35명이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지 그 문제가 어떻게 판결나는지만 알고 싶다고 했으나, 결국 거절되었습니다.

톰이 나가고 나서 증인들이 참석한 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증인은

덴 그레저슨 형제와 로버트 데일리 자매, 두 명이었습니다.

덴이 먼저 증언했습니다. 그는 내가 피터와 함께 (부부동반으로) 웨스턴 스테이크 하우스에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의 증언의 핵심입니다. 그의 증언이 끝나자, 나는 그 시점이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본 게 지난 여름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파수대」 영문 1981년 9월 15일호(한국어는 11월 15일호)에서 제명자와 스스로 탈퇴한 이탈자를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기 이전이었습니다. 나는 위원회에게 소급법 *ex post facto law*을 적용한다면 그의 증언은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이 증언하도록 요청되었습니다. 그녀의 증언도 덴의 증언과 똑같은 내용이었으나, 다른 것은 단지 우리를 레스토랑에서 본 날짜가 「파수대」 영문 1981년 9월 15일호가 발행된 이후였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순순히 데일리 자매가 증언한 날짜에 피터와 식사를 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그녀도 남편(개즈던 동부 회중장로)과 함께 피터와 식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피터에게 들은 바로는, 하루는 피터가 모리슨 카페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데일리와 그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데일리가 재혼을 하기 전 데일리는 피터의 양아버지였습니다. 피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피터의 어머니가 데일리와 재혼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피터는 팔꿈치로 데일리를 살짝 짚러 아는 척을 했고, 데일리가 돌아보자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데일리는 피터에게 합석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들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일은 「파수대」 영문 1981년 9월 15일호가 발행된 후였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꽤 흥분했고, 내 말이 사실이기는 하나 그 후 그녀는 몇몇 자매들에게 이는 옳지 않은 일이었으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합니다. (나중에 청취가 끝나고 피터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피터는 “하지만 그들하고 나는 두 번이나 같이 식사했어요! 다른 날 또 모리슨 카페에 갔었는데, 데일리 커플이 이미 거기에 있었고 나는 손을 흔들며 합석하라고 했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증인은 이 두 번째 만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나도 청취를 할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상대로 한 ‘증언’의 전부였습니다. 두 증인은 떠나고, 사법위원회는 나에게 「파수대」 영문 1981년 9월 15일호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통치체에 11월 5일에 보낸 문의의 답장을 받기 전까지 왜 기다리려 하지 않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회자 데오티스 프렌치 형제는 「파수대」 영문 9월 15일호를 펴서 손을 엮고는, “우리에게 필요한 권위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통치체로부터 그들의 견해를 확인하는 것이 더 당당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출판물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엔 “브루클린에 있는 본부에 이 문제에 관해 전화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처음으로 그들이 통화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사회자 프렌치 형제와 이틀 전 통화했을 때, 그가 장로회는 ‘통치체의 회신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이유가 분명 이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베텔에서 조정자 위원회가 했던 비밀스러운 방식 그대로, 브루클린에 있는 본부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릴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통치체 성원 누구와 통화했는지 물었더니, 그들은 통치체 성원이 아니라 봉사부 성원과 통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부 형제가 뭐라고 했냐고 물으니, 프렌치 형제가 말하기를,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 그대로 진행하라.”고 말했다 했습니다.

프렌치가 이해한 것은, ‘이 조직은 1974년 「파수대」 내용을 아주 신중하게 살펴보고, 예전의 방법을 따르기로 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순회감독자 베너가 우리 집에서 했던 말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데오티스 형제는 “「파수대」는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에드거 브라이언트 장로 형제도 “우리 모두는 「파수대」 내용이 요구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세 사람은 성경 구절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나는 성서에 따라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피터 그레거슨이라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된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로인 존슨 형제는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몇 구절을 읽다가 머뭇거리며 중단했고, 어느 구절도 부언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법위원회 한 명 한 명에게, 진정으로 요한이 쓴 ‘적그리스도’가 피터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프렌치 형제는 약간 흥분해서, “이 문제는 피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판단을 내릴 만큼 피터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그들이 피터에 대한 문제도 판단하지 못하면서 나에게 그러한 판단과 적용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우리는 당신의 설교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프랜

즈 형제.”라고 응답했습니다. 나 역시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해주었으며, 다만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에 내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터와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나를 “범죄자” 취급하면서도,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에드거 브라이언트도 레리 존슨도 명료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 사회자는 더 이상의 대화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며, 톰 그레저슨을 불러 증언할 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톰은, 만약 그의 회사에 근무하는 여호와의 증인 중에서 조직에서 탈퇴한 사람과 정기적으로 출장을 가야 하고 식사를 같이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레리 존슨은, 그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논하자고 대답했습니다.<sup>18)</sup>

톰은 이 문제를 이미 여러 번 문의 했었고 순회감독자에게도 물어봤지만 아직까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는 종료되었으며,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고, 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증거”에 대해 논한다고 남았습니다.

약 일주일 후, 레리 존슨이 전화를 걸어 사법위원회에서 나를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에 상소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에게 7일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장문의 “상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모두 편지로 써서 글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으로 한 말은

---

18) 톰 그레저슨은 당시 식료품 창고 회사의 사장이었다.

쉽게 바꾸거나 변형하거나 잊힐 수 있지만, 글로 남긴 말은 기록에 남아 쉽게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 청문회의 경험으로 봤을 때 거기에는 불성실한 기운이 만연했고, 상소에 대한 청취라 해도 성경에 근거한 합리적 토의가 이루어질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편지에서 나는 협회 출판물의 다음과 같은 조언에 주목하라고 했습니다. 즉, 사법위원회 장로들은 “문제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하며, 지침의 “엄격한 규칙”에 따라야 하지만, 또한 “그 문장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해야 하며, “하느님의 말씀에 굳건한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며, “그 문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적용해서 그 사람(피고인)을 이해시켜야 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협회 출판물에는 분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는지는 그런 조언을 출판물로 발행한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은 다음 두 문단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피터 그레저슨과 식사한 것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개를 한다면 먼저 하느님 앞에서 저의 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죄판결은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바뀔 수 없는 유일한 기준입니다(디모데후서 3:16,17). 성서를 통해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그 어떤 것에 충성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사도행전 4:19,20; 5:29). 그리고 나를 포함한 그 어떤 인간이나 단체도 하느님의 말씀에 더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만

약 더한다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분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잠언 30:5,6, 요한계시록 22:18,19). 저는 하느님의 이런 충고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꾸짖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인간을 규정짓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며,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의 기준을 하느님의 말씀인 것처럼 따를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판단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불손하다고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로마서 14:4,10-12; 야고보서 4:11,12; 「야고보서 주해」책 영문 161-168면 참조)

만약에 내가 피터 그레거슨과 식사를 한 행동이 죄 짓는 행위라고 성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저는 겸허히 회개하고 하느님 앞에 죄를 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이야기했던 모든 이들은 성서에 따라 저의 죄를 묻은 것이 아니라, 「파수대」라는 그들의 ‘권한’(사법위원회 사회자가 이 용어를 사용했음)으로 저의 죄를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회중의 모든 권한은 하느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17:15에서는 “악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자와 의로운 자를 악하다고 선언하는 자 -그 둘은 모두 여호와께 기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미움을 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나는 11월 5일에 통치체에 보낸 편지에 대한 회신을 받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sup>19)</sup>

---

19) 편지 전문은 부록 참조.

그러나 한편으로는 통치체가 내 편지에 답장하지 않을 것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한 달이 지나갔고, 통치체는 내가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내가 얼마나 간절히 그들의 답변을 원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통치체에서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은 이 일에 연루되고 싶어 하지는 않으면서도 내 사건에 대한 정보는 계속 주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봉사부는 모든 내용을 통치체에 전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봉사부는 순회감독자로부터 이 내용을 계속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지역 장로회의 조치와 반응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과정은 순회감독자를 이용해 협회 본부에서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권한의 중심인 통치체는 사법위원들과 봉사부가 소통하도록 했지만, 그들에게 보낸 내 편지에 대해서는 답변은커녕 편지를 받았는지조차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 내가 통치체에 처음으로 편지를 쓴 날로부터 7주가 지난 후 나는 다시 통치체에 '상소 편지' 복사본을 보내고, 이 편지를 11월 5일에 썼다는 것도 상기시켜주었습니다.<sup>20)</sup>

상소 편지를 제출한지 정확히 7일 후, 프렌치 장로 형제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상소위원회 날짜가 잡혔고 위원회 명단도 나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3일 후에는 또 다른 전화가 와서, 상소위원회 위원들이 일요일에 나를 만나겠다는 것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나는 위원들의 정확한 이름을 알려달라는 편지를 썼고(나에게 위원들 전부가 아닌 일부만, 그것도 전체 이름이 아닌 성만 알려주었기에), 위원회 멤버를 변경해 달

---

20) 부록 참조.

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선택되었느냐고 묻자, 그는 협회를 대표하는 순회감독자 웨슬리 베너가 선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상소위원회 위원은 윌리 앤더슨*Willie Anderson*, 얼 파넬*Earl Parnell*, 롭 디블*Rob Dibble*이었습니다. 내가 피터 그레저슨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받아야 하는 상소 재판에서 이들이 위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피터에 관한 문제라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깨즈던 장로들에게 편지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그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윌리 앤더슨은 이 지역 회중의 많은 젊은 성원들이 연루된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심각한 파문을 일으켰던 위원회의 사회자였습니다. 그때 피터 그레저슨이 브루클린 본부에 재심위원회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었고, 그들은 윌리 앤더슨이 사회자였던 사법위원회의 조치가 과도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니 사건 이후 피터 그레저슨과 앤더슨 장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했습니다.

왜 순회감독자 베너가 얼 파넬 형제를 위원으로 선택했는지는 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피터 그레저슨의 딸 중 한 명은 파넬씨의 아들과 결혼을 했었지만 최근에 이혼한 상태입니다. 이혼한 커플의 양가 부모님의 관계는 누가 봐도 뻔합니다. 순회감독자 베너도 이혼소송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터 그레저슨이 중심인 이 문제에 파넬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적절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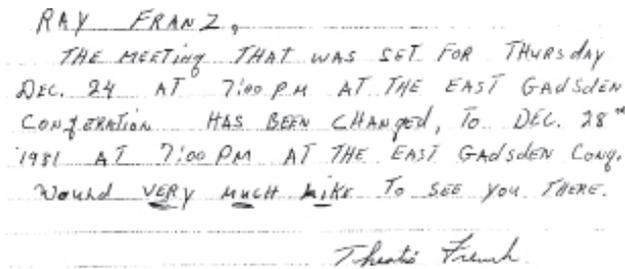
롭 디블 형제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롭 형제가 파넬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피터 그레저슨의 딸과 최근에 이혼한 파넬과 오누이

간인 것입니다.

개즈던 장로회에 보낸 편지 내용처럼, 나는 이 위원 3명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의적으로 불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이들을 선택했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전혀 다른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sup>21)</sup>

내가 이 편지를 보낸 바로 그날(12월 20일) 프렌치 장로 형제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상소위원회는 다음 날인 월요일에 열린 것이고, 내가 참석하든 말든 심의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나는 프렌치에게 위원들을 교체해 달라는 편지를 썼고, 이를 브루클린에 있는 본부에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편지의 복사본을 다음 날인 월요일에 곧바로 그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12월 23일 수요일에 나는 다음과 같은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RAY FRANZ,  
THE MEETING THAT WAS SET FOR THURSDAY  
DEC. 24 AT 7:00 P.M. AT THE EAST GADSDEN  
CONGREGATION HAS BEEN CHANGED, TO DEC. 28<sup>th</sup>  
1951 AT 7:00 P.M. AT THE EAST GADSDEN Cong.  
Would VERY MUCH LIKE TO SEE YOU THERE.

Charles French

---

21) 부록 참조.

레이 프랜즈,

12월 24일 오후 7시에 개즈던 동부 회중에서 열리기로 한 모임이 같은 장소에서 1981년 12월 28일 오후 7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뵙기 바랍니다.

데오티스 프렌치

아무도 나에게 위원회가 원래 12월 24일 목요일로 계획되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위에 나온 12월 28일 월요일 모임이 공식적인 통보였습니다.

프렌치 장로에게 편지를 전달한 후 이틀 동안, 나는 그가 전혀 새롭고 완전히 다른 혐의를 묻기 위해 정보를 모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앨라배마에 살다가 플로리다로 이사한 피터 그레거슨의 또 다른 형제 마크 그레거슨은 데오티스 프렌치가 자기 집에 장거리 전화를 했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프렌치 장로는 마크의 부인에게 내가 이 조직에 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조직에 대한 것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왜 궁금하냐고 물었더니, 그는 그저 '정보를 찾고' 있다고만 대답했다 합니다. 그리고 프렌치는 그녀의 남편을 바꿔달라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년 6개월 전 내가 겪어야 했던 악몽과도 같은 상황(통치체의 조정자 위원회와 겪었던 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통치체에 「파수대」 1981년 9월 15일호(한국어는 같은 해 11월 15일호)의 표현에 대한 질문과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고 대략 7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나는 통치체에 두 번 더 편지를 써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들은 답장을 하지도 않았고, 이 편지에 대해 받았다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수백만의 성원이 있는 국제적인 조직에서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고수한 뛰어난 예라고 내세운 일이 이런 식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지도자의 이런 태도에 평소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통치체는 그들이 답장을 해서 이득 될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그 편지들을 무시해 버립니다. 이는 내가 통치체에서 일할 때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내 문제도 그렇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목표로 가는 것인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편협한 접근이라고 밖엔 설명하기 힘든 방식으로, 나에게 불리한 판결을 위해서라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내려는 것에 역겨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1981년 12월 23일에 마지막 편지를 써서 통치체와 개즈던 동부 회중 장로회에 보냈습니다.

December 23, 1981

East Cadalen Congregation Body of Elders  
Cadalen, AL

Dear Brethren:

By means of this letter I am withdrawing my appeal of the decision to disfellowship me. My reason for doing so is as follows:

On the basis of testimony that I had eaten a meal on one occasion with Peter Gregerson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September 15, 1981, Watchtower, the initial judicial committee decided to disfellowship me. That forty years of full-time service could be discounted on such a petty basis indicates to me that there is no real concern to take into account my conscientious feelings, expressed in detail in my letter of December 9, 1981, nor concern to show me from Scripture wherein I have erred.

Additionally, the selection of the membership of the appeal committee, as made by the circuit overseas, gives no real basis for expecting a fair consideration in my case. The selection made, as pointed out in my letter of December 20, 1981, was of three persons who are obviously among those least likely to be able to handle my case in an objective way, free from the influence of personal feeling. I do not think of me justification for the selection made, and believe it makes a travesty of justice.

There seems to be no evidence to indicate that the Governing Body is desirous of providing any aid or relief for me, since my letter of November 5, 1981, has now gone approximately seven weeks with no response to me. While the chairman of the initial judicial committee has stated that he called the Service Department on more than one occasion, the conversations give no indication of relief since, according to the chairman, they said that "nothing has changed and to go ahead."

Finally, I now know that effort is being made, by phone, even by long distance, to try to find something to use against me in an effort to intimidate me. This has been done in the last few days, since my turning in my letter of December 20, 1981, requesting a different appeal committee. Even though the person contacted has never made any complaint about me, the request is made to see if they can remember anything I said that might be viewed as improper. Surely if I were responsible for making a disturbance in the congregation, one of a Jehovah's witness of malicious kind, it would never be necessary to resort to such methods to substantiate such a charge.

East Cadalen Congregation Body of Elders  
December 23, 1981, Page II

The continuation of such method can only result in further damaging of my good name and character. It is an open invitation to suspicion and gossip.

My feelings are as those of the apostle at Galatians 6:11: "Henceforth let no one be making trouble for me, for I am carrying on my body the brand marks of a slave of Jesus." For the past eight weeks my wife and I have been subjected to such mental anguish, not rarely by the repeated visits and more than a dozen phone calls (to the point where the ring of the phone became an unpleasant sound), but more especially by the attitude manifested. For there is added to all this the knowledge that a superstitious inquiry is being carried on that is clearly adverse to my rightful interests. I experienced stiller treatment last year in New York, where similar efforts were made for one month--and not one word was said to me during that time to indicate to me that my conduct was in any way under examination, this despite the fact that a clear opportunity was given by me for those conducting the inquiry to express such. I have no desire to undergo similar mistreatment again, particularly since there is nothing to indicate that the truth of the matter can be made known in such a way as to remove the unmeasured strain produced. That must rest in God's hands. --Matthew 19:26.

My withdrawal of my appeal should in no way be construed as an acknowledgment of guilt or an acceptance of the disfellowshipping decision as being in any sense proper, just or Scriptural. Again with the apostle I can say: "How to me it is a very trivial matter that I should be attacked by you or by a human tribunal. Even I do not exonerate myself. For I am not conscious of anything against myself. Yet by this I am not proved righteous, but by that evidence as in Genesis 3:11 (Corinthians 4:4). My confidence in his righteous judgment is implicit and my confidence in the righteousness and truthfulness of his Word is only strengthened by what I have experienced. And as long as I have life I will endeavor to make the truth of that Word known to others for their blessing and God's praise.

As for my brethren among Jehovah's Witnesses, I can say that the good will of my heart and my supplication to God are on their behalf. I have labored conscientiously since 1938 in their spiritual interests and I assure you that if I saw any hope that my subjecting myself to further trial would result in benefit to them I would gladly endure such. --Compare Romans 9:12.

Respectfully,  
*W. J. Adams*

1981년 12월 23일

앨라배마 개즈던  
개즈던 동부 회중 장로회

친애하는 형제들:

저를 제명하는 것에 대한 상소를 철회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피터 그레거슨과 식사를 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1981년 9월 15일 자 「파수대」의 내용에 따라 첫 번째 사법 위원회에서 제명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나의 40년간의 전 시간 봉사가 그런 사소한 이유로 무시 될 수 있다는 사실은, 1981년 12월 8일자 저의 편지에서 밝힌 바처럼, 양심에 따른 나의 결정에 진정한 관심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며, 아울러 성경적으로 제 잘못을 시정하려는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거기에서 순회감독자가 선택한 저의 상소위원회 위원들을 보고 나서,

제 사건이 정당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1981년 12월 20일에 보낸 편지에서 지적했듯이, 선택된 위원 3명은 제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위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의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정의를 우습게 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981년 11월 5일 통치체에 보낸 편지에 대한 답변이 약 7주가 지나도록 오지 않은 것을 보면, 통치체는 저를 돕거나 저를 자유롭게 해 줄 마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사법위원회 사회자는 여러 번 봉사부와 통화를 했고, 그에 따르면 통치체에선 “변한 것이 없으니 진행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먼 거리까지 전화를 해서 저에 대한 혐의를 더 찾으려고 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1981년 12월 20일 편지에서 다른 상소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한지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심지어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나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할 것이 없다고 대답하면, 전화를 건 사람은 혹시 내가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회중에 해가 되는 일(고약하고 사악한 일)을 했다면, 이런 종류의 수단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수단들을 계속 사용하면 제 명예와 인간성에 해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심과 소문만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갈라디아서 6:17에서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예수의 종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라고 했던 사도의 심정입니다. 지난 8주 동안 저와 저의 아내는 정신적인 비통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아서가 아닙니다(전화벨 소리조차 짜증나게 되었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보여 준 태도가 저희를 더욱 비통하게 했습니다. 저의 정당한 권리를 반박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

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전 뉴욕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고, 그때도 이번처럼 한 달 동안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노력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내 행동에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처럼 부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 밝혀져 불명예가 제거될 것이라는 확신도 현재는 없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 마태복음 10:26.

내가 상소를 철회한다고 해서 나에게 죄가 있고 제명의 결정이 정당하거나 성서에 기초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다시 고린도전서 4:3,4에서 사도의 말을 빌려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의로움이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오로지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느님은 공정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은 정당하며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 있는 동안 나는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축복하며,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증인인 나의 형제들을 위해 선한 뜻으로 하느님께 간청드릴 것입니다. 1938년부터의 나의 모든 노력은 형제들을 위한 것이었고, 나의 고통으로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저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로마서 9:1-3 참조.

여러분을 존경하는  
레이몬드 V. 프랜즈

나를 제명시킨 증거 - 피터 그레저슨과의 한 번의 식사 - 가 증거로서는 약하다고 그들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상소 편지에서 요청했듯이 그들은 하느님의 말씀에서 증거를 찾기보다는 (나의 행동이 진정한

로 죄인지를) 나에게 불리한 증거를 찾아내어 더 심각한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8일 후 래리 존슨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나의 상소 철회 요청 편지를 받았기에, 첫 번째 위원회에서 결정한 제명 조치가 유효하다고 전했습니다.

그 날짜에 걸려온 전화는 뭔가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나는 1939년 1월 1일에 침례를 받았고, 정확히 43년 후인 1981년 12월 31일에 제명되었습니다. 제명된 자와 식사를 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제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이유로 나를 제명시켰다고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그들의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아주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옹졸한 수단까지 이용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통치체의 경험, 1980년 봄에 조정자 위원회로부터 겪은 일, 그리고 지금까지 발행된 「파수대」의 내용을 보면, 나를 제명하는 것이 그들이 우려하는 “위협” 요소를 제거하여 “득”이 된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또한 그들의 불안감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 그러나 이것은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느님께서 선택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상 부분을 감독하도록 왕으로부터 임명받은 세계적인 조직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는 불안감입니다. 이 조치는 하느님의 말씀에 기초한 진리를 확실히 갖고 있고, 그러한 가르침을 베푸는 조직에게는 분명 어울리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 조직은 또한 성원들에 대한 진정한 신뢰도 없는 조직입니다. 성원들이 만약 주어진 교육과 인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의 깨달음이 생겼을 것이고, 따라서 스스로 읽고, 토의하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하나하나를 가르치고 지시하는 어머니 조직 같은 수단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의 조치는 1세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종교 단체들이 해오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권한을 위협할 무엇인가가 있다면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쓴 폴 존슨(Paul Johnson)은 그의 책에서, 종교 재판은 종교적 편협성이 만연했던 암흑기에 생겨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종교재판의 경우 헌법, 법률 또는 관습법 등에 나오는 절차를 무시했다.<sup>22)</sup>

여호와의 증인 장로들로 구성된 사법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은 계몽된 국가라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법체계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들(예를 들면 송사 관계에서 반대 입장에 있는 증인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으면서 그들의 정보만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은, 존슨이 언급했듯이, ‘통로’와 ‘조직’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원들을 다루는 데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의 진실은 무엇

---

22) 폴 존슨 저서 「그리스도교의 역사」(A History of Christianity; 뉴욕 학술 진흥회, 1979년), 253면.

이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다수의 사건의 진실은 또한 무엇일까요?  
역사학자 존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목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유죄판결을 내리겠다는 아주 단순한 이  
유였다. 단지 이 방법만이 이단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sup>23)</sup>

다시 한 번 나는 내가 본 그들의 냉담함과 자만심이 평범한 개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히 거만하고 터무니없는 권한을 독점한 채, 다른 사람들이 그 권력을 넘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시행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단순히 의문스러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로운 것이며, 하느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드러나야만 합니다. 「과수대」 1995년 10월 15일호는 다음과 같이 “독선을 주의하라.”라는 기사를 실어 놓았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과 특권이나 권위 때문에 우월감을 나타낸다면 사실상 그는 하느님께만 돌아가야 할 영광과 영예를 그분에게서 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명확하게 훈계합니다. 성서는 이렇게 강력히 권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에게 하듯이 생각하십시오.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낮은 것들에 이끌리십시오. 자기

---

23) 폴 존슨 저서 「그리스도교의 역사」(A History of Christianity) 253, 254면.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분별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 로마서 12:3,16.

개인에게 적용되는 이 말은 조직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위의 글에서처럼 우리는, 스스로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전한 사도의 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이라고 불리고 율법을 의지하고 하느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가르침 받아서 그분의 뜻을 알고 훌륭한 것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눈먼 사람들의 인도자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빛이며 비합리적인 자를 시정하는 사람이고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며 율법 안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뼈대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당신이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 로마서 2:17-21,



제13장

# 개혁의 전망

C r i s i s   o f   C o n s c i e n c e



...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사람은 늙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4:16-18, 새번역.

지금까지가 나의 보고서이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양심의 위기를 탄생시킨 근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이 나의 감정과 반응에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에 미친 영향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독자가 평가할 일입니다. 달리 말해서, 내가 묻고자 하는 바는 당신의 양심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큰 흐름 속의 아주 작은 물방울들입니다. 지구상 6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하느님만이 아는 그 수많은 옛 세대들이나, 그 어느 누구의 삶이든, 그들은 모두 한낱 세상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고 하찮을지라도, 또 우리의 왜소함에 어울리지는 않지만,

예수께서는 우리가 타인에게 선을 행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sup>1)</sup> 이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며, 사도가 표현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하기 때문입니다.<sup>2)</sup>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 거대 조직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이들 조직의 권위와 통제와 촉구와 압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업적이 아니라 믿음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과분하신 친절에 대한 진실한 감사의 태도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할 수 없이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서 어떤 강요에도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명에보다 더 힘든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 모두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겠습니다. 나는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습니다.”<sup>3)</sup>

이제와 돌이켜 보니, 삶이 멍에로 다가올 때 참된 만족감을 주는 유

---

1) 고린도 전서 3:6,7; 고린도 후서 4:7,15; 6:10.

2) 고린도 후서 5:14

3) 마태복음 11:28-30

일한 근본적인 것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타인의 복리를 위해 내 삶을 얼마나 기여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게 약이다”라거나, 사람들을 망상 속에 살게 두는 것이 오히려 배려일 수 있다는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망상은 조만간 반드시 현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망상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데 - 미망의 결과로 - 더 많은 상처를 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내 경우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면 다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책을 집필한 이유입니다. 나는 진실하고 정확하게 쓰고자 애썼습니다. 누군가는 협회의 출판물과 소문과 잡담거리로 회자된 내용을 근거로 분명 이 책에 담긴 정보의 중요성을 폄하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기술된 모든 것의 진실성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만약 이 책에 오류가 있어서 누군가가 지적해 준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며, 나는 어떻게든 그 오류를 수정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조직과 그 중심 기구인 통치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종종 이 질문을 받긴 하지만 나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집단적으로 조직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앞 장에서 제시했듯이, 새천년이 시작될 무렵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보고서마다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여러 나라에서는 성원이 증가되고 있다고 보고됩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은 대다수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조직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일생 동안 증인으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조직은 마치 신비한 빛에 에워싸여 어떤 신성한 ‘영’을 발산하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조직의 지침은 불완전한 인간의 말이 갖는 수준 이상의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인들은 통치체 회기의 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하며, 일반적인 영적 지식과 영적 지혜를 넘어선다고 믿습니다. 더욱이 증인들은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닌 영적인 힘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우리는 갑자기 우리를 자라게 한 존재보다 더 현명해져서 우리의 정신을 일깨우는 우리를 보살핀 조직의 인도를 저버리게 되는가?<sup>4)</sup>

이 말은 조직에서 제공하는 지침의 근원은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일반 전도인들에게는 무조건적인 복종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지도층이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 완전히 감추어진 현실은 일반 증인들에게 통치체의 의사결정 과정이 그저 신비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며, 그들에게만 전해지는 특별한 지혜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갖게 만듭니다. 이른 바 “하느님의 감춰진 비밀”을 이해하는 지상의 유일한 조직”이라고 간주되는 것입니다.<sup>5)</sup>

증인들 중에 이 책에서 다룬 문제들, 즉 양심에 대한 도전이라는 문제들에 맞선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아마도 대부분의 증인들은 그런 문제들에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증인들은

---

4) 「파수대」 영문 1952년 1월 1일호 80면

5) 「파수대」 영문 1973년 7월 1일호 402면

개인적으로 나에게 속 얘기를 털어놓기도 했는데, 그들은 조직 내에서 맺은 우정으로 즐거워하며 그래서 이 우정을 망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 역시 좋은 우정을 맺었으며, 그 우정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 보낸 사람들에게 대해 애정이 있었으며, 그것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나는 친밀한 관계나 우정을 즐겁게 유지하는 마음보다도 진리와 정직의 문제, 공정과 정의의 문제, 사랑과 자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고난당하기를 재촉한다든지 마찰을 일으키도록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온 가족이 여호와의 증인인데 그 중 아들이나 딸이, 형제나 자매가, 혹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영적으로 타락한 “배교자”, 하느님께 거부당한 배교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가족관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그런 상황에 빠지도록 한 적이 없으며, 나 자신도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열매와 해로운 결과를 내는 일들에 대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 또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이 분명한 것들을 억지로 믿는 척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내가 양심을 타협하지 않거나 이를 피하기는 점점 어려웠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러나 “숨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방이 알려지지 않도록 주거지를 옮겨 다니기까지 하면서 조직적인 괴롭힘을 피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직”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하느님이나 그리스도나 성서에 대해서가 아니라) 유일한 걱정거리입니다. 마찰을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에게 발각되면, 그들은 장로들 앞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진술

해야 합니다. 이 “믿음 검증”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이는 분명한 최후 통첩이 될 것이므로 그들은 제명되기 마련이고, 같은 여호와의 증인 친구나 가족을 두고 있을 경우엔 그들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됩니다.

여기 미시건 남부에 사는 주부이자 어머니인 한 젊은 여인의 경험이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은 조직의 지침에 회의를 품은 일로 장로들로부터 심문을 받았었는데, 이 일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모임 참석을 그만두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는 장로들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녀는 다시는 그러한 일을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밝히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만나러 나와 줄 것을 요구했고, 자기들은 그녀의 의심을 풀어주고 싶으며, 이번이 자기들이 만나 주기를 바라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인이 아닌 그녀의 남편도 가서 “결론을 짓고” 오라고 조언했기에, 그녀는 장로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십 분도 채 안 되어 그들이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답니다.” 질문을 시작한지 삼십 분이 지났을 때 장로들은 그녀를 제명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그저 놀랐을 뿐이었다고 그녀는 회고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이렇게 하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거기 있던 시간 내내 흐느껴 울었고, 삼십 분도 안 되어서 그들은 저를 ‘왕국에서 쫓아’ 냈지요. 저는 그들이 눈물을 머금고 몇 시간 동안이나 바닥에 엎드려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할 줄 알았던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명의 장로들 중 토론 내내 졸음에 겨워했던 한 장로는 나중에 그녀에 대한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직이 하느님의 조직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

다고 말하는 저 여자의 뻔뻔함이라니.”

원치 않는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어 버린 후, 친교의 단절로 인해 가족이 겪게 되는 고통과 극심한 스트레스는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고통이 종교적 편협성이라는 일방적 원인에 기인한 것임을 아는 것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조직의 가르침에 반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비록 당사자가 가족일지라도 장로들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간의 믿음과 헌신과는 상관없이 이탈하거나 제명된 이들을 하느님께 거부당한 존재로 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마저 제명시키겠다는 것이 조직의 지침입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조직의 지침이 가족의 화목과 사랑을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길, 당신의 제자는 종교적 사법 기구의 재판에 회부되는 이들이라고 하셨지, 타인을 그런 기구에 넘기는 이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sup>6)</sup> 예수가 살았던 시대처럼, 오늘날도 분열을 일으키는 힘은 한 쪽 편에서, 하나의 원인에서 나옵니다. 그 원인이란 바로 양심적인 반대를 불성실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의 파탄과 우정의 단절, 그리고 그에 따른 마음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궁극적으로 이 원인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면서도, 그 거대한 규모와 수적인 우세함이라는 이점을 지니고 있는 강력한 조직에 속하지 않고서 하느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은 다른 많은 조직들에 비해 작은 조직

---

6) 마태복음 10:17,21, 마가복음 13:9-12, 누가복음 21:16

이지만 널리 퍼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 바티칸 조직이나 다른 큰 종교 조직만큼 인상적이지 않지만, 확장되고 있는 국제 본부로서 현재 꽤 규모 있는 브루클린 본부, 많은 지부 건물들, 거대한 인쇄 시설을 갖춘 곳들, 수백만 달러를 들여 짓거나 사들이고 또한 수백 명의 인력을 갖춘 모든 곳들(브루클린의 경우에는 3천 명쯤 되는), 큰 대회 회관, 수천 개의 왕국 회관(이 중 적지 않은 수가 25만 달러 이상을 들여 지어짐) 등을 소유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기에 충분합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새롭게 획득되거나 확장되면 그것은 조직의 영적인 번영과 성공에 대한 축복의 증거라고 환호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만이 하느님의 보살핌을 받는 지상의 유일한 사람들이며 통치체로부터 받는 지시는 신성하게 임명된 “통로”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증인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보는 견해는 조밀하게 짜여진 관계에 대한 이런 단결된 의식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통의 증인들에게는 조직과 연합하지 않은 채 개인이 홀로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운 일로 여겨집니다. 이는 마치 1세기의 유대교인들이 익숙한 종교 의례를 떠나서는 하느님을 섬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을 타락한 존재로 보고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주장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성전 제사가 치러지는 예루살렘의 성전 건물과 앞뜰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굉장한 대조를 이루며 서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큰 건물도 없이 소박한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고, 제사장이니 레위인들이니 하는 식으로 계급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떤 민족에서든지 그분을 두려워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 주신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했습니다.<sup>7)</sup>

꽤나 많은 이들이, 특히 여호와의 증인의 장로들 가운데서, 잘 알려진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교리적으로든 조직에 대해서든 향후 어떤 종류의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진지한 바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도층 인사가 바뀔으로써 이 개혁이 일어나리라 보았습니다. 1980년 초 내가 본부를 잠시 떠나 있기 전 기존의 태도와 상황에 대해 비통함을 느끼고 있었을 때 그것을 공감한 분별력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요 국가 지부 위원회에 속한 한 성원이었는데, 그는 심지어 나에게 “레이, 포기하지 마시오! 저들은 노인들이잖소. 영원히 살지 않을 거요.”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본부를 반대하는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를 냉정하고 무정하고 신랄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매우 친절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이런 말들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더할 나위 없이 강경한 방침과 점점 독단적이 되어 가는 입장으로 흐르는 현재의 추세가, 보다 그리스도교적인 접근과 보다 겸손한 표명에 자리를 내주고 물러나야 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말들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권위 있는 자들이 죽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소소한 변화는 있겠지만, 내 말은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러셀과 러더퍼드가 죽고 난 후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러셀의 생애 동안에는 상당히 자율적인 분위기가 존재했었기에, 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난

---

7) 사도행전 10:35

은 했을지언정 권위를 내세워 깃뚫아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셀이 죽은 후 그의 계승자는 통제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향후 여호와의 증인 사회의 특성이 된 “조직”과, 조직의 권위와, 통제력을 최대한 강조했습니다. 러더퍼드의 사후에는 어떤 온건한 변화가 있었다라도 그 바탕에 깔린 기본적인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1975년에서 1976년 사이에 발생한 권위 구조의 변화는 전 조직 역사상 일어난 변화 중 가장 큰 조정이었습니다. 권위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졌고,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해석과 독단주의, 탈무드적 율법주의와 엘리트 집단의 통제력, 그리고 억압적인 지침들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들,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본질에 있어서는 연합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인내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소박한 형제애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전통적인 원칙과 지침들에 눌러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개혁의 전망과 관련해 이 장에서 다른 견해들이 타당한지를 질문하면서, 제임스 펜톤은 「지연된 세상의 종말*Apocalypse Delayed*」(제2판, 333-334쪽)이라는 책에서 다른 조직들이 지도층의 변화를 통해 이론 거대한 변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여호와의 증인들 내부에서 최고 지도자가 보일 변화의 가능성을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 책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본 서 「양심의 위기」 본 판과 이전 판에서 찾은 자료의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직의 지도부가 일으키는 변화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지도층 인사보다 더 큰 장애가 있음을 지적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1971년 내가 통치체의 성원이 되었을 때 통치체를 구성하고 있던 열한 명의 성원들 중에서 현재 살아있는 이는 나 한 사람뿐입니다. 본 서

156면에 실린 사진에서 열일곱 명의 성원들 중 열세 명이 죽었습니다. 이 협의체의 의장직은 네이션 노어에서 프레더릭 프랜즈에게로 넘어갔고, 그 다음은 밀턴 헨첼에게로, 그리고 최근에 돈 애덤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또한 다섯 명의 새 인물들이 통치체의 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통치체 구성원은 바뀌었지만, 그 모든 변화에도 조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지속했고 조직의 본질적인 성격 또한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주장했듯이 전도인들을 통제하는 것은 관념입니다. 그 관념이란, 지상의 모든 종들을 인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지상의 유일한 “영적통로”가 통치체라는 것입니다.

의식 있는 “전도인들”에 의해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보는 사람들은 통치체 모임을 특징짓는 영성을 너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수백 차례 통치체 모임에 참석해 보았기에 나는 “전도인들”이 제기하는 의문이나 이의에 대해 그들이 무시하고 때로는 경멸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떤 가르침이나 지침이 변화되는 계기는 인적 변화보다 오히려 상황이 갖는 힘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정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맺음으로써 얻는 이득에 관한 것이나 전도인 수가 감소하는 데 대한 우려는 조직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해 볼 만한 점입니다. 2000년 이후 해마다 작성되는 연례보고서에서는 서유럽 전역과 미국에서의 눈에 필만한 성장 감소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 간 눈에 띄는 확장세를 보여준 일본도 2000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제로(0) 성장을 했고, 다음 해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또 다른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듯이, 드러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좀처럼 공

개하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입장을 영속시키려는 의도로 종종 새로운 것들이 계획되곤 합니다.

최근에 왕국전도학교라 불리는, 장로들을 위한 교육에서 조직은 “봉사보고”하는 일에 대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주어진 한 달 동안 “활동적인 전도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고하는 시간은 최소한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나이 들고 허약한 증인들을 위해 이 시간을 십오 분으로 단축했습니다. 허약한 전도인들에 대한 배려처럼 보이는 이러한 변화는, 실은 전도인 수 연례보고를 증가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통치체 또는 증인조직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다른 결합이 있는 체제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해결책은 아니며, 더 나은 것을 보장받는다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통치체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해서 전보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선하고 유익하게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조직을 찾아간다 하더라도 참과 거짓이 혼재했던 이전의 신앙에서 무늬만 다를 뿐인 또 다른 신앙으로 바꾸는 것 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닌 동기의 순수성은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내 관심은 사람들을 조직에서 이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개인적 관계에 대한 감사를 고양시키고 심화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1992년에 99세의 나이로 타계한 프레더릭 프랜즈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한 시대의 마감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해인 1914년 당시 침례를 받은 유일한 통치체 성원이었으며, 아마도 조직의 창시자인 찰스 테이즈 러셀과 개인적으로

만난 유일한 성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리더퍼드 이후 교리 구조의 주요 부분을 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제명 문제와 관련한 지침의 많은 부분을 체계화했습니다. 추측컨대 리더퍼드가 전승한 그 신성한 “망토”는 (본 서 189, 190면)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나는 통치체에서 물러난 이후 삼촌에게 몇 차례 편지를 썼었는데, 답장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단 한 통의 답장도 없었습니다.) 권위가 있는 한 인물에게 썼다기보다 단지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해 느끼는 마음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그의 건강도 궁금했고, 그를 염려하는 내 마음이 정말로 순수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나의 큰 소원은 삼촌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가 조직의 많은 가르침들이 성서적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깨달았으리라고 내심 강하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우 지적인 사람이고, 인격을 도야한 사람이었으며, 정통 성서해설을 쓸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판단으로 세워진 조직에 대한 부단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는 조직의 독특한 가르침이 회의를 불러일으키거나 조직의 이익이 위협받아 보일 때, 심지어 성서를 조직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꺾어 맞출 때에도 핵심 옹호자로 행동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의 지성은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단순한 미사여구와 그럴듯한 말을 사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의도된 결론으로 독자들을 이끌어 내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사실들에 대해 슬퍼합니다. 비록 그가 조직의 성도들이 수천 명에서 수백만 명으로 증가한 것을 목격했고, 조직 본부의 재산이 몇 안 되는 건물들에서 다층 구조물들이 있는 전 도시로 늘어난 것을 보았고, 조직의 출판사 운영이 비교적 소박한 지위에서 국제적인 출판

제국의 지위로 상승하는 것을 보았다 해도, 이 모든 것은 그가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으며, 이 수치적이고 물질적인 요인들 중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칭찬이나 책망을 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쓴 책들은 그가 죽기 몇 년 전에 절판되었는데(몇 권은 CD-ROM디스크로 발매되었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리더퍼드와 러셀의 저작물들이 차지하는 것같이 단순한 기념물의 지위로 격하된 것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서 다니엘서 같은 그의 창의적인 해석들은 상황에 따라 새롭게 필요해진 다른 해석으로 대체되었습니다(일례로, 다니엘 11:29-45에 나오는 “북방 왕과 남방 왕”에 대한 그의 해석은 소련 연방의 해체로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1988년에 심장맥박조정기를 이식하는 등 그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난 후, 나는 삼촌에게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먼저 삼촌의 저작물, 강연, 담화 중에 훌륭한 내용들을 언급했습니다. 그 저술들 가운데는 지켜지지만 했다면 조직의 많은 현재 입장과 주장에 대해 재평가할 만한 타당한 원칙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은 삼촌에게 보낸 여러 편지들 중 하나입니다:

삼촌이나 저에게 있어 이제 삶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우리는 각자 자신에 대해 하느님께 답변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사도가 공언한 그 말씀의 확실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자로서 그분의 아드님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빛으로 밝히고 진심어린 권고를 드러내실 것이며, 그때에 각 사람은 하느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로마서 14:10-12; 고린도 전서 4:5). 삼촌의 성서 지식을 확신하는 저이기에, 저는 삼촌도 개인에 대한 심판이 조직과의

관계나 조직에 대한 충성과는 관계없다는 것을 아시리라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의 종말이 임박해 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남기고 떠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도덕적 유산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 유산의 가치는 우리가 지켜온 원칙들로 결정될 것이며, 이 원칙들은 결코 사리 추구를 위해 희생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것임을 더욱더 확신합니다. 이 원칙들은 본래 하느님에 대한 완전하고 진실한 헌신이고, 우리의 유일한 머리이신 그 분의 아드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며, 지지하는 인간조직의 일부가 아닌 개인으로서 보내는 타인에 대한 따뜻한 관심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유산을 남기는 것이 진실로 저의 관심사이며, 제 마음은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빌립은 로마서 14:7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중에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여호와를 위해 살고 죽어도 여호와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문제도 아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 생각을 나누고 같은 관심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이 편지에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편지를 썼다는 것만으로 기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삼촌의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보며 슬픔을 느끼는 것은 지나온 일들 때문만이 아니라, 어쩌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깊은 아쉬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프레더릭 프랜즈의 죽음으로 새로운 협회장이 지명되었고, 1983년 이 책에 쓴 자료에서 그 가능한 순서를 밝혔듯이, 밀턴 헨첼이 프랜즈

의 뒤를 이어 협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sup>8)</sup> 프랜즈의 죽음은 정말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 누군가가 지적한 대로 - 새 협회장 때문이 아니라, 협회장직에 더 이상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레더릭 프랜즈의 말에는 힘이 있었는데, 이는 그가 차지한 협회장이라는 지위 때문이 아니라 조직 내 대학자로서의 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계승자 밀턴 헨첼은 그러한 특권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10장에서 다룬 “1914년 세대”라는 표현을 해석하는데 있어 일어난 변화는 프레더릭 프랜즈의 죽음 이후 이루어진 중요한 교리 변화 중 거의 유일한 것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1914년이라는 시기에 관한 기본 가르침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에 불과했으며, 근본적인 변경은 아니었습니다.

1975년에서 1976년 사이의 조직변화의 영향이 집의 내벽을 흔드는 것과 같았다면, 조직 행정부 내에서 일어난 어떤 인적 변화는 가구의 위치를 바꾸거나 새 가구를 들여 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집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내가 통치체 성원으로 임명되었을 당시 통치체를 구성하던 다른 10명의 성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었다고 해서 행정부의 본질적인 성격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통치체 성원들 중에서 집단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이들은 밀턴 헨첼과 테드 재라스와 로이드 배리였습니다.<sup>9)</sup> 그 후로 로이드 배리, 칼

---

8) 이 정보는 「양심의 위기」 1983년 판 384쪽에 나와 있다.(영문)

9) 내가 통치체 성원이었던 9년 동안 이 세 사람의 성원이 합심하여 찬성하는 안건이 성원들의 지

클라인, 밀턴 헨첼, 라이먼 스윙글이 죽었고, 통치체의 다른 장기 집권 성원들도 연로해졌으며, 급기야 어떤 성원들은 활동을 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2004년 현재 테드 재라스는 79세, 대니얼 시들릭은 85세, 잭 바는 91세, 앨버트 슈로더는 93세, 케어리 바버리스는 98세입니다. 이들의 노령으로 인해 1994년 6월 오스트리아 출신 게리트 뢰시를 임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1999년에는 나머지 네 명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뮤얼 허드(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성원), 스티븐 레트, 가이 피어스, 데이비드 스플레인으로, 이들까지 성원은 총 열세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리트 뢰시는 현재 59세이고, 여호와의 증인 2000년도 연감을 보면 새로 임명된 다른 네 명의 평균 나이는 57세입니다.<sup>10)</sup>

이는 특정 연도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문제가 초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임명된 다섯 명의 성원들은 공공연한 “기름부음받은 자” 들인데, 위치타위의 가르침은 이 “기름부음받은 자”의 온전한 수를 구성하기 위한 신성한 초대가 1935년에 완료되어 그해에 144,000명 전원이 모두 선택되었으며, 이후부터는 지상낙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큰무리”의 초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sup>11)</sup> 그러나 게리트 뢰시

---

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여 투표 결과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 일은 거의 없었다. 그들의 입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거의 항상 바, 바버, 부스, 갱거스, 포에칭거의 지지를 받았다. 라이먼 스윙글의 말은 늘 존경심을 자아내고 확실하며 상당히 무게 있게 들렸다. 문제가 제기될 경우, 스윙글은 자신의 견해나 입장이 앞서 말한 세 명의 성원들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종종 번복하기도 했다. 대니얼 시들릭은 때때로 전통 입장과 다른 견해에 찬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주었지만, 그의 말은 세 명의 성원들, 혹은 라이먼 스윙글의 말 만큼의 무게로 전해지지는 않았다.

10) (역자): 2015년 현재 통치체 성원은 새뮤얼 허드(Samuel Herd), 제프리 잭슨(Geoffrey Jackson), 스티븐 레트(M. Stephen Lett), 게리트 뢰시(Gerrit Lösch), 앤서니 모리스 3세(Anthony Morris III), 마크 샌더슨(Mark Sanderson), 데이비드 스플레인(David H. Splane) 등 7명으로 이들 모두는 레이몬드 프렌즈 이후에 임명받았다. 새뮤얼 허드는 유일한 흑인이며 스티븐 레트는 월남전 참전용사다. 이 중에서 가장 젊은 통치체 성원은 가장 최근에 임명된 마크 샌더슨으로 1965년생이고, 1975년에 침례를 받았다.

11) 앞서 주목한 대로(185,186쪽\* 쪽) 초기 파수대의 기사에서는 1881년이라는 해를 144,000

를 포함한 다른 새 성원들의 경우, 이 특정 연도와 관련해서 분명한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게리트 뢰쉬는 1914년으로부터 27년 후인 1941년에 태어났고, 1959년에 칙례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기름부음받은 자’의 초대가 완료된 1935년에서 24년이나 지난 해였습니다. 새로 임명된 나머지 네 명의 성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균 나이로 보아, 그들은 1935년의 “단절”기라고 생각되는 시기 이후에 태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플레인은 1944년에 태어났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해서, “기름부음받은 자”의 자격으로 통치체의 직책을 맡기 위해서는 1935년 당시 적어도 십대였어야 했고, 이는 아무리 부족해도 현재 나이가 75세는 넘어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2004년) 8,800명의 “기름부음받은 자”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나이에 이르렀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1914년 세대”에 관한 기존의 교리가 세월의 흐름으로 인해 지속되기 어려웠던 것처럼, “1935년”에 관한 교리(“기름부음받은 자”를 구성하여 신성하게 임명하는 일을 완수하는 때가 1935년이라는 교리)도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통치체의 일원으로 초대되는 새로운 성원들은 기존 성원들의 승인을, 특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변화의 가능성을 자동적으로 증가시키기보다 오히려 현상을 유지하고 고수하려는 경향으로 치우치게 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기름부음받은 자”들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통치체의 성원들에게 “딱 들어맞는” 후보자를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추측

---

명의 “신부 반열”의 일원이 되는 초대가 끝나고 “높은 부름을 받는 문이 닫히는”일이 일어났으리라는 시기로 제시했다. 1881년이 오고 세대가 과거 속으로 사라진 후에는 이 시기의 의미도 사라졌고, 본질적으로는 반세기 후인 1935년이 그 의미를 대신했다.

하건대, 언젠가는 통치체 성원 임명은 통치체 성원들에게만 공개된다는 기본 원칙을 통치체 스스로가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라는 특별한 신분에 대한 그들의 교리와 조화를 이루기는 힘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파수대」 1992년 4월 15일호 31쪽에 실린 선언을 이러한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로 보았습니다. 이 호에 실린 두 개의 주요 기사에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두 계급, 즉 “기름부음받은 남은 자”와 “다른 양들”,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상징적 의미로서 “이스라엘인”과 “비 이스라엘인”에 해당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8,800여 명의 “기름부음받은” 성원들은 “시민” 즉 “선민”이자 베드로전서 2:9의 “왕 껌 제사장”을 구성하는 “영적 이스라엘인”이 되는 반면, 수백만 명의 “다른 양들”은 “타국인” 즉 “영적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동 기사에서는 “다른 양들”을 영적인 “외국인 거주자”로도 묘사하며, 그들이 육적 이스라엘을 위해 “벽을 쌓거나” “농부가” 되고 “포도밭 일꾼”의 역할을 했던 “외국인들”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노역은 “이스라엘인”에 대한 복종의 증거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1세기 사도 시대의 저작물들과 현저히 대조적인데, 사도 시대 저작물들에서는 계급의 구분이나 차별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라고 한 바울의 주장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앞에서 모두 동등하다고 생각했습니다(로마서 10:12; 갈라디아서 3:28; 골로새서 3:11). 그런데 「파수대」 기사는 그리스도 이전 시대에 존재했던 계급 분리 상황을 영적인 의미로 확대하여 지금의 상황에 대응시키면서까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이스라엘과, 그들에 대한 복종과 노역을 제공하는 “비

이스라엘” 계급으로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 이전 시대로 “시계를 되돌리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일으킨 급진적인 변화를 왜곡하고, 없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1992년 4월 15일호 「파수대」 기사는 제3계급 또는 노예 계급인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들이 비록 노예 계급의 신분이었지만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이 기사들은 강조하고 있으며, 참고문헌을 인용해서 느디님 사람들의 향상된 사회적 위치나 지위 혹은 신분에 대해, 그리고 특권을 가진 신성한 공식 계급으로서의 확고한 지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야 한다는 성서적 증거도 없이, 이 기사는 구약 시대의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사의 앞부분에서는 느디님 사람들을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족의 “노래하는 남녀”와 연결시켰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언급이 사라졌는데 이는 당연히 이들 속에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들은 “행정적 책임”과 관계있는 특권을 지닌 남성 계급을 강조하고 있는데, 증인조직 내에서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며 감독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부 위원회 성원들, 세계 본부에서 출판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거나 협회 주택과 공장들을 감독하거나 또는 여러 나라에서 건설 공사를 감독하는 유능한 남자들이 현대의 “느디님 사람들”이나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에 대응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아주 분명히 “기름부음받은 자”가 아닌 수백만 명의 “영적 이방인” 또는 “다른 양들”을 새로 확인된 노예 계급과 상응한 것으로 적용하고, 더 적은 특권과 불평등한 신분을 지닌 사람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부음받은 자”들과 함께 일하는 직책이 주어질 때는 특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온 영혼을 다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정한 것은 (통치체 위원회 모임에 “다른 양들” 신분인 형제들을 얹어 놓은 것) 실제로는 수치적인 의미에서만 새로운 뿐이었습니다. 1976년에 통치체 위원회를 구성한 초기부터, 본부의 다섯 개의 통치체 위원회에는(인사부, 출판부, 봉사부, 교습부, 집필부) 다섯 명의 형제들이(데이비드 머캔트, 돈 애덤스, 로버트 월런, 데이비드 신클레어, 칼 애덤스) 비서로 봉사하도록 임명되었는데, 이들 모두는 “기름부음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비서들은 각 위원회 모임에 참석했을 뿐 아니라 투표권은 없었지만 토론에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1992년 4월 15일호 「파수대」에서 투표권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것으로 보아 투표권은 여전히 통치체 성원들만의 특권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치체 성원들만이 전체가 모인 회기에(비서들은 참석하지도 않았던) 계속 참석합니다.

그래서 새 조정안은, 기존에는 비 통치체 성원이 한 명만 위원회 모임에 참석했으나, 이제는 두세 명이 참석할 수 있다는 점 외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단순한 조정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면서 주목할 만한 의미로 제시하는 것은, 이 조직이 지위와 특권만을 중대한 관심사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통치체가 “기름부음받은 자”들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에 관한 주요 교리를 상당히 수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조직은 “기름부음 받지 않은 자”들을 영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개인적 지식으로 보건대, 훨씬 더 능력 있고, 성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고, 그 지식을 더 잘 전할 능력이 있고, 통치체의 현 성원들보다 더 나은 통찰력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더 고고한 영적 수준을 보이는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엘리트로 구성된 통치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인 “이방인”의 지위를 영적인 “시민들”과 동등하게 하는 것이고, 영적인 “레위 사람이 아닌 신전 봉사자들”을 영적인 “왕 겸 제사장” 계급과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반세기 동안 위치타위의 교리가 요구한 그 모든 구분을 흐리게 하는 것이며, 실제적으로 해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통치체는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한 그렇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할 것입니다.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 반열”과 관련된 교리는 “1914년” 교리와 함께 증인의 핵심 교리였으며, 언제나 열렬한 옹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고 있는 중대한 교리적 모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는 심각한 갈등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치체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조직 내의 젊은 성원들이 스스로를 “기름부음받은 자”라고 결정하여(최근의 다섯 명의 성원들의 경우에서처럼), 통치체 성원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의 개혁을 인적 변화의 방향으로 잡은 것에 대해 그들이 범한 큰 실수는, 현 상황이 책임 있는 특정 성원들 때문이라고 탓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차적인 의미에서나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우선적으로는 그 성원들 탓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증인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관념에 있습니다.

여호와와의 증인의 신앙을 가장 뚜렷하게 구별하는 것은 지옥 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믿지 않거나, 영혼불멸을 믿지 않거나,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는 것 등이 아닙니다. 또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거나, 지상낙원을 믿는 바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특성들은 다른

종교 조직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sup>12)</sup>

여호와와의 증인을 다른 종파와 구별 짓는 특별한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즉위하셨다고 믿는 “1914년” 및 그와 관련된 종속 교리입니다. “1914년”과 그 종속 교리란, 1914년에 그리스도께서 권좌에 앉으신 후 통치권을 행사하고 계시며, 여호와와의 증인을 지상의 유일한 신권조직으로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지상 소유의 모든 것을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에게 맡기시면서 통치체에 궁극적인 권위를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이 종속 교리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모든 교리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며, 매우 설명하기 어려운 모순들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워치타워가 핵심적 교리를 변경하거나 그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을 다룰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파수대」 기사나 다른 출판물을 통해 그간의 주장을 변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주장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조직의 권위와 관련된 것이기에, 이 권위 구조에 대한 지지와 성실성을 견고히 하기 위한 매우 집중적인 활동이 현재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일들을 근거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면, 지금의 통치체 역시 전통적인 교리들을 고수하고 지지하는

---

12) 이 중 몇몇 교리들은 국제적인 규모를 갖춘 “성경 연구생”(Bible Student) 단체들도 믿을 뿐 아니라, 몇몇 “하나님의 교회”(Church of God) 소속 그룹들도 이런 측면에서는 거의 동일한 신앙을 지키고 있다.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the Seventh Day Adventist churches)도 ‘영혼수면’(soul sleep)을 믿으며, 영원한 고통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통치하는 지상낙원을 믿는다.

(역자): 여기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교회’(Church of God)란 한국에서 발생한 ‘하나님의 교회’와는 다른 것이다. 이것은 19세기 미국에서 오순절운동, 제일일 침례교, 재림파 계열에서 전통을 이어받아 여러 교단으로 활동 중이며 대부분 외부에서 이 계열의 운동을 지칭하는 말이다. 현재 미국 테네시 클리블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170개국에서 칠백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정책들을 지속할 것이며, 조직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 반대적 입장에 대해서는 그들의 권위의 힘을 사용하여 강력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사실 매년 1914년의 가르침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아울러 신성하게 위임받은 권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되었습니다.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14년 세대”에 대한 기존의 교리는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게 되었으며, 그 해결책으로 “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천년의 도래와, 특히 2014년이 도래함에 따라 1914년이라는 해는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먼 고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 세대”에 대한 가르침을 바꾸는 것은 무자비하게 흐르는 시간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일종의 “행동 지연”, 일시적으로 문제를 미루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프랑스 표현 중에 “더 많이 변할수록 더욱 똑같은 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난 변화는 궁극적으로 조직의 지배적인 성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 내부에 변하지 않는 핵심적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떠한 변화가 있든지 그 변화들은 “조정된 견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된 채 오류의 수정이 아니라 진보적 계시의 산물로 알려질 것이며, 폐기될 과거의 교리나 조정안은 ‘당시를 위한 하느님의 뜻’ 이었다고 기록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니 대영제국의 전 성직자이자 선도적인 천주교 신학자인 찰스 데이비스가 「양심의 문제」(*A Question of Conscience*)라는 책에 쓴 말이 떠오릅니다:

말은 살아있지 않다. 말은 살아있는 정신을 위해 봉사하지 않으며,  
고정된 채 바뀌지 않는 패턴의 노예이다.... 어떤 질문을 하든가... 겸

손한 탐색을 조심스럽게 회피한다. 무엇보다도 지나간 오류를 인정한다거나 현재의 진술이 과거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솔직함이 없다. ... 습관적인 규칙으로서의 공식 문서는 이름난 선임자들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그럴듯하게 요구하는 태도와 가르침의 변화를 다룬다.

증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본질적으로 조직의 가르침에 일어난 변화를 인정할 때마다 위치타워 조직이 보여 주는 모습입니다. 조직 체제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면서 데이비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진정한 사랑은 진실에 있다. 그리스도교인의 사랑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스도교인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실 안에서 가능한 것이며 모든 진실에 대한 자유로운 믿음에 의지한다. 편견으로 교리를 왜곡되게 받아들이거나 문제 제기에 대한 억압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리스도교인들은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위한 그리스도교적 진실에 대한 온전한 기반이 없다. 그들은 사랑을 위해 자신들을 해방시킬 자유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기쁨과 관용으로 타인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억눌려 있고 불안해한다... 제도의 억압을 흔들고 그 제도를 무시하려고 무척 애쓰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엄청난 포용력을 쏟아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일리 없는 조직에 속해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대안이 없기 때문이며, 본능적으로도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살 수 있는 사회적 조직을 원하기 때문이다. 하

지만 더욱 진지해질수록 그들은 단순히 그들의 경험과 욕구에 맞지 않는 구조 아래에서 더욱 긴장된 삶을 살아간다. 최근의 변화들은 실행되지 않은 채 희망을 부풀림으로써 긴장을 증가시켰고, 변화의 주된 영향은 현재의 구조를 서투르게 조정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매우 유창한 영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재생을 얘기하는 위대한 말이 있지만 최초의 시험적인 개혁이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권능을 발휘하는 이들은 경고를 하고 새로운 체제를 발하면서 뒤로 물러난다… 현재의 체제는 피상적으로 조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취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개혁을 위해 애쓰는 이들의 고귀한 노력을 비난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진 않다. 나는 그들의 목표와 결단력을 칭찬한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의 제도적인 교회 구조 내에서는 제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들은 교회의 현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sup>13)</sup>

반대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전도인들 사이에서도 큰 유사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기술했듯이, 최근에 일어난 변화는 병이나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증상만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인간의 양심에 지시하고 개인의 사고를 지배하려는 조직의 권위적인 완고함을 말합니다. 데이비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질병의 원인을 찾는 것이 치료법을 찾는 지름길이다.”

---

13) 「양심의 문제」(런던 호더 앤 스토폰, 1967, pp.65,66,77,78,81)

그러나 주요 변화를 늘어놓는 「파수대」의 기사들은 본래의 그릇된 추론방식의 문제나 성서 오용에 관한 반성을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사들은 일관성 있게 그 체제를 계속 신뢰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체제는 이 모든 오해에 대한 근원적인 책임이 있으며, 오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오해를 주장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면 가혹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파수대」 기사들은 그 체제에 계속 복종해야 할 이유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더욱 애석한 것은, 그 변화의 계기가 진리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나 성서 또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깊은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전의 입장이 불확실한 상황이 되어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될 경우(예를 들면 1914년과 관련 있는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처럼), 또는 세상 정부에 의한 과세나 다른 제재를 회피하여 얻는 이익이 위태로운 상황이 될 때에야 비로소 조정된 변화를 발표합니다.<sup>14)</sup>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조직의 진정한 근본적 개혁을 희망을 가득 품고 바라봅니다.

개신교나 복음주의적 배경을 지닌 조직에 대해 얘기해 보자면, 다니엘 테일러라는 학자가 쓴 「확실성의 신화*The Myth of Certainty*」라는 책에 나오는 다음 내용들이 살펴볼 만합니다:

---

14) 초반에 주목했듯이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여호와의 증인 조직은 종교단체로서의 합법적인 등록 및 보통의 종교 단체에게 주어지는 이익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들을 겪었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 및 기타 국가들의 정부 기구에서는 증인 조직의 교리 중 그 나라에서는 용인하기 힘든 지침들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거나 징계부과금 제도를 실행했다. 증인 조직의 일부 변화는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제명처분 제도와 수혈금지 지침은 비난을 사기 쉬운 사항들이는데, 조직은 대중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홍보단을 구성하여 뉴스 매체에 호의적인 인상을 심는 등 상당한 노력을 했다.

모든 제도와 하위 문화의 주요 목적은 자기 보존이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인간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며, 특정 종교 제도를 지키는 것은 그 중심에 있지 않다. 제도를 운영하는 이들이 그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은 특정 사람, 교회, 종파, 신조 또는 당신의 목적을 달성할 조직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각각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준비가 된 자들을 사용할 것이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애쓰는 자들은 그 대로 내버려 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해 회의를 갖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동일시되며 - 이는 오래도록 관용을 베풀 수만은 없는 그런 것이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관과 안전을 스스로 보호하고 있다. 종교 조직은 그들에게 의미와 목적의식을 주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경력도 쌓게 해주었다. 누군가가 이러한 것들에 위협이 된다 싶으면 그는 정말로 위협적인 인물인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종종 힘으로 해결되거나, 이 위협이 발생하기 전에 제어되기도 한다. ... 제도는 하위 문화의 규칙을 발표하고 해석하고 시행함으로써 그 힘을 가장 분명하게 발휘한다. 모든 제도에는 규칙과 이를 시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규칙은 명확히 성문화되어 있고, 어떤 규칙들은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실효성이 떨어지지도 않다.<sup>15)</sup>

이 저자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쓴 것이 아니라, 종교 조직 자체에

---

15) 다니엘 테일러 박사, 「확실성의 신화」(텍사스, 와코, 워드북스, 1986) pp.29,30.

대해 광범위하게 쓴 것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조직에서 사람들은 종교 체제에 대한 헌신을 주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오류에 빠지는데, 이에 대해 한 친구로부터 전해들은 격언이 생각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히 쓸데없는 희망을 버리는 마음은 평온함으로 보상 받는다.

나는 내 경우를 통해 이 격언이 사실임을 알았고, 다른 많은 이들의 경우를 통해서도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앞세우는 자들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짓밟히는 치욕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거나, 하느님에 대한 배교자로 낙인 찍히는 치욕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되어도, 심문이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마음속으로 찾아드는 분명한 안심과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그 심문자들의 손이 뻗지 않는 곳에 있음을 알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그 집단의 조사와 압박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지키고, 그 진실에 대한 타협을 거부함으로써 멋지고 놀라운 방식으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더욱 책임감 있게 쓰면 더 좋은 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가장 위대한 자유는 모든 사람들의 선을 위해 봉사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의 지시에 속박되지 않고 하느님과 그의 아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이 동하는 대로 봉사하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큰 부담이

제거되고 무거운 짐 덩이가 가벼워지는 기쁨은 그러한 자유에 따른 것입니다. 진실로 감사해 한다면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이며, 그것도 모자라지 않게 들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유를 부여하는 존재에게 봉사할 때는 그 마음이 더욱 클 것입니다.<sup>16)</sup>

변화 초기에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나는 그로 인해 가장 위대한 두 친구와 진실한 개인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하느님과 또 그분의 아들과의 개인적 관계의 필요성을 더욱더 강하게 인식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감사하고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종교 조직에 속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관계의 개인적 성격을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마태복음 10:32,33). 그분의 부름은 “내 조직으로 오라”거나 “어떤 교회나 종파로 오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입니다(마태복음 11:28).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분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이고 종교 조직은 큰 나뭇가지며 너희는 그 나뭇가지에 뻗어 있는 잔가지이거나 잎이나라.”가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그에게 직접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은 가지입니다.”라는 것입니다(요한복음 15:5). 선한 목자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분은 “나는 훌륭한 목자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10:14,15). 당시 동방의 목자 중에 한 목자가 자신의 어린 양들 각각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고,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

---

16) 갈라디아서 5:1,13,14; 고린도 전서 9:1,19; 골로새서 3:17,23-25.

을 불러 인도” 할 수 있었습니다(요한복음 10:3).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느님의 아들이 그를 따르는 무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알고 개인적이고도 개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놀랍도록 위로가 되고 확신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종교 조직의 일원이라는 것이 어떤 소속감을 갖게 하든지, 그것은 성서가 보여 주는 친밀한 개인적 관계의 힘과 아름다움과 커져가는 유익함과는 결코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의 사랑에 대하여 사도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줍니다.<sup>17)</sup>

우리는 또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목표에 도달하고 달성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이란 진실로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소속되어 있는 각 개인이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믿음을 얻고 표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집단적이거나 집합적인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념에 있어서도 그것이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면 의미도 타당성도 없습니다. 타인이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신앙과 신념을 빌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자신의 정신과 마음의 산물이어야 합니다.

사도는 다음과 같은 글로써 믿음이 개인적이어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

---

17)베드로 전서 5:7 새번역, 마태복음 6:26-33 비교

니다”(로마서 10:10,13, 새번역). 개인적이지 않은 믿음 즉 단순히 종교 체제의 전통적인 가르침만을 되풀이하며 입으로만 말하는 것은, 예언자가 언급한 것처럼 “사람의 명령으로 가르침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을 기반으로 승배를 드리는 것이 될 뿐입니다(이사야 29:13). 신성한 심판의 시기에 우리는 어떤 교회 집단이나 조직의 일원으로 하느님과 그분의 아들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에 대해 하느님께 답변하게 될 것입니다.” - 로마서 14:10-12.

대부분의 증인들의 경우에, 슬프게도 조직은 아주 고집스럽게 스스로를 전면에 내세웠고, 커다란 장소를 차지해서 영적인 장면을 연출했으며, 조직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곧 개인들의 것이었어야 했던 거룩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고 말았습니다. 조직의 모습은 거대하게 점점 커져서 하느님의 아들의 위대함을 가렸고, 하느님의 아들이 함께 할 이들을 초대하는 그 따뜻한 관계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시야를 흐리게 했고, 사람들이 하느님의 아들의 따뜻한 성품을 잘못 알도록 왜곡했습니다.<sup>18)</sup> 많은 사람들이 조직에서 쫓겨난 이후, 더 이상 가시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활이 더 이상 계획된 활동으로 짜여진 일상과 연결되지 않으며, 더 이상 지침과 규칙이 가하는 통제를 느낄 수 없을 때, 그때 오롯이 혼자라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표류하며 붙잡을 데 없이 허우적거리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느님과 그분의 아들을 완전히 의지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온전히 알기 위해 그런 고통스런 상황을 중

---

18) 마태복음 11:28-30; 마가복음 9:36,37; 10:13-16; 누가복음 15:1-7; 요한복음 15:11-15.

중 겪어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느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진지한 관심을 쏟고, 영적인 고양과 격려가 되도록 애쓰면서 타인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겠다고 깨닫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sup>19)</sup>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견뎌냈으며 고통스러운 상황을 잘 극복했고, 하느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마음이 더욱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이 울타리로 둘러막은 거대한 땅에 가둔 어린 양이 아니라, 목자가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관심으로 보살펴주는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친밀한 친구로 대하시는 그들의 주인이자 소유주이신 분과 함께 나누는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나이가 몇 살이고 그들이 이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든지 간에, 그들이 느끼는 감정에 딱 들어맞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오늘이 내 남은 삶의 첫 날이리라.” 그들은 희망과 열망을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께 의지하므로 행복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느낀다고 해서, 하느님의 양 무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회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양 무리의 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요소가 결정합니다. 그 요소는 어떤 종파나 교회 집단 또는 조직의 일원이 되거나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적으로 이것은 이 문제에 있어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결정적인 요인은, 어떤 사람이 종교 조직의 일원이든 아니면 혼자 있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느님의 아들

---

19) 시편 31:11-16; 55:2-6,12-14,22; 60:11,12; 94:17-22; 로마서 5:1-11; 8:31-39.

의 머리직분을 인정하며 그분의 지도와 인도에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것에 따라 단 한 명의 중재자가 있으며, 그 중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어떤 인간 조직도 동료 중재자나 보완적 중재자로 이 관계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에베소서 4:11-16; 디모데 전서 2:3-6). 믿는 자들로 구성된 회중 간에는 상호관계성과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그들이 어떤 조직 구조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리는 어떤 권위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으로 서로를 지배합니다. - 에베소서 4:25; 5:21.

하느님의 아들은 “나는 세상 제도의 종결까지 모든 날 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sup>20)</sup>라고 말씀하심으로써, 1세기나 지금 20세기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던 모든 세기에 걸쳐 진실한 종들을 두었다고 확신시켜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잡초들” 사이에 섞여 있을지라도, 하느님의 아들은 그들이 어떤 조직에 속해 있어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그들 본연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누가 진실한 제자인지 알아보셨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혹은 회중의 일부가 된 그들을 인간의 관점으로는 구별할 수 없을지라도, 수 세기에 걸쳐 내려오면서 그분은 집단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들을 알아보셨고, 이로써 그들의 주인이자 수장으로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견고한 기초는 그대로 서 있으며, 거기에는 ‘여호와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신다.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불의를 버려야 한다.’ 라는 인장이 찍혀 있습

---

20) 마태복음 28:20.

니다.”<sup>21)</sup>

이것이 현재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왜 의심해야 합니까? 깨끗하게 울타리를 두른 땅에 모든 “밀”을 거둬들었다고 말하도록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는 것이 사람들의 책임이 아님을 (심지어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도 않음을) 하느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서는 하느님의 아들이 그분의 심판을 알릴 때 그들이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sup>22)</sup>

이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알기 위해 어떤 “꼬리표”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거나, “세상 사람들”로 진실을 믿는 자이거나, 어쩌면 “악의 조직의 일원”이면서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덕택에 자동적으로 “형제”나 “자매”가 되는 누군가이거나, 꼬리표를 붙이기에는 부족하여 “증인이 될 만은 하지만” 친밀하게 관련을 맺을 가치는 없는 사람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종과 성별, 노소, 조직의 성원이든 개인이든, 그 차이를 불문하고 각 사람은 편견 없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단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서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sup>23)</sup>

---

21) 디모데 후서 2:19.

22) 마태복음 13:37-43을 로마서 2:5-10,16; 14:10-12; 고린도 전서 4:3-5; 고린도 후서 5:10; 10:12,18; 디모데 후서 4:1과 비교할 것.

23) 사도행전 10:34,35, 새번역.

분명히 양심에 정직하고자 애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런 경험 중 하나는 증인 사회 내에서 맺은 오랜 우정이 얼마나 빨리 끝날 수 있는가를 깨닫는 일입니다. 또한 확실한 사랑의 분위기가 얼마나 갑작스럽게 차디찬 불신으로 변할 수 있는가를 깨닫는 일입니다. 회중 가운데서 가장 활동적이었던 어느 남부의 한 여호와의 증인은 이 조직이 성서적 가르침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났는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탈퇴할 생각이 없다고 지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회중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개인적으로 성서를 공부하고 도움을 주었지. 나는 그들도 다른 사람들도 깊이 사랑하고 있으니, 이 회중을 떠날 수 없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어.” 하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그녀가 어떤 가르침에 선뜻 동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로들은 그녀의 “믿음”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회중 사이에 도는 빈정거림과 험담을 확실히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여겼던 깊은 사랑은 실은 일방적인 것이었어요. 실제로 내 느낌을 알기 위해 스스로에게 물을 것도 없이,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차갑게 돌변해 버렸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당신의 존경과 헌신과 성실이 비방을 받을 때 - 받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비방 - 당신과 가장 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지 않아.” 혹은 “일의 내막은 모르겠지만, 조직이 무슨 말을 했다면 분명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만약 그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참으로 끔찍할 것입니다.

“영적인 낙원”의 일부라고 여겨지는 과시적 사랑은 너무나도 자주 피

상적인 사랑임이 드러나고 맙니다. 한 전화 통화에서, 인근 주에 살면서 여전히 활동적으로 조직생활을 하는 한 여호와의 증인은 그 도시의 저명한 장로인 그녀의 남편이 한동안 다른 지역의 장로들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 남편의 반대편에 서서 뭐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들은 나무 꼭대기에 제 남편을 매달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격언이 하나 생각나서, 나는 그 격언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두고 누가 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우리가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되풀이했는지 모를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차갑게 거절당했던 어떤 사람이 보낸 편지에 담긴 동일한 느낌을 떠올렸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년 전, 많은 친구들이 내게 와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얘기들을 믿어버렸을 때,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 내 기쁨은 흐려졌습니다. ... 나는 그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 이유가 그들 사이에 퍼진 두려움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조직을 떠남으로써) 여호와를 버렸거나, 최악의 경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잘못된 길로 빠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일로 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알기에 나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를 버리지도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내 입장과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나는 그들과 또 조직의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상처와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내 힘을 다해 어떤 노력이라도 기울여서 그들과 연

락할 것이며, 내게 일어난 일의 진실을 해명할 것입니다.

전등 스위치를 손쉽게 꺼버리듯, 친밀했던 누군가와의 관계를 한 순간에 외면해 버리는 것은 조직의 교리 주입의 산물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자연스런 감정도 아니고, 정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알기에 나 역시 그와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여호와의 증인은 이전에 유지했던 모든 우정이 사실상 끝나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시편의 필자가 들려주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sup>24)</sup>

오직 하느님과 그 아들과의 개인적 우정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만이 상황에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모든 관계들을 상대적 가치에 놓고 적절한 관점으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필요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다른 우정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노력한다면, 누구나 “영적 교제”를 위한 어떤 단체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소유한 개인으로서 오히려 더 지속적인 우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내 모든 친구들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증인 조

---

24) 시편 27:10을 시편 31:11; 38:11; 50:20; 69:8,9,20; 73:25,28과 비교할 것.

직 안에서 맺어진 친구 관계는 단절되었지만, 내가 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다른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결단코 의견이나 견해의 차이로 우정을 망치는 그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다음에 소개하는 조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각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sup>25)</sup>

자주 인용되는 히브리서 10:24,25 말씀은 실제로 성서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sup>26)</sup> 우리가 하느님과 그의 아들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 또한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어울리고 친교를 맺고 그들에게서 유익함을 얻고 또 그들이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간이나 장소나 태도에 관해 말해주는 바가 없습니다. 그는 조직적으로 생겨나고 관리되는, 어떤 형식적인 접대나 모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문맥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조직적인 형식을 갖춘 회중 모임과 그곳에서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단지 상호 발전을 이루고 선행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서는 가정에서 관습적으로 이렇게 행

---

25) 에베소서 4:2,3, 새번역.

26)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니다.” 히브리서 10:24,25, 새번역.

했고, 이는 종종 함께 식사를 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sup>27)</sup>

전도인의 수가 증가하고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이 조직을 인도하고 축복하시는 증거라고 오랫동안 강조해왔고, 또 그렇게 여기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기에 더 겸손하고 더 수수한 모습의 모임을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는 예수의 확실한 약속을 이해하고 마음에 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보아, 성서를 읽고 토론할 때 불과 한두 사람만 함께해도 그 자체로 충분히 만족스럽고 보람 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관심도 깊게 가져야 되고 언급할 말들도 더 다양해져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의 기운을 돋우는 힘과 그 말씀의 풍부함은 “두세 명”만 모일 때에도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전에 조직적으로 계획된 큰 규모의 대회에서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과 만나며 수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치가 있는 인상적인 많은 것들에 흠뻑 빠져 버린 것은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권위 구조가 마련한 엄격하게 통제된 “영적 식이요법”으로 살아가는 대신에, 자기 스스로 하느님의 말씀이 실제로 무엇이고 무엇을 말하는가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의 또 다른 유익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서를 읽는 일이 얼마나 새롭고 재미있는지, 그리고 성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가 조직의 전통적 가르침에

---

27) 고린도 전서 16:19; 골로새서 4:15; 빌레몬서 1:2; 사도행전 2:46; 유다서 12

의해 “왜곡”되는 일 없이 문맥에 있는 그대로 그저 성서 자체에서 드러날 수 있음이 놀라울 뿐입니다. 남부 어느 주에 사는 한 여인의 경험을 말하자면, 그녀는 47년 동안 집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으며, 매월 봉사보고를 성실하게 했던, 매우 열심 있고 활동적인 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서를 읽는 일이 얼마나 깊은 감흥을 주는 일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수대」를 읽을 때에는 새벽 2시까지 깨어 있고 싶은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시간까지 자지 않고 깨어 성서를 읽고 있습니다.“

성서에 대한 얽히고설킨 해석, 복잡한 논쟁, 상상력이 풍부한 우화적 해석에 익숙해지게 되면, 성서의 실질적인 메시지의 뛰어난 간결성을 깨닫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야 선지자(예언자)니라.”<sup>28)</sup>라는 원칙을 말했다 때, 실제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성서 가르침의 핵심적 요소가 사랑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개의 율법에 의지한다는 예수의 선언과 일치합니다.<sup>29)</sup>

율법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예언자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해보십시오. 예언이란 이 시대 어떤 시점에 벌어질 사건들에 대한 모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적용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며,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예언의 목표는

28) 마태복음 7:12, 개역개정.

29) 마태복음 22:40, 개역개정.

우리를 하느님의 아들의 사랑으로 이끄는 것이어야 하며,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한 그 탁월한 사랑을 배우게 하고, 우리 역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에 대한 증언이 예언에 영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sup>30)</sup>

성서가 다른 의미로 쓰일 때마다, 또한 독단주의와 종파적인 논쟁이 성서의 단순한 의도를 흐려지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 때마다, 그것은 성서의 완전한 목적을 놓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종종 까다롭기까지 한 예언의 해석(손에 특별한 책을 쥐지 않고서는 도무지 설명조차 할 수 없는)이 “하느님의 깊은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 구절이 성서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성서에서 드러나듯이, 성서에 나오는 참으로 “깊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특별한 자비를 드러낸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의 깊이”를 아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나는 그분이 자신의 풍부한 영광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영의 능력으로 위력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랑과 더불어 머물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고 기초 위에 굳게 세워져서, 모든 거룩한 자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온전히 이해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 바와 같습니다.<sup>31)</sup>

용어색인을 사용하여 “좋은 소식”이라는 구절을 검색해 보면, 이 구

---

30) 요한계시록 19:10을 베드로 전서 1:10,11과 비교할 것.

31) 로마서 11:33; 에베소서 3:16-19.

절이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핵심 구절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서에 “좋은 소식”이란 표현이 백 번도 넘게 나오는데, 그 중 “왕국에 대한” 좋은 소식은 여덟 차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은 수십 차례나 됩니다. 이것은 그의 통치권을 뜻하는 표현인 하느님의 왕국이 그의 아들의 중심에 있으며, 하느님께서 아들을 통해 하신 일들과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그 아들이 조심스럽게 감추고 있으므로, 우리는 인간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sup>32)</sup>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과 선의 깊이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신을 기울이는 연구와 묵상과 기도에 비교해 보면, 모든 예언 해설서들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롭거나 신비롭거나 혹은 이국적인 저작물들은 정말로 피상적인 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서 모든 부분의 의미를 한 가지로 고정시키거나 모든 예언적 진술을 권위적으로 적용하여 설명할 필요 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쓴 내용은 여전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마는,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마는, 그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

32) 골로새서 2:3.

다.”<sup>33)</sup>

우리가 성서를 읽어서 하느님과 그의 아들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발전된다면, 성서를 읽는 중요한 목적을 온전히 달성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서에는 명백하게 한 가지 설명만이 가능하고 올바르게 유일한 해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자문해 봐야 합니다. 대체할 수 있는 설명이 있을 경우, 두 설명이 모두 성서의 나머지 부분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두 설명은 믿음, 소망, 사랑에 기여하는가, 단 하나만을 완강히 고집하므로 인해 종파적 올라미에 빠지지 않는가 하는 것들 말입니다.

논쟁과 토론은 종종 성서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특정 논제나 교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모적인 논쟁과 토론이 과연 진정한 선을 달성하는 것일까요? 더욱 중요한 점으로, 인간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느님과 그의 아들의 특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습니까? 타인과 어울려 사는 우리의 삶과 태도는 진실로 하느님과 그분의 아들의 가르침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까? 타인을 대함에 있어 자비와 인정과 도움을 진실로 이끌어 내지 못하는 조직이나 개인의 가르침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결코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일 리가 없습니다.<sup>34)</sup>

여러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나는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여러 사람들을

---

33) 고린도 전서 13:9,10,12,13, 새번역.

34) 요한 1서 4:21.

언급했고, 때로는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이들에게 그들을 일종의 모델로 제시하지 않고, 나조차도 나를 그런 식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서 설명한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에 보인 그들의 입장과 영적 태도를 진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일 뿐입니다. 어느 경우에서도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롤 모델이 있고,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고 신뢰할 대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느님의 아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서는 하느님의 아들과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기타 사도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신실한 사도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들의 글은 신실하게 하느님의 아들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던 어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너무 조용한 삶을 살고 있어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더욱 많은 일에 참여해야 하고, 또 더 많이 달성해야 한다고 걱정했습니다. 워치타워 조직은 종종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인류에 대한 봉사를, 평범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활동들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러한 활동들에 계속 참여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제국 시대에는 대략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해가 떠서 질 때까지 하루 12시간을 일해야 했고, 여자들은 하루의 노동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기구도 없이 고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생활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았

습니다.<sup>35)</sup> 순환되고 반복되는 일상은 본질적으로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노동자가 그의 주인에게 하는 봉사에서, 어느 아내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주는 보살핌에서, 혹은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삶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관계와 특성들에서 새로운 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은 현재적이었으며, 그들이 한 일과 그들이 일한 방식,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속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좋은 소식을 나눌 기회를 통해 그들은 믿음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 차이는 명백히 드러났는데, 그것은 특별한 활동이나 계획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 품은 믿음에서, 그리고 타인들과 그 타인들을 대하는 일상의 일들에서 그들이 보여준 태도에 미친 믿음에서 드러났습니다.

왕국에 대한 그리스도의 설명에서는, 믿음을 빵을 굽기 위한 밀가루 반죽에 넣은 이스트에 비유했습니다(누가복음 13:20,21). 일단 넣었다 하면 이스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요히 그리고 보이지 않게, 어떤 허세도 부리지 않고 요란하게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으며 어떤 관심도 끌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활동이 눈에 띈다거나 주목할만하지도 않으며, 조용하고 소박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달성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이 주는 영향의 결과는 제 때에 명백히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그 일에 어떤 특징이 있든지, 우리는 그것이 하느님의 성령이 달성한 것과 비교했을 때

---

35) 마태복음 20:1-8. 「해설자의 성경 주석」에서는 에베소서 6:5과 관련하여 당시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인용한다.

매우 사소하다는 것을 늘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표현한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장하게 하시는 이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교하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고린도전서 3:5-7). 하느님과 그분의 아들은 실제로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는 분들입니다(마태복음 11:28-30).

성서에서 말하는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진부하고 틀에 박힌 생각에서 우리의 정신을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어 ‘에르곤’에서 온 “일”이라는 말은 형식적이거나 계획된 것에 대한 어떤 암시적 개념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이 말이 표현하듯 종종 “선행”을 의미하는데, 이 표현의 배경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선행 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에 대해 말했을 때, 이미 앞서 나이든 남자, 나이든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노예들에 대해 얘기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 말하면서 바울은 어떤 특별하고 계획된 활동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일상적인 행동의 특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디도서 2:1-14). 야보고도 “말씀을 행하는 사람”과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숭배 방식”에 대해 말하면서, 세상 때에 물들지 않은 채 고통 받는 고아들과 미망인들을 돌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야보고서 1:22,26-28). 또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만든다고 말할 때도, 도움이 필요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의 필요한 것들을 살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야보고서 2:14-17). 요한도 똑같이 형제들에게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에르곤’)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촉구합니다(요한 1서 3:17-18).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빛나는 빛으로서, 다른 이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

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일”이나 “선행”이 될 것입니다. - 마태 복음 5:14-16.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디로도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 유일한 존재를 알기 때문입니다.<sup>36)</sup> 나는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의 강건한 교우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말로 이루어진 교리로서가 아니라, 생활방식으로서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진실한 사람들과 알고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sup>37)</sup>

나는 그저 하느님의 아들의 사도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바랄 수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제 과거일 뿐입니다. 나는 후회할 일들에 비해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저지른 잘못의 심각성을 무시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생의 모래시계 속에 시간이라는 모래가 점점 줄어들어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인생의 초년기에 선택한 결정들로 인해 인생 전반에 걸쳐 해로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다소 고통스럽지만, 지울

---

36) 요한복음 6:68.

37) 요한 1서 3:18.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난 날 견뎌 낸 고난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고난들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배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조직에 대한 신뢰에 찬 나의 확신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하느님과 그분의 아들에게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노력했으나, 조직은 단지 그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통제할 수 있고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자신들의 무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들이 확실한 토대인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세우도록 개인적으로 애썼다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리라 믿습니다. 다른 이들이 물러날 생각을 고려하는 나이에 나는 내 자신과 아내의 미래를 위한 대비를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서 저자의 다음과 같은 약속을 나는 신뢰합니다. “여호와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sup>38)</sup>

나는 양심을 지킨 일을 후회하지 않으며, 선을 추구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어떤 불쾌함을 겪게 되었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잘못 드러낸 초기의 어떤 결정들은 거의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신적인 지지나 위로를 줄 아들이나 딸을 두지 않은 아내가 혼자 남게 될 일을 생각하면 내 가슴은 공허함을 감출 수 없지만, 눈앞의 미래를 넘어 먼 미래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은 나의 확실한 희망이 되므로, 그 미래에 대한 거룩한 약속으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어떤 행동을 알게 되더라도 그들이 더

---

38) 히브리서 13:6

이상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거나 심판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나 또한 더 이상 그들을 심판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자신들의 견해와 태도를 넓힘으로서, 그들의 삶도 더 의미 있는 삶이 되어 더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내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배웠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나는 이런 저런 식으로 내가 잘못된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할 수 없어 후회스럽지만, 그들의 상처가 지속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느님의 섭리가 내 능력을 벗어나는 영역에까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다행히도 내 남은 생애 동안 내 아내와 나에게 어느 정도의 평화가 깃들 것이며, 또한 일생 동안 둘이 함께 하느님께 봉사하고자 애씀으로써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국제 본부로부터 제명된 후 에드워드 던랩은 오클라호마 시로 가는 길에 앨라배마를 지나게 되었는데, 69세의 나이에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교적 삶을 이끌고자 애쓰는 것이며, 무엇이 되었든 일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사람들을 돕고자 애쓰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그는 나이 때문에 도배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지만, 80세가 훌쩍 넘도록 세속 일을 하면서 자신과 그의 아내를 계속 부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서, 또한 미국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서신을 교환하면서 영적으로 계속 왕

성히 활동했습니다. 그는 어떤 후회도 하지 않았으며, 그의 믿음은 그의 경험을 통해 견고해졌습니다. 그는 1999년 9월, 89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현재(2004년) 이 글을 쓰는 나는 82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통해 하느님과 그의 아들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는 풍부한 유익함에 있어, 에드가 그랬듯이 나도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처음에 내가 후회한 것은,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조금 덜 힘든 젊은 시기 - 아마도 십 년쯤 전(57세가 아닌 47세쯤) - 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만약 더 일찍 깨달음에 이르렀다면 나는 통치체의 일원으로 수년간 보내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글이 주는 잠재적인 어떤 유익함을 전해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은 여행이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가에만 집착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진행해 나갈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정신적 타성이나 영적인 퇴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고 집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행에서는 불가피하게 도전을 받기 마련이지만, 우리가 여행을 계속해 나가고 조금이나마 더 나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용기를 얻어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을 성취해 내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 시편 5:8; 잠언 3:6; 16:9; 예레미아서 29:11.

우리의 개인적 상황이 어떠했든지, 사도가 한 이 말의 진실성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마서 8:28 새번역) 양심을 지키고 우리의 머리이신 하느님의 아들에게 진실함으로써, 우리는 상실로 계속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정말로 거대하고 영속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사도가 한 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ро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 빌립보서 3:7,13,14, 새번역.

## 부록



## 제3장

### 찰스 테이즈 러셀의 유연장

지난 수년 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축적된 나의 모든 재산을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에 기부하면서, 나의 친애하는 성서의 집 가족 성원들 - 이 추수 사업에 동참한 모든 형제들 - 즉, 구속자이신 주 예수를 한 소리로 부르는 믿음의 가족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격려를 전합니다. 하지만 피치버그 국립 은행의 개인 계좌에 보관된 약 200달러는, 아내가 나보다 오래 살 경우의 생계를 위해 기부에서 제외합니다.

그에 더하여, 「시온의 파수대」지와 「구 신학 계간지」의 판권, 「천 년기 새벽 성경연구」 책들과 그 외 여러 팜플렛과 찬송집 등의 저작권을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에 기부합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출판물의 모든 이익에 대한 통제권이 나에게 있지만, 사후에는 나의 염원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온전히 밝힙니다. 이제 밝히는 나의 염원 - 나 자신

도 존중하는 염원 - 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인의 편집위원회

「시온의 파수대」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리를 위해 충실함과 신중함을 나타내온 다섯 명의 형제로 구성된 위원회의 손아래 둘 것을 알립니다. 「시온의 파수대」지의 지면에 실리게 될 모든 기사들은 다섯 위원들 중 적어도 세 명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 명의 승인을 받은 기사일지라도, 그것은 상대적으로 한 명 내지 두 명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기사는 더 많은 기도와 토론과 숙고를 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출판을 보류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널 편집을 운영하게 되면 평화의 유대와 믿음의 연합을 가능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위원회의 이름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경되겠지만) 저널의 각 호에 모두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

널의 다양한 기사를 집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수 위원들의 승인을 받은 기사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협회가 다른 정기 간행물은 발행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했지만, 편집위원회는 다른 출판물을 위해 기사를 쓰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되지 않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의 목적은 편집위원회와 저널을 야망과 자만심이나 머리가 되고 싶은 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며, 진리가 그것 자체의 가치에 의해 평가되고 인지되며, 주께서 진리의 원천이자 교회의 머리로서 인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일간지에 연재한 나의 일요일 토론 내용들은 「파수대」지에 기사로 게재하든 그렇지 않든, 위원회의 재량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을 게재하거나, 혹은 저자에 대해 존경을 표하는 어떠한 암시적 표현도 없어야 합니다.

아래에 이름이 적힌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그들이 직책을 수락

한다면) 성서의 교리에 온전히 충실한 자여야 하며 - 특히 대속 교리에 대해 - 그분의 말씀과 영에 대한 순종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하느님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는 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만약 임명된 위원 중 그 누구라도 이 마련에 동의하지 않게 되거나 양심을 어기거나 죄를 범하였음에도 위원회의 멤버로 계속 남아 있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 결정의 목적과 성령에 반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편집위원회는 자동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멤버 중 한 명이 죽거나 사임한다면 남은 멤버들이 그의 계승자를 선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저널은 5인의 온전한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임명받은 위원들은 수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구성원을 선출할 때 신중함을 나타내야 할 것이며, 선출될 성원은 생명의 순결함, 진리 안에서 투명함, 하느님의 승인, 형제에 대한 사랑과 구속자에 대한 충실과 같

은 특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에 임명된 5인 외에 나는 또 다른 5인을 임명합니다. 전체적인 선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이 유언장을 쓰는 시기와 나의 죽음의 시기 사이에 편집위원회에 공석이 생기면 그들 가운데서 충원될 것입니다. 공석을 채우기 위해 덜 바람직한 사람과 더 바람직한 사람의 순서대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윌리엄 페이지,  
윌리엄 반 엠버그,  
헨리 칼라이 록웰,  
E. W. 브레니슨,  
F. H. 로비슨

편집위원회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내가 제안하는 가장 적합한 다섯 명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E. 부르게스, 로버트 허시, 아이작 호스킨, 지오 H. 피셔(스크랜튼), J. H. 러더포드, Dr. 존 에드거.

모든 「파수대」에는 편집위원들의 이름과 함께 다음의 광고 내용이 실릴 것입니다:

### 시온의 파수대 편집 위원회

이 잡지는 편집위원회의 감독 하에 간행되며, 모든 기사들은 적어도 세 명 이상이 읽고 승인해야 하며 진리와 일치한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현재 봉사하는 위원회의 이름: (해당 위원의 이름)

보상에 관해서는, 협회의 월급에 관한 이전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 즉 아무도 지급받지 않으며, 협회나 공사에 노동 봉사한 사람들에게 단지 합리적인 수준의 경비를 허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의 현재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나는 편집위원회와 관련하여 제안합니다. 현재 활동 중인 세 명의 위원들에게 주거와 식비를 위해 한 달에 10달러를 지급할 것이며, 또한 그들의 자녀나 부양 가족을 위해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총 금액은 협회 운영 위원회에 의해 정해질 것이며, 돈이 축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고 적당한 판단이 요구될 것입니다. 나라의 법이 허용된다면 나는

OLD THEOLOGY QUARTERLY (구 신학) 신문이 과거와 같이, 아니 배포될 수 있는 한 영원히 발간되길 원합니다. 또한 나라가 요구하는 법 제도 안에서, 이 신문 기사로 「파수대」지의 지난 기사들과 나의 강연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자가 밝혀져서는 안 됩니다.

위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에 의해 통제되고 사용되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덴마크어, 스웨덴어 그리고 모든 외국어 출판물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길 원합니다.

나의 의지에 따라, 이 유언장의 복사본은 편집위원회에 임명된 사람들과, 공석이 생길 때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에 임명된 사람들 모두에게 전달될 것이며, 위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의 이사회 멤버 전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이 일은 즉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임명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이 전달되어야 하며, 이 임명을 수락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위치타워 성

서 책자 협회 부 협회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에 임명된 형제들은 수락 의사나 조건 사항들을 알려야 합니다. 각자에게 대답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도시나 나라 안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절한 시간이 허락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적어도 3명 이상의 편집인들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협회를 운영하는 모든 이들은 편집위원회 멤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야 하며, 이 점과 관련하여 내가 지시한 지침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위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에 나의 모든 의결권을 기부했으며, 다음의 다섯 명의 신탁자의 손아래 둡니다: 루이스 해밀턴 형제, 알메타 M. 네이션 로비슨 형제, J. G. 헤르 형제, C. 톰린스 형제, 알리스 G. 제임스 형제.

위의 신탁관리자들은 평생 종사할 것입니다. 사망하거나 사임하는 경우 위치타워 협회 이사와 편집위원회와 남은 신탁관리자들에 의

해 하느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 후에 계승자가 선택될 것입니다. 편집위원회 중 누구라도 교리적 문제나 부도덕에 의해 그 지위를 더럽힐 경우 해고나 탄핵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탄핵이 성립되려면 적어도 3개의 위원회가 의견 일치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피고인을 제외한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의 이사들, 나의 의결권을 맡은 다섯 명의 신탁관리자, 그리고 편집 위원회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들 16명 중 적어도 13명이 판결에 동의해야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장례를 위한 지침

나는 우리 협회가 소유한 땅인 로즈몽트 공동묘지에 묻히기를 희망합니다. 장례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세부 준비 사항들은 M. M. 랜드 부인과 그녀의 딸 엘리스와 메이 자매의 손아래 두겠습니다. 그들이 나보다 오래 살 경우에 말입니다. 그녀들이 원한다면 형제들의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연설

은 일반적인 장례 연설 대신, 참석 한 형제들 가운데 대중 연설에 익숙한 몇몇 형제들의 간단한 몇 마디와 성구 낭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장례식은 매우 단순하게 하길 원합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 않도록, 장례 행사는 성경의 집 예배당 또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 나의 사랑의 유산

친애하는 “베델” 가족 성원 모두와 개개인에게 나의 가장 큰 염원인, 고통 없는 주의 축복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곳곳에 있는, 특히 진리의 추수하는 일에 참여하는 주의 가족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염원합니다. 나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기뻐하며, 다양한 형태로 맺혀지는 성령의 커다란 열매인 사랑과 지식과 은혜 안에서 진보하고 장성하길 간청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뿐 아니라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겸손한 자가 되길 권고하며, 다른 이와 모든 사람에 대해 인내하고, 형제 우정을 나타내

며, 모든 이에게 사랑스런 자가 되고, 순수하며 경건한 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나는 이런 모든 성품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왕국에 들어가기로 희망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넉넉히 주어질 것입니다.”

나의 죽음 이후에, 나의 마지막 의지와 유언이 「파수대」지에 실리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영원이며 나

자신의 영원대로 우리는 곧 만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부활 안에서, 우리의 주와 주인 앞에서, 영원히 충만한 기쁨 안에서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였다.”

(서명) 찰스 테이즈 러셀  
 다음에 나열된 증인들의 참여 하에 기록하고 공표합니다.

맥 F. 랜드,  
 M. 알메타 네이션,  
 라우라 M. 화이트하우스,  
 엘레게니 펜실베니아, 1907년 6월 29일 작성됨

이상은 「파수대」지 1916년 12월 1일호에 게재된, 워치타워 협회 초대 협회장이며, 「파수대」지의 창간자인 찰스 테이즈 러셀의 유언장이다.

## 제5장

아래에는 제5장에서 논의했던 “대체 복무”에 대한 정책 변경을 전하는 「파수대」 1996년 5월 1일호에 실린 관련 기사의 일부를 게재한다.

## 시민 봉사

16 그러나 국가에서 성직자들에게 면제를 허용하지는 않지만 일부 개인이 병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 중 많은 나라는 그러한 양심적인 사람들이 병역 이행을 강제로 하지 않도록 마련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사회에서의 유용한 일과 같은 요구된 시민 봉사를 비군사적 국가 봉사로 여깁니다.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에도, 헌신하고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성서로 훈련받은 양심을 근거로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17 성서 시대에는 의무적인 봉사가 실시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역사 서적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유대 주민들에게서 징수하는 세금과 부과금들 외에, 또한 부역 [당국이 강요하는 무보수 노역]이 있었다. 이것은 중동에서 오래 된 제도였으며, 그리스와 로마 당국자들에 의해 계속 유지되었다.… 신약에도 유대에서의 부역의 예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제도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습과 일치하게, 군인들은 키레네의 시몬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고통의 기둥]를 지게 하였다(마태 5:41; 27:32; 마가 15:21; 누가 23:26).”

18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 일부 나라의 시민들은 국가나 지방 당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역 사회 봉사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이것은 우물을 파거나 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일인 때도 있고, 매주 도로나 학교나 병원 청소에 참여하는 일과 같은 정기적인 일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민 봉사가 지역 사회를 위한 것이면서 거짓 종교와 관련이 없거나 어떤 면으로든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경우, 증인들은 흔히 순응하였습니다. (베드로 첫째 2:13-15) 이런 일은 흔히 훌륭한 증거를 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증인들이 반정부적이라는 거짓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때때로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 비고 마태 10:18.

19 그러면 국가가 민간 행정 기

관의 감독 아래 실시되는 국가 봉사의 일부로서 시민 봉사를 그리스도인에게 일정 기간 수행하도록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양심에 근거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로마 14:10) 카이사르의 요구 조건에 직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그 문제를 회중 내의 장성한 그리스도인들과 논의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개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잠언 2:1-5; 빌립보 4:5.

20 그러한 연구 조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성서 원칙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정부들과 권위들에게 ... 통치자들로서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 합리적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온화함을 온전히 보”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디도 3:1, 2)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제안받은 시민 활동을

조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활동을 받아들일 경우, 그들은 그리스도인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까? (미가 4:3, 5; 요한 17:16) 그 활동은 그들을 일부 거짓 종교와 관련을 맺게 할 것입니까? (계시 18:4, 20, 21) 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합리하게 제한할 것입니까? (마태 24:14; 히브리 10:24, 25) 그와는 반대로, 그들은 요구된 봉사를 수행하면서도 계속 영적 진보를 할 수 있고, 아마도 전 시간 봉사의 직무에 참여하기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까? - 히브리 6:11,12.

21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대답이 그로 하여금 국가 시민 봉사가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라고 결론 내리게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그 사람이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임명된 장로들과 그 외의 사람들은 그 형제의 양심을 온전히 존중하고 계속 그를 좋은 신분의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

러나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시민 봉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경우, 그의 견해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 역시 좋은 신분을 유지하며, 사랑에 찬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고린도 첫째 10:29; 고린도 둘째 1:24; 베드로 첫째 3:16.

22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존중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존중”을 나타내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 13:7) 우리는 훌륭한 질서를 존중하며 평화롭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시 34:14) 우리는 심지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 관하여” 기도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

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 내리도록 요구받을 때 그러합니다. 카이사르의 것을 카이사르에게 돌려 주는 결과로, 우리는 “경건한 정성을 다하여 진지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첫째 2:1, 2) 무엇보다도, 우리는 왕국의 좋은 소식을 인류의 유일한 희망으로 계속 선포할 것이며, 양심적으로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 드리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파수대」 1964년 8월 15일호 317면 21항 참조.

위의 자료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1978년 경에 내가 통치체에 제출한 14쪽 분량의 자료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물론 이것은 그간 제출한 증거 자료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통치체가 결국 대체복무는 양심의 문제라고 인정하기 약 18년 전의 일이다.

아래 질문에 대한 견해 검토:

현재의 정책은 군 당국 또는 징병위원회 등 군 관계 당국이 부과

하는 대체복무를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마태복음 5:41 : “또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이 당신을 일 마일의 봉사에 징발하거든, 그와 함께 이 마일을 가십시오.”

다른 번역 비교:

“만약 권좌에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일 마일 가도록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이 마일을 가십시오.”(신 영어 번역)

“누구든지 당신에게 일 마일 가라고 명령하는 자가 있으면...”  
(예루살렘 성경)

“그리고 누구든지 당신에게 함께 갈 것을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신 미국 표준역, 굿스피드와 버클리 번역도 마찬가지)

“봉사에 징발”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angareuo”로, 이 말은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여행을 떠나게 하거나 짐을 운반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역을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Theyer's*

“(명사) 공공봉사에 징용하는 것, 징용 노동자” *Liddel-Scott*

“강제노동을 부과” *Moulton Milligan*

“(명사) 강제 봉사, (동사) 봉사를 강요하다, 강제로 봉사시키다.” *Patristic Greek Lexicon*

성경 주석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그리스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법률에 의한 징용을 의미한다. 페르시아 왕실의 화물 등을 운반하기 위해 강제 봉사가 징용된 데에서 유래한다. 또한 강제된 봉사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로도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운반

하게 된 키레네의 시몬 같은 경우이다. … 식민 정부에 대한 강제 봉사를 유대인들은 특히 싫어했다.”(쿡의 성경 주석)

국제 비판 상세 해설: 이 말이 “군용화물의 강제 이동”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요세푸스의 「유대 상고사」 8,52(번역본에 따라 2,3)을 인용하고 있다.

딘 알포드의 주석서 「그리스어 성경」: “유대인들은 특히 로마 정부를 위한 일에 종사하는 의무에 반대했다. … 유대인에게 로마 군인을 위한 숙박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에피스 타스미아(*epistathmia*)라고 했으며, 이것은 안가레이아(*angarcia*)의 일종이었다.”라고 쓰여있다.

매클린톡과 스트롱의 「백과사전」: (키레네의 시몬에 관해) “... 시몬은 십자가를 들고 가도록 봉사를 강요당했다(군용어로 안가레우산).”라고 쓰여 있다.

마태는 예수의 말씀(5:41)의 기록에서도, 키레네의 시몬(27:32)의 기록에서도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 시몬의 문제에 대해 “그들은 이 사람을 봉사에 징발하여 고문의 형틀인 나무 기둥을 짊어지게 했다.”고 쓰여 있다. 여기서 ‘그들’이 형을 집행한 군인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예수의 말씀에 나오는 “봉사에 징발”이라고 하는 것은 군 당국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 성경에서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바로 군 당국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 그리스어 사전의 정의에서도 알다시피, 이 표현의 의미는 화물을 옮기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어떠한 강제 봉사 또는 노동에 대해서도 사용된다.

---

“상부의 권위”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해 어떤 봉사나 노동을 부과하는 권리가 있는가? 이에 대해 성경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청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말한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에게 왕을 청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을 통치할 왕의 정당한 권한이 될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것으로 삼아 그의 병거에 태우고 그의 마병들 가운데 둘 것이며, 얼마는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임명할 것이며, 얼마는 그의 밭을 갈고 그의 수확을 거두어들이고 그의 전쟁 도구와 병거의 도구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유액을 혼합하는 자와 요리사와 빵 굽는 자로 삼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과수원을,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빼앗아 정녕 자기 종들에게 줄 것이며, 여러분의 씨 뿌린 밭과 포도원에서 십분의 일을 거두어, 정녕 자기 궁정 관리들과 종들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인들과 하녀들과 제일 좋은 소 떼와 여러분의 나귀들을 끌어다가, 정녕 자기 일을 시킬 것입니다”(사무엘 상 8:10-16).

역사를 통해 이와 같이 강요된 봉사와 노동은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대에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을 세금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세금은 절대적으로 금전의 지불에만 한정되는가?

예전부터 계속 그래왔듯이 금전의 지불이 가장 일반적인 납세 형식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보통 사람들은 “세금”이라고 하면 먼저 금전의 지불을 떠올린다. 돈은 지불이 간편하며 다양한 용도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기관도 이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들은 세금을 이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빚”으로 보고, 그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무 수행이 금전 이외의 방법, 즉 봉사 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과 기타 세속의 역사 기록에서도 보인다. 따라서 「세계백과사전World Book Encyclopedia Dictionary」의 “세금” 항목에서는 “정부 및 공공사업 등의 비용에 대해 지배자들이 인민 대중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인민들이 지불하는 금전 및 세금”으로 정의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인민들에게 요구하는 노동 또는 물품”이라는 정의도 포함되어 있다.

돈은 노동에 의해 벌어들이며, 그래서 노동을 대신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세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계산하여, “정부를 위해” 노동 시간의 30%(종종 더 이상)를 사용한다는 말을 한다.

영어 단어 “tax”(세금)라는 말은 라틴어 “taxare”에서 유래되었으며, 중세 영어에서는 “tasken”으로 통용되었다. “task”(일, 과제)라는 말도 같은 어원이다. 이 “task”에 대해 「웹스터 뉴월드사전」은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1) 원래 세금. (2) 사람에게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노동.”

즉, 이 “task”라는 단어는 노동이나 세금과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동일한 단어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모든 경우에 공통적인 기본 의미는 “부과된 요구의 이행 또는 이행 의무의 부과, 그 지불”을 뜻하고 있다.

---

“세금”이라고 번역 된, 바울이 사용한 그리스어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오직 금전에 한정되는 의미인가?

바울이 사용한 “세금”(tax, 신세계 역)에 해당하는 원어는 포로스 $phoros$ 이다. 이것은 “수행”을 의미하는 동사 페로 $phero$ 에서 유래했는데, 이 페로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23:26에서 시몬이 예수의 말뚝을 ‘운반’할 것을 강요 받는 데에서 사용되고 있다.(「왕국 행간역」 참조) 이 단어는 「리텔과 스콧 그리스어 사전」에 나와 있듯이, “지불해야 하는 것 또는

빛진 것의 지불”이라는 의미도 있다. 여기에서 “지불”은 금전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포로스가 “세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가 된 것은 확실하지만, 단어의 원 의미 자체에 돈의 의미는 없었다. 그래서 「왕국 행간 직역」에서는 포로스를 원래의 의미대로 “거두어 들이는 것”(로마서 13:7)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거두어 들이는 것”은 금전인 경우도 많았지만, 물품이나 봉사 등 의무에 대한 지불일 수도 있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 상 8:10-16에서 ‘왕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한 기록 외에 여러 곳에서, 지배자가 인민에게 강요하는 노동을 언급한 부분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행복한 마을 사람들은 “강제 노동”을 통해 이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신명 20:11; 사사기 1:28,30,33,35).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을 때 왕들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강제 노동을 부과했다. 이것은 사무엘이 예언한 그대로였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통치 기간 동안, 다양한 정부 기관을 설립했는데, 거기에는 서기, 군대, 재무, 그리고 강제 노동 징용 기관도 포함됐다. 아도니람(아도람 및 하도람으로도 불림)은 르호보암 시대까지 강제 노동 징용을 맡고 있었다(사무엘하 20:24; 열왕기상 4:6,12,18; 역대기하 10:18). 솔로몬은 성전과 자신의 집을 짓는 일에 강제 노동으로 사람들을 징용했었다(열왕기상 9:15).

이 사실에 대해 열왕기상 5:13-18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에서 강제 노역에 징발된 자들을 계속 불러 올렸다. 그리하여 강제 노역에 징발된 자들이 삼만 명에 이르렀다. 14 그는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교대로 레바논으로 보냈다. 그들은 한 달은 레바논에, 두 달은 자기 집에 머물렀는데, 아도니람이 강제 노역에 징발된 자들을 감독하였다. 15 또한 솔로몬에게는 짐꾼 칠만 명과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 팔만 명이 있었으며, 16 그 밖에도 일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고위 대리관, 곧 그 일에 종사하는 백성을 감독하는 현장 감독 삼천 삼백 명이 있었다. 17 이에 왕은 다듬은 돌로 집의 기초를 놓으려고 큰

돌, 값비싼 돌을 떼내라고 명령하였다. 18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깎아 다듬었고, 집을 건축하기 위한 목재와 돌을 준비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경우에 강제 노동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매스*mas*가 사용되었다. 이 단어 자체에는 노예 예속의 의미가 없다. 이에 따라 열왕기상 9:15-23에서는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사람을 구별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예”를 뜻하는 말이 등장하고, 이것을 의미할 때 쓰는 히브리어 에베드(노예)가 사용되었다. (창세기 49:15에서도 *mas*[강제 노동]만 사용되지 않고, *ebed*[노예]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

실제로 이와 같은 강제 노동이 로마 지배 하에도 존재했는가?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여기에 인용한 것은 14쪽에 달하는 보고서의 극히 일부분이다. 이 보고서는 1978년 통치체 멤버 전원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일부 지부 사무실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통치체는 18년간 방침을 바꾸지 않았으며, 수천 명의 젊은 증인들이 수년 동안 옥중 생활을 겪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제10장

언급 한 바와 같이, 파수대가 예언한 1914년으로부터 100년 후인 그 유명한 운명의 해, 2014년이 점차 다가오면서 협회조직에 확실히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날짜에 관련된 멤버들의 사고방식에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멤버들의 조바심은 어떤 새로운 시간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그 내용은 2003년 12월 15일자 「파수대」에 게재된 주요 기사(750페이지 참조)에서 나타났는데, 이 기사에 의하면 그들은 노아 시대에서 대홍수가 발생하는 시기에 이르는 시간적 조건과, 1914년에서부터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상황 조건을 평행선으로 그어 놓고 경과하는 시간을 비교해 본다는 것이다.

다음 자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창세기 6:3에서 언급한 “120년”의 기간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즉, “우리는 어떤가? 이 제도의 마지막 최후의 날이 1914에 시작된 이후 약 90년 밖에 경과하지 않은 것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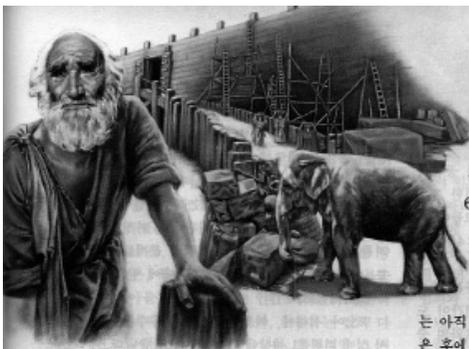
이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연산만 할 줄 알면 되는 셈법으로, 120년에서 90년을 빼면 30년이 되고, 그 30년을 2003년(이 기사가 출판되었던 해)에 더하면 2033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행선으로 비교한 것이 사실상 근거가 있는 진실이라면, 이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최후의 심판은 바로 그 날에 있게 될 것이다.

「파수대」지 발행인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날짜 예측에 실패했던 경험으로 인해,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30년이 남았다고 정확히 말하는 것을 피해야 했으며, 이제 12년 남은 2014년의 의미를 희석하기 위해 추측

의 여유를 남겨 놓고 있다.

독일 지부의 전 지부 위원은 독일 지부 회의에 참석한 한 증인과의 대화에서, 그러한 암시에 관해서는 이미 토의된 적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독일 지부 위원은 그러한 발표에 대해 말하기를, “나는 2033년까지 살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까지도 죽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들이 말한 날짜를 증명해주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파수대」지에는 틀림없이 ‘기억해 보십시오. 대홍수가 나기 전에 40일 낮, 40일 밤 동안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 년이 하루에 해당하는 계산법(에스겔 4:6)을 적용하면, 우리는 최후의 날이 앞으로 40년 이내에 올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기사가 실릴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희망과 삶을 놓고 그들을 가지고 노는 것은 사악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청종하였다.  
우리도 그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명의 힘이 그 안에 작용하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서 멸<sup>7</sup>하실 것이었습니다.—창세  
6:17.

7 노아는 다가오는 대재난에 대해 수십 년  
전에 경고를 받았으며, 시간을 지혜롭게 사  
용하여 생존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  
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  
은 후에, 경건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자기 집안의 구  
원을 위하여 방주를 건축하였습니다.” (히브리 11:  
7) 우리는 어찌합니까? 현 사들의 제도의 마지막 날  
이 1914년에 시작된 지도 이제 약 90년이 지났습니  
다.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다  
니엘 12:4)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경고들에 어떤 반응  
을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머물러 있<sup>8</sup>”다고 성서는 말합니다. (요한 첫째  
2:17) 그러므로 지금은 예리한 긴박감을 가지고 어  
호와의 뜻을 행할 때입니다.

8 오늘날 진실한 성서 연구자들은 영감받은 성경을  
통해 현 제도가 멸망될 운명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되었  
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께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언명하신 말씀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환난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으며 결  
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 24:21) 또  
한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심판관  
으로 올 것이며 목자가 양을 염소로부터 분리하는 것  
같이 사람들을 분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합  
당하지 않다고 관망한 사람들은 “영원한 굶어짐에 들  
어갈 것이지만,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  
갈 것입니다.”—마태 25:31-33, 46.

7. (-) 노아는 후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 우리는 현 제도의 끝에 대한 경고들에 어  
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8. 오, 오늘날 어떤 경고들이 밝혀져 왔으며, 그 경고들은 어  
떻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날처럼,  
‘사람의 아들’의 임재도 그러할 것입니다.”—마  
태 24:37.

9 여호와께서 대홍수 이전의 세상에 대해시처럼 현  
세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  
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분은 노아 시대의 불경  
건한 세상에 끝을 가져오셨으므로, 오늘날의 악한 세  
상도 반드시 멸망시킬 것입니다. 노아 시대와 우리  
시대의 유사점을 명확히 이해한다면, 현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는 우리의 확신은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유사점들이 있습니까? 적어도 다섯 가지가 있  
습니다. 첫 번째는, 다가오는 멸망에 대한 경고가 분  
명한 말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 경고를 받다

10 노아 시대,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에게 대해 한평 없이 활동하지는 않  
을 것이니, 그는 육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날은 백이십 년에 이를 것이다.” (창세 6:3) 기  
원전 2490년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이 밝혀진 것은,  
그 불경건한 세상의 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무엇  
을 의미하였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120년  
만 지나면, 여호와께서는 “땅에 대홍수를 가져와 생

6. 여호와께서는 노아 시대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였  
습니까?

## 제12장

다음은 여호와의 증인 개즈던 동부 회중의 사법 모임 호출서에 대한 나의 회신이다.

1981년 11월 12일

여호와의 증인 개즈던 동부 회중 장로회

친애하는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의 11월 6일자 편지는 11월 10일 화요일 오후에 받아 보았습니다. 이 편지가 토요일까지 여러분에게 도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테오티스에게 전화하여, 여러분이 토요일에 회관까지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댄에게, 내가 통치체에 질의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 답장을 받을 때까지 심의 절차를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지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면, 편지로 이에 관한 결정사항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나는 파이오니아, 특별 파이오니아, 순회 감독자, 지역 감독자, 선교인, 지부 감독자, 베델 가족 성원, 통치체의 구성원 역할로 내 인생의 사십 년간을 전 시간 봉사에 헌신했습니다. 내가 사십 년 동안 봉사한 점을 감안하여, 브루클린 본부에서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관대함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희망하며,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통치체의 대답에 관심을 갖고 있기를 희망합니다.

- 야고보서 2:12,13.

그런데, 편지의 말미에 서명한 세 사람은 사법위원 구성원들이가요? 그렇다면 인선을 재검토해달라고 장로회에 정중히 요청해도

될까요? 웨슬리 베너와 댄 그레거슨의 모임에서 오고 간 이야기로는, 댄은 대화의 첫머리에 내가 피터 그레거슨과 식사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본 건의 고발자를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이 식사의 건은 벌써 몇 달 전의 일로서, 「파수대」 1981년 9월 15일호가 나오기 전의 일입니다). 현재까지 본건에 관해 다른 고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나요? (또 다른 고발이 있는지 누가 고발을 했는지는 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제 편에서 증인을 세울 수 있게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어떤 정의의 기준을 불문하고, 고발자가 사법위원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밖에도 댄이 사법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지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이상의 이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사법위원의 수를 증가하는 것도 검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고발은 통치체의 새로운 정책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판물에 공개되어 있던 정책에 따르면, 이탈한 사람을 제명된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경우는 병역 또는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 중에는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하는 장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과는 직접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진실에 가까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편향된 결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평하고 공정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회중에 있는 다른 장로도 참여하게 해 주시면 친절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조금 길어졌지만, 하느님, 하느님의 아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헌신이 의문시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양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제기한 사항을 고려해 줄 것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 디모데후서 4:22; 빌레몬서 25.

당신의 형제  
레이몬드 프랜즈 ( 서명 )

다음은 개즈던 사법위원회가 나의 제명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항소한 편지의 전문이다.

1981년 12월 8일

개즈던 동부 회중 장로회

친애하는 형제들에게,

이 편지로 저는, 여러분이 지명한 사법위원회가 저에 대해 내린 제명 결정에 항소하고자 합니다.

사법 청취에 대해서 협회가 발간한 출판물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장로는, 어떤 요인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안에 대해 모든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합니다. 엄격한 규칙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원리에 충실한 사고를 하면서 모든 사안마다 장점을 가진 부면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조언을 줄 경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충고는 하느님의 말씀에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충분히 시간을 내어 그 사람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또한 모든 사실 관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적용할 성구에 대해 협의하고 설명하고 그 사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충고

하거나 그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사전에 검사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만약 필요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건에 대해 다른 장로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복사본 동봉)

그런데 내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들이 행해져 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후딱 일을 해치우려고 서두르는 비정상적인 태도와, 완전한 이해를 위한 성구의 적용을 협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 혹은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애를 바탕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는 성급함보다 인내를, 엄격한 규칙 적용보다 동정과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40년을 전 시간 봉사자로 보냈습니다. 궁핍과 빈곤, 굶주림, 갈증에 추위와 더위, 열병과 이질, 그리고 폭동과 전쟁의 위협, 독재국가에서의 생명과 자유의 위협, 끊임없는 노동 등으로 긴 시간을 견뎌내고, 이제 신여덟 살의 나이에 이르러 나 자신과 아내를 위해 집과 직장을 구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194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파이오니아 봉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세속적 직장 경력이 없으며 가계를 꾸려갈 금전적 자산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협회에서 받은 돈은 (내가 40년 동안 봉사한 대가로 여겨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세속 직장에서 1년간 벌어들이는 액수에도 미치지 못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돈의 일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피터 그레거슨은 나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으며, 아직 할부금이 남아 있는 이동형 숙소를 주차할 장소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나에게 지주이기도 하며 고용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섯 달 전에 주위에서 압력을 받고 지방 회중에서 물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에 대한 고발 건에서는 이 피터 그레거슨

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한 적이 있다는 것이 유일한 죄목입니다. 지방의 장로 중 일부는, 자신들은 “웨어하우스 식료품점”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인 피터 그레거슨과 식사를 해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관계가 더 깊습니다. “웨어하우스 식료품점”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레거슨 개인의 소유지나 집에서도 일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집안에서 식사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형제에 대한 태도라면 동정심과 이해심을 가지고 내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요인을 감안한 판단을 내려야 마땅한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심리 받았을 때, 이탈한 사람과 제명된 사람을 같은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한 「파수대」(1981년 9월 15일자) 기사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증언을 한 사람은 두 명의 증인 중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피터 그레거슨과 자네트 그레거슨과 함께 식당에 있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지만, 그때는 여름이었고, 따라서 「파수대」 기사가 나오기 전의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후입법의 효력을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증언이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더 최근의 사건에 대해 증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내와 자네트 그레거슨(이 사람은 이탈하지 않았음)과 함께 셋이서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뒤이어 피터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인은 「파수대」 1981년 9월 15일호가 나온 이후에 개즈던 동부 회중의 한 장로와 함께 피터 그레거슨과 두 차례나 식당에서 식사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두 차례 중 어떤 경우에도 피터 그레거슨이 먼저 동석을 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테이블에 초대받아 잡담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법 청취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내 경우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11월 19일자 편지에서, 장로 여러분께서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나에 관한 심리를 다루겠다고 했기 때문이며,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일관성 없는 조치를 보면서, 이 경우가 여러분이 말한 바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조치에 만족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사법에 회부한 동기 자체와 그 내려진 결정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바입니다. 또한 개즈던 지역의 현황에 비추어 보아도, 나에 대한 고발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탈했거나 제명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한 경우는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언급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내 경우에만 고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지 어떤 사람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케이스일 뿐이라면, 왜 하필이면 「파수대」 1981년 9월 15일호 기사가 나온 이후 단 한 번의 사건에 대해 단 한 명의 증인이 있는 내 케이스가 고발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것인가요? 이 점 역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아마도 피터 그레거슨과 식사를 한 것에 대해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먼저 이것이 하느님 앞에서의 죄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은 하느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야말로 영감을 받은 것이며,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16,17) 성경에서 내가 이해하는 것은,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은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충성도 능가하는 것입니다(사도행전 4:19,20; 5:29). 또한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혹은 어떤 그룹이든 간에 이들 모두는 하느님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일 수 없

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말한 것이 증명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잠언 30:5; 계시록 22:18,19). 이런 성경의 경고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 성경이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을 모두 생각해 보면, 나는 나 자신(혹은 다른 사람 개인이든 그룹이든)이 법률을 정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러한 심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영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뒷받침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만든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확신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심판하지 않은 누군가에 대해 함부로 심판함으로써 근거 없는 추측과 무례함을 저지르는 그런 죄를 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로마서 14:4; 10:12; 야고보서 3:11,12; 「야고보서 주해」 영문 161-168면 참조).

피터 그레거슨과 식사를 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 의거하여 납득시켜 주시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대화를 한 분들은 이것을 하지 않고, 상기의 잡지만을 자신들의 “권위”(이는 사법위원회의 사회자가 사용했던 표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리스도인 회중 내부에서의 권위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거기에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합니다. 잠언 17:15는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선고하고 의로운 자를 악하다고 선고하는 자 - 그 양자 모두 여호와께는 가증스러운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가증스러운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며, 그래서 이 사법 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5:11-13 및 요한 2서 7,11절에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받아들이며, 거기에 적혀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즉 사악한 자들과 그리스도의 적들에 대해서는 그들과 교제하거나 집으로 초대하거나 식사를 함께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에게도 언급한 그대로입니다.

단지 나는 내가 비난을 받고 있는 사건의 중심인물인 피터 그레거슨과 이 성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주위의 압력을 받고 여호와의 증인 회중에서 장로를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제가 개즈던 및 순회구의 형제들에 대해 분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워치타워 협회의 교리 중 일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점에 관해서만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나는 그것에 대해 회중 내에서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중 내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 장로회와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극히 한정된 사람들과만 “비밀 대화”로 이야기했으며, 이것은 거의 모두 우리 가정 안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둘째, 여호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을 비롯한 성경의 명료한 가르침에 대한 나의 견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심판관이므로, 아시다시피 나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1931년 겨울에서 1932년경 사이에 집회에 다니기 시작한 이래로 50년 가까이, 나는 규칙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이에서, 그리고 이 지역 전체에 걸쳐

이 같은 나의 명성은 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명성”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또한 여러분 사이에서 더 이상의 분란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나는 여기에서 조직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워치타워 협회가 행해 온 좋은 일에 대한 나의 존경심이 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정과 사랑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나를 상대로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지 나는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 명)  
피터 그레저슨“

(여기까지가 그레저슨의 편지 사본이며, 다음은 내 편지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다.)

여기서 피터 그레저슨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전서 5:11-13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느님, 그의 아들, 그리고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 2서 7,11절에 있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이 주장에 반박하거나 반증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성경적인 근거 없이 피터 그레저슨을 사악한 자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간주하면, 저 자신이 하느님의 승인에 복속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법위원 세 명을 포함하여 제가 이야기를 한 장로 개개인에게 그레저슨이 고린도 전서 5:11-13이나 요한 2서 7,11절에 있는

사악한 자,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피터 그레거슨이 이 성경 구절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말하기를 분명히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식사를 함께 하면 안 되는 인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 구절 밖에는 달리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구를 적용하여 피터 그레거슨이 식사를 함께하지 말아야 하는 인물로 판단한 것인지를 그들이 오히려 나에게 질문해야 진정 공정한 일일 텐데, 나를 심판하는 심판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할 수가 없다면 이것은 공정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나로서는 문제의 성경 구절이 피터 그레거슨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성구의 적용이) 맞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취지로 해석하는 장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심리를 맡은 장로 여러분들이 피터 그레거슨을 영감 받은 사도가 고린도전서 5:11-13에서 묘사한 인물, 즉 음행한 자, 욕심 많은 자, 우상 숭배자, 욕쟁이, 술꾼, 갈취하는 사람과 같은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장로회에 속한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그가 이런 무리에 속해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내가 틀렸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그가 요한 2서 7,11절에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구절을 누구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확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사도 요한뿐입니다. 요한은 문제의 적그리스도인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이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요한 1서 2:22). “그러나 예수를 믿

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영감 받은 표현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감 받은 표현입니다”(요한 1서 4:3).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이는 자이며 적그리스도입니다”(요한 2서 7절). 이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언급한 주석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협회의 출판물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주석서입니다.)

번즈의 「신약 주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자, 혹은 메시아가 육체에서 나온 것을 부정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반항을 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교리를 내세운 것이다.”

랭의 해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vti*(*anti*)는 적개심과 대체 대용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적대감의 의미라면 그리스도에게 적의를 가진 자, 즉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대체의 의미라면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자, 즉 거짓 그리스도인 자들이다...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한다. 즉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 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며, 예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리는 진리의 부정이며, 거짓이며, 그들 자체가 거짓말쟁이인 것이다. 요한복음 8:44에 따르면, 악마의 자식들이며, 거짓의 아버지의 자식들이나(요한 1서 3:3-10)... 적그리스도들은 ‘분명히 사탄과 관계된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의미가 대용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

감을 뜻하는 의미이다... 적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사탄의 도구인 것이다.

”장로 여러분들은 피터 그레거슨이 이와 같은 부류로 분류되는 적그리스도라고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계속 격분하는 사람은 법정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입에 담지 못할 멸시의 말을 하는 사람은 ‘최고 법정’에 넘겨질 것이며, 또 누구든지 ‘업신여김을 받을 어리석은 자!’ 라고 말하는 사람은 불타는 계헨나에 던져질 것입니다.”(마태 5:22)라고 했습니다. 나로서는 “적그리스도”로 낙인 찍히기보다는 “업신여김을 받을 어리석은 자”로 불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보다 더 심한 말은 따로 없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을 어리석은 자”라는 말 한 마디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불타는 계헨나에 던져질 수 있는데, 심지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부당하게 사용한 데에는 얼마나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나로서는 매우 염려스러운 그런 엄중한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으며, 여러분 각 사람도 나와 같은 우려에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36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모든 무익한(「개정 표준 역」에서는 “경솔한”으로 표현, 「예루살렘 성서」에서는 “근거 없는”이라고 표현함) 말에 대하여 ‘심판 날’에 답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가 이러한 경고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만약 우리가 실수로, 아무런 근거 없이, 어느 누군가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자”로 분류하여 식사도 같이 하면 안 되는 자로 선언해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과 그 아버지에 대해 가지는 관계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회중이 내가 신장과 심장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개개인에게 그 행위로 갚아 주겠다”(계시록 2:23).

하느님께 충실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성경 구절에 따라 형성된 자신의 양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양심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유죄로 판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확실히 순회 감독자는 내 집에서 “통치체는 우리의 양심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회 감독자는 자신이 “통치체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같은 말을 표명하고 있는 출판물은 내가 아는 한 없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같은 의견을 뒷받침해 주는 성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떤 행위에 대해, 만일 그 행위 자체가 올바른 것이라 해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정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모두 죄”이기 때문입니다(로마 14:23). 만약 내 양심이 바뀌게 된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의 힘에 의한 것이지만 단지 인간의 이성적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느님에 의해 진실임을 알려지게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도 않으며 도리어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느님이 보시는 데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되고자 결심했기 때문입니다(로마서 3:4; 고린도 후서 4:2).

이와 같이 상세하게 관련 내용을 제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래와 같이 잘못 진전된 견해를 의심의 여지없이 또 양심의 가책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한 나의 당면한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록 하고자 합니다. 즉, 피터 그레저슨이 쓴 편지(여기에 첨부한 복사본)로 인해 - 그 자체만으로 다른 어떤 근거도 없이 - 그가 식사도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악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하는 그러한 견해 말입니다. 나는 이 같은 자동적으로 내려진 판정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이 결론을 가져온 성경 구절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빠뜨리고 지나친 것인가요? 성경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하려는 나의 양심에 근거한 걱정이 이번에는 나 또한 식사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악한 사람으로 규탄 받도록 만든 것인가요? 장로 여러분 중 세 사람은 이러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 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러분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이며, 아울러 여러분들에 대한 근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잘못하고 있고, 성경에는 내가 보고 있는 내용과 달리 쓰여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감을 받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제시하여 나를 탓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뿐 아니라 환영할 것입니다.

나에 대한 제명처분을 결정한 사법위원들은 장로 여러분이 임명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편지의 사본을 장로회의 모든 사람들 개개인에게 보내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을 장로로 임명한 통치체 및 봉사부에도 사본을 보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나는 통치체에 1981년 11월 5일 다음과 같은 질문 편지를 보냈습니다:

“현지에서는 일부 장로들이 「파수대」 1981년 9월 15일호의 내용에 근거하여, 내가 집주인이며 고용주인 피터 그레저슨과의 교제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피터는 이탈한 사람이니까 함께 식사를 해서는 안 되는 인간 - 사악한 적그리스도 -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며, 내가 이러한 입장을 따르지 않

을 경우 제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살이 가까이 되어 가고 경제적 기반도 없어, 이사하거나 일자리를 바꿀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파수대」지에 게재된 해당 기사 내용이, 장로가 기술한 그대로의 뜻과 같이, 즉 내가 나의 집주인이며 고용주인 사람의 식사 초대에 응하는 것이 나에게 대한 제명의 이유가 된다는 의미인지 알려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들이 이해한 것이 「파수대」기사에서 의도하는 내용을 벗어난 것이라면, 그들의 태도를 완화하도록 어떤 고려나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처한 가혹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해주든지 혹은 어떠한 통로를 통해 전해주든지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통치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나의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말로 이를 인정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R. 프란츠

나는 청원 편지를 통치체에 보낼 때 다음의 편지도 함께 첨부했다:

1981년 12월 11일

여호와와의 증인 통치체

친애하는 형제들에게,

나는 1981년 11월 5일자 편지를 보내며, 「파수대」 9월 15일호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탈한 사람은 제명된 사람과 같이 취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문의했습니다. 그때 편지에서 나는 이 기사에 의해 곤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 내가 소속되어 있던 현지 회중의 장로들은 그 기사를 ‘권위’의 근거로 삼아 나를 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탈한 인물, 즉 내 집주인이며 고용주인 사람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방의 장로 앞으로 쓴 상소 편지의 사본을 동봉합니다. 사법위원회의 결정이 통치체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사가 의도하는 바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이 상소 편지는 여러분에게 전혀 무관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고 이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느낀다면 (이것은 나에게 국한되지 않으며, 일반 전도인이 이 기사에 대해 느끼는 반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사 내용이 불리일으키는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하지 않을까요? 내가 일하고 있는 ‘웨어하우스 식료품점’ 회사는 사무실과 열 개 지점에 35~40명 정도의 여호와의 증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회장과 비 식료품 부문 부장이 이탈을 했습니다. 제명된 다른 사람도 있지만, 이 안에는 큰 가게의 점장을 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것은 이곳에 있는 다른 여러 사람에게 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해당 출판물의 내용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의 적용은 지금까지 나에게 적용해 왔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만일 이를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면, 이 지역에서만도 내 주변에 이름을 댈 수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제명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정말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해당 기사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통치체 여러분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내용을 여러분 및 봉사부 형제들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R. 프렌즈

다음은 웨슬리 베너 순회 감독자가 선임한 상소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한 나의 12월 20일자 편지이다.

1981년 12월 20일

개즈던 동부 회중 장로회

친애하는 형제들에게,

이 편지로 항소위원회의 인선을 변경해 주도록 부탁하는 바입니다. 나는 사법위원회가 이 지역 이외의 형제들로 또 이 순회구 이외의 형제들로 구성될 것을 청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의 사본을 워치타워 협회 봉사부와 통치체에도 보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15일, 데오티스 프렌치에게서 전화를 받은 바, 항소위원회가 윌리 앤더슨, 얼 파넬 또는 펠릭스 파넬 둘 중 한 사람(둘 중 누구 인지는 프렌치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디블 형제(아버지 디블인지 아들 쪽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으로 선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 인선에 대해서 편지를 쓸 것이며, 나로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왜 개즈던 동부 회중의 장로가 인선하는 일을 맡지 않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는 하지 않으며 이 인선은 순회 감독자에게 요청했다고 대답했습니다.

12월 18일 금요일에 나는 데오티스 앞으로, 항소 사법위원으로 최종 선정된 사람들 명단을 서면으로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그 날 아침에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데오티스는 나에게 전화하여, 항소위원회가 일요일에 회동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하루 이틀 사이에 내 편지가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토요일 저녁에 다시 나에게 전화를 걸어, 내 편지를 받았으며 항소위원회가 월요일 즉 12월 21일에 나와 만나고자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이때도 그 전 일요일 항소위원회 회동에 관해 알려주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회동 시간과 장소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임 예정인 상소위원의 이름을 알려 주었는데, 윌리 앤더슨, 얼 파넬 그리고 롭 디블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쨌든 그 사실을 문서로 전달해 줄 것을 거듭 부탁했습니다. 오늘 아침 그는 다시 전화하여 항소위원회가 월요일에 회동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언제 어디에서 개최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상소위원은 그에게 전화하도록 시킬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야 하며, 나는 인선한 상소위원의 구성에 반대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 인선을 요구하는 편지를 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어쨌든 항소위원이 월요일에 회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과거 40년 경험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무리하게 서둘러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더니, 그는 협회의 최근 교육에 의해 방침 변경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변경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아무리 내가 그렇게 분별없이 시급히 서두

르는 것을 반대하더라도 항소위원회는 어쨌든 회동할 것이며, 할 말이 있으면 그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소위원의 인선을 수정하도록 신청할 예정이라고 반복해서 밝혀 두었습니다.

인선을 고쳐 주셨으면 하는 이유는 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로움을 위해 봉사부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 이유를 상세하게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많은 가정과 젊은 사람들이 연루된 문제가 개즈던 지역에 발생하여 어지러웠던 기간에, 나는 통치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봉사부를 통해 지역위원회가 일을 잘못 처리하여 상당한 문제를 일으켜서 그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불러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아직도 내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때 큰 문제를 발생시킨 중심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앤더슨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앤더슨의 이름이 내 항소위원회에 올라 있는 것을 봤을 때, 나로서는 역량 있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봉사부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통해, 또 나중에 나 자신이 직접 파악한 사실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피터 그레거슨이 문제를 일으킨 위원회의 잘못된 처사를 조사하는 데 적극적이었으며 그 때문에 외부 위원회를 불러들이도록 하는 데 근본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사안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들여다 볼 때, 피터 그레거슨과 나와 의 관계가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마당에 앤더슨 형제를 나의 건을 심리하도록 인선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또 객관적인 심리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인선인 것입니다. 물론 앤더슨 형제가 그때의 조사위원회가 내려준 교정 조치로 득을 보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항소위원회의 처리 방식, 즉 판정을 무작정 서두르는 태도와 시종 일관되지 않게 일하는 방식을 볼 때, 과거의 잘못된 처사에 대한 나의 기억을 증대시키고 있는 점에서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 인선에 대해서 내가 문제제기를 하고 정당하게 반대하면서 수용

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얼 파넬에 대해 말하면, 그를 이 인선에 선택한 처사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심리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나와 피터 그레저슨과의 관계입니다. 증인의 증언도 모두 이에 관한 것이며, 나를 제명 처분해야 한다는 결정도 이것이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소를 심리하는 위원으로 얼 파넬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할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또 순회 감독자도 아시다시피, 얼 파넬은 다나 파넬의 아버지이고 다나 파넬은 피터 그레저슨의 딸 비키 그레저슨과 최근에 이혼한 사이입니다. 세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파넬 일가와 그레저슨 일가 사이는, 특히 두 아버지들 사이에는 상당한 긴장 관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순회 감독자가 이전에 개즈턴을 방문하여 피터 그레저슨을 만났을 때, 그들의 대화 중에 다나 파넬의 이름도 나왔기 때문에 양가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는 순회 감독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나 파넬의 아버지를 선정하여 피터 그레저슨과의 문제가 걸려있는 본 심의를 맡아 보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판단을 전혀 기대할 수 없도록 하는 일임은 물론, 보통 수준의 이해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자명한 일이며, 일반 상식으로 보아서도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사람이 선정된 것인가요?

이 파넬 형제에 관련된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위원회의 세 번째 위원인 룩 디블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블은 얼 파넬의 사위로서, 다나 파넬의 여동생 돈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증언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룩의 아내인 돈은 자신의 오빠가 피터 그레저슨의 딸에게 이혼 당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감정을 품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남들에게 털어 놓은 그녀의 악감정이 자기

남편 룽 디블에게도 전달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룽 디블에게 피터 그레거슨과의 관계가 문제의 중심이 되는 심리를 맡기면서, 개인적인 감정 개입 없는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이상을 감안하여 위원 인선의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 지역 이외의, 또 이 순회구 이외의 형제들로 선정된 새 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만 예외가 된다 해도, 세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그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심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순회 감독자가 인선한 것이지만, 아마도 내가 여기에서 언급한 요소들에 대해 마땅한 고려를 하지 않고 서둘러 결정해 버린 결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요인들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해명하려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공정함과 정의를 존중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정성과 정의를 존중함으로써, 향소위원회가 그러한 합리화를 하지 않고, 심각한 의문에서 자유로우며, 스스로 독자적인 그러한 위원회가 되어야 함을 깨닫도록 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 디모데 전서 5:21,22.

이상에 대해 여러분들은 협회에 편지로 문의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 주면 나도 그것을 환영할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5백마일이나 떨어진 먼 곳에서 우리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있으며, 그들은 2-3일 동안 우리와 함께 지낼 예정입니다. 월요일 오후에는 버밍햄에서 약속이 있으며(이것은 며칠 전에 정한 약속입니다), 늦은 밤이 되어야 귀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 후반에는 다른 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은 한참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우리를 집에 머물게 해주는 사람들과 이미 사전에 약속한 일정입니다. 신년을 전후한 기간에는 다른 주에 사는 친구

의 가족 일행이 비행기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1월 5일 이후에는 새로 선정된 위원 여러분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므로, 그때까지 협회 측에서는 그런 일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의 연락은 문서로 진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던 누락이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에 대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 프랜즈  
(서명)

이 편지는 통치체 및 봉사부에 보내졌는데, 그때 다음의 편지도 함께 송부되었다:

1981년 12월 20일

위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  
봉사부 참조

친애하는 형제들에게,

이 편지는 내 상소를 심의해 주시는 상소 사법위원회를 구성해 주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개즈던 지역 이외의 지역 및 그 순회 외부로부터 선임되도록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는 개즈던 동부 회중 장로에게 보낸, 동봉된 같은 날짜의 편지에 서술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당초의 사법위원회 사회자는 여러분 측과의 대화 내용을 알려주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알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부탁하는 것은 해당 순회 밖에서 상소위원들이 선정되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곳에서 수도 없이 들리는 근거 없는 소문과 험담 및 많은 내용이 내 귀에도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로는 여러분이 임명한 대표인 순회 감독자가 한 인신을 보면, 동봉한 편지의 지적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 순회 감독자의 판단은 솔직히 말해서 매우 사려가 깊지 못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보냈던 1981년 12월 18일자 상소 편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너 형제가 우리 집을 찾아 왔을 때 표명했던 완고한 태도에서 볼 때, 그는 이런 종류의 심의 판정에서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의 양심은 “통치체가 반복할 수 있다.”라고 했으며(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밖에 없는 것이지만), 자신은 통치체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인간”이라고 길게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많은 종교인들이 지난 수세기에 걸쳐 자신들이 “어머니”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의 이름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복속할 것을 부추겨 왔던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쳐 놓더라도, 금세기 얼마 전 독일에서 그토록 수 많은 사람들을 불의로 이끌어 갔던 잘못된 사고방식을 떠올리게 하여 나를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소위원의 선정을 보면 그러한 우려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동봉한 편지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시정해 주시기를 강조하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 프렌즈

지금까지 나는 통치체와 브루클린 본사 봉사부에 편지를 세 차례나 쓰고(11월 5일, 12월 11일 그리고 12월 20일) 어떠한 답변을 요구했었

다. 그러나 첫 번째 편지를 쓴 후 제명처분이 될 때까지 8주 동안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편지 수신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끝.



## 용어 정리

### • 공개 강연 *public talk*

여호와의 증인의 왕국회관에서 열리는 공개 연설을 가리킵니다. 보통 일요일에 열리는 경우가 많지만 토요일에 열리는 곳도 있습니다. 시간은 30분 동안 진행되며, 공개 연설의 모든 주제는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가 정해줍니다.

### • 그리스도교국 *Christendom*

영어권에서는 이 단어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교 *Christianity*를 국교로 채택하거나 그리스도교를 주요 종교로 믿는 국가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인들은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리스도교국이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등의 개신교 교파들을 포함해서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 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종교 영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합니다.

### • 길르앗 성서 학교 *Bible School of Gilead*

워치타워 협회가 선교인 *missionaries*을 양성하기 위해 1943년에 개설한 학교. 정식 명칭은 ‘워치타워 길르앗 성서 학교’이며 줄여서 ‘길르앗 학교’ *Gilead School*라고도 합니다. 이 학교는 선교인 양성 목적 이외에 각 나라 지부 성원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됩니다. (증인들은 종교적 선생이라는 뜻의 ‘랍비’로 불리지 말라는 마태복음 23:8 말씀에 근거해서 선교사 *宣教師*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대회 *conventions, assemblies*

여호와의 증인 모임 중에서, 회중 집회보다 큰 규모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약 30개 이내의 회중들이 이틀간 모이는 “순회 대회” *circuit assembly*와 하루 동안 모이는 “특별 대회” *special assembly*가 매년 한 차례씩 열리고 있으며, 그보다 큰 규모로 수천에서 수만 명까지도 모이는 “지역 대회” *district conventions*가 곳곳에서 매년 한 차례씩(보통은 3일간) 열리며, 수년에 한 번씩 “국제 대회” *International Convention*가 열리기도 합니다.

• 사법 모임 청취 *judicial hearings*

일종의 종교 재판을 가리키는 말이며, 줄여서 ‘사법 모임’ 혹은 ‘사법 청취’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 중에 “범죄”가 일어났을 때 회중 장로들 3명 이상으로 ‘사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여호와의 증인 조직이 정한 규정에 의하면 사법 모임이 열릴 수 있는 “범죄”에는 간음, 음행, 도둑질, 우상숭배, 술 취함, 폭력 등의 일반적인 도덕적·종교적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담배, 수혈, 군복무, 배교 등의 특유의 규칙들도 종교 재판의 적용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는 “범죄”의 경중과 회개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처벌의 강력한 정도부터 나열하자면, 신자들과 어떤 인사나 대화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처벌인 “제명”이 있고 그보다는 덜 가혹한 “공개 책망”, “비공개 책망”, “지목”이라는 처분들이 있습니다. “이탈”이라는 처분은 공식적으로 징계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신자들과의 모든 인간관계를 끊도록 요구받는다든 점에서 “제명”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사실상 처벌에 해당합니다. 수혈과 군복무는 제명 처분에서 이탈 처분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사법위원회 *judicial committee*

‘사법 모임 청취’ 항목을 참조하세요.

• 성경 연구생 *Bible Students*

여호와의 증인의 이전 명칭.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은 1931년부터 채택한 명칭이며 그 이전에는 외부인으로부터 러셀파Russellites, 천년기 새벽파Millennial Dawnists 등의 별명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법인체 명칭인 “만국 성경 연구회” *International Bible Students Association*와 혼동해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워치타워 조직에서는 1931년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지만, 현재도 미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초대 협회장 러셀의 가르침에 고착하는 수만 명의 “성경 연구생” *Bible Students*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성서 연구생 *Bible student*

여호와의 증인과 공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줄여서 ‘연구생’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서 연구”(혹은 “성경 공부”)에서 성경을 함께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증인들이 발행한 출판물을 문답식으로 함께 공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과정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입문 과정으로 여겨지며 보통은 6개월 이상 걸리게 됩니다.

• 신권 전도 학교 *Theocratic Ministry School*

1943년부터 시작된 집회 과정의 하나. 이 교육 과정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매주 한 번씩 회중 집회에서 낭독이나 연설 및 전도 등을 하는 방식을 훈련받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달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과정은 2015년 12월까지 72년간 시행되었으며, 2016년 1월부터는

다른 집회 과정들(‘봉사회’와 ‘서적 연구’)과 통합되어 “그리스도인 생활과 봉사”라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평일 회중 집회가 시행됩니다.

#### • 신세계역 성경 *New World Translation of the Holy Scriptures*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용하는 공식적인 성서 번역판입니다. 워치타워 성서 책자 협회는 다양한 성경 번역판들의 판권 및 사용권을 획득하여 성경을 직접 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1950년부터 「신세계역 성경」을 발행해 왔으며, 그 이후로는 이 성경을 주요 번역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큰 폭의 개정 작업이 있었는데, 2013년에는 영문 개정판이, 2014년에 한국어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2013년까지 121개 언어로 2억 100만부 이상이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 • 여호와의 증인 *Jehovah's Witnesses*

1931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명칭. 1931년에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대회에서 제2대 협회장 러더퍼드는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 새로운 이름을 발표했으며, 이름의 근거는 이사야 43:12에 있다고 합니다. 이 명칭은 또한 종교 명칭으로도 사용됩니다. ‘성경 연구생’ 항목을 참조하세요.

#### • 워치타워 *Watchtower*

여호와의 증인들을 위해서 종교 출판물을 생산하고 배포하고 증인들의 종교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법인체를 가리킵니다. 현재 여러 개의 법인체들이 있고 각 명칭들도 다양하지만, 그것들을 통합하여 ‘워치타워’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 왕국회관 *Kingdom Halls*

여호와의 증인의 공식적인 집회를 위한 모임 장소를 부르는 말입니다. 1935년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처음으로 “왕국회관”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후로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의 모든 집회 장소를 부르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증인들은 교회*church* 즉 회중*congregation*이라는 말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라는 뜻으로 사용하며, 건물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된 명칭을 사용합니다.

• 이탈 *disassociation*

여호와의 증인의 공식 설명은 이렇습니다. “제명 처분은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 사법위원회가 취하는 조치인데 반하여, 이탈은 더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남아 있지 않으려고 결심한 사람이 취하는 행동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는데도 이탈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증인 신자가 군 복무를 받아들였을 때나 수혈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증인의 교리에 의하면, 여호와의 증인은 이탈한 사람과 더는 대화나 인사나 음식을 같이 먹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제명 *disfellowshipping*

“사법 모임”이라는 일종의 종교 재판을 통해서 추방하는 조치.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과는 더 이상 인사나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탈”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당합니다. ‘이탈’ 항목이나 ‘사법 모임 청취’ 항목을 참조하세요.

### • 중앙 장로회 *Governing Body*

이전 명칭은 ‘통치체’이며, 여호와의 증인의 최고 의결 기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중앙 장로회’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거버닝 바디” *Governing Body*라고 하며,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동사 “거번” *govern*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국어로는 오랫동안 “통치체”라는 말로 번역해 왔지만, 2015년 중반부터는 “통치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중앙 장로회”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그랬던 것처럼 “통치체”와 같은 직역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앙 성직사회”라는 뜻의 용어를 사용하는 프랑스어 *Collège central*나 “중앙 장로단”이라는 뜻의 용어를 사용하는 중국어 中央長老團처럼 극히 일부 나라에서는 대체 번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여전히 ‘통치체’에 해당하는 ‘토오치타이’ 統治体라는 용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앙 장로회’는 전 세계 증인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성서 해석과 교리 및 교육 방침 등을 결정합니다. 2015년 말 현재 여호와의 증인 ‘중앙 장로회’ (통치체)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집회

여호와의 증인의 공식적인 모임을 가리킵니다. 일반 교회에서 “예배”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의 노래로 시작하며, 집회가 끝날 때에도 찬양의 노래와 기도로 마칩니다. 전 세계 10만개 이상의 회중들에서는 일주일에 이틀 집회를 갖는데, ‘평일 집회’가 한 번 열리고 일요일(혹은 토요일)에는 ‘공개 집회’가 열립니다. 더 큰 집회는 대회라고 불립니다. ‘대회’ 항목을 참조하세요.

### • 통치체 *Governing Body*

‘중앙 장로회’ 항목을 참조하세요.

• 회중 *congregation*

회중이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과 동의어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모임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영어로 회중에 해당하는 단어 *congregation*를 처음 만든 사람은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했던 윌리엄 틴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 *church*라는 단어만 사용했다가 윌리엄 틴들에 의해 사용된 회중 *congregation*이라는 용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KJV*에도 사용되었으며, 영어권에서는 여호와의 증인뿐 아니라 일반 개신교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증인들은 현대에 교회 *church*라는 단어가 때때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건물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되어 본래의 의미에 혼동이 생겼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교회 *church*라는 말보다는 회중 *congreg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책은 특정 종교 조직의 권위 구조와 내부 방식이 그 핵심 인물에 의해 솔직하게 드러나는 책이다. 저자의 가슴 아픈 경험을 통해 ‘양심의 자유’라는 가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며, 오늘날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는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구조 속에서 이러한 가치가 살아 있게 하기 위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책이다.”

— Dr. 요셉 F. 지그문트, 코네티컷 대학 사회학과 부교수

“엄청나다! 저자의 경험과 내 경험 사이에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계속 놀랐다. 하나님 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대부분의 종교 집단들은 같은 위험에 빠지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

— Dr. 데스몬드 포드, 안식일교회 신학자이며 전 퍼시픽 유니언 대학 교수, 양심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 직위 박탈.

“양심에 충격을 주는 책이다. 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결정권을 특정 조직에게 넘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 김 키몬스, 프랭클린 지 편집자.

“이 종교 조직에 대해 설명하는 많은 서적들이 나왔지만,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제 드디어 논란이 많은 문제에 대해 제대로 쓰인 작품이 나와 그 신자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읽혀질 수 있게 되었다. 진지한 학자나 독자라면 레이몬드 프랜즈가 제시하는 정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실화든 소설이든 문제를 폭로하는 작가들이 범하는 일반적인 잘못은, 그 폭로 행위 이후에 부딪히는 증오와 신랄함의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서 『양심의 위기』에서는 그러한 감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차분하고 객관적인 저자의 어투가 존경과 감탄을 불러일으킬 정도이다.”

— Dr. 인게마 린덴, Th.D., 스웨덴 스톡홀름, 다겐.

C R I S I S      O F      C O N S C I E N C E